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Karl Marx

자본론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

칼 맑스
자 본 론

정치 경제학 비판

제 1 권

제1부 : 자본의 생산 과정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6

목 차

제 13장 기계와 대공업	1
제 1절 기계의 발전	1
제 2절 기계 가치의 생산물로의 이전	22
제 3절 기계적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제 작용	33
a) 자본에 의한 추가 노동력의 취득.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	33
b) 노동일의 연장	45
c) 노동의 강화	53
제 4절 공장	67
제 5절 노동자와 기계와의 투쟁	78
제 6절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노동 자들에 관한 보상(補償) 이론	91
제 7절 기계적 생산의 발전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반발(反撥)과 흡인 (吸引), 먼 공업에서의 공황	104
제 8 절 대공업에 의한 마누팩투라, 수 공업 및 가내 노동의 혁명	121
a) 수공업과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폐절	121
b) 마누팩투라 및 가내 노동에 대한 공장의 반작용	123

c) 근대적 마누팩투라	125
d) 근대적 가내 노동	129
e) 근대적 마누팩투라 및 근대적 가내 노동의 대공업으로의 이행. 이 생 산 방식들에 대한 공장법들의 적용 에 의한 이 혁명의 촉진	135
제 9절 공장 립법(보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영국에서의 그것의 보급	149
제 10절 대공업과 농업	179

제 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 14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 가치	183
제 15장 노동력의 가격 및 잉여 가치의 크기의 변동	198
I. 노동일의 크기 및 노동 강도는 불변인데 (소여의 것인데) 노동 생산력이 가변인 경우	199
II. 노동일 및 노동 생산력은 불변인데 노동 강도가 가변인 경우	205
III. 노동 생산력 및 노동 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일이 가변인 경우	207
IV. 노동의 지속 기간, 생산력 및 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209
제 16장 잉여 가치률의 각이한 공식	214

제 6편 로 임

제 17장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로임에로의 전화.....	220
제 18장 시간제(時間制) 임금.....	231
제 19장 도급제 임금(개수 임금).....	242
제 20장 로임의 국민적 차이.....	254

제 7편 자본의 축적 과정

제 21장 단순 재생산	263
(자본의 부속물로서의 노동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제 22장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	282
제 1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상품 생산적 소유의 제 법칙 의 자본주의적 취득의 제 법칙으로 의 전화.....	282
제 2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정치 경제학상의 그릇된 이해.....	295
제 3절 잉여 가치의 자본과 소득으로의 분할. 절제론(節制論)	299
제 4절 자본 및 소득으로의 잉여 가치의 비례 적 분할과는 관계 없이 축적의 규모를	

규정하는 제 사정, 노동력의 착취 정도, 노동 생산력, 충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액의 장성, 전대 자본의 크기	310
---	-----

제 5절 소위 노동 폰드	324
---------------------	-----

제 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329

제 1 절 자본 구성이 불변인 경우에 있어서의 축적의 증가에 따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329
--	-----

제 2절 축적과 그것에 수반하는 집적 행정에 있어서의 가변 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	341
--	-----

제 3절 상대적 파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의 무진적 생산	350
--	-----

제 4절 상대적 파잉 인구의 각이한 제 존재 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366
---	-----

제 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의 예증	376
---------------------------------	-----

a) 1846—1866년의 영국	376
-------------------------	-----

b) 영국 공업 노동 계급중 지불이 열악한 층	384
---------------------------------	-----

(영양 조건, 주택 상태, 편면, 뉴갯슬-어폰-라인, 브
매드포드, 브리스틀)

c) 류랑민	397
--------------	-----

[주택 조건, 철도 노동자, 탄광 기타 광산의 노동자]

d) 노동 계급중 최고의 지불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공황의 영향	403
--	-----

[런던 동부의 철선 건조 노동자]

e) 영국 농업 프로레타리아트	410
------------------------	-----

[부랑 노동대]

f) 애탄	444
-------------	-----

제 24장 소위 시초 축적.....	465
제 1절 시초 축적의 비밀	465
제 2절 농촌 주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	469
15세기 70년 대 이후 및 16세기 초 수십년 간에 있어서 의 정지의 목장화. 종교 개혁과 교회 토지 약탈. 봉건 적 소유의 부르조아적 소유로의 전화. 왕정 복고와 《명 예 혁명》. 국유지의 약탈. 공동 소유지와 그 약탈. 스 코틀랜드 고지에 있어서의 《소유지의 청소》. 정지의 양 목장화 및 양목장의 수렵장화.	
제 3절 15세기 이래의 피수탈자에 대한 유형 적 립법. 로임 인하를 위한 제 법령	493
제 4절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사.....	504
제 5절 공업에 대한 농업 혁명의 반작용.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	508
제 6절 산업 자본가의 발생사	514
(식민 제도. 국채 제도. 근대적 조세 제도 및 보호 제 도. 대공업 초기의 아동 약탈.)	
제 7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530
제 25장 근대적 식민 이론.....	535
제 1권에 나오는 주요 인명 색인.....	549

제 13장 기계와 대공업

제 1 절 기계의 발전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의 《정치 경제학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하여진 모든 기계적 발명이 어떤 누구의 그날 그날의 수고를 경감하였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⁸⁶.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기계는 노동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기타의 온갖 수단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저렴하게 하며,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단축하며,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는 노동일의 다른 부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기계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산 방식의 변혁은 마누팩처라에 있어서는 노동력을 출발점으로 하고 대공업에 있어서는 노동 수단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 수단은 어떻게 도구로부터 기계로 전화되는가 또는 기계는 무엇에 의하여 수공업적 공구와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커다란, 일반적인 특징만인바, 왜냐 하면 사회사

⁸⁶ 밀은 《타인의 노동에 의하여 생활하지 않는 어떤 누구의》라고 말했어야 할 것인바, 왜냐 하면 기계는 팔자 좋은 게으름뱅이의 수탈의 실패를 막아 없이 대단히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史)의 제 시기는 지구사(地球史)의 제 시기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엄밀한 한 제선에 의하여 서로 구분되지는 않는 까닭이다.

수학자와 기계학자는——약간의 영국의 경제학자들도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도구는 간단한 기계이고 기계는 복잡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있어서 아무런 본질적인 구별도 보지 않으며 심지어 지레, 사면(斜面), 나선(螺旋), 켜기(楔) 등등과 같은 간단한 력학적 수단을 기계라고 칭하고 있다⁸⁷. 어떤 기계든 아무리 표장이 다르며 결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간단한 력학적 수단으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적 견지에서는 그러한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하면 그 설명에는 력학적 요소가 결여되고 있는 까닭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에 있어서는 인간이 동력이며 기계에 있어서는 동물, 물, 바람 등등과 같은 인간력과는 다른 자연력이 동력이라는 점에 도구와 기계와의 구별을 찾으려고 한다⁸⁸. 이에 의하면 각이한 여러 생산 시기에 속하는, 소가 끄는 쟁기는 기계일 것이며, 단 한 사람의 노동자의 손으로 운전되어 1분 간에 9만 6,000 편목(編目)을 짜 내는 클라우센식 회전 직조기는 단순한 도구일*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조기라도 손으로 운전된다면 도구일 것이며 증기로 운전된다면 기계일 것이다. 동물력의 적용은 인류의 가장 오

87 베컨대 헛튼의 《수학 강의》(런던, 1841—1843년, 1—2권)를 보라.

88 《이 견지에서 본다면 도구와 기계간에 실제 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 즉 호미, 마치, 끌 등등과, 아무리 교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동력으로 되는 지레 장치와 나선 장치……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구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이 동력으로 되는 쟁기와 바람 등등의 힘으로 돌아 가는 제분기는 기계의 부류에 넣어야 할 것이다》(힐헬름 슐츠 《생산의 운동》, 쉼리히, 1843년, 38페이지). 약간의 점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저서.

텐 발명의 하나이므로 사실 기계적 생활이 수공업적 생활보다 선행한 것으로 될 것이다. 존 와이트가 1735년에 자기의 방적 기계를 세상에 내놓고 그것으로써 18세기의 산업 혁명을 알리었을 때 그는 인간 대신에 나귀가 이 기계를 운전한다고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나귀의 것으로 되었다. 그의 요강(要綱)에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방적하기 위한》 기계라고 써여 있었다⁸⁹.

모든 발전된 기계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세 부분으로 즉 동력기, 전도 기구 끝으로 도구기 또는 작업기로 이루어진다. 동력기는 전체 기구의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그 중에는 증기 기관, 내연 기관, 전자기 기관(電磁氣 機關)과 같이 자기 자신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으며 또는 수차(水車)가 낙류(落

89 와이트 이전에 이미 극히 불완전한 것일망정 방적기가——아마도 최초에는 이탈리아에서——사용되고 있었다. 비판적인 기술학사(史)는 일반적으로 18세기의 발명이 그 어떤 것임을 막론하고 일개인에 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저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윈은 자연적 기술학사에 즉 동식물의 생활에 있어서 생산 도구로서 역할을 노는 동식물의 제 기관의 형성에 관심을 물리고 있었다. 사회적 인간의 생산적 제 기관(器官)의 형성의 역사, 즉 매개의 특수한 사회적 조직의 물질적 기초의 형성의 역사에도 그와 동일한 주의를 돌릴 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보다 용이하게 저술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비코가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자연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으로 양자는 구별되기 때문에. 기술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인 관계, 즉 인간 생활의 직접적인 생산 과정을, 그것과 아울러 인간의 사회적 생활 제 관계 및 이로부터 발원하는 정신적 제 묘상의 직접적인 생산 과정을 밝혀 준다. 이 물질적 기초를 사상하고 있는 전체 종교사(史)도 무비판적이다. 분석에 의하여 안개처럼 몽롱한 종교적 환상의 지상적(地上的) 핵심을 발견하는 것은, 거꾸로 그때 그때의 현실적 생활 제 관계로부터 그것들의 천상적(天上的) 제 형태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용이하다. 후자의 방법은 유일한 유물론적인 따라서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이다. 역사적 과정을 배제하는 추상적 자연 과학적 유물론의 결합은 그 대변자들이 일단 그들의 전문 영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미 그들의 추상적이며 관념론적인 제 묘상에서 갇힌다.

流)로부터 풍차(風車)가 바람으로부터 받는 동등과 같이 어떤 외부의 기존 자연력으로부터 충격을 받는 것도 있다. 전도 기구는, 절동륜(節動輪), 동축(動軸), 치륜(齒輪), 와륜(渦輪) 샤프트, 로프, 벨트, 소치륜(小齒輪) 및 각양 각색의 부속 장치로 이루어진 것인바, 그것은 운동을 조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의 형태를 변경시키어 페컨대 수직 운동(垂直運動)을 원(圓)운동으로 전화시키며 운동을 도구기에 배분하며 전달한다. 기구(機構)중 이상 량 부분은 오직 작업기에 운동을 전달함으로써 작업가로 하여금 노동 대상을 포착하여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기계의 이 부분 즉 작업기는 18세기에 있어서의 산업 혁명의 출발점이다. 현재에 있어서도 수공업 생산 또는 마누팩투라 생산이 기계 생산으로 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작업기가 출발점으로 된다.

이제 만약 우리가 도구기 또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작업기를 좀 더 세밀히 살펴 본다면, 대체로 형태는 종종 대단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수공업자와 마누팩투라 노동자가 그것들으로써 작업하던 바로 동일한 장치와 도구가 재현되어 있는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도구로서가 아니고 기구(機構)의 도구로서 즉 기계적 도구로서이다. 력직기에 있어서와 같이⁹⁰ 기계 전체가 구래의 수공업적 공구의, 다초간에 변경된, 기계적 재판인 것도 있으며, 방적기에서의 방추, 양말 직조기에서의 바늘, 제재기에서의 톱, 절삭기에 있어서의 칼 등등과 같이 작업기의 기체(機體)에 장치되어 작용하는 기관(器官)들로 구지(舊知)의 것들도 있다. 이 도구들과 작업기의 본래의 기체와의 구별은 멀리 그것들의 발생에까지 미친다. 즉 그것들은 지금도 그 대부분이 수공업적 방식 또는 마누팩투라적 방식으로 생산되며 그

90 특히 력직기의 시초의 형태에서는 구식 직기의 재현을 일견하여 인정할 수 있다. 력직기는 그 근대적 형태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후에야 비로소 기계적 방식으로 생산된 작업기의 기체에 장치된다⁹¹. 그리하여 작업기는 해당한 운동을 전달 받은 후에 자체의 도구들을 가지고, 종전에 노동자가 그와 유사한 도구들을 가지고 수행한 것과 동일한 조작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구(機構)이다. 동력이 인간으로부터 오는가, 또는 그 자체가 이번에는 기계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도구가 인간의 손을 떠나서 기구로 옮겨 간 후에는 단순한 도구 대신에 기계가 나타난다. 기계와 도구와의 구별은 인간 자신이 아직도 의연 동력인 경우에는 곧 눈에 띈다. 인간이 그것들으로써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구의 수는 그의 자연적인 생산 도구, 즉 인간 자신의 육체적 기관의 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한 명의 방적공에게 두 대의 물레(紡車)를 돌려 보려고 즉 동시에 양 손과 양 발로 작업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너무나 과도한 긴장이 요구되었다. 그 후에 두 개의 방추를 가진 발틀 물레가 발명되었으나 동시에 두 오라기의 실을 뽑을 수 있는 능숙한 방적공은, 쌍두인(雙頭人)만치나 거의 희귀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너라는 다추(多錘) 방적기는 당초부터 12—18개의 방추로써 방적하며, 양말 직조기는 단번에 수천의 바늘을 가지고 뜬다 등등.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기가 동시에 그것들으로써 작용하는 도구의 수는, 당초부터 기관적(器官的) 제한성들——노동자의 손 도구가 받고 있는——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많은 손 도구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력으로서의 인간과

91 대략 1850년 이래 비로소 영국에서는 작업기용 도구의 더욱 더 많은 부분이, 기계 그 자체를 제작하는 공장주에 의해서는 아닐지라도 기계적 방식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러한 기계용 도구의 제작을 위한 기계는 페컨대 자동식 실배 제작기, card-setting engine (술에 펄박는 기계), 북 제작기, 물—방추 및 쓰룻슬—방추 제작기이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의 인간과의 구별은 감성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페컨대 물레에 있어서 발은 동력으로서만 작용하는데 한편 방추에 붙어서 작업하는 손은 실을 잡아 내던가 꼬던가 하는 본래의 방적 조작을 수행한다. 산업 혁명은, 처음에는 수공업적 공구의 바로이 후자의 부분을 포착하며, 동력이라는 순전히 기계적인 역할은 눈으로 기계를 감시하며 손으로 기계의 착오를 시정하는 새로운 노동과 아울러, 우선은 아직 인간에게 위임한다. 이와는 반대로 페컨대 연자망 자루를 돌리던가⁹², 펄프질을 한다던가, 풀무질을 한다던가, 절구질을 한다던가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처음부터 인간이 단순한 동력으로서만 작용하는 그러한 도구는 확실히 제일 먼저 동력으로서 동물과 물과 바람⁹³의 적용을 환기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부분적으로는 마누콰투라 시기에, 산발적으로는 벌써 그보다 훨씬 전에 기계로 발전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생산 방식을 변혁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 수공업적 형태로서도 벌써 기계이라는 것은 대공업 시기에 분명하게 된다. 페컨대 화란 사람들이 1836--1837년에

92 애굽인 모세는 말하기를 《마당질하는 소의 입에 굴레를 씌우지 말라》(《성경》, 제 5부, 모세 편, 제 25장, 제 4절)고. 이와는 반대로 게르만인의 기독교적 박애가(博愛家)들은 망질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한 자기의 농노의 목에 커다란 목제 원판(圓板)을 매워 그가 가루를 손으로 집어서 입에 가져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93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인 락류의 결집이, 부분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남아 돌아 가는 물파의 투쟁이 화란인들로 하여금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풍차 그 자체는 화란인이 독일로부터 입수한 것인데 그 독일에서는 풍차의 발명, 귀족과 승려와 황제간에, 대체 바람은 그들 삼자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맹렬한 싸움을 일으켰다. 독일에는 풍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바람은 화란을 자유롭게 하였다. 여기에서 바람이 예속시킨 것은 화란 사람들이 아니고 화란 사람들을 위한 토지였다. 1836년에 이미 화란에서는, 나라의 3분의 2가 다시 습지(濕地)로 돌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0 마력을 가지는 12,000개의 풍차가 사용되었다.

할렘호(湖)의 물을 퍼 내기 위하여 사용한 펌프는 보통 펌프의 원리에 의하여 제작된 것인바 다만 다른 점은 그 피스톤을 운동시킨 것이 인간의 손이 아니고 거대한 증기 기관이었다는 점이다. 야장쟁이가 보통 사용하는 극히 불완전한 풀무가, 영국에서는 아직도 때때로 단순히 그 손잡이를 증기 기관에 결부시킴으로써 기계적 공기 펌프로 전화된다. 17세기 말엽 마누팩투라 시기에 발명되어 18세기 80년 대 초까지 존속한 것과 같은 그러한 증기 기관⁹⁴조차 아무런 산업 혁명을 환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바로 작업기의 창조가 증기 기관에 있어서의 혁명을 필연적으로 하였다.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노동 대상에 작용할 대신에 단순히 동력으로서 작업기에 작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동력의 담당자가 인간의 근육이라는 사실은 벌써 우연적인 것으로 되며, 바람, 물, 증기 동등이 그 대신에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대체가 본래는 인간적 동력만을 타산하고 만들어진 기구(機構)에 있어서 커다란 기술적 변화를 종종 요구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재봉기, 빵 제조기 등등과 같이 이제부터 자체의 진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든 기계는, 만약 그것들의 사명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 소규모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적 동력과 순 기계적 동력파에 동시에 맞도록 제작된다.

산업 혁명의 출발점인 기계는 단 한 개의 도구만을 부리는 노동자 대신에 다수의 동일 또는 동종의 도구로써 단번에 조작하며 그 형태는 여하간 단 한 개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그러한 기구를 가져 온다⁹⁵. 이것은 기계인바 그러나 아직 기

94 사실 이것은 단동식(單動式)증기 기관이라고 칭하는 왓트의 최초의 증기 기관에 의하여 이미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이 형태로서는 의연 물과 염전(鹽泉)을 빨아 올리는 단순한 양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95 《한 개의 공통적인 동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러한 모든 간단한 공구들을 결합한 것이 기계를 이룬다》(발베이지 《기계의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 [136페이지]).

제적 생산의 단순한 요소로서의 기계이다.

작업기의 규모의 확대 및 동시에 조작하는 도구 수의 증대는 보다 큰 동력 기구를 요구하며, 이 기구는 그 자체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인간이 균일하고 연속적인 운동의 생산 도구로서는 극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도외시하더라도——인간적 동력보다는 더 강력한 동력을 요구한다. 인간이 이미 단순한 동력으로서만 작용하며 따라서 그의 도구 대신에 작업기가 나왔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제는 자연력이 동력으로서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 마누팩투라 시기로부터 전하여 온 모든 대동력중에서 마력(馬力)이 가장 열악한 것이였는바 그 이유의 하나는, 말이 자기 자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며 다른 하나는, 말은 비용이 많이 들며 또 오직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까닭이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96 1861년 1월에 존 C. 모르튼은 기술 협회 석상에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힘들》이라는 하나의 보고를 낭독하였다. 거기에서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로지의 균일성을 높이는 온갖 개선은 순전히 역학적인 힘을 생산하기 위한 증기 기관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구불구불한 올라타와 기타의 장애물들이 균일한 동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에서는 말의 힘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육체력보다는 비교적 의지의 발동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조작들에 있어서는 매 순간마다 인간의 정신에 의하여 향도되는 힘인 인간력만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모르튼씨는 증기력과 마력과 인간력을, 증기 기관에 상용되고 있는 측정 단위로, 즉 1분간에 3만 3,000 파운드의 무게를 1피트만큼 끌어 올리는 힘으로 환원하여 1증기 마력의 비용을 매 시간당 증기 기관의 경우에는 3펜스, 말의 경우에는 5½ 펜스로 계산하고 있다. 또 말은 그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부릴 수 없다. 로지의 경작에 증기력을 사용하면 1년을 통하여 매 7두의 말 중 적어도 3두는 절약할 수 있는데 증기 기관에 대한 1년 간의 비용은 절약된 말들에 대한 3내지 4개월 간——말들은 실제로는 이 기간만 리용된다——의 비용보다 크지 않다. 끝으로 증기력이 사용될 수 있는 농경 작업에 있어서는 증기력은 마력에 비하여 작물의 질을 개선한다. 증기 기관이 하는 일을 하며

대공업의 유년기에 매우 빈번히 사용되었으니 이 사실은 당시의 농학자들의 불평은 고사하고 오늘날까지도 기계력을 마력으로 표현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바람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일정하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우에 또 대공업의 발상지(發祥地)인 영국에서는 수력의 사용이 이미 마누팩투라 시기에 우세하였다. 이미 17세기에, 두 개의 회전석(廻轉石), 따라서 또 두 개의 연자망을 한 개의 수차로써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도기구(傳導機構)의 규모의 증대는 이제는 충분치 못한 수력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찰 법칙(摩擦法則)의 일층 정밀한 연구를 요구한 사정의 하나이다. 또 마찬가지로 지베'대를 밀었다 당겼다 해서 운전시킨 제분기에 있어서 동력의 작용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이 그후 대공업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 절동륜(節動輪)⁹⁷의 리론과 응용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이 마누팩투라 시기는 대공업의 최초의 과학적 및 기술적 요소들을 발전시켰다. 아크라이트의 쓰로슬 방적기는 처음부터 물로서 운전되었다. 그러나 수력을 주되는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각종 곤란한 사정을 수반하고 있었다. 수력은 임의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수 없었고 그 부족을 보충할 수도 없었으며 그것은 때로는 고갈되기도 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순전히 지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⁹⁸. 왓트의 제 2의 소위 복동식(複動式) 증기기관의 발명으로써 비로소, 석탄과 물을 소비하면서 그 자체가 동력을 생산하는 또 그 능력이 완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그러한 최초의 원동기가 발견되었는바, 이 원동기는 가동적

면 1시간 당 도합 15실링의 임금으로 66명의 노동자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말이 하는 일을 하려면 1시간 당 도합 8실링의 임금으로 32명의 노동자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97 파울리버식 1625년, 드 코식 1688년.

98 근대의 터빈의 발명은 수력의 공업적 이용을 종래의 허다한 제한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인 동시에 그 자체가 이동의 수단이며 도시적이며 수차와 같이 농촌적이지 아니며, 또 수차와 같이 생산을 농촌에 분산시키지 않고 도시에 집중시키는 것을 허용하며⁹⁹, 그 기술학적 응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그 소재지에 있어서 지방적 사정들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일이 비교적 적다. 와트의 위대한 천재는, 그가 1784년 4월에 취득한 특허권의 명세서에 '나라나 있는바 거기에서 그의 증기 기관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발명으로서가 아니고 대공업의 보편적 동력기로서 서술되어 있다. 그는 이 명세서에서 응용에 관하여 시사(示唆)를 주고 있는바 그 중에는 폐건대 증기 망치와 같이 반세기 이상을 지나서야 겨우 도입된 것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증기 기관을 함해에 응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제승자들인 볼튼과 와트〔존 와트〕는 1851년 런던 공업 박람회에 대양(大洋)기선용의 거대한 증기 기관을 출품하였다.

도구가 인간 유기체의 도구로부터 기계적 장치 즉 작업기의 도구로 전화된 후에야 동력기도 비로소 인간력과 결부되어 있던 그러한 제한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상에서 고찰한 개개의 작업기는 기계적 생산의 다만 하나의 요소로 전락된다. 이제 한 개의 동력기가 다수의 작업기를 동시에 운전시킬 수

99 《직물 마누팩처라의 초기에 공장의 위치는 수차를 물리는 데 충분한 낙차(落差)가 있는 류수의 유무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비록 수차식 공장의 설치에 가내 공업 제도의 해체의 단서로 되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류수'가에 또 빈번히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를 정하고 있던 이러한 수차식 공장들은 도시적 체계의 일부라기 보다는 오히려 농촌적 체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류수 대신에 증기력이 도입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장들은 증기의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도시 및 지방으로 집중되었다. 증기 기관은 공업 도시의 어머니이다》(A. 레드그레이브 《1866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36페이지).

있게 되었다. 동시적으로 운전되는 작업기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동력기도 장성하며 또 그와 아울러 전도 기구도 확대되어 하나의 복잡한 장치로 된다.

이제는 우리는 다수의 동종의 기계의 협업과 기계 체계라는 두 가지 사물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 전체가 동일한 작업기에 의하여 수행된다. 즉 한 사람의 수공업자가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폐컨대 한 사람의 직조공이 자기의 직조기를 가지고 수행한 각종 조작들——또는 여러 수공업자가 자립적으로 하든지 혹은 동일한 마누팩투라의 일성원으로서 하든지 간에, 각종 도구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행한 각종 조작들——이 일체 동일한 작업기에 의하여 수행된다¹⁰⁰. 폐컨대 근대의 편지 봉투 제조 마누팩투라에서는 한 노동자는 접지 칼을 가지고 종이를 접고, 다른 한 노동자는 고무 풀칠을 하고, 제 3의 노동자는 꽃 모양이 찍힐 봉투 뚜껑을 접고, 제 4의 노동자는 꽃 모양을 찍는 동동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개 부분 조작을 할 때마다 개개의 봉투는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는 단 한 대의 봉투 제조기가 단번에 이 모든 조작들을 수행하여 한 시간에 3,000매 이상의 봉투를 제조한다. 1862년의 런던 공업 박람회에 출품된 한 대의 아메리카제 종이 봉지 제조기는 종이를 자르고 풀칠을 하고 접어서 1분 간에 300개를 완성한다. 마누팩투라 내부에서는 분할되어 있으며 또

100 마누팩투라적 분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직조는 간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한 수공업적 노동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력직기는 극히 다양한 것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근대적 기계가 최초로 정복한 것은 마누팩투라적 분업에 의하여 간단하게 된 조작들인 듯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이다. 방적과 직조는 마누팩투라 시기에 새로운 종(種)물로 분화되었으며 그것들의 도구는 개량되었고 또 변경되었으나 그러나 노동 과정 그 자체는 조금도 분할되지 않고 의연 수공업적이었다. 기계의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노동 수단이다.

순차로 수행되는 전체 과정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도구의 결합에 의하여 작용하는 한 개의 작업기에 의하여 완수된다. 이제 이와 같은 작업기가 복잡한 수공업적 도구의 기계적 재생에 지나지 않던 또는 마누팩투라에 의하여 특수화된 간단한 각종 도구의 결합이던 간에, 공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계적 생산에 기초한 작업장에서는 언제나 단순 협업이 재현하며, 그것도 우선은 (로동자는 여기에서는 도외시한다) 동시에 함께 작용하는 동종의 작업기의 공간적 집합으로서 재현한다. 「그러하여 페컨대 직조 공장은 동일한 작업장 내에 병렬(併列)된 다수의 려직기로써 구성되며 재봉 공장은 병렬된 다수의 재봉기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기술상 통일이 있는바, 그것은 다수의 동종 작업기가 공통적인 원동기의 심장의 고통으로부터 동시에 또 균등하게 충동을 받으며, 작업기들에 그 충동을 전달하는 전도 기구도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에 공통적——왜냐 하면 매개 작업기들을 향하여 갈라져 나가고 있는 것은 전도 기구의 특수한 선단(先端)에 불과하므로——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도구가 한 개의 작업기의 기관(器官)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수의 작업기가 동일한 동력 기구의 동종의 기관들을 형성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기계 체계는 로동 대상이, 호상 보충하는 각종 작업기의 련쇄(連鎖)에 의하여 수행되는, 각이한 단계적 과정들의 련관적인 한 개 계열(系列)을 통과하는 그러한 경우에야만 비로소 개별적인 자립적 기계 대신에 등장한다. 이 경우에는 마누팩투라에 특유한,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재현하는바, 그러나 이제는 부분적 작업기들의 결합으로서이다. 각이한 부분적 로동자들의 특수한 도구들, 페컨대 양모 마누팩투라에서 타모공(打毛工), 소모공(梳毛工), 전모공(剪毛工), 모방적공 등등의 특수한 도구들은 이제는 전문화된 작업기의 도구들로 전화되는바, 그 각개는 결합된 도구—기구

(機構)의 체계에 있어서 한 개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의 특수한 기관(器官)을 형성한다. 기계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그러한 부문들에서는 대체로 마누팩투라 그 자체가 기계 체계에 대하여 생산 과정의 분할의, 따라서 또 그 조직의, 자연 발생적 기초를 제공한다¹⁰¹. 그러나 곧 마누팩투라적 생산과 기계적 생산 간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마누팩투라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든, 그루빠적으로든, 그들의 손 도구를 가지고 특수적인 매개 부분적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가 과정에 적응되지만 그러나 과정도 또한 미리부터 노동자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분업 원칙은 기계적 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여기에 있어서는 총과정은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서 고찰되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제 단계로 분석되며, 각개의 부분적 과정의 수행과 각이한 부분적 과정들의 통합의 문제는 기계학, 화학 등등의 기술적 응용에 의하여 해결되는바¹⁰², 이 경우에도 물론

101 대공업 시기 이전에는 양모 마누팩투라가 영국의 지배적 마누팩투라이었다. 그러므로 18세기 전반기에 있어서는 양모 마누팩투라에서 대부분의 실험들이 실시되었다. 양모에서 얻은 경험은, 기계적 가공의 준비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면화에 리용될 수 있었는데, 그후에는 오히려 기계적 양모 공업이 기계적 면방적업과 직조업에 기초하여 발전한다. 양모 마누팩투라의 개별적인 요소들, 페컨대 소모(梳毛)같은 것은 최근 수십년 때 비로소 공장 체계에 포섭되었다.《소모 과정에의 기계력의 적용은……(소모기), 특히 리스터식 소모기가 도입된 이때 광범하게 보급된 것으로서……극히 많은 사람들을 실직(失職)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양모는 이전에는 손으로, 대개 소모업자의 집에서 빚겨졌던 것이다. 현재는 양모는 보통 공장에서 빚겨지며, 손 노동은, 아직도 손으로 빚긴 양모를 낫게 여기는 약간의 특수한 종류의 작업 이외에서는 폐지되었다. 수(手)소모공 중 다수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으나 그러나 수 소모공의 생산물은 기계의 생산물에 비하여 극히 소량인만큼 소모공의 대다수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졌다》(『185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6페이지).

102 《따라서 공장 제도의 원칙은……수공업자들 간에 로동을 분할 또는 분해할 대신에 과정을 그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로 구분하는 데 있

론리적 개념은, 종전과 같이, 대규모로 축적된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완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매개 부분적 기계는 바로 그 다음 기계에 원료를 공급하는바, 그것들은 모두 동시에 작용하므로 생산물은 연속적으로 그 형성 과정의 각이한 제 단계에 있으며, 또한 연속적으로 한 생산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에 이행한다. 마누팩투라에 있어서 부분적 노동자들의 직접적 협업이 개별적 노동자 그루빠들 간에 일정한 수'적 비율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제된 기계 체계에 있어서도 일방의 부분 기계들이 타방의 부분 기계들에 '부단히 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수와 규모와 그것들의 속도간의 일정한 비율이 조성된다. 이제 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개별적 작업기들과 그 그루빠들의 편제된 한 개의 체계인, 결합된 작업기는, 그것에 의하여 수행되는 총과정이 연속적이면 연속적일수록 즉 그 과정의 최초 단계로부터 그 최종 단계에로의 원료의 이행이 중단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따라서 원료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구 자체에 의해서 생산의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에로 추진되면 될수록, 더욱 완전한 것으로 된다. 마누팩투라에 있어서는 개별적 과정들의 고립화가 분업 그 자체에 의하여 주어지는 원칙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발전된 공장에 있어서는 개별적 과정들의 연속이라는 다른 원칙이 지배한다.

기계의 체계는, 직조업에 있어서와 같이 동종 작업기들의 단순 협업에 팀각하든 또는 방직업에 있어서와 같이 이종(異種) 작업기들의 결합에 팀각하든 간에, 그것이 자체 운동을 하는 한 개의 원동기에 의하여 운전되자마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자동 장치를 형성한다. 그러나 체계 전체는 폐쇄된 증기 기관에 의하여 운전될 수 있으면서도, 개별적 작업기가 일정한 운동물을 위하여 아직도 노동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든가

——레컨대 자동식 물 방적기가 도입되기 전에, 물 방적기로 작업할 때에 있어서와 같이 또 아직도 세사(細絲)방적에 있어서와 같이——또는 선반 활대(旋盤 滑臺)가 자동식으로 전화되기 전의 기계 제작에 있어서와 같이 기계의 일정한 부분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의하여 조종되지 않으면 안되든가 한다. 작업기가 원료의 가공에 필요한 일체의 운동을, 인간의 조력 없이 수행하며 오직 노동자 측으로부터의 통제만을 필요로 하게 되자 우리는, 기계의 자동체제——그러나 그 세부에 있어서는 부단한 개량이 가해질 수 있는——를 갖는다. 레컨대 실이 단 한 올만 끊어져도 방적기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와, 북 속에 있는 실패에서 위사(緯絲)가 없어지자마자 개량식 증기 직조기를 정지시키는 자동 정지기와 같은 것은 전혀 근대적 발명물이다. 생산의 연속성과 아울러 자동식 원칙의 실시의 실패로 될 수 있는 것은 근대적 제지 공장이다. 제지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수단에 기초를 두는 각이한 생산 방식들의 구별과 이 생산 방식들과 사회적 생산 제 관계와의 연관을 연구할 수 있는 편이가 있는바, 그것은 이 부문에서 고대 독일의 제지업은 수공업적 생산의 표본을, 17세기의 화란과 18세기의 불란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팩투라의 표본을, 근대의 영국은 자동적 제조의 표본을 제공하여 주며, 그 우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 공업의 두개 각이한 고대 아세아적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 개의 중앙적 자동 장치로부터 오직 전도 기구를 통해서만 자기의 운동을 받는 작업기들의 편성된 체제에 있어서 기계적 생산은 자기의 가장 발전된 형상을 취한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기계 대신에 한 개의 기계적 퍼물이 등장하는바, 그것의 체구(體軀)는 공장 건물 전체를 차지하며, 그것의 마술 같은 힘은 처음에는 그 거대한 지체(肢體)들의 저으기 장엄하고 신중한 운동에 의하여 억제되지만 드디어 그 무수한 본래적인 작업

기관(器官)들의 열광적 란무(亂舞)로 폭발한다.

물 방적기, 증기 기관 등등은 그런 것들의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재봉사가 있기 전에 인간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과 똑 같다. 그러나 보켄슨, 아크라이트, 왓트 등등의 재 발명은 오직 이 발명가들이 마누팩투라 시기에 의하여 이미 준비된, 상당한 수의 기능있는 기계 노동자를 발전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일부분은 각종 직업의 자립적 수공업자들로써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른 일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분업이 특히 엄격하게 지배하고 있던 마누팩투라에 통합되어 있었다. 발명들의 증가와 새로 발명된 기계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다양한 독립적 부문에로의 기계 제작의 분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 제작 마누팩투라 내부에서의 분업이 더욱 더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마누팩투라에 있어서 대공업의 직접적인 기술적 기초를 본다. 대공업이 최초로 포착한 생산 부문들에서 수공업 생산과 마누팩투라 생산을 폐지하는데 대공업에 의하여 사용된 기계는 마누팩투라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계적 생산은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기초 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기계적 생산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기성 형태 그대로서의, 다음에는 낡은 형태에서 가일층 완성된, 이 기초를 변혁하며, 그 자체의 생산 방식에 상응하는 새로운 토대를 자체를 위하여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개개의 기계는 그것이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동안은 외연 왜소(矮小)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기계 체제는 현존 동력——동물, 바람, 또 지어는 물——대신에 증기 기관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공업도 그것에 특징적인 생산 수단인 기계 그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개인적인 힘과——개인적인 기능에 의존하고 있었던 동안은, 다

시 말하면 마누팩투라 내부에서는 부분 노동자가 또는 마누팩투라 밖에서는 수공업자가 그들의 왜소한 공구를 조종하던 발달한 근육과 예민한 시력과 능란한 손씨에 의존하고 있던 동안은, 전체 발전이 불완전하였다. 그리하여 기계가 이와 같은 유풃를 가지는 결과 고가(高價)라는 사정——이 사정은 의식적 동기로서 자본을 지배한다——을 도외시하더라도 이미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공업의 확대와 기계의 새로운 생산 부문들로의 침투는, 그들의 직업의 반(半)에 걸쳐 본성 때문에 비약적으로 아니고 오직 점차적으로만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 부류의 장성에 전혀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공업은 기술적으로도 자기의 수공업적 및 마누팩투라적 토대와 충돌하게 된다. 동력기와 전도 기구는 작업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작업기가 본래 그것의 제작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수공업적 모형(模型)과 절연되고 그것의 기계적 파업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자유로운 형상(形狀)을 취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 작업기의 제 구성 부분의 복잡성과 다양성과 그리고 또 엄격한 규칙성을 증대시키는 것, 자동적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레컨대 목재 대신에 철과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자재를 더욱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¹⁰³——이러한 모든 것

103 력직기는 그 최초의 형태에 있어서는 주로 목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량된 근대적인 것은 철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 수단의 낡은 형태가 처음에는 그 새로운 형태를 얼마나 심히 지배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대적 증기 직조기와 구식 직조기를, 주물 공장의 현대적인 추풍 장치와 보통 풀무의 쓸 모도 없는 초기의 기계적 재생물파를, 극히 피상적으로나마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또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기관차가 발명되기 전에 시험해 본 그 기관차를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바, 그 기관차는 실로 두 개의 발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달 모양으로 번갈아 올렸다 내렸다 했던 것이다. 기계학이 일층 발전하고 실천적 경험이 쌓아진 후에야 비로소 기계의 형태는 완전히 기계학적 원리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현재 발전하여 기계로 되는 도구의 전 때적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들이 해결을 요하는 자연 발생적인 제 과업이었는바 이것들의 해결은 도처에서 인적(人的) 제한들, 즉 작업이 노동자들의 개성에 의존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리고 마누팩투라내에 결합된 노동 인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타파하였으나 본질상으로는 타파하지 못한 그러한 인적 제한들에 봉착하였다. 레컨대 근대적 인쇄기와 근대적 증기 직조기와 근대적 소모기(梳毛機)와 같은 기계들을 마누팩투라는 창조할 수 없었다.

공업의 한 분야에서 일어 난 생산 방식의 변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생산 방식의 변혁을 조건 짓는다. 이것은 우선, 물론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고립된 결과 각자는 자립적인 상품을 생산하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종과정의 여러 단계로서 서로 엮여 있는 그러한 공업 부문들에 타당한다. 그리하여 레컨대 기계 방적업은 기계 직조업을 필요로 하였으며 또 이 양자는 함께 표백업, 염염업(捺染業), 염색업에 있어서의 기계학적 화학적 혁명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면 방적업에 있어서의 혁명은, 면 섬유를 목화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면기(繰綿機)의 발명을 환기하였으며, 현재 필요로 하는 대규모적인 면 생산은 이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¹⁰⁴. 그러나 바로 공업 및 농업의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혁명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일반적인 제 조건 즉 교통 수단과 운수 수단에 있어서의 혁명을 필요로 하였다. 부업적 가내 공업을 가진 소규모 농업과 도시 수공업을 주축(樞軸)으로 한——푸리에의 표현을 빌린다면——사회의 교통 수단과 운수 수단은 확대된 사

104 앙기 출신인 엘리, 윗토니에 의하여 발명된 조면기는 최근 시기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어떠한 다른 기계에 비하여도 본질적인 변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 최근 수십년 (1867년 이전)간에야 비로소 다른 미국인 뉴욕주(州) 알바니 출신의 에메리씨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개량을 가함으로써 윗토니식 기계를 진부한 것으로 만들었다.

회적 분업과, 노동 수단 및 노동자의 집중과, 식민지 시장을 가진 마누팍뚜라 시기의 생산상의 제 욕망을 도저히 더는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실에 있어서도 변혁되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누팍뚜라 시기로부터 물려 받은 운수 수단과 교통 수단은 열병적(熱病的)인 생산 템포와, 방대한 규모와, 생산의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에로의 다량의 자본 및 노동자들의 부단한 이동과, 새로 창조된 세계 시장적 연관들을 가진 대공업에게는 이내 참을 수 없는 제동기(制動機)로 전화되었다. 그러므로 교통 기관과 운수 기관은, 범선(帆船) 건조에 있어서의 완전한 변혁은 고사하고라도, 하천 기선, 철도, 해양 기선 및 전선의 체계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대공업의 생산 방식에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단조(鍛造)하며, 단접(鍛接)하며, 절단(切斷)하며, 찬공(鑽孔)하며, 조형(造型)해야 할 엄청난 많은 분량의 철은, 그것대로 또, 마누팍뚜라적 기계 제작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거대한 기계들을 요구하였다.

그러하여 대공업은 그에 특징적인 생산 수단인 기계 그 자체를 장악하며 기계로써 기계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공업은 자기에게 적합한 기술적 로대를 창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되었다. 19세기의 최초 수십년 간에 있어서 기계적 생산의 장성에 따라 사실상 기계는 점차적으로 작업기의 제작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방대한 철도 부설과 해양 기선의 항행이, 원동기 제작에 사용되는 거인적 기계들을 출현시킨 것은 겨우 최근 수십년에 속한다.

기계에 의한 기계의 제작을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생산 조건은 임의의 정도로 동력을 낼 수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동력기였다. 그러한 동력기는 증기 기관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 평면, 원, 원통(圓筒), 원추(圓錐), 구(球)와 같은 기계의 개

별적인 부분들에 필요한 엄밀히 기하학적인 형태를 기계적·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이 문제는 19세기 최초의 10년 대에 헨리 모즐리가 선반 활대(滑台)를 발명함으로써 해결하였는바, 이것은 곧 자동적 기구로 전화되었으며 그리고 시초에는 선반용으로 예정되었던 것이나 변경된 형태로 선반으로부터 다른 공작 기계(工作機械)들로 옮겨졌다. 이 기계 장치에 의하여 대체(代替)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도구가 아니고 사람의 손——절삭 공구 등등의 끝을 레컨대 철판과 같은 로동 재료에 향하여 접근 또는 그 위에 대며 맞추며 방향을 잡음으로써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이다. 이리하여 기계의 개별적 부분들의 기하학적 제 형태를 《손으로는 가장 능숙한 로동자가 아무리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으로써 생산》¹⁰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만약 우리가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에서,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도구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고찰하여 본다면 거기에는 수공업적 공구가 다시——그러나 거대한 규모로——나타나 있다. 레컨대 찬공기(鑽孔機)의 조작(操作) 부분은 증기 기관에 의하여 운전되는 거대한 송곳인바,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대형 증기 기관 및 수압기(水壓機)의 원통(圓筒)은 생산되지 못할 것이다. 기계—선반은 보통의 발틀—선반의 거인적인 재생물이며, 평삭기(平削機)는 목수가 목재를 가공하는 데 쓰는 것과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철을 가공하는 철제(鐵製)

105 《제 국민의 공업》 런던, 1855년, 제 2부, 239페이지. 바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이 선반 부족물은 간단하며 얼핏 보아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기계의 개량과 보급에 대한 그 영향은 왓트에 의하여 증기 기관 그 자체에 가하여진 개량의 영향에 필적할만큼 위대하였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의 도입은 즉시로 온갖 기계의 개량과 그 가격의 저렴화를 가져 왔으며 또 새로운 발명과 개량에 대한 자극으로 되었다》.

목수이며, 런던의 조선소에서 베니야 판을 베는 도구는 거대한 면도 칼이며, 재봉 가위가 천을 베듯이 철을 베는 기계—가위의 도구는 거창한 가위이며, 그리고 증기 망치는 보통의 망치 대가리——그러나 퇴신(雷神)도 휘두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무게를 가진——를 가지고 조작한다¹⁰⁶. 폐전대 네스미쓰의 발명물인 그러한 증기 망치의 하나는 6톤 이상의 무게가 있으며, 7피트의 고도로부터 중량 36톤의 밀판 위에 수직(垂直)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화강 암괴(岩塊)를 가루로 만드는 것쯤은 장난삼아 할 수도 있으며 또 가볍게 편타함으로써 연한 목재에 못을 박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다¹⁰⁷.

로동 수단이 기계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자연력들에 의한 인간력의 대체(代替)와 자연 과학의 의식적 응용에 의한 경험적 숙련의 대체를 조건 짓는 물질적 존재 형태를 취한다. 마누팩추라에 있어서는 사회적 로동 과정의 편제는 순전히 주체적이며 부분 로동자들의 결합인데, 기계 체계에 있어서는 대공업은 전연 객관적인 생산 유기체——로동자에게 기존의 물질적 생산 조건으로 되어 있는——를 갖는다. 단순 협업에 있어서는, 또 분업에 의하여 전문화된 협업에 있어서조차 사회화된 로동자에 의한 개별화된 로동자의 구축은 아직도 다소 간에 우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기계는, 차후에 말하게 될 약간의 예외를 제하고는, 오직 직접 사회화된 로동 즉 공동적 로동에 의하여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로동 과정의 협업적 성격은 로동 수단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명령되는 기술적 필연으로 된다.

106 런던에서 기선의 외륜(外輪)의 축을 단조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기계의 하나는 《퇴신》이라는 이름이다. 그것은 16 1/2톤의 중량을 가진 축을 대장쟁이가 제철(蹄鐵)을 단조하듯이 용이하게 단조한다.

107 소규모로도 사용될 수 있는 목재 가공기들은 대부분이 미국인의 발명물이다.

제 2 절 기계 가치의 생산물제로의 이전

우리는 협업과 분업으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회적 노동의 자연력이다. 생산 과정에 응용되는 증기, 물 등과 같은 자연력도 역시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하기 위해서는 폐를 필요로 하듯이 인간은 자연력을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의 창조물》을 필요로 한다. 물의 동력을 리용하기 위해서는 수차가 필요하며, 증기의 탄력(彈力)을 리용하기 위해서는 증기 기관이 필요하다. 과학에 관해서도 사정이 자연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전류의 작용 범위내에 있어서의 자침(磁針)의 편倚(偏倚)에 관한 법칙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전류가 돌고 있는 철에서 자기가 발생하는 데 관한 법칙이라든가는 한 번 발견된 후에는 한 톨의 비용도 요하지 않는다¹⁰⁸. 그러나 이 법칙들을 전신 등에 리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비용이 들며 복잡한 장치가 요구된다. 도구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기계에 의하여 구축 당하지 않는다. 도구는 인간 유기체에 적합한 왜소한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기구에 적합한 도구로 된다. 자본은 이제는 노동자를 손 도구

108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본가가 과학을 리용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자본은 그것이 타인의 노동을 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과학을 점유한다. 그러나 과학이란 물질적 부이든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점유와 《개인적》 점유는 전연 별개의 것이다. 유어 박사 자신 기계를 리용하는, 그의 친애하는 공장주들이 기계학에 관하여 도무지 전식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였으며 또 리비히는 영국의 화학 공장주들이 화학 분야에서 놀랄만치 무식하다는 데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로써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체의 도구를 조종하는 기계로써 일시킨다. 그러나 그와 같이 대공업이 생산 과정을 위하여 거대한 자연력과 자연 과학을 장악함으로써 노동 생산 능력을 비상히 제고시키는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은 일견하여 분명하지만 이러한 생산력의 제고는 다른 편에 있어서의 노동 지출의 증대에 의하여 얻어진다는 것은 결코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다. 불변 자본의 온갖 다른 구성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계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으나 그러나 기계는 그것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전시킨다. 기계가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생산물에 가치를 이전시키는 한에 있어서 기계는 생산물의 가치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룬다. 기계는 생산물의 가치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가치에 비례하여 생산물의 가치를 등귀시킨다. 그리고 대공업에 특징적인 노동 수단인 기계 및 발전된 기계 체계가 수공업적 생산 및 마누팩투라적 생산에 있어서의 노동 수단에 비하여 비교 안 되리만큼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면 우선 말해야 할 것은 기계는 노동 과정에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참가하지만 가치 형성 과정에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기계는 그것이 소모되는 결과 평균적으로 상실하는 가치 이상은 결코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기계의 가치와 주기적으로 기계로부터 생산물로 이전되는 가치 부분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가치의 형성 요소로서의 기계와 생산물의 형성 요소로서의 기계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기계가 동일한 노동 과정에서 반복하여 쓰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 수단 즉 생산 도구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노동 과정에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참가하고 가치 형성 과정에는 항상 그것의 매일의 평균적 마멸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거나 리용과 소모간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에 있어서는 도구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크다——왜냐 하면 기계는 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로써 제작되어 있으므로 수명이 더 길며 또 그것의 리용은 엄격히 과학적인 법칙들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그 구성 부분들과 그것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수단들의 지출에 있어서 더 큰 절약을 가능케 하며 끝으로 기계의 생산적 무대는 도구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 안 되리만큼 더 광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기계와 도구의 양자로부터 그것들에 대한 매일의 평균적 비용 즉 그것들이 매일의 평균적 마멸과 그리고 폐icken 기름, 석탄 등과 같은 보조 재료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 구성 부분을 계산 밖에 둔다면 그것들은 인간 노동의 조력이 없이 현존하는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계의 생산적 활동의 범위가 도구의 그것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기계의 무상 봉사의 크기도 도구의 그것에 비하여 그만큼 더 크다. 대공업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과거의 이미 대상화된 노동의 생산물을 자연력과 같이 대규모로 무상으로 작용케 하는 것을 배운다¹⁰⁹.

협업과 마누팩뚜라를 고찰하면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일

109 리카도는 가끔 기계의 이러한 작용——하기는 이것은 노동 과정과 가치 형성 과정간의 일반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그에 의하여 해명되지는 못하였지만——에 비상한 주의를 돌린 결과 기계가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가치 부분을 때로는 망각하고 기계를 자연력과 전연 혼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페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아담 스미스는 자연적 요인들과 기계가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를 어디서나 파소 평가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상품에 첨가하는 가치의 본성을 아주 정당하게 구별하고 있다.……그것들은 이러한 일을 무상으로 수행하는 까닭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원조는 교환 가치에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는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권, 런던, 1821년, 336, 337페이지)[로썬야어판, 사회 과학 서적 출판사, 1935년, 제 2장, 180페이지 참조]. 리카도의 지적은 기계가 《리용》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하는 《봉사》를 한다고 지껄이는 J. B. 세이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다.

반적 생산 조건들 레컨대 건물 등등은 공동적으로 소비될 때, 고립된 노동자들에 의하여 분산된 생산 조건들이 소비되는 데 비하여, 절약되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를 보다 덜 비싸게 만든다. 기계에 있어서는 한 개의 작업기의 동체가 그것에 달린 다수의 도구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동력기가 전도 기구의 일부와 함께 다수의 작업기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소비된다.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매일 자기의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가치 부분간의 차이가 소여의 것이라면 이 가치 부분이 생산물을 비싸게 만드는 정도는 우선 생산물의 규모에, 말하자면 생산물의 면적에 의존한다. 블랙번 출신의 배인즈씨는 1858년에 발표된 어떤 강의 총에서 다음과 같은 제산을 하고 있다——《현실적인 매 기계 마력(馬力)은^{109a} 해당한 준비 장치가 달려

109a {제 3판 주. 1《마력》은 1분간 3만 3,000 피트-파운드의 힘, 다시 말하면 1분간에 3만 3,000 파운드의 물건을 1피트(영국의)의 높이로 또는 1 파운드의 물건을 3만 3,000 피트의 높이로 올리는 힘과 동일하다. 본문에서 말한 마력은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업 용어에서 또 이 저서의 인용문 중 이곳 저곳에서는 동일한 기계의 《명목(名目)》마력, 《상업》마력 또는 《지시(指示)》마력이 구별되고 있다. 구(舊)마력 또는 명목 마력은 전적으로 피스톤의 운동과 쥘린머(원통)의 직경(直徑)에 의하여 계산되며 증기 압력과 피스톤 속도는 전연 고려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것을 즉 어떤 증기 기관이 불튼 및 왓트의 시대에 있어서와 같은 미약한 증기 압력과 적은 피스톤 속도로 운전될 때 레컨대 50 마력을 가진다고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두 요인은 그후에 비상이 강화되었다. 기계에 의하여 현재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기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증기의 압력을 표시하는 지시기(指示器)가 발명되었다. 피스톤의 속도를 확정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리하여 《지시》마력 또는 《상업》마력이라는 측정 단위는, 쥘린머의 직경과 피스톤이 오르내리는 높이와 피스톤의 속도와 증기의 압력이 동시에 고려되며, 또 그리하여 그 기계가 1분간에 3만 3,000 피트-파운드의 몇 배나 되는 힘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가를 보이여 주는, 하나의 수학적 공식이다. 그러므로 1명목 마력은 현실에 있어서는 3배, 4배 심지어는 5배의 지시 마력 또는 현실적 마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주는 차후의 각종 인용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F. 앵겔스}

있는 자동식 물 방추 450개, 또는 쓰로슬 방추 200개 또는 경사(經絲)를 고르게 하고 그에 호부(糊付)하는 등등의 장치가 달려 있는 40인치 직물용 직조기 15대를 움직이게 한다». 1증기 마력의 하루의 비용과 그것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의 마멸은 제 1의 경우에는 450개의 물 방추의 '하루의 생산물에' 배분되며, 제 2의 경우에는 200개의 쓰로슬 방추의 하루의 생산물에 배분되며, 제 3의 경우에는 15대의 직조기의 하루의 생산물에 배분되므로 그 결과 1온스의 방사 또는 1엘레의 직물에 이전되는 가치 부분은 극히 미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펠로 든 증기 망치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증기 망치의 하루의 마멸, 석탄의 소비 등등은 증기 망치에 의하여 매일 두들기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철에 배분되는 까닭에 그 매 켄트베르의 철에는 극히 적은 가치 부분만이 배당될 것인바, 만약 이 거인적인 공구를 가지고 적은 못을 박는다면 이전되는 가치 부분은 대단히 커질 것이다.

작업기의 작용의 한도 즉 작업기의 도구수가 소여의 것일 때, 또는 힘이 문제인 경우에는 도구의 규모가 소여의 것일 때, 생산물의 수량은 작업기가 작용하는 속도에 즉 펠컨대 방추가 회전하는 속도 또는 1분 간에 망치가 내려치는 회'수에 의존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거대한 망치 가운데는 1분 간에 70번을 내려 치는 것도 많으며, 방추를 단조하는데 소규모의 증기 망치를 사용하는, 특허를 받은 라이더식 단조기는 1분 간에 700번을 내려 친다.

기계의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되는 비율이 소여의 것이라면 이 가치 부분의 크기는 기계 자체의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¹¹⁰. 기계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노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110 자본주의적 관념에 사로 잡힌 독자는 기계가 자기의 자본 가치에 비례하여 생산물에 첨가하는 《리자》에 관하여 여기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불변 자본의 운감

기계가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는 더욱 적다. 기계가 생산물에 이접하는 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계는 더욱 생산적이며 기계의 봉사는 더욱 자연력의 봉사에 가까운 것으로 된다. 그런데 기계에 의한 기계의 생산은 기계의 규모와 작용에 비하여 그것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수공업적으로 또는 마누파두라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동일 상품의 가격차를 대비 분석한다면 일반적으로 기계 생산물에 있어서 노동 수단으로부터 넘어오는 가치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가치 부분의 절대적인 크기는 감소하지만 그러나 메천대 1파운드의 방사라는 생산물의 총가치에 비한 그 크기는 증대된다¹¹¹.

다른 구성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까닭에 《리자》라는 명칭하에 하등 새로운 가치를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잉여 가치의 생산이 문제로 되고 있는 여기에서 《리자》라는 명칭하에 잉여 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선험적(先驗的)으로 전제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얼핏 보면 불합리하며 가치 형성의 제 법칙과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자본주의적 재산 방식에 관해서는 이 저술의 제 3부에서 설명될 것이다.

111 기계에 의하여 첨가되는 이 가치 구성 부분은 기계가 말(馬)을——일반적으로 물질 대사를 위한 기계로서가 아니라 동력으로서만 이용되는 역축(役畜)을——구축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감소한다. 이왕이니 말하거니와 메카르트는 그가 동물을 단순한 기계로 정의할 때 사물을 중세기와는 다른 마누파두라 시기의 안목으로 보고 있는바, 중세기에 동물은 후일에 폰 할레르씨가 그의 《국가 과학의 부흥》 가운데서 다시 그렇게 본 것처럼 인간의 조수로 간주되었다. 메카르트가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생산 방식의 변화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실천적 지배를 사유 방법의 변화의 결과로 본 것은 그의 저서 《방법론》이 보여 주는 바인바 이 저서에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그에 의하여 철학에 도입된 방법을 리용하여) 생활상 대단히 유용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변 철학(思辨 哲學) 대신에 실천적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바, 그것의 도움으로 우리는 불, 물, 공기, 별 및 기타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우리가 수공업자들의 각종 직업을 하는 것과 같이 알므로

어떤 기계의 생산에 그 기계의 적용에 의하여 절약되는 것과 동일한 량의 노동이 든다면, 다만 노동의 환치(換置)가 진행된다는 것 즉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으며 그리하여 노동 생산력이 장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계에 드는 노동과 기계가 절약하는 노동간의 차이 또는 기계의 생산 능률의 정도는 명백히, 기계 자체의 가치와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도구의 가치간의 차이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전자의 차이는 기계에 대한 노동 지출도 따라서 기계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 부분이, 노동자가 자신의 도구로써 노동 대상에 첨가하는 가치보다 더 적은 동안에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계의 생산 능률은 기계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베인즈의 계산에 의한다면 1증기 마력으로써 운전되는, 준비기(準備機)가 붙은, 450개의 물 방추는 $2\frac{1}{2}$ 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¹¹² 매개의 자동식 물 방추는 10시간 노동일에 13온스의 방사(중등 호수의)를 제조하며 그리하여 $2\frac{1}{2}$ 명의 노동자에 의하여 1주간에 [1일 간에——편집자] $365\frac{1}{2}$ 파운드의 방사를

써 바로 그와 같이 그것들을 모든 적합한 용도에 리용하며 그리함으로써 자연의 주인 및 지배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생활의 완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씨 더들리 노스의 《상업에 관한 논술》(1691년) 서문에는 정치 경제학에 적용된 데카르트의 방법은 화폐, 상품 등에 관한, 옛¹ 이야기들과 미신적 관념들로부터 정치 경제학을 해방하기 시작하였다고 써여져 있다. 대체로 초기의 영국 경제학자들은 베이콘 및 홉브스의 철학에 찬동하였는데 그 후에는 록크가 주로 영국, 불란서 및 이래리 정치 경제학의 《철학자》로 되었다.

112 옛센 상업 회의소의 년차 보고(1863년 10월)에 의하면 크루프 주강(鑄鋼) 공장은 161기의 용광로, 단조로(煔鑪), 강화로(鋼化爐) 32대의 증기 기관(1800년에 만체스터에서 사용되던, 증기 기관의 총수가 대략 이만하였다) 및 14대의 증기 망치——도합 1,236마력에 해당하는——, 49기의 단조로, 203대의 도구기 및 약 2,400명의 노동자로써 1862년에 1,300만 파운드의 주강을 생산하였다. 이 경우에는 1마력 당 노동자는 2명도 되지 않는다.

제조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약 366파운드의 면화는 (간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락면을 고려 밖에 둔다) 그것을 방사로 전화하는 데 불과 150 로동 시간 또는 15개의 10시간 로동일을 [25 로동 시간 또는 $2\frac{1}{2}$ 개의 10시간 로동일을——편집자] 흡수하는 데, 타방으로 물레(紡車)로써는, 수방적공이 13온스의 방사를 60시간에 제공한다면, 동일한 량의 면화는 2,700개의 10시간 로동일 또는 2만 7,000 로동 시간을 흡수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¹¹³. 종래의 블록프린팅(blockprinting)법 즉 갱사(更紗)의 수공업적 날염법이 기계에 의한 날염에 의하여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단 한 대의 기계가 1명의 성인 로동자 또는 소년공의 협조하에 한 시간 동안에 이 전에는 200명의 성인 로동자가 하던 것과 동량의 4색(色) 갱사를 날염한다¹¹⁴. 엘리 윌트너가 1793년에 조면기(縲綿機)를 발명하기 전에는 1파운드의 면화로부터 씨를 제거하는 데 평균 1로동일이 걸렸다. 그의 발명의 덕택으로 1명의 흑인 여자가 하루에 100파운드의 면화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후 조면기의 생산 능률은 더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1파운드의 면섬유는 이전에 생산비가 50센트 걸렸는데 그 후에는 더 많은 리운을 붙이고도 즉 더 많은 불불 로동을 포함하고도 10센트로 판매된다. 인도에서는 섬유에서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기계적(半機械的)인 츠르카라는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하루에 28파운드를 처리한다. 수년전에 포브스 박사에 의하여 발명된 츠르카로써는 1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년이 하루에 250파운드를 처리하는바, 동력으로서 소, 증기 또는 물이 리용

113 밥베이지의 계산에 의하면 자바에서는 방적 로동만에 의하여 면화의 가치는 거의 117%나 증대되었다. 당시 (1832년) 영국에서는 세사(細糸) 방적업에 있어서 기계와 로동에 의하여 면화에 첨가되는 추가 가치는 원료 가치에 대하여 약 33%에 달하였다 (《기계의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 165, 166페이지).

114 그 밖에 기계 날염에 있어서는 염료가 절약된다.

되는 경우에는 장입공(裝入工) (즉 기계에 원료를 넣는 일'군)으로서 수명의 소년과 소녀들만이 요구된다. 소가 운전하는 그런 기계 16대는 하루에, 이전에는 750명이 하던 평균 일 작업을 수행한다¹¹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증기 기관은 증기 보습의 경우에는 1시간에 3펜스 즉 $\frac{1}{4}$ 실링의 비용으로, 66명이 매 시간 15실링의 비용으로 하는만큼한 작업을 수행한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실례로 다시 돌아 간다. 즉 이 15실링은 결코 66명의 노동자가 한 시간 동안에 첨가하는 노동의 표현이 아니다. 잉여 노동의 필요 노동에 대한 비율이 100%였다면, 이 66명의 노동자들은 매 시간에 30실링의 가치를——비록 그들이 받는 등가 즉 15실링이라는 그들의 로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66시간 중 33시간에 불과하지만——생산한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어떤 기계가 그것에 의하여 구축된 150명의 노동자들의 년 로임 페컨대 3,000 파운드 스털링과 바로 동액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3,000 파운드 스털링은 결코, 이 150명의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어 노동 대상에 첨가된 전체 노동의 화폐적 표현이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에 대하여 로임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년 노동의 일부만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와는 반대로 3,0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기계의 화폐가치는 기계의 생산에 지출된 전체 노동——이 노동이 어떤 비율로 노동자의 로임과 자본가의 잉여 가치를 형성하든 간에——을 표현한다. 따라서 기계가 비록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노동력과 동액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속에 대상화된 노동은 언제나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 노동보다 훨씬 더 적다¹¹⁶.

115 생산물에 관하여 인도 총독부에 보고를 제출한, 와르든 박사가 1860년 4월 17일 기술 협회에서 진술한 논문 참조.

116 《이 말 없는 일'군(기계)은, 그것이 완전히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가질 때에도, 언제나 그것이 대체하는 노동보다 훨씬 더 적은 로

만약 기계를 다만 생산물의 저렴화의 수단으로서만 고찰한다면, 그 적용의 한계는 그 자체의 생산에 드는 노동이, 그것의 적용에 의하여 대체되는 노동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자본에 있어서는 이 한계가 더 좁다. 자본은 적용되는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므로, 그것에 있어서는 기계 적용은 기계 가치와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노동력의 가치간의 차이의 한계내에서만 합목적적이다. 필요 노동 및 잉여 노동으로의 노동일의 분할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또 동일한 나라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르든가 또는 동일한 시기에든 생산 부문들에 따라 다르므로, 또 노동자의 실지 로임은 때로는 그의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저락되며, 때로는 이상으로 제고되므로, 기계 가격과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노동력의 가격간의 차이분——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과 그것에 의하여 대체되는 노동 총량간의 차이가 변동 없다 하더라도——심히 변동할 수 있다^{116a}. 그러나 다만 전자의 차이만이 자본가 자신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며, 경쟁의 강제적인 법칙들을 통하여 그에게 영향을 준다. 오늘날 영국에서 발명되는 기계가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16세기와 17세기에 독일에서 발명된 기계가 화란에서만 적용되었으며, 또 18세기의 불란서의 많은 발명물이 영국에서만 이용된 것은 그 까닭이다. 오래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기계 자체가 약간의 생산 부문들에서 적용됨으로써, 다른 부문들에서의 노동의 과잉(리카도가 말하는 노동의 과다 *redundancy of labour*)을 일으키며 그 결과 후자의 부문들에서는 노동력의

동의 생산물이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판, 런던, 1821년 40페이지) [로세 야어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제 1장, 26페이지].

116a 제 2판 주.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계는 부르주아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활동 범위를 가질 것이다.

가치 이하로의 로임의 저하가 기계의 적용을 방해하며, 자본——그것의 리득은 본래 적용되는 노동의 감소가 아니라 지불되는 노동의 감소로부터 발생한다——의 틈장에서는 기계의 적용을 무용하게, 혼히는 불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양모 공업의 약간 부문들에서는 아동 노동이 최근 수년 간에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거의 구축되었다. 왜? 공장법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2교대제가 도입되어 한 반을 번갈아 6시간 작업하고 다른 반은 4시간 작업하거나 또는 두 반이 각각 5시간씩만 작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반(半) 시간공》들을 이전에 《전(全) 시간공》들을 팔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반시간공》들은 기계로써 대체되었다¹¹⁷. 광산들에서 여성 노동과 아동(10세 이하의) 노동이 금지되기 전까지 자본은 탄광 및 기타 광산들에서 벌거 벗은 부인들과 처녀들을 왕왕 남자들과 함께 일시키는 것을 그의 도덕 경전(經典) 특히 그의 원 장부(元帳簿)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은 이것이 금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계를 채용하였다. 양키들은 쇠석기(碎石機)를 발명하였다. 영국인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왜냐 하면 이 작업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불쌍한 사람》——wretch——이라는 것은 영국 정치 경제학이 농업 노동자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술어이다)은 그들의 노동의 극히 적은 부분에 대

117 《기업가들은 불가피하지 않고서는 13세 미만 아동들의 2교대를 유지하며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어떤 부류의 공장주들, 즉 모사(毛糸) 방적업자들은 지금 13세 미만의 아동 즉 〈반시간공〉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그들은 아동들(즉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노동을 전폐하는 각종 개량된 새 기계들을 도입하였다. 아동들의 수의 이러한 감소의 폐중으로서 한 개의 노동 과정을 든다면, 거기에서는 현존하는 기계에 제사기(綴糸機)라는 한 개의 장치를 붙인 결과 매개 기계의 루성에 따라 6명 또는 4명의 〈반시간공〉들이 수행하면 노동이 1명의 소년(13세 이상)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반시간 제도〉는 〈제사기의 발명〉을 자극하였다》(《185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하여서만 지불을 받기 때문에 기계는 자본가들에게 생산을 더 비싸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⁸. 영국에서는 운하의 배를 끄는 등등의 일에 때때로 말 대신에 아직도 여성들을 사용하는바¹¹⁹ 왜냐 하면 말과 기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수학적으로 규정된 크기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과잉 인구층의 여성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기계의 나라인 영국에서 보다 더 온갖 나쁜 일에 인력을 파렴치하게 낭비하는 곳은 없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제 3 절 기계적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제 작용

이미 본 바와 같이 대공업의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노동수단에 있어서의 혁명이며, 변형된 노동 수단은 공장의 편제(編制)된 기계 체계에 있어서 자체의 가장 발전된 형상을 얻는다. 그러면 이 객관적 유기체에 인간 재료가 어떻게 합체되는가를 고찰하기 전에 이 혁명이 노동자 자신에게 미치는 약간의 일반적 반작용을 고찰하기로 하자.

a) 자본에 의한 추가 노동력의 취득.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

· 기계는 그것이 근력(筋力)을 무용한 것으로 하는 한에 있

118 《기계는……흔히 노동(그가 넘부에 두고 있는 것은 노임이다)이 동귀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지 못한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권, 런던, 1821년, 479페이지) [로씨야어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제 31장, 256페이지].

119 《1863년 10월 에딘버러 사회 과학 회의의 보고》 참조.

어서는 근력이 없는 또는 육체적 발달은 아직 미숙하지만 사지는 보다 부드러운 노동자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적용의 최초의 언어였다! 그리하여 노동과 노동자를 대체하는 이 강력한 수단은 즉시로, 남녀 노소의 구별 없이 노동자 가족의 전체 성원을 자본의 직접적 지배하에 편입함으로써, 임금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전화되었다. 자본가를 위한 강제 노동은 비단 아동의 유희 시간 뿐만 아니라 관폐상의 한계내에서, 가족 자체의 필요를 위한, 가정내의, 자유 노동 시간까지도 박탈하였다¹²⁰.

노동력의 각지는 개별적 성년 노동자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서도 규정되었다. 기계는 노동자 가족의 전체 성원들을 노동 시장에 내던짐으로써, 성년 남자의 노동력의 가치를 그의 전체 가족 성원들 간에 분할한다. 그리하여 기계는 그의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폐컨대 4로동력으로 나누어진 가족을 구입하려면 종전에 가장(家長)의 노동력을 구입할 때보다 아마도 비용이 더 들 것이나 그러나 그 때

120 미국의 공민 전쟁에 동반한 면화 공황중에 에드워드 스미쓰 박사는 영국 정부에 의하여 면업 노동자들의 보건 상태 조사를 위하여 랭카셔, 체셔 등지에 파견되었다. 그는 개중에도 보고하여 말하기를 —공황은, 노동자들을 공장 환경으로부터 몰아 낸 것은 도외시하며라도 위생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익이 있다. 노동 여성들은 이제는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고트프레—강장제(일종의 마취제)로써 해독을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젖을 먹이기에 필요한 여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리법을 배울 시간을 얻었다고, 불행히도 이 모리술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 생겼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본이 자기 증식을 위하여 소비에 필요한 가정 노동을 얼마나 박탈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공황은 특수 학교들에서 노동자의 딸들에게 재봉을 배우도록 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전 세계를 위하여 방적하는 노동 소녀들에게 재봉을 배우도록 하는 데 미국의 혁명과 세계 공황이 요구된다는 말인가!

신 1로동일이 아니고 4로동일로 되며 또 로동력의 가격은, 4로동일의 잉여 로동이 1로동일의 잉여 로동을 초과하는 데 비례하여 저락한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하여 이제는 4명이 자본을 위하여 로동 뿐만 아니라, 잉여 로동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기계는 처음부터 유일 무이한 착취 분야인 인간적 착취 재료¹²¹와 함께 동시에 착취의 정도도 확대한다.

기계는 또 자본 관계의 형식적 표현 즉 로동자와 자본가간의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혁한다. 상품 교환의 기초 우에서는 우선 자본가와 로동자가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독립적 상품 소유자 즉 일방은 화폐와 생산 수단의 소유자 타방은 로동력의 소유자로서 대립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본은 아동들 또는 소년들을 구매한다. 종전에는 로동자는 '형식상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그가 마음 대로 하였던 자기 자신의 로동력을 판매하였다. 이제는 그는 처자를 판매한다. 그는 노예 상인이 된다¹²². 아동 로동에 대한 수요는 형식상으로도,

121 《남성 로동의 여성 로동에 의한, 또 특히 성년 로동의 아동 로동에 의한 대체가 강화됨에 따라 로동자 수가 대단히 증가하였다. 1주에 6 내지 8 실링의 임금을 받는 13세의 소녀 3명은 18 내지 45 실링의 임금을 받는 성년 1명을 대체하였다》(토마스 드 쿤시 《정치 경제학의 원리》 런던, 1844년, 147페이지, 주). 레컨대 어린이를 돌보며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등등의 약간의 가족적 기능들은 전연 없이 지낼 수는 없으므로 자본에 의하여 징발된 어머니는 여하간 대리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 레컨대 재봉 수선 등등의, 가족의 소비에 필요한, 로동들은 기성품의 구입으로써 매꾸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가정 로동의 지출의 감소에 대응하여 화폐 지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로동자 가족의 생산비는 증가하며 수입의 증가를 상쇄한다. 거기에다가 또 생활 자료들의 리용과 준비에 있어서 절약과 합목적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공인된 정치 경제학이 비밀에 붙이고 있는 이 사실들에 관하여는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들》과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의 보고들에 또 특히 《공중 보건에 관한 보고들》중에 풍부한 자료가 있다.

122 영국의 공장들에서의 여성 로동과 아동 로동의 제한은 성년 남성 로동자들에 의하여 자본으로부터 전취된 것이라는 이 위대한 사실 또는 대조적으로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의 최근의 보고들에는 아직도

미국의 신문 광고에 잘 나오는 바와 같은 흑인 노예에 대한 수요를 왕왕 상기시킨다. 레컨대 영국의 어떤 공장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나의 관구의 가장 중요한 공업 도시중의 하나에서 발행되는 지방 신문 지상의 다음과 같은 광고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13세로 통할 수 있기 보다 어리지 않은 12 내지 20명의 소년을 구함. 임금은 주 4실링. 지원하라》운운¹²³. 《13세로 통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공장법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은 6시간 밖에 노동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령은 공의(公醫)의 증명을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장주는 13세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소년들을 구하는 것이다. 최근 20년 간의 영국 통계에 있어서 공장주들에 의하여 고용된 13세 미만 아동수의 왕왕 급격하며 놀라운 감소는 공장 감독관들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 공의들의 소행에 기인하는바 그들은 자본가들의 착취욕과 부모들의 탐욕에 맞도록 아동들의 연령을 고친 것이다. 베쓰넬 그린이라는 런던의 악명 높은 한 지구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공개 시장이 열리는바, 여기에서 9세 이상의 남녀 아동들이 턴

아동 매매에 대한, 노동하는 부모들의 참으로 혐오스러우며 아주 노예상업적인 경향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위선자들은 그들 자신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영원화되었으며 또 이용되고 있는 이 만행——다른 경우들에는 이것을 그들은 《로동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다——을 비난하고 있다. 《아동 노동은……그들 자신의 그날 그날의 빵을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하여서조차 방조로 요구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파도한 고역을 견디어 별 힘도 없으며, 그들의 장래 생활을 안내할 지도(指導)도 받지 않았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깃잡힌 상태에 빠져 있다. 유태의 력사가는 티루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하여 지적하기를——무정한 한 모친이 억제할 수 없는 기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키었을 때 이 도시가 그렇게도 무참히 파괴된 것은 피이한 일이 아니었다고》(《공중 경제 개론》, 카라일, 1833년, 66페이지).

123 《185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중의 A·레드그레이브, 40, 41페이지.

던의 전직 공장들에게 자신을 임대한다. 《보통 조건들은 주 1실링 8펜스(이는 부모들의 것이 된다) 및 나 자신의 것이 되는 2펜스와 차(茶)이다》. 계약들은 다만 1주를 기한으로 체결된다. 이 시장이 열릴 때의 광경과 말씨는 참으로 혐오스럽다¹²⁴. 여성들이 《로동 수용소로부터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임의의 구매자에게 주 2실링 6펜스로 임대하는》 일이 지금도 영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다¹²⁵. 립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브리튼에서는 적어도 2,000명에 달하는 소년들이 아직도 자기 부모들에 의하여 산 굴뚝 소제 기계로서(그들을 대체할 유효한 기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다¹²⁶. 기계에 의하여 야기된 로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법률적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은 전체 거래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격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외관조차 상실케 하였으므로 그후에 영국 의회에 공장 제도에 대한 국가적 간섭의 법적 구실을 주었다. 공장법이 종래 그 구속을 받지 않던 공업 부문들에서 아동 로동을 6시간으로 제한할 때마다 언제나 공장주들의 다음과 같은 불평이 새롭게 들려 온다——즉 일부 부모들은 이제는 법적 단속을 받는 공업으로부터 아동들을 빼내다가 《로동의 자유》가 아직 지배하고 있는, 즉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성인들과 같이 로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하여 그들을 보다 비싸게 내놓을 수 있는 공업에 판매한다고. 그러나 자본은 본성에 있어서 수평주의자(水平主義者)이므로 즉 모든 생산 분야들에서 로동의 착취 조건들의 평등을 자체의 천부의 인권으로서 요구하므로 한 공업 부문에서의 아동 로동의 법적 제한은 다른 공업 부문에서

124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런던, 1866년, 81페이지. 제 31호(제 4판을 위하여——베쓰널 그린의 전직업은 현재 거의 절멸되었다.——F. 엥겔스).

125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런던, 1864년 53페이지, 제 15호.

126 동상, 제 5차 보고, 별표지, 23페이지, 제 137호.

의 그것의 제한의 원인으로 된다.

기계가 우선은 그것의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 공장들에서는 직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공업 부문에서는 간접으로, 자본의 착취하에 내맡기는 아동들과 소년 소녀들 및 로동 여성들의 육체적 파멸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유년기의 로동 아동들의 방대한 사망률이라는 한 점만에 머물렀다. 잉글랜드의 등기구(登記區)중 16개 구에서는 1세 미만의 생존 아동 10만에 대하여 년 평균 사망수가 9,085(어떤 구에서는 불과 7,047)에 불과한데, 24개 구에서는 10,000 이상 1만1,000 이하이며, 39개 구에서는 1만 1,000 이상 1만 2,000 이하, 48개 구에서는 1만 2,000 이상 1만 3,000 이하, 22개 구에서는 20,000 이상, 25개 구에서는 2만 1,000 이상, 17개 구에서는 2만 2,000 이상, 11개 구에서는 2만3,000 이상, 후, 울버햄프턴, 애슈튼--언더--라인 및 프레스튼에서는 2만 4,000 이상, 노팅엄, 스톡크포드 및 브래드포드에서는 2만 5,000 이상, 위스비치에서는 2만 6,000 이상, 만체스터에서는 2만 6,125이다¹²⁷. 1861년의 정부의 의료(醫療)조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지방적 제 조건을 도외시하면 주로 모친의 가정의 취업과 이로부터 나오는 아동에 대한 등한시와 학대, 그 중에서도 부적당한 영양과 영양 부족 마취제의 급여 등등인바, 그에 첨가하여 모친들이 그들의 아동들로부터 부자연적으로 격리된 결과 고의적으로 굶기는 것과 유독물을 급여하는 것이다¹²⁸. 《이와 반대로 여성 취업이

127 《공중 보건에 관한 제 6차 보고서》 런던, 1864년, 34페이지.

128 《그것(1861년의 조사)은……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상술한 정형하에서는 아동들이 모친들의 공장 취업으로 인한 등한시와 학대하에서 사망하는데 모친들은 보통 자식들이 사망해도 슬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자식들이 사망하도록 직접적 수단들을 취하는 데 이를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자연적 감정을 상실하고 있다》(동상서).

가장 적은》 농업구들에서는 《사망률이 가장 낮다》¹²⁹. 그런데 1861년의 조사 위원회는 북해 연안의 약간의 순 농업구들에서 1세 미만 아동들의 사망률은 이 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장구들의 그것을 거의 따라 가고 있다는 의외의 결과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줄리언 헨터 박사에게 이 현상에 대한 실지 조사를 위임하였다. 그의 보고는 《공중 보건에 관한 제 6차 보고》에 수록되어 있다¹³⁰. 당시까지는 마라리아 기타 저습지에 특유한 질병들이 아동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고 추측되었었다. 조사의 결과는 정반대이다. 즉 《바로 마라리아를 구축한 것과 동일한 원인 다시 말하면 저울에는 습지였으며 여름에는 보잘 것 없는 목장이었던 토지를 풍옥한 곡식 밭으로 전화한 것이 유아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낳게 하였다》¹³¹. 헨터 박사가 심문한 그 지구들에 있는 70명의 개업의들의 의견은 이 점에 관하여 《놀랄만큼 일치》하였다. 즉 토지 경작에 있어서의 혁명과 더불어 공업 제도가 도입되었었다. 《소녀 및 소년들과 함께 로력대에서 로동하는 기혼 여성들은 <로력 대장>이라고 부르며, 로력대 전체를 고용하는, 한 남자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차지 농업가의 사역에 제공된다. 이 로력대는 왕왕 그들의 존락으로부터 수마일이나 떨어진 지방으로 이동하는 수가 있으며, 조석으로 촌'길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바, 여성들은 짧은 스카트와 그것에 맞는 상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때로는 바지를 입고 있으며, 보기에는 대단히 힘 세고 건장한 듯하나 버릇된 방탕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집에서 시들고 있는 그들의 자식들에 미치는 유해로운 결과에 대하여

129 《공중 보건에 관한 제 6차 보고》 런던, 1861년, 454페이지.

130 동상서, 454—463페이지. 《영국의 약간의 농촌 지구들에서의 파도한 유아 사망에 관한 헨리 줄리언 헨터 박사의 보고》.

131 동상서, 35페이지 및 455, 456페이지.

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¹³². 공장 지구들의 모든 현상이 여기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숨겨 두는 유아 살해와 더욱 아동들에 대한 마취제 급여의 정도는 심하다¹³³. 영국 추밀원의 의무판이며 《공중 보건》에 관한 보고의 편집자인 사이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러한 폐해들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성년 여성들의 모든 광범한 공업 취업을 심각한 우려로써 본다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¹³⁴고, 공장 감독관 R·베이커는 어떤 공'적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만약 가족을 가지고 있는 일체 기혼 여성들이 어떠한 공장에서든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영국의 공업 지구들을 위하여 다행일 것이다》¹³⁵라고.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의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타락은 F·엥겔스의 저작 《영국에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에서와 기타 저술가들에 의하여 남김 없이 서술되었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이에 대하여 다만 상기하는 데 그치겠다. 그런데 미성숙한 인간들을 단순한 잉여 가치의 제조 기계로 전화시킴으로써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성적 황폐——정신의 발전 능력과 그것의 자연적 비옥도 자체를 파멸하지 않고 그것을 휴경(休耕)상태에 두는 저 자연 발생적 무지와는 대단히 구별해야

132 동상서, 1864년, 456페이지.

133 영국에서는 공장 지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 지구들에서도 성년 남녀 노동자들 간에 마취제의 소비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다. 《마취제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약간의 기업심 있는 도매 상인들의 큰 목적이다. 약종상들은 마취제를 가장 잘 팔리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동상서, 459페이지). 마취제를 쓰고 있는 유아들은 《주름'살이 잡혀서 적은 노인 또는 원숭이와 같이 보인다》(동상서, 460페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인도와 중국이 어떻게 영국에 보복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134 동상서, 37페이지.

135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9페이지, 이 공장 감독관은 전에 의사였다.

할——는 결국 영국 의회조차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전체 공업 부문들에서 초등 교육을 14세 미만의 아동을 《생산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의 법적 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은 공장법 중의 소위 교육 조항의 소홀한 편집에서, 행정적 기구의 결여——그 때문에 이 의무 교육이 대부분 다시 환상적으로 된다——에서, 이 교육법까지를 반대하는 공장주들의 반항에서,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그들의 실천적 간계(奸計)와 책략에서, 극히 명백하다. 《비난은 오직 립법(立法)이 받아야 한다. 왜냐 하면 립법은, 아동 교육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배려하는 체하면서 내세웠다는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도 포함하지 않은 기만적 법률을 발포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아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3시간) 학교라고 칭하는, 전후 좌우 벽이 있는 곳에 가두어 두어야 할 것과 아동들의 사용자는 이에 대한 증명서를 매 주마다 남성 교원 또는 여성 교원으로서 자기 이름을 자서(自署)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¹³⁶. 1844년의 개정 공장법의 발포 전에는 남성 교원 또는 여성 교원이 열 가지로써 서명한 통학 증명서가 드물지 않았던 것이니, 교원 자신들이 글'자를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학 증명서를 발부하는 어떤 학교라는 곳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교원의 무지에 놀란 나머지 그에게 <여 보시오 당신은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네, 조금은>——이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는 증명서를 발부할 만하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듯이 첨가하였다 ——<하어튼 나는 나의 생도들보다 낫습니다>라고》. 1844년의 노동법을 준비하는 동안에 공장 감독관들은 학교라고 칭하는 곳들——여기에서 발부되는 증명서를 그들은 법률상 완전히 유

136 《1857년 6월 30일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7페이지 중의 페오나드 호너.

효한 것으로 통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적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성취한 것은 겨우 1844년 이후는 <통학 증명서의 수'자는 교원의 손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또 교원은 자기 성명을 서명하여야 된다>¹³⁷ 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공장 감독관 씨 존 킨케이드는 그와 비슷한 공무상 경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우리가 방문한 최초의 학교는 안 킬린이라는 부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의 철자(綴字)를 물었을 때 그는 당장에 실수를 하였다. 즉 그는 철자를 C로써 시작하였으나 즉시에 정정하면서 자기 이름은 K로써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통학 증명부 중의 그의 서명을 보고 나는 그가 여러 가지로 철자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한편으로는 그의 필적으로 보아 그가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녀성 자신도 자기가 기장(記帳)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둘째 번의 어떤 학교에는 길이 15피트, 넓이 10피트의 교실이 있었으며 이 방에 75명의 아동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을 지껄이고 있었다>¹³⁸. <그러나 아동들이 통학 증명서는 얻으나 이렇다 할 수업도 받지 않는 것은 상술한 참담한 곳들만이 아니니, 유능한 교원이 있는 다수 학교들에서도 그의 노력이 거의 수포로 돌아 가는 것은, 세살난 어린애들로부터 각종 연령의 아동들이 소란스럽게 밀집하여 있는 까닭이며, 그의 생계는 극히 비참한 것으로서 한 장소에 집어 넣을 수 있는 한의 최다수의 아동들로 받는 편전에 달려 있다. 설상 가상으로 학교 비품들은 결핍되어 있으며, 서책 기타 교재들은 부족하며, 숨 막힐 듯한 소란스런 공기

137 <185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8, 19페이지 중의 페오나드 호너.

138 <185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31, 32페이지 중의 씨 존 킨케이드.

는 불쌍한 아동을 자신의 기운을 저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내가 본 다수 학교들에서는 전체 아동들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도 이것이 통학이라고 증명되고 있으며, 통계 보고에는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⁹. 스코틀랜드에서는 공장주들이 통학 의무가 있는 아동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려 한다. 《이것은 교육 조항들에 대한 공장주들의 대단한 증오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¹⁴⁰. 이것은 독특한 공장법의 취체를 받는 갠사(更紗)등등의 날염소(捺染所)에서 기피하고 무서운 현상을 보인다. 동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모든 아동들은 그러한 날염소에 고용되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고용되는 첫날 직전 6개월 간에 적어도 30일 간 그리고 150시간보다 적지 않은 시간 통학하지 않으면 안된다. 날염소에서의 그의 고용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6개월의 기간이 바뀔 때마다 역시 30일 간 그리고 150시간 통학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학은 아침 8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같은 날에 2시간 반 이하의 또는 5시간 이상의 통학은 150시간의 일부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 보통의 사정하에서 아동들은 30일 간 오전 오후로 매일 5시간씩 통학하고, 그 30일이 경과하여 150시간이라는 법정 통학 기간에 말하면 즉 그들 자신의 말대로 하면 장부가 다 되었을 때 그들은 날염소로 돌아 와서 새 통학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여기에 6개월 간 머물며, 그리고 다시 학교를 찾아 가서 장부가 또 다시 될 때까지 머문다.……규정된 150시간을 통학한 다수 아동들은 6개월 간 날염소에서의 일을 맞추고 학교에 돌아 오면 처음에 통학을 시작하던 때와 꼭 같은 상태에 있다.……그들은 물론

139 《1857년 4월 30일의 공장 감무관 보고》, 17, 18페이지 중의 레오나드 호너.

140 《185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6페이지 중의 썬킨케이트.

그 전의 통학에서 습득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갱사 날염소들에서는 통학의 실시는 공장의 사업상 요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소요 시간수는 6개월마다 일식에 3시간 내지 5시간씩 아마도 6개월에 걸쳐서 틈틈이 통학시킴으로써 채워진다. 례컨대 하루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통학하고 다음 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통학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동은 다시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가 돌연히 다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나타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3, 4일 간 계속하여 또는 1주일이나 통학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3주일 간이나 또는 온 1개월 간이나 자취를 감추며, 그 다음에는 그의 고용주가 마침 그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할 때 어중간한 날 어중간한 시간에 나오며, 이와 같이 하여 아동은 150시간이 다 되었다고 할 때까지 학교로부터 공장으로, 공장에서 학교로, 말하자면 우왕 좌왕하게 된다¹⁴¹. 기계는 드디어 압도적인 수량의 아동과 여성들을 결합된 노동 인원에 첨가함으로써 성년 남성 노동자가 마누팍뚜라에서 자본의 점제에 대하여 아직도 하고 있던 반항을 좌절시킨다¹⁴².

141 《1857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41, 42페이지 중의 A·레드그레이브. 본래의 공장법(본문에서 바로 언급한 날염 공장법이 아니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영국의 공업, 부문들에서는 근년에 와서 교육 조항들에 대한 장해가 어느 정도로 극복되었다.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 부문들에서는 조사 위원 화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초자(硝子)공장주 J·갯드스의 견해가 아직도 매우 지배적이다——《내가 아는 한에서는 최근년 이때 노동 제급의 일부가 받고 있는 보다 많은 교육은 유해하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4차 보고》, 런던, 1865년, 253페이지).

142 《공장주 B씨가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력직기에 오로지 여성들만 사용하고 있다. 그는 기존 여성 특히 집에 부양할 가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미혼 여성들보다 훨씬 더 주의 깊고 온순하며 또 필요한 생활 수단을 얻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미덕이, 여성의 성격

b) 로동일의 연장

기계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즉 상품 생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면 자본의 담당자로서의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에 의하여 직접 포착된 공업 제 부문에서 모든 자연적 제한들을 넘어서 로동일을 연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기계는 일방으로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체의 이러한 부단한 경향을 아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조성해 주며, 타방으로는 타인 로동에 대한 자본의 탐욕을 격화하는 새로운 동기를 조성한다.

우선 기계에 있어서는 로동 수단의 운동과 생산 활동이 로동자에 대하여 자립적인 것으로 된다. 로동 수단은 그것이 만약 자체의 인간 조수(助手)측의 일정한 자연적 제한들 즉 육체적 허약과 자의(恣意)에 부닥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 부단히 생산을 계속할 공업상의 한 개 영구적 동체(動體) (perpetuum mobile)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 수단은 자본으로서——또 그런 것으로서 자동 장치는 자본가라는 인물 속에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반항적이기는 하나 신축성 있는 인간의 자연적 제한들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압축시키려는 충동에 의하여 고무된다¹⁴³. 그 뿐만 아니라 이 저항은 또 기계에서의 로동이 외관상으로 용이하다는 사정과 녀성과 아동들이 온순하며 다루기 쉽다는 사정에 의하여 감소된다¹⁴⁴.

에 특유한 미덕이 그들의 화근으로 된다. 이리하여 그들의 본성충의 물리적이며 우아한 모든 것이 그들의 예측의 수단과 그들의 고통의 원천으로 된다》(《10시간 공장법안, 3월 15일의 예술리경의 연설》, 런던, 1844년, 20페이지).

143 《요가한 기계가 보편적으로 도입된 이래 인간은 그의 평균적 힘 이상으로 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로버트 오웬 《공장 제도의 영향에 관한 고찰》, 제 2판, 런던, 1817년, [16페이지]).

144 사물의 최초의 경험적 현상 형태를 그것의 원인으로 보기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계의 생산 능률은 기계로부터 제품으로 이전되는 가치 구성 부분의 크기에 역비례한다. 기계가 기능하는 기간이 길면 질수록 기계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가 분배되는 생산물량은 더욱 커지며 그리하여 기계가 단위 상품에 대하여 추가하는 가치 부분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기계의 활동적인 생존 기간은 노동일의 길이 즉 매일의 노동 과정의 계속 시간에, 노동 과정이 반복되는 일수를 승한 것으로써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계의 마멸은 그것의 리용 시간에 정확히 수학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부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7개년 반 동안 매일 16시간씩 복무하는 기계는 15년 동안 매일 8시간 밖에 복무하지 않는 동일한 기계와 동일한 크기의 생산기간을 포괄하며 또 동일한 가치를 총생산물에 첨가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기계의 가치가 2배나 속히 재생산될 것이며 또 자본가는 이 기계에 의

줄거하는 영국인들은, 자본이 공장 제도의 초기에 노동 수용소와 교아원에서 수행한 대대적인 헤로메스 [성서 마태전에 나오는 폭군으로 유아 크리스트를 죽이려고 다른 유아들을 몰살하였다]적 아동 유폐——이것에 의하여 자본은 전연 의사를 갖지 않은 인간 재료를 자체에게 합체(合體)하였다——를 왕왕 공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고 불고 있다. 그리하여 헉컨대 자신이 영국의 공장주인 필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장시간 노동은 국내 각지로부터 다수의 무의 무탁한 아동들이 공급됨으로써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는 것과 고용주들이 이와 같이 하여 획득한 불쌍한 아동들에 의하여 장시간 노동을 관습으로 일단 수립한 다음에는 그것을 이웃 사람들[성년 노동자들]에게보다 용이하게 강요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J. 필든 《공장 제도의 저주》, 런던, 1836년, 11페이지). 여성 노동에 관하여서는 공장 감독관 사운더즈가 1844년의 공장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여성노동자들 중에는 수주일 간을 계속하여 다만 수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2시간도 못 되는 식사 시간은 있으나——로働하는 부인분이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매주 5일 간은 집으로부터의 태왕과 취침을 위하여 24시간 중 6시간 밖에 남지 않는다》.

하여 후자의 경우 15년 간에 흡수하는 것과 동량의 잉여 로동을 7년 반 동안에 흡수할 것이다.

기계의 물질적 마멸은 2중적이다. 하나는 개개의 화폐가류통에 의하여 마멸되듯이 기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며 또 하나는 쓰지 않는 칼이 칼집 속에서 녹슬 듯이 기계의 불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후자는 제 원소(諸元素)를 통한 기계의 소모이다. 첫째 종류의 마멸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기계의 사용에 정비례하며, 둘째 종류의 마멸은 어느 정도까지 기계 사용에, 역비례한다¹⁴⁵.

그러나 기계는 물질적 마멸외에 말하자면 도덕적 마멸도 받는다. 기계는 동일한 구조의 기계들이 보다 저렴하게 재생산될 수 있거나 또는 보다 우수한 기계들이 그것과의 경쟁에 등장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 가치를 상실한다¹⁴⁶.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기계가 아무리 아직 새 것이며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이미 사실상 그 기계 자체에 대상화된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자체의 재생산 또는 보다 우수한 기계의 재생산을 위하여 현재 필요한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그 기계는 다소간에 가치를 상실한다. 기계의 총가치가 재생산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도덕적 마멸의 위험은 보다 적어지며 또 로동일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은 보다 짧아진다. 기계가 어떤 생산 부문에 든 처음으로 도입될 때 그것의 보다 저렴한 재생산¹⁴⁷을 위한

145 《금속제 기구(機構)의 미묘한 운동 부분들에 대한, 불사용에 의한, 손상이……원인으로 되는 것》(유어 마누콰푸라의 철학), 28페이지).

146 이미 이전에 언급한 《만체스터의 방적업자》(《타임스》 1862년 11월 26일 부)는 기계비(費)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을 넣고 있다——《그것(즉 <기계의 마멸에 대한 공제>)은 또 기계들이 마멸되기 전에 새롭고 보다 우수한 구조를 가진 다른 것들에 의하여 대체되는 결과 부단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147 《새로운 형의 기계 한 개를 건조하기에 드는 비용은 동일한 형

새로운 방법들과 개량들——이것들은 기계의 개개의 부분들 또는 장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체 구조를 포착한다——이 점증하여 나온다. 그러므로 기계가 생존하는 최초 기간에 있어서 로동일 연장을 위한 이 특수한 동기는 가장 격렬하게 작용한다¹⁴⁸.

기타의 제 조건이 동등하며 또 르동일이 일정한 때 2배의 로동자 수를 착취하기 위하여는 기계들과 건물들에 지출되는 불변 자본 부분과 원료 보조 자재 등등에 지출되는 불변 자본 부분도 2배로 할 것이 요구된다. 기계와 건물들에 지출된 자본 부분이 불변이라도 로동일의 연장에 따라 생산 규모는 확대된다¹⁴⁹. 이로 말미암아 잉여 가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의 착취에 필요한 지출들이 감소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로동일이 연장되면 언제나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 하면 로동 수단으로 전화되는 자본 부분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에 의한 동일한 기계의 재생산에 드는 것보다 5배나 많다고 대체로 계산되고 있다》(밥베이저, 《기계의 경제에 대하여》, 런던, 1832년, 349페이지).

148 《수년째 망포(網布)제조에 있어서 중요하고 많은 개량이 실시된 결과 최초의 비용 가격이 1,200파운드 스텔링이면, 훌륭히 보관된, 기계가 수년 후에는 60파운드 스텔링으로 판매되었다……개량들이 그와 같이 급속하게 계속한 결과는 기계들은 미완성인채로 그것들의 제조업자의 수중에 남았으니 왜냐 하면 그것들이 보다 성과적인 발명물에 의하여 이미 진부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질풍 노도(疾風怒濤)의 시기에 망포 제조업자들은 최초의 로동 시간인 8시간을 2배 24시간으로 연장하였다(동상서, 233페이지).

149 《만약 건물과 기계들에 대한 추가적 지출을 요하지 않으면서 원료의 추가량이 가공될 수 있다면……시장의 간만(干滿)과 수요의 교호적(交互的)신축의 한 가운데에서 공장주가 추가적 고정 자본을 적용함이 없이 추가적 류동 자본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단히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R. 토렌즈 《임금과 단결에 관하여》, 런던, 1834년, 64페이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¹⁵⁰. 즉 기계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자본중 부단히 증가하는 한 구성 부분이 한 형태로 구속되는바 이 형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일방으로는 그 가치의 자체 증식을 위하여 부단히 적용될 수 있으며 타방으로는 노동과의 접촉이 중단되자마자 자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상실한다. 영국의 면업 거두 애슈워쓰씨는 낫소 W·시노어 교수에게 가르치기를——《만약 농부가 그의 팽이를 내버려 둔다면 그는 그 기간중 18펜스의 자본을 무용으로 만든다. 만약 우리 사람들(즉 공장 노동자들)중의 한 사람이 공장을 떠난다면 그는 10만 파운드 스털링의 비용이 든 자본을 무용으로 만든다》¹⁵¹라고. 생각만이라도 해 보라! 10만 파운드 스털링의 비용이 든 자본을 비록 일순간이라도 《무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사람들 중의 아무나 한 사람이 무릇 아무 때라도 공장을 떠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일대 사변이다! 애슈워쓰의 가르침을 받은 시노어가 동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계의 규모의 부단한 증대는 부단히 증대하는 노동일의 연장을 《바랄 만한》 것으로 만든다¹⁵².

기계는 비단 그것이 직접 노동력의 가치를 감소함으로써와

150 본문에서 언급한 사정은 여기에서 다만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언급한 것이며 나는 제 3부에서 비로소 리윤률 즉 총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을 취급할 것이다.

151 시노어 《공장법에 관한 서한》, 런던, 1837년, 13, 14페이지.

152 《고정 자본의 변동 자본에 대한 큰 비율은……장시간 로동을 바랄 만한 것으로 만든다》. 기계 등등의 규모의 증가에 따라 《로동 시간 연장에 대한 동기(動機)가 증대하는바 왜냐 하면 이것은 고정 자본의 상대적 증가로부터 리윤을 빼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동상서, 11—13페이지). 《어떠한 공장이든 그 공장의 로동 시간의 다소 불문하고 불변적인 각종 지출들 폐컨대 건물 임대료, 지방세와 국세, 화재 보험료, 각종 고정 노동자들의 로임, 기계의 손상, 기타 생산 규모가 증대하면 할수록 리윤에 대한 비율이 감소되는 일련의 지출들이 있다》(《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9페이지).

또 로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저렴화를 통하여 간접으로 로동력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최초로 아직 산재적으로 도입될 때에는 기계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로동을 몇 곱된 로동 [제 1분책, 61페이지 참조]으로 전화시키며 기계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를 개별적 가치 이상으로 제고시키며 이와 같이 하여 자본가로 하여금 일(日)생산물의 보다 적은 가치 부분으로써 로동력의 일 가치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도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기계적 생산이 일종의 독점 상태에 있는 이 과도기에 있어서는 리득이 비상하며, 자본가는 이 《첫 사랑의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로동일을 연장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리용하려고 한다. 많은 리득은 보다 많은 리득에 대한 갈망을 격화한다.

기계가 일정한 생산 부문에 보편화됨에 따라 기계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는 그것의 개별적 가치로 저하되며 그리하여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기계에 의하여 대체한 로동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거꾸로 자본가가 그 기계에서 사용하는 로동력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잉여 가치는 자본의 가변 부분에서만 발생하며, 또 이미 교환한 바와 같이 잉여 가치의 양은 두 개의 요인 즉 잉여 가치율과 동시에 고용되는 로동자 수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일의 길이가 일정할 때에는 잉여 가치율은 로동일이 필요 로동과 잉여 로동으로 분할되는 비례에 의하여 규정된다. 타방으로 동시에 고용되는 로동자 수는 가변 자본 부분의 불변 자본 부분에 대한 비례에 의존한다. 그러면 기계적 생산이 로동 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필요 로동을 희생으로 하여 잉여 로동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초여의 자본에 의하여 고용되는 로동자 수를 감소시킴으로써만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기계적 생산은 자본중 종전에 가변적이

였던 일부분 즉 산 노동력으로 전환된 일부분을 기계로 즉 아무런 잉여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불변 자본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폐컨대 2명의 노동자로부터는 24명의 노동자로부터 짜내는 만큼의 잉여 가치를 짜낼 수는 없다. 24명의 노동자 중 매 개인이 매 12시간의 노동에서 1시간의 잉여 노동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도합 24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는 데 일방 2명의 노동자의 총노동은 24시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한 기계 적용에는 하나의 내재적 모순이 놓여 있는바 그것은 기계가 소여의 방의 자본에 의하여 제공되는 잉여 가치의 등요인중 한 개 요인인 잉여 가치를 다른 한 개의 요인인 노동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증대시키는 그것이다. 이 내재적 모순은 기계가 어떤 공업 부문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그 종류의 모든 상품들의 규제적인 사회적 가치로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 특히 이 모순은 자본가 자신에게는 의식되지 않을망정¹⁵³ 또 다시 그로 하여금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를 상대적 잉여 노동의 증가 뿐만 아니라 절대적 잉여 노동의 증가에 의하여서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일의 극도의 연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기계 적용은 일방으로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새 동기들을 조성하고 또 노동 방식 자체와 사회적 노동 유기체의 성격을, 노동일 연장으로의 경향에 대한 반항을 좌절하는 그러한 방식에 의하여 변혁하며, 타방으로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노동 제급중 종전에 자본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에 복종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기

153 무슨 이유로 이러한 내재적 모순이 개별적 자본가에게 그리하여 또 자본가적 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정치·경제학에게 의식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제 3부 제 1편에서 볼 것이다.

계에 의하여 구축된 노동자들을 해방함으로써 자본이 지시하는 법칙에 복종되지 않을 수 없는 파잉 노동 인구 154를 산생한다. 기계는 노동일의 온갖 도덕적 자연적 제한들을 전복한다는 근대 공업사에 있어서의 주목할 현상이 이로부터 발생한다. 또 노동 시간의 단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전 생활 시간을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하여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으로 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일변시킨다는 경제적 역설(逆說)이 이로부터 발생한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몽상하였다——《만약, 벵달루스(비행하는 날개를 만들었다는 희랍의 전설상의 명장(名匠))의 작품이 스스로 움직이고 또는 헤페스토스[희랍의 불과단야의 신]의 삼각대(三脚台)가 저절로 신성한 일을 하였듯이 매개 도구가 명령에 의하여서나 또는 예견에 의하여 그것이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만약 복(梭)이 저절로 직조를 한다면 장주(匠主)에게 조수가 필요 없을 것이며 주인에게 노예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¹⁵⁴라고. 그리고 키케로 시대의 희랍 시인 안티파트로스는 곡물을 쪼는 수차——모든 생산적 기계의 성소(成素)형태——의 발명을 여성 노예의 해방자이며 황금 시대의 전설자의 출현이라고 환영하였다! ¹⁵⁵ 《이꼬도들! 아 이 이꼬도들이여!》

154 리카도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그가 기계를 비단 상품의 생산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파잉 인구》의 생산 수단으로써 파악하였다는 그 점에 있다.

155 F. 비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베를린, 1842년, 제 2권, 408페이지.

156 나는 다음에 이 시의 슈를베트그역을 적어 두겠는바 그것은 이 시가 분업에 관한 전번의 인용과 전연 마찬가지로 근대적 견해에 대한 고대적 견해의 대립을 특징 짓고 있기 때문이다.

《방아쟁은 아가씨여 방아 손을 놓고서 잠들라

고요히 새벽을 끄하는 닭소리도 그대에게는 소용이 없이!

메오 여신이 처녀의 일을 넘프[산짐 수탉의 여신]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총명한 바스티아가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보다 총명한 맥컬러이 발견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학과 기독교에 관하여서는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다. 개중에서도 그들은 기계가 로동일의 연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을 몰랐다. 아마도 그들은 한 사람의 노예 상태를 다른 사람의 완전한 인간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당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악하고 교양 부족한 소수의 갑작 부자들을 《우수한 방적업자》 《대규모의 깎바싸 제조업자》 또 《유력한 구두약 장사》로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노예화를 설교하기에는 그들에게 특유한 기독교적 감각(感覺)이 결여되어 있었다.

c) 로동의 강화

자본의 수중에 있는 기계가 가져 오는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나중에는 생활의 근원을 위협 받는 사회측으로부터의 반응을, 따라서 또 법적으로 제한된 표준 로동일을 초래한다. 이 표준 로동일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미 이전에 봉착한, 하나의 현상 즉 로동의 강화는 결정적 중요성을 획득한다. 절대적 잉여 가치의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로동의 외연적 크기가 문제로 되었으며 로동의 강도는 소여의 것으로서 전제되었다. 이제 우리는 외연적 크기의, 집약적 크기 또는 강도로의 전환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계가 발전하고 기계 로동자라는 독자적 계급의 경험이

넉프폴은 몸도 가벼웁게 바퀴우에 뛰여 오른즉

축은 흔들리고 바퀴는 돌아가며

무거운 망돌도 빙빙 돌아 간다.

우리도 조상들 같이 살자

놀면서, 녀신이 보낸 선물을 즐기면서》

(《크리스티안 그라프 주 슈틀베룽그역 회랍의 시》, 함부르크, 1782년).

퇴적됨에 따라 노동의 속도 따라서 노동의 강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진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반세기 동안에 노동일의 연장이 공장 노동의 강도의 증대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발작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균일성이 문제인 노동에 있어서는 명백히,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의 강도가 서로 배제하며 그리하여 노동일의 연장은 오직 노동 강도의 저하와 양립되며 또 거꾸로 노동 강도의 제고는 오직 노동일의 단축과 양립되는 하나의 결절점(結節點)이 나타날 것이다. 노동 계급의 점차 증대되는 반항이 국가로 하여금 노동 시간을 강력적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우선 고유의 의미에서의 공장에서 표준 노동일을 지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자, 그리하여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 가치의 생산 증가가 단연 불가능하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자본은 전체 령량을 다하여 또 완전히 의식적으로 기계 체계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에 몰두하였다. 그와 동시에 상대적 잉여 가치의 성격에 한 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방법은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 생산력의 제고에 의하여 동일한 노동 지출로써 동일한 시간내에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일한 노동 시간은 총생산물에 대하여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첨가한다——비록 변함 없는 이 교환 가치가 이제는 보다 많은 사용 가치로 표현되며, 따라서 단위 상품의 가치는 저하되지만. 그러나 강력적 노동일 단축이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조건들의 절약에 대하여 방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시간내의 노동 지출의 증가, 노동력의 긴장의 제고, 노동 시간의 틈들의 조밀한 충전(充填), 즉 단축된 노동일의 범위내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정도로의 노동의 응결(凝結)을 강요하자 마자 사태가 일변한다. 보다 다량의 노동의 소여의 시간내로의 이 압축(壓縮)은 이제는 있는 그대로 즉 보다 많은 노동량으로서

계산된다. 《외연적 크기》로서의 노동 시간의 척도 외에 이제는 노동 시간의 밀도의 척도가 나타난다¹⁵⁷. 10시간 노동일 중의 보다 집약적인 1시간은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의 보다 틈들이 많은 1시간과 동일한 노동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노동 즉 지출된 노동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다 집약적인 1시간의 생산물은 보다 틈들이 많은 1시간 $\frac{1}{3}$ 의 생산물과 동일한 또는 그보다 많은 가치를 갖는다. 노동 생산력의 증진에 의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를 도외시하더라도 이제는 페컨대 6시간 $\frac{2}{3}$ 의 필요 노동에 대한 3시간 $\frac{1}{3}$ 의 잉여 노동은 종전에 8시간의 필요 노동에 대한 4시간의 잉여 노동이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가치량을 자본가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노동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일 단축의 첫 번째 효과는 노동력의 작용 능력이 그것의 작용 시간에 역비례한다는 자명한 법칙에 립각한다. 그러므로 힘을 발휘하는 시간상으로 잃는 것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정도에 있어서 얻어진다. 그러나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노동력을 류출시킨다는 것 이에 대하여 자본은 지불 방법에 의하여 배려한다¹⁵⁸. 기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또는 다만 미미한 역할 밖에 놀지 않는 마누콕두라 페컨대 제도업(製陶業)에서는 공장법의 실시에 의하여, 노동일의 단순한 단축이 노동의 규칙성, 균등성, 질서, 계속성 및 정력(精力)을 놀랄만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¹⁵⁹. 그러나 이

157 물론 생산 부문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노동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A. 스미쓰가 말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각종 노동에 고유한 부차적 사정들에 의하여 상쇄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점이 가치 척도로서의 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집약적 크기와 외연적 크기가 동일한 노동량의 대법적이며 호상 배제적인 표현물인 한에 있어서이다.

158 특히 도급제 임금에 의하여——도급제 임금의 형태는 제 6편에서 전개된다.

159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참조.

러한 효과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장에서는 의문스러웠으니, 그것은 여기에서는 기계의 계속적이며 균등적인 운동에의 노동자의 의존으로 밝히어 오래 전부터 극히 엄격한 규율이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44년에 노동일의 12시간 이하로의 단축이 토의되었을 때 공장주들은 거의 이구 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그들의 감독들은 각종 작업장들에서 노동자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감시하였다》느니 《노동자들 측에서의 경각성과 주의력의 정도는 거의 제고될 수 없다》느니 기계의 운전 등등과 같은 기타의 모든 조건들이 불변이라고 전제하면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의 주의력의 제고 등등에 의하여 무엇이든 현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¹⁶⁰ 라고. 이 주장은 제반 실험들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R·가드너씨는 1844년 4월 20일 이래 프레스튼에 있는 그의 두 개 대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대신에 다만 11시간 노동케 하였다.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성과로 《동량의 생산물이 동액의 비용으로 얻어졌으며 또 전체 노동자들은 종전에 12시간에 벌던 것과 동액의 임금을 11시간에 벌었다》¹⁶¹. 나는 여기에서 방적실과 소모실(梳毛室)들에서의 실험들에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기계 속도의 증가(2%만쯤의)와 결부되었었던 까닭이다. 이에 대하여 극히 다종 다양한, 가벼운, 무늬 있는 실크행품까지도 짜고 있었던 직조부에서는 객관적 생산 제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1844년 1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12시간 노동일로써 매개 노동자의 주 평균 임금은 10실링 1½펜스였으며 1844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160 《1844년 및 1845년 4월 30일에 끝나는 분기의 공장 감독관 보고》, 20, 21페이지.

161 동상서, 19페이지. 도급제 임금은 그때도 있었으므로 주 임금액은 생산물 양에 의존하였다.

11시간 로동일로써 주 평균 임금이 10실링 $3\frac{1}{2}$ 펜스였다》¹⁶². 이 경우에 종전 12시간에 생산한 것보다 11시간에 보다 많이 생산되었는바 이것은 오로지 로동자들의 보다 크고 균등적인 로동 능력과 그들의 시간의 절약의 결과였다. 로동자들은 동액의 임금을 받았으며 또 1시간의 자유 시간을 얻었는데 자본가는 종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얻었으며 또 1시간 분의 석탄 가스 등등의 지출을 절약하였다. 허릭스 앤드 잭슨 합명 회사의 공장들에서도 유사한 실험들이 실시되어 동일한 성과를 가져왔다¹⁶³.

로동일의 단축은 우선은 로동의 응결(凝結)을 위한 주관적 조건 즉 소여의 시간에 보다 많은 힘을 류출시키는 로동자의 능력을 조성하는바,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자마자 기계는 자본가의 수중에서 소여의 시간에 보다 많은 로동을 짜 내기 위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수단으로 된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 즉 기계 속도의 증가와 동일한 로동자에 의하여 감시될 기계수의 또는 그의 작업 장소의 량적 확대에 의하여 달성된다. 기계 구조의 개량은 부분적으로는 로동자들에 대한 압박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부분적으로는 이 개량이 자체로서 로동의 강화를 수반하는바, 왜냐 하면 로동일의 제한은 자본가로 하여금 생산비를 가장 엄격히 절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 증기 기관의 개량은 그 피스톤의 1분 안에 있어서의 개폐(開閉)도수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동력의 보다 큰 절

162 동상서, 22페이지.

163 동상서, 21페이지. 상술한 실험들에 있어서는 정신적 요소가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로동자들은 공장 감독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우리는 보다 활기 있게 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녁에 전보다 일찍 귀가할 수 있다는 보수를 넘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가장 년소한 조수로부터 가장 년장한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활기 있고 유쾌한 정신이 전 공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 방조할 수 있습니다》(동상서).

약에 의하여——석탄은 동일량 또는 보다 소량을 소비하면서도——동일한 발동기로써 범위가 보다 넓은 기구를 운전시킬 수 있게 한다. 전도 기구의 개량은 마찰을 감소시키며, 대소 회전축들의 직경 및 중량을 부단히 최저한으로 감소시키는바 이것은 구식 기계에 비한 근대적 기계의 명백한 우점이다. 끝으로 작업기의 개량들은 속도를 증가시키며 또 효과를 확대하면서도 근대적 증기 직기(織機)에서와 같이 그것의 용적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적기에서와 같이 기체와 함께 그것에 의하여 운전되는 도구들의 규모와 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50년 대 중엽에 자동식 물 방적기에 있어서 방추(紡錘)의 속도가 5분의 1만 큼 높아졌던 바와 같이 눈에 띄우지 않는 세부적(細部的) 변경들에 의하여 이 도구들의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12시간에로의 로동일 단축은 영국에서 1832년에 시작된다. 이미 1836년에 어떤 영국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종전에 비하여 공장에서의 로동은 기계 속도의 현저한 증가가 로동자에게 주의력과 활동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결과로 대단히 증가하였다」¹⁶⁴. 현재의 샤프쓰버리 백작인 애슐리 경은 1844년에 하원에서 문서에 의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공장의 제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로동은 이러한 작업들의 도입 당시보다 현재는 3배가 더 많다. 기계는 의심할 바 없이 수백만 인간의 힘줄과 근육을 대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또 그것의 무서운 운동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로동을 놀랄만큼 증대시켰다……12시간 동안에 두 대의 물 방적기 사이를 래왕하는 로동은 제 40번 방사의 방적에서 1815년에 8마일의 거리의 보행(步行)을 포함하였다. 1832년에는 동일한 번 수의 방적에서 12시간 동안에 두 대의 방적기 사이를 래왕하는 거리는 20마일이었으며 그 이상되는 일도 빈번

164 존 필든 《공장 제도의 저주》, 런던, 1836년, 32페이지.

하였다. 1815년에 방적공은 12시간 동안에 매개 물 방적기에 820회 실을 걸어야 하였는바 이는 12시간 동안에 도합 1,640회로 되었다. 1832년에는 방적공은 그의 12시간 로동일 동안에 매개 물 방적기에 2,200회 도합 4,400회, 1844년에는 매개 물 방적기에 2,400회 도합 4,800회 실을 걸어야 하였으며 또 약간의 경우들에는 더욱 많은 로동량이 요구된다……여기에 나는 1842년에 받은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바, 그것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로동이 루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래왕 거리가 증대하는 때문일 뿐만 아니다, 직공수는 비례적으로 감소하는데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은 증가하는 때문이며, 또 다음으로 로동이 보다 더 요구되는 열등한 편화가 빈번히 방적되는 때문이다……조면부(梳綿部)에서도 로동이 역시 현저히 증가하였다. 종전에 두 사람이 담당한 로동을 지금은 한 사람이 수행한다……직조부에서는 대부분이 여성인 다수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기계의 속도가 증대된 결과 최근 수년 간에 로동이 온근 10% 증가하였다. 1838년에 매주 방적된 행크[실꾸리—면사 1행크는 840야드]수는 1만 8,000이였는데, 1843년에는 그것은 2만 1,000에 이르렀다. 1819년에 증기 직기에 있어서 펙크(복치기) 수는 60이였는데, 1842년에는 그것은 140에 달하였으며, 이 사실은 로동의 거대한 증가를 말하는 것이다》¹⁶⁵.

1844년에 이미 12시간 법의 지배하에서 달성된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로동 감도에 비추어 보면, 이 방향에서의 금후의 어떠한 진보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로동 시간의 금후의 감소는 생산의 감소와 동일하다는 영국 공장주들의 언명은 당시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들의 이유가 일견 그럴듯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성실한 점열관인 공장 감독관 레오나드 호너의 당

165 애슬리 경 《10시간 공장 법안. 3월 15일의 연설》, 런던, 1844년, 6—9페이지의 이곳 저곳

시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 의하여 가장 훌륭히 증명된다——

《생산량은 주로 기계의 속도에 의하여 규제(規制)되므로 기계를 다음과 같은 조건들과 일치하는 최고 속도로써 운전하는 것이 공장주의 이익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계의 지나치게 급속한 약화의 방지, 제품의 품질의 유지, 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운전함에 따라 가는 그의 능력이다. 공장주는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운전 속도를 높이는 수가 왕왕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파손과 불량품이 속도의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공장주는 기계의 보수를 완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활동적이며 명철한 공장주는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틀림 없이 발견하므로, 12시간에 생산하는 만큼의 것을 11시간에 생산하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는 이르렀다. 나는 도급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그가 이미 동일한 노동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¹⁶⁶. 그러므로 호너는 가드너 등등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노동일을 12시간 이하로 더 단축한다면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¹⁶⁷. 당시 그가 아적도 기계와 인간 노동력——노동일의 강제적 단축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다 같이 극도로 긴장되는——의 신축성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증거로 그는 10년 후에 1845년의 자기의 견해를 스스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영국의 면 공장, 양모 공장, 전직 공장 및 아마 공장에 10시간 법이 실시된 이래의 1847년 이후 시기로 넘어 가자.

《방추의 속도는 1분간에 스로틀을 방적기에 있어서는 500회전, 물 방적기에 있어서는 1,000회전만큼 증가하였다, 즉 1839

166 《1845년 4월 30일까지의 공장 감독관 보고》.

167 통상서, 22페이지.

면에 1분간 4,500회전이었던 스로틀 방추의 속도는 현재(1862년)에 5,000 회전에 달하고 있으며, 5,000 회전이었던 물 방추의 속도는 현재는 1분간 6,000 회전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에 있어서는 $\frac{1}{10}$ [4,500을 기준으로 하면 $\frac{1}{10}$ —편집자] 후자에 있어서는 5분의 1의 속도 증가로 된다¹⁶⁸. 만체스터 근방 페트릭코프트의 유명한 로목 기사 제임즈 베스미스는 1852년에 테오나드 호너에게 보낸 한 서한에서 1848—1852년 간에 이루어진 증기 기관에서의 개량들을 설명하였다. 공식적 공장 통제에 있어서 증기 마력은 계속 1828년에 있어서의 그것의 효력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되므로¹⁶⁹ 아직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다만 현실적 마력의 지표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후 그는 개량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동일한 증량의 증기 기관, 왕왕 근대적 개량이 가하여진 데 불과한 동일한 기관이 총전보다 평균 50%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속도가 매분 220피트로 제한되고 있던 시기에 50마력을 내던 동일한 증기 기관들이 현재 석탄을 적재 소모하면서도 100마력 이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 여지가 없다……동일한 명목 마력을 가진 근대적 증기 기관은 그 구조와 보일러의 용적 및 구조상의 개량 등등으로 증전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운전된다……그러므로 명목 마력과 비례에 있어서는 증전과 동일한 수의 역공이 사용되고 있다

168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2페이지.

169 이것은 1862년의 《의회 보고》 이때 변경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근대적 증기 기관 및 수차(水車)의 현실적 증기 마력이 명목적 증기 마력 대신에 나오고 있다(제1권, 제 2분책 25페이지의 주 100a 참조). 또 연사(捻絲)방추도 이제는 본래의 방추와 혼동되어 있지 않다(1839년, 1850년 및 1856년의 《보고들》에 있었던 바와 같이). 다음으로 양모 공장에 있어서는 《기모기》(起毛機)의 수가 추가되었으며, 일방으로는 황탄(黃藤) 공장과 대마 공장, 타방으로는 아파 공장간에 구별이 생기었으며, 끝으로 양모 제조 공장이 처음으로 보고에 올랐다.

고 하더라도 작업기와의 비례에 있어서는 보다 소수의 직공들이 사용되고 있다》¹⁷⁰. 1850년에 연합 왕국의 공장들에서는 2,563만 8,716개의 방추와 30만 1,445대의 직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13만 4,217의 명목 마력이 사용되었다. 1856년에는 방추와 직기수는 각각 3,350만 3,580개와 36만 9,205대로 되었다. 만약 소요 마력이 1850년의 그것과 같다면 1856년에는 17만 5,000마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공식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불과 16만 1,435마력으로 즉 185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1만 마력 이상보다 적다¹⁷¹. 《1856년의 최종 보고(공식 통계)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들은 공장 제도가 매우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는 것, 기계와 대비하여 직공수는 감소되었다는 것, 중기 기관은 힘의 절약과 기타의 방법들에 의하여 보다 많은 중량의 기계들을 운전케 한다는 것, 또 작업기들의 개량과 제조 방법들의 변경, 기계 속도의 증대 및 기타 많은 원인들의 결과로 제품량의 증대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⁷². 《각종 기계들에 가해진 대개량들은 기계의 생산력을 대단히 제고시켰다. 로동일의 단축이……이러한 개량들을 위한 자극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심도 없다. 이러한 개량들과 로동자의 보다 강화된 노력은 단축된(2시간 또는 6분의 1만큼) 로동일에 적어도 종전의 보다 긴 로동일에 생산된 그만큼한 량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결과를 낳았다》¹⁷³.

로동력의 착취가 보다 강화됨에 따라서 공장주들의 치부가 어떻게 증가하였는가 하는 것은, 영국의 면공장 등등의 년 평균 증가수가 1838년부터 1850년까지는 32인 데 대하여 1850년부

170 《185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1페이지,

171 동상서, 14, 15페이지.

172 동상서, 20페이지.

173 《1858년 10월 31일의……보고》, 9, 10페이지. 《1860년 4월 30일의……보고》, 30페이지 이하 참조.

터 1856년까지에는 86으로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이미 증명된다.

10시간 로동일의 지배하에서 1848—1856년의 8년 간의 영국 공업의 진보는 거대한 것이었으나 이 진보는 1856—1862년에 이르는 그후의 6년 간에 다시 훨씬 증가되었다. 레컨대 견직 공장들의 방추수가 1856년에 109만 3,799개였던 것이 1862년에는 138만 8,544개로 장성하였으며, 직기수는 1856년에 9,260대로부터 1862년에는 1만 709대로 장성하였다. 이와 반대로 로동자 수는 1856년에 5만 6,131명으로부터 1862년에는 5만 2,429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방추수의 증가는 26.9%이었으며 직기수의 증가는 15.6%이었는데 동시에 로동자 수는 7%만큼 감소되었다. 1850년에 소모사(梳毛絲) 공장들에서 사용된 방추는 87만 5,830개, 1856년에 132만 4,549개(51.2%의 증가)로 되었으며 1862년에는 128만 9,172개(2.7%의 감소)로 되었다. 그러나 연사 방추가 1856년의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1862년의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방추수는 1856년 이래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방추와 직기의 속도는 1850년 이래 많은 경우들에 2배로 되었다. 소모사 공장들의 증기 직기수는 1850년에 3만 2,617대, 1856년에 3만 8,956대, 1862년에 4만 3,048대였다. 여기에서의 고용자들의 수는 1850년에 7만 9,737명, 1856년에 8만 7,794명, 1862년에는 8만 6,063명이었으나, 그 중 14세 미만의 아동은 1850년에 9,956명, 1856년에 1만 1,228명, 1862년에 1만 3,178명이였다. 그리하여 1862년에 1856년과 비교하여 직기수의 현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 로동자 총수는 감소되었으며 착취 당하는 아동들의 수는 증대되었다¹⁷⁴.

174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29, 100, 103 및 130제지.

1863년 4월 27일 국회 의원 페란드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랭카셔 및 체셔의 16개 지구 노동자 대표들——나는 그들의 위임으로》말하는 것이다——이 나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계 개량의 결과로 공장들에서의 노동은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증전야는 일명의 노동자가 조수를 데리고 2대의 직기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명의 노동자가 조수 없이 3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 4대까지 담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우에서 든 사실들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12시간 노동이 현재는 10로동 시간 이하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이 최근 년간에 얼마나 방대한 정도로 증가하였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¹⁷⁵.

그러므로 비록 공장 감독관들은 1844년 및 1850년의 공장법들의 좋은 결과들을 꾸준히 또 완전히 정당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은 로동력의 단축이 이미 노동자의 건강 따라서 노동력 자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노동 강도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면 공장들, 소모 공장들 및 견직 공장들에서는 최근 년간에 운전 속도가 비상이 촉진된 기계에서의 노동에 필요한 소모적인 흥분 상태는 그이하우 박사자 최근의 자기의 경탄할 만한 보고서에서 문종한 폐병에 의한 사망

175 근대식 증기 직기를 사용하면 현재 1명의 직조공이 2대의 직기로 주 60시간에 일정한 길이와 폭을 가진 일정한 종류의 직물 20필을 생산하는 데 증전의 구식 증기 직기로써는 4필 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직물 1필의 직조비는 이미 1850년대 초에 2실링 9펜스로부터 5펜스 $\frac{1}{8}$ 로 감소되었다.

제 2권에 대한 추가. 《30년전(1841년)에는 3명의 조수를 데리고 일하는 면사 방적공에게 300—324개의 방추를 가진 2대의 물 방적기의 관리만이 요구되었다. 현재(1871년말) 그는 5명의 조수를 데리고 방추의 수가 2,200개에 달하는 방적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1841년에 생산한 것보다 적어도 7배나 더 많은 방사를 생산한다》(공장 감독관 알렉산더 매도그매이의보의 논문, 《기술 협회 잡지》, 1873년, 1월 5일호).

물의 증가의 원인의 하나인 것 같다》¹⁷⁶. 로동일 연장의 가능성이 법률에 의하여 단연 박탈되자, 로동 강도의 체계적 제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며 또 기계의 모든 개량을 로동력 함취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자본의 경향은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로동 시간의 새로운 단축이 불가피적으로 되는 한계의 전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 바 없다¹⁷⁷. 타방 1848년부터 현재까지 즉 10시간 로동일의 시기에 영국 공업의 질품과 같은 발전은 1833년부터 1847년까지의 시기 즉 12시간 로동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바, 교정도는 후자에 있어서의 공업 발전이 공장 제도 도입 이래의 첫 반세기 즉 무제한적 로동일의 시기에 있어서의 그것을 통과한 정도보다 더 크다¹⁷⁸.

176 《1861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25, 26페이지.

177 현재(1867년)랭카셔에서는 공장 노동자를 간에 8시간 로동일을 위한 선동이 시작되었다.

178 다음의 약간의 수'자들은 1848년 이래의 연합 왕국에서의 주요한 의미에서의 《공장》의 진보물 특징 짓고 있다.

	수			
	1848년	1851년	1860년	1865년
면공장 면 사 (파운드)	135,831,162	143,966,106	197,343,655	103,751,455
봉 사 (縫絲) (파운드)	—	4,392,176	6,297,554	4,648,611
면직물 (야드)	1,091,373,930	1,543,161,789	2,776,218,427	2,015,237,851
아마 및 대마공장 방 사 (파운드)	11,722,182	18,841,326	31,210,612	36,777,334

(주해 도표 계속)

	수 출 량			
	1848년	1851년	1860년	1865년
직 물 (야드)	88,901,519	129,106,753	143,996,773	247,012,329
전 공 장 경사, 연사, 방사 (파운드)	194,815	462,513	897,402	812,589
직 물 (야드)	—	1,181,455	1,307,293	2,869,837
양 모 공 장 모사 및 소모사 (파운드)	—	14,670,880	27,533,968	{ (146,879필) (102,773파 운드)
직 물 (야드)	—	151,231,153	190,037,537	278,837,418
수출—가치 (파운드 스털링)				
	1848년	1851년	1860년	1865년
면 공 장 면 직 사	5,927,831	6,634,026	9,870,875	10,351,049
면 직 물	16,753,369	23,454,810	42,141,505	46,903,796
아마 및 대마 공 장	493,449	951,426	1,801,272	2,505,497
방 사	2,802,789	4,107,396	4,804,803	9,155,358
전 직 공 장 경사 연사 및 방	77,789	196,380	826,107	768,064
사 직 물	—	1,130,398	1,587,303	1,409,221
양 모 공 장 모사 및 소모사	776,975	1,484,544	3,843,450	5,424,047
직 물	5,733,828	8,377,183	12,156,998	20,102,259

(참서 《련합 왕국의 통계 적요》, 제 8호 및 제 13호, 런던, 1861년 및 1866년, 참조).

랭카셔에서는 공장수가 1839년과 1850년 간에 불과 4% 증가하였는데, 1850년과 1856년 간에는 19%, 1856년과 1862년 간에는 33%가 증가하였으며 타방 두 개의 11년 간에 취업 인원 수는 절대적으로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는 감소하였다.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3페이지 참조. 랭카셔에서는 면 공장이 우세하다. 그런데 면 공장들이 방사와 직물 제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 마 만한 중요한 역할을

제 4절 공 장

우리는 본 장의 서두에서 공장의 체구(體軀)인 편제(編制)된 기계 체계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계가 어떻게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의 취득에 의하여 자본의 인간적 착취 재료를 증가하는가, 기계가 어떻게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에 의하여 노동자의 전 생활 시간을 빼앗는가, 또 끝으로 더욱 더 방대한 생산물을 갈수록 더욱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계의 발전이 어떻게 각 순간에 보다 많은 노동을 작용케 하는, 즉 노동력을 더욱 더 집약적으로 착취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복무하는가를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전체로서의 또 가장 발전된 형상에서의 공장을 보기로 하자.

자동적 공장의 핀다로스 [희랍의 서정 시인]인 유어 박사는 그러한 공장을 서술하여 일방으로는 《중심력(원동기)에 의하여 부단히 작용하는 생산적 기계 체계를 로련과 근면을 가지고 감시하는 각종 부류의 성년 및 미성년 노동자들의 협업》이라 하고 타방으로는 《동일한 대상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일치하여 작용하며, 또 그 모두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개의 동력에 종속되어 있는, 무수한 기계적 및 자의식(自意識)적 기관(器官)들으로써 구성되는 방대한 자동 장치》라고 하였다. 이 두 표현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전자에 있어서는 결합된 총로동자 즉 사회적 노동체(體)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로 나

하는가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애란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공장 총수의 45.2%, 방추 총수의 83.3%, 증기 직기 총수의 81.4% 증기 직기를 움직이게 하는 증기 마력 총수의 72.6%, 취업 인원 총수의 58.2%가 다만 몇 공장들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써 알 수 있다(동상서, 62, 63페이지).

라하고 기계적 자동 장치는 객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자에 있어서는 자동 장치 자체가 주체이며 노동자들은 의식 있는 기관으로서 의식 없는 기관들에 부속되어 이 후자와 더불어 중심 동력에 종속되어 있다. 첫째 표현은 기계의, 있을 수 있는 모든 대규모적 적용에 타당하며, 둘째 표현은 기계의 자본주의적 적용을, 따라서 근대적 공장 체계를 특징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어는 또 운동의 출발점인 중심 기계를 자동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전제 군주로서 묘사하기를 즐기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 작업장들에서는 인자한 증기의 임금이 그 주위에 무수한 신탁을 모으고 있다》¹⁷⁹.

노동 도구와 함께 그것을 조종하는 기교(技巧)도 또한 노동자로부터 기계로 옮겨 간다. 도구의 작업 능력이 인간 노동력의 개인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된다. 그와 함께 마누팩투라의 분업의 기초인 기술적 토대가 제거된다. 그리하여 마누팩투라를 특징 짓는 전문 노동자들의 계층(階層) 제도 대신에 자동적 공장에서는 기계의 조수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들의 균등화 또는 수준화의 경향이 나타나며¹⁸⁰, 인위적으로 발생한 부분(部分) 노동자들 간의 구별 대신에 주로 연령과 성의 자연적 구별이 나타난다.

자동적 공장에서 분업이 재현하는 한 그것은 우선 전문화된 기계들 사이의 노동자들의 배분이며, 공장의 각 구분들 사이의 노동자 대충——단 내부적으로 편제된 집단을 이루는 것은 아닌——의 배분인바, 이 공장의 각 구분들에서 그들은 똑 들어 선 동종의 작업기들에 붙어서 작업하며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단순 협업이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마누팩투라의 편

179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18페이지.

180 동상서, 31페이지. 칼 맑스 《철학의 빈곤》, 파리, 1847년, 140, 141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 5권, 391—392페이지].

제된 집단이 주요 노동자와 수명의 협조원과의 결합에 의하여 대체된다. 현실적으로 작업기들에 붙어 일하는 노동자들(여기에는 원동기의 감시 또는 그것에의 자료 공급에 종사하는 약간의 노동자들도 속한다)과의 기계 노동자들의 단순한 조수들(거의 전적으로 아동들인)과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조수들에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모든 피더(feeder)(기계에만만 노동 재료를 먹일 따름인)들이 속한다. 이 주요 부류와 더불어 레컨대 기사, 기계공, 가구사 등등과 같은 전체 기계의 통제와 그것들의 부단한 수리에 종사하는 수¹⁸¹적으로론 매우 좁지 않은 인원들이 있다. 이것은 일부는 과학적 소양이 있으며 일부는 수공업적 성격을 가진 고급 노동자 층으로서 공장 노동자들의 범위 밖에 속하고 다만 그들에게 부속되어 있을 따름이다¹⁸². 이러한 분업은 순전히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계에 붙어서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자동 장치의 전면일물적이고 연속적인 운동에 자기 자신의 운동을 적용시키도록 배워야 하는만큼 그 모두가 노동자의 어려서부터의 수습을 요한다. 전체 기계 자체가 다양한 또 동시에 작용하는 결합된 기계들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한, 전체 기계에 적합한 협업도 또한 각종 노동자 집단들을 각종 기계들 사이에 배분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기계적 생산은 이 배분을 마누팩투라식으로 고정시킬 필요, 즉 동일한 노동자를 동일한 기능에 계속

181 영국의 공장 법법은 본문 마지막에 언급된 노동자들을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하여 그 적용 범위로부터 명백히 제외하고 있는데 타방으로는 의회가 공포한 《보고》는 역시 명백히 기사, 기계공 등등뿐만 아니라 공장 지배인, 서기, 연락원, 창고직이, 포장공 등등 간단히 말하면 공장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통계적 기만의 위조——이러한 위조는 이 외에도 아주 상세히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로서 특징적인 것이다.

절박할 필요가 없게 한다¹⁸². 공장의 전 운동은 노동자로부터가 아니라 기계로부터 출발하는만큼, 여기에서는 노동 과정을 중단함이 없이 부단한 인원 교체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1848—1850년의 영국 공장주들의 봉기시에 적용된 릴레이 제도(Relaisystem)가 가장 뚜렷한 증거를 제공한다. 끝으로 기계에 붙어서 하는 작업은 어렸을 때에 빨리 배울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기계에만 종사하는 특수한 부류의 노동자를 육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¹⁸³. 그런데 공장에서의 단순한 조수들의 작업은 일부는 기계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으며¹⁸⁴ 일부는 그것이

182 유어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노동자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배인의 마음대로 한 기계로부터 다른 기계로 옮길 수 있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양양하게 부르짖는다—— 《이와 같은 이동은, 노동을 분할하여 한 노동자에게는 편의 대가만을 제조하는 일을 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끝을 보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구매의 방식과는 명백히 모순된다》고. 그는 오히려 왜 이 《구매의 방식》이 자동적 공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폐기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었다.

183 페컨대 미국의 공민 전쟁 시기와 같이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르조아는 공장 노동자를 도로 부설 등등과 같은 극히 저질은 일에 폐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 실업한 면, 방적 노동자들을 위한 1862년 이후의 영국의 《국영 작업장》이 1848년의 불탄서와 그것과 구별되는 점은 후자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비생산 노동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전자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 생산 노동을, 그것도 그가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규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면 방적 노동자들의 육체상 외견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선되었다. 남성에 관해서 말하는 한……나는 이것을 공공(公共) 공사에서의 호외(戶外) 노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프록스톤 소택지》 배수 공사에 종사하였던 프록스톤 공장 노동자들이다)(《1865년 10월의 공장 감독관 보고》, 59페이지).

184 페컨대——1844년의 노동법 이래 양모 공장에서 아동 노동 대신으로 도입된 각종 기계 장치들이다. 공장주 제씨 자신의 아동들이 공장의 보조원으로서의 《수업》을 마치여야 할 때에야 기계학의 이 거의 미개척 영역은 즉시로 주목할 만한 비약을 할 것이다. 《자동식 물 방적기는 아마

극히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속하고 부단한 교체를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기계가 기술상 구 분업 체계를 전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분업 체계는 처음에는 마누팩투라의 전통으로서 관습에 의하여 공장에 존속하며 다음에는 자본에 의하여 노동력의 착취 수단으로서 더욱 협소한 형태로 재생산되어 확립된다. 부분 도구를 다루는, 일생(一生)에 걸치는 전문은 부분 기계에 복무하는, 일생에 걸치는 전문으로 전화한다. 기계는 노동자 자신을 유년시부터 부분 기계의 한 부분으로 전화시키는 데 악용된다¹⁸⁵. 그리하여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장 전체에 대한, 따라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어찌할 수 없는 예속이 완성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발전에 기인하는 생산 능력의 증대와 사회적 생산 과정의 자본주의적 착취에 기인하는 생산 능력의 증대와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누팩투라와 수공업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자기에게 복무케 하는데 공장에서는 그가 기계에 복무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노동 수단의 운동이 그로부터 출발하는데 후자에 있어서는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기계일 것이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대개 어린 아동을 인바 그것은 그들이 기계 운전중에 바닥을 청소하기 위하여 물기 아때로 기여 들어 가기 때문이다. 많은 〈민더〉(물기에 붙은 노동자)가 이러한 위반 때문에 고소되어 (공장 감독관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이렇다 할 아무런 결과도 가져 오지 못하였다. 만약 기계 제작자가 자동 청소기를 발명하여 그것의 사용으로 이 어린 아동들이 기계 밑으로 기여 들어 갈 필요가 없이 하였고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보호 시책에 좋은 기여로 될 것이다》(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3페이지).

185 그러므로 기계를 노동 수단의 종합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을 위한 부분 노동의 종합으로서 《구성하는》 프루동의 황당한 기상(奇想)을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의 운동을 뒤따라 가야 한다. 마누팩처라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한 개의 산 기구(機構)의 성원을 이룬다. 공장에서는 한 개의 죽은 기구가 그들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그들은 산 부속물로서 그 기구에 합체된다. 《동일한 기체적 과정을 부단히 반복하는 무한한 노동교의 침출한 되풀이는 시스푸스의 고역과도 같은 것으로, 노동의 중하는 암석과 같이 피로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부단히 되떨어진다》¹⁸⁶. 기계 노동은 신경 계통을 극도로 피로케 하면서 근육의 다면적 운동을 억압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일체의 자유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¹⁸⁷. 노동의 경감조차 고통의 원천으로 되는바 그것은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을 일체의 내용으로부터 해방하기 때문이다. 일체의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인만큼 그것에 공통적인 것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 조건이 노동자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도(顛倒)된 관계는 기계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기술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현실성을 얻는다. 노동 수단은 그것의 자동 장치로의 진화에 의하여 노동 과정 자체의 진행 중 자본으로서 즉 산 노동력을 지배하며 흡취하는 죽은 노동으로서 노동자와 대립한다. 생산 과정의 지'적 능력을 수로

186 프. 엥겔스 《영국에 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 마르크스저, 1845년, 217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3권, 483페이지]. 아주 평범한 타관주의적 자유 무역론자인 물리나리씨조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매일 15시간씩 희일적(勤—節)인 기계 행정을 감시하는 일은 같은 시간에 육체력을 긴장시키는 일보다 사람을 훨씬 더 빠르게 피로케 한다. 이 감시 노동은 너무 장시간에 걸치지만 많은다면 정신에 유익한 훈련으로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파도 때문에 심신을 다 파괴한다》(G. 드 물리나리 《경제학 연구》, 파리, 1846년, [49페이지]).

187 프. 엥겔스, 동장서, 216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3권, 462페이지].

동으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을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으로 전화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를 토대로 하는 대공업하에서 완성된다. 내용을 잃은 개별적 기계 노동자의 부분 기교는, 기계 체제에 체화되어 그 체제와 함께 《고용주》의 권력으로 화하고 있는 과학과 방대한 자연력과 사회적 집단 노동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부수물로 사라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계와 기계에 대한 그의 독점이 머리 속에 불가분리적으로 엉키어 있는 고용주는 《노동자들》과의 충돌의 경우에 경멸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짖는다——《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이 사실상 극히 저급한 종류의 기능 노동이라는 것, 그들의 노동처럼 얻기 쉬운 노동은 없으며 또 그 질로 보아 이처럼 나은 지불을 받는 노동은 없다는 것, 다른 어떠한 노동도 이처럼 단기간의 훈련으로써 이처럼 신속히 또 풍부하게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용주의 기계는, 6개월이면 능히 배울 수 있으며 또 어떠한 농손 머슴' 군도 배울 수 있는 노동자의 노동 및 기능보다 사실상 훨씬 중요한 역할을 생산 사업에서 논다》¹⁸⁸고.

노동 수단의 획일적인 행정에의 노동자의 기술적 예측과, 남녀 양성 및 각종 연령의 개개인으로 된 노동체(體)의 독특한 구성은 하나의 병영적 규율을 낳는바, 이 규율은 발달하여 완전한 공장 제도로 되며 또 이미 상술한 감독 노동을, 그리하여 동시에 수로동자와 노동 감독, 산업 병사와 산업 하사관으로의 노동자의 구분을 완전히 발전시킨다. 《자동적 공장에서의 주요 곤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규칙적인 노동 관습을 버리게 하고 그들을 대자동 장치의 변함 없는 규칙성에 일치시키는

188 《방적업자 및 제조업자 방어 기금. 위원회의 보고》, 만제스터, 1854년, 17페이지. 공장주들은 그들의 《산》 자동 장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혀 땀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차후에 보게 될 것이다.

에 필요한 규율에 있었다. 그러나 자동 체계의 요구와 속도에 상응하는 규율 법전(法典)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헤르쿨레스나 할 만한 사업으로, 그것은 아크라이트의 고귀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체계가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미 성년기에 달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동 체계를 위한 유용한 조수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⁸⁹. 자본이 그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제 정치를 사법(私法)적으로도 독재적으로 정식화하는——일반적으로 부르조아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권력의 분할도 없이 또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대의(代議) 제도도 없이——공장 법전은 대규모의 협업이 존재하고 노동 수단 특히 기계의 공동적 적용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필요하게 되는, 노동 과정의 사회적 규제의 자본주의적 회화(戲畫)에 불과하다. 노예 사역자의 채찍 대신에 감독의 처벌장(處罰帳)이 등장한다. 물론 일체의 처벌은 벌금과 임금 공제에 귀착하며 또 공장 류쿠르고스[수파르타의 립법자]들의 립법적 총명은 그들의 법률의 위반이 그 준수보다도 오히려 될 수 있는 대로 더 그들에게 리득이 되게 한다¹⁹⁰.

189 유어 《마누악뚜라의 철학》, 15페이지. 아크라이트의 정력을 아는 사람은 이 천재적 리발사의 머리 위에 《고귀》라는 말을 결코 던지지 않을 것이다. 18세기의 모든 대발명가 중 그는 논쟁할 여지 없이 타인의 발명들의 최대의 질취자이며 또 가장 비렬한 자였다.

190 《부르조아지가 프로테리아르를 읽어 매고 있는 노예의 쇠사슬은 공장 체계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여기에서는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일체의 자유가 소멸되고 있다. 노동자는 아침 5시 반에 공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2—3분만 늦어도 처벌되며 10분만 늦으면 조반이 끝날 때까지 전연 들어 갈 수 없으며 그 날 임금의 4분의 1을 잃는다. 그는 지휘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지 않으면 안된다... 폭군과 같은 종소리가 그를 침대로부터 불러 내며 조반과 점심으로부터 불러 낸다. 그러면 공장안에 들어 가면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공장주가 절대적인 립법자이다. 그는 마음대로 공장 규정들을 발표한다. 그는 마음대로 그의 법전을 변경하며 추가한다. 그리고 그가 아주 엄격히 없는 것을 이 법전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재판소는 노동자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공장 노동이 수행되는 물질적 제 조건만을 지적한다. 빈틈 없이 설치한 기계들은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할 것이다——그대는 자유 의사로 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제 그대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이 노동자들은 열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채찍 아래에서 살아야 할 운명에 있다》(F·벨피스 《영국에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 타이프제히, 1845년, 217페이지 이하)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 3권, 463—464 및 465페이지]. 무엇을 《재판소가 선고하는》가를 나는 두 가지 실험으로써 설명하려 한다. 그 하나는 1866년 말 웨필드에 있는 일이다. 어떤 노동자가 2년 간 계약으로 이곳 금속 공장에 고용되었다. 공장주와 다른 결과 그는 공장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는 그 공장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계약 위반으로 고소되어 2개월의 금고형의 판결을 받았다 (공장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는 다만 민법상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이며 벌금을 물을 넘겨야 있을 뿐이다). 2개월 복역후 공장주는 그 계약에 따라 공장으로 돌아 오도록 그를 불렀다. 노동자는 거절하였다. 그는 이미 계약 위반 죄는 갚았다고 말하였다. 공장주는 다시 고소하였으며 재판소는 다시 유죄의 판결을 내렸는데 다만 판사의 한 사람인 시 씨가 이것을 법률상 기피한 일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이대로 되면 동일한 위반 또는 범죄 때문에 사람은 전 생애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위대한 무급자》인 지방의 덕베리[헉스피어의 한 작품중의 인물로 여기에서는 치안 판사의 뜻]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런던의 최고 재판정의 하나에 의하여 언도되었다. [제 4관 주——이러한 일은 지금은 없어졌다. 오늘 영국 노동자들은 약간의 경우 해킹대 공공적 가스 사업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위반시에 고용주와 동등시되며, 민법상 소송만을 당할 수 있다——F·엔겔스]. 다른 하나는 1863년 11월 말 윌트샤에 있는 일이다. 웨스트버리 리의 테오워즈 밀에 있는 직포 공장주 해럼프라는 사람에게 고용된 약 30명의 증기 직기 녀공들이 파업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 해럼프라는 자가 아침 직기에 대하여 그들의 임금을 공제하되 2분에 6펜스, 3분에 1실링, 10분에 1실링 6펜스씩으로 하는 편리한 판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 시간에 9실링으로 1일에 4파운드 스틸링 10실링이 되는데 그들의 월 평균 임금은 결코 주 10실링 내지 15실링을 넘지 않는 것이다. 해럼프는 또한 공장 시간을 알리는 기적을 울리기 위하여 한 소년을 두었는데 그 소년은 자주 아침 6시 전에 기적을 울린다. 그의 기적 소리가 끝나기 전에 녀공들과 있지 않으면 문은 닫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떼운다. 그리고 공장에는 시계가 하나도 없으므로 불행한 녀공들은 해럼프의 사육을 받는 이 소년 시간지기의 수중에 완전히 매여 있었다. 《파업》을 개시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관한 산업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지만^{190a} 이러한 생명의 위험에 관하여는 도외시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올린 온도, 원료의 찌끼로 혼탁한 공기, 고막을 찢는 소음 등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 기관이 똑 같은 정도로 손상을 받는다. 공장 체제 하에서 비로소 온실에서와 같이 급속히 성숙되는 사회적 생산 수단의 절약은 자본의 수중에서는 동시에 작업 중 노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즉 공간, 공기, 광선과

며공들, 주부들과 처녀들은 시간지기 대신에 시계를 두고 합리적인 벌금률을 실시하면 복업하겠다고 성명하였다. 해럽프는 계약 위반이라 하여 19명의 부인과 처녀들을 판정에 끌어 왔다. 그들은 방청인들의 며를 석하는 격분 속에 각각 벌금 6펜스와 재판비 2실링 6펜스의 판결을 받았다. 해럽프는 군중의 욕설 속에 판정을 도망쳤다. 공장주들이 끝잘 하는 징벌 방법의 하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 가공을 받은 재료의 질이 나쁜 데 대하여 그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866년에 영국의 제도업(製陶業) 지방에서 총파업을 불러 일으키었다. 《아동노동 위원회》의 보고(1863—1866년)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능커녕 벌금 규정에 의하여 오히려 그의 《주인》님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을 들고 있다. 임금 공제에 있어서의 공장 전제자의 증명에 관한 교훈적인 특징을 밝히려는 것은 또한 최근의 면화 기근이다. 《최근 나는——하고 공장 감독관 R. 베이커는 말하고 있다——어떤 면방적 공장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이렇게 곤란하고 쓰라린 시기에 자기가 고용한 수명의 〈소년〉(13세 이상) 노동자들로부터 의사의 년령 증명서 값으로 10펜스씩을 공제하였다. 그런데 공장주 자신이 그 증명서에 지불한 비용은 6펜스에 불과하며 또 법률은 3펜스 이상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판례로는 한 푼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람의 공장주는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불쌍한 아동들이 일을 할 만한 년령이라고 의사가 증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면 방적의 기술과 비결을 가르쳐 준 로금으로 각각 1실링씩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수시로 일어 나는 파업들과 현재의 파업(1863년 6월 다윈에 있는 공장에서 일어 난 기계적포공들의 파업을 말함)과 같은 비상한 현상들을 리해함에 필요한 리면의 흐름들이 있다》(《1863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0, 51페이지) (공장 보고서들은 언제나 그것들의 공표 일자 이후에 미치고 있다).

190a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법은 유익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지금은 20년 전에는 없었던 사고의 새로운 원인들이 있으니 즉

그리고 생명에 위협하며 또한 건강에 해로운 생산 과정의 제조조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수단——노동자의 편의 시설은 전연 문제도 되지 않지만——에 대한 체계적인 도략(盜掠)으로 전환한다¹⁹¹. 푸리에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고

기계 속도의 증대가 그것이다. 자문, 로라, 방추 및 직기들이 지금은 증가된 또 부단히 증가되고 있는 힘으로써 돌리여지고 있다, 손'가락은 짧아진 실을 보다 재빨리 보다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주저하거나 부주의하면 손'가락이 희생되기 때문이다……사고의 다수는 노동자들이 일을 민속하게 끝마치려는 열중에 기인한다. 공장주들에게 있어서는 기계를 중단함이 없이 돌리여 실과 직물을 부단히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1분간이라도 정지하면 그것은 동력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손실로 된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수량에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 감독은 기계를 정지시키지 말도록 노동자들을 독촉한다. 또 이것은 중량이나 개수에 따라서 지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계 운전중에 청소하는 것은 대개의 공장들에서 형식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찌서나 실행되고 있다. 이 원인만으로 최근 6개월 간에 906건의 사고가 생기었다……청소는 그날 그날 하지만 토요일에는 대개 기계의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기계의 운전중에 실시한다……이 작업에 대해서는 보수가 없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소를 마치며 한다. 그리하여 사고수는 다른 주일들보다 금요일과 특히 토요일에 훨씬 많다. 금요일에는 특히 처음 4일 간 평균수를 약 12% 초과하며 토요일에는 선행 5일 간의 평균 사고수를 25% 초과한다. 그러나 공장일이 토요일에는 다만 7시간 반인데 나머지 주일들은 10시간 반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으면 초과는 65% 이상으로 된다》(《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런던, 1867년, 9, 15, 16, 17페이지).

191 최근 영국 공장주들은, 생명에 위협한 기계로부터 《노동자들》의 수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법의 조항들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 3부 제 1편에서 보고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장 감독관 테오나드 호너의 공식 보고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만으로 충분할 것이다——《나는 공장주들이 약간의 사고들에 대하여는 용서할 수 없으리만큼 경솔하게 레컨대 손'가락을 잃는 것쯤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활과 전도는 그의 손'가락에 크게 달여 있으므로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극히 엄중한 사변이다. 나는 그러한 경솔한 지결임을 물을 때 이렇게 물었다——〈가명당신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더 필요한데 두 사람이 신청해 왔으며 푸

부른 것은 과연 부당하겠는가? ¹⁹²

제 5절 노동자와 기계와의 투쟁

자본가와 고용 노동자 간의 투쟁은 자본 관계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마누팩추라의 전 시기를 통하여 맹렬히 전개된다¹⁹¹. 그러나 자본의 물질적 존재 형태인 노동 수단 자체와의 노동자의 투쟁은 기계의 도입 이래 비로소 시작된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물질적 기초로서의 생산 수단의 이 규정된 형태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

거의 전 구라파가 17세기 동안에 리본과 레스를 짜는 기계

사람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다 같이 손색이 없으나 한 사람은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들은 잠시도 망서리지 않고 손가락이 구비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 공장주 제씨는 그들의 사이비 박애주의적 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185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이 제씨는 《신중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노예 소유자 반란에 열중한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192 노동 시간의 강제적 제한과 기타의 규정들을 가진 공장법에 오해 동안 복종하여 온 공장들에서는 종전의 많은 폐해들이 없어졌다. 기계의 개선 자체가 어느 점에서는 《공장 건물의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바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유익하다 (《1863년 10월 31일의……보고》, 109페이지 참조).

193 특히 조 호우튼 《개량 농공업》, 런던, 1727년. 《동인도 무역의 리득》, 1720년. 존 벨러즈 《공업 대학의 창립에 대한 제안》, 런던, 1696년 참조.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은 불행히도 서로 부단한 전쟁 상태에 있다. 전자의 부동의 목적은 될 수 있는 대로 값싼 노동을 얻는 데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술책도 사양치 않는 데 후자 역시 그만 못지 않게 꾸준히 모든 기회물 리용하여 보다 높은 요구를 고용주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식량 가격이 높은 제 원인의 연구》, 1767년, 61, 62페이지 (저자 나세니엘 포스터 대사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편이다).

인 소위 반드필레 (슈누르필레 또는 필렌스톨이라고도 함)에 대한 노동자들의 소요를 겪어 왔다¹⁹⁴. 17세기 첫 3분기 말에 어떤 화란인에 의하여 런던 부근에 설치된 풍력 제재소가 서민의 폭동으로 쓰러졌다. 또 18세기 초에 잉글랜드에서 수력제재기가 의회의 지지를 받은 인민의 반항을 간신히 극복하였다. 1758년에 베레트가 최초의 수력 전모기(剪毛機)를 만들었을 때 10만의 실업자가 그 기계를 불태웠다. 아크라이트의 조소기(粗梳機)와 소모기(梳毛機)를 반대하여 당시까지 소모(梳毛)로써

194 반드필레 (리본 직기)는 독일에서 발명되었다. 이태리의 승려 탄세뫼티는 1636년에 베네치아에서 발간된 한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단짜히 출신의 안론 필러는 약 50년 전에 (탄세뫼티가 쓴 것은 1579년) 단짜히에서 단번에⁴ 4—6필의 직물을 짜 내는 극히 정교한 기계를 보았다. 그런데 동 시회(市會)는 이 발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노동자가 절인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그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발명자를 몰래 교살하든가 물에 던져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라이펜에서는 이 기계가 1629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페스 직공들의 폭동으로 시참사회는 비로소 그것을 금지하였다. 구화란 국회는 1623년, 1639년 기타의 각종 법령에 의하여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결국은 1661년 12월 15일 부 법령으로 일정한 제 조건하에서 허가하게 되었다. 《이 도시에서는——하고 북쓰호튼은 라이펜에서의 리본 직기의 도입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정치 제도》, 1663년)——약 20년 전에 1명의 직공이 동일한 시간내에 수명이 기대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직물을 보다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직기를 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직포공들의 불평과 불만을 야기하였으므로 시 참사회는 드디어 이 기대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기계는 1676년에 쾰른에서도 금지 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한 잉글랜드에서의 그 도입은 노동자들의 소요를 야기하였다. 독일에서는 1685년 2월 19일 부 칙령(勅令)으로 그것의 사용이 전국적으로 금지되었다. 함부르그에서는 그것이 시 참사회의 명령으로 공공연히 소각되었다. 칼 6세는 1719년 2월 9일에 1685년의 칙령을 갱신하였으며 작센 선제(選帝) 후국(侯國)에서는 1765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의 공공연한 사용이 허가되었다. 제삼을 그렇게도 떠돌석케 한 이 기계야말로 사실상 방적기와 직기의, 따라서 18세기의 산업혁명의 선구자였다. 그것은 직조에 전혀 경험이 없는 소년이라도 운전업자부를 밀었다 당기었다 함으로써 모든 북들과 함께 전체 기대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개량된 것은 단번에 40—50필을 생산하였다.

연명하고 있던 5만의 노동자가 의회에 진정을 하였다. 19세기 첫 15년 간에 잉글랜드의 제조업 지방들에 있는 대중적 기계 파괴는 특히 증기 직기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러다이트 운동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시드마우스, 카스트리 등 등의 반자코방 정부에게 극반동적 강압 수단을 취할 구실을 제공하였다. 노동자가 기계와 그것의 자본주의적 적용을 구별하고 따라서 그의 공격을 물질적 생산 수단 자체로부터 그것의 사회적 리용 형태에로 옮길 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였다¹⁹⁵.

마누팩투라 내부에서의 로임을 싸고 도는 투쟁은 마누팩투라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의 존재를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누팩투라의 형성을 반대하여 투쟁이 일어나는 한 그것은 쥘프트(동업 조합)의 장주(匠主)들과 특권 도시들에 의한 것이고 임노동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누팩투라 시기의 저술가들은 주로 분업을, 잠재적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하였고 현실적 노동자들을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는 이해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자명한 것이다. 메컨대 잉글랜드에서 현재 50만 명이 기계로써 방적하는 면화를 낚은 물레로 방적하기 위하여는 1억 명의 인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기계가 사실상 있어 본 일도 없는 이 1억 명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은 다만 방적 기계를 대신하려면 수백만의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반대로 잉글랜드에서 증기 직기가 80만의 직포공을 가두에 내던졌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노동자 수에 의한 현존기계의 대체에 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어 있거나 또는 구축되어 있는 일정한 노동자 수

195 구식 마누팩투라에서는 지금도 때때로 기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조야한 반항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메컨대 1865년 셰필드에서의 철칼(鐵) 연마에 있어서 그러하다.

의 현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마누팩투라 시기에 수공업적 생산 방식은 개별적 조작물로 분해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그 기초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식민지 시장들의 수요는 중세로부터 물려 받은 비교적 적은 수의 도시 노동자들로써는 충족될 수가 없었으며, 동시에 또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팩투라는 봉건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토지로부터 추방된 농민들에게 새로운 생산 영역을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 때에 작업장에서의 분업과 협업은 취업 노동자들의 생산 능력의 제고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었다¹⁹⁶. 물론 협업과 소수의 수중에서의 노동 수단의 결합화는 농업에 적용되어 생산 방식 따라서 농촌 인구의 생활 제 조건 및 취업 수단의 돌연적이며 강력한 대혁명을 불러 일으킨다——이 혁명은 많은 나라에서 대공업 시기보다 오래 전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 투쟁은 본래 자본과 고용 노동자에서라기보다 매 소 토지 소유자들 간에서 연출된다. 타방 노동자들이 양, 말 등등의 노동 수단에 의하여 구축되는 한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산업 혁명

196 씨 제임스 스튜어트는 기계의 작용도 전혀 이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기계를 나는 말하자면 양육할 필요가 없는 노동자의 수를 증대시키는 (잠재적으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기계의 작용과 새로운 주민들의 출현에 의하여 야기되는 작용과의 구별은 무엇이겠는가?》(《정치 경제학 원리》, 불역, 제 1권, 제 1편, 제 19장). 페티는 보다 훨씬 조박하게 기계가 《일부 다처(一夫多妻)》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점은 기껏해야 합중국, 몇 몇 지방에 타당하다. 그에 반하여 《기계는 잘 사용되여도 개인의 노동을 감소할 수는 거의 없다. 기계의 적용에 의하여 절약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기계의 제작에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다만 그것이 대중에 작용할 때 즉 단 한 개의 기계가 수천명의 노동을 방조할 수 있을 때에만 참으로 유용하다, 따라서 기계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직자를 가장 많이 가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에서이다……기계가 사용되게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용이하게 대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피어시 라벤스톤 《국채 제도와 그 효과에 관한 고찰》, 런던, 1824년, 45페이지).

의 최초의 전제를 이룬다. 처음에 노동자들이 토지로부터 추방되고 그 다음에 양이 등장한다. 그리하여 잉글랜드에서와 같은 대규모의 토지 도략(盜掠)이 비로소 대농업의 활동 무대를 조성한다^{196a}. 그러므로 농업상의 이 변혁은 그 시초에는 오히려 정치 혁명의 외관을 띤다.

노동 수단은 기계의 형태를 취하자마자 곧 노동자 자신의 경쟁자로 된다¹⁹⁷. 기계에 의한 자본의 자기 증식은 기계에 의하여 존재조건이 부인 당하는 노동자 수에 정비례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 체계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한다는 데 틈각한다. 분업은 이 노동력을 일면적인 것으로 만들어, 개별적인 부분 도구를 조종하는 완전히 특수화한 기능으로 전화시킨다. 도구의 조종이 기계에 맡겨지자 노동력의 사용 가치와 더불어 그 교환 가치도 소멸한다. 노동자는 마치 유통에서 물러난 지폐와 같이 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노동계급중 기계에 의하여 이와 같이 과잉 인구로, 즉 자본의 자기 증식에 이 이상 직접 필요치 않은 인구로 전화하는 부분은 일방으로는 기계 생산에 대한 낮은 수공업 생산 및 마누팩투라 생산의 타설 수 없는 투쟁에서 몰락하며, 타방으로는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 부문들로 더욱 더 끌리어 들어 가며 노동 시장을 범람하며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 이하로 저하시킨다. 일방으로는 구출민화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타방으로는 기계는 점차적으로만 전체 생산 부면을

196a [제 4판 주. 이것은 독일에도 타당하다. 독일에서 대농업이 있는 곳 즉 특히 동부에서는 대농업이 16세기 특히 1648년 이때 유행한 <바우에른레겐> (Bauernlegon) [봉건 명주가 농민의 보유지를 탈취하여 명주의 직영지로 편입한 것]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 F. 엥겔스].

197 《기계와 노동은 부단히 경쟁하고 있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판, 런던, 1821년, 479페이지) [로썸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256페이지].

장악하기 때문에 기계의 파괴적 작용의 규모와 강도가 완화된다는 사정은 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대 위안이 아닐 수 없다라고들 말한다. 일방의 위안은 타방의 위안에 의하여 박멸된다. 기계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생산 부문을 장악할 경우에는 그것과 경쟁하는 노동자 층에 만성적 빈궁을 가져 온다. 그 추이(推移)가 급속할 경우에는 기계의 작용은 대량적이며 급성적이다. 수십년을 끌어 오다가 1838년에 와서야 비로소 끝난 영국 수방직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도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사상에 없다. 그들의 다수는 아사하였으며 다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 동안 하루에 2펜스 반으로 연명하였다¹⁹⁸. 이와는 반대로 영국 면 방직 기계는 동인도에 대하여 급성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동인도 총독은 1834—35년에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이 빈궁이야말로 상업사상에 류폐가 없을 것이다. 면 방직공들의 해골은 인도의 평야를 하얗게 하고 있다》. 물론 이 직포공들이 일시적인 인생에 리별을 고한 것만큼 기계는 그들에게 《일

198 1833년 구빈법(救貧法) 실시 이전에 영국에서 수직조와 기계
직조 사이의 경쟁은 최저한 이하로 훨씬 떨어진 임금에 敎구(敎區)의 부
조로 보충된 까닭에 연장되었다. 《목사 터너씨는 1827년에 공업 지방인
제셔의 율름슬로의 敎구장이었다. 이인 위원회의 질문과 터너씨의 답변
은 기계에 대한 수로동의 경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이여 준
다. 문——〈력직기의 사용은 수직기의 사용을 구축하지 않았는가?〉
답——〈물론 구축하였다, 만약 수직조공들에게 임금 인하에 동의할 가능
성이 없었다면 실제보다도 훨씬 더 구축하였을 것이다〉. 문——〈그러나
수직조공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생계 유지에도 부족한 임금을 받은 것이
고 생계의 부족액은 敎구의 보조로써 보충하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그렇다, 수직기와 력직기 사이의 경쟁은 사실상 구빈
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리하여 굴욕적인 구휼과 이주——이것이
근로자들이 기계 도입에서 받는 리득인바 이 리득이란 결국 그물을 존
경할 만한 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수공업자로부터 수치스런 자선 빵에
의지하는 비굴한 가난뱅이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소위 일시적
고통이라는 것이다》(《경쟁과 협동의 공리의 비교에 관한 현상 논문》,
런던, 1834년, 29페이지).

시적인 불행》을 끼치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기계의 《일시적인》 작용은 기계가 새로운 생산 영역을 부단히 장악하기 때문에 실은 영속적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노동제 조건과 노동 생산물에 부여하는, 노동자로부터의 그것들의 자립 및 소격(疏隔)의 성격은 기계의 출현과 함께 일방으로는 노동자와 타방으로는 노동제 조건 및 노동 생산물 간의 완전한 대립으로 발전한다¹⁹⁹, 따라서 노동 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맹목적인 반항은 기계가 출현하자 처음으로 나타난다.

노동 수단이 노동자를 격멸한다. 물론 이 직접적 대립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새로 도입된 기계가 전래의 수공업 생산 또는 마누팩투라 생산과 경쟁할 때이다. 그러나 대공업 자체 내부에서도 기계의 부단한 개량과 자동 체계의 발전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 《기계 개량의 불변의 목적은 수로동을 감소시키는 데 또는 생산적 편책의 이러 저러한 고려에서 인적 장치를 철제(鐵製) 장치로써 교체함으로써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완성하는 데 있다》²⁰⁰. 《종래 손으로 움직이던 기계에 증기력과 수력을 적용하는 것은 매일과 같이 볼 수 있다…… 동력의 절약, 생산물의 개선, 동일한 시간내에 있어서의 생산의 증대 또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남성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의 비효적, 사소한 개량은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바 그것

199 《나라의 순 소득(그것은 리카도가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와 자본가들의 소득인바 그들의 재부는 경제학적으로 교환할 때 대체로 국부(國富)와 같다)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동시에 인구를 과잉하게 하며 노동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도 된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판, 런던, 1821년, 469페이지)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251페이지]. 《모든 기계 개량의 부동의 목적과 경향은 인간 노동을 아주 없이 하든가 또는 여성 노동 및 아동 노동에 의한 성년 남성 노동자의 노동의 교체 또는 무기능 노동자에 의한 기능 노동자의 교체로써 노동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23페이지).

200 《185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43페이지.

은 일전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다》²⁰¹. 《어떤 조작이 많은 기능과 확실한 손을 요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조작은, 너무나 기능이 있으며 종종 온갖 종류의 불규칙한 짓을 하기 쉬운 노동자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떨어져서 아동으로도 능히 감시할 수 있을만큼 잘 규제되어 있는 특수한 기구에 맡겨진다》²⁰². 《자동 체계 하에서는 노동자의 재능은 점점 구축된다》²⁰³. 《기계의 개량은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취업 성인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 부류의 인간 로동을 다른 부류의 인간 로동으로 즉 기능공을 무기능공으로, 성인을 아동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대체한다. 이 모든 변동은 로임물에 부단한 동요를 일으킨다》²⁰⁴. 《기계는 성인을 공장으로부터 끊임 없이 내던진다》²⁰⁵. 로동일의 단축에 의하여 초래된 기계 체계의 개선 행진은, 실천적 경험의 축적과 기계적 수단의 기존량과 기술의 부단한 진보의 결과 기계 체계에 얼마나 비상한 신축성이 있느냐

201 《185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5페이지.

202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19페이지. 《별물 공장물에서 적용되는 기계의 큰 장점은 그 적용자들로 하여금 전연 기능공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런던, 1866년, 180페이지, 제 46호).

제 2판 추가. 《그레트 노센 철도》의 기계 부장 A. 스티록크씨는 기계(거관차 등등)의 제작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값 비싼 영국인 노동자의 사용은 매일 감소되고 있다. 생산은 개량된 도구의 사용에 의하여 증가되고 있으며 이 도구는 또 보다 저급한 부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사용된다……이전에는 증기 기관의 모든 부분품들이 필연적으로 기능 노동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지금은 동일한 부분품들이 보다 낮은 기능 노동에 의하여, 그러나 우수한 도구로써 생산된다……. 내가 도구라 함은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칙명 철도 위원회. 증언록》, 런던, 1867년, 제 17862호 및 제 17863호).

203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20페이지.

204 동상서, 321페이지.

205 동상서, 23페이지.

하는 것을 보이며 주었다. 그렇지만 영국 면방직 공업이 절정에 달했던 1860년에 누가 그후 8년간 미국의 공민 전쟁의 자극으로 환기된 기계의 비약적 개량과 그에 따르는 수로동의 구축을 예견하였겠는가? 이 점에 관하여는 영국 공장 감독관들의 공식 자료중에서 몇개 실례를 들면 여기서는 충분할 것이다. 만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언명한다——《75대의 소면기(梳綿機) 대신에 우리는 지금 불과 1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더 좋지는 않으나 그러나 동일한 품질을 가진 동일한 양을 생산하고 있다……로임의 절약은 즉 10파운드 스텔링에 달하며 락면(落綿)의 절약은 10%에 달한다》. 만체스터의 한 세사(細糸) 방적소에서는 《운전 속도를 높이고 각종 자동적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한 부문에서는 노동자 인원이 4분의 1, 다른 한 부문에서는 2분의 1 이상 제외되었는데 한편 제 2 소면기를 대신한 정(整)소면기는 종전에 소면실에 종사하던 직공들의 수를 대단히 감소시키었다》. 또 한 방적 공장에서는 《직공》의 전반적 절약을 10%로 계산하고 있다. 만체스터의 방적업자 길모아합명 회사는 언명한다——《새 기계에 의하여 우리 소정실(梳淨室)에서 얻은 직공과 로임의 절약은 3분의 1이 절된다……권사기실(捲糸機室)과련조기실(練篠機室)에서는 경비와 로력에 있어서 약 3분의 1이 절약되었다. 정방실(精紡室)에서는 경비가 약 3분의 1이 절약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공장의 실(糸)은 직포공의 손으로 들어 가기까지 새 기계의 적용에 의하여 대단히 개선되므로 그것으로써 종전의 기계사으로써 보다 더 좋고 또 더 많은 직물이 생산된다》²⁰⁶. 공장 감독관 A·레드그레이브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생산은 증가되면서 노동자의 수는 급속히 감소되고

206 《186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8페이지 이하.

있다. 최근 양모 공장들에서는 직공의 새로운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수일전 로츠데일 부근에 사는 어떤 학교장이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녀학교들에서의 학생의 대감소는 공황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모 공장들에서 기계가 변화되어 70명의 반시간공들이 감소된 데도 기인한다²⁰⁷.

다음 표는 미국의 공민 전쟁이 영국 면방적 공업에 가져 온 기계 개량의 총결과를 보이여 준다——

	공 장 수		
	1858년	1861년	1863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	2,046	2,715	2,405
스코틀랜드	152	163	131
아일랜드	12	9	13
연합 왕국	2,210	2,887	2,549

	증기 직기 수		
	1858년	1861년	1863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	275,590	368,125	344,719
스코틀랜드	21,624	30,110	31,864
아일랜드	1,633	1,757	2,746
연합 왕국	298,847	399,992	379,329

207 동상서, 109페이지. 면화 공황시의 기계의 급속한 개선은 영국 공장주들로 하여금 미국 공민 전쟁후 순식간에 그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다시 범람시킬 수 있게 하였다. 직물은 이미 1866년 하반기에 이르러 거의 팔리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에로의 상품 위탁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범람》을 일층 심하게 한 것은 물론이다. 1867년 초에 공장주들은 그들의 상류 수단으로서 로임을 5% 인하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여 유일한 구제책은 노동 시간의 단축, 즉 주에 4일간 노동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이 주장은 이론상 아주 정당한 것이다. 오랜 반항 끝에 자칭 산업 선장(船長)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경우에 약간의 지방들에서는 임금을 5% 인하하고 다른 지방들에서는 그대로 두었다.

방 추 수

	1858년	1861년	1868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	25,818,576	28,352,125	30,478,228
스코틀랜드	2,041,129	1,915,398	1,397,546
아일랜드	150,512	119,944	124,240
연합 왕국	28,010,217	30,387,467	32,000,014

취업 인원 수

	1858년	1861년	1868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	341,170	407,598	357,052
스코틀랜드	34,698	41,237	39,809
아일랜드	3,345	2,734	4,203
연합 왕국	379,213	451,569	401,064

그러하여 1861년부터 1868년까지에 338개의 면 방적 공장이 소멸되었다, 즉 보다 생산적이며 보다 규모가 큰 기계들이 보다 소수의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증기 직기수는 2만 663대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의 생산물은 증가하였다, 즉 한 대의 개량된 직기는 이제는 구식의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방추수는 161만 2,547개 증가하였는데 타방 취업 노동자 수는 5만 505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면화 공황에 의한 노동자들의 《일시적》 빈궁은 기계의 급속하고 부단한 진보에 의하여 격화되고 고정화되었다.

그러나 기계는 고용 노동자를 《파잉》으로 되게 하기에 언제나 준비된 우세한 경쟁자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그것을 노동자에게 적대되는 힘으로서 소리 높여 또 계획적으로 선언하며 또 그렇게 리용한다. 그것은 자본의 전제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주기적 봉기, 파업 동맹을 진압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무기로 된다²⁰³. 개스켈에 의하면 증기 기계는 처

203 《연(鉛)초자 및 유리병 제조업에서의 주인과 직공들과의 관계는 판성적 파업이다》 이때문에 주요 조작들이 기계에 의하여 수행되는 압

음부어 《인간력》의 적대물로서, 그것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겨우 발족하기 시작한 공장 체제를 위기에 떨어뜨리려 하는 로동자들의 증대하는 요구들을 분쇄할 수 있게 하였다²⁰⁹. 그리하여 로동자들의 봉기에 대한 자본의 무기라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출현한, 1830년 이래의 발명들에 대하여 하나의 온근 력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동식 물을 상기한다. 그것은 이 방적기가 자동 체제의 신기원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²¹⁰.

기추(汽槌)의 발명자 네스미쓰는 트레이드 유니온〔직업 동맹〕위원회 앞에서 한 자기 진술에서 1851년 기계 로동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대파업의 결과로 그가 도입한 기계의 개량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우리의 근대적 기계개량들의 특징은 자동식 작업기의 도입이다. 이제는 기계 로동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훌륭한 작업을 감시하는 것이니 이것은 소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는 오로지 자기의 기능에만 의존하는 로동자 부류는 아주 없어졌다. 종전에 나는 기계공 1명에 4명의 소년을 사용하였다. 이 새로운 기계 개량의 덕택으로 나는 성년 남공의 수를 1,500명으로부터 75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 결과 나의 리윤은 현저히 증대하였다》.

유어는 갱사(更紗) 날염업에서의 한 날염 기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드디어 자본가들은 과학적 구제책에 호소함으로써 이 참을 수 없는 노예 상태 (즉 그들에게 귀찮은

작 유리의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뉴젯슬의 한 상사(商社)는 종전에 년 35만 파운드의 취제(吹製) 연조자를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그 대신에 300만 500파운드의 압착 초자를 생산하고 있다 (《아동 로동 조사위원회 제 4차 보고, 1865년》, 262—263페이지).

209 개스펠 《잉글랜드의 공업 인구》, 런던, 1833년, 3—4페이지.

210 페어번씨는 그 자신의 기계 공장에서의 파업들의 영향하에 기계 제작에서 약간의 극히 중요한 기계 적응들을 안출하였다

로동자와의 계약 조건들)로부터 해방되려 하였으며 그리하여 얼마 안가 그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 즉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지배할 두뇌의 권리를 회복하였다». 그는 파업에 의하여 직접 초래된 경사(經糸) 호부(糊附) 상의 한 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분업의 낡은 보루(保壘)로 해서 자신을 난공불락으로 생각하였던 불평 분자들의 일당은 측면 공격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현대적 기계 기술에 의하여 그들의 방어물이 격멸되었음을 보았다. 그들은 무조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동식 물의 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것은 로동 계급내에 질서를 회복할 사명을 가진 것이었다…… 이 발명은 이미 우리가 전개한 학설 즉 자본은 과학을 자기에게 복무케 함으로써 언제나 불온한 로동자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확증한다》²¹¹. 유어의 저술은 1835년 즉 공장 제도의 발전이 아직 비교적 미약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그 저술의 솔직한 시너지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가 자본의 두뇌의 엉터리 없는 모순을 입 밖에 내고 있는 그 소박성 때문에도 의연 공장 정신의 고전적 표현으로 되고 있다. 그는 레킨대 자본은 그가 고용한 과학의 방조로 《언제나 불온한 로동자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학설》을 전개한 후에 《기계—물리학이 부유한 자본가들의 폭군적 지배에 복무하여 빈궁한 계급들의 억압 수단으로 타락한다고 어떤 방면으로부터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 그는 기계의 급속한 발전이 로동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장황히 설교한 후에 로동자들에게 그들의 반항, 파업 등등이 기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와 같은 폭력과 반항은——하고 그는 말한다——인간의 가장 천시할 근시안적 성격 즉 인간을 자기 자신의 교형리

211 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368—370페이지.

로 되게 하는 그러한 근시안적 성격을 표시한다». 수 페이지 앞에서는 거꾸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로동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기인한 격렬한 충돌과 중단이 없었더라면 공장 제도는 훨씬 더 급속히 발전하였을 것이며 모든 관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였을 것이다». 다음에 그는 다시 부르짓는다——《대영국의 공장 지대의 주민이 행복으로 알아야 할 점은 기계 개량이 점차적으로만 일어 난다는 것이다». 《기계가——하고 그는 말한다——성인들의 일부를 구축하여 그 수효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케 하며 이리하여 그들의 로임을 감소시킨다고 기계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기계는 아동 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그리하여 그 임금을 높인다». 타방 이 위로 자는 아동 임금이 낮은 것을 변호하여 《그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공장으로 보내는 것을 삼가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 전체가 무제한한 로동일의 완미에 불파하며 그리하여, 법법이 13세의 아동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고역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의 자유주의적 정신으로 하여금 중세의 암흑 시대를 상기케 한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는 공장 로동자들을 향해서 기계에 의하여 《그들의 불멸의 이익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여가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의 섭력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권하고 있다²¹².

제 6절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로동자들에게 관한 보상(補償) 이론

제임스 밀, 맥컬러, 로벤즈, 시노어, 존 스튜아트 밀 뮌과 같은 허다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로동자들을 구축하는

212 동상서, 368, 7, 370, 280, 322, 321, 475페이지.

모든 기계들이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 구축되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킬 만한 자본을 동시에 해방시킨다고 주장한다²¹³.

한 자본가가 페친대 벽지(壁紙) 마누팩처라에서 100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데 매개 노동자가 년 30파운드 스텔링을 받는다 가정하자. 그러면 자본가가 1년 간에 지출하는 가변 자본은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이 자본가가 5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나머지 50명을 1,500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드는 기계로써 일하게 한다고 하자.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물, 석탄 등등은 도외시한다. 또 매년 소비되는 원료는 이전대로 3,000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자²¹⁴. 이 변화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 《해방》되었겠는가? 종전의 경영 방식하에서는 6,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총지출액이 절반은 불변 자본으로 절반은 가변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제는 그것이 4,5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 자본(원료에 3,000파운드 스텔링, 기계에 1,500파운드 스텔링)과 1,5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본의 가변 부분 즉 산 노동력으로 전화된 부분은 이제는 총자본의 반이 아니라 다만 4분의 1을 이룬다. 여기서는 자본의 해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력과 교환되지 않게 되는 형태에서의 자본의 구축이, 즉 가변 자본의 불변 자본으로의 전화가 생긴다. 이제는 6,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기계가 개량될 때마다 자본은 더욱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만약 새로 도입되

213 리카도는 처음에는 이러한 견해를 가졌으나 후에 그의 특징으로 되는 과학적 공정성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포기하였다. 다비드 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1장 《기계에 관하여》 참조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제 31장].

214 나는 위에서 든 경제 학자들과 전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대하여 주의하라.

는 기계들의 가치가 그것에 의하여 구축되는 노동력과 노동 도구의 가치 총액보다 더 적어서 레컨대 1,500파운드 스털링이 아니라 다만 1,000파운드 스털링이라면 1,000파운드 스털링의 가변 자본은 불변 자본으로 전화 즉 구축될 것이며 5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은 해방될 것이다. 년 로임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5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는데 이 자본은 약 16명의 노동자를, 아니 16명보다 훨씬 적은 수의 노동자를——왜냐 하면 이 500파운드 스털링이 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일부가 불변 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이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으므로——고용할 만한 기금을 이룬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들의 생산이 더 많은 수의 기계 제작 노동자를 취업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가두에 내던져진 벽지 제조공들에 대한 보상으로 될 수 있겠는가? 기계의 제작은 기껏해야 기계 적용에 의하여 구축되는 노동자들보다 적은 수의 노동자를 요구할 뿐이다. 전에는 해고된 벽지 제조공들의 로임만을 대표하던 1,500파운드 스털링의 금액은 이제 와서는 기계의 형태로써 1) 기계 제조에 필요한 생산 수단의 가치, 2) 그것을 생산하는 기계 제작 노동자들의 로임, 3) 이들의 《고용주》에게 가는 잉여 가치를 대표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계는 한 번 제작된 후에는 그것이 사멸될 때까지 갱신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계 제작 노동자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장주들은 편달아 기계에 의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더 구축하여야 한다.

사실 상술한 변호론자들도 이러한 종류의 자본 해방을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해방된 노동자들의 생활 수단이다. 레컨대 위에서 든 경우에 기계는 50명의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다 함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과 1,5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만큼의 생활 수단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그리하여 이 생활 수단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기계가 노동자를 생활 수단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단순하며 또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닌, 사실이 경제 학자들의 말로 표현될 때에는 기계가 노동자를 위한 생활 수단을 해방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을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으로 된다.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표현 방식에 달렸다. 나쁜 것도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1,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생활 수단은 50명의 해고된 벽지 제조공의 노동에 의하여 증식된 자본이었다. 따라서 이 자본은 50명의 사람이 휴가를 얻게 되자마자 할 일이 없어지며 또 이 50명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다시 생산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발견될 때까지는 안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자본과 노동자는 조만간 다시 결합되며 그 때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노동자들의 곤난은 이 세상의 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다.

1,5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생활 수단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결코 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았다. 자본으로서 그들에게 대립하였던 것은 지금 기계로 전화되어 있는 1,5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더 세밀히 고찰하여 본다면 이 1,500파운드 스텔링은 50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에 의하여 1년 간에 생산된 벽지의 다만 일부분을 대표하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고용주로부터 로임으로서——현물 형태로가 아니라 화폐 형태로——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1,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전화된 이 벽지로서 동일액의 생활 수단을 구매하였다. 그러므로 이 생활 수단은 그들에 대하여 자본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존재하였으며 그들 자신은 이 상품들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고용 노동자가 아니라 구매자이었다. 기계가 그들을 구매 수단으로부터

터 《해방》시킨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매자로부터 비구매자로 전화된다. 이로부터 해당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것으로 다다. 만약 수요의 이러한 감소가 어떤 다른 방면으로부터의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면 그 수요가 감소된 상품들의 시장 가격은 떨어진다. 만약 이것이 비교적 오래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계속된다면 소여 상품들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발생한다. 종전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던 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다른 형태로 재생산될 것이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동안에, 생활 필수품 생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도 또한 그 로임의 약간의 부분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변호론자 제씨는 기계가 노동자들을 생활 수단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동시에 생활 수단들을,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대신에, 틀림 없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써 거꾸로 기계는 그것이 도입되는 생산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입되지 않는 생산 부문들에서도 노동자들을 가두에 내던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제학적 관점주의에 의하여 뒤집혀진 현실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부터 노동 시장에 내던져지며 거기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착취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노동력 수를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노동 계급에 대한 보상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기계의 작용이 사실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액이라는 것을 제 7편에서 중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만 지적해 두자—— 물론 한 산업 부문으로부터 내던져진 노동자들은 어떤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일'자리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해방된 생활수단들과 그들 간의 련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것은 적용될 곳을 찾는 새로운 추가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권

에 기능하였고 현재는 기계로 전화되고 있는 자본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 때에 있어서도 그들의 전망은 얼마나 암담하냐! 이 가련한 친구들은 분업에 의하여 불구자로 되어 있으므로 자기의 이전 활동 분야 이외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약간의, 저급한, 따라서 언제나 충만되어 있으며, 임금이 낮은 노동 부문들에서만 채용될 수 있다²¹⁵. 또 매개 산업 부문은 매년 인원의 새로운 흐름을 흡수하는데 이 흐름이 그 부문에게, 규칙적인 보충과 증가를 위하여 필요한新兵(新兵)을 제공한다. 기계가 종래 일정한 산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일부를 해방시킬 때, 보충 인원의 후보들도 새로 분배되어 다른 노동 부문들에 의하여 흡수되는바 최초의 희생자들은 과도 시기에 그 대부분이 령락하고 멸망한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자를 생활 수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 바 없다. 기계는 그것이 장악하는 부문에서 생산물을 저렴하게 하고 또 증가시키며, 다른 산업 부문들에서 생산되는 생활 수단들의 양을 우선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계 도입후에도 도입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처분하에는, 년 생산물 중 노동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낭비되는 막대한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해방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 수단이 동일한 양으로 또는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 경제학적 변호론의 요점이 있

215 이 점에 관하여 리카토 학파의 한 사람은 J·B·제이의 우론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분업이 발달된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의 기능은 그들이 수업한 그 특수 부문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노동자 자신이 일종의 기계이다. 그런 고로 모든 사물은 원래 자체의 수준을 찾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앵무새처럼 지껄여왔자 절대로 아무 소용 없다. 주위를 살펴 보면 우리는 사물이 장기간 그 수준을 찾아 내지 못하며 또 찾아 낸다 히더라도 그 수준이 과정의 처음에 있어서 보다는 낮아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수요의 본성 등등에 관한 제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 72페이지).

다! 기계의 자본주의적 적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모순들과 적대 관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기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본주의적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그 자체로서 보면 로동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적용되면 로동일을 연장시키며, 그 자체로서는 로동을 경감시키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적용되면 로동 강도를 제고시키며, 그 자체로서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인데 자본주의적으로 적용되면 자연력에 의하여 인간을 예속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적용되면 생산자를 궁핍화하는 것 등등이기 때문에, 부르쥬아 경제 학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기계를 그 자체로서 고찰하면 추호의 틀림 없이 증명되는 바와 같이 저 명백한 모든 모순들은 평범한 현실의 외판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하여 그는 이 이상 꼴을 더 쓰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반대자가 우매하게도 기계의 자본주의적 적용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물론 이때에 일시적인 불편도 생긴다는 것을 부르쥬아 경제학자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면이 없는 메달이 어데 있는가! 그에게는 기계의 자본주의적 리용 이외의 리용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에게는 기계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는 로동자에 의한 기계의 리용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계의 자본주의적 리용이 현실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폭로하는 자는 기계의 리용을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이며 사회적 진보의 적이다!²¹⁶ 사람 목 자르기로 유명한 빌

216 이러한 자괴자대하는 천치(天痴)의 명인은 개중에도 맥길력이 다. 베킨대 그는 어둠살 먹은 어린애처럼 소박한 체하면서 다음과 같

사이크스(딕킨스의 한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논법과 전혀 그대로다——《배심원 제씨여, 물론 이 행상인들의 목은 잘리워졌습시다. 그러나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칼의 죄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불행 때문에 과연 우리는 칼의 사용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없이 농업과 수공업이 어찌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과 수술에서 치료에 도움을 주며 해부 학자의 수중에서는 과학의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즐거운 연회에서는 순순한 조수로 되지 않습니까? 칼을 없애 버린다는 것——이것은 우리를 야만의 공매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216a}.

기계는 그것이 도입되는 노동 부문들에서는 불피코 노동자들을 구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노동 부문들에서는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용은 소위 보상 이론과는 하등 공통점이 없다. 모든 기계에 의한 생산물 때컨대 1엔트의 기계 직물은 그것에 의하여 구축된 동종의 수로동 생산물보다 덜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법칙이 나온다: 만약 기계적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의 총량이 그것에 의하여 대체된, 수공업적 또는 마누파투라적 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총량과 같다면 적용되는 노동 총량은 감소된다. 노동 수단 자체——기계, 석탄 등등——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증가는 기계 적용에 의하여 절약되는 노동보다 더 적지 않으면 안

이 말한다——《만약 노동자의 기능을 더욱 더 발전시켜 그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적은량의 노동으로써 더욱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그들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기계의 원조를 리용하는 것도 역시 유익하지 않을 수 없다》(맥컬럭 《정치 경제학 원리》, 런던, 1830년, 166페이지).

^{216a} 《방적 기계의 발명자는 인도를 멸망시켰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때도 좋은 일이다》. (A. 티에르 《소유에 관하여》[파리, 1848년, 275페이지]) [로씨야어 판, 《소유에 관하여》성 페페르부르크, 1872년, 225페이지 참조]. 티에르씨는 여기서 방적 기계를 력직기와 혼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때도 좋은 일이다》

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계 생산물은 수로동 생산물보다 더 낫지 않거나 지어는 더 비쌀 것이다. 그러나 감소된 수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리용하여 생산한 상품 총량은 구축된 수공업 생산물의 총량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는 오히려 훨씬 그보다 더 많아진다. 40만 엘페의 기계 직물이 10만 엘페의 수직물보다 더 소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4배의 생산물 속에는 4배의 원료가 들어 있다. 따라서 원료의 생산은 4배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된 노동 수단 때론 대 건물, 석탄, 기계 등등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노동이 증대될 수 있는 한계는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일방 기계적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량과 타방 그들이 수로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량 간의 차이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한 산업 부문에서의 기계적 생산의 확대에 따라 우선 이 부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부문들에서의 생산이 증대된다. 이로 말미암아 취업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하는 것은,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가 소여의 경우에는 소비되는 자본의 구성 즉 그 불변적 부분과 가변적 부분간의 비율에 의존한다. 이 비율은 또한 기계가 소여의 산업 부문을 어느 정도 장악하였는가 또는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현저하게 변동된다. 탄광들과 광산들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수는 영국에서 기계의 적용이 발전함에 따라 대단히 장성하였다——하기는 이 장성이 최근 수십년 간에 새로운 기계들이 217 광업에 적용됨으로써 완만하게 되고 있지만 기계와

217 1861년의 일제 조사(런던, 1863년, 제 2권)에 의하면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24만 6,613명이었는데 그 중 7만, 3,546명은 20세 미만이고 17만 3,067명은 20세 이상이였다. 전자중에는 5세 내지 10세에 해당하는 자가 835명, 10세 내지 15세가 3만 701명, 15세 내지 19세가 4만 2,010명이 속하였다. 철, 동, 연, 주석 및 기타 모든 광산들에서의 취업자 수는 31만 9,222명이였다.

함께 새 종류의 노동자들 즉 기계의 생산자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 생산 부문 자체를 기계적 생산이 더욱 더 대규모로 점령해 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²¹⁸. 또한 원료에 관하여 말한다면²¹⁹ 레컨대 면방직업의 질풍파도 같은 발전은 합중국에서 면화 재배를 조장시켰으며 그와 함께 아프리카의 노예 상업을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예 사육(飼育)을 소위 경계 노예 제주(境界奴隸諸州) [합중국의 북부 제주와 남부 제주간의 중간 노예제 제주]의 주요한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 의심할 바 없다. 1790년에 합중국에서 최초의 노예 일제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노예의 수는 69만 7,000명이었는데 1861년에는 이미 거의 400만에 달하였다. 타방으로 기계적 양모 공장의 번영은 경지를 더욱 더 양목장으로 전화시키는 동시에 농업 노동자들의 대량적인 추방과 그들의 《과잉화》를 초래하였다는 것도 또한 그와 못지 않게 확실하다. 애란에서는 1845년 이래 거의 반감된 그 인구를 애란의 자본가적 지주들과 잉글랜드의 양모 공장주 제씨의 요구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정도까지 더 한층 감소시키는 과정이 오늘날에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

만약 기계가, 노동 대상이 그 최종적 형태를 취하기까지에 통과하여야 할 예비적 또는 중간적 단계들을 장악한다면, 그 기계 제품이 들어 가는, 아직 수공업적이거나 또는 마누파투라적인 방식으로 경영되는, 노동 부문들에는 노동 재료와 합

218 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계의 생산에 종사한 자는 6만 807명이었는데 이 수'자'에는 공장주들과 그 사무원 등등과 또한 이 부문의 모든 대리인 및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재봉기 등등과 같은 소기계의 생산자 및 방주 등등과 같은 작업기용 도구들의 생산자는 제외되어 있다. 기사(記事)의 총수는 3,329명이었다.

219 철은 가장 중요한 원료의 하나인만큼 여기에서 지적해 둔다면 1861년에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제철공은 12만 5,771명이었는데 그 중 12만 3,430명은 남성이고 2,341명은 여성이었다. 전자중 20세 미만은 3만 810명이었고 20세 이상은 9만 2,620명이었다.

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페컨대 기계 방적이 방사를 아주 저렴하게 또 풍부히 제공하였기 때문에 수직포공들은 우선은 지출을 조금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완전한 시간을 작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수입은 증대되었다²²⁰.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면방직업으로 채도하였는데, 드디어 페컨대 영국에서 제너 방적기, 스콧틀 방적기 및 볼 방적기에 의하여 생산된 80만 명의 면방직공들이 다시 증기 방적기에 의하여 파멸 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기계적 방식으로 생산되는 의복 재료가 풍부하게 됨에 따라 남녀 재봉공, 바느질 녀공 등등이 증가하고 드디어 재봉기가 나타난다.

기계적 생산이 비교적 소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작업 공구 등등의 양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원료, 반제품들의 가공이 무수한 아종(亞種)들로 세분되며 그리하여 사회적 생산 부문의 다양성이 증대된다. 기계적 생산은 마누팩투라와는 비교도 안되리만큼 훨씬 사회적 분업을 촉진하는바, 왜냐 하면 그것에 의하여 장악된 산업 부분들의 생산력이 비교도 안되리만큼 높은 정도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기계 도입의 직접적 결과는 그것이 잉여 가치와 또 동시에 잉여 가치가 표시되는 생산물량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그에 매달린 자들이 소비하는 실체(實體)와 함께 이 사회층 그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부의 장성과 생활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의 부단한 상대적 감소는 새로운 사치욕과 함께 그것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단들을 산생한다. 사회적 생산물의 더욱 큰 부문이 잉여 생산물로 전화되며, 잉여 생

220 《4명의 성년(면방직공)과 실감기를 하는 아동 2명을 가진 한 가족이 전세기 말과 금세기 초에 하루 10시간 노동으로 매주 4파운드 스털링을 벌었으며, 일이 대단히 바쁠 때에는 그들은 더 많이 벌 수 있었다……이전에는 그들은 항상 방사의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개스필 《잉글랜드의 공업 인구》, 런던, 1833년, 25—27페이지).

산물의 더욱 큰 부분이 더욱 더 섬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소비된다. 다시 말하면 사치품 생산이 증대된다²²¹. 생산물의 장성하는 섬세성과 다양성은 대공업에 의하여 창조되는 세계 시장의 새로운 조건들로부터도 역시 유래한다. 보다 많은 외국제 향락 수단이 국내 생산물과 교환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다량의 외국산 원료, 구성 재료, 반제품 등등이 생산 수단으로서 국내 산업에 들어 온다. 세계 시장의 이러한 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운수 공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또한 운수공업이 다수의 새로운 아종들로 분열된다²²².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하에서의 생산 수단 및 생활 수단의 증대는 운하, 선거(船渠), 터널, 교량 등등과 같이 그 생산물이 비교적 먼 장래에야 성과를 가져 오는 생산 부문들에서의 노동의 확장을 촉진한다. 직접 기계적 생산에 기초하든가 또는 그것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산업상 변혁에 기초하여, 전혀 새로운 생산 부문들과 따라서 새로운 노동 분야들이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체 생산에서 노는 상대적 역할은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도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그것들에서의 취업 노동자 수는, 가장 거칠은 수로동에 대한 수요가 재생산되는데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현재 이 종류의 주요한 산업 부문들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스 제조업, 전선업, 사진업, 기선 항해업 및 철도업이다. 1861년의 일제 조사(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대한)에 의하면 가스 공업(가스 제조업, 기계 장치의 생산, 가스 회사의 사무소 등등)의 취업자는 1만 5,211명이며, 전선업에서는 2,399명이며, 사진업에서는 2,366명이며, 기선 승무원은 3,570

221 F. 엥겔스는 《영국에서의 노동 계급의 상태》에서 바로 이 사치품 생산자들의 대부분의 비참한 처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새로운 폐증들이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중에 허다히 있다.

222 1861년에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상선대 승부 태원이 9만 4,685명이었다.

명이며 철도에서는 7만 599명 인바, 그 중 약 2만 8,000명은 다소간 영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미숙련》로공, 관리 일' 군 및 상업 인원이다. 따라서 이 5개의 새로운 산업 부문들에서의 취업자 총수는 9만 4,145명이다.

마지막으로 대공업 영역들에서의 생산력의 비상한 제고는, 보통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생산 부문들에서의 노동력 착취의 집약적 및 외연적 장성을 수반하는바, 그것은 노동제급의 더욱 더 큰 부분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주며, 그리하여 특히 하인, 하녀, 심부름' 군 등등과 같은《종복(從僕) 제급》이라는 명칭하에 옛날의 가내 노예를 더욱 더 대량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 1861년의 일제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전체 인구는 2,006만 6,224명이었는데 그 중 남성은 977만 6,259명이었고 여성은 1,028만 9,965명이었다. 이 수에서 늙었거나 어려서 노동 능력이 없는 자들, 모든 《비생산적》인 부녀자 소년 소녀 아동들, 다음에는 행정 관리, 승려, 법률가, 군인 등등과 같은 《이테올로그》 신분들, 그 다음에는 지대 리자 등등의 형태로 타인의 노동을 소비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는 모든 자들, 마지막으로 구휼민(救恤民), 부랑자, 범죄자 등등을 제외한다면, 각종 연령의 남녀 약 800만이 남는바, 여기에는 생산, 상업, 재정 등등에서 어떤 기능이든 수행하는 모든 자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800만 중에서 근로자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 노동자 (목부 및 차지 농업가들의 집에서 사는 남녀 고농들을 포함)……109만 8,261명

면, 양모, 소모자, 아마, 대마, 전, 황마 공장들과 기계에 의한 양말 및 레스 제조업의 일체 취업자……64만 2,607명²²³

223 이 중 13세 이상의 남자는 17만 7,596명에 불과하다..

탄광 및 광산의 일체 취업자.....56만 5,835명

모든 금속 공장 (용광로, 압연 공장 등등) 및 각종 금속
가공 공장의 취업자.....39만 6,998명²²⁴

종복(從僕) 계급.....120만 8,648명²²⁵

섬유 공장들의 취업자 총수와 탄광 및 광산 취업자 수를 합
하면 120만 8,442명으로 되며, 전자와 모든 금속 공장 및 금속
가공 공장의 취업자를 합하면 총수는 103만 9,605명으로 되는
바, 어느 경우에도 다 현대의 가내 노예들의 수보다 적다. 자
본주의적 기계 리용의 성과란 얼마나 고무적인 것이냐!

제 7 절 기계적 생산의 발전과 관련된 노동 자들의 반발(反撥)과 흡인(吸引). 면 공업에서의 공황

분별 있는 모든 정치 경제학의 대표자들은 기계의 새로운
도입이 우선 그 경쟁 대상으로 되는 전래의 수공업 및 마누파
뚜라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
다. 그들은 거의 전부가 공장 노동자들의 노예적 상태를 개탄
한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내놓는 마지막 패(牌)는 무엇인
가? 기계는 그 도입과 발전의 시기에 있어서의 모든 공포가

224 이 중 여성은 3만 501명이다.

225 이 중 남성은 13만 7,447명이다. 개인들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
는 일제 인원은 이 120만 8,648명이라는 수'자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제 2판 주. 1861년으로부터 1870년까지 남성 종복의 수는 거의 2배
가 되었다. 그 수는 26만 7,671명으로 증가하였다. 1847년에 텃장(獵
場) 직이(귀족의 수렵장을 위한)는 2,694명이 있었는데, 1869년에는
4,921명이 되었다. —런던의 소부르조아들에게 봉사하는 젊은 하녀들
은 항간에서 부르기를 <little slaves> 즉 소노예라고 한다.

지나간 다음에는 노동 노예의 수를 종국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정치 경제학은, 이미 기계적 생산에 립각한 공장조차 일정한 성장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즉 길든 짧은 간에 《과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시초에 가두에 내던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시키게 된다는 혐오스러운——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영원성과 자연적 필연성을 믿는 모든 《박애가》들에게 혐오스러운——정리(定理)를 내놓고 환성을 올린다²²⁶.

사실 몇 개의 실패들, 폐전대 영국의 소모자 공장과 전 공장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공경제 부문의 비상한 확대가 취업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 뿐만 아니라 절대적 감소까지를 동반할 수 있다. 1860년에 의회의 명령으로 연합 왕국의 전체 공장들의 특별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탱카샤, 체샤 및 요크샤의 공장 지방들 중 공장 감독관 R. 베

226 이와는 반대로 가닐은 기계적 생산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 노예 수의 절대적 감소이며, 그 다음에 이들을 희생으로 하여 더 많은 수의, 주지의 《완성될 수 있는 완성 능력》을 발전시키는, 《점잖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가닐은 생산의 운동을 거의 티해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기계의 도입이 취업 노동자들을 구휼민(救恤民)으로 전화하며, 그것의 발전은 그것에 의하여 격렬된 것보다 더 많은 노동 노예를 산생시킨다면, 기계란 대단히 숙명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감투하고 있다. 그 자신의 관점이 어리석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말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생산하고 소비할 운명을 지닌 계급들은 감소하고, 노동을 관리하며 전체 인민에게 방조와 위안과 교육을 주는 계급들은 증가하며…… 그리고 노동 지출의 감소, 생산물의 풍부 및 소비품의 저렴화로부터 나오는 모든 재부를 점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류는 천재의 최고의 창조물에까지 자기를 끌어 올리며, 종교의 신비로운 심오한 지경에 도달하며, 보덕(《모든 재부를 점유하는》 등등에 귀착되는)의 건전한 원칙들, 자유(《생산할 운명을 지닌 계급들》을 위한 자유?) 및 권력, 복종과 정의, 의무와 인도의 보호를 위한 법률들을 창조한다》. 이 장표대는 C. 가닐씨의 《정치 경제학 체계》, 제 2판, 파리, 1821년, 제 1권, 224페이지에 있다. 또한 동서, 212페이지를 참조하라.

이커에게 위임된 부분에는 652개의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 570개가 증기 직기 8만 5,622대, 방추(연사—撚糸—방추를 제외하고) 681만 9,146추, 마력은 증기 기관으로 2만 7,439마력, 수차로 1,390마력, 취업자 9만 4,119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865년에는 동일한 공장들이 직기 9만 5,163대, 방추 702만 5,031추, 증기 기관으로 2만 8,925마력, 수차로 1,445마력, 취업자 8만 8,913명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860년부터 1865년에 이르는 사이에 이 공장들에서 증기 직기는 11%, 방추는 3%, 증기 마력은 5% 장성하였는데, 동일한 기간에 취업자 수는 5.5% 감소하였다²²⁷. 1852년부터 1862년 사이에 영국의 양모 가공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취업 노동자의 수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 도입된 기계들이 그 이전 시기의 로동을 얼마나 심한 정도로 구축하였는가를 보이며 준다》²²⁸. 취업 공장 노동자 수의 증대를 볼 수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 증대는 흔히 외판상에 불과한 것이니, 즉 그 증대는 이미 기계적 생산에 립각해 있는 공장의 확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부수적 부문들의 점차적 통합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다. 레컨대 《1838—1856년의 력직기와 그에 종사한 공장 노동자들의 증가는(영국의) 면 가공업에서는 단순히 이 부문 기업소들의 확대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데, 다른 공장들에서는 종래 사람의 근육의 힘에 의하여 운전된 용단 직기, 리본 직기, 아마 직기 등등에 증기력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야기될

227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8페이지 이하.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도 창설되어 있었으니, 즉 1만 1,625대의 증기 직기, 62만 8,576추의 방추, 2,695마력의 증기 기관 및 수차를 가진 110개의 새 공장들이 창설되었다(동상서).

228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79페이지.

제 2판 추가. 1871년 12월 말 공장 감독관 A·테드그레이브는 브래드포드에서 진술한 《신기계학 협회》에서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것이다》²²⁹. 그리하여 이 공장 노동자 수의 증대는 취업 노동자 총수의 감소의 표현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금속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어테서나 소년 소녀(18세 미만의), 부녀자 및 아동들이 공장 종업원의 결정적으로 우세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계에 의하여 실지 구축되거나 또는 잠재적(潛勢的)으로 교체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공장들의 수의 증가 또는 이미 존재하는 공장들의 규모의 증대에 표현되는 기계적 생산 자체의 장성의 결과 공장 노동자들의 수가 결국 구축된 마누팩처라 노동자들 또는 수공업자들의 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레컨대 매주 총용되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이전 생산 방식하에서는 $\frac{2}{3}$ 가 불변적 구성 부분이고 $\frac{1}{3}$ 이 가변적 구성 부분이라고, 즉 20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 수단에 투하되고 300파운드 스텔링은 노동력에——말하자면 노동자 1명당 1파운드 스텔링씩으로——투하된다고 하자. 기계적 생산의 발생과 함께 총 자본의 구성은 변화한다. 이제는 그것이 레컨대 $\frac{1}{3}$ 의 불변 자본과 $\frac{2}{3}$ 의 가변 자본으로 분열된다. 다시 말하면 벌써 노동력에는 다만 100파운드 스텔링이 투하된다. 따라서 이전에 취업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3분의 2가 해고된다. 만약 소녀의 공장 생산이 확대되어 기타의 생산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 총용된 총자본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1,500파운드 스텔링

4월 말전부터 나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양모 공장들의 외관이 대단히 변한 사실이다. 이전에는 거기에는 부녀자들과 아동들로 꽤 차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모든 일을 수행하는 듯이 보인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한 공장주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주었다——나는 이전 제도하에서는 63명을 고용했는데, 개량된 기계를 도입한 후에는 직공수를 33명으로 줄이었으며, 또 최근에는 새로운 큰 개량물에 의하여 33명을 13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29 《1856년 10월 31일의……보고》, 16페이지.

으로 증대된다면, 이제는 산업 혁명 이전과 동일한 300명의 노동자들이 취업하게 될 것이다. 만약 총용되는 자본이 더 커져서 2,000파운드 스털링으로 된다면 400명의 노동자들이 즉 구경영 방식하에서보다 $\frac{1}{3}$ 만큼 더 많이 취업하게 될 것이다. 취업 노동자 수는 절대적으로는 100만큼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는 즉 전대된 총자본의 크기에 비하여서는 800만큼 감소되었다. 왜냐 하면 구경영 방식하에서는 2,0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이 400명이 아니라 1,200명의 노동자를 취업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는 그 절대적 증가와 양립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총자본이 팽창하지만, 생산 조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이 변하지 않은채로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실에 있어서는 기계적 생산이 발전할 때마다 기계, 원료 동등으로 구성되는 불변 자본 부분이 증대하고, 노동력에 속하는 가변 자본 부분은 감소된다. 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따름 어떤 생산 방식하에서도 기계 생산하에서처럼 게량이 부단한 현상으로는 되지 않으며 따라서 총자본의 구성이 그렇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단한 변화는 그에 못지 않게 부단히 정지점들에 의하여 또 소여의 기술적 토대 위에서 순전히 양적인 확대에 의하여 중단된다. 그러한 경우에 취업 노동자들의 수는 증가한다. 그리하여 레컨대 편합 왕국 외 편공장, 양모 공장, 소모사 공장, 아마 공장 및 전공장들에서의 노동자 총수는 1835년에 35만 4,684명에 불과하였는데 1861년에는 증기 직기를 사용하는 직포공(남녀 및 8세 이상의 극히 다양한 연령층의)의 수만도 23만 654명에 달하였다. 물론 이 장성은 만약 1838년에 이미 영국에는 먼포 수직공(手織工)들이——그들과 함께 일하는 가족들을 합하여——80만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²³⁰, 아세아 및 구라파 대륙에서 구

230 《수직공들(면직 및 면혼방직)의 고난은 칠폐(勅命) 위원회의

축된 수직공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도의시하더라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설명을 더 하여야겠는데, 그것도 우리의 이론적 서술 자체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제 관계의 순전히 사실적인 측면에 부분적으로 언급하려 한다.

기계적 생산이 어떤 산업 부문에서 전래의 수공업 또는 마누팩투라를 회생으로 하여 확장되는 동안 그 성공은 확실한바, 이것은 페컨대 침발총(針發銃)으로 무장한 군대가 화살로 무장한 군대를 반대하여 싸울 때 그 승리가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가 처음으로 그 작용 범위를 정복하는 이 최초의 시기는 기계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비상한 리윤으로 말미암아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리윤은 그 자체로서 자본의 가속도적 축적의 원천으로 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새로 형성되고 새로운 적용 부면을 찾고 있는 사회적 추가 자본의 현저한 부분을 특히 유리한 형편에 있는 소여 생산 부문에로 끌어 들인다. 최초의 질풍 노도(疾風 怒濤)의 시기의 특별한 리득은 기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생산 부문들에서 부단히 반복된다. 그러나 공장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고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할 때, 특히 공장 제도에 고유한 기술적 기초인 기계 자체가 또한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기 시작할 때, 석탄과 철의 채취 및 금속 가공과 운수업에서 혁명이 수행될 때, 요컨대 대공업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생산 제 조건이 성립될 때, 그 때에 이 생산 방식은 한역성을, 즉 급속하며 비약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

조사 대상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리하여 비록 그들의 궁핍이 인정되므로 동정을 사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형편의 개선(!)은 '우연과 시간에 맡겨졌다. 그리하여 이 고난이 지금(20년 후에!) 거의 소멸되었다고 기대되는데, 이것은 아마 틀림 없이 오늘 날의 중기 직기의 대단한 보급에 의하여 촉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185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서》, 15페이지).

며, 다만 원료와 판매 시장만이 이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일방 기계는 레컨대 조면기(縑綿機)가 면화의 생산을 증대시킨 것처럼 원료의 량의 증대를 직접 촉진한다²³¹. 타방 기계 생산물의 량가성과 운수 교통 수단에서의 변혁은 외국 시장의 전취를 위한 무기로 된다. 기계적 생산은 외국 시장에서 수공업적 생산을 과멸시킴으로써 이 시장을 강제적으로 자체의 원료의 생산지로 전화시킨다. 그리하여 레컨대 동인도는 대브리튼을 위하여 면화, 양모, 대마, 황마, 람(藍)염료 등을 생산하도록 강요되었다²³². 대공업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부단한 《과잉화》는 이주의 강화를 촉진하며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화를 가져 오는바, 이 나라들은 레컨대 오스트랄리아가 양모 생산지로 전화되듯이 본국을 위한 원료 재배지로 전화된다²³³. 기계적 생산의 주요한 중심지들의 포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적 분업이 조성되며, 이에 따라 지구의 일부분이 주로 농업 생산 지역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혁명은 농업에 있어서의 변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여기서는 아직 더 세밀히 론급하지 않기로 한다²³⁴.

231 기계가 원료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방법들은 제 3부에서 론급될 것이다.

232 동인도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면화 수출. 1846년 3,454만 143파운드, 1860년 2억 414만 1,168파운드, 1865년 4억 4,594만 7,600파운드.

동인도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양모의 수출. 1846년 457만 581파운드, 1860년 2,021만 4,173파운드, 1865년 2,067만 9,111파운드.

233 회망봉(남아)으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양모 수출. 1846년 295만 8,457파운드, 1860년 1,657만 4,345파운드, 1865년 2,992만 623파운드.

오스트랄리아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양모 수출. 1846년 2,178만 9,346파운드, 1860년 5,916만 6,616파운드, 1865년 1억 973만 4,261파운드.

234 합중국 의 경제적 발전 자체가 구라파 특히 영국의 대공업의 산물이었다. 합중국은 그 현재 형편에 있어서는(1866년) 아직 구라파

1867년 2월 17일에 하원은 글라드스톤씨의 제의에 따라 1831—1866년 간의 연합 왕국으로의 모든 종류의 곡물 즉 화곡과 곡분의 수입 수출에 관한 통계적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아래에 이 통계 자료의 개괄적 내용을 인용한다. 곡분은 쉼터 단위로 화곡으로 환산되어 있다.

공장제 생산의 방대하며 비약적인 확장 가능성과 세계 시장에 대한 그것의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의 과도한 충만을 일으키며, 시장이 축소될 때에는 마비 상태가 발생한다. 산업의 생활은 중위의 활기, 번영, 과잉 생산, 공황 및 정체의 시기들의 순차적 계열로 전화된다. 기계 생산하에서 노동자의 취업과 따라서 생활 상태가 처하게 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 순환의 이러한 주기적 교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현상으로 된다. 번영기를 제외하고는 자본가들 사이에 시장에서의 그들의 개인적 지위를 위

의 식민지로 보아야 한다. (제 4판 주. 《그후 합중국은 세계에서 볼재만 가는 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그 식민지적 성격이 아직 완전하지는 없어 앉졌지만》——F·엥겔스).

합중국으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면화 수출량(단위 파운드). 1846년 4억 194만 9,393, 1852년 7억 6,563만 544, 1859년 9억 6,170만 7,264, 1860년 11억 1,589만 608, 합중국으로부터 대브리튼에로의 곡물류의 수출. (1850년 및 1862년) (단위 천드레드웨이트)

	1850년	1862년
밀(小麥)	16,202,312	41,033,503
보리(大麥)	3,669,653	6,624,800
귀밀(燕麥)	3,174,801	4,426,994
호밀(黑麥)	388,749	7,108
밀'가루(小麥粉)	3,819,440	7,207,113
메밀(蕎麥)	1,054	19,571
옥수수	5,473,161	11,694,818
비에 또는 빅(대맥의 일종)	2,039	7,675
완두	811,620	1,024,722
부류	1,822,972	2,037,137
총수출	34,365,801	74,083,351

5개년 기간들과 1866년

	1831—1835	1836—1840	1841—1845	1846—1850	1851—1855	1856—1860	1861—1865	1866
년 평균								
수입(쿼터).....	1,096,373	2,389,729	2,843,865	8,776,552	8,345,237	10,913,612	15,009,871	16,457,340
년 평균								
수출(쿼터).....	225,263	251,770	139,056	155,461	307,491	341,150	302,754	216,218
년 평균 수입 초과....	871,110	2,137,959	2,704,809	8,621,091	8,037,746	10,572,462	14,707,117	16,241,122
인 구								
매 기간 년 평균.....	24,621	107,259	259,277	797,508	27,572,923	28,391,544	29,381,760	29,935,404
전체 인구와의 균등한 판매의 조건하에서, 국내 생산을 초과하는 인구 1인당 년 평균 소득 등의 소비량(쿼터).....	0,036	0,082	0,099	0,310	0,291	0,372	0,501	0,543

한 극히 맹렬한 투쟁이 버러진다. 시장에서의 그들의 몫은 생산물의 량가성에 정비례한다. 이 때문에 로동력을 억제하는 개량된 기계와 새로운 생산 방법들을 사용하려는 경쟁이 일어나는 외에 일정한 점에 이르르면 매년 로임을 로동력의 가치 이하로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상품을 저렴하게 만들려고 애쓴다²³⁵.

따라서 공장 로동자 수의 증가는 공장에 투하된 총자본의 상업적으로 훨씬 더 급속한,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산업 순환의 만조(滿潮)기와 간조(干潮)기의 내부에서만

235 1866년 7월 레스터의 제화 공장주들에 의하여 <룩크 아우트>(look out)되어 가두에 내던져진 로동자들이 <영국 로동 조합>에 낸 호소문에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20년 전에 레스터의 제화업에서는 실로 꺾매는 대신 못을 치는 방법이 도입됨으로써 변혁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꽤잘게 임금을 벌 수 있었다. 얼마 안가 이 새로운 사업이 대단히 확장되었다. 여러 상회들 간에 가장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대단한 경쟁이 버러졌다. 그러나 곧 그 뒤를 이어 가장 나쁜 종류의 경쟁 즉 시장에서 값 싸게 팔므로써 서로 타격을 줄려는 경쟁이 버러졌다. 그 유해로운 결과가 곧 임금 인하로 나타났으며, 로동의 가격은 맹렬한 속도로 저락되어 그리하여 많은 상회들은 이제는 시료의 임금의 절반 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임금은 더욱 더 저락되고 있지만 임금물에 변질이 있을 때마다 리윤은 증대하는 듯하다>——산업의 불경기 시기까지도 공장주들은 과도한 임금 인하에 의하여 즉 로동자의 생활 필수품의 직접적 도략(盜掠)에 의하여 비상한 리윤을 얻는데 이용한다. 다음에 일례를 들자. 코벤트리에 있는 전직업에서의 공황에 관한 이야기다——<내가 공장주들과 로동자들에게서 받은 보고서로부터 의심할 바 없이, 임금은 외국 생산자들의 경쟁과 기타 사정들로 말미암아 불가피하였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인하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매바수의 직포공들은 30—40% 인하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직포공은 리본 한 개에 대하여 5년 전에는 6—7실링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만 3실링 3펜스 내지 3실링 6펜스를 받으며, 전에는 4실링 내지 4실링 3펜스를 지불하면 다른 로동에 대하여 지금은 다만 2실링 내지 2실링 3펜스를 지불한다. 임금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인하되었다. 사실상 많은 종류의 리본에 있어서 임금 인하는 상품 가격의 어떠한 저하도 동반하지 않았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1866년》, 114페이지, 제 1호 중의 위원 F. D. 몬지의 보고).

이후어진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노동자들을 잠세적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그들을 실지로 구속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된다. 기계적 생산에서의 이러한 질적 변화들은 노동자들을 공장으로로부터 부단히 떠나 가게 하며 또는 새로 들어 오려는 보충 인원들에 대하여 공장문을 닫아 버리는바, 타방 공장의 단순한 량적 확장은 내던져진 노동자들 외에 새로운 보충 노동자들을 삼키여 버린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부단히 흡인되고 반발되며, 이리저리 내들려지는데, 이 경우에 정모되는 노동자들의 성별, 연령 및 기능에 있어서 부단한 변화를 수반한다.

공장 노동자의 운명은 영국 면 공업의 운명을 일별하면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770년부터 1815년에 이르는 동안 면 공업은 5년 간 불경기 또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 최초의 45년 간 영국의 공장주들은 기계 적용과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1815년부터 1821년 간은 불경기였으며, 1822년과 1823년은 번영이었으며, 1824년에는 노동 조합 금지법이 폐지되었고 공장들이 전반적으로 대확장되었으며, 1825년에는 공황, 1826년에는 면 방적 노동자들의 대궤핍과 소동이 있었으며, 1827년에는 약간의 개선, 1828년에는 증기 직기수와 수출의 대증가, 1829년에는 수출 특히 인도로의 수출이 이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았으며, 1830년에는 시장의 과도한 충만과 대곤청이 있었다. 1831년부터 1833년까지는 계속되는 불경기, 동 아세아(인도 및 중국)와의 무역 독점이 동인도 회사로부터 탈취되었다. 1834년에는 공장의 거대한 장성 및 기계적 생산의 보급, 직공의 부족. 새로운 구빈법(救貧法)이 농촌 노동자들의 공장 지방에로의 이주를 촉진하였다. 농촌 주들로부터 아동들이 대량적으로 산업으로 끌려 갔다. 백색 노예 매매. 1835년에는 대번영. 동시에 면포 수직공들의 아사 상태. 1836년에도 대번영. 1837년 및 1838년에는 불

경기와 공황. 1839년에는 활황. 1840년에는 심한 불황, 폭동, 군대의 간섭. 1841년 및 1842년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무서운 궁핍. 1842년에는 공장주들이 폭물법의 철폐를 강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축출하였다. 노동자들은 수천 명씩 요크셔로 몰려 갔는데 군대에 의하여 도로 쫓겨 왔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탱카스터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1843년에는 심한 궁핍. 1844년에는 다시 활황. 1845년에는 대번영. 1846년에 처음에는 활기 증진이 계속되었으나 그후 반동의 징후, 폭물법의 철폐. 1847년에는 공황. 《큰 빵》(big loaf) [폭물법 철폐를 주장한 자유 무역론자들이 약속한 것]의 축화로 임금의 10% 내지 그 이상의 전반적 인하. 1848년에는 계속 불경기. 만체스터를 군대에 의하여 경비. 1849년에 다시 활황. 1850년에는 번영. 1851년에는 상품 가격의 저락, 낮은 임금, 빈번한 파업. 1852년에는 개선의 시작, 파업 계속, 공장주들은 외국 노동자들을 수입하겠다고 위협. 1853년에는 수출 증가. 8개월 간의 파업과 프레스톤에서의 대궁핍. 1854년에는 번영, 시장의 과도한 충만. 1855년에는 합중국, 캐나다, 몽아세아 시장들로부터 파산에 관한 보도가 쇄도. 1856년에는 대번영. 1857년에는 공황. 1858년에는 개선. 1859년에는 대번영. 공장의 증가. 1860년에는 영국 면 공업의 절정. 인도, 오스트라리아 및 기타 시장들이 과도히 충만되어, 1863년에도 재고품을 흡수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불란서와의 통상 조약. 공장 및 기계적 생산의 거대한 장성. 1861년에는 활기 증진이 얼마간 계속되고 그후 반동. 미국의 공민 전쟁, 면화 기근. 1862년부터 1863년까지 완전한 붕괴.

면화 기근의 력사는 너무나 특징적이므로 그대로 넘어 갈 수 없다. 1860—1861년의 세계 시장의 상태에 관한 간단한 지적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면화 기근이 공장주들에게 바라던 때에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하였으니, 이 사실은

만체스터 상업 회의소 보고서에서 인정되었으며, 의회에서 파머스턴 및 다비에 의하여 선언되었으며, 사건들에 의하여 확증되었다²³⁶. 물론 1861년에는 연합 왕국의 면 공장 2,887개 중 많은 소공장들이 있었다. 이 2,887개 공장중 2,109개가 그 관할 구역에 속하는 공장 감독관 A·레드그레이브의 보고에 의하면 이 2,109 공장중 392개 즉 19%는 불과 10 중기 마려 미만을, 345개 즉 16%는 10 내지 20마려 미만을, 1,372개 공장은 20 마려 이상을 사용하였다²³⁷. 소공장들의 대다수는 직물 공장이었으며, 1858년 이래의 번영기에 대개 투기업자들——그들 중 어떤 자는 실을, 다른 자는 기계를, 제 3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 전력이 있는 감독들과 기라의 자금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이 소공장주들은 대개 몰락하였다. 그들은 면화 기근 때문에 그 도래가 저지된 상업 공황에 의하여서도 동일한 운명에 빠졌을 것이다. 그들은 공장주 총수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공장에 흡수된 자본은 면 공업에 투하된 자본중에서 비효도 안되리만큼 적은 부분이었다. 조업 축소와 규모에 관하여 말한다면 밀을 만든 계산에 의하면 1862년 10월에 60.3%의 방추와 58%의 직기들이 정지하였다. 이 수'자들은 면 공업 전체에 대한 것이며 물론 개별적 지방들에서는 심한 차이가 있었다. 완전 시간(주에 60시간) 일하는 공장들은 극히 적었으며, 나머지 공장들은 때때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완전 시간을 보통 임금으로 일한 얼마 안되는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우량종의 면화가 멸망한 면화로——시 아일랜드 면화가 애급 면화로(세사 방적에 있어서), 아메리카 면화 및 애급 면화가 수라트(동인도) 면화로, 또 순수한 면화가 락면(落綿)과 수라트 면화의 혼합물로——표

236 《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30페이지 참조.

237 통상서, 19페이지.

제된 결과 주 임금이 감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라트 면화의 섬유가 보다 짧은 것, 그것이 불결한 것, 실이 보다 잘 끊어지는 것, 경사에 조부(糊付)하는때 곡물 대용으로 여러 가지 보다 무거운 성분을 쓰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기계의 속도 또는 한 직포공이 관리할 수 있는 직기 대수를 감소시켰으며, 기계의 작업상 결합을 시정하기에 필요한 로동을 증대시켰으며, 그리하여 생산물 량과 함께 도급 임금을 저하시켰다. 수라트 면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완전 시간을 작업할 때에도 그의 손실은 20%, 30% 및 그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매다수 공장주들은 도급 임금률을 5%, 7½% 내지 10%나 인하하였다. 그러므로 취업이 주에 불과 3일, 3일반, 4일씩 또는 하루에 불과 6시간씩인 노동자들의 상태는 알 만하다. 1863년에 이미 상대적인 개선이 나타난 이후에도 직포공, 방적공 등등의 임금은 주에 3실링 4펜스, 3실링 10펜스, 4실링 6펜스, 5실링 1펜스 등등이었다²³⁸. 이렇게 형편이 심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하를 위한 공장주들의 발명 정신은 정지함이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면화가 나쁘거나, 기계가 좋지 않은 등등으로 말미암아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벌금으로서 임금이 삭감되었다. 공장주가 노동자의 오막살이의 소유자일 때에는 그는 명목 임금으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집세를 받아 썼다. 공장 감독관 A·레드그레이브의 설명에 의하면 자동식 물 방적공들(그들은 각각 두 대의 자동식 물 방적기를 관리하였다)은 <완전히 14일 간의 로동을 끝내면 8실링 11펜스를 벌었으며, 이 금액중에서 집세가 공제되었는데, 공장주는 그 반액을 선물로 반환하였으므로 물 방적공들은 온전히 6실링 11펜스를 가지고 돌아 갔다. 직포공들의 주 임금은 1862년 말경

238 《186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41—45페이지 및 51페이지.

에 2실링 6펜스 이상 충을 이루고 있었다》²³⁹. 집세는 직공들이 짧은 시간 밖에 작업하지 않은 경우들에게도 흔히 임금으로부터 공제되었다²⁴⁰. 랭카셔의 일부 지방들에서 일종의 기아 티프스가 발생한 것도 놀랄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특징적이었던 것은 생산 과정의 혁명이 노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수행되었다는 사정이다. 이것은 해부학자들이 개구리로써 하는 실험들과 같이 값 없는 생물체로써의 본격적 실험이었다. 《나는——하교 공장 감독관 레드그레이브는 말한다——수다한 공장들에서의 노동자들의 실지 임금을 렬거 하였지만, 노동자들이 매주 이 금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의 형편은 공장주들의 부단한 실험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동요를 면치 못하며…… 그들의 수입은 혼합면화의 질에 따라 증감된다. 그것은 때로 이전 수입과 15%의 차를 갖게 되며, 1—2주일 후에는 50—60%나 저락된다》²⁴¹. 이 실험들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단을 희생으로 하여서만 실시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다섯개의 모든 감각까지도 희생으로 하여야만 되었다. 《면화의 짐을 푸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 혼면실, 조조실(粗梳室) 및 소정실(梳整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산하는 먼지와 오물이 입, 코, 눈 및 귀로 들어 가며, 기침과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 섬유가 짧기 때문에 풀칠할 때 다량의 각종 물질 그것도 이전에 쓰던 극분 대신인 온갖 대용품들이 첨부된다. 직포공들이 구토하거나 소화 불량에 걸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먼지로 말미암아 기관지염과 인후염이 퍼지고 있으며 또한 수라트면에 포함되어 있는 오물이 피부를 자극하는 결과 피부병이 퍼지고

239 동상서, 41, 42페이지.

240 동상서, 57페이지.

241 《1863년 10월 31일의……보고》, 50, 51페이지.

있다. 타방 곡분 대신에 쓰는 대용품들은 그것이 실의 무게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공장주 제씨들에게 훌륭한 돈 벌이의 원천으로 되었다. 그것들은 《15파운드의 원료가 직조된 후에는 26파운드의 무게가 있게》²⁴² 만들었다. 1864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중에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산업은 지금 이 보조적 방책을 실로 체면이 없을 정도로 리용하고 있다. 전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8파운드의 천이 $5\frac{1}{4}$ 파운드의 면화와 $2\frac{3}{4}$ 파운드의 폴로 제조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5\frac{1}{4}$ 파운드의 천에는 2파운드의 풀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수출용의 보통 샤쓰지였다. 다른 종류의 천에는 때로 50%의 풀이 첨부되었으며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천을 그것에 명목상 포함되어 있는 실값보다도 더 싸게 팔면서 돈벌이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실지 자랑하고 있다》²⁴³. 그러나 노동자들은 다만 공장에서는 공장주들의 실험과 공장 밖에서는 도시 당국의 실험들로 말미암아, 즉 로임 인하, 실업, 궁핍과 구휼, 상하 의원들의 찬사에 의하여 고생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면화 기근의 결과 실업한 불행한 녀자들은 사회의 버림을 받은 자들로 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도시에서의 젊은 개춘부의 수는 최근 25년 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졌다》²⁴⁴.

그리하여 1770년부터 1815년까지의 영국 면 공업의 최초의 45년 간에 공황 및 정체 시기는 다만 5년 간이었는베, 그러나 이것은 영국 면 공업의 세계 독점의 시기였다. 1815년부터 1863년까지의 다음 48년 간에는 불경기와 정체가 28년 간인 데 대하여 활황과 번영은 다만 20년 간에 지나지 않았다. 1815—

242 동상서, 62, 63페이지.

243 《1864년 4월 30일의……보고》, 27페이지.

244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1, 62페이지 중의 물론 경찰서장 해리스의 서한으로부터.

1830년에는 구라파 대륙 및 합중국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1833년 이래 《인종(人種)의 파괴》*에 의한 아세아 시장들의 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곡물법의 철폐 이래 1846년부터 1863년까지에 중위의 활향과 번영의 8년에 대하여 불경기와 정체는 9년이였다. 먼 공업의 성년 남성 노동자들의 상태가 번영기에 있어서조차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은 아래에 인용하는 주로부터 알 수 있다²⁴⁵.

* 《자본론》 영역판에는 《인도의 수직공물의 전면적 멸망》이라는 팔호내 주가 있다——편집자.

245 1863년 봄 이민 회사의 설립을 위한 면업 노동자들의 호소문에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현재 공장 노동자들의 일대 이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민의 부단한 흐름이 언제나 필요하여 그것 없이는 평상시에 우리의 처지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보이며 준다——1814년에 수출된 면 제품의 공식적 가치(이것은 당의 지표에 불과하다)는 1,766만 5,378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그것의 현실적인 시장 가치는 2,007만 824파운드 스텔링이었다. 1858년에는 수출된 면 제품의 공식적 가치는 1억 8,222만 1,681파운드 스텔링이고, 그것의 현실적 시장 가치는 불과 4,300만 1,322파운드 스텔링이었으니, 10배 당의 물건이 두 배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팔렸다. 일반적으로 나라에 대하여 특히는 공장 노동자들에 대하여 극히 불리한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가장 뚜렷한 사정의 하나는 전철을 면하기 위하여 시장의 부단한 확장을 요하는 이 산업 부문에게 불가결한 부단한 노동 파잉이다. 우리 면 공장들은, 현재의 재로하에서 즉흥파로 같이 피할 수 없는 주기적 상업 정제에 의하여 작업을 정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발명 정신은 정지하지 않는다. 최근 25년간에 가장 낮게 평가하여도 600만 명이 이 나라를 떠났지만, 그러나 최고의 번영기에도 일대 비율의 성년 남자가 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일도 발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이것은 생산물을 저렴하게 하기 위한 노동의 부단한 구축의 결과이다》(《1863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1, 52페이지). 면업 파국의 시기에 공장주 제씨가 어떻게 별별 수단을 다하여 지어 국가 주권의 힘을 빌려서까지도 공장 노동자들의 이주를 방해하려고 하였는가는 차후의 한 장에서 볼 것이다.

제 8절 대공업에 의한 마누팍두라, 수공업 및 가내 노동의 혁명

a) 수공업과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폐절

우리는 기계가 수공업에 기초한 협업과 수공업적 성격의 분업에 기초한 마누팍두라를 어떻게 폐절하는가를 보았다. 첫째 종류의 실례는 애초기(刈草機)인바 이것은 애초인들의 협업을 대체한다. 둘째 종류의 적절한 실례는 바늘 제조기이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그의 시대에 10명이 분업에 의하여 하루에 4만 8,000개의 바늘을 만들었다. 이에 반하여 단 한대의 기계가 11시간의 1로동일에 14만 5,000개를 만든다. 1명의 부인 또는 소녀가 평균 그러한 기계 4대를 감시하며 따라서 그 기계들로써 하루에 60만 개까지, 또는 주에 300만개 이상을 생산한다²⁴⁶. 단 한대의 작업기가 협업 또는 마누팍두라를 대체할 때 그 작업기 자체가 이번에는 새로운 수공업적 생산의 형태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에 밑각한 수공업적 생산의 재생(再生)은 공장적 생산으로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공장적 생산이라는 것은 기계 운전에서 있어서 인간의 근육이 기계적 동력——증기 또는 물——에 의하여 대체되자마자 업제나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소생산도, 버밍감의 일부 마누팍두라들에서와 같이 증기를 입차(賃借)함으로써 또 어떤 직조 부문을 등등에서와 같이 소형의 열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기계 동력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은 드문 드문 있는 일이고 또 어느 경우에나 잠정적으로 있는 일에 불과하다²⁴⁷. 케펜트리외의 전

246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1864년》 108페이지, 제 447호.

247 미국에서는 기계에 밑각한 수공업의 그러한 재생은 빈번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장 생산으로의 불과파한 이행의 경우

직업에서 《오막살이—공장》의 실험이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되었다. 4각형으로 나란히 세운 오막살이들의 중앙에 증기 기관을 위한 소위 엔진 하우스(기관실)가 설치되고 이 증기 기관이 오막살이들 안에 있는 직기들과 회전축들로서 연결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증기는 페컨대 직기당 2실링 반으로 입차되었다. 이 증기 입차료는 직기들이 돌았던 안 돌았던 간에 주마다 지불되었다. 매개 오막살이에는 2—6대의 직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노동자들의 소유이거나 신용으로 산 것이거나 또는 입차한 것이었다. 오막살이 공장과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장간의 투쟁은 12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것은 300의 오막살이 공장들의 전멸로써 끝났다²⁴⁸. 과정의 성질상 처음부터 대규모 생산이 아니어도 좋은 경우에는, 최근 수십년 간에 새로 등장한 공업 부문들——페컨대 봉투 제조업, 강철 펜 제조업 등등과 같은——은 보통 공장 생산으로의 단기간의 과도 단계들로서 우선 수공업 생산 그 다음에 마누팩투라 생산을 통과한다. 이러한 전화는 제품의 마누팩투라적 생산이 호상 연결된 순차적 과정들의 계열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이종적(異種的)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극히 곤란하게 진행된다. 이것은 페컨대 강철 펜 공장 발전의 일대 장해였다. 그러나 이미 약 15년 전에 6개의 이종적 과정들을 단번에 수행하는 자동 장치가 발명되었다. 1820년에 수공업은 최초의 강철 펜 12타(打)를 7파운드 스털링 4실링으로 생산하였으며, 마누팩투라는 그것을 1830년에 8실링으로, 그리고 공장은 그것을 현재 2—6펜스로 도매상에게 제공한다²⁴⁹.

에 집중은 무타파나 지어는 영국에 비하여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248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4페이지, 참조.

249 질로트씨는 버밍엄에 최초의 대규모 강철 펜 제조소를 세웠다. 그 제조소는 1831년에 벌써 1억 8,000만 개 이상의 펜을 생산하였으며, 1839년의 강철판을 소비하였다. 연합 왕국에서 이 공업 부문을

b) 마누팩투라 및 가내 노동에 대한 공장의 반작용

공장의 발전과 그것에 수반하는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 부문들에서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 뿐더러 또한 그것들의 성격도 변화한다. 생산 과정을 그것의 구성 단계들로 분해하며, 또 그 결과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계학, 화학 등등의 적용에 의하여 간단히 말하여 자연 과학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기계적 생산의 원칙은 어디서나 결정적 의의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마누팩투라로 침입하여 때로는 이 부분 과정 때로는 저 부분 과정에 적용된다. 이리하여 낡은 분업에 유래하는 마누팩투라의 굳게 결정화된 편제(編制)는 분해되며 부단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점을 도외시하고라도 전체 노동자 또는 결합된 노동 인원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혁된다. 마누팩투라 시기와는 반대로 이제는, 분업 계획은 가능한 곳이라면 부인 노동, 각종 연령의 아동 노동, 무기능 노동자의 노동——간단히 말하여 영국인들이 특징적으로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렴가한 노동》(cheap labour)의 적용에 기초한다. 이 점은 대 규모로 결합된 생산이라면 그것이 기계를 적용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생산에 타당할 뿐더러, 노동자가 자기의 사택(私宅)에서 하든 또는 소작업장에서 하든 간에 소위 근대적 가내 공업에도 타당한다. 이 소위 근대적 가내 공업은, 독립적인 도시 수공업, 자립적인 농민 경제 및 무엇보다도 노동자 가족의 가족을 전제로 하는, 구식 가내 공업과는 명칭외에 공통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이제는 공장, 마누팩투라 또는 상

목점하고 있는 버밍엄은 현재 강철 펜을 년 10억 개 생산한다. 취업 인원 수는 1861년 일제 조사에 의하면 1,428명으로 그 중 5세 이상의 여공이 1,268명이였다.

품 중개업점(warehouse)의 외업부(外業部)로 전화된다. 자본은 그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직접 지휘되는 공장 노동자들, 마누팩투라 노동자들 및 수공업자들 외에 대도시들과 농촌에 산재하는 다른 일'군의 가내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하여 동원한다. 일례——아이틀랜드의 런던더리에 있는 킬리 힘명 회사의 내의 공장은 1,000명의 공장 노동자와 농촌에 산재한 9,000명의 가내 노동자를 취업시키고 있다²⁵⁰.

저렴하고 미성숙한 노동력의 착취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에서도보다 근대적 마누팩투라에서 더 한층 파렴치한바 그것은 전자에 있는 기술적 기초, 기계에 의한 근육 노동의 교체 및 노동의 경감은 후자에는 대부분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마누팩투라에서는 부인 또는 미성숙자의 신체는 유독물 등등의 영향에 극히 악랄하게 방치되기 때문이다. 착취는 소위 가내 노동에서는 마누팩투라에 있어서보다 더 한층 파렴치한 것이니 왜냐 하면 노동자들의 반항 능력이 그들의 분산성 때문에 감소되는 까닭이며, 전 일련의 도적놈들과 같은 기생물들이 본래의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개입하는 까닭이며, 가내 노동은 어테서나 동일 생산 부분의 기계적 생산과 또는 적어도 마누팩투라 생산과 투쟁하는 까닭이며, 빈궁이 노동자들로부터 가장 필요한 노동 조건들——공간, 광선, 환기 등등——을 탈취하는 까닭이며, 취업의 불규칙성이 증대하는 까닭이며, 끝으로 대공업과 농업에 의하여 《과잉》으로 된 사람들의 최후의 이 피난처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극도에 달하는 까닭이다. 기계적 생산에 의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생산 수단의 절약은 애당초부터 동시에 노동력의 가장 무자

250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별 페이지, 68페이지, 제 415호.

비한 랑비와 노동 기능(機能)의 정상적 조건들의 랑탈인바 이것은 이제는 해당 공업 부문에서 사회적 노동 생산력과 결합된 노동 과정들의 기술적 기초의 발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체의 적대적이며 살인적인 이 측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c) 근대적 마누팍뚜라

그러면 몇 개 실패로써 상술한 제 명제를 설명하자. 노동 일에 관한 장에서 독자들은 사실상 이미 많은 폐증들을 알고 있다. 버밍엄과 그 부근의 금속 가공 마누팍뚜라들은 대부분 극히 곤란한 작업에 3만 명의 아동 및 소년 소녀들과 1만 명의 부인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건강에 해로운 황동 주조소, 단추 제조소, 예나멜 공장, 도금 공장 및 도칠(塗漆) 공장에서 일한다²⁵¹. 런던의 각종 신문 및 서적 인쇄소들은 성년이나 미성년이나 할 것 없이 과도한 노동 때문에 <도살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다^{251a}. 제본소들에서도 노동은 과도한바 여기에서의 도살 희생자는 특히 부인, 소녀 및 아동들이다. 제강소들에는 미성년의 노동이 과중하며, 제염소 양초 마누팍뚜라 기타 화학 마누팍뚜라들에서는 야간 노동을 하며, 기계적 동력이 사용되지 않는 견직 공장들에서는 직기를 돌리는데 소년들이 살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⁵².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우며 또 지불이 나쁜 노동의 하나이면서 주로 어린 소녀들과 부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냄마 꼬르기이다. 우리

251 지어는 현재 제필드에서 아동이 줄(鍊)갈기에 사용되고 있다!

251 a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1866년> 3페이지, 제 24호, 6페이지, 제 55호, 56호, 7페이지, 제 58호, 60호.

252 동상서, 114, 115페이지, 제 6—7페이지.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면 여기서는 소년들이 문'자 그대로 기계를 대신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정당하게도 지적하고 있다.

가 알고 있듯이 대브리튼은 그 자신의 무한량의 냅마는 고사하고라도 전 세계의 냅마 거래의 중심지로 되고 있다. 일본, 멀고도 먼 남미 제국 그리고 카나리 제도(諸島)로부터 냅마가 흘러 들어 온다. 그러나 그것의 주요 원천은 독일, 불란서, 로씨야, 이태리, 애굽, 토이기, 벨기 및 화란이다. 그것은 바로, 털 부스러기(킵구용), 쇼디(인조 양모)의 제조와 제지 원료로서 사용된다. 냅마 고르기 녀공들은 천연두 기타 전염병들을 전파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놀며 그들 자신이 그 첫 희생자이다²⁵³. 과도한 로동, 곤란하며 부적당한 로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비되는 로동자들의 조폭화(粗暴化)의 고전적 폐로서는 광산 및 탄광을 짓혀 놓으면 기와와 벽돌 제조소들을 들 수 있는바 영국의 이 제조소들에서는 새로 발명된 기계들이 아직 드물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1866년). 5월과 9월 사이에는 작업은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고 또 옥외 건조를 할 때는 왕왕 아침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된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로동일은 《단축된》 《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녀 아동들은 6세로부터 또 지어는 4세로부터 사용된다. 그들은 성년들과 같은 시간수를 일하며 그 이상 일하는 일도 자주 있다. 로동은 고되며 여름철 더위는 피로를 더 돋군다. 폐컨대 모슬리에 있는 어떤 기와 제조소에서는 24세의 처녀 혼자서, 진흙을 운반하며 기와를 쌓는 두 명의 어린 소녀들을 조수로 하여 하루에 2,000매의 기와를 만들었다. 이 소녀들은 깊이 30피트나 되는 구멍이의 미끄러운 변두리를 따라 하루에 10톤이나 되는 진흙을 끌어 올려 그것을 210피트나 되는 거리를 운반하였다. 《아동으로서 도덕적으로 심한 타락 없이 기와 제조소의련옥(煉獄)을 통과

253 냅마 거래에 관한 보고와 다수의 폐종들을 《공중 보건, 제 8차 보고》, 런던, 1866년, 부록 196—308페이지에서 참조하라.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아주 철도 들지 않은 때부터 귀에 익히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과 그들이 무지와 야성인채 그 속에서 자라는 음란하고 무례하며 럽치 없는 습관들로 해서 그들은 그후 평생 무법하고 불량하며 방탕하게 된다…… 타락의 무서운 한개 원천으로 되는 것은 거주 방식이다. 매개 조형공(moulder) (이는 본래 기능공이며 노동자 집단의 두목이다)은 그의 오막살이에서 7명의 자기 반원을 재우고 먹인다. 그의 가족이든 아니든 성년 남자 소년 소녀가 모두 이 오막살이에서 잔다. 여기에는 매개 방이 둘 폐외적으로는 셋 있는바 이것들은 모두 단층이며 환기가 나쁘다. 하루 동안의 고된 로동으로 얼마나 몸이 피곤하여지던지 위생이니 청결이니 폐절이니 하는 그 어떠한 규칙도 지키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다. 이러한 오막살이의 다수는 무질서, 불결 그리고 먼지의 진짜 표본이다…… 이런 종류의 로동에 어린 소녀들을 고용하는 제도의 최대의 죄악은 그들을 통제로 어렸을 때부터 그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극도의 불량배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자라는 것을 자연에 의하여 알게 되기 전에 탄포하고 입버릇 나쁜 사내 아이(《rough, foul-mouthed boys》)가 된다. 그들은 더러운 누더기 조각이나 걸치고, 다리는 무릎까지 내놓고, 머리와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며, 단정이나 수치의 감정은 모두 멸시하는 데 습관이 된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배활개를 펴고 풀밭에 드러눕던가 또는 옆 수로에서 목욕하는 사내 아이들을 살펴 본다. : 고된 하루 일을 마치면 그들은 좀 더 옷을 잘 차리고 사내들과 함께 술집으로 간다. 이 계급 전체 속에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음주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가장 나쁜 것은 벽돌공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 좀 나은 측의 어떤 자가 싸우줄필드의 한 목사에게, 목사님 당신이 벽돌공을 교양하여 개선하려는 것은 악마를 교양하여 개선하려는 것과 같습니다(《You might as well try to raise and

“Improve the devil as a brickie, Sir!”))고 말하였다²⁵⁴.

근대적 마누팩처라(이라 함은 여기서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을 제외한 대규모의 모든 작업장을 의미한다)에서의 노동 조건들의 자본주의적 절약에 관하여는 제 4차(1861년) 및 제 6차(1863년) 《공중 보건 보고》중에 극히 풍부한 공식 자료가 있다. 작업장(workshop) 특히 런던의 인쇄업자 및 재봉업자의 작업장들의 묘사는 혐오스러운 점에서 우리 소설가들의 환상도 도저히 따를 수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향은 자명한 일이다. 추밀원(privy council)의 수석 의무관이었으며 《공중 보건 보고》의 공식 편집자인 사이몬 박사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나의 제 4차 보고(1861년)에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제 1차적 권리를, 즉 고용주가 어떠한 작업으로 그들을 모아 놓더라도, 노동은 고용주에게 의존하는만치 피할 수 있는, 보건에 유해한, 모든 상태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보건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실제상 불가능하다. 내가 증시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이 보건상 권리의 실현을 자력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동시에 위생 경찰 당국으로부터의 효과 있는 방조도 얻을 수 없다. …… 무수한 남녀 노동자들의 생명이 그들이 일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오는 무한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현재 쓸 데 없이 불구화되고 단축된다》²⁵⁵. 작업장이 보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의례 증으로 사이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사망표준 들고 있다——

254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1866년》, 별 페이지 16—18페이지, 제 86—97호 및 130—133페이지, 제 39—71호. 동상서, 제 3차 보고, 1864년, 48, 56페이지 참조.

255 《공중 보건, 제 6차 보고》, 런던, 1864년, 29, 31페이지.

해당 산업부문에 고용된 각종 년령의 인원수	모건에 관하여 비 표된 제 산업 부 문들	해당 산업 부문들에서의 10만 명 당 년령 층별 사망률		
		25—35세	35—45세	45—55세
958,265	잉글랜드 및 웨 즈의 농업	743	805	1,145
남 22,301	런던의 재봉업	958	1,262	2,093
녀 12,379	런던의 인쇄업	894	1,747	2,367
13,803				

256

d) 근대적 가내 노동

이제는 소위 가내 노동으로 눈을 돌리자. 대공업을 배경으로 삼고 실현되는 자본의 이 착취 분야와 그 착취의 폭독성에 관한 표상을 얻기 위하여는 폐컨대 잉글랜드의 일부 벽촌에서 경영되는, 보기에는 아주 목가적인 제정업(製釘業)을 고찰하면 될 것이다²⁵⁷. 여기에서는 아직 전혀 기계를 채용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기계적 생산 및 마누팩처라 생산과 경쟁하는, 레스 공업과 밀대 세 공업과 같은, 부문들로부터 약간의 실패를 들면 충분할 것이다.

256 동상서, 30페이지. 사이몬 박사의 지적에 외하면 런던의 25—35세의 재봉공과 인쇄공의 사망률은 사실은 훨씬 더 크다. 왜냐 하면 런던의 고용주들은 농촌으로부터 30세까지의 다수 청년들을 《장제(匠弟)》 및 《견습공》(그들은 수공을 배우려는 것이다)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제 조사에서는 런던인으로 간주됨으로써 런던의 사망률 계산의 기초로 되는 인구 수를 불리지만 그에 비례하여서는 런던의 사망자 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그들 중 대부분은 특히 중병인 경우에는 귀향한다(동상서).

257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기계적 방식으로 제조되는 절단정(切斷釘)과는 다른, 쇠 망치로 쳐서 만드는 못이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별 페이지 11 및 19페이지, 제 125—130호, 52페이지, 제 11호, 114페이지, 제 487호, 137페이지, 제 674호 참조.

잉글랜드의 레스 생산에 종사하는 15만 명 중 1861년의 공장법의 효력을 받는 것은 약 1만 명이다. 나머지 14만명 중 압도적 다수는 부인과 남녀 미성년 및 아동들——남성은 아주 얼마 안되지만——이다. 이 《저렴한》 착취 재료의 보건 상태는 닷팅감의 종합 병원(General Dispensary) 의사 트루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레스 제조녀공들이며, 대개는 17세 내지 24세의 686명의 환자 중 폐병 환자는 다음과 같았다——

1852년	45대	1	1857년	13대	1
1853년	28대	1	1858년	15대	1
1854년	17대	1	1859년	9대	1
1855년	18대	1	1860년	8대	1
1856년	15대	1	1861년	8대	1

폐병률의 이 루진적 장성은 극히 락관주의적인 진보론자들에게나 또한 거짓말 일수인 독일의 자유 무역론 행상인들에게도 틀림 없이 충분할 것이다.

1861년의 공장법은 본래의 레스 제조가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한 그것을 규제하는바, 이것은 영국에서의 통례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고려하는——그것도 물론 노동자들이 마누콰두라, 상품 중개업점(warehouse)등등에 집중되어 있는 한에서가 아니고 다만 그들이 소위 가내 노동자들인 한에서——부문들은 1) 레스 완성(기계적 방식으로 제조되는 레스의 마지막 손질로서 이것은 다시 다수의 부족 부문들을 포함한다)과 2) 레스 뜨기로 나뉘여진다.

레스 완성은 소위 《녀장주(女匠主)의 집》(Mistresses houses)에서나, 홀몸으로 또는 자기의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부인

들의 사택(私宅)에서나 가내 노동 형태로서 행하여진다. 《녀장주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 자신이 빈궁하다. 작업장은 그들의 사택의 일부이다. 그들은 공장주, 상품 중개업점(warehouse)의 소유주 등등의 주문을 받으며 그들의 방의 크기와 해당 공업 부문에서의 수요의 동요에 따라 적당한 수의 부인 소년 및 어린 아동을 사용한다. 취업 녀공들의 수는 어떤 작업장들에서는 20명 내지 40명까지 변동이 있으며 다른 작업장들에서는 10명 내지 20명까지 변동이 있다. 아동이 로동을 시작하는 평균 최저 연령은 6세이지만 5세 미만의 경우도 많다. 노동 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1시간 반의 식사를 위한 중단 시간이 있는바, 이 식사는 불규칙적이며 황황 바토 그 악취가 심한 작업 굴' 간에서 취하게 된다. 경기가 좋은 때는 로동은 황황 아침 8시(때로는 6시)부터 밤 10시 11시 또는 12시까지 계속된다. 영국의 병영에서는 병사 1명당 규정된 공간(空間)이 500—600립방피트이며 육군 병원에서는 1,200립방피트이다. 그런데 이 작업 굴' 간에서는 매인당 67—100립방피트이다. 동시에 가스 등(燈)이 공기 속의 산소를 삼키어 버린다. 배스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아동을 '황황 겨울에도 바닥이 포석이나 벽돌로 되어 있어도 신발을 벗어야 한다. 《눅팅감에서는 아마도 12평방피트 이상이 안되는 한 간의 적은 방에 14명 내지 20명의 아동들이 쥘여져서, 24시간 중 15시간을 로동하는바, 로동 그 자체도 권태와 단조로 말미암아 피로를 일으키며 거기에다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온갖 비위생적 상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아주 어린 아동들조차 놀란만한 긴장된 주의력과 속도로써 일하며 거의 한때도 손'가락을 쉬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 보아도 그들은 일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로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 막대기》는 아동들을 폭촉하는 수단으로서

더욱 많이 《녀장주》에게 복무한다. 《아동들은 점차 피로해지며, 그리하여 단조하고, 눈을 상하며, 몸 자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진 맥진해지는, 일에 오래 동안 쉼없는 끝에는 참새떼 같이 어수선해진다. 그야말로 그것은 진짜 노예 노동이다(Their work is like slavery)》²⁵⁹. 부인들이 그들 자신의 아동들과 함께 집에서 즉 근대적 의미로서는 세'방에서, 흔히 는 다락방에서 노동하는 경우에는 사태는 말할 수 없이 더 나쁘다. 이 종류의 노동은 노팅엄 주변 80마일에 퍼지고 있다. 상품 중개업점(warehouse)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은 저녁 9시나 10시에 퇴근할 때 종종 한 뭉치의 레스를 집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더 받아 가지고 돌아 오게 된다. 자본주의적 위선가는 그의 고용 노복의 한 사람의 입을 빌어 물론 《이것은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감동스런 말을 보태어 이것을 돌려 보내는 것인데 가엾은 아동은 역시 자지 않고 앉아서 어머니를 도와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²⁶⁰.

레스 뜨기 공업은 주로 잉글랜드의 두 농업 지방, 즉 메본 샤 남해 연안을 따라 20—30마일에 뻗치는 지대와 북메본의 일부 지방들을 포함하는 호너튼 레스 지방, 또 하나는 벅킹엄, 버드포드, 노샘프턴 주(州)들의 대부분과 옥스포드셔와 헌팅든셔의 린집 지방들을 포함하는 지방에 퍼져 있다. 보통 농업 일용 노동자들의 오막살이가 동시에 작업장으로도 된다. 허다한 마누파두라 소유주들이 이러한 가내 노동자들을 3,00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바 그들은 주로 아동들과 미성년들——전적으로 여성들인——이다. 레스 완성과 관련하여 서술한 상태에 여기서 다시 봉착한다. 다만 다른 것은 《녀장주의 집》 대신에 가난한 부인들이 자기의 오막살이에서 운영하는 소위 《레스 학

259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별 페이지 19, 20, 21페이지.

260 동상서, 별 페이지 21—22페이지.

교》(lace schools)가 등장한다. 5세부터, 때로는 더 어릴 때부터 12세 내지 15세에 이르기까지의 아동들이 이 학교에서, 제 1년도에는 최 년소자가 4시간 내지 8시간, 그후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와 10시까지 노동한다. 《통레로 방은 적은 오막살이의 보통 거실이며, 연돌은 바람을 막기 위하여 메워졌으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빈번히 그들 자신의 체온으로만 보온된다. 다른 경우들에는 이 소위 학교의 교실이라는 것은 적은 헛간 같은 곳이며 난방 장치도 없다……이 굴속 같은 방의 과충(過充) 상태와 그로 인한 공기의 혼탁은 종종 극단에 이른다. 거기에다 하수도, 벌소 그리고 적은 오막살이로 들어가는 통로에 보통 있는 부식물(腐蝕物) 기타 오물의 유해로운 영향이 첨부된다.》. 공간에 관하여 말한다면 《어떤 레스 학교에서는 18명의 소녀들과 1명의 여선생에 대하여 매인당 35립방피트이며, 악취가 전될 수 없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는 18명에 대하여 1인당 24 $\frac{1}{2}$ 립방피트이다. 이 공업 부문에서는 2세 및 2세 반의 아동들이 고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²⁶¹.

백킹감 및 베드포드의 중촌 주들에서 레스 뜨기가 없는 곳에서는 밀대 세공업이 시작된다. 이것은 허트포드셔의 대부분과 에섹스의 서부 및 북부에 펼쳐고 있다. 1861년에 밀대 세공과 밀대모 제조에 4만 43명이 고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 3,815명이 각종 연령의 남성이며 나머지가 여성인데 그것도 20세 미만이 1만 4,913명 그 중 약 7,000명이 아동들이었다. 여기에서는 레스 학교 대신에 《밀대 세공 학교》(straw plait schools)가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아동들이 보통 4세부터 때로는 3세와 4세 사이로부터 밀대 세공 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교육이란 물론 아무 것도 그들은 받지 않는다. 아동들 자신은 초등 학교를 《진짜 학교》(natural schools)라고 부름으로써, 반 굶주린 그들

261 동상서, 별 페이지 29. 30페이지.

의 어머니들에게서 받은 하루에 보통 30야드가 되는 과업을 그들이 완수하기 위하여 작업에만 매여 있는, 이 흡혈 시설(吸血施設)과 구별하고 있다. 이 어머니들은 그후에 종종 집에서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들을 일시킨다. 밀대는 그들의 손'가락들과 입을——그들은 입으로 밀대를 부단히 물 추기기 때문에——빈다. 벨라드 박사가 종합한 런던의 의무관들의 전체 의견에 의하면 300립방피트가, 취실이나 작업실에서의 매인당 최소 한도의 공간이다. 그런데 밀대 세공 학교에서는 레스 학교에서 보다 공간은 더 협착하게 할당되어 매인당 $12\frac{2}{3}$, 17, $18\frac{1}{2}$ 립방피트이며 22립방피트 미만이다. 《이 수'자 중 적은 것은——하고 위원 화이트는 말한다——아동이 3피트립방의 상자에 집어 넣어질 때 차지하는 공간의 반보다도 적은 것으로 된다》. 이것이 12세 또는 14세까지의 아동들이 맛보는 생활이다. 가난에 쪼들리고 타락한 부모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동들로부터 짜 내려는 생각 뿐이다. 아동들이 자라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부모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교양을 받은 주민들이 무지와 악습에 젖게 되는 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덕성은 최저 단계에 있다……다수의 부인은 사생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많이는 범죄 통계학에 정통한 사람도 놀랄만큼 미성숙한 나이에서이다》²⁶². 그리하여 이 표본적 가족들의 모국은 구라파의 표본적 기독교 국가이다! 라고 기독교에는 확실히 권위자인 몬탈롬베르 백작은 말하고 있다.

상술한 공업 부문들에서 로임은 전반적으로 비참한 것(밀대 세공 학교에서의 아동들의 폐외적인 최대 한 임금인 3실링이다) 인바 그나마 특히 레스 생산 지방들에서 광범히 실시되고 있는 트럭크시스템(trucksystem) [선용으로 주는 월급 임금제]에 의

262 동상서, 별 페이지 40, 41페이지.

하여 그 명목액 이하로 훨씬 인하된다²⁶³.

e) 근대적 마누팩추라 및 근대적 가내 노동의 대
공업에로의 이행. 이 생산 방식들에 대한 공장
법률의 적용에 의한 이 혁명의 촉진

부인 및 미성숙자들의 노동력의 악용만에 의한, 그리고 일
체의 정상적인 노동 조건들과 생활 조건들의 도략(盜掠)만에
의한, 그리고 또 과도한 노동과 야간 노동의 잔인성만에 의
한, 노동력의 저렴화는 결국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어떤 자연
적 한계들에 부딪치며 그리하여 그와 함께 이러한 기초들에 밑
각한 상품의 저렴화 및 자본주의적 착취 일반이 또한 이 한계
들에 부딪친다. 이 한계점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자마자——그
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기계의 도입과, 이 순간으로
부터 분산된 가내 노동(또는 마누팩추라도)의 공장적 생산으로
의 급속한 전화의 때가 울려 온다.

이 운동의 가장 훌륭한 실패를 제공하는 것은 장신품(裝身
品) (wearing apparel)의 생산이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분류에 의하면 이 공업 부문은 밀대모 및 부인모 제조업자, 캡
제조업자, 재봉업자, 밀리너 및 드레스메커²⁶⁴, 내의 제조업
자 및 침봉업자(針縫業者), 코르셋트 장갑 제조업자, 제화업자
및 그 밖에 넥타이 카라 등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다수의 소부
문들을 포괄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 공업 부문들에 종사
하고 있는 여성 인원은 1861년에 58만 6,298명이었으며 그 중

263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1차 보고, 1863년》, 185페이지.

264 밀리너리라는 것은 본래는 머리 장식물의 생산이나 또 부인용
외투와 짧은 외투의 생산이기도 하며, 드레스메커는 우리 나라의 꽃쓰
마헤런[부인복 제조 여공]과 같은 것이다.

적어도 11만 5,242명은 20세 미만이며 1만 6,650명은 15세 미만이었다. 련합 왕국에서 이 녀공들의 수는 75만 334명(1861년에)이었다. 잉글랜드와 웰즈에서 당시에 모자 양화 장갑 제조업과 재봉업에 종사한 남공들의 수는 43만 7,969명, 그 중 1만 4,964명은 15세 미만, 8만 9,285명은 15세 내지 20세, 33만 3,117명은 20세 이상이였다. 이 자료에는 여기에 속하는 다수의 소부문들은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수'자를 나타난 그대로 취하더라도 잉글랜드와 웰즈만으로 1861년 일제 조사에 의하면 총수는 102만 4,277명이며 이것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와 대략 같다. 우리는, 기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엄청난 생산물량을 요술과 같이 만들어 내며 그리하여 그렇게도 방대한 노동자 대중의 《해방》을 촉진하는가를 알기 시작한다.

《장식품》의 생산은, 분업——그 분할된 부분들이 이미 기성의 것으로 되어 있는——을 자체의 내부에서 재생산할 때를 인 마누팩투라들에 의하여, 또 종전과 같이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누팩투라들과 상품 중개업점들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하여 종종 전체 도시와 지방이 폐컨대 제화업 등등과 같은 부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수공업적 소장주(匠主)들에 의하여, 끝으로 마누팩투라들, 상품 중개업점들 및 지어는 비교적 적은 장주들의 외업부(外業部)를 이루는 소위 가내 노동자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실시된다²⁶⁵. 다량의 노동 재료 즉 원료 반제품 등등은 대공업이 제공하며, 저렴한 인간 재료(자비와 착은에 맡겨진)는 대공업과 농업에 의하여 《방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 공업 부문의 마누팩투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일체의 수요의 변동에 순응할 수 있는

265 영국의 밀리너리와 드레스메킹은 대개 고용주의 건물에서, 부분적으로는 거기에서 기식하는 상용 녀공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밖에서 다니는 일용(日傭) 녀공에 의하여 실시된다.

특 준비된 군대를 자기 수하에 가지려는 자본가의 욕망 때문이다²⁶⁶. 그런데 이 마누팩투라들은 자신들과 나란히 분산된 수공업적 생산과 가내 생산을 자기의 광범한 기초로서 오래 존속 시키었다. 이 노동 부문들에서의 잉여 가치의 거대한 생산과 동시에 그것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무진적 저렴화는 주로 입에 겨우 풀칠하기에 필요하며, 인간으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최대한의 노동 시간과 결부된 최저한의 로임의 덕택이었으며 또 덕택이다. 상품으로 전화된 인간의 땀과 인간의 피의 저렴성——이것이 바로 판매 시장을, 특히 영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아도 영국적인 관습과 취미가 지배하는 식민지 시장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또 매일 같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전환점이 왔다. 낡은 방법의 기초 즉 체계적으로 발전된 분업을 다소간에 수반한 인간 재료의 잔인한 착취만으로는 장성하는 시장과 더욱 급속히 장성하는 자본가들의 경쟁에 대하여 이미 불충분하였다. 기계 시대를 고하는 종소리가 울리었다. 부인복 제조업, 재봉업, 제화업, 칩봉업, 모자 제조업 등등과 같은 이 생산 분야의 무수한 모든 부문들을 한결 같이 장악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혁명적인 역할을 논 기계는 재봉틀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재봉틀의 직접적 작용은 대공업 시기에 새로운 생산 부문들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모든 기계들의 작용과 거의 같다. 아주 나이 어린 아동들은 경원된다. 기계 노동자의 임금도 다수가 《빈자중에도 극빈자》(the poorest of the poor)에 속하는 가내 노동자의 임금에 비하면 제고된다. 기계와 경쟁하기 시작하는, 비교적 좋은 처지에 있던, 수공업자들

266 위런 화이트는 거의 전부가 여성인 1,000명 내지 1,2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군복 제조 마누팩투라와 근 반수가 아동과 미성년 등등인 1,300명을 가진 어떤 제화 마누팩투라를 방문하였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서》 별 제지 47페이지, 제 319호).

의 임금은 저락한다. 새 기계 노동자들은 전혀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이다. 그들은 기계력의 도움을 받아 보다 곤란한 작업에서의 남성 노동의 독점을 근절하며, 보다 쉬운 작업 영역으로부터 나이 많은 부인들과 나이 어린 아동들을 대량적으로 구축한다. 강력한 경쟁은 가장 약한 수로동자들을 격멸한다. 최근 10년 간 런던의 아사(death from starvation)자수의 전할할 만한 증가는 기계 재봉업의 확장과 병행하고 있다²⁶⁷. 재봉틀에서 일하는 새로운 녀공들은 기계의 무게, 크기 및 특성에 따라 재봉틀을 손과 발로 또는 손만으로, 앉든가 서서 움직이는데 이들은 로동력을 많이 지출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은 그 과정이 비록 구제도에서 보다는 대개 짧다 하더라도, 길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다. 재봉틀이 양화, 코르셋트, 모자 제조 등등에서와 같이 협착하고 그렇지 않아도 충만된 작업장에 침입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건강에 유해로운 영향을 증대시킨다. <30—40명씩——하고 위원 로드는 말한다——기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천정이 낮은 작업장에 들어 설 때의 기분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열기는 일부는 다리미를 다리기 위한 가스 로(爐) 때문이지만 무섭다…… 그러한 작업장들에는 소위 적당한 로동 시간 즉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로동 시간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조차 매일 정해 농교 3—4명이 졸도한다²⁶⁸.

사회적 생산 방식의 변혁인, 생산 수단의 개변의 필연적

267 일례. 1864년 2월 26일에 《등기초 장관》의 사망 주보(週報)에 의하면 아사가 5건이다. 같은 날 《타임스》지는 새로운 아사 1건을 보도하고 있다. 한 주일에 아사 희생자가 6명!

268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별 페이지 67페이지, 제 406—9호. 84페이지, 제 124호. 별 페이지 73페이지, 제 441호. 66페이지, 제 6호. 84페이지, 제 126호. 78페이지, 제 85호. 76페이지, 제 69호. 별 페이지 72페이지, 제 483호.

이 산물은 과도 형태들의 착잡한 혼돈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과도 형태들은 재봉틀이 이러 저러한 공업 부문을 이미 정복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며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가에 따라 변화되며, 또 노동자의 그 당시 상태가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마누팩투라 생산, 수공업 생산 또는 가내 생산의 우세 여하에 따라, 작업장의 임차료²⁶⁹ 등등에 따라 변화된다. 폐전대 노동이 대개 주로 단순 협업에 의하여 이미 조직되어 있는 부인복 제조업에서는 재봉틀은 우선은 마누팩투라 생산의 한 개 새로운 요인에 불과하다. 재봉업, 내의 제조업, 제화업 등등에서는 모든 형태들이 교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 생산이 있다면 저기에는 중간 고용주가 기업가—자본가로부터 원료를 받고 《고'간》이나 《다락방》에서 재봉틀의 주위에 10명 내지 50명씩 또는 그 이상의 고용노동자들을 집결시킨다. 마지막으로 기계가 하등 편제(編制)를 이루지 않으며 또 소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한,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에서 그렇듯이 수공업자 또는 가내 노동자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소수의 타인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신의 소유인 재봉틀을 리용한다²⁷⁰. 사실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자본가가 다수의 재봉틀을 자기의 건물에 집결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계 생산물을 가내 노동자 군(軍) 사이에 나누어 더 가공시키는 제도가 우세하다²⁷¹. 그러나 과도 형태들이 비록 착잡하다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 생산으로의 전화의 경향은 감추어지지 않는

269 《작업장의 임차료는 중국적으로 이 점을 규정하는 요소인 것 같으며 따라서 작은 고용주들과 가족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는 구제도는 수도(首都)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었고 또 가장 빨리 복구되었다》(동상서, 83페이지, 제 123호). 마지막 구절은 제화업에만 전적으로 관계된다.

270 노동자의 상태가 구물민의 그것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장갑 제조업 등등에서는 이러한 일은 없다.

271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83페이지, 제 122호.

다. 이 경향은 재봉틀 자체의 성격 즉 앞서 분리된 생산 부문들을 같은 건물과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통합하도록 추동하는 재봉틀 리용 방식의 다양성에 의하여 배양되며, 또 예비적인 바느질과 기타 약간의 조작(操作)들은 기계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정에 의하여 배양되며, 끝으로 자신의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수공업자 및 가내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수탈에 의하여 배양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미 현재 이 운명에 빠졌다. 재봉틀에 투하되는 자본량의 부단한 증대는²⁷² 생산의 확대를 자극하며 시장에 정체를 초래하는바 이것은 가내 노동자들이 자기의 재봉틀을 팔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재봉틀 자체의 과잉 생산은 그것을 판매할 필요가 있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기계를 주불(週拂)로 임대하도록 하며 그 때문에 초기에 소유자들에게 치명적인 경쟁을 일으킨다²⁷³. 기계의 부단히 계속되는 구조상 변화와 저렴화는 구형의 것을 그만치 부단히 감가하며 그 결과 대자본가들만이 그것을 헐값으로 대량적으로 사들이어 유리하게 리용할 수 있다. 끝으로 증기 기관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유사한 모든 변혁 과정들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증기력의 리용은 처음에는 기계의 진동, 속도 조절의 곤란성, 보다 가벼운 기계들의 급속한 훼손 등등과 같은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에 봉착하나 이것들은 곧 경험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²⁷⁴. 일방으로 비교적 큰 마누팩처라들에서 다수 작업기의 집적이 증기력의 사용을 충동한다면 타방으로 증기와 인간 근육과의 경쟁

²⁷² 레스터에서 도매용으로 생산하는 장화 및 단화 제조업에서 사용된 재봉틀은 1864년에 이미 800대였다.

²⁷³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84페이지, 제 124호.

²⁷⁴ 레번대 런던의 필리코에 있는 목군 피복창, 런던더리에 있는 털리 및 헨더슨의 내의 공장, 1,200명의 《직공》을 사용하는 리머링크에 있는 피복 공장에서 그러하였다.

은 대공장들에서의 노동자와 작업기의 집적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폐컨대 영국에서는 《장식품》 생산의 방대한 분야들이, 기타의 대부분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마누팩처라 수공업 및 가내 노동의 공장 생산으로의 혁명을 현재 체점하고 있는바, 이미 이렇게 이행되기 전에 상술한 모든 형태들은 대공업의 영향하에 완전히 변화되며, 해체되며 불구화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공장 체계의 적극적인 발전의 계기들을 가져 본 일이 없이 그것의 모든 휴약성을 재생산하였으며 또 지어는 그것들을 통가하기조차 하였다²⁷⁵.

자연 발생적으로 수행되는 이 산업 혁명은 부인 미성년 및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는 모든 공업 부문들에 공장법이 확장됨으로써 인위적으로 촉진된다. 일방으로 노동일의 길이, 휴식, 시업 및 종업 시간에 관한 그것의 강제적 규제, 아동의 교대 제도, 일정한 연령 미만의 일체 아동의 사용 금지 등등은 기계 적용의 강화와 ²⁷⁶ 동력으로서의 근육의 증기에 의한 대

275 《공장 제도로의 경향》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별 폐지, 67페이지). 《전체 생산이 현재 파도 삼태에 있으며, 레스 공업 직조업 동등에서 일어난 동일한 변화를 받고 있다》 (동상서, 제 405페이지). 《완전한 혁명》 (동상서, 별 폐지 46페이지, 제 318호). 1840년의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당시에는 양말 제조업은 아직 수로동이였다. 1846년 이때 각종 기계들이 도입되었으며 그것들이 현재는 증기에 의하여 운전된다. 잉글랜드의 양말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녀 및 3세부터의 각종 연령의 인원 총수는 1862년에 약 12만 9,000명이였다. 1862년 2월 11일의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그 중 불과 4,063명만이 공장법의 적용하에 있었다.

276 그리하여 폐컨대 제도업(製陶業)에서는 《글래스고우의 브리튼 제도소》를 가지고 있는 코크렌 상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종래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기능 노동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의 사용을 강화하게 되었는바 우리는 종래의 방법에 의하는 것보다 다량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매일 같이 확신을 갖게 된다》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3페이지). 《공장법의 작용은 이와 같이 기계의 가일층의 도입은 자극하는 것이다》 (동상서, 13, 14페이지).

체를²⁷⁷ 자극한다. 타방으로 시간에서 잃은 것을 공간에서 얻으려는 지향은 공동으로 리용되는 생산 수단——로, 건물 등등——의 확장을 가져 온다, 즉 한 마디로 말하여 생산 수단의 집적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집적이 강화된다. 공장법의 적용이 마누팩투라에 위협으로 될 때마다 열렬히 반복된 본질적으로는 똑 같은 주요 반대론은 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을 종전의 규모로 계속하려면 보다 큰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누팩투라와 가내 노동의 중간 형태들과 가내 노동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의 기반은 노동일과 아동 노동의 제한과 더불어 상실된다. 저렴한 노동력의 무제한한 착취는 그것들의 경쟁 능력의 유일한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공장 생산의 본질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특히 그것이 노동일의 규제하에 들어 오게 되자마자, 정상적 결과의 보장성 즉 소여 시간에 규정된 량의 상품이 생산되며 또는 초기의 유익한 효과가 달성되리라는 확신이다. 또 규제된 노동일의 법적으로 제정된 휴식은 생산 과정에 있는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돌연적 및 주기적 작업 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결과의 이 보장성과 작업 정지의 가능성은, 순전히 기계적인 생산에서는, 페컨대 제도업, 표백업, 염색업, 제빵업, 대개의 금속 가공업에서와 같이 화학적 및 물리적 과정이 일정한 역할을 노는 곳에서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무제한한 노동일, 야간 노동 및 인간력의 자유로운 낭비라는 구습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모든 자연 발생적 장애가 곧 생산의 영구한 《자연적 제한들》로 간주된다. 공장법이 그러한 《자연적 제한들》을 박멸하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해충을 박멸하는 독약은 없을 것이다. 제도업의 제씨(諸氏)보다 더 소리

²⁷⁷ 그리하여 페컨대 제도업에 공장법이 실시된 후 손으로 돌리는 목로(轆轤) 대신에 동력 목로가 크게 증가하였다.

높이 《불가능》에 관하여 워친 사람은 없었다. 1864년에 공장법이 그들에게 강제되자 16개월 후에는 벌써 일체의 불가능이 없어졌다. 공장법에 의하여 초래된 《제도용의 반죽(slip)을 증발에 의하지 않고 압력에 의하여 만드는 개량 방법, 굵지 않은 제품을 건조하기 위한 로의 새로운 구조 등등은 제도술에 있어서 큰 중요 사변들이며 이것들은 최근 100년 간에 볼 수 없는 진보를 의미한다…… 석탄 소비의 현저한 감소로 로의 온도는 현저히 저하하나 제품에 대한 작용은 보다 급속하다》²⁷⁸. 모든 예언에도 불구하고 도기의 생산비는 오르지 않고 생산량은 증가하여 1864년 12월부터 1865년 12월까지의 12개월 간의 수출은 과거 3년 간의 평균보다 가치로서 13만 8,628파운드 스털링이나 초과하였다. 성냥 제조에 있어서는 미성년들이 점심밥을 삼키는 동안에도 성냥 가지를 뜨거운 린(隣)의 조합물 속에 적시며 거기에서 올라 오는 독한 증기가 그들의 얼굴에 부닥치는 것이 자연 법칙으로 간주되었다. 공장법(1864년)은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증기가 노동자에게 부닥칠 수 없는 《침지기(浸漬機)》를 도입하게 하였다²⁷⁹. 또 레스 마누팩투라 중에서 공장법의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 부분들에서 현재 주장하기를 각종 레스 자재들을 건조하기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하여 3분으로부터 1시간 또 그 이상으로 구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점심 시간을 규칙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위원은 대답한다—— 《사정은 벽지(壁紙) 인쇄업에서와 같다. 이 분야의 주요 공장주들 중 몇 사람은 사용되는 자재의 성질과 자재가 통과하는 과정의 다

278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6 및 127페이지.

279 성냥 공장에서의 이러 저러한 기계의 도입에 의하여 그 한 부분에서 230명의 미성년들이 14세 내지 17세의 33명의 소년 소녀들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노동자의 이 절약은 1865년에는 증기력의 적용에 의하여 더욱 진척되었다.

양성 때문에 점심 시간을 위하여 작업을 들면 정지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본다고 열심히 주장하였다…… 그들은 공장법 확장 조례〔새로운 공업 부문에 공장법을 확장할 때 관한 보충법〕(1864년) 제 6조 제 6항에 의하여 이 조례 발포후 18개월의 휴여 기간을 용인 받았는바 그후에는 공장법이 규정한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²⁸⁰. 이 법률이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무섭게 공장주 제씨는 벌써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우리가 공장법 실시에 관하여 념려하였던 불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생산이 조금이라도 약화된 것을 볼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한다》²⁸¹. 그리하여 영국 의회——그의 독창성(獨創性)을 아마도 누구나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경험에 의하여,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에 대한 일체의 생산상의 소위 《자연적 장애》가 강제법의 단순한 지시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업 부문에서 공장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6 내지 18개월의 기간이 제정되는바 이제는 이 기간에 기술적 장애들을 제거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공장주의 사업이다. 미라보의 《불가능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은 결코 나에게 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특히 근대적 공학에 합당한다. 그러나 공장법이 그와 같이 마누팍뚜라 생산의 공장 생산으로의 전화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온실에서와 같이 빨리 성숙시킨다면 동시에 투자의 증대의 필연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작은 장주(匠主)들의 몰락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²⁸².

280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1864년》, 별 페이지, 9페이지, 제 50호.

281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22페이지.

282 《필요한 제 개량은……다수의 구마누팍뚜라에서는 현재의 다수 소유주들의 힘에 넘치는 투자 없이는 도입될 수 없다…… 공장법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일시적 혼란을 수반한다. 이 혼란의 규모는 공장법이 제거해야 할 폐해의 대소에 정비례한다》(동상서, 96, 97페이지).

순전히 기술적인 또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애들을 도외시하면 노동일의 규제는 노동자들 자신의 무규율적 관습과 충돌한다. 특히 도급제 임금의 지배적으로 실시되는 데서 또 하루나 일주일 간에 있어서의 시간의 허비를 추후의 시간의 노동이나 야간 노동에 의하여 메꿀 수 있는 데서, 그러한바 이것은 성인 노동자를 둔하게 만들며 그의 연소한 동료들과 부인 동료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이다²⁸³. 노동력 지출에 있어서의 이 무규율은 단조한 교역으로부터 오는 권태에 대한 자연 발생적이며 조잡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정도로 생산 자체의 무정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생산의 무정부성 그것의 전제로 되는 것은 이번에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무구속적 착취인 것이다. 산업 경기 순환 단계의 일반적인 주기적 교체와 매개 생산 부문에서의 특수한 시장 동요와 더불어 특히 소위 계절이라는 것과 큰 주문의 돌발성이 등장하는바 이것들은 그것이 항행에 유리한 시절의 주기성에 근거하든 또는 유행에 근거하든 간에 최단 기간에 수용해야 한다. 돌발적인 주문은 철도와 전신이 보급되면 될수록 더 관습적인 것으로 된다. 레컨대 《전국에 걸치는 철도 체계의 보급은——하고 런던의 한 공장주는 말한다——단기 주문이 관습으로 되는 데 대단히 유리하여 이제는 구매자들이 2주일에 한 번씩 글래스고우,

283 레컨대 용광로에 있어서 《주말 경에는 일반적으로 작업 시간이 훨씬 연장되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월요일에는 놀고 또 때로는 화요일의 일부나 또는 그 전부까지 노는 관습 때문이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별 폐지, 6페이지). 《소장주(匠主)들은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극히 불규칙하다. 그들은 2일이나 3일은 쉬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메꾸려고 불철 주야 일한다……그들은 있다면 자신들의 아동들을 언제나 일시킨다》(동상서, 별 폐지, 7페이지). 《작업 착수에 있어서의 규율성의 결여는 작업 시간의 연장에 의하여 이를 메꿀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습에 의하여 조장된다》(동상서, 별 폐지, 18페이지). 《버밍엄에서의 막대한 시간의 손실…… 시간의 일부는 허송하며 나머지는 노예와 같이 일시킴으로써의》(동상서, 별 폐지, 11페이지).

만체스터 및 에든버러로부터 오든가 또는 우리가 상품을 제공하는 씨티[런던시]의 상품 중개업점들로 도매로 사러 오든가 한다. 그들은 종래의 관습과 같이 창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로 수용해야 할 주문을 한다. 수년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다음 계절의 수요를 위하여 한가한 때에 미리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계절에 무엇이 수요될지 아무도 예언 못한다》²⁸⁴.

아직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들과 마누콕투라들에서는 소위 계절의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또한 돌발적 주문의 결과로는, 불시에, 혹심한 과도 노동이 지배한다. 공장, 마누콕투라 및 상품 중개업점(warehouse)의 외업부인 가내 노동의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주 불규칙적이며 원자재와 주문에 있어서 자본가의, 즉 여기서는 건물 기계 등등의 리용에 관하여 조금도 고려를 돌릴 필요가 없으며 또 여기서는 노동자 자신들의 피부를 위태롭게 하는 외에는 아무 위태로운 것이 없는 자본가의 자의(恣意)에 좌우되는바, 이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자본가에 봉사하기에 항상 준비된 산업 예비군이 계통적으로 부단히 육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년중 어떤 때에는 극히 비인간적인 고역으로 말미암아 열에 하나는 쓰러지다가도 어떤 때에는 작업이 없어서 몸뚱이의 처지에까지 떨어진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말한다——《고용주들은 습성이 된 가내 노동의 불규칙성을 리용하여 시급한 노동이 필요한 때에는 밤 11시, 12시, 2시까지 아녀 혼히 말하듯이 언제까지라도 가내 로동을 연장시키는바 그나마 이것도 《악취로 혼도할 지경인》(the stretch is enough to knock you down) 장소에서이다. 아

284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4차 보고》, 별 페이지, 32, 33페이지. 《철도 체계의 확장은 돌발적 주문의 이 편습을 촉진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분망, 식사 시간의 등한 및 늦 작업을 야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동상서, 별 페이지, 31페이지).

마도 여러 분은 문앞에까지 가서 그것을 열기만 해도 더 들어갈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²⁸⁵. 《우리 고용주들은——하고 심문을 받은 증인의 한 사람인 제화공은 말한다——기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년을 반년 간은 죽도록 혹사하고 나머지 반년 간은 거의 일이 없어 놀게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²⁸⁶.

기술적 장애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위 《사업상 관례들》(《상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관례들》)(《usages which have grown with the growth of trade》)도, 관례를 가진 자본가들은 생산의 《자연적 제한》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은 면업(綿業) 귀족들이 공장법에 의하여 처음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즐겨 부르짖던 말이다. 그들의 공업이 다른 어떤 공업보다도 세계 시장에, 따라서 또 항해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은 그들의 거짓말을 실증하였다. 그 때부터 영국의 공장 감독관들은 《사업상 장애》라는 것은 공허한 구실로 취급하고 있다²⁸⁷. 사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전설하며 양심적인 조사들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일부 공업 부문들에서는 노동일의 단축에 의하여서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노동량을 년중 더 고르게 분배할 수 있었을 것이며²⁸⁸, 노동일의 단축은 살

285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4차 보고》, 별 페이지, 35페이지, 제 235호 및 제 237호.

286 동상서, 127페이지, 제 56호.

287 《해상 수송을 요하는 주문들에 제 때에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업상 손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1832년 및 1833년에 공장주들이 즐겨한 논의였었다고 나는 기억한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무어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중기가 거리(距離)를 모두 반감하였으며 새로운 수송 설비들을 확립한 이전에 있어서 가졌던 힘을 못 가질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 논의는 실제 시험해 보면 전혀 논거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시험해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논거가 없을 것이다》(《1862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4, 55페이지).

288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별 페이지 18페이지, 제 118호.

인적이며 무내용하며 또 대공업 체계에 부적합한 변덕스러운 유행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구속이며 ²⁸⁹ 대양 항행과 교통 수단 일반의 발전은 계절 노동의 본래적인 기술적 기초를 제거하였으며, ²⁹⁰ 기타 마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모든 사정들은 건물의 확장, 기계의 추가, 동시에 취업시켜지는 노동자 수의 증가에 의하여 ²⁹¹ 또 이로부터 나오는, 도매상 체계에 대한, 반작용에 의하여 ²⁹² 제거된다. 그러나 자본

289 존 벨러스는 1699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행의 불확실성은 필연적으로 빈민을 증가시킨다. 이에는 두 개의 큰 폐단이 있다. 즉 1) 직물상들과 직장(職匠)의 장주들이 봄이 와서 그때 유행이 무엇일 것인가를 알기 전에는 장공(匠工)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본을 감히 투하하며 하지 않으므로 겨울에는 일 부족으로 장공들이 비참하다는 것, 2) 봄에는 장공들은 부족하나 직장의 장주들은 3개월 또는 반년 안에 왕국의 상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다수의 장제물을 인입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 결과 농업은 일'손을 잃게 되며, 농촌으로부터 일'군들을 끌어 가며, 도시는 걸인 무성으로 되며 또 구걸을 수 치로 아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굶어 죽는다》(《빈민, 공업 등등에 관한 논문집》, 9페이지).

290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171페이지, 제 34호.

291 그리하여 케컨대 브래드포드의 수출상들의 증언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이러한 제 사정하에서는 분명히 소년들을 상품 중개업점(warehouse)들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또는 7시반까지 보다 더 오래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추가 지출 및 추가 일'손의 문제이다. (약간의 고용주들이 그렇게 합리적이 아니라면 소년들은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추가 기계 한 대의 비용은 불과 16—18파운드 스털링이다)……모든 곤란은 설비와 건물의 부족에서 나온다》(동상서, 171페이지, 제 35, 36 및 38호).

292 동상서, 여하간 노동일의 강제적 단축을 공장주들에 대하여는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보며 도매 상업에 대하여는 공장주를 자신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보는 런던의 한 공장주의 증언이 있다——《우리 사업에서의 중요한 수출업자들에 기인하는바 그들은 케컨대 범선(帆船)으로 상품을 발송하여 일정한 계절이 시작될 때 목적지에 도착케 하려고 한다. 동시에 범선과 기선간의 운임의 차액을 착복하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쟁자들보다 먼저 외국 시장에 나타나려고 두 개 기선중 빠른 편을 택하든가 한다》.

은 그의 대변자들의 입을 빌어 거듭 언명하고 있듯이 로동일을 강제법적으로 단속하는 《의회 일반적 조례의 압력하에서만》²⁹³ 그러한 변혁에 동의한다.

제 9 절 공장 립법(보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영국에서의 그것의 보급

공장 립법은 즉 사회의 생산 과정의 자연 발생적 모습에 대한 사회의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이 반작용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면사(綿糸), 자동 기계 및 전선과 마찬가지로 대공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우리는 영국에서의 그것의 보급에로 넘어 가기 전에 영국의 공장법 중 로동일의 시간 수에 관계 없는 일부 조항들에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건 조항들은 그것들을 자본가가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꾸민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내용이 극히 빈약하여 사실상 벽에 흰 칠을 하라든가 기타 몇 개의 청결책, 환기 및 위험한 기계에 대한 보호 규정들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는 제 3부에서 《직공들》의 수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소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반대하여 공장주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싸우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또한, 적대적 리해 관계가 있는 사회에서는 매 개인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公益)을 촉진한다는 자유 무역론적 교조(敎條)가 훌륭히 실증된다. 일례로 충분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 간 애란에서는 아마 공업과 그에 따르는 타마(打麻) 공장이 대단히 증가하였다. 거기에는 1864년에 이

293 《이것은——어떤 공장주는 말한다——의회의 일반적 조례의 압력하에서 공장을 확장하는 데'가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동상서, 별폐지, 10폐지, 제 38호).

러한 공장이 1,000개에 달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부근 소
 차지 농업가들의 자녀들과 처들인 미성년들과 부인들——기계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인 사람들인——이 주기적으로 전야 작업에서
 떠나서 타마 공장들의 압연기에 아마를 먹이는 일을 한다. 여기에
 서는 사고는 양으로 보나 정도로 보나 기계의 역사상에 류폐가 전
 히 없다. 킬디난(코크 근방)에 있는 단 하나의 타마 공장에서만도
 1852년부터 1856년까지에 사망이 6건, 불구 정도의 중상이 60건
 있었는데 그 모두가 수 실링의 비용이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장
 치들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운패트릭에 있는
 공장 공의(公醫) W·화이트 박사는 1865년 12월 15일의 공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타마 공장들에서의 사
 고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 것들이다. 많은 경우에 수족이 동체
 로부터 잘라진다. 죽음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무능력자
 로 되어 고생으로 가득찬 미래——이것이 부상의 보통 결과이
 다. 국내에 공장이 증가됨에 따라 물론 이 전물할 결과도 확
 대될 것이다. 나는 타마 공장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
 에 의하여 신체와 생명의 큰 희생이 방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²⁹⁴. 극히 간단한 청결 및 보건 규정의 준수도 국
 가의 강제법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잘 자본
 주의적 생산 방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또 있겠는가?
 《1864년의 공장법은 제도업(製陶業)에서 200 이상의 작업장들
 을 흰 칠을 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였는바 그 전에는 20년 간
 이나 또는 심지어 전적으로 그러한 일이 절제(節制)되어 왔
 다(이것이 자본의 《절제》이다!). 이러한 작업장들에는 2만
 7,800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어 종래에는 과도한 주간 작
 업 그리고 왕왕은 야간 작업시에 유해한 공기를 마셔 왔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무해한 이 직업이 질병

294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별 페이지. 15페이지, 제 72호 이하.

과 축음을 항상 배태하고 있었다. 공장법은 환기 시설을 대단히 증가시키었다》²⁹⁵. 동시에 공장법의 이 부분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그 본질로 보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어떠한 합리적 개량도 배제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이여 준다. 이미 루차지적인 바와 같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만 하면 겨우 되겠다는 1인당 최저한 공간은 500립방피트이라고 영국의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언명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공장법이 그 모든 강제 규정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소작업장들의 공장으로서의 전화를 촉진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소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대자본가에게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만약 작업장들에서 매 노동자 당 필요 공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이는 수천의 소자본가들을 일격에 직접 수탈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대자본이나 소자본이 다 같이 노동력의 《자유로운》 구매와 소비에 의하여 자기 증식을 한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근본에 대하여 타격을 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공장 법법은 이 500립방피트의 공기 앞에서는 숨이 딱 막힌다. 보건 기관, 공업 조사 위원, 공장 감독관들은 500립방피트의 공기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재삼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실상 폐결핵과 기타 폐병들이 자본의 한 개 존재 조건이라고 언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²⁹⁶.

295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27페이지.

296 실험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건강한 평균적인 한 사람이 중간 정도로 호흡할 때마다 소비되는 공기는 약 25립방인치이며, 1분간의 호흡은 약 30회이다. 따라서 24시간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공기 소비량은 약 72만 립방인치 즉 416립방피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번 들여 마신 공기는 자연이라는 대작업장에서 정화(淨化)되기 전에는 동일한 과정에 더는 봉사할 수 없다. 바렌틴과 브루너의 실험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한 시간에 약 1,300립방인치의 탄산가스를 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24시간에 약 8온스의 고형 탄소

공장법의 교육 조항들은 대체로 빈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초등 교육을 노동의 의무 조건으로 선언하였다²⁹⁷. 그것들의 성과는 교육 및 체육의 육체 노동과의 결합²⁹⁸. 따라서 육체 노동의 교육 및 체육과의 결합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공장 감독관들은 학교 선생으로부터 들은 증언에서 공장 아동들이 비록 정규적 주간 생도들보다 받는 교육은 절반에 불과하나 습득하는 것은 같거나 때로는 더 많다는 것을 곧 발견하였다. 《사정은 간단하다. 학교에 반나절만 나가는 생도들은 언제나 청신하며 또 거의 언제나 수업을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또 받아 들이려고 한다. 반로 반학(半勞半學) 제도는 노동과 학업을 호상 휴식과 청신제로 만들며 따라서 량자중 하나가 중단 없이 계속될 때 보다 아동에게 훨씬 적합하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앉아 있는——특히 날씨가 더운 때——소년은 노동을 끝마치고 생기 있고 맑은 정신으로 오는 생도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²⁹⁹. 이러한 본증은 1863년 에든버러에서의 사

가 페로부터 배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매인은 적어도 800립방피트를 가져야 한다》(척솔리) [《초등 생리학 교정》, 런던, 1866년, 105페이지].

297 영국의 공장법에 의하면 부모는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동시에 초등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서는 《피취체》 공장에 보낼 수 없다. 공장주는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장 교육은 의무적이며 또 그것은 노동의 한 개 조건이다》(《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11페이지).

298 공장 아동들과 빈민 학교의 아동들의 의무 교육과 체육(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군사 훈련)을 결합시킨 극히 유익한 성과에 대해서는 《의사(議事) 보고》, 런던, 1863년, 63, 64페이지중의 《사회 과학 진흥 국민 협회》, 제 7년도 대회에서의 N·W·시노어의 연설과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의 보고 118, 119, 120, 126페이지 이하 참조.

299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18페이지. 소박한 어떤 전업(緝業) 공장주는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조사 위원에게 인명한다——《유능한 노동자를 생산하는 진정한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의 노동과 교육의 결합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물론 노동은 너무 격렬한

회학 대회 석상에서 한 시노어의 연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상류 및 중류 계급의 아동들의 일면적이며 비생산적인 장시간의 수업이 선생의 로동을 쓸 데 없이 증가시키며 《동시에 아동들의 시간, 건강 및 정력을 무익하게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해하게 낭비시킨다》³⁰⁰고 지적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로버트 오웬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생산적 로동과 교육 및 체육과를 결합시키는 미래의 교육의 맹아는 공장 체계에서 발생하였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대공업은 한 인간 전체를 어떤 부분 조작(操作)에 평생 고착시키는 마누팩투라적 분업을 기술적으로 폐절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공업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그 분업을 더욱 괴상한 것으로 재생산한다, 즉 이것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부분 기계의 의식적 부속물로 전화됨으로써 재생산되며, 기타 모든 곳에서는 부

것이어서도 안되며 심증을 주는 것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이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자식들도 학업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로동과 유희를 갖도록 하려고 생각한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82페이지, 제 36호).

300 시노어, 동상 《의사》 보고》, 66페이지. 대공업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여 물질적 생산 방식과 사회적 생산 제 관계에 변혁이 일어나면 두뇌에도 변혁이 일어 난다는 것은, 1863년의 N·W·시노어의 연설과 1833년의 공장법을 반대하는 그의 공격 연설과를 비교하든가 또는 상술한 대회의 견해와, 잉글랜드의 어떤 농촌 지방들에서는 빈궁한 부모들이 아직도 아사의 위험하에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를 비교하면 뚜렷이 알 수 있다. 레컨데 스넬씨는 서머셋셔의 관례로서 가난한 사람이 교구의 구혼을 요청할 때에는 그의 아들을 퇴학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웰샴의 목사 윌라스튼씨도 또한 어떤 가족들은 《그들의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부조물 단호히 거절 당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분적으로는 기계와 기계 로동을 산재적(散在的)으로 사용함으로써³⁰¹, 부분적으로는 분업의 새로운 기반으로서 부인 로동, 아동 로동 및 무기능 로동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산된다. 마누팩투라적 분업과 대공업의 본질간의 모순은 강력적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대적 공장과 마누팩투라에 고용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극히 유년시부터 가장 단순한 작업에 결박되어 다년간 착취를 당하면서도 후에 그들을 같은 마누팩투라나 공장에서만이라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작업이고 습득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실에 나타난다. 페컨대 영국의 인쇄업에서는 종전에는 낡은 마누팩투라 및 수공업 제도에 상응하여 장제(匠弟)들이 쉬운 작업으로부터 내용이 풍부한 작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들은 완전한 인쇄공이 되기까지 편속된 과정(課程)을 거치었다.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공업자가 되는 한 개 필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쇄기의 출현에 따라 이 모든 것은 달라졌다. 기계는 두 종류의 노동자를 사용한다. 하나는 기계를 감시하는 성인 노동자이고 또 하나는 대개 11--17세의 소년 노동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인쇄 용지를 기계에 집어 넣든가

301 인력으로 움직이는 수공업적 기계가 기계 동력을 전제로 하는 발달된 기계와 직접 간접으로 경쟁하는 곳에서는 기계를 움직이는 노동자에게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시초에는 증기 기관이 이러한 노동자를 대체하였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증기 기관을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의 노동력의 긴장과 지출은 무서운 정도인데 이러한 고역을 당하는 미성숙자들에 있어서는 특히 심하다! 페컨대 위원 론지는 커벤트리 및 그 근방에서 10세 내지 15세의 소년들이 리본 직기의 운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보다도 어린 아동들이 보다 적은 규모의 직기를 운전해야 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비참히 고달픈 노동이다. 소년은 증기력의 단순한 대용품이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1866년, 114페이지, 제 6호》). 공식 보고가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이 노예 제도》의 살인적 결과에 관하여는 동상서 두 페이지 이하 참조.

인쇄된 종이를 기계에서 빼 내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런던에서는 주에 수일간은 휴식 없이 14, 15, 16시간이나 이 교역에 종사하며 때로는 식사와 수면을 위한 불과 두 시간의 휴식으로 켜 려속 36시간이나 일하는 일도 있다!³⁰². 그들의 대부분은 읽을 줄을 모르며 또 그들은 통째로 아주 초조하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업에 유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어떤 종류의 지'적 교육도 필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기능을 획득할 기회가 적으며 또 발전할 기회는 더욱 적다. 그들의 임금은 소년들로서는 어느 정도 높지만 그들이 자람에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으며 또 매다주는 수입이 보다 좋고 보다 책임적인 기계 감시공의 지위에 올라 갈 수 없다. 왜냐 하면 매개 기계에는 감시공은 불과 1명이 붙는데 소년들은 종종 4명이나 붙기 때문이다》³⁰³. 그들은 아동 노동에 적당한 연령을 넘기만 하면 즉 적어도 17세가 되기만 하면 인쇄업에서 해고된다. 그들은 범죄의 신병(新兵)이 된다.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직업을 주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들의 무학(無學), 초조, 육체적 및 정신적 퇴폐 때문에 실패하였다.

작업장 내부에서의 마누팩투라적 분업에 타당한 것은 사회 내부에서의 분업에도 타당하다. 수공업과 마누팩투라가 사회적 생산의 전반적 토대를 이루는 한, 어떤 한 생산 부문에의 생산자의 전속과 그의 직업의 시초의 다양성의 파괴는³⁰⁴ 발전

302 동상서, 3페이지, 제 24호.

303 동상서, 7페이지, 제 60호.

304 《고지(高地) 스코틀랜드의 약간 지방에서는……로케 보고에 의하면 다수의 목양부와 농부(Cotter)들이 그 처자들과 함께 그 자신이 익힌 가족으로 그 자신이 만든 구두를 신었으며, 그 자신의 손 외에는 아무의 손도 닿지 않은, 즉 그 자신이 맨 양모와 또는 그 자신이 경작한 아마로써 만든 의복을 입고 다니었다. 의복을 만드는데 요하는 물품중 큰 바늘, 작은 바늘, 끝무 및 직포에 사용되는 극 소부분의 철구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 염료도 역시 여성들의 손으로 나

의 필연적 계기이다. 이러한 로대 우에서 개별적 각 생산 부문은 그것에 상응하는 기술적 모습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며 그것을 서서히 완성하며, 일정한 성숙 정도에 달하자마자 급속히 그것을 결정(結晶)한다. 상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로동 재료 외에 로동 공구의 점차적 변화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변화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로동 공구도 경험적으로 그것에 상응한 형태가 일단 발견되면 골화(骨化)하는데 그것은 로동 공구가 한 세대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세대의 수중으로 종종 수천년 동안 이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18세기에 와서도 개개의 수공업은 305 오직 경험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통달한 사람들만이 체득할 수 있는 비결(mysteries)이라고 칭하여진 것은 특징적이다. 대공업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사회적 생산 과정을 은폐하였으며 또 자연 발생적으로 특수화한 각종 생산 부문들을 부문 호상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 통달한 사람들에게까지 수수께끼로 만든 장막(帳幕)을 찢어 버렸다. 각 생산 과정을 그것만으로서 그리고 우선은 사람의 손을 일체 고려함이 없이 그것의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는 대공업의 원리는 전혀 근대적인 기술 공학을 낳았다. 착잡하고 일견 내부적 현판이 없는 듯한 골화(骨化)된, 사회적 생산 과정의 모습들은 의식적으로 계획적이며 초기의 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화된 자연 과학의 응용 부문들로 분해되었다. 기술 공학은 또한 인체의 모든 생산적 행위가, 사용되는 공구의 극심한 다양

무와 풀 기타에서 채취하였다》(듀갈드 스튜아트 《저작집》, 하밀튼 판, 제 8권, 327—328페이지).

305 에티엔느 보아로의 유명한 《직업의 서(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지시되고 있다, 즉 장공(匠工)이 장주(匠主)에게 채용될 때에는 그는 《동료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부조하며, 작업상의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말며,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자기 자신의 상품을 권할 목적으로 타인의 제품의 결점에 주의할 환기시키지 말 것》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운동의 소수의 큰 기본 형태들을 발견하였는바, 이것은 마치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단순한 기계적 힘의 부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계학이 착각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근대적 공업은 결코 어떤 생산 과정의 기존 형태를 종국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의 모든 생산 방식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는데 근대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는 혁명적이다.³⁰⁶ 근대적 공업은 기계, 화학적 과정 및 기타 방법들에 의하여 생산의 기술적 토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노동자의 직능, 노동 과정의 사회적 결합들을 부단히 변혁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 내부에서의 분업도 또한 부단히 변혁하며 또 다량의 자본과 노동자 대중을 한 생산 부문으로부터 다른 생산 부문으로 부단히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대공업의 본성은 노동의 변천, 직능의 이동, 노동자의 전면적인 가동성을 낳는다. 타방으로 그것은 골화(骨化)된 전문을 가진 낡은 분업을 자본주의적 형태로 재생산한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이 절대적 모순은 노동자의 생활 상태의 모든 안락, 확고성, 확실성을 폐절하며, 노동자의 수중으로부터 노동

306 《부르조아지는 생산 도구를, 따라서 생산 관계를, 따라서 또 사회 관계의 총체를 부단히 변혁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낡은 생산 방식을 그대로 변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종전의 모든 산업 계급의 제 1차적 생존 조건이었다. 생산의 끊임 없는 변혁, 모든 사회 관계의 부단한 진동, 항구적 불안과 운동이야말로 부르조아 시대가 종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되는 점이다. 일체의 굳어지고 녹슨 제 관계는 그 부수물인, 수제기에 걸쳐 신성화된 관념 및 견해들과 함께 파괴되고 새로 형성된 모든 것은 그것이 마치 골화(骨化)되기도 전에 벌써 낡은 것으로 된다. 일체의 신분적인 것과 정제적인 것은 김과 같이 사라지고 일체의 신성한 것은 모독을 당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생활 상태와 호상 관계를 행정한 눈으로써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F. 엥겔스 및 칼 맑스 《공산당 선언》, 런던, 1848년, 5페이지).

수단과 함께 생활 수단을 박탈하며 ³⁰⁷ 노동자의 부분 직능과 함께 그 자신을 과잉으로 부단히 위협한다, 또 이 모순은 노동 계급을 끊임 없이 희생제(犧牲祭)의 제단에 바치며, 노동력을 한 없이 낭비하며 사회적 무정부 상태와 관련된 황폐화를 가져 오면서 회행한다. 이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의 변천이 이제는 불가극복적인 자연 법칙으로서만 또 도처에서 장애물에 부딪치는 자연 법칙의 맹목적인 파괴력으로서만 자기를 관철한다면 ³⁰⁸ 타방으로 대공업 자체는 또 자체의 파국을 통하여 노동의 변천을, 따라서 또 노동자의 가능한 최대의 다면성을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법칙——그것의 정상적인 실현에 제 관계가 순응해야 할——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삼는다. 대공업은 자본의 변화하는 착취욕을 위하여 예비로 보유하고, 마음대로 리용할 수 있는 비참한 노동자 인구는 기피성 대신에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리용 가능성을 대치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회적 부분 직능의 단순한 담당자인 부분 인간 대신에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 즉 그에게 있어서는 각이한 사회적 직능들이 서로

307 《그대 내 팔주머니를 빼앗아 갔진대,

그대는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로다》(《You take my life, when you do take the means whereby I live》)(헉스피어, [《베베쨌야의 상인》, 제 4막, 제 1장]).

308 불탄서의 한 노동자는 샌프랜체스코로부터 귀국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나는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지로 한 바와 같은 모든 로동을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일찌기 생각한 일이 없었다. 나는 인쇄업 외에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의를 바꾸어 입기보다도 더 쉽게 직업을 바꾸는 이 모험자들의 세계의 한 가운데 일단 들어 서자, 나도 역시 남파 같이 하게 되었다. 광산 일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도시로 가서 인쇄공, 지붕 잇기, 연공(鉛工) 동등을 차례로 해 보았다. 어떠한 로동도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나는 내가 연체 동물(軟體動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A·코트 《직업 교육에 관하여》, 제 2권, 50페이지).

“교제하는 활동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개인을 대치하는 것을 하나의 사활 문제로 삼는다. 대공업에 기초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 과정의 한 계기는 공예 학교와 농업 학교이며 또 하나의 다른 계기는 《직업 학교》인바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아동들이 기술 공학과 각종 생산 도구의 실제 사용법에 관한 약간의 수업을 받는다. 자본으로부터 탈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로서의 공장 립법은 공장 노동자를 다만 초등 교육과 결합시키는 데 불과하다면, 노동 제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에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 교육도 또한 노동자 학교에서 마땅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시에 또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와 그것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제 관계가 그러한 변혁의 효모(酵母)이며 또 그것의 목적인, 낡은 분업의 폐절과 전적으로 모순되게 된다는 것도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역사적 생산 형태의 제 모순의 발전은 그 생산 형태의 분해와 새로운 생산 형태의 형성의 유일한 역사적 도정이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라는 수공업적 현명성의 이 절정(絶頂)은 시제 제조공 왓트가 증기 기관을, 리발사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보석공 플론이 기선을 발명한 순간으로부터 무서운 우둔(愚鈍)으로 되어 버렸다³⁰⁹.

309 정지 경제학사(史)상 최유한 인물인 존 벨러스는 이미 17세기 말에 사회의 탕국에——비록 대입되는 방향에서이지만——비대(肥大)와 쇠약을 낳는 현재의 교육과 분업이 반드시 폐절되리라는 것을 극히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적절하게도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타래한 공부는 타래를 배우는 것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육체 노동은 본래 하느님이 정하신 바이다……로동이 신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은 식사가 신체의 유지에 필요한 것과 같다. 왜냐 하면 사람이 안일에 의하여 면하는 고통은 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로동은 생명의 등불에 기름을 부며 사상은 그것에 불을 붙인다……공허한 아동 노동은(이 말은 바제도우[교육 제도 개혁자, 1723—1790년]과 및 그들의 근대적 아류들을 예감적으로 반대하는 말이다) 아동들의 정신을 공

공장 립법이 공장, 마누팩투라 등등에서의 로동을 단속하는 한, 이것은 우선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접으로서만 나타날 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위 가내 로동에 대한³¹⁰ 모든 단속은 애당초부터 부권(父權) 즉 근대적 용어로 말하면 친권(親權)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세심한 영국 의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래 동안 망서리는 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힘은 드디어 대공업이 낳은 가족 및 그에 상응하는 가족 로동의 경제적 로대와 함께 낳은 가족 제 관계 그 자체도 파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선언되지 않을 수 없었다. 1866년의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불행히도 남녀 아동을 누구로부터보다도 그 부모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일반적으로는 아동 로동을, 특수적으로는 가내 아동 로동을 무제한하게 착취하는 제도는 《부모가 어리고 유약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자의적이며 과멸적인 권력을 아무런 구속도 통제도 없이 행사함으로써 유지된다……부모가 자기 아동을 매주 얼마 간의 임금을 얻기 위한 순전한 기계로 만들 절대권을 가져서는 안된다……아동들과 미성년들은 그들의 체력을 조속히 파괴하며 그들의 도덕적 및 지'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친권 람용에 대하여 립법의 보호를 구할 권리가 있다》³¹¹. 그러

히하게 한다》(《산업 전문 학교 설립의 제안》, 런던, 1696년, 12, 14, 16, 18페이지).

310 가내 로동은 도 소작업장들에서도 대부분 실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텍스 마누팩투라 및 밀대 제공업에서 본 바이며 또 이것은 특히 세필드, 버밍엄 등등의 금속 마누팩투라에서도 상세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311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별 페이지, 25페이지, 제 162호 및 제 2차 보고, 별 페이지 38페이지, 제 285, 289호, 별 페이지 25, 26페이지, 제 191호.

나 자본에 의한 미성숙 노동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착취를 산생한 것은 친권의 랍용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주의적 착취 방식이야말로 친권에 상응하는 경제적 토대의 폐절에 의하여 친권을 랍용케 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낡은 가족의 해체가 아무리 무섭고 또 혐오할 것이라 한지라도 대공업은 부인, 미성년 및 남녀 아동들에게 가사(家事)의 권외(圈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양성 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축성한다. 기독교—게르만적 가족 형태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로마적 또는 고대 회랍적 또는 동양적 형태——그런데 이 형태들은 호상 연관되어 역사적 발전 제멸을 형성한다——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은 물론이다. 또한 남녀 및 각종 연령층의 개인들으로써 결합된 노동 인원의 구성은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조잡한 자본주의적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생산 과정이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 비록 파멸과 예측의 화근으로 되지만 그러나 해당한 제 관계에 있어서는 거꾸로 인류 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³¹².

공장법이 기계적 생산의 최초의 형성물인 방적업과 직조업에 대한 폐의법으로부터 전체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법률로 전화할 필연성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대공업의 역사적 발전 행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대공업을 배경으로 하여 마누팩뚜라, 수공업 및 가내 노동의 전래의 모습은 완전히 변형되며 마누팩뚜라는 부단히 공장으로, 수공업은 부단히 마누팩뚜라로 전화하며 끝으로 수공업 및 가내 노동의 분야들은 놀랄

312 《공장 노동은 가내 노동만큼이나 아니 아마도 그 이상으로 순수하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27페이지).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본주의적 착취가 그 흉악 무도성을 자유로이 발휘하는 참담한 빈민굴로 변한다. 결국은 두 개의 사정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 그 하나는 즉 자본은 그것이 사회적 영역의 몇개 지점에서만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는 다른 지점들에서는 더욱 더 무제한한 보상을 받는다는, 부단히 새로 반복되는 경험이며³¹³ 다른 하나는 경쟁 조건들의 평등 즉 노동 착취의 평등한 제한을 요구하는 자본가들 자신의 부르짖음이다³¹⁴. 이 점에 관하여 두 개의 통절한 한탄을 들어 보자. W·크슬리 합명 회사(브리스틀에 있는 못, 사슬 등등의 제조업자)는 자기의 기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일 제한을 실시하였다. <부근 기업소들에서는 구래의 불규칙적인 제도가 아직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그의 소년공들이 저녁 6시 이후 다른 공장에 가서 로동을 계속할 유혹을 받게 되는 폐단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하고 회사는 당연히 언명한다——우리에게는 불공정하며 또 손실이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 이익이 우리 것이어야 할 그 소년의 힘의 일부가 그 때문에 소모되는 까닭이다>라고>³¹⁵. J·심프슨씨(런던의 종이 상자 및 종이 봉지 제조업자)는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위원에게 언명한다——<그는 공장법의 도입을 위한 청원이라면 무엇에든지 서명할 용의가 있다. 현재 갈아서는 그는 그의 작업장을 담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작업을 시키어 그의 주문을 탈취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언제나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³¹⁶. <대기업주들의 공장은——하고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개괄하여 말한다——단속을

313 《186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27, 33페이지.

314 이에 대하여는 《공장 감독관 보고》에 많은 증거가 있다.

315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별 페이지 10페이지. 제 35호.

316 동상서, 별 페이지 9페이지, 제 28호.

받는데 같은 생산 부문의 소기업소는 노동 시간의 법적 제한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기업주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소작업장들에는 노동 시간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불평등한 경쟁 제 조건이 불공정한 외에 대공장주들은 또 소년 노동 및 여성 노동의 공급이 공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업장들로 쏠린다는 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끝으로 이것은 인민의 보건, 편의, 교육 및 전반적 처지 개선에 거의 폐의 없이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소작업장들의 증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³¹⁷.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그 최종 보고서에서 140만 이상의 아동, 미성년 및 부인들——그중 약 반수는 조생산과 가내 노동에 의하여 착취되고 있다——에게 공장법을 적용하라고 제의하고 있다³¹⁸. 《의회가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인다면——하고 위원회는 말한다——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한 법은 그 법의 직접적 대상인 년소자들과 허약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적으로(여성) 또 간접적으로(남성) 그

317 동상서, 별 페이지 25페이지, 제 165—167호. 조생산에 비한 대생산의 우월성에 관하여는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13페이지, 제 144호. 25페이지, 제 121호. 26페이지, 제 125호. 27페이지, 제 140호 등등 참조.

318 공장법이 적용되어야 할 공업 부문들은 다음과 같다——레스 마누팩처라, 양말 제조업, 밀대 제공업, 수다한 종류의 장식품 마누팩처라, 조화(造花)업, 양화 모자 및 장갑 제조업, 재봉업, 용광로로부터 바늘 제조 등등에 이르는 모든 금속 공장, 제지 공장, 조자 마누팩처라, 연조 마누팩처라, 고무 공장, 바디(직조용)제조업, 모전(毛氈)수직업, 우산 및 양산 마누팩처라, 방추 및 실패 제조업, 인쇄업, 제본업, 문방구 제조업(이에에는 또한 종이 상자, 카드, 색 종이 등등의 제조도 속한다), 로프 제조업, 마노(瑪瑙) 장식품 마누팩처라, 벽돌 공장, 수견직(手絹織) 마누팩처라, 커벤티리(견직 리봉) 제조업, 제염업, 양초 제조업 및 세멘트 공장, 정제 사탕업(精製砂糖業), 비스킷 제조업, 각종 목공업 및 기타 잡업.

적용 범위에 들어 가게 될 더욱 방대한 성인 노동자 대중에 대해서도 극히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규칙적이고 단축된 노동 시간을 강요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복리와 나라의 복리가 그렇게도 심대하게 의존하고 있는 체력의 예비를 절약하고 축적할 것이다. 그것은 유년기의 과도 노동에 의하여 자라고 있는 세대들의 체질을 파괴하며 그들을 조로(早老)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적어도 13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초등 교육의 기회를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무지(無知)——위원회의 보고문에 그렇듯 충실히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도 비통한 감정과 심심한 국민적 굴욕감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믿을 수 없는 무지를 종식시킬 것이다》³¹⁹. 토리 당 내각은 1867년 2월 5일의 황제 연설에서 산업 조사 위원회의 제안 ^{319a}을 《법안》으로 작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0년 간에 걸친 새로운 무가치 생물체 실험(experimentum in corpore vili)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840년에 이미 아동 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가 임명되어 있었다. 1842년의 그 위원회의 보고는 N·W·시노어의 말에 의하면 《자본가들과 부모들의 탐욕, 사리 및 잔인, 아동들과 미성년들의 곤궁, 타락 및 파멸에 관한 전대 미문의 가장 무서운 광경을》 정시하였다. 《……이 보고가 지나간 시기의 상태를 그린 것이라면 혹은 안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319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별 페이지 25페이지, 제 169호.

319a 공장법 확장 조치는 1867년 8월 12일에 통과되었다. 그 적용 대상은 모든 금속 주물 공장, 금속 단조 공장 및 기계 제작 공장을 포함하는 금속 가공 공장들과 또 조자, 종이, 구타페르차 고무, 탄성(彈性) 고무, 연조 마누팩뚜라, 인쇄업, 제본업 및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전체 작업장들이다——노동 시간 단축법은 1867년 8월 17일에 통과되어 초작업장들과 소위 가내 노동을 단축하고 있다.

나는 제 2권에서 이 법률들과 1872년의 신판업법 등등에 다시 돌아

나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 전율할 상태가 현재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 없이 혹심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에서 본다. 2년 전에 하드윅크에 의하여 발간된 소책자는 1842년에 비난을 받은 악폐는 오늘날(1863년)에 와서도 여전히 극심하다고 언명하고 있다……이 보고(1842년의)는 20년 간이나 주목을 받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소위 도덕이라든가 학교 교육, 종교, 또는 본성적 가족애라든가에 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란 아동들——이 아동들이 벌써 현 세대의 부모로 되게 되었다》³²⁰.

그 사이에 사회 상태는 변화하였다. 의회는 1842년의 위원회의 제 요구를 당시에 거절한 것처럼은 1863년의 제 요구를 감히 거절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위원회가 처음으로 자기의 보고의 일부를 공포한 1864년에 이미 토기 공업(제도업을 포함), 벽지(壁紙), 성냥, 탄약통 및 퇴관 제조, 비로도 전모업(剪毛業)이 당시까지 섬유 공업에 적용되고 있었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867년 2월 5일 황제 연설에서 당시의 토리 내각은 그 동안 1866년에 자기 사업을 완료한 위원회의 최종 보고에 기초하여 일보 전진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1867년 8월 15일에는 공장법 확장 조례가, 그리고 동년 8월 21일에는 작업장 단속법이 왕의 비준을 받았다, 전자는 대기업 소들을, 후자는 소기업소들을 단속한다.

공장법 확장 조례에 의하여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용광로, 제철 및 제동 공장, 주물 공장, 기계 제작 공장, 금속 가공 공장, 구타페르차 고무 공장, 제지 공장, 초자 공장, 연초 공장과 인쇄업 및 제분업이며 그리고 50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년중 적어도 100일간 고용되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공

작 것이다.

320 시노어 《사회 과학 대회》 [에덜버터, 1863년] 55—58페이지.

업 작업장들이 그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가 포괄하는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거기에 제정되어 있는 규정들의 몇 개를 다음에 들어 보자——

《수공업이라 함은(이 조례에서) 판매하기 위한 어떤 물품 또는 그 일부의 제조, 변경, 장식, 수선, 또는 완성을 위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직업으로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체의 수로동을 말한다.

《작업장이라 함은 아동, 미성년 또는 부인에 의하여〈수공업〉이 수행되며, 또 그러한 아동, 미성년 또는 부인을 취업시키고 있는 사람이 입장(入場)과 통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옥내 또는 옥외의 일체의 방 또는 장소를 말한다.

《취업이라 함은 임금을 받든 안 받든, 장주(匠主) 또는 아래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부모 밑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기타 어떤……아동 또는 미성년을 후견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 미성년 및 부인을 취업시킨 데 대한 벌칙 조항인 제 7조는 비단 작업장의 소유주——부모의 한 사람이든 아니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 미성년 또는 부인을 후견하든가 또는 그 로동으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부모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제정하고 있다.

대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법 확장 조례는 많은 악질적인 레외 규정과 자본가들과의 비겁한 타협으로 말미암아 공장법에 비하여 많은 점에서 손색이 있다.

작업장 단속법은 그 모든 세부에 있어서 빈약한 것인데 그나마도 그 실시를 위임 받은 도시 및 지방 당국들의 수중에서 한개 공문(空文)으로 화하였다. 의회가 1871년에 이 전권을 그

들로부터 배여 공장 감독관들에게 넘겨 준 결과 그들의 감독 범위는 일거에 10만 이상의 작업장으로, 그리고 벽돌 공장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으로 늘었는데, 그 인원은 그렇지 않아도 종래에 이미 극히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주도하게도 불과 8명의 조수가 증가되었을 따름이다³²¹.

그리하여 1867년의 이 영국 립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방으로는 지배 계급의 의회가 자본주의적 착취의 극단성을 반대하여 그처럼 비상하고 광범한 조치들을 원칙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 점이며 타방으로는 의회가 그 후 이 조치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도 반단성, 혐오 및 불성의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1862년의 조사 위원회는 또한 광산업(鑛山業)의 새로운 단속을 제안하였다——이 산업이 그 외의 다른 모든 산업과 구별되는 점은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산업 자본가의 이해가 서로 일치한다는 데 있다. 이 양자의 이해의 매립은 공장 립법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 것인데 광산 립법에 있어서의 지연과 통간은 이러한 매립의 결여만으로써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1840년의 조사 위원회는 극히 전율적이며 분격을 일으키는 폭로를 하여 전 구라파를 떠들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의회는 1842년의 광업법에 의하여 자기의 양심을 안도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과 10세 미만의 아동의 지하 로동을 금지하는 데 그치었다.

그 다음 1860년에 광산 감독법이 나왔는데 그것에 의하면 광산들은 전임 관리들에 의하여 감독되어야 하며 또 10세 내지 12세의 아동들은 그들이 재학 증명서를 가졌거나 또는 일정한

321 공장 감독 인원은 2명의 감독관, 2명의 보조 감독관 및 41명의 부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871년에 8명의 부감독관이 더 임명되었다. 1871—1872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애란에서 공장법 실시 때 소요된 총비용은 위반에 대한 소송상의 재판 비용을 포함하여 불과 2만 5,347파운드였다.

시간수를 등교하는 경우 외에는 고용될 수 없다. 이 법은 임명된 감독관의 수가 가소로울만큼 적은 것, 그들의 권한이 보잘 것 없는 것,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세히 설명될 기타 원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한 개 공문(空文)으로 화하고 말았다.

광산에 관한 최근의 청서(淸書)의 하나는 《광산 특별 위원회의 보고 및…… 증거 자료, 1866년 7월 23일》이다. 그것은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하원 의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두터운 폴리오판인바 《보고》 자체는 불과 다섯 줄 밖에 안되며, 위원회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증인들을 더 심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증인 심문의 방법은 영국 재판정에서의 반대 심문(cross examinations)을 상기시킨다. 영국 재판정에서는 변호사가 의미를 석갈리게 하는 불렘치한 질문을 증인으로 들어 땀으로써 증인을 얼떨떨하게 만들어 속에 없는 말을 하게 한다. 그런 때 여기에서는 변호사가 의회의 조사 위원 자신들이며 그 중에는 광산 소유자들과 채광업자들도 있다. 그리고 증인들은 광산 노동자들이며 대개는 탄광 노동자들이다. 전체 연극은 자본의 정신을 너무나 특징짓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약간의 발취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개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조사 결과 등등을 항목별로 분류하겠다. 그리고 영국의 청서에서의 질문과 의무적 답변들에는 번호가 붙어 있으며, 여기에 그 증언들을 인용하는 증인들은 탄광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부언하여 둔다.

1) 광산에서의 10세 이상의 년소자들의 취업. 광산까지의 왕복 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은 보통 14시간 내지 15시간이며 레외적으로는 더 장시간에 걸치며 새벽 3, 4, 5시부터 저녁 4, 5시까지 계속된다(제 6, 452, 83호). 성인 노동자들은 2교대로 8시간씩 작업한다.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년소자들

에게는 그러한 교대가 없다(제 80, 203, 204호). 어린 아동들은 주로 광산의 여러 구역들의 문짝의 개폐에 사용되며 보다 나이 먹은 아동들은 보다 힘든 작업 즉 석탄 운반 등등에 사용된다(제 122, 739, 740호). 장시간의 지하 노동은 18세 또는 22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그 때에 가서야 진짜 광산 노동자로 이행하게 된다(제 161호). 오늘 아동들과 미성년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더 심하게 혹사되고 있다(제 1663—1667호). 광산 노동자들은 거의 이구¹동성으로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광산 노동을 금지하는 의회 조폐를 요망하고 있다. 그런데 헛시 비비언(그 자신 채탄업자)은 이렇게 질문한다: 《이 요망은 부모들의 빈궁 정도 여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또 브루스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아버지가 죽거나 불구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이 수입 원천을 빼앗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지해야 하겠는가? 그때들은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지하 노동을 모든 경우에 금지하기를 바라는가?》대답: 《그렇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다》(제 107호 내지 제 110호). 비비언: 《광산에서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하면 부모들은 아동들을 공장 방면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대개 그런 일은 없다》(제 174호). 노동자: 《문짝의 개폐는 쉬운 일 같지만 실은 대단히 고통스런 일이다. 문짝을 부단히 잡아 당긴다는 게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년은 마치 컴컴한 감방에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 부르조아인 비비언: 《소년은 문짝이를 하는 동안 등'불이 있어도 독서를 할 수 없는가?——첫째로 그는 양초를 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독서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일에 전심할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갱내에서 독서를 하는 소년을 본 일이 없다》(제 139, 141, 143, 158, 160호).

2) 교육. 광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와 같이 광산에서도 아

동들의 의무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1860년의 조례중 10—12세의 년 소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재학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은 순전히 허황한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자본가적 심문자들의 《고심 참담한》 심문은 이 경우에는 참으로 우수판스럽다.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은 고용주에 대하여서냐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 대하여서냐? —쌍방에 대하여서이다》 (제 115호). 《일방에 대하여 보다 타방에 대하여 더 필요한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요?》 (제 116호). 《통학 시간에 맞추어 노동 시간을 조절할 것을 고용주 측에서 바라는 것 같은가? —바라는 것 같지 않다》 (제 137호). 《광산 노동자들의 교육은 그 후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악습에 물들고 있으며 음주, 도박 같은 것에 빠져 아주 타락하고 있다》 (제 211호). 《왜 아동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대개의 탄광 지방에는 야간 학교가 전혀 없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오랜 파도 노동으로 너무나 기진 맥진하여 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 454호). 이 부르주아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교육을 반대하는가? —천만에, 그러나 윤윤》 (제 443호). 《광산 소유자 등등은 1860년 조례에 의하여 그들이 10세 내지 12세의 아동을 사용할 때에는 재학 증명서를 요구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법률상으로는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고용주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법률 조항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것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제 443, 444호). 《광산 노동자들은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다》 (제 717호). 《그들은 이 법률의 시행을 열망하는가? —절대 다수가 열망한다》 (제 718호).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의 시행을 강요하지 않는가? —다수 노동자는 재학 증명서 없이는 소년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는 주의(注意) 인물이 된다》(제 720호). 《누가 주목을 하는가? — 그의 고용주이다》(제 721호). 《그러면 고용주는 법률을 준수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박해한다는 말인가? —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제 722호). 《왜 노동자들은 그러한 소년의 채용을 거절하지 않는가? — 그것은 그들의 뜻 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제 123호). 《그때는 의회의 간섭을 요망하는가? — 탄광 노동자들의 아동들의 교육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하자면 그것은 의회 조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 1634호). 《이것은 대브리튼의 전체 노동자들의 아동에 해당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탄광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인가? —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탄광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기 위해서이다》(제 1636호). 《왜 탄광 아동들을 다른 아동들과 구별하는가? — 그들은 일반적 상태의 제외이기 때문이다》(제 1638호). 《어떤 점에서인가? — 육체 상으로이다》(제 1639호). 《그들에게는 왜 다른 부류의 아동들보다 교육이 더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가? — 더 귀중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산에서의 과도 노동 때문에 주간 학교와 일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다》(제 1640호).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제 1644호). 《그 지방들에는 학교는 충분히 있는가? — 없다》(제 1646호). 《국가가 모든 아동을 학교에 보내기를 바란다면 치더라도 아동을 전부 수용할 학교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정세가 요구하기만 하면 학교는 저절로 나온다고 나는 믿는다》(제 1647호). 《아동들 뿐만 아니라 성인 광산 노동자들까지도 그 매다수는 쓰지도 읽지도 못한다》(제 705, 726호).

3) 부인 노동. 녀공들은 벌써 1842년 이래 지하 노동에는 사용되지 않고 지상에서 석탄 기타의 적재, 운하와 화차까지의 탄통(炭桶)의 운반, 선탄(選炭) 동등에 사용된다. 그들의 사용

은 최근 3—4년 간에 대단히 증가하였다(제 1727호). 그들은 대개 12세로부터 50세 60세 까지의, 탄광 노동자들의 부인, 딸 및 과부들이다(제 647, 1779, 1781호). 《광산 노동자들은 광산에서의 부인들의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모두 반대한다》(제 648호). 《왜? —그들은 그것이 여성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제 649호). 《그들은 일종의 남북을 입는다. 많은 경우에 수치심이 다 없어진다. 담배 피는 부인들도 많다. 노동은 갱내와 다름 없이 더럽다. 그들 중에는 결혼한 부인들도 많은데 그들은 가사를 돌보지 못한다》(제 650—654, 701호). 《과부들은 그만한 수입이 있는(주 8—10실링)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제 709, 708호). 《그런데도 (맹정한 자!) 그대들은 그들의 이 생계(生計)의 원천을 빼앗으려고 결심하였는가? —확실히 그렇다》(제 710호). 《그러한 기분은 어찌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들 광산 노동자들은 여성을 대단히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탄광 노동에 얽매어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이 노동은 대부분 대단히 힘들다. 이 소녀들의 다수는 하루에 10톤을 끌어 올린다》(제 1715, 1717호). 《그대들은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보다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량자의 비율이 공장 처녀들 사이에서 보다 높다》(제 1732호). 《그러나 그대들은 공장에서의 도덕 상태에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제 1733호). 《그러면 그대들은 공장에서도 여성 노동을 금지할 것을 바라는가? —아니다. 나는 그것은 바라지 않는다》(제 1734호). 《왜 바라지 않는가? —공장 노동은 여성에게 보다 치욕스럽지 않고 또 알맞기 때문이다》(제 1735호). 《그러나 공장 노동도 여성들의 몸성에 해로운 것이 아닌가? —아니다. 탄광에서와 같이는 심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비단 도덕적 관

점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이다. 처녀들의 사회적 타락은 무서우며 극단적이다. 이러한 처녀들이 광산 노동자들의 처가 될 때 남편들은 이 타락 때문에 큰 고심을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뛰여 나와 음주에 빠지게 될 것이다》(제 1736호). 《그러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 나는 다른 생산 부문들에 관하여는 말할 수 없다》(제 1737호). 《그러면 제철소와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하여 본 일이 없다》(제 1740호). 《그대는 이 두 부류간에 어떤 차이이고 발전할 수 없는가? —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나, 집집마다 다녀 보면 우리 지방의 수치스러운 사태를 알게 될 것이다》(제 1741호). 《그대들은 여성 노동이 타락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을 폐지하기를 열망하는 것인가? — 그렇다…… 아동들의 최상의 정서는 다만 어머니의 교육에 의하여서만 생긴다》(제 1750호).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의 농업 노동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 농업 노동은 두 계절에 한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 계절을 통하여 언제나 일이 계속된다》(제 1751호). 《그들은 왕왕 온 몸을 물에 적서 가면서 밤에 낮을 이어 일하며, 그들의 몸은 약해지고 건강은 파괴된다》. 《그대들은 이 문제(여성 노동에 관한)를 전반적으로 연구한 일이 있는가? — 나는 네 주위를 관찰해 온 데 의하여 이것만은 즉 탄광에서의 여성 노동에 비할 만한 노동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의 일이며 그것도 힘센 남성의 일이다》(제 1753, 1793, 1794호). 《광산 노동자들 중에서 향상하여 사람답게 되려고 하는 우수한 부류들도 그 안해들로부터 조금도 조력을 받지 못하며 도리어 그들 때문에 타락한다》(제 1808호). 부르주아는 더욱 종종 무진으로 질문을 한 후 드디어 과부, 가난한 가족 등등에 대하여 그가 《동정》하게 된 비밀을 발로시

켰다——《탄광 소유자가 감독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신사블인데 그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처리하려는 출책을 쓰며 그리하여 이 처녀블은 남자가 하루에 2실링 6펜스를 받는 일을 하고서도 겨우 1실링 내지 1실링 6펜스 밖에는 받지 못한다》(제 1816호).

4) 검시——배심판(檢屍—陪審官). 《그대들의 지방의 검시판의 조사(coroner's inquests)에 관하여서인데 로동자들은 사고가 있을 때 재판 수속에 만족하고 있는가?——아니다, 만족하고 있지 않다》(제 360호). 《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특히 광산에 관하여 절대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심판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로동자들은 증인으로서 밖에는 소환되지 않는다. 대체로 부근의 소매상들이 초청되는바 그들은 그들의 고객인 광산 소유자의 영향하에 있으며 증인들의 기술적 표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광산 로동자가 배심판의 일부가 될 것을 요망한다. 판결은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제 361, 364, 366, 368, 371, 375호). 《배심판들은 불공평해서는 안된단 말인가?——그렇다. 《로동자들은 공평하겠는가?——나는 로동자들이 불공평하리라는 근거를 모르겠다. 그들은 실정을 어쨌든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로동자들의 편을 들어 부당하게 가혹한 판결을 내릴 경향이 없겠는가?——없다고 나는 믿는다》(제 378, 379, 380호).

5) 부정 도량형(度量衡) 등등. 로동자들은 2주간 지불 대신에 주불(週拂)을, 통의 용량에 의한 계량 대신에 중량에 의한 계량을, 부정 도량기 등등의 사용의 방지를 요망하고 있다(제 1071호). 《통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만한다면 14일 전에 예고하고 광산을 떠날 수 있지 않는가?——그러나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 형편이다》(제 1071호). 《그러나 부정 행위가 있다면 그곳을 또 떠날 수 있지 않는가?——그것은 어비서나 다 행하여지고 있다》(제 1072호).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14일 전에 예고하고 떠날 수 있지 않는가?——있다》(제 1073호). 그만 해 두자!

6) 광산 감독. 노동자들은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로써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갱내의 환기가 나쁜 것도 그만 못지 않게 우리의 불평을 산다. 왜냐 하면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폐컨대 바로 요사이 내가 일하고 있는 광산의 일부에서는 독한 공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수주일 간이나 병석에 눕게 되었다. 주요 갱도들은 대개 환기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은 그렇지 않다. 환기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불평을 말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그는 해고되고<주의> 인물이 되어 다른 데 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1860년의 <광산 감독법>은 한 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감독관——그들의 수는 너무나 적다——은 아마도 7년에 한 번이나 형식적으로 방문한다. 우리 감독관은 아주 무능한 70세의 노인인데 그는 130개 이상의 탄갱을 감독한다. 더 많은 감독관과 함께 부감독관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제 234호 이하). 《그러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보 없이도 그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부대(部隊)의 감독관들을 두어야 한탄 말인가?——그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광산에 직접 와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제 280, 277호). 《그대들은 환기니 무엇이니 하는 책임(!)이 광산 소유자로부터 정부 관리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할 일은 기존 법률들을 준수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제 285호). 《그대들이 말하는 부감독관은 현재의 감독관들보다도 봉급이 적고 자격이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가?——당신들이 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면, 낮은 사람들을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제 294호). 《그대들은 더 많은 수의 감독관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보다 낮은 부

류의 사람들을 원하는가? — 우리는 직접 광산을 뛰여 돌아다니며, 제 몸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제 295호). 《그대들의 소원 대로 보다 나쁜 종류의 감독관들로 충당한다면 그들의 기능 부족으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 아니다. 적당한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제 297호). 이러한 류의 심문은 드디어 조사 위원회 위원장 자신에게도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그대들이 바라는 것은 — 하고 그는 말 참전을 한다 — 광산을 직접 시찰하고 그 시찰한 것을 감독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의 보다 높은 학문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인물인 것이다》(제 298, 299호). 《이 낡은 탄갱들에 모두 환기 시설을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 비용은 더 들지 모르나 인명이 보호될 것이다》(제 531호). 한 탄광 노동자가 1860년 조례의 제 17조에 대하여 항의한다: 《현재 탄광의 어떤 부분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탄광 감독관은 그것을 탄광주와 내무 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후 20일 간의 유여 기간이 탄광주에게 허여되며 이 20일까지에 그는 어떠한 변경이든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할 때에는 그는 내무 대신에게 서한을 내어 그에게 5명의 광산 기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대신은 그 중에서 결재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탄광주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재판관을 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제 581호). 그 자신 탄광주인 부르조아 심문관은 말한다: 《이것은 순전히 사변적(思辨的)인 이론(異論)이다》(제 586호). 《그리하여 그대들은 광산 기사들의 성실성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 그들은 극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나는 말한다》(제 588호). 《광산 기사들은 일종의 공³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그대들이 넘려하는 불공평한 재결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 나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 인격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

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들이 많은 경우에 극히 불공평하게 행동하며 따라서 인명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력을 그들에게서 박탈해야 한다고 확신한다》(제 589호). 같은 부르조아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질문한다 : 《폭발은 탄광주들에게도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끝으로 《그대들 노동자들은 정부의 조력을 빌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없는가? —— 없다》(제 1042호). 1865년에 대브리튼에는 3,217개의 탄광과 12명의 감독관이 있었다. 육코샤의 한 탄광주(《타임스》지, 1867년 1월 26일 호) 자신의 계산에 의하면 감독관들은 그들의 시간을 전부 잡아 먹는 순전한 관청 사무를 도외시하더라도 매개 광산을 10년에 한 번 밖에 방문할 수 없다. 최근 몇 해 동안에(특히 1866년과 1867년에) 재난이 수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때로는 희생자 수가 200—300명에 달한다)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의 아름다운 점이다!

여하간 1872년의 조폐는 비록 결합이 많기는 하지만 광산에 취업하고 있는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며 또 채광업자와 광산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로 소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최초의 것이다.

농업에서의 아동, 미성년 및 부인들의 취업의 조사를 위한 1867년의 칙령(勅命) 위원회는 약간의 극히 중요한 보고를 공표하였다. 공장 립법의 원칙들을 수정된 형태로 농업에 적용하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그 모두가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원칙들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려는 확고 부동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방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육체적 및 정신적 보호 수단으로서의 공장 립법의 전반적 보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었다면 타방으로는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의 분산된

로동 과정의, 사회적 대규모의 결합된 로동 과정으로의 전화를, 따라서 자본의 집적 및 공장 제도의 유일 지배를 일반화하며 촉진한다. 공장 립법의 보급은 자본의 지배를 아직도 부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일체의 낡은 형태들과 도덕적 형태들을 분쇄하고 그 대신 자본의 직접적이고 로골적인 지배를 가져 온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한다. 그것은 개별적 작업장들에서 동형성(同形性), 규칙성, 질서 및 절약을 강요하는 한편, 로동일의 제한과 단축이 기술에 주는 강력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전체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재난을 증대시키며 로동의 강도 및 기계와 로동자와의 경쟁을 증대시킨다. 그것은 소생산 및 가내 로동의 분야와 함께 《파잉 인구》의 최후의 피난처, 따라서 또 전체 사회 기구의 종래의 안전변(安全瓣)을 폐절한다. 그것은 생산 과정의 물질적 제 조건 및 사회적 결합화와 함께 생산 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 및 적대들, 따라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 형성의 제 요소와 낡은 사회 변혁의 제 계기를 성숙시킨다³²².

§

322 로버트 오웬은 협동 조합적 공장 및 소매점의 시조(始祖)이지만 그러나 그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개혁의 이러한 고립적인 제 요소의 외의에 관하여 그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환상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실상 그의 시도들에 있어서, 공장 체계로부터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공장 체계를 사회 혁명의 출발점으로 설명하였다. 타이덴 종합 대학 정치 경제학 교수 빗세링서는 범속하기 짝이 없는 속류 경제학을 가장 적당한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그의 《실천 경제학 제요》[암스테르담] (1860—1862년)에서 대공업을 반대하여 수공업 생산을 한사코 옹호하고 있는데 그 때에 그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하다. {제 4판 주. 서로 모순되는 공장법, 공장법 확장 조배 및 작업장법에 의하여 영국의 립법이 채택한 《새로운 법률적 체계》(제1분책 431페이지)는 드디어 참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1878년 공장 및 작업장 법(Factory and workshop Act)이 전체 판계 립법들을 일괄한 법전으로서 나왔다. 영국의 이 현행 산업 법전의 상세한 비판은 물론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

제 10절 대공업과 농업

대공업이 농업 및 그 생산 당사자들의 사회적 제 관계에 일
으키는 혁명은 후에 가서야만 비로소 서술될 수 있다. 그런만
큼 여기에서는 그 서술에 앞서서 약간의 결론물을 간단히 시사
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농업에서의 기계 사용은 그것이 공업
로동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육체적으로 유해한 후파들
은 대부분 주지 않지만 ³²³ 그 대신 그것은, 차후에 상세히 보

은 지적에 그치며 한다. 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방적
공장. 여기에서는 거의 전부가 이전 것과 같다. 즉 허가된 로동 시간은
10세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는 일 5시간 반 또는 6시간, 단 6시간인 정
후에는 토요일은 휴일이다. 미성년들과 부인들은 5일 간은 10시간,
토요일은 최고 6시간 반.——2) 비방적 공장. 이 공장들에 대한 제 규
정은 중전보다는 방적 공장들에 대한 제 규정에 많이 접근하였으나 아
직도 많은 경우에 내무 대신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더 확장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폐의가 많이 있다. ——3) 대략 중전의 법에서 규
정된 것과 같은 작업장들. 아동, 미성년 또는 부인들이 고용되고 있는
한, 작업장들은 비방적 공장들과 거의 같이 취급되고 있으나 이번에도
세부들에 있어서는 완화되어 있다. ——4) 아동 또는 미성년들은 없고 18
세 이상의 남녀들만 고용되고 있는 작업장. 이 부류에 대하여는 더욱 완
화되어 있다. ——5) 자택에서 가족 성원들만 일하고 있는 가내 작업
장. 제 규정이 더욱 신축성이 있으며, 동시에 감독관은 살림방을 겸하
고 있는 작업실에는 대신 또는 판사의 특별 허가 없이는 들어 갈 수 없
다는 제한이 있으며 끝으로 가족 내에서의 밀대 세공업, 레스 편직업
및 장갑 제조업은 무제한으로 방입되고 있다. 동법은 모든 결합에도 불
구하고 서서(瑞西)의 1877년 3월 23일의 령방 공장법과 더불어 의연히
이 방면에 있어서의 최량의 법률이다. 동법을 상술한 서서의 령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특히 흥미 있는 일이니, 그것은 그 비교에 의하여 령법
상의 두 방법——즉 영국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리해
가는 방법과 대륙적인, 불란서 혁명의 전통에 립각한, 보다 개괄적인
방법——의 입장 일단이 극히 명료하여지기 때문이다. 유감이지만 영
국의 법전은 감독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부분 공문(空文)에 지나지 않는다. ——F. 앵겔스}.

323 영국의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W. H.

게 될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과잉화》에 보다 강하게 또 반항에 봉착함이 없이 작용한다. 레컨대 캄브릿지 및 서퍼크 주들에서는 최근 20년래 경지 면적은 대단히 확장되었는데 동 기간에 농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하였다. 미국에서는 농업 기계가 아직은 잠재적(潛勢的)으로만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 즉 그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지면을 경작할 수 있게 하나 현실적으로는 취업 노동자들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186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농업 기계의 제작에 참가한 인원 수는 1,034명인데, 증기 기관 및 작업기에 붙어 일한 농업 노동자 수는 불과 1,205명이었다.

대공업이 낡은 사회의 보루인 《농민》을 폐절하고 그 대신에 임금 노동자를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혁명적인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변혁의 요구와 사회적 대립은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게 된다. 구태 의연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경영 대신에 과학의 의식적이며 기술 공학적인 응용이 등장한다. 유치하고 미발달한 모습의 농업과 마누팩추라를 서로 엮어 매고 있었던 량자의 본원적인 가족적紐帶(紐帶)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하여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새로운 보다 높은 종합(綜合)——즉 농업과 공업의, 서로 대립하여 발전한 모습에 기초한 량자의 연합——의 물질적 전제들을 조성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것에 의하여 대중심지로 집결되는 도시 인구의 비중의 부단한 장성과 함께 일방으로는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퇴적하며, 타방으로는 인간과 토지간의 물질 대

박사의 《영국의 농구 및 농업 기계》 제 2판(1856년)에서 볼 수 있다. 해서는 영국 농업의 발전 행정에 관한 탁술에서는 레온스 드 라베트류세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제 4판 주.——이 저술은 지금은 물론 진부한 것이다.——F. 앵겔스}.

사물, 즉 인간이 의식(衣食)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토지 성분들의 토지에로의 복귀를 장애하며 따라서 토지 비옥도를 유지함에 필요한 영구할 자연 조건을 파괴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도시 노동자의 육체적 건강과 농촌 노동자의 정신 생활을 다 같이 파괴한다³²⁴. 그러나 그것은 그 물질 대사의 순전히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상태를 파괴함과 동시에 물질 대사로 하여금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는 법칙으로서 또 인간의 충분한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서 체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농업에서나 마누팩투라에서나 생산 과정의 자본주의적 변혁은 동시에 생산자들의 순교사(殉敎史)로 나타나며, 노동 수단은 노동자의 예속화 수단, 착취 수단 및 빈궁화 수단으로 나타나며, 노동 과정의 사회적 결합은 노동자의 개인적인 활기, 자유 및 자립성의 조직적 압박으로 나타난다. 도시 노동자들의 집중은 그들의 반항력을 제고하는데 농촌 노동자들의 보다 넓은 지면으로의 분산은 그들의 반항력을 꺾는다. 근대적 도시 공업에서와 같이 근대적 농업에서도 노동 생산력의 제고와 노동 지출량의 증대는 노동력 자체의 파괴와 피폐에 의하여 얻어진다. 또 자본주의적 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술상 진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를 약탈하는 기술상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제고하는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이 비옥도의 지속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다. 어떤 나라, 폐천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대공업을 그 발전의 배경으로 하여 출발하면 할수록 이러한 파괴 과정은 보다

324 《당신들은 인민을 조야한 촌사람과 나약한 난쟁이의 두 적대 진영으로 분할한다. 하느님 마십시오! 농업적 리해와 상업적 리해로 분할된 국민이 이 기괴하고 부자연한 분할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때문에 스스로 건전한 국민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개화 문명된 국민이라고 칭한다》(메이비트 어커트 《상용 용어》, 런던, 1855년, 119페이지). 이 구절은 현대를 논의하고 판단할 줄은 아나 리해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비판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표시한다.

더 급속하다³²⁵.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들이
인 로지와 로동자를 동시에 파멸함으로써만 사회적 생산 과정
의 기술 및 결합을 발전시킨다.

325 리빗히 《화학의 농업 및 식물 생리학에 대한 응용》(제 7
판, 1862년)을 특히 제 1권의 《농업상의 제 자연 법칙에 관한 서론》을
참조하라. 자연 과학적 관점에서의 근대적 농업의 부정적 측면의 천명은
리빗히의 불멸의 공적의 하나이다. 농업사에 관한 그의 역사적 보
설(補說)도, 심각한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는 옳게
해명하고 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유감 천
만이다——《더 잘 바수어 부드럽게 하고 자주 갈아엎음으로써 유공(有
孔) 토양 내부에 있어서의 환기는 촉진되며, 공기의 작용을 받게 되는
토양의 표면은 중대되며 갱신된다. 그러나 용이하게 리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확의 증가는 경지에 지출된 로동에 비례할 수는 없으며 도
리어 수확은 훨씬 적은 비료로 장성한다》. 《이 법칙은——하고 리빗히
는 부언한다——J. S. 밀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의 〈정치 경제학 원리〉.
제 1권, 1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로지 생산물은 기타
의 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취업 로동자들의 증가에 대하여 체감적 비율
로 증가한다〉(밀씨는 여기에서 리카도 학파의 주지의 법칙을 그릇된
정식화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취업 로동자의 감소〉가
영국에서는 부단히 농업의 진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을
위하여 또 영국에서 발견된 그 법칙이 적어도 영국에서는 전연 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업의 일반적 법칙이다〉. 이것은 매우 주
목할 만한 것이다. 왜냐 하면 밀은 이 법칙의 기초로 되고 있는 원인
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리빗히, 동상서, 제 1권, 143페이지 및 주).
리빗히는 《로동》이란 용어를 정치 경제학에서 리해되고 있는 것과는 다
른 어떤 것으로 리해하고 있는데 그 해석의 오류는 도외시하더라도 여
하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J. S. 밀씨를 이 이론의 최초의 제
창자라고 하는 그것이다. 이 이론은 제임스 앤더슨이 A. 스미스 시대
에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그후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각종 저술
에서 반복되었으며, 1815년에는 포질의 대가 말사스(그의 인구론 전체
가 파멸치한 포질이다)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웨스트는
앤더슨과 동 시대에 그러나 앤더슨과는 독립적으로 이 이론을 전개하였
으며, 리카도는 1817년에 그것을 일반적 가치론과 관련시켰으며 그 때
부터 이 이론은 리카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일주하였으며, 1820년에는 제
임스 밀(J. S. 밀의 아버지)에 의하여 축류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특
히 J. S. 밀씨에 와서 그것은 이미 체계 묶은 학파적 교조로서 반복된
것이다. J. S. 밀의 여하간 《주목할 만한》 권위는 거의 이와 비슷한 요
인의 덕택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제 5 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 14 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 가치

우에서(제 5장을 보라) 우리는 노동 과정을 그것의 역사적 제 형태로부터 떠나서, 추상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의 과정으로서 고찰하였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만약 전체 과정을 그 결과인 생산물의 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양자는 생산 수단으로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주 7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충되었다——《생산적 노동의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 노동 과정의 립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 보아서는 전연 불충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점을 더 전개하자.

노동 과정이 순전히 개인적인 과정인 한, 동일한 노동자가 후에 이르러 분리될 모든 기능(機能)들을 통합한다. 그는 자기의 생활상 제 목적을 위하여 자연의 대상물을 개인적으로 점유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후에 이르러 그는 통제를 받는다. 개별적 인간은 그 자신의 두뇌의 통제하에서 그 자신의 근육을 활동시키지 않고서는 자연에 대하여 작용할 수 없

다. 자연 체계에 있어서 머리와 손이 한데 속하듯이 노동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이 통합된다. 후에 이르러 그것들은 분리되어 적대적 대립에까지 이르게 된다. 생산물은 무릇 개인적 생산자의 직접적 생산물로부터 전체 노동자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생산된 사회적 생산물로 즉 각이한 성원이 각이한 정도로 노동 대상의 취급에 관여하는 결합된 노동 인원의 생산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노동 과정 그 자체의 협업적 성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산적 노동 및 그것의 담당자인 생산적 노동자의 개념도 확대된다. 생산적으로 노동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의 손을 댈 필요는 이제는 더 없으며, 전체 노동자의 기관(器官)이 되어 그의 부속 기능의 하나를 수행하면 충분하다. 상술한 바와 같은, 물질적 생산의 본성 자체로부터 도출한 생산적 노동의 본원적 규정은 전체로서 본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의연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 그의 매개 성원에 대하여서는 이미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타방에 있어서 생산적 노동의 개념은 협소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 생산일 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하여 생산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반적으로 생산한다고만 하여서는 이미 불충분한 것이다. 그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즉 자본의 자기 증식에 복무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다. 물질적 생산 분야 밖에서 폐를 들어도 좋다면 학교 교원은 그가 만약 아동들의 두뇌를 가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가의 치부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기업가가 자기의 자본을 교육을 위한 공장에 투하하든 또는 순매(賁매) 공장에 투하하든 관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동자의 개념은, 다만 활동과 그것의 유용효과, 노동자와 그의 노동 생산물 간의 관계만을 결코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자를 자본 증식의 직접 수단으로 만드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사회적 생산 관계도 포함한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자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다. 학설사를 취급하는 본 저서의 제 4부에서, 고전 정치 경제학이 일찍부터 잉여 가치의 생산을 생산적 노동자의 결정적 표식으로 삼았다는 것을 상세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의 본성에 대한 고전 정치 경제학의 견해가 변함에 따라 생산적 노동자에 대한 그의 규정도 변한다. 폐건대 중농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농업 노동만이 잉여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중농 학파에 있어서는 잉여 가치는 전혀 지대의 형태로서만 존재한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등가만을 생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노동일의 연장 및 이 잉여 노동의 자본에 의한 취득——이것이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기초 및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에 있어서는 노동일은 처음부터 두개의 부분 즉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잉여 노동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로임의 등가를 보다 짧은 시간에 생산케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 노동을 단축한다.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은 다만 노동일의 길이만이 문제이다.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은 노동의 기술적 제 과정과 그리노 사회적 집단의 형성을 철저히 변혁한다.

따라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은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전제로 하는바, 이 생산 방식은 그에 특징적인 방법, 수단 및 조건 그 자체들과 함께, 처음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예속에 기초하여서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한다. 형식적인 그것 대신에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현실적 예속이 등장한다.

잉여 노동이 직접적 강제에 의하여 생산자로부터 착출되지도 않으며 또한 자본에 대한 그의 형식적 예속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중간 형태들에 대하여서는 간단히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들에 있어서는 자본은 아직 노동 과정을 직접 정복하지는 않았다. 전통적이며, 선조 전래의 방식으로 수공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립적 생산자들의 결에는 고리 대금업자 또는 상인, 기생층과 같이 그들을 흡취하는 고리대 자본 또는 상업 자본이 나타난다. 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착취 형태의 우세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배제하는데 다른 편에서 이 착취 형태는 중세기 말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로의 과도적 단계를 이룰 수 있다. 끝으로 어떤 중간 형태들은 근대적 가내 노동의 실패가 보이여 주는 바와 같이 비록 전혀 변화된 모양으로이지만 대공업의 배후에서 부분적으로 재생산된다.

일방에 있어서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예속만으로, 레컨데 이전에는 자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장주(匠主)의 장공(匠工)으로서 노동한 수공업자가 이제는 자본가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고용 노동자로 되면 충분하다고 하면, 타방에 있어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방법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동시에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방법이다. 실로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은 대공업의 독특한 산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무릇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그것이 어떤 생산 부문 전체를 정복하자마자, 더우기 모든 결정적 생산 부문들을 정복하자마자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게 된다. 그 때에는 그것은 생산 과정의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형태로 된다. 그것이 이제 와서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특수한 방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첫째로는 종전에는 다만 형식적으로만 자본에 종속되었던 산업 부문들을 포착하는 한에 있어서이며 따

라서 그것이 점점 더 보급되어 나가는 한에 있어서이다. 둘째로는 그것의 지배하에 들어 온 산업 부문들이 생산 방법의 변화에 의하여 부단히 변혁되는 한에 있어서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간의 구별은 결국 환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잉여 가치는 절대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노동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을 조건 짓기 때문이다. 절대적 잉여 가치는 상대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필요 노동 시간을 노동일의 일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노동 생산 능력의 발전을 조건 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운동에 주의를 돌린다면 이 외관상의 동일성은 소멸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일단 발생하여 전반적 생산 방식으로 되자마자,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간의 구별은 무릇 잉여 가치물의 제고가 문제로 될 때 감지된다. 노동력이 그의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전제하면 그 때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자택일(二者擇一)에 당면하게 된다. 즉 노동의 생산력 및 그것의 표준 강도가 소여의 것이라면 잉여 가치물은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에 의하여서만 제고될 수 있다. 타방 노동일의 한계가 소여의 것이라면 잉여 가치물은 노동일의 구성 부분 즉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상대적 크기의 변동에 의하여서만 제고될 수 있는데 그 변동은 이번에는 로임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저락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 노동 생산 능력 또는 노동 강도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만약 노동자가 그의 전체 시간을 자기 자신 및 자기의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생산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에게는 제 3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할 시간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동 생산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이러한 여분의 시간이 조금도 없으며, 그것이 없이는 잉여 노동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가

도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노예 소유자도, 봉건 귀족도, 한마디로 말하여 어떠한 대소유자 계급도 있을 수 없다¹.

그리하여 잉여 가치의 자연적 토대에 관하여 운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의미에서 즉 레컨대 자연에는 일자가 타자의 고기를 식량으로서 소비하는^{2a} 것을 방해하는 절대적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는 일자가 그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로동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절대적 장애물도 없다는 의미에서만이다. 신비로운 표상들과 이 자연 발생적인 로동 생산 능률과를 결부시키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사람이 자기의 로동에 의하여 원시적 동물 상태를 벗어나게 된 때에만, 그리하여 그의 로동이 이미 일정한 정도로 사회화되어 있는 때에만, 일자의 잉여 로동이 타자의 생존 조건으로 되는 제 관계가 나온다. 문화의 초기에는 로동 생산력은 보잘 것 없으나, 욕망——그 충족 수단과 함께 또 그 충족 수단의 발전에 직접 의존하여 발전하는——도 보잘 것 없다. 또 이 초기에는 타인의 로동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회 부분의 비율은 직접적 생산자 대중에 비하면 문제도 안되리만큼 적은 것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로동 생산력의 장성과 함께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장성한다². 하여튼 자본 관계는 장구한 발전 과정의

1 《특수 계급으로서의 자본주의적 기업가의 존재 그 자체가 벌써 로동 생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람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런던, 1821년, 206페이지). 《만약 매 개인의 로동이 그 자신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면 재산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라벤스톤 《국채 제도과 그 효력에 관한 고찰》, 런던, 1824년, 14페이지).

1a 최근 실시된 계산에 의하면 구라파인에 의하여 이미 탐험된 지역만 하여도 적어도 400만의 식인종(食人種)이 아직 살고 있다.

2 《아메리카의 미개한 인디안들 사이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로동하는 자의 것이며 생산물의 100의 99는 로동의 몫으로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로동자의 몫으로 되는 것은 아마 $\frac{2}{3}$ 도 안될 것이다》(《동인도 무역의 영국에 대한 리익》, 런던, 1720년, 72, 73페이지).

산물인 경제적 기반 위에서 발생한다. 자본 관계의 출발의 기초로 되고 있는 현존 로동 생산 능률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수천 세기를 포괄하는 력사의 선물이다.

사회적 생산의 발전 정도는 여하간 로동 생산 능률은 자연적 제 조건과 관련이 있다. 이 자연적 제 조건은 모두 인종(人種) 등등과 같은 인간 자체의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 귀착시킬 수 있다. 외부적 자연 제 조건은 경제학적으로는 2대 부류로 즉 생활 수단의 자연적 풍요성, 그리하여 토지의 비옥도, 어류가 많은 하해(河海) 등등과 그리고 물'결이 센 락류(落流), 항행할 수 있는 하천, 목재, 금속, 석탄 등등과 같은 로동 수단의 자연적 풍요성으로 나뉘어진다. 문화의 초기에는 첫째 종류의 자연적 풍요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며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둘째 종류의 그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폐컨대 영국과 인도를 비교하든가 또는 고대 세계에서는 아테네와 코린트를 흑해 연안 지방과 비교하여 보라.

절대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자연적 욕망의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가 크면 클수록 기후 조건이 보다 유리하면 할수록 생산자의 생활을 유지하며 재생산하기에 필요한 로동 시간은 보다 적다. 따라서 생산자 자신을 위한 로동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그의 로동의 여유분은 보다 커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미 디오도로스는 고대 애굽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그들이 자기의 아동들을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은 로력과 비용을 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들은 아동들을 위하여 딱치는 대로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여 준다. 그들은 불에 구울 수 있는 한 과피 무스의 뿌리를 먹이며 습지(濕地) 식물의 뿌리와 매를 어떤 것은 생으로 어떤 것은 찌거나 구어 먹이기도 한다. 기후가 대단히 온화하기 때문에 매다수의 아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다닌다. 그러므로 1명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각 부모는 대체로 20 드라크마 이상은 들이지 않는다. 애급에서 그렇게도 인구가 많으며 따라서 또 그렇게도 많은 대공사가 건설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이것으로써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고대 애급의 거대한 건조물들은 애급의 인구가 많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에 돌릴 수 있는 인구의 부분이 현저히 컸다는 사정에 유래하는 것이다. 개개의 노동자가 그의 필요 노동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많은 잉여 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 인구중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에 요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보다 크다.

일단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하면 기타의 제 조건이 동일하며 또한 노동일의 길이가 소여의 것인 경우에는 잉여 로동의 크기는 노동의 자연적 제 조건 특히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거꾸로 가장 비옥한 토지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토지이라는 명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 너무나 풍성 풍성한 자연은 《손잡이 줄에 매달려 걸기 시작하는 어린애처럼 인류를 자기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연은 인류 자체의 발전을 자연적 필연성으로 하지 않는다⁴. 자본의 모국은 식물이 무성한 열대적

3 《시필릭 출신 디오도로스의 역사 문고》, 제 1권, 제 80장(126페이지).

4 《전자(자연적 부)는 가장 고귀하고 편리한 것이므로 그것은 인민을 부주의하고 거만하게 만들며 아무 절제도 모르게 만든다. 그런때 후자는 주의심, 학문, 예술 및 정책을 강요한다》(《외국 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부. 우리의 외국 무역의 균형은 우리 재부의 법칙이다. 런던 상인 토마스 먼. 그의 아들 존 먼이 공익을 위하여 발간함》. 런던, 1669년, 181, 182페이지). 《또는 생각컨대 생활 자료와 식량 생산이 대부분 천연적으로 이루어지며 기후 조건이 의복과 거주에 대하여 거의 주의할 필요도 여지도 없는 땅에 살게 된다는 것보다 인민에게 더

풍토가 아니라 온대 지방이다. 사회적 분업의 자연적 기초를 이루며, 인류가 살고 있는 자연적 조건들의 변화에 의하여 인류에게 자극을 주어 그 자체의 욕망, 능력, 노동 수단 및 노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아니라 토지의 분화(分化)이며 토지의 자연적 산물의 다양성이다. 자연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 그것을 경리(經理)할 필요성, 인간의 손에 의한 공사(工事)의 도움으로 우선 그것을 대규모로 리용 또는 복종시킬 필요성은 산업의 역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페컨대 애급, 톨바르디야, 화란 등에서의 치수 공사를 들 수 있다⁵. 또는 인도, 페르샤 등에서의 그것을 들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인공적 운하에 의한 관개가 토지에 대하여 불가결한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흙탕물과 함께 광물성 비료를 산으로부터 운반하여 온다. 아라비아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서반아 및 시씨리에서의 산업 번영의 비밀은 관개에 있었다⁶.

큰 화는 없다…… 그 반대의 극단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로동을 투하하여도 생산하지 못하는 토지는 아무 로동이 없이도 풍부히 생산하는 토지와 전혀 마찬가지로 나쁘다》(《현재 식량 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한 연구》, 런던, 1767년, 10페이지)

5 나일강의 증감수 시기를 계산할 필요성은 애급의 천문학과 또한 그와 함께 농업의 지도자인 승려 계급의 지배를 낳았다. 《일지(日誌)는 일년중에 있어서 나일강의 물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時點)으로서, 애급인들은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년간에 있어서의 이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영농 사업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회귀(回歸)를 표시하여 주는 징조를 천공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큐비에, 《지구의 표면의 변천에 관한 논고》, 에페르 판, 파리, 1863년, 141페이지).

6 호상 령계가 없는 인도의 소생산 유기체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물질적 기초의 하나는 관개의 조절이었다. 인도의 지배자이었던 회교도들은 그들의 후계자인 영국인들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벵갈주의 오릿사 지방에서 백만 이상의 힌두인의 생명을 빼앗은 1860년의 기근을 상기함에 그치자.

유리한 자연 제 조건은 항상 잉여 노동 따라서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의 가능성을 제공할 따름이고 그것만으로서는 결코 그 현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토동의 자연 제 조건이 다르면 그 결과로 동일한 노동량에 의하여⁷ 충족되는 수요량이 내려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⁸ 따라서 기타의 제 조건이 유사하면 필요 노동 시간이 서로 다르다. 잉여 노동에 대하여는 자연적 제 조건은 다만 자연적 제한으로서만 즉 타인을 위한 노동이 시작될 수 있는 한계점을 규정함으로써만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이 자연적 제한은 산업이 전진하는 정도에 따라 후퇴한다. 노동자가 자기 생존을 위하여 노동하는 허가(許可)를 잉여 노동에 의하여서만 살 수 있는 서구라파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는 잉여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마치도 인간 노동에 고유한 성질인 듯한 환상이 생기기 쉽다⁹. 그러나 뻘뻘대 사고나무가 숲 속에 야생하고 있는 아세아 군도의 동부 섬들의 주민을 들어 보자. 《주민들은 사고나무에 구멍을 뚫고 속이 익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무 줄기를 찍어 넘어뜨려 여러 토막을 내고 속을 긁어 내어 물을 섞고 려파(濾過)시키면 그것이 훌륭한

7 《동등한 수량의 생활 필수품을 동등하게 풍부히 그리고 동등량의 노동으로써 생산하는 나라란 출도 없다. 인간의 욕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기후가 혹심한가 온화한가에 따라 증감한다. 따라서 각이한 나라들의 주민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립의 정도는 동일할 수 없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한저(寒暑)의 정도에 의하는 외에는 확정할 수도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정한 수의 인민을 위하여 요구되는 노동량은 기후가 추운 지방에서 가장 크며 더운 지방에서 가장 적다는 일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바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서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의복을 요할 뿐만 아니라 더운 지방에서보다 토지를 더 많이 경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자연적 리자본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 런던, 1750년, 59페이지). 이 획기적 네명 저술의 저자는 J. 맷시이다. 혹은 그의 리자본을 이 저서로부터 취하였다.

8 《모든 노동은(공민의 권리이며, 의무라 해도 생각되지한) 잉여분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프루동).

히 사용할 수 있는 사고 가루이다. 한 나무에서 대개 300 파운드가 나는데 500--600 파운드까지 날 수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마치 우리가 나무를 하려 숲 속으로 가뭇이 빵을 채벌하기 위하여 숲 속으로 간다》⁹. 이와 같은 동부 아세아의 빵채벌자가 그의 일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주 12시간을 요한다고 가정하자. 유리한 자연 제 조건이 그에게 직접 주고 있는 것은 많은 한가한 시간이다. 그가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는 전 일련의 역사적 제 조건이 필요하며, 그가 이 시간을 타인을 위한 잉여 로동으로 지출하기 위하여는 외부적 강제가 필요하다. 만약 거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도입된다면 이 호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동일의 생산물을 얻으려고 아마도 매주 6로동일을 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연의 혜택으로써는 그가 왜 이제 와서는 매주 6일씩 로동하게 되는가 또는 왜 5일간의 잉여 로동 즉 막대한 잉여 생산물을 주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으로써는 다만 왜 그의 필요 로동 시간이 매주 1일로 제한되어 있는가가 설명될 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잉여 생산물은 인간 로동에 고유한 어떤 신비로운 속성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발전한 사회적 로동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의하여 조건 지어지는 로동 생산력도 로동을 자기 것으로 하는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리카도는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돌려 본 일이 결코 없다. 그는 잉여 가치를, 그의 눈에는 사회적 생산의 자연적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가 로동 생산 능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9 F. 쇼우 《토지, 식물 및 인간》, 제 2판, 라이프찌히, 1854년, 148페이지.

경우에 그것에서 그가 탐구하고 있는 것은 잉여 가치의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다만 그것의 크기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그런데 그의 학파는 노동 생산력이 리윤(잉여 가치로 읽을 것) 발생의 원인이라고 소리 높여 선언하였다. 어쨌든 간에 생산물 가격이 그것의 생산비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교환으로부터 즉 생산물의 가치 이상으로 그것을 판매하는 데로부터 끌어 내는 중상주의자들에 비하면 진보이다. 그러나 리카도 학파도 문제를 회피하였을 따름이고 해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알 만한 일이나 즉 이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절실한 문제를 지나치게 깊이 탐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정당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리카도보다 50년 후에 존 스튜어트 밀씨는 리카도를 최초로 비속화한 자들의 파탄된 둔사(遁辭)를 서투르게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중상주의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엄엄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무엇이랴 말하겠는가?

밀은 말한다 —《리윤의 원인은 노동이 그의 유지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데 있다》고. 여기까지는 다만 낡은 설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밀은 여기에 그 자신의 어떤 것을 첨가하고자 한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이 리윤을 가져 오게 되는 리유는 식료, 의복, 원료 및 노동 수단이 그것들을 생산함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장시간 지속한다는 데 있다》고. 여기에서 밀은 노동 시간의 지속과 그것의 생산물의 지속과를 혼동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생산물이 하루 밖에 지속하지 않는 빵 제조업자는 생산물의 20년이나 또 그 이상이나 지속하는 기계 제작업자와 동일한 리윤을 자기의 고용 노동자들로부터 끌어 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확실히 만약 새(鳥) 둥지가 그것을 트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가지 않는다면 새들은 둥지 없이 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확립하자 밀은 중상주의자들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확립한다——《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리윤이 교환이라는 우연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동 생산력으로부터 발생하며, 한 나라의 총리윤은 교환이 진행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 없이 언제나 로동 생산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직업상 분화가 없다면 구매도 판매도 없을 것이나 리윤은 의연 존재할 것이다》. 이리하여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조건물인 교환 즉 매매는 순전한 우연사에 불과하며 로동력의 매매 없이도 리윤은 존재한다!

또 말한다——《만약 한 나라의 전체 노동자가 그들의 로임액보다 20% 더 많이 생산한다면 상품 가격 상태가 여하한 간에 리윤은 20%로 될 것이다》고. 이것은 한 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동의반복이다. 왜냐 하면 노동자가 자기의 자본가를 위하여 20%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면 자본가의 리윤은 노동자의 로임 총액에 대하여 20 : 100으로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편으로는 리윤이 《20%로 된다》는 것은 절대로 틀렸다. 리윤은 전대 자본 총액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리윤은 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본가가 500 파운드 스텔링을, 그 중 400 파운드 스텔링은 생산 수단으로 100 파운드 스텔링은 로임으로 전대하였다고 하자. 잉여 가치물을 우에서 가정하듯 20%라고 하면 리윤률은 20%가 아니라 20 : 500 즉 4%일 것이다.

다음에 사회적 생산의 각이한 역사적 제 형태를 밀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이며 주는 훌륭한 표본이 있다——《나는 거의 배외 없이 어디서나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사태를 즉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전대한다는 것을 어디서나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다만 배외적으로 존재한 사태를 어디서나 본다는 것은 희귀한 착각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자. 밀은 호인답게 인정한다——《그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필연성은 아니다》*고. 그와는 반대로 《로동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의 전체 로임액의 지불조차——그 동안 필요한 생활 수단을 그가 가지고 있다면——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어느 정도까지, 자본을 기업에 투하하고 그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자본가일 것이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밀은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생활 수단 뿐만 아니라 로동 수단도 전대하는 로동자는 현실적으로 그 자신의 고용 로동자이라고. 또는 미국의 농민은 주인인 타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역을 하는 그 자신의 노예이라고.

이와 같이 밀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도 그것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증명한 다음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조차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시종일관 증명한다——《그리고 천차의 경우에도(즉 자본가가 고용 로동자에게 그의 생활 유지 수단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에도) 로동자를 동일한 관점에서(즉 자본가로서) 고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는 자기의 로동을 시장 가격 이하로(!) 인도함으로써 차액을(?) 자기의 기업주

* 맑스가 H. D. 다니엘손에게 보낸 1878년 11월 28일 부 편지에서 그의 지적에 근거하여 이 구절의 초두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사회적 생산의 각이한 역사적 제 형태를 밀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이며 주는 훌륭한 표본이 있다——〈나는——하고 그는 말한다——로동자와 자본가가 독자적 계급들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배외 없이 어디서나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사태를…… 어디서나 전제로 한다〉. 밀은 인정하려 한다——〈로동자와 자본가가 독자적 계급들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 체계하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절대적 필연성은 없다〉고》. 맑스 엥겔스 전집, 제 27권, 18페이지 참조.——편집자.

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등》^{9a}.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자기의 로동을 자본가에게 레컨대 1주일 동안 무상으로 전대하고 레컨대 주말에 가서 그것의 시장가격을 받는다. 밀에 의하면 이것이 노동자를 자본가로 만든다는 것이다! 탄탄한 평야에서는 흙을 좀 싸올린 것도 언덕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부르조아지의 평범성을 그들의 《위대한 사상가》의 수준으로써 측정하여 보라.

^{9a} 존 스튜어트 밀 《정치 경제학 원리》, 런던, 1868년, 252—253페이지 이하. {인용된 구절들은 《자본론》 불란서어판으로부터 취하였다—F. 엥겔스}.

제 15장 노동력의 가격 및 잉여 가치의 크기의 변동

노동력의 가치는 평균 노동자의 보통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생활 수단의 형태는 비록 변할 수 있으나 그것의 분량은 일정한 사회의 일정한 시기에는 일정하며 따라서 불변의 크기로서 취급할 수 있다. 변동하는 것은 다만 이 분량의 가치이다. 노동력의 가치 규정에는 이 밖에 두 개의 요인이 더 참가한다. 일방으로는 생산 방식에 따라 변동하는, 노동력의 발전을 위한, 비용이며 타방으로는 남성 노동과 여성 노동, 성년 노동과 미성년 노동간의 자연적 차이이다. 이러한 각이한 노동력의 사용은 다시 생산 방식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와 성년 남성 노동자의 가치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가져 온다. 그러나 이 두 요인은 이하의 연구에서는 제외한다^{9b}.

우리는 (1) 상품은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것, (2) 노동력의 가격은 때로는 그것의 가치 이상으로 등귀하는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의 가치 이하로 저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단 이렇게 전제하면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와의 상대적 크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1)

9b 281페이지[제 1권, 제 1분책, 455—456페이지]에서 고찰된 경우도 여기에서는 물론 제외되고 있다[제 3판 주——F·엥겔스].

노동일의 길이 즉 노동의 외연적 크기, (2) 정상적 노동 강도 즉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동량이 지출되게 되는 노동의 집약적 크기, (3) 끝으로 생산 제 조건의 발전 정도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동량이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생산물을 제공하게 되는 노동 생산력. 이 세 개 요인중 하나가 불변이고 둘이 가변이거나 또는 둘이 불변이고 하나가 가변이거나 또는 끝으로 세 개가 다 동시에 가변이거나 함에 따라 극히 각이한 배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배합은 각이한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변동의 크기 및 방향은 각이할 수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게 된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은 주요한 배합들만이다.

I. 노동일의 크기 및 노동 강도는 불변인데(소여의 것인데) 노동 생산력이 가변인 경우

이 전제하에서는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 가치는 세 개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첫째로——노동 생산 능률과 또 그것에 따라 생산물의 분량과 따라서 단위 상품 가격이 여하히 변동하더라도 소여의 크기의 노동일은 언제나 동일한 양의 새로 생산된 가치로서 표시된다.

12시간 노동일의 새로 창조된 가치는 페컨대 6실링이다——비록 노동 생산력의 변동에 따라 생산된 사용 가치의 분량이 변동하고 그리하여 6실링의 가치가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상품에 배분된다 하더라도.

둘째로——노동력의 가치와 잉여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노동 생산력의 변동 즉 그것의 장성 또는 감소는 노동력의 가치에 대하여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잉여 가

치에 대하여는 동일 방향으로 작용한다.

12시간 노동일의 새로 생산된 가치는 불변량 레컨대 6실링이다. 이 불변량은 잉여 가치에 노동력의 가치——로동자가 등가(等價)에 의하여 보상하는——를 가한 것과 같다. 한개의 불변량의 두 부분중에서 일방이 감소되지 않으면 타방이 증가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잉여 가치가 3실링으로부터 2실링으로 저하되지 않고서는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제고될 수 없으며 거꾸로 잉여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가 3실링으로부터 2실링으로 저하되지 않고서는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제고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노동력의 가치이든 또는 잉여 가치이든 그것의 절대적 크기에는 그것들의 상대적 또는 비례적 크기의 변동이 없이는 어떠한 변동도 있을 수 없다. 그것들이 동시에 제고 또는 저하될 수는 없다.

또 노동 생산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잉여 가치는 제고될 수 없으니 레컨대 상기페에서 노동 생산력이 제고되어 종전에는 6시간 들여 생산하던 동일한 량의 생활 수단을 4시간에 생산할 수 있게 되지 않고서는 노동력의 가치는 3실링으로부터 2실링으로 저하될 수 없다. 거꾸로 노동 생산력이 저하되어 종전에는 6시간이면 생산하던 동일한 량의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8시간을 요하게 되지 않고서는 노동력의 가치는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제고될 수 없다. 이로부터 노동 생산 능력의 제고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따라서 잉여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것, 거꾸로 노동 생산 능력의 저하는 노동력의 가치를 제고시키며 잉여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 법칙을 정식화함에 있어서 미카도는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사정을 간과하였는데 그것은 비록 잉여 가치 또는 잉여 노동의 크기에 있어서의 변동이 노동력의 가치 또는 필요 노동의

크기에 있어서의 상반되는 변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로부터는 이 크기들이 동일한 비율로서 변동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일어나는 증가 또는 감소는 그 크기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새로 창조된 가치 또는 노동일의 매개 구성 부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은 노동 생산력의 변동 이전에 있었던 시초의 분할에 의존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가 4실링 또는 필요 노동 시간이 8시간이고 잉여 가치가 2실링 또는 잉여 노동이 4시간이던 것이 노동 생산력이 제고된 결과 노동력의 가치가 3실링으로 또는 필요 노동이 6시간으로 저하되면, 잉여 가치는 3실링으로 또는 잉여 노동은 6시간으로 증가한다. 2시간 또는 1실링이라는 동일한 크기가 일방에 있어서는 첨가되고 타방에 있어서는 공제된다. 그러나 비율적 크기의 변동은 쌍방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노동력의 가치는 4실링으로부터 3실링으로 따라서 $\frac{1}{4}$, 즉 25%만큼 저하되는데 잉여 가치는 2실링으로부터 3실링으로 따라서 $\frac{1}{2}$, 즉 50%만큼 제고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노동 생산력에 있어서의 소여의 변동의 결과 잉여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은 노동일 중 잉여 가치로 표시되는 부분이 시초에 작으면 작을수록 크고, 크면 클수록 작다고.

세째로——잉여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는 항상 그에 대응하는 노동력의 가치의 감소 또는 증가의 결과이고 결코 그것의 원인이 아니다¹⁰.

10 이 제 3 법칙에 대하여 맥컬릭은 특히 자본가가 종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세를 폐지한다면,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고도 잉여 가치는 제고될 수 있다는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폐지는 산업 자본가가 직접 노동자로부터 흡취하는 잉여 가치의 양에는 절대로 어떠한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산업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자기 자신의 주머니와 제 3자 사이에 분배

로동일은 불변의 크기이며 불변의 크기의 가치로 표시되므로, 또 잉여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매개 변동에 로동력의 가치에 있어서의 상반되는 변동이 대응하므로, 그리고 또 로동력의 가치는 로동 생산력이 변동함으로써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 조건하에서는 명백히 잉여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매개 변동은 로동력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상반되는 변동에서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에서 우리는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 가치와의 절대적 크기의 어떠한 변동도 그것들의 상대적 크기의 변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는 거꾸로 그것들의 상대적 크기의 어떠한 변동도 로동력의 가치의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의 변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 3의 법칙에 의하면 잉여 가치의 크기의 변동은 로동 생산력의 변동에 기인하는 로동력의 가치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전자의 변동의 한계는 로동력의 가치의 새로운 한계에 의하여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제 사정이 이 법칙의 작용을 허용하는 조건하에서도 중간적 변동들이 있을 수 있다. 태천대 로동 생산력이 제고된 결과 로동력의 가치가 4실링으로부터 3실링으로 또는 필요 로동 시간이 8시간으로부터 6시간으로 저하된다 하더라도, 로동력의 가격은 다만 3실링 8펜스, 3실링 6펜스, 3실링 2펜스 등등으로 저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잉여 가치는 다만 3실링 4펜스, 3실링 6펜스, 3실링 10펜스 등등으로 제고될 수 있다. 한계점을 3실링으로 하는 저락의 정도는 일방으로는 자본의 압력과 타방으로는 노동자들의 반항과의 비중에

하여야 할 비율만을 변동시킬 따름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로동력의 가치와 잉여 가치 사이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맥컬러의 폐지는 법칙에 대한 그의 물리해설——그가 리카도를 비속화함에 있어서, J·B·세이가 A·스미쓰를 비속화함에 있어서 당했던 그만큼 자주 당한 불행——증명하여 줄 따름이다.

의존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량의 생활 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 생산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이 생활 수단의 가치이고 그것의 량이 아니다. 이 량 자체는 노동 생산력이 제고되면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와의 사이에 어떤 량적 변동 없이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하여 동시에 또 동일한 비율로써 증가될 수 있다. 만약 노동력의 시초 가치가 3실링이고 필요 노동 시간이 6시간이며 잉여 가치도 또한 3실링이고 잉여 노동도 또한 6시간이라면 노동 생산력이 2배로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일의 분할이 그대로라면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은 각각 2배만큼 많은 그러나 그만큼 저렴하게 된 사용 가치로서 표시될 따름일 것이다. 비록 노동력의 가격은 불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노동력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노동력의 새로운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1\frac{1}{2}$ 실링이라는 최소 한계까지가 아니라 2실링 10펜스, 2실링 6펜스 등등으로 하락한다면 이 하락한 가격도 역시 증가된 량의 생활 수단을 대표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 생산력이 제고되면 노동자의 생활 수단의 량의 동시적이며 계속적인 증가를 수반하면서 부단히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노동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는 주 잉여 가치에 비하여는 부단히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활 수준간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이다¹¹.

11 산업의 생산 능력에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량의 노동과 자본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이 많아지든가 적어지든가 하면 노임의 상대적 크기는 이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대표되는 생산물 량이 그대로 동일한 경우에도 현저히 변동될 수 있으며 또는 상대적 크기가 그대로 불변인 경우에도 생산물 량은 변동될 수 있다 (《정치 경제학 개론》, 런던, 1832년, 67페이지).

리카도는 처음으로 상술한 세 개 법칙을 엄밀히 정식화하였다. 그의 서술상 결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칙들이 그 밑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제 조건을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명하며 일반적이며 배타적인 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노동일의 길이에 있어서나 노동 강도에 있어서의 여하한 변동도 모르며 그리하여 자연 그에게 있어서는 노동 생산력이 유일한 가변적인 요인으로 된다. (2) 리카도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같이 잉여 가치를 잉여 가치로서 즉 리윤, 지대 등등과 같은 그것의 특수한 형태들과 독립하여 연구한 일이 결코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그의 분석은 보다 심한 정도로 그릇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잉여 가치물에 관한 제 법칙을 직접 리윤률에 관한 법칙들과 혼동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윤률은 총전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인데 잉여 가치는 이 자본의 가변 부분만에 대한 비율이다. 500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K)이 도합 400 파운드 스텔링의 원료 노동 수단 등등(c)과 100 파운드 스텔링의 로임(v)으로 나뉘어지며 또 잉여 가치는 100 파운드 스텔링(m)이라고 하자. 그러면 잉여 가

치률은 $\frac{m}{v} = \frac{100 \text{ 파운드 스텔링}}{100 \text{ 파운드 스텔링}} = 100\%$ 이다. 그러나 리윤률은

$\frac{m}{k} = \frac{100 \text{ 파운드 스텔링}}{500 \text{ 파운드 스텔링}} = 20\%$ 이다. 또 리윤률은, 잉여 가치물

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사정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나는 후에 본서의 제 3부에서 일정한 제 사정하에서는 동일한 잉여 가치물이 극히 작이한 리윤률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각이한 잉여 가치물이 동일한 리윤률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Ⅱ. 노동일 및 노동 생산력은 불변인데 노동 강도가 가변인 경우

노동 강도의 증대는 동일한 시간에 있어서의 노동 지출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강도가 보다 높은 노동일은 동등한 시간수취, 강도가 보다 낮은 노동일에 비하여 보다 많은 량의 생산물로 체화된다. 물론 생산력이 제고되면 동일한 노동일도 더 많은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생산능률의 장성의 결과 단위 생산물은 이전 보다 적은 노동이 들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저하되는데, 앞의 경우에는 생산물은 종전과 동등한 량의 노동이 들기 때문에 가치는 그대로 불변이다. 여기에서는 생산물 가격의 저락 없이 생산물의 수는 증가한다. 생산물의 수와 더불어 그것들의 가격 총액도 증가하는 때, 생산 능률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 총액이 증가된 량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강도가 보다 높은 노동일은 노동 시간수가 불변인 경우에, 보다 많은 새로 창조된 가치로, 따라서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보다 많은 량의 화폐로 체화된다. 노동일에 새로 창조된 가치는 그것의 강도가 사회적 표준 정도로부터 배리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노동일이 이제는 종전과 같이 불변의, 새로 창조된 가치로서가 아니라 가변의, 새로 창조된 가치로서 표현된다, 예컨대 보통 강도의 12시간 노동일은 6실링으로 표현되었는데, 강도가 보다 높은 12시간 노동일은 7실링, 8실링 등등으로 표현된다. 노동일에 새로 창조된 가치가 예컨대 6실링으로부터 8실링으로 변동한다면, 이 새로 창조된 가치의 두 구성 부분인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는 동일한 비율로서이든 각이한 비율로서이든 간에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

약 새로 창조된 가치가 6실링으로부터 8실링으로 증가한다면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는 동시에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로동력의 가격 증대는 그 가격의 가치 이상으로의 등귀와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로동력의 가치의 저락을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로동력의 가격의 증대가 로동력의 촉진된 소모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 폐외는 있지만 로동 생산 능력에 있어서의 변동이 로동력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따라서 잉여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해당 산업 부문의 생산물이 로동자의 일상적 소비로 들어 가는 경우에 있어서만이다. 이러한 제한은 이 경우에는 없어진다. 지출된 로동량이 외연적으로 변동하든 집약적으로 변동하든 간에, 이 양적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의 크기는 그 가치를 체현하는 물건의 본성에 관계 없이 변동하는 것이다.

로동 강도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동시에 또 동일한 정도로 높아지면 이 높아진 새 강도는 보통의 사회적 표준 정도로 될 것이며 따라서 외연적 크기로서는 더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이한 국민들에 있어서의 평균 로동 강도는 각이할 것이며 따라서 각이한 국민의 로동일들에 대한 가치 법칙의 적용을 수정할 것이다. 한 국민의 강도가 보다 높은 로동일은 다른 국민의 강도가 보다 낮은 로동일에 비하여 보다 큰 화폐액으로 표현된다¹².

12 《기타의 모든 제 조건이 같다면 영국의 공장주는 소여의 시간에 외국의 공장주에 비하여, 로동일의 차이 즉 영국에서의 매주 60시간과 외국에서의 72시간 내지 80시간 사이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만큼 현저히 많은 량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1855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65페이지). 대륙의 공장들에서의 법률에 의한 로동일의 보나 루 단축은 대륙의 로동 시간과 영국의 로동 시간 사이의 이 차이를 축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다.

Ⅲ. 노동 생산력 및 노동 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일이 가변인 경우

노동일은 두 개의 방향에서 변동될 수 있다. 그것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1) 소여의 제 조건하에서 즉 노동 생산력 및 노동 강도가 불변인 경우에 노동일의 단축은 노동력의 가치 따라서 필요 노동 시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잉여 노동과 잉여 가치를 감소시킨다. 후자의 절대적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그것의 상대적 크기 즉 노동력의 가치의 변함이 없는 크기에 대한 그것의 크기도 감소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격을 그것의 가치 이하로 저락시킴으로써만 이 경우에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일의 단축을 반대하는 전래의 관에 박힌 문구는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제 조건하에서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상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 생산 능력 및 노동 강도의 변동이 노동일의 단축에 선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곧 뒤따라 일어난다¹³.

(2) 노동일의 연장: 필요 노동 시간이 6시간 또는 노동력의 가치가 3실링이며 잉여 노동도 또한 6시간 잉여 가치도 3실링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노동일은 12시간이 되며 그것은 6실링이라는 새로 창조된 가치로 표현된다. 노동일이 2시간만큼 연장되고 노동력의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잉여 가치의 절대적 크기와 더불어 그것의 상대적 크기도 증가한다. 로

13 《10시간 노동일법의 작용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상쇄적인 제 사정이 있다》(《1848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7페이지).

동력의 가치는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감소한다. 제 1절에서 전제한 제 조건하에서는 로동력의 가치의 상대적 크기는 그것의 절대적 크기의 변동이 없이는 변동될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로동력의 가치의 크기의 상대적 변동은 잉여 가치의 크기의 절대적 변동의 결과이다.

로동일이 표현되는 새로 창조된 가치는 로동일 그 자체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므로 로동력의 가격과 잉여 가치는 증가분이 동등하든 동등하지 않은 간에 동시에 증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동시적인 증가는 두 경우에 즉 로동일의 절대적 연장의 경우와 이러한 연장이 없이 로동 장도가 증대되는 경우에 가능한다.

로동일이 연장됨에 따라 로동력의 가격은 비록 그것이 명목상 불변이거나 지어는 제고되더라도 로동력의 가치 이하로 저락될 수 있다. 즉 로동력의 일(日) 가치는 우리가 상기하는 바와 같이 그것의 표준 평균 지속 시간에 또는 로동자의 표준 생활 기간에 근거하여 그리고 또 표준적이며, 인간 본성에 적합한, 생명 실체의 운동으로의 전화에 근거하여 평가되어 있는 것이다¹⁴. 로동일의 연장과 불가분리로 발생하는 로동력의 소모는 일정한 점까지는 보상이 증대됨으로써 메꿀 수 있다. 이 점을 넘어 서면 소모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로동력의 재생산 및 활동의 일체의 표준 조건들이 파괴된다. 이 순간부터, 로동력의 가격과 그것의 착취도는 서로 교량(較量)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게 된다.

14 《24시간 동안에 사람이 지출한 노동의 양은 그의 체내에서 일어난 화학적 제 변화를 시험함으로써 근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질의 형태 변화는 그것에 선행하는 운동력의 지출의 지표로 되기 때문이다》(그로브 《육체적 힘들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Ⅳ. 노동의 지속 시간, 생산력 및 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명백히 많은 수의 배합이 가능하다. 세 개의 요인이 모두 동시에 변동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제 3의 요인은 불변인데 임의의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변동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동일한 정도로 또는 각이한 정도로 변동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또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 변동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상쇄된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은 제 1, 2, 3절에서 주어진 결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임의의 배합의 결과는 차례 차례로 한 요인은 가변이고 다른 두 요인은 우선 불변의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두 개의 중요한 경우에 관하여 간단히 지적하려 한다.

(1) 노동 생산력이 감소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

우리가 여기에서 노동의 생산력 감소에 관하여 말하면서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규정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 부문들이며 그리하여 폐컨대 토지 비옥도의 감소와 그에 따른 토지 생산물의 등귀의 결과로서의 노동 생산력의 감소이다. 노동일은 12시간이고 그 동안에 창조된 새로운 가치는 6실링이며 그 중 절반은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며 나머지 절반은 잉여 가치를 형성한다고 하자. 따라서 노동일은 6시간의 필요 노동과 6시간의 잉여 노동으로 나뉘어진다. 토지 생산물의 등귀의 결과 노동력의 가치가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따라서 필요 노동 시간이 6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증가된다고 하자. 노동일이 그대로 불변이라면 잉여 노동은 6시간으

로부터 4시간으로, 잉여 가치는 3실링으로부터 2실링으로 감소된다. 만약 노동일이 2시간 연장되어 12시간으로부터 14시간으로 된다면 잉여 노동은 그대로 6시간, 잉여 가치는 3실링이다. 그러나 필요 노동에 의하여 측정되는 노동력의 가치에 비하면 잉여 가치의 크기는 감소하고 있다. 만약 노동일이 4시간 연장되어 12시간으로부터 16시간으로 된다면 잉여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간,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간의 비율은 그대로 불변이지만 잉여 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잉여 노동의 크기는 6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즉 $\frac{1}{3}$, 또는 $33\frac{1}{3}\%$ 만큼 증가한다. 그리하여 노동 생산력이 감소되고 동시에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잉여 가치의 상대적 크기는 저락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절대적 크기는 그대로 불변일 수 있으며, 그것의 절대적 크기는 증대하는데 상대적 크기는 그대로 불변일 수 있으며 끝으로 일정한 정도로 노동일이 연장됨에 따라서는 잉여 가치의 상대적 크기와 절대적 크기가 동시에 증대될 수 있다.

1799년부터 1815년에 이르는 기간에 영국에서는 생활 수단의 가격이 등귀한 결과 생활 수단으로 표현된 실질 임금의 저락되었지만 로임의 명목적 등귀가 일어났다. 이로부터 웨스트와 리카드는 농업 노동의 생산 농물의 감소는 잉여 가치율의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들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이 가정을 로임, 리운 및 지대의 크기들의 호상 관계에 대한 중요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 있어서는 노동 강도의 제고와 노동일의 강제적 연장으로 인하여 잉여 가치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시지는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이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이며 ¹⁵ 일방으로는 자본의, 타방으로는 구휼민(救恤民)의 급

15 《곡물과 노동이 완전히 병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증언(證言)에

속한 증가에 의하여 특히 특징적인 시기였다¹⁶.

(2)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단축되는 경우.

노동 생산력의 제고와 노동 강도의 증대는 한 측면에서 보면 같은 작용을 한다. 량자는 모두 일정한 시간에 생산되는 생산물 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량자는 모두 노동자가 노동

서(즉 1814—1815년의 의회 조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로임의 저락을 초래하는 가격 등귀의 시기에 노동 제급에 의하여 수행된 비상한 노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개개인에 있어서는 가장 찬양할 일이며 또한 확실히 자본의 증가에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노력이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 구제책으로서 가장 찬양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단히 수행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국의 인구가 식량 압박의 극도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48페이지, 주). 리카도 및 기타가 노동일 연장의 극히 명백한 사실을 보면서도 노동일의 불변적 크기를 그들의 일체의 연구의 기초로 삼았는데 말사스가 그의 소책자의 다른 개소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노동일의 연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그의 명예이다. 그러나 말사스는 보수적 리해 관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계의 비상한 발전과 부인 및 아동 노동의 착취를 동시에 수반하는 노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이 노동 제급의 일대 부분을 《파잉》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전쟁 수요와 영국의 세계 시장 독점이 끝나자마자——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 《파잉 인구》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적 역사적인 자연 법칙들에 의하여 설명할 대신에 자연의 영원한 법칙들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편리하였던 것이며 또한 말사스가 참으로 숭배답게 우상(偶像)화한 지배 계급의 리해에도 대단히 적합하였던 것이다.

16 《전시중 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수가 많은 노동 제급의 보다 큰 노력과 그리고 아마도 보다 큰 궁핍에 있었다.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보다 많은 부인과 아동들이 힘든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종래의 노동자는 동일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간의 보다 큰 부분을 생산 증가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집, 현재의 국민적 고난의 주요 제 원인의 설명》, 런던, 1830년, 284페이지).

일 중 자기의 생활 수단 또는 그것의 등가물의 생산에 요하는 부분을 단축시킨다. 노동일의 절대적 최소 한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일의 이 필요 구성 부분——이것은 수축될 수 있지만——에 의하여 규정된다. 만약 전체 노동일이 이 최소 한계까지 위축한다면 잉여 노동은 소멸될 것이나 그러한 일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절되면 노동일은 필요 노동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기타의 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필요 노동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일방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이 보다 풍부하게 될 것이며 그의 생활상 수요가 장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방으로는 현재의 잉여 노동의 일부 즉 사회적 예비 фонд 및 축적 фонд의 조성을 위한 노동이 필요 노동으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력이 장성하면 할수록 노동일은 더욱 더 단축될 수 있으며 노동일이 단축되면 될수록 노동 강도는 더욱 더 증대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 생산 능력은 또한 노동의 절약에 따라서도 증대한다. 노동의 절약은 생산 수단의 절약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체의 무용한 노동의 제거도 포함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매개의 개별적 기업소에서는 절약을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정부적 경쟁 체제는 사회적 생산 수단 및 노동력의 무제한한 낭비를 초래하며 또한 현재는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필요한 다수의 기능(機能)들을 발생시킨다.

노동 강도와 노동의 생산력이 소여의 것일 때에는 노동이 사회의 모든 노동 능력 있는 성원들 간에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사회층이 노동의 자연적 필요를 자신들로부터 다른 사회층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적 노동일 중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보다 짧아지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및 사회적 활동

을 위하여 남는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동일 단축의 절대적 한계는 노동의 전반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계급의 자유로운 시간은 대중의 전체 생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전화함으로써 조성된다.

제 16 장 잉여 가치률의 각이한 공식

이미 본 바와 같이 잉여 가치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들에 의하여 표시된다.

$$(1) \frac{\text{잉여 가치}}{\text{가변 자본}} \left(\frac{\text{III}}{\text{V}} \right) = \frac{\text{잉여 가치}}{\text{로동력의 가치}} = \frac{\text{잉여 로동}}{\text{필요 로동}}$$

처음 두 공식은 가치와 가치간의 비율로서 표시되는데 제 3의 공식은 이 가치들이 생산되는 시간과 시간간의 비율로서 표시된다. 호상 대체되는 이 공식들은 완전한 논리적 엄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고전 정치 경제학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나 사실상으로는 이미 작성된 것을 본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파생적 공식들에 봉착한다.

$$(2) \frac{\text{잉여 로동}}{\text{로동일}} = \frac{\text{잉여 가치}}{\text{생산물의 가치}} = \frac{\text{잉여 생산물}}{\text{총생산물}}$$

여기에서는 동일한 비율이 번갈아 로동 시간의 형태로, 로동 시간이 체현되는 가치의 형태로, 이 가치가 존재하는 생산물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생산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로동일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생산물 가치의 불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공식들에서 로동의 현실적 착취도 또는 잉여 가치률이 부당하게 표현되고 있다. 로동일이 12시간이라고 하자.

기타의 모든 가정들은 종래의 예와 같다면 이 경우에 노동의 현실적 착취도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표시된다.

$$\frac{6시간의 잉여 노동}{6시간의 필요 노동} = \frac{3실링의 잉여 가치}{3실링의 가변 자본} = 100\%$$

그런데 공식 (2)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rac{6시간의 잉여 노동}{12시간의 노동일} = \frac{3실링의 잉여 가치}{6실링의 새로 창조된 가치} = 50\%$$

이 파생적 공식들이 사실상 표현하는 것은 노동일 또는 그것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가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분배되는 비율이다. 따라서 만약 이 공식들이 자본의 자기 증식도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타당하다면, 잉여 노동 또는 잉여 가치가 결코 100%에는 달할 수 없다는 그릇된 법칙이 타당한 것으로 된다¹⁷. 잉여 노동은 언제나 노동일의 일부분만을 이룰 수 있으

17 베컨대 《로드베르투스의 폰 키르호만에게 보내는 제 3서한,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 및 신지대론의 건설》(베를린, 1851년) [K. 로드베르투스 《경제학 전집, 폰 키르호만에게 보내는 사회적 서한, 제 3서한》, 로썸야어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6년, 226—426페이지]에 있어서 그러하다. 나는 후에 다시 이 저서에 관하여 논급하겠지만 이 저서는 그것의 그릇된 지대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옳게 통찰하고 있다 {제 3판 추가——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맑스는 그의 선행자들에게서 현실적 진보와 정당한 새로운 사항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극히 호의적으로 대하였다. 그런데 맑스의 상기 평가는 그후 루트르프 마이어에게 보내는 로드베르투스의 서한의 발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삭감되었다. 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자본을 노동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도 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와 같은 구제는 사실상 기업가인 자본가의 활동을, 그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고 있는 인민 경제적 또는 국가 경제적 기능으로 간주하며 그의 수입을 봉급의 한 형태로서——왜냐 하면 우리는 아직 다른 사회적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간주할 때 가장 잘 실시된다. 그러나 봉급은 조절되어야 하며 또 로임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탈취할 때에는 그것을 인하시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맑스의 사회에 대한 공격——나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도 방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맑스의 저서는 자본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자본 형태에 대한 론박이며 그는

며 또는 잉여 가치는 언제나 새로 창조된 전체 가치의 일부분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잉여 노동은 언제나 전체 노동일보다 적지 않을 수 없으며 또는 잉여 가치는 언제나 새로 창조된 전체 가치보다 적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들이 $100/100$ 이라는 비율이 되려면 그것들은 동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잉여 노동이 전체 노동일을 흡수하려면(여기에서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노동주, 노동년 등등의 평균일이다) 필요 노동이 령(零)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 노동이 소멸하면 잉여 노동도 소멸한다, 왜냐 하면 후자는 전자의 한계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rac{\text{잉여 노동}}{\text{노동일}} = \frac{\text{잉여 가치}}{\text{새로 창조된 가치}}$ 라는 비율은 결코 $100/100$ 이라는

한계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물며 $\frac{100+X}{100}$ 으로 높아질 수 없다.

그러나 잉여 가치를 또는 노동의 현실적 착취도는 이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헤친대 L. 드 라베르뉴씨의 계산에 의하면 영국 의 농업 노동자는 생산물 또는 그것의 가치의 불과 $1/4$ 을 받는 데 자본가(차지 농업가)는 $3/4$ ——이 획득물이 추후에 자본가화 토지 소유자 등등 간에서 다시 어떻게 분배되든 간에——을 18 받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영국 농업 노동자의 잉여 노동은 그의 필요 노동에 대한 비율은 3:1이며 착취의 백분율은

이 자본 형태를 자본 개념 그 자체와 혼동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그의 모든 오류가 나오고 있다》(《로드베르투스—야게초호 박사의 서한, 루트호프 마이어 박사편》, 베를린, 1881년, 제 1권, 111페이지, 로드베르투스의 제 48 서한). 이와 같은 판명적인 판에 박힌 문구 속에 로드베르투스의 《사회적 서한》의 실로 대담한 물결은 매몰되고 말았다——(F. Engels).

18 물론 이 계산에서는 생산물 중 불변 자본의 지출을 보상할 때 투입 부분은 제외되고 있다. 영국에 대한 맹목적 찬미자인 L. 드 라베르뉴씨는 이 비율을 과대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다.

300%이다.

로동일을 불변의 크기로서 간주하는 고전 경제학파의 방법은 공식 (2)를 적용함으로써 확고한 것으로 되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잉여 로동은 언제나 소여의 크기의 로동일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새로 창조된 가치의 분배만이 안중에 있을 때 도 마찬가지다. 새로 창조된 가치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로동일은 언제나 소여의 한계를 가진 로동일이다.

잉여 가치 및 로동력의 가치를 새로 창조된 가치의 부분들로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의의는 후에 해명하겠지만 그 표현 방법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독특한 성격을 즉 가변 자본이 산 로동력과 교환되며 그에 따라 로동자는 생산물로부터 배제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 사실 대신에 자본가와 로동자가 생산물의 형성에 각자가 참가한 몫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조합적 관계인 듯한 그릇된 외관이 나타난다¹⁹.

또한 공식 (2)는 언제나 공식 (1)으로 재전화될 수 있다.

때컨대 $\frac{6\text{시간의 잉여 로동}}{12\text{시간의 로동일}}$ 이면 필요 로동 시간은 12시간의 로동일에서 6시간의 잉여 로동을 감한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frac{6\text{시간의 잉여 로동}}{6\text{시간의 필요 로동}} = \frac{100}{100}$$

내가 때때로 이미 앞질러 언급한 제 3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9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일체의 발전된 형태들은 협업 형태로 모로 물론, 그 형태들에 고유한 적대적 성격을 사상하고 그것들을 자유로운 조합적 형태로 묘사하는 것처럼 용이한 일은 없다. 때컨대 A·도타보르트 백(伯)은 《공동 단체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협동적 정신에 대하여》(파리, 1818년)에서 그렇게 하였다. 앙키인 H·케어리는 때로는 노예 제도의 제 관계에 대하여서까지 이 재간을 부려 동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3) \quad \frac{\text{잉여 가치}}{\text{로동력의 가치}} = \frac{\text{잉여 로동}}{\text{필요 로동}} = \frac{\text{부지불 로동}}{\text{지불 로동}}$$

$\frac{\text{부지불 로동}}{\text{지불 로동}}$ 이라는 공식은 자본가가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고 로동력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은 이미 서술한 바에 의하여 제거되어 있다. $\frac{\text{부지불 로동}}{\text{지불 로동}}$ 은 다만 $\frac{\text{잉여 로동}}{\text{필요 로동}}$ 에 대한 통속적 표현에 불과하다. 자본가는 로동력의 가치 또는 이로부터 배리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 대신 산 로동력 자체에 대한 처분권을 얻는다. 자본가에 의한 이 로동력의 리용은 두 기간으로 나뉘어진다. 한 기간에는 로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만을, 따라서 등가만을 생산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가는 전대한 로동력의 가격 대신에 동일한 가격의 생산물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자본가가 기성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한 것과 같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 로동의 기간에는 로동력의 리용은 자본가를 위한 가치를 조성하는데 자본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하한 가치도 지불하지 않는다²⁰. 이 경우에 그는 로동력의 이 지출을 무상으로 획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잉여 로동을 부지불 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은 A·스미쓰가 말하는 바와 같이 로동에 대한 지휘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지불 로동에 대한 지휘이다. 일체의 잉여 가치는 그것이 후에 이르러 리윤, 리자, 지대 등등의 어떠한 특수한 모습으로 결정(結晶)된

20 중농학파는 비록 잉여 가치의 비밀을 해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잉여 가치가 《그것의 소유자가 사지는 않았는데 팔게 되는, 독립적이며,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부》라는 것만은 명백하였다 (루트코 《부의 형성 및 분배에 관한 고찰》, 11페이지).

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의 실제로 보아 부지불 노동 시간의 물질화이다. 자본의 자기 증식의 비밀은 이것을 해명하고 보면 자본이 일정한 양의 타인의 부지불 노동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데 있다.

제 6 편

로 임

제 17장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로임에로의 전화

부르조아 사회의 표면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지불은 노동의 가격이라는 형태로, 일정한 량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일정한 량의 화폐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 노동의 가치에 관하여 운운하며 그것의 화폐적 표현을 노동의 필요 가격 또는 자연 가격이라고 부른다. 타방으로 노동의 시장 가격 즉 그 필요 가격의 아래 위로 동요하는 가격에 관하여 운운한다.

그런데 대체 상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의 대상적 형태이다. 우리는 이 가치의 크기를 무엇으로써 측정하는가?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크기에 의하여서이다. 그러면 레컨대 12시간 노동일의 가치는 무엇으로써 규정할 수 있겠는가? 12시간 노동일에 포함되는 12시간 노동에 의하여서만 규정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무미 건조한 등의 반복이다²¹.

21 《리카도씨는 가치는 생산에 지출된 노동의 량에 의존한다는 그의 이론에 일견해서 맞췄'거리로 될 우여가 있는 하나의 난점을 대단히

로동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노동은 물론 판매되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에 자립적 존재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는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상품을 팔 것이지 로동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²².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은 도외시하고라도 화폐 즉 물체화된 노동과 산 노동의 직접 교환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이 전개되는 가치 법칙을 폐절하든가 또는 바로 고용 노동에 립각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폐절할 것이다. 폐컨대 12시간 노동일이 6실링의 화폐 가치로 표시된다고 하자. 우선 등가물들이 교환된다고 하면 노동자는 자기의 12시간 노동에 대하여 6실링을 받을 것이다. 그의 노동의 가격은 그의 노동 생산물의 가격과 동등할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자기 노동의 구매자를 위하여 어떠한 잉여 가치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이 6실링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을 것이며 그

재치 있게 회피하고 있다. 만약 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노동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노동량에 의존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리카도는 교묘하게 말을 물리며 노동의 가치를 로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존시킨다. 즉 그 자신의 말대로 한다면 노동의 가치는 로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그가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가 받는 화폐 또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다——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천(布)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천과 교환되는 은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가치의 본성……에 관한 비판적 논술》, 50, 51페이지).

22. 《당신들이 노동을 상품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은 처음에 교환하기 위하여 생산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매마침 있는 다른 상품들과 일정한 양물로서 교환되어야 하는 상품과는 다르다. 노동은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오는 순간에 창조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동은 그것이 창조되기 전에 시장에 가지고 오게 된다》(《약간의 어구상 논쟁에 관한 고찰》, 75, 76페이지).

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자체가 소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기초 위에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며 바로 이 기초 위에서 그의 노동은 고용 노동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에 노동자가 12시간 노동에 대하여 6실링보다 적게 즉 12시간 노동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12시간 노동이 10시간, 6시간 등등의 노동과 교환된다. 동등하지 않은 크기들의 이러한 등치는 다만 가치의 규정을 폐절할 뿐만 아니다. 자기 자체를 폐절하는 그러한 모순은 무릇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정식화할 수 없다²³.

보다 많은 량의 노동과 보다 적은 량의 노동과의 교환을, 한 편에는 대상화된 노동, 다른 편에는 산 노동이 있다는 형태상의 차이로부터 끌어 내려는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²⁴. 이것은 더군다나 상품의 가치가 그 속에 실제로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산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만큼 더욱 불합리하다. 상품이 6노동 시간을 표시한다고 하자. 만약 3시간에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반으로 저하될 것이다. 이제는 이 상품은 이전의 6시간 대신에 3시간의 사회적 필요 노동만을 표시한다. 그리하여 상

23 《만약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노동 생산물인 자본을 다른 상품으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 이 두 상품들의 가치가 동등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소여의 노동량은…… 그것과 동일한 량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자본량과 교환될 것이다. 과거 노동이…… 그것과 동일한 량의 현재 노동과 교환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가치와 동등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E·G·웨크필드 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런던, 1836년, 제 1권, 231페이지, 주).

24 《과거 노동과 미래 노동이 교환될 때마다 후자(자본가)가 전자(노동자)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받게 된다는 것 《사회 계약》의 또 하나의 변종이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시몽 드 시스몬디, 《상업적 부에 관하여》, 제네바, 1803년, 제 1권, 37페이지).

품 가치의 크기는 노동의 물체적 형태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상품 시장에서 화폐 소유자에게 직접 대립하는 것은 사실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다. 후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그의 노동력이다. 그의 노동이 현실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그것은 벌써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의하여 더는 판매될 수 없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實體)이며 또 내재적 척도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²⁵.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에서는 가치의 개념이 전혀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립물로 전화된다. 이것은 폐권대, 토지의 가치와 같이 가상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의 표현들은 생산 제 관계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그것들은 본질적 제 관계의 현상 형태들을 위한 범주들이다. 현상에 있어서는 사물이 흔히 거꾸로 표시된다는 것은 정치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학들에서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²⁶.

25 《가치의 유일한 척도인 노동은…… 모든 부의 창조자이지만 그 자체는 상품이 아니다》(토마스 호지스킨 《통속 정치 경제학》 186페이지).

26 이와 반대로 그러한 표현들을 단순한 시적 파괴(詩的 破格)(*Illicitia poetica*)이라고 설명하려는 기도는 분석에서의 무능력을 증시한다.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품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노동이 그 자체 속에 가치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가상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운운》이라는 프루동의 말에 반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둔다. 《무슨 현실인 노동—상품에 있어서 그는 문법적 생략(省略) 밖에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동의 상품적 성격에 기초하는 전체 근대 사회가 이제부터는 시적 파괴, 비유적 표현에 기초하는 것으로 선포된다. 그리하여 만약 이 사회가 그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모든 재역을 근절시키려고〉 원한다면——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회로 하여금 다만 부정확한 용어들을 근절시키며, 언어를 변경케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아카데미야에 신평 사전을 발간하도록 부탁하면 될 것이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31, 315페이지) [K. 맑스, F. 엥겔스 전집,

고전 정치 경제학은 일상 생활로부터 《로동의 가격》이라는 범주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채용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가격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수요 공급 관계에 있어서의 변동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동의 가격에 있어서도 그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 즉 시장 가격이 일정한 크기의 상하로 동요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면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할 때에는 가격의 동요는 정지한다. 그러나 그 때에는 수요와 공급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게 된다. 로동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에는 수요 공급 관계에 상관 없이 규정되는 로동의 가격 즉 자연 가격이다. 그리하여 이 《자연》 가격이 본래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는 다소간 긴 기간 때컨대 1년 동안의 시장 가격의 동요를 고찰한다면 상하로의 그것의 배리들은 서로 상쇄되어 어떠한 평균적인 불변의 크기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평균적인 크기는 물론 그 자체로부터의, 호상 상쇄되는 배리들과는 달리 규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로동의 우연적인 시장 가격들을 지배하며 그것들을 조절하는 이 가격 즉 소위 로동의 《필요 가격》(중농주의자들) 또는 《자연 가격》(아담 스미쓰)은 다른 상품들과서와

로써야어판, 제 5권, 321페이지 참조]. 《가치》라는 용어에서 전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더욱 편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범주에 아무 것이나 다 제멋대로 집어 넣을 수 있다. 때컨대 J.B. 세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가치》란 대체 무엇인가? 대답: 《소여의 물건이 값이 되는 그것이다》. 또 《가격》이란 대체 무엇인가? 대답: 《소여의 물건의, 화폐로 표현된 가치이다》. 그런데 토지의 로동이…… 왜 가치를 갖는가? 《그것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을 붙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치는 물건이 값이 되는 그것이며, 토지는 그것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이렇든 사물의 원인과 발생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임에 틀림 없다.

마찬가지로 화폐로 표현된 노동의 가치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정치 경제학은 노동의 우연적인 가격들을 뚫고 나가 그것의 가치에까지 도달하려고 타산하였다. 이 가치는 다른 상품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후에 다시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산비 즉 노동자 자신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정치 경제학에 대하여 무의식중에 최초의 문제와 바뀌어졌다. 왜냐 하면 정치 경제학은 노동 그 자체의 생산비를 문제로 함으로써 학순환에 빠지고 거기에서 빠져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학이 노동의 가치(value of labour)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노동력의 가치이다. 이 노동력은 노동자의 인물 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마치도 기계가 그것의 조작들과 다르듯이 그 자체의 기능인 노동과는 다른 것이다. 경제 학자들은 노동의 시장 가격과 그것의 소위 가치간의 차이라든가 리윤률에 대한, 그리고 노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 가치 동등에 대한 이 가치의 관계라든가에 열중한 나머지 분석의 행정이 노동의 시장 가격으로부터 그것의 가상의 《가치》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의 가치 자체를 이번에는 노동력의 가치에 귀착시키는 데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간파한 일이 결코 없다. 또한 정치 경제학은 자기 자신의 분석의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과, 또 문제로 되고 있는 가치 관계의 최종적인 적합한 표현으로서 《노동의 가치》, 《노동의 자연 가격》 등등의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하였던 까닭에 우리가 후에 보는 바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혼란과 모순들 속에 빠져 비뚤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현상의 외관만을 인정하는 속류 경제학의 천박성을 위하여 튼튼한 근거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면 우선 노동력의 가치 및 가격이 어떻게 도입으로서

의 그것들의 전화된 형태로 표시되는가를 보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일(日) 가치는 노동일의 일정한 길이가 대응하는 노동자의 생명의 일정한 지속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보통의 노동일은 12시간 계속되고 노동력의 일 가치는 6노동 시간이 체화되고 있는 가치의 화폐적 표현인 3실링이라고 가정하자. 노동자가 3실링을 받는다면 그는 12시간 동안 기능하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받는 것이다. 이제 노동력의 이러한 일 가치가 일(日) 노동의 가치로서 표현된다면 12시간 노동은 3실링의 가치를 갖는다는 공식이 나온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 또는 화폐적 표현으로 그것의 필요 가격을 규정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그것의 가치로부터 배리한다면 노동의 가격도 역시 그것의 소위 가치로부터 배리한다.

노동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를 의미하는 불합리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의 가치가 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는 가치보다 언제나 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 하면 자본가는 항상 노동력이 그 자체의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기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때에는 12시간 동안 기능하는 노동력의 가치는 3실링으로서 이 가치의 재생산을 위하여는 노동력이 6시간 기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로 창조된 가치는 6실링이다. 왜냐 하면 노동력은 사실상 12시간 기능하였으며 노동력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는 노동력 자체의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는 시간의 길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6실링의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그 자체가 3실링의 가치를 갖는다는 일전하여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한다²⁷.

27 《정치 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40페이지 참조. 거기서 나는 자본의 고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또 아다실이 노동일의 지불되는 부분 즉 6시간 노동이 표시되는 3실링의 가치는 지불되지 않는 6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12시간 노동일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도입의 형태는 노동일의,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의 또 지불 노동과 부지불 노동으로의 분할의 모든 흔적을 소멸케 한다. 전체 노동이 지불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부역 노동에 있어서는 농노적 농민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지주를 위한 강제 노동과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명확히 감성적으로 구별된다. 노예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일 중 노예가 자기 자신의 생활 수단들의 가치만을 보상하며 그리하여 사실상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는 부분까지도 주인을 위한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그의 전체 노동은 부지불 노동으로서 나타난다.²⁸ 고용 노동에 있어서는 거꾸로 잉여 노동 즉 부지불 노동까지도 지불 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전자에 있어서는 소유 관계가 노예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을 엄폐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화폐 관계가 고용 노동자의 무상 노동을 엄폐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 및 가격이 도입의 형태로 또는 노동 자체의 가치 및 가격의 형태로 전회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이 리해된다. 현실적 관계를 엄폐하며 그와 정반대되는 관계를 표시하는 이 현상 형태는 노동자 및 자본가의 모든 법률적 표상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모든

하였다——「다만 노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교환 가치에 기초한 생산이 어떻게 하여 노동의 교환 가치가 그 생산물의 교환 가치보다 더 적다는 결과를 가져 오는가?」[K.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프.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 12권, 제 1부, 49페이지 참조].

28 런던의 자유 무역론자들의 어리석음만큼 소박한 기관지인 《모닝 스타》지는 미국의 공민 전쟁 시기에 남부 제 주에서 흑인들이 전혀 무상으로 노동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노력적 격분으로써 무차 비난 공격하였다. 그러한 흑인의 하루 비용과 떼컨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의 자유 노동자의 그것과를 대비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신비화, 이 생산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유의 환상들, 즉 류 경제학의 모든 변호론적 공담들의 기초이다.

로임의 비밀을 폭로하는 데 세계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면 이와 반대로 이 현상 형태의 필연성, 존재 이유를 이해하기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자본과 노동간의 교환은 최초에는 모든 다른 상품의 구매 및 판매와 전혀 동일하게 지각(知覺)된다. 구매자는 일정한 화폐액을 주고 판매자는 화폐와는 다른 물건을 준다. 법률적 의식은 이 경우에 기껏해야 법적으로 등치(等置)한 공식들 즉 《네가 주도록 나는 준다》, 《네가 하도록 나는 준다》, 《네가 주도록 나는 한다》 및 《네가 하도록 나는 한다》에서 표현되는 소재(素材)적 차이를 인식할 뿐이다.

또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는 그것들 자체로서는 교량(較量)될 수 없는 크기들이므로 《로동의 가치》, 《로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폐컨대 《면화의 가치》, 《면화의 가격》이라는 표현보다 더 불합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또 노동자는 그가 자기 로동을 제공한 후에야 지불된다는 사정이 첨가된다. 그런데 화폐는 그것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제공된 물건의 가치 또는 가격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공된 로동의 가치 또는 가격을 추후에 실현시킨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사용 가치》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의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력의 기능, 일정한 유용 로동 즉 재봉사, 제화공, 방직공 등등의 로동이다. 동일한 로동이 타 방으로는 가치를 창조하는 일반적 요소이라는 사정은 로동을 기타 모든 상품들로부터 구별케 하는 속성인데 이 사정은 보통의 의식의 영역에는 들어 오지 않는다.

폐컨대 12시간 로동에 대하여, 6시간 로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 즉 3실링을 받는 노동자의 틈장에서 본다면 그에 있어서는 사실상 12시간 로동이 3실링의 구매 수단이다. 그의

노동력의 가치는 그의 일상 생활 수단들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3실링으로부터 4실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또는 3실링으로부터 2실링으로 변동될 수 있다. 또한 그의 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그것의 가격은 수요 공급 관계의 변동의 결과 4실링으로 제고되거나 또는 2실링으로 저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노동자는 언제나 12시간 로동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등가물의 크기에 있어서의 모든 변동이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그의 12 로동 시간의 가치 또는 가격의 변동으로서 나타난다. 이 사정은 노동일을 불변한 크기로서 고찰하는 아담 스미쓰로 하여금 ²⁹ 거꾸로 생활 수단들의 가치가 변동하고 따라서 또 동일한 노동일이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화폐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노동의 가치는 불변이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게 하였다.

타방으로 자본가를 보자. 그는 무엇보다도 되도록 적은 양의 화폐로써 되도록 많은 로동을 받으려 한다. 그러므로 실제 그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다만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력의 기능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간의 차이이다. 그런데 그는 모든 상품들을 되도록 저렴하게 사려고 애쓰며, 또 언제나 자신의 리윤의 원천을, 가치 이하로의 구매 및 가치 이상으로의 판매라는 단순한 사취(詐取)로써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만약 노동의 가치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리하여 그가 이 가치를 현실적으로 지불한다면,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의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위에 또 로임의 현실적 운동은 노동력의 가치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 즉 로동 자체의 가치가 지불된다.

29 A·스미쓰는 도급제 임금(개수 임금)을 논하는 기회에 우연적으로 노동일의 변동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여 준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두 개의 큰 부류에로 귀착시킬 수 있다. 첫째로——로동일의 길이의 변동에 따른 로임의 변동. 그렇면 기계는 1주일 간 빌리면 하루 빌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불되는 것은 기계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의 조작의 가치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이한 로동자들의 로임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어떠한 환상의 여지도 없으며, 로동력 자체가 아무런 분식도 없이 전혀 공공연히 판매되는 노예 로동 제도하에서도 발견한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고용 로동 제도하에서는 로동력이 로동자 자신에 의하여 판매되는데 노예 제도하에서는 제 3자에 의하여 판매되므로 로동력의 길이 평균 이상이 됨으로써 나오는 리득과 평균 이하가 됨으로써 나오는 손실이 노예 제도하에서는 노예 소유자의 것으로 되는데 고용 로동 제도하에서는 로동자 자신의 것으로 되는 점이다.

하여튼 모든 현상 형태들과 그것들의 은폐된 배경(背景)에 관하여 타당한 것이 발현하는 본질적 제 관계와 구별되는 《로동의 가치 및 가격》 또는 《로임》과 같은 현상 형태에 관하여도 타당한다. 현상 형태들은 통속의 사유 형태로서 직접 자연 발생적으로 재생산되나 은폐된 배경은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비로소 폭로될 수 있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사물의 진상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정식화하지 않고 있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그 부르주아적 외피를 내던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 18 장 시간제(時間制) 임금

로임 그 자체는 또 대단히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는바, 이 사정은 소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모든 형태상 차이들을 등한시하는 정치 경제학 입문서들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 그렇지만 이 모든 형태들의 서술은 고용 노동에 관한 전문적 리론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저작의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개의 지배적인 기본적 형태들은 여기에서 간단히 고찰해야 한다.

우리가 상기하는 바와 같이 노동력은 항상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판매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일가치, 주가치 등등이 직접 표시되는, 전화된 형태는 《시간제 임금》의 형태, 즉 일임금 등등이다.

그러면 우선 지적할 것은 제 15장에서 서술된, 노동력의 가격 및 잉여 가치의 크기의 변동에 관한 법칙들은 간단한 형태 변화에 의하여 로임의 법칙들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교환 가치와 그것이 전환되는 생활 수단의 양간의 차이는 이제는 명목 로임과 실질 로임간의 차이로서 나타난다. 본질적 형태에서 이미 서술한 모든 것을 현상 형태들에서 반복하는 것은 무용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제 임금을 특징 짓는 약간의 점들에 국한하자.

노동자가 자신의 일(日), 주 등등의 노동에 대하여 받는 화폐액은 ³⁰ 그의 명목 로임액 즉 가치 표현으로서의 로임액을

30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여기에서는 언제나 불변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룬다. 그러나 노동일의 길이에 따라 즉 매일 그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량에 따라 동일한 일임금, 주임금 등등이 대단히 상이한 노동의 가격을, 즉 동일한 노동량에 대한 대단히 상이한 화폐액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³¹. 그리하여 시간제 임금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일임금, 주임금 등등의 로임 총액과 노동의 가격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가격 즉 소여의 노동량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노동의 평균 가격은 노동력의 평균 일가치를 평균 노동일의 시간수로 제하면 나온다. 페컨대 노동력의 일가치는 6 노동 시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인 3실링이고 노동일은 12시간 계속된다고 하면 그 때에는 1 노동 시간의 가격 = $\frac{3\text{실링}}{12} = 3\text{펜스}$ 이다. 이와 같이 하여 발견되는 1 노동 시간의 가격은 노동의 가격의 측정 단위로 된다.

이로부터 노동의 가격이 부단히 저락되더라도 일임금, 주임금 등등은 그대로 동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페컨대 보통의 노동일이 10시간이었으며 노동력의 일가치가 3실링이었다면 1 노동 시간의 가격은 3 $\frac{3}{4}$ 펜스였는데, 이 가격은 만약 노동일이 12시간으로 늘면 3펜스로 저락되고, 만약 노동일이 15시간으로 늘면 2 $\frac{2}{5}$ 펜스로 저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그대로 불변이다. 거꾸로 노동의 가격이 그대로 불변이든가 지어 저락되더라도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증대될 수 있다. 페컨대 노동일이 10시간이었으며 노동력의 일가치가 3실링이라면 1 노동 시간의 가격은 3 $\frac{3}{4}$ 펜스이다. 노동자가 취업이 연장된 결과 동일한 노동 가격으로 하루에 12

31 《노동의 가격이란 소여의 노동량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이다》(씨 에드워드 웨스록 《곡물 가격과 로임》 런던, 1836년, 67페이지). 웨스록은 영국의 경제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네명 저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논술, 옥스포드 종합 대학의 한 교우(校友)의 저》(런던, 1815년)의 저자이다.

시간 로동한다면 그의 일임금은 이제는 로동의 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도 3실링 7 $\frac{1}{8}$ 펜스로 증대된다. 로동의 외연적(外延的) 크기가 아니라 집약적(集約的) 크기가 증대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³². 그러므로 명목적 일임금 또는 주임금의 제고는 불변한 또는 지어 저락된 로동의 가격을 동반할 수 있다. 로동자 가족의 수입에 대하여도, 가장(家長)에 의하여 제공되는 로동량이 가족의 다른 성원들의 로동에 의하여 증대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명목적인 일임금 또는 주임금의 감소에 의존하지 않고 로동 가격을 저락시키는 방법들이 존재한다³³.

일반적 법칙은 다음과 같다——일로동량, 주로동량 등등이 주어져 있다면,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로동의 가격에 의존하

32 《로임은 로동의 가격과 수행되는 로동량에 의존한다……로임의 증가는 반드시 로동의 가격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임이 연장되고 또 긴장도가 높아지면, 로임은 로동의 가격이 계속 동일하더라도 현저히 증가될 수 있다》(웨스트 《곡물 가격과 로임》, 런던, 1826년, 67 및 112페이지). 그런데 웨스트로는 《로동의 가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주되는 문제는 평범한, 판에 박힌 문구로써 처리하고 있다.

33 18세기 산업 부르주아지의 가장 열광적인 대표자이며 우리가 종종 인용한 《상공업에 관한 논술》의 저자는, 비록 그가 문제를 극히 혼란되게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당하게 알아 차리고 있다——《식량 기타 필수품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로동의 양이고 로동의 가격(그는 이 말로써 명목적인 일임금 또는 주임금을 말하고 있다)이 아니다. 필수품의 가격을 대단히 인하시키라, 그러면 물론 그에 비례하여 로동의 양이 감소된다…… 공장주들은 로동의 가격을 그 명목액에 의존하지 않고 등락시키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동상서, 48 및 61페이지). N·B·시노어는 자기의 저서 《임금률에 관한 3강의》(런던, 1830년) 중에서 웨스트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저술을 차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로동자는…… 주로 임금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15페이지). 그리하여 로동자에게 주로 관심사로 되는 것은 그가 받는 것, 즉 명목 임금액이지, 그가 주는 것, 즉 로동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 로동의 가격 그 자체는 로동력의 가치의 변동 또는 로동력의 가격의 그것의 가치로부터의 배리에 따라 변동한다. 만약 그와는 반대로 로동의 가격이 주어져 있다면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일로동량 또는 주로동량에 의존한다.

시간제 임금의 측정 단위인 로동 시간의 가격은 로동력의 일가치를 보통의 로동일의 시간수로 제한 것이다. 로동일은 12시간, 로동력의 일가치는 6 로동 시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인 3실링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로동 시간의 가격은 3펜스이며, 그것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는 6펜스이다. 만일 이제 노동자가 하루에 12시간 이하를(또는 일주일에 6일 이하를) 페컨대 6 또는 8시간만을 일하게 된다면 그는 이 로동 가격하에서는 다만 2 또는 1 $\frac{1}{2}$ 실링의 일임금을 받는다³⁴. 우리가 전제한 바에 의하면 노동자는 그의 로동력의 가치에 대응하는 일임금을 생산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평균 6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동일한 전제에 의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매개 로동 시간의 반만을 소비하고 다른 절반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 까닭에, 그는 12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는 6시간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불 벌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앞에서는 우리는 파도 로동의 파피적 결과들을 보았는바, 여기에서는 노동자에 있어서 불완전 취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원천이 폭로된다.

34 이러한 비정상적인 불완전 취업의 영향은 로동일의 전반적, 강제법적 단축의 영향과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로동일의 절대적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또 15시간 로동일하에서나, 6시간 로동일하에서나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로동의 정상적 가격은 첫째 경우에는 노동자는 하루에 평균 15시간 일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계산되며, 둘째 경우에는 평균 로동일이 6시간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첫째 경우에는 노동자가 하루에 7 $\frac{1}{2}$ 시간만을 취업시켜지고, 둘째 경우에는 3시간만을 취업시켜진다면 영향은 그대로 동일하다.

만약 시간 임금이 확정되어 자본가는 일정한 일임금 또는 주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되고, 다만 노동자들을 취업시키는 데 그의 마음에 드는 만큼의 노동 시간들에 대하여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최초로 시간 임금 즉 노동 가격의 측정 단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된 노동일의 길이보다 축소시킬 수 있다. 이 측정 단위는

$\frac{\text{노동력의 일가치}}{\text{소여 시간수의 노동일}}$ 라는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노동일이

자체 속에 일정한 시간수를 포함하지 않게 되자마자 그것이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불 노동과 부지불 노동간의 편계가 폐절된다. 이제는 자본가는 노동 시간을 노동자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정도도 허용함이 없이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 가치를 짜 낼 수 있다. 그는 취업의 모든 규칙성을 파괴하고 다만 자신의 편리, 자의(恣意) 및 순간적 이익에 따라 혹독한 과도 노동의 시기를 상대적 실업 또는 지어 완전 실업의 시기로 교체시킬 수 있다. 그는 《로동의 정상적 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하에, 노동자에게 어떠한 해당하는 보상도 없이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런던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시간 임금을 강요하려는 자본가들의 기도를 반격하여 봉기한 것은(1860년) 완전히 합리적이었다. 노동일의 법적 제한은 물론 그것이 기계의 경쟁,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자격의 변화, 부분적 및 전반적 공황들로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완전 취업에 종말을 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잔혹한 것에 종말을 고하게 한다.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증대되는 조건하에서, 노동의 가격은 명목상으로는 그대로 불변일 수 있으며 또 불변이면서도 그것의 정상적 수준 이하로 저락될 수 있다. 이것은 노동 가격 또는 1 노동 시간의 가격이 불변이고 노동일이 그것의 보통 길

이 이상으로 연장될 때 언제나 일어 난다. 만약 로동력의 일가치
로 동 일
 라는 분수에서 분모가 장성하면 분자는 더 빨리 장성한다. 로
 동력의 가치는 로동력의 기능 시간의 증대에 따라 그것의 소모
 가 증대하는 까닭에 증대하며 또 그 기능 시간의 증가보다도
 더 빠른 비율로 증대한다. 이 결과 로동 시간에 대한 법적 제
 한이 없이 시간제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산업 부문들에
 서는 로동일을 일정한 점까지만, 페컨대 10시간이 끝나는 때까
 지만 표준적인 것(《표준 로동일》《normal working day》, 《하
 루 작업》《the day's work》, 《정규적 로동 시간》《the regular
 hours of work》)을 간주하는 관습이 자연 발생적으로 수립되었
 다. 이 한계를 넘는 로동 시간은 초과 시간(《overtime》)을 이
 루며 시간을 측정 단위로 하여 특별 지불(《extra pay》)을 받으
 나 그것의 비율은 종종 가소로울 정도로 작은 것이다³⁵. 이 경
 우에 표준 로동일은 현실적 로동일의 어떤 분수 부분(分數部
 分)으로서 존재하는데 현실적 로동일이 1년을 통하여 표준 로
 동일보다도 긴 일이 종종 있다³⁶. 일정한 표준 한계를 넘는
 로동일의 연장을 수반하는 로동의 가격의 장성은 영국의 여러
 산업 부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여기에
 서는 노동자가 무릇 충분한 로임을 벌려고 한다면 노동자는 소

35 《초과 시간에 대한 지불 비율은(레스 마누팩처에서) 대단히 적은 것이어서 시간당 $1\frac{1}{2}$ 펜스 정도이므로 그것은 시간외 로동이 로동자의 건강과 생명력에 끼치는 막대한 해독과 침해한 대조물 이문다... 또한 그렇게 해서 번 얼마 안되는 여분의 로임은 왕왕 파외의 흥분제에 소비되지 않을 수 없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별 폐지 16페이지, 제 117호).

36 페컨대 얼마 전 공장법이 실시되기 전까지 벽지 인쇄업에서 그
 러하였다. 《우리는 식사를 위하여 쉬지도 않고 일하므로 $10\frac{1}{2}$ 시간의
 하루의 작업은 오후 4시 반에 끝나며 그 후의 작업은 모두 시간외 로동
 이다, 그것이 오후 6시 전에 끝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적으로는 1년을 통하여 시간외 로동을 한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
 회, 제 1차 보고》, 125페이지 중의 스미쓰씨의 증언).

위 표준 시간내의 로동의 가격이 낮은 데로부터 특별 지불을 받는 초과 시간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³⁷. 로동일의 법적 제한은 이러한 꼴맛에 종말을 고하게 한다³⁸.

소여의 산업 부문에서 로동일이 길면 길수록 로임은 더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⁹. 공장 감독관 A·레드그레이브는

37 페컨대 스코틀랜드의 포텍 공장주에서 그러하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방들에서 이 산업은(1862년의 공장법 실시 이전에) 초과 시간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니 즉 10시간 로동이 표준 로동일로 되어 있었다. 이 시간에 대하여 로동자는 1실링 2펜스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매일 3내지 4시간의 시간외 로동이 첨가되었고, 이에 대하여서는 한 시간에 3펜스씩 지불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결과로 표준 시간만을 일하는 로동자는 주에 8실링 이상은 벌 수 없었다……시간외 로동을 하지 않고는 그의 로임은 불충분하였다》(《1863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페이지). 《초과 시간에 대한 특별 지불은 로동자가 항거할 수 없는 유혹이다》(《184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5페이지). 런던시의 제본업은 14내지 15세의 젊은 처녀들을 대단히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로동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견습 계약하에서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월 마지막 주에는 10, 11, 12시까지 지어는 오전 1시까지, 년장의 남성 로동자들과 함께 마무리여서 작업한다. 《주안들은 특별 지불과 저녁을 잘 먹을 수 있는 돈으로써 그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그 저녁을 근처 술집에서 먹는다. 그렇게 하여 이 《불멸의 청춘들》 《young immortals》(《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5차 보고》, 44페이지, 제 191호) 사이에서 생기는 크나 큰 방탕은 그들이 다른 책들과 함께 다수의 성서와 종교 서적들을 제본한다는 점에서 보상을 찾는다.

38 《1863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10페이지 참조. 런던의 건설 로동자들이 1860년의 대파업 및 러크 아우트중 다음과 같은 두 개 조건하에서만 시간 임금을 접수하겠다고 성명한 것은 사태를 완전히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된다. 1) 로동 시간의 가격과 함께 9 및 10시간의 표준 로동일을 각각 확정할 것과 10시간 로동일의 한 시간에 대한 가격은 9시간 로동일의 한 시간에 대한 가격보다 더 높아야 할 것, 2) 표준 로동일을 초과하는 때 시간은 초과 시간으로 계산하여 비교적 높은 지불을 할 것.

39 《또 긴 로동일이 통례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로임이 낮은 것이 또한 통례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사실이다》(《186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페이지). 《극히 얼마 안되는 생존 수단을 얻는 로동이 대개 파도하게 길다》(《공중 보건, 제 6차 보고, 1864년》, 15페이지).

이것을 1839—1859년의 20년 간의 비교 개관에 의하여 명증하고 있는바 그것에 의하면 10시간 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들에서는 '로임이 제고되었는데, 하루에 14 내지 15시간 작업하는 공장들에서는 로임이 저하되었다'⁴⁰.

《로동의 가격이 주어진 경우에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제공된 로동의 양에 의존한다》는 법칙으로부터 우선 로동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동자가 비참한 평균 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동량은 더욱 커야 한다는 즉 '로동일은 더욱 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로동 가격의 낮은 수준은 이 경우에는 로동 시간의 연장을 촉진한다'⁴¹.

그러나 거꾸로 로동 시간의 연장은 또한 로동 가격의 저하를, 따라서 일임금 또는 주임금의 저하를 일으킨다.

로동의 가격은 $\frac{\text{로동력의 일 가치}}{\text{소여 시간수의 로동일}}$ 에 의하여 규정되는 만큼 로동일의 연장은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그것만으로 로동 가격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일을 오래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 동일한 사정이 그로 하여금 처음에는 증대된 수의 로동 시간의 총가치 즉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저하될 때까지 로동 가격을 명목상으로도 저하시킬 수 있게 하며,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여기서는 두 개의 사정만을 지적하면 충분하다. 만약 한 사람이 $1\frac{1}{2}$ 또는 2명분의 일을 수행하면 시장에 있는 로동력

40 《1860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31, 32페이지.

41 레컨대 영국의 수제정(手製釘) 노동자들은 로동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극히 비참한 주임금을 벌기 위하여 하루에 15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11펜스 또는 1실링을 벌기 위하여 매일 긴긴 시간을 고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나마 이 금액중에서 $2\frac{1}{2}$ —3펜스는 도구 소모비, 난방비, 철 폐물비로 공제된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136페이지, 제 671호). 부인들은 동일한 로동 시간으로 불과 5실링의 주임금을 벌다 (동상서, 137페이지, 제 674호).

의 공급은 불변이더라도 노동의 공급은 증가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하며 저락되는 노동 가격은 이번에는 그로 하여금 노동 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한다⁴².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즉 사회적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부지불 로동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본가 자신들 간의 경쟁의 도구로 된다. 상품 가격의 일부분은 노동의 가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노동 가격중 지불되지 않은 부분은 상품 가격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구매자에게 선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경쟁의 압력에 수행되는 제 1보이다. 그 경쟁에 의하여 강요되는 제 2보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조성되는 비정상적인 잉여 가치의 적어도 일부분을 역시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품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바 그것은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점차 고정화되어 최초로 그것을 발생시킨 비참한 로임과 과도한 노동 시간의 불변의 기초로 된다. 경쟁의 분석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업이 아니므로 이 운동을 지적하는 데 그치겠다. 그렇지만 잠깐 자본가 자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자. 《버밍엄에서는 경영주들 사이의 경쟁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고용주로서 다른 정형하에서라면 창피라고 할 만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도 돈은 더 벌지 못한다(and yet no money is

42 메컨내 공장 노동자가 재래의 장시간 로동을 거절한다면 《그는 즉시로, 얼마든지 장시간 로동을 할 용의를 가진 어떤 다른자에 의하여 교체될 것이며, 그리하여 실업할 것이다》(《184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중언, 39페이지, 제 58호). 《만약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작업을 수행하면…… 노동의 추가 공급이 그것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결과…… 리윤율은 보통 제고된다》(시노어 《임금률에 관한 3강의》, 런던, 1830년, 15페이지).

made). 그리하여 다만 공중이 리득을 본다》⁴³. 두 부류의 런던의 빵 제조업자를 상기하자. 그들 중 일방은 빵을 제 값대로 팔고(the 《fullpriced》 빵 제조업자) 타방은 정상 가격 이하로 '눅'거리로 판다(《the underpriced》, 《the undersellers》). 《제 값대로 파는》자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을 의회 조사 위원회 앞에서 고발한다——《그들은 첫째로는 공중을 기만함으로써(상품을 위조하면서) 둘째로는 그들의 직공들로부터 12시간 임금에 대하여 18시간 로동을 짜 냄으로써만 존재한다……로동자들의 부지불 로동(the unpaid labour)——이것이 경쟁자들과 투쟁하는 그들의 도구이다…… 빵 제조업자들 간의 경쟁은 야간 로동의 폐지를 곤난케 하는 원인이다. 밀'가루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생산비 이하로 '눅'거리로 빵을 파는 자는 자기의 손실을 그의 직공들로부터 더 많은 량의 로동을 짜 냄으로써 보상한다. 나는 나의 직공들로부터 다만 12시간 로동을 짜 내는데 나의 옆집 사람은 18시간 또는 20시간을 짜 내면 물론 그는 상품 판매 가격에서 나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만약 로동자들이 시간외 로동에 대한 지불을 고집할 수 있다면 이러한 책동은 곧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눅'거리로 파는 자들에게 고용된 로동자들의 다수는 외국인 아동들인바 이들은 매게 주는 대로 어떤 임금이든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⁴⁴.

이 비탄(悲嘆)은 또 그것이 자본가의 두뇌에는 생산 제 관제의 외관 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여 주는 점에서 흥미 있다. 자본가는 정상적인 로동 가격도 일정한 량의 부지

43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증언. 66페이지, 제 22호.

44 《제빵 장공(匠工)들에 의하여 제소된 불평에 관한 보고》, 런던, 1862년, 별 페이지, 52페이지 및 동상서, 증언, 제 479호, 제 359호, 제 27호. 그런데 제 값대로 파는 자들로 우리가 위에서 지적하였으며 또 그들의 변호자 벤넛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직공들을 《저녁 11시 또는 그 보다도 일찍 작업에 착수케 하고, 흔히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계속케 하고 있다》(동상서, 22페이지).

불 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지불 로동이 그의 리윤의 정상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모른다. 잉여 로동 시간이라는 범주는 그에게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잉여 로동 시간은 자본가가 일로임으로써 완전히 지불한다고 믿고 있는 표준 로동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초과 시간 즉 보통의 로동 가격에 대응하는 한계를 넘는 로동일의 연장은 존재한다. 그는 '죽' 거리로 파는 그의 경쟁자들에 대하여 이 초과 시간에 대한 특별 지불(extra pay)을 하라고까지 고집한다. 그러나 그는 이 특별 지불이 보통 로동 시간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부지불 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역시 모른다. 폐천대 12시간 로동일의 한 시간 가격은 $1/3$, 로동 시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인 3펜스인데 초과 로동 한 시간의 가격은 $2/3$, 로동 시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인 4펜스라고 하자. 그러면 자본가는 첫째 경우에는 1로동 시간중 반을 무상으로 취득하며, 둘째 경우에는 3분지 1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제 19장 도급제 임금(개수 임금)

시간제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전화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급제 임금은 시간제 임금의 전화된 형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도급제 임금에 있어서는 언뜻 보아서는 노동자가 파는 사용가치는 그의 노동력의 기능인 산 노동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에 대상화된 노동인 듯이 보이며 또 이 노동의 가격은 시간제 임금에 있어서와 같이 $\frac{\text{노동력의 일가치}}{\text{소여 시간수의 노동일}}$ 라는 분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작업 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는 듯이 보인다⁴⁵.

그러한 견해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은 우선 로임의 량 형태가 동일한 산업 부문들에 동시에 병존한다는 사실만으로써도 이미 대단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레컨대 《런던의

45 《도급 노동 제도는 노동자의 력사에 있어서 일정한 시기물 표시한다. 그것은 자본가의 자의에 의존하는 단순한 일용 노동자와 밀지 않은 장래에 자기 한 몸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를 결합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협동 조합 일'군파의 중간에 놓여 있다. 도급제 노동자는 그들이 기업가의 자본에 의하여 일할 때에도 사실상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존 왓슨 《노동 조합과 파업, 기계와 협동 조합》, 만체스터, 1865년, 52, 53페이지). 내가 이 소저작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씌어 빠진지도 오래인, 변호론적인, 일체의 판에 박힌 문구들의 진짜 하수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 없는 이 왓슨씨는 이전에는 오웬주의자로서 행세하였으거 또 1842년에는 또 하나의 다른 소저작 《정치 경제 학자들의 사실과 허구》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개중에도 소유는 도탈(盜奪)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식자공들은 도급제 임금을 보통 받고 일한다. 시간제 임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외이다. 그와는 기꾸로 지방의 식자공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제 임금이 보통이며 도급제 임금은 제외이다. 런던 항(港)의 조선¹ 목공들은 도급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다른 모든 항구들에서는 시간제 임금을 받고 있다⁴⁶. 런던의 동일한 마구 제조소들에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불란서인들에게는 흔히 도급제 임금이 지불되며, 영국인들에게는 시간제 임금이 지불된다. 도급제 임금이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들에서도 어떤 로동 기능들은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측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제 임금으로 지불된다⁴⁷. 그러나 로임 지불에 있어서 형태상 차이는, 비록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로임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통의 로동일은 12시간인데 그 중 6시간은 지불되고 6시간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로동일의 새로 창조된 가치는 6실링이고 따라서 1 로동 시간의 그것은 6펜스라고 하자.

46 T. J. 머니 《로동 조합과 파업》, 런던, 1860년, 22페이지.

47 로임의 이러한 두 형태가 동시에 병존하는 것이 공장주들의 사기 행위에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전형적 실패물 다음에 든다——《어떤 공장은 4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반수는 도급제로 일하며 그리하여 시간의 작업에 직접 관심을 갖는다. 나머지 200명은 일급으로 지불되는데 다른 로동자들과 동등하게 장시간 작업하면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조금도 더 받지 않는다……이 200명의 하루 $1\frac{1}{2}$ 시간 로동은 1명의 50시간 로동 또는 1명의 1주간 로동의 $\frac{5}{8}$ 와 같으며 고용주에게 적지 않은 리득으로 된다》(1860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페이지). 《초과 로동이 아직도 대단한 정도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다수 경우에는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법률 자체가 보장하고 있다. 나의 이전의 많은 보고들에서 나는 이미……도급제로 지불되지 않고 주임금을 받는 모든 로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였다》(1859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중에서의 페오나도 호너의 서술, 8, 9페이지).

또 평균 정도의 강도와 기능(技能)을 가지고 일하며, 따라서 어떤 물품의 생산에 사실상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만을 소비하는 노동자가 12시간 동안에 24개의 생산물을——그것이 개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든, 나눌 수 없는 제품의 제량할 수 있는 부분이든 간에——생산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하여 주었다고 하자.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는 이 24개의 가치는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 자본 부분을 공제하면 6실링이며, 한 개 한 개의 가치는 3펜스이다. 노동자는 한 개당 $1\frac{1}{2}$ 펜스를 받으며 따라서 12시간 동안에 3실링을 번다. 시간제 임금하에서 노동자가 6시간은 자기를 위하여 6시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가정하든 또는 그가 매 시간 중 받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받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가정하든 상관 없듯이 이 경우에도 한 개 한 개에 대하여 받은 지불되고 받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말하든 또는 12개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할 뿐이며 다른 12개의 가격은 자체 속에 잉여 가치를 체화하고 있다고 말하든 상관이 없다.

도급제 임금 형태는 시간제 임금 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치하다. 폐컨대 두 개의 상품은 1노동 시간의 생산물로서 그 것들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공제하고 6펜스의 값이 있는데 노동자는 그것들에 대하여 3펜스의 가격을 받는다. 도급제 임금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가치 관계도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상품 한 개의 가치가 그 속에 체화된 노동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에 의하여 지출된 노동이 그에 의하여 생산된 개수에 의하여 측정된다.⁴⁸ 시간제 임금에 있어서는 노동은 직접 그것의 지속 시간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도급제 임금에 있어서는 노동은 일정한 지속 시간의 노동이 응결된 생산물의 양에 의하여 측정된다⁴⁹. 노동 시

48 《임금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즉 노동의 지속에 의하든가 그

간 자체의 가격은 결국 일로동의 가치 = 로동력의 일가치라는 방정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하여 도급제 임금은 시간제 임금의 변형된 형태이다.

그러면 도급제 임금의 특성을 좀 더 세밀히 고찰하자.

로동의 질은 이 경우에 제품 자체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며, '도급(개수) 가격이 완전히 지급되려면 제품은 평균적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측면에서 보아 도급제 임금은 로임 공제와 자본가들의 사취(詐取)의 가장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가들에게 로동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사전에 규정되었으며 경험에 의하여 확정된 상품량에 체화되는 로동 시간만이 사회적 필요 로동 시간으로 인정되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지불된다. 따라서 런던의 비뇨적 큰 재봉 공장들에서는 생산되는 일정한 제품 페컨대 한 개의 조끼 등등이 한 시간, 반 시간 등등이라고 불리우며 그 한 시간이 (펜스로 계산된다. 실천에 의하여 한 시간의 평균적 생산물이 얼마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신류행품, 수선 등등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제품이 한 시간이나 아니냐에 관하여 고용주와 로동자 간에 분쟁이 일어 나나 이 경우에도 경험이 결국 결정한다. 런던의 가구 제작소 등등에서도 유사한 사정이 있다. 만약 로동자가 평균적 작업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일정한 최소한의 하루 일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는 해고된다⁴⁹.

렇지 않으면 로동의 생산물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정치 경제학 원리의 개요》, 파리, 1796년, 32페이지). 이 네명 저서의 저자는 G. 가트너에이다.

49 《일정한 중량의 면화가 그(방적공)에게 공급되면, 그는 일정한 시간후에는 그 대신에 일정한 정도로 가는 일정한 중량의 연사(捻糸) 또는 방사물 반환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가 반환하는 전부에 대하여 파운드 당 얼마로 지불을 받는다. 만약 그의 제품의 질이 나쁘면, 그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소여의 시간에 대하여 제정된 최소량

여기에서는 로동의 질과 강도가 로임의 형태 자체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감독 로동은 현저한 정도로 소용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급제 임금은 우에서 서술한 근대적 가내 로동의 기초를 이루며 또한 착취와 억압의, 계층적으로 편제된 체계의 기초를 이룬다. 후자는 두 개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도급제 임금은 일방으로 자본가와 고용 노동자 사이에서의 기생자들의 개입과 중개자들에 의한 로동의 재판매(subletting of labour)를 용이케 한다. 중개자들의 리득은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 가격과 이 가격중에서 중개자가 실지 노동자에게 넘겨 주는 부분과의 차액에서 전적으로 나온다⁵⁰. 이 체계는 영국에서 특징적으로 고한 제도 《Sweating system》라고 불려지고 있다. 도급제 임금은 타방으로 자본가로 하여금 두목 노동자——마누과뚜라에서는 조장(組長), 탄광에서는 채탄공 등등, 공장에서는 고용한 의미에 있어서의 기계공——와 한 개 당 얼마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가격으로 두목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보조 노동자들을 징모하고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여기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매개로 하여 실현된다⁵¹.

보다 적으면, 그는 해고되고 더 유능한 일'군이 고용된다》(《유어 마누과뚜라의 철학》, 316, 317페이지).

50 《제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그 사람마다 리윤의 한 몫씩을 보게 되고 마지막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너공의 손에 들어오는 지불은 형편 없이 비참한 것으로 된다》(《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2차 보고》, 별 페이지, 70페이지, 제 424호).

51 변호론자 왓슨까지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만약 어떤 일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 그의 능력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되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동료들의 파도 로동에 대해 관계를 갖는 일이 없게 된다면 이것은 도급 임금 제도의 일대 개선으로 될 것이다》. 이 제도의 흠악성에 관하여는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 제 3차 보고》, 66페이지, 제 22호, 11페이지, 제 124호, 별 페이지, 11페이지, 제 13, 제 53, 제 59호 등등을 참조하라.

도급제 임금이 일단 존재하면 노동자가 그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데로 긴장시키는 것은 물론 그의 개인적 이익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본가는 표준 강도를 용이하게 제고할 수 있다^{51a}. 또한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도 역시 노동자의 개인적 이익이니 왜냐 하면 그에 따라 그의 일임금 또는 주임금이 제고되기 때문이다⁵². 노동일의 연장은 도급제(개수) 임금이 불변인 경우에 초차 그 자체로서 노동 가격의 저락을 의미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라도, 그것은 시간제 임금을 고찰할 때 서술한 반작용을 야기한다.

시간제 임금하에서는 약간의 폐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능(機能)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불이 실시되는데 도급제 임금

51a 이 자연 발생적인 결과가 흔히 인공적으로 촉진된다. 메컨대 런던의 기계 제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술책이 판데로 되고 있다——《자본가는 특출한 육체력과 민활성을 가진 한 노동자를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의 두목으로 선출한다. 자본가는 이 자에게 보통 임금 밖에 지불되지 않는 동로물이 그를 따라 오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그 자신 최대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4분기마다 또는 기타 기간으로 추가 지불을 한다…… 이것은 더 주석을 붙이지 않아도 노동 조합이〈활동과 탁월한 기교와 노동력을 마비시킨다(stinting the action, superior skill and working power)〉고 하는 자본가들의 불평을 설명해 준다》(《런닝》《노동 조합과 파업》, 런던, 1860년, 22, 23페이지). 저자는 자신이 노동자이며, 노동 조합의 비서인만큼 그의 말은 파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메컨대 J·Ch·모튼의 《노이 평가할만한》 농업 백과 사전의 《노동자》라는 항목을 읽어 보라, 거기에서는 이 방법이 차지 농업가들에게 점열된 우수한 것으로서 추천되고 있다.

52 《도급제 임금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법적 한도 이상으로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간의 작업을 하려는 이러한 용의는 특히 여성 직포공 및 편사공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185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페이지). 《자본가에게 그렇게도 유리한 이 도급 임금 제도는…… 젊은 제도공(製陶工)들이 도급제이기는 하나 낮은 임금으로서 고용되면서 5년 동안 심한 파도 노동을 하도록 그들을 자극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도기 제조공들의 육체적 퇴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1차 보고》, 별 페이지, 13페이지).

하에서는 1 로동 시간의 가격은 물론 일정한 생산물 량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일임금 또는 주임금은 로동자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변동하여 그중 어떤 자는 소여 시간에 최소한의 생산물을, 다른 자는 평균량을, 제 3자는 평균량 이상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로동자의 실지 수입은 개별적 로동자들의 기능(技能), 체력, 정력, 인내성 등등이 다름에 따라 대단히 차이가 생긴다⁵³.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본과 고용 로동간의 일반적 관계는 변함이 없다. 첫째로 작업장 전체로서는 개인적 차이들은 상쇄되며 그리하여 전체 작업장은 일정한 로동 시간에 평균량의 생산물을 제공하며 지불된 총임금은 소여 생산 부분의 평균 임금으로 될 것이다. 둘째로 로임과 잉여 가치의 비율은 그대로 불변이다. 왜냐 하면 개별적 로동자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잉여 가치량은 그의 개인적 임금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급제 임금은 개인적 활동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일방으로는 로동자들의 개성, 자유의 정신, 자립성 및 자제력(自制力)을 발전시키며 타방으로는 그들 상호 간에 경쟁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적 로임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 수준 자체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도급제 임금이 장기간의 전통에 의하여 고정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의 저하가 특히 곤란한 곳에서는 고용주들은 폐회적으로이지만 도급제 임금을 강제로 시간제 임금으로 전회시키는 수단을 취했다. 예컨대 1860년에 코벤트리의 리본 제조공들 간의 대파업은 이 때문에

53 《어떠한 생산에서 로동이 한 개당 얼마씩 도급제로 지불되면... 로임액은 서로 극히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일임금 로동에 있어서는 보통 소여 생산의 평균적 로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기준으로서 고용주와 로동자 쌍방에 의하여 승인된..... 균일한 평가가 존재한다》(면담 《로동 조합과 파업》, 런던, 1860년, 17페이지).

일어났다⁵⁴. 마지막으로 도급제 임금은 상술한 시간 제도의 주요한 한 개 지주(支柱)이다⁵⁵.

이상에서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급제 임금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가장 부합되는 로임 형태라는 결론이 나온다. 도급제 임금은 아무런 새것도 결코 아니며 시간제 임금과 함께 개중에도 14세기의 불란서 및 영국의 노동자 법령들에서 공식

54 《수공업 장공(匠工)들의 노동은 혹은 일(日)에 의해서 혹은 개수에 의해서 규제된다…… 장주(匠主)들은 각개 작업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으며 따라서 흔히 장공들에게 그들이 수행한 일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그리하여 이 장공들은 별로 더 감독을 하지 않아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일한다》(캔티언 《상업 일반의 본성에 관한 논술》, 암스텔담, 1756년판, 185 및 202페이지. 초판은 1755년에 나왔다). 그리하여 케네, 썬 제임스 스튜아르 및 아담 스미스가 그로부터 취한바 많은 캔티언은 여기서 도급제 임금을 시간제 임금의 단순히 변형된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캔티언의 불란서어 판은 포제에 그것이 영어판으로부터의 번역인 듯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판 《면면시의 상인고(故) 필리프 캔티언에 의한 공업 상업 등등의 분석》은 불란서어 판보다 후에(1759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도 의심할 바 없이 그후에 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피컨데 불란서어 판에서는 아직 종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판에서는 거꾸로 페티가 이미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영어판은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 대신 영국 상업, 귀금속 거래 등등에 관한, 불란서어 판에는 없는 온갖 종류의 특수한 지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판의 포제에 있는 이 저술이 《극히 재능 있는 작고한 한 신사의 수고로부터 주로 채용된 운운》이라는 말은 당시에 대단히 관습적이었던 단순한 허구는 아닌 듯하다.

55 《우리는 어떤 작업장들에서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 흔히 여분의 노동자들은 어떠한 예견되지도 않은, 때로는 상상할 수만 있는 작업을 바라보고 예비로 고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도급제 임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런 위험도 없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시간의 손실로부터 생기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일 없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되기 때문이다》(H·그레팔 《브룩펠의 치안 재판정에서의 인쇄업공》, 브룩펠, 1865년, 9페이지).

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팩처라 시기에 있어서 비로소 비교적 광범히 적용되었다. 대산업이 질풍 노도(疾風怒濤)의 시기 특히 1797—1815년 간의 시기에 도급제 임금은 로동 시간의 연장과 로임 저하를 위한 공간으로 복무하였다. 우리는 이 시기의 로임의 운동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재료를 청서(靑書)들——《곡물법에 관한 청원 특별 조사 위원회 보고 및 증언》(1813—1814년 의회 회기) 및 《곡물의 재배, 거래 및 소비 정형에 관한 상원 위원회 보고 및 일체의 관제 법규》(1814—1815년 회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반(反)자코방 전쟁 개시 이래 로동 가격이 부단히 저하된 데 대한 문건상 증거를 발견한다. 레컨대 방직업에서 도급제 임금은 로동일의 대단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임금이 이전보다 저하될 정도로 저락되었다. 《직조공의 현실적 수입은 현재 이전보다 훨씬 더 적다. 그는 보통 로동자들에 비하여 이전에는 상당히 수입이 나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다. 사실상 기능 로동과 보통 로동의 임금간의 차이가 지금은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훨씬 더 적다》⁵⁶. 도급제 임금으로 인한 로동 강도의 제고와 로동 시간의 증대로부터 농촌 프로레타리아트가 거의 리득을 보지 못한 사실은 지주들과 차지 농업가들의 편에서 있는 어떤 당파적 저술로부터 빌려 온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이여 준다——《농업상 작업의 압도적 부분은 일임금 또는 도급제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된다. 그들의 주임금은 대략 12실링이다. 그리하여 한 로동자가 도급제 임금하에서는 로동에 대한 자극을 더 받으므로 주임금하에서보다 1실링 또는 아마도 2실링 더 번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그의 총수입을 계산하면 이 증수는 년중 어떤 시기들에는 일이 없는 데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에 의하

56 《매브리튼의 상업 정책에 관한 논술》, 런던, 1815년, 48페이지.

여 상채 된다…… 더 나아가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필요한 생활수단들의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비례 관계에 있으며, 그리하여 2명의 아동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교구(敎區)의 구휼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⁵⁷. 당시에 말사스는 의회에 의하여 발표된 사실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나는 도급제 임금의 실사가 광범히 보급되는 것을 불만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루에 12—14시간 또는 그보다도 더 긴 시간씩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인간에 있어서나 너무나 파멸하다》⁵⁸.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들에서는 자본은 노동일을 다만 집약적으로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제 임금이 일반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다⁵⁹.

노동 생산 능력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생산물 량에 의하여 표시되는 노동 시간이 변동한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도 또한 변동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정한 노동 시간의 가격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술한 폐에서는 24개의 생산물이 12시간 동안에 생산되었고 12시간에 새로 창조된 가치는 6실링이었으며 노동력의 일가치는 3실링, 1 노동 시간의 가격은 3펜스 그리고 한 개당 임금은 1 1/2펜스였다. 한 개 속에는 1/2 노동 시간이 흡수되어 있었다. 이제 만약 폐컨대 노동 생산 능력이 2배로 된 결과 동일한 노동일이 24개 대신에 48개의 생산물을 주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불변이라면 도급제 임금은 1 1/2펜스로부터 3/4펜스로 저락할 것이다. 왜

57 《대브리튼의 지주 및 차지 농업가의 변모》, 런던, 1814년, 4, 5페이지.

58 말사스 《지대의 본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59 《도급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아마도 전체 공장 노동자들의 1/2를 차지한다》(1858년 4월 30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페이지).

냐 하면 이제는 매개 생산물이 $\frac{1}{2}$, 로동 시간이 아니라 다만 $\frac{1}{4}$, 로동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1 \frac{1}{2} \text{펜스} \times 24 = 3 \text{실링}$, 그리고 역시 $\frac{3}{4} \text{펜스} \times 48 = 3 \text{실링}$ 이다. 환언하면 도급제 임금은 동일한 시간내에 생산되는 개수가 장성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⁶⁰ 따라서 동일한 한 개에 지출되는 로동 시간이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저하된다. 여기서 도급제 임금의 이러한 변동은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부단한 투쟁을 불러 일으킨다. 왜냐 하면 자본가가 이것을 로동 가격의 현실적 저하를 위한 구실로 리용하기 때문이든가, 또는 로동 생산력의 제고가 로동 강도의 제고를 수반하기 때문이든가, 또는 로동자가 그에게 지불되는 것은 마치도 그의 로동의 생산물이요 그의 로동력이 아닌 듯한 도급제 임금의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하여 상품 판매 가격의 해당하는 인하가 없는 임금 인하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로동자들은 원료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을 주의 깊게 감시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고용주들의 리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60 《그의 방적기의 생산력은 정확히 측정되며 그것을 리용하여 수행된 로동에 대한 지불의 물은 방적기의 생산력이 장성하는 데 따라 감소한다——비록 동일한 비율로써는 아니지만》(유어 《마누팩투라의 철학》, 317페이지). 마지막에 첨부된 변호문적 문구는 유어 자신이 그후의 서술에서 취소하고 있다. 그는 페컨대 물 방적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추가 로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은 로동 생산 능력이 장성하는 정도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증대에 의하여 기계의 생산력은 $\frac{1}{8}$ 만큼 제고된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방적공은 이제는 수행한 로동에 대하여 그가 종전과 동일한 물로 지불을 받지는 못할 것이나 그 물이 $\frac{1}{8}$ 의 비율 만큼은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량에 의하여 소여의 어떤 로동 시간 수에 대하여도 화폐 수입은 증대될 것이다》——그러나……그러나 《우에서 말한 것은 일정한 수정을 요한다…… 방적공은 자기의 추가적인 6펜스로부터……성인 로동자들의 일부를 귀속하는……미성년 조수들의 유지에 얼마 간 더 지불하여야 한다》(동상서, 320, 321페이지). 이것은 로임의 증가 경향을 결코 실증하는 것이 못 된다.

다》⁶¹. 자본이 그러한 요구를 고용 노동의 본성에 대한 크게 그릇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배격하는 것은 당연하다⁶². 자본은 산업의 진보에 과세하려는 이러한 월권(越權)에 대하여 분격의 소리를 지르고 노동 생산 능률은 노동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한다⁶³.

61 H. 포셋트 《영국 노동자의 경제 상태》, 캠부릿지 및 런던, 1865년, 178페이지.

62 1861년 10월 26일 호(런던의 《스탠다드》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송 사건의 보도가 게재되어 있다. 존 브라이트 회사는 로크멜 치안 판사 앞에 《웅단 직조 노동 조합의 대표자들을 공갈의 죄책으로 고소하였다. 브라이트 회사는 이전에 160야드의 생산에 필요하였던 것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동 지출(!)으로써 240야드의 웅단을 제조할 수 있는 새 기계를 도입하였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업가가 기계 개량에 대한 자본 투하의 덕택으로 조성되는 리윤의 분배를 요구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브라이트 회사는 야드당 임금을 1 1/2 펜스로부터 1페너로 인하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때도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노동자의 수입은 종전과 아주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명목상 인하가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그에 대하여 사전에 받아야 할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3 《노동 조합들은 로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기도에서 기계 개량으로부터 나오는 리윤에 한몫 보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그들은 노동이 단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확인하면 그들은 산업상 개량들에 과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사업의 결합에 관하여》, 신판, 런던, 1834년, 42페이지).

제 20 장 로임의 국민적 차이

제 15장에서 우리는 로동력의 가치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즉 잉여 가치와 대비한) 크기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배합들을 고찰하였는데 타방으로 로동력의 가격이 실현되는 생활 수단들의 양은 이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 없거나⁶⁴ 또는 그것과 상이한 운동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관명되었다. 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로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이 단순히 로임이라는 외현적(外現的)인 형태에로 이행함으로써 거기서 지적된 모든 법칙들은 로임 운동의 법칙들로 전화된다. 이 운동의 내부에서 배합의 변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상이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로임의 동시적 차이로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이한 국민들의 로임을 대비할 때에는 로동력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변동들을 규정하는 모든 계기들, 자연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발전한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과 범위, 로동자의 교육비, 여성 및 아동 로동의 역할, 로동 생산 능력, 로동의 외연적 및 집약적 크기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극히 피상적으로 대비함에 있어서도 우선 상이한 나라들의 소여 생산에서의 평균 일임금을 동등한 길이의 로동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일임금을 균등케 만든 다음 시간제 임금

64 《로임이 보다 저렴한 물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로임이(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의 화폐적 표현이다) 증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메리트 버캐넌 편, A·스미쓰의 《국부론》, 1814년, 제 1권, 417페이지 주).

을 도급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니 왜냐 하면 도급제 임금만이 노동 생산 능률이나 노동 강도의 측정 척도이기 때문이다.

매개 나라에는 일정한 평균적 노동 강도가 존재하는데 이 평균 강도에 달하지 않는 노동은 그 나라에서 조여의 상품 생산에 사회적 필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그러므로 표준적 질의 노동이 아니다. 조여 나라에서는 국민적 평균 수준을 넘는 강도만이 노동 시간의 단순한 질이에 의한 가치 측정을 변경한다. 개별적 나라들이 그 구성 부분들로 되어 있는 세계 시장에서는 사태가 다르다. 평균적 노동 강도라고 해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며 어떤 나라에서는 보다 크며, 어떤 나라에서는 보다 적다. 그리하여 이러한 국민적 평균들은 하나의 계층을 이루는바 이 계층의 측정 단위는 전 세계적 노동의 평균 단위이다. 따라서 보다 강도가 높은 국민 노동은 강도가 보다 낮은 국민 노동에 비하여 동등한 시간에, 보다 많은 화폐량으로 표현되는 보다 큰 가치를 조성한다.

그러나 가치 법칙은 그 국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즉 보다 생산적인 국민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품의 판매 가격을 그것의 가치까지 저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세계 시장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국민 노동은 보다 강도가 높은 노동으로서 계산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현저히 달라진다.

조여의 나라에서 국민적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 능률은 이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제고된다^{64a}. 따라서 상이한 나라들에서 동등한 노동 시간에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의 상이한 양은 부동

64a 우리는 노동 생산 능률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들이 개별적 산업 부문들에 있어서의 이 법칙의 작용을 변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연구할 것이다.

한 국제적 가치들을 갖는바 그 가치들은 상이한 가격으로 즉 국제적 가치들에 따라 상이한 화폐액들로 표현된다. 따라서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보다 발전한 국민에 있어서는 그것이 덜 발전한 국민에 있어서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로부터 명목적 로임 즉 화폐로 표현된 노동력의 등가는 전자의 국민에 있어서는 후자의 국민에 있어서보다 더 높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거기에서 실질 임금도 즉 노동자의 처분에 말해지는 생활 수단의 양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이한 나라들에서의 화폐 가치의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도외시하더라도 전자의 국민에서 일임금, 주임금 등등이 후자의 국민에서 보다 더 높으나 노동의 상대적 가격 즉 잉여 가치 및 생산물 가치에 비한 노동 가격은 후자의 국민에 있어서 전자에서 보다 더 높은 것을 흔히 볼 것이다⁶⁵.

1833년의 공장 조사 위원회 성원인 J·B·코헬은 방적업을

65 제임스 앤 머슨은 A·스미쓰와의 논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또한 지적할 만한 것은 토지의 생산물 특히는 곡물이 렴가한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외관상 노동 가격이 보통보다 낮으나 그러나 사실상 노동의 실질 가격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보통보다 높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매일 주는 로임은 비록 노동의 외관상 가격이기기는 하지만 노동의 실질 가격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 가격은 일정한 량의 수행된 노동이 현실적으로 고용주에게 드리게 하는 비용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곡물 및 기타 생활 수단들의 가격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부유한 나라들에서보다 보통 훨씬 낮지만 노동은 거의 모든 경우에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에서보다 저렴하다…… 일(H)로 계산되는 노동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에서보다 훨씬 낮다……그러나 개수로 계산되는 노동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에서 보다 저렴하다》(제임스 앤 머슨 《국민적 산업 정신의 고무 대책들에 관한 고찰 등등》, 베딘버머, 1777년, 350, 351페이지).——거꾸로 낮은 로임은 이번에는 노동의 등가를 일으킨다. 《로임은 애 탄에서는 잉글랜드에서 보다 고가하다…… 왜냐 하면 로임이 그만큼 낮은 까닭이다》(《칙명 철도 위원회. 증언록》, 1867년).

세밀히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영국에서는 임금의 대륙에서 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더 높을는지 모르지만, 공장주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보다 낮다》(유어, 《마누팩뚜라의 철학》, 314페이지). 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 보고에서 영국의 공장 감독관 알렉산더 레드그레이브는 영국과 대륙 국가들의 통제를 대비함으로써 대륙에서의 노동은 영국에서의 노동보다 임금이 보다 낮고 노동일이 훨씬 보다 길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에 비하여서는 보다 고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올덴부르그에 있는 영국인 소유의 한 면방적 공장의 지배인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는 노동 시간이 토요일도 포함하여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즉 14 1/2 시간이나 계속되며, 그 동안에 그곳 노동자들이 영국인 감독들의 감시하에서 일지라도 제공하는 생산물량은 10시간 동안에 영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양만큼 되지 못하며, 독일인 감독들의 감시하에서는 훨씬 더 작다. 거기에서는 임금은 영국에서보다 훨씬 더 낮으며, 많은 경우에는 50%나 낮으나 열정한 수의 기계에 해당하는 직공수는 훨씬 더 많으며,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영국에 비하여 5:3이라고 한다. 레드그레이브씨는 로씨야의 면방적 공장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주고 있다. 이 자료들은 바로 최근까지 거기서 일하던 영국인 지배인이 그에게 제공한 것이다. 온갖 추악한 일이 그렇게도 많은 이 로씨야의 땅 위에서 영국 공장 제도의 유년기에 본 그 옛날의 전철할 일들이 전성기에 처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물론 영국인들이니 왜냐 하면 토착 로씨야인 자본가는 공장 사업을 모르기 때문이다. 과도 노동, 불철주야의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지불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의 제품은 외국 제품의 수입 금지에 의하여서만 겨우 연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나는 또 하나,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의 공장당 및 방적공 1명당 평균 방추수를 비교한 레드그레이브씨의 개관을 들겠다. 레드그

레이브씨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이 수'자들을 수년 전에 수집하였으며 또 그 이후 영국 공장들의 규모와 매개 노동자 당 방추수가 장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려거한 대륙 제국에서도 동등한 비율로 진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하여 그가 주고 있는 수'자는 상대적 의의를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 공장당 평균 방추수

영국.....	12,600
서서.....	8,000
오지리.....	7,000
작센.....	4,500
벨기.....	4,000
불란서.....	1,500
프로썸야.....	1,500

노동자 1명당 평균 방추수

불란서.....	14
로썸야.....	28
프로썸야.....	37
바이에른.....	46
오지리.....	49
벨기.....	50
작센.....	50
독일 소국가들.....	55
서서.....	55
대브리튼.....	74

《이 비교는 다른 사정들은——하고 레드그레이브씨는 말한다——모외시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도 대브리튼에 불리하다, 즉 거기에서는 기계 직조와 방직이 결합되어 있는 공장들이 극히 많은데, 상기 제산에서는 직기를 운전하는 노동자

들은 한 명도 제외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 공장들은 대개 다만 방적만을 한다. 만약 엄밀히 동등한 것 끼리를 대비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관찰 구역에서 단 한 명의 노동자(제사공)가 2명의 보조 노동자를 버리고 2,200개의 방추를 가진 물 방적기를 돌보며 매일 길이로 400마일(영 마일)이 되는 220파운드의 방사를 제조하는 면방적 공장을 허다히 들 수 있을 것이다》(《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31—37페이지, 이곳 저곳).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구라파에서와 아세아에서 영국 회사들은 철도 부설을 청부 맡고 있으며 그 경우에 토착민들과 함께 일정한 수의 영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천적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노동 강도에 있어서의 국민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조금도 손실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는 비록 임금의 높이는 다소간에 평균적 노동 강도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상대적 노동 가격(생산물에 비한)은 일반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H·케이리는 자기의 가장 초기의 경제학적 저술인 《임금물에 관한 론구》⁶⁶⁾에서 상이한 국민적 로임들이 국민적 노동일의 생산 능률의 정도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국제적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로임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 능률에 비례하여 등락한다는 결론을 끌어 내려 하고 있다. 케이리가 비록 언제나 관습적으로 그렇듯이 무비관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주위 모든 통계 재료를 뒤죽 박죽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그의 전제들을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엉터리 없다는 것은 잉여 가치의 생산에 관한 우리의 전체 분석이 증명하고 있다.

66 《임금물에 관한 론구;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들의 원인에 관한 검토를 포함》, 필라델피아, 1835년.

현실적으로 사태가 리론대로 되고 있다고 그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제법이다. 그런데 바로 국가의 간섭이 이 자연적인 경제적 관계를 그릇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적 로임은 그중 세금의 형태로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 오는 부분이 노동자 자신의 수중으로 들어 가는 것처럼 계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케이리씨는 더 나아가 이 《국가적 지출》도 또한 자본주의 발전의 《자연적 과실》이 아닌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이 추론은 전혀 그 인물다움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 제 관계를 자연과 리성의 영원한 법칙이라고, 그 법칙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다만 국가적 간섭이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 대한 영국의 악마와 같은 영향——보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 않은 영향——이, 국가적 간섭의 필요성 즉 이 《자연과 리성의 법칙들》의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을, 환언하면 보호 관세 제도의 필요성을 낳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현존하는 사회적 대립과 모순들이 정식화되어 있는 리카도 등등의 리론이 현실적 경제 발전의 관념적 산물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국 기타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실적 대립들이 리카도 등등의 리론의 결과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고유한 미점들과 조화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상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그는 아마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폐해는 자본 그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도 놀랄만큼 무비판적이며 가짜 학식을 가진 인물만이 그의 보호주의적 이단(異端)에도 불구하고 바스티아라든가 기타 모든 근대 자유 무역론적 략관주의자들의 조화로운 지혜의 비밀의 원천으로 될 만하였다.

제 7 편

자본의 축적 과정

일정한 화폐액의, 생산 수단 및 노동력으로의 전화는 자본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가치가 수행하는 최초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장에서, 유통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운동의 둘째 국면 즉 생산 과정은 생산 수단이, 그 구성 부분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 즉 최초로 전대된 자본외에 잉여 가치를 포함하는 상품으로 전화함으로써 끝난다. 이 상품은 그 다음에 다시 유통 분야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판매되어 그 가치를 화폐로 실현하고, 이 화폐가 다시 자본으로 전화하여 동일한 행정을 부단히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순차적 국면들을 부단히 통과하는 이 순환은 자본의 유통을 이룬다.

축적의 첫째 조건은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며 또 그렇게 하여 얻은 화폐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화하는 데에 있다. 이하에서는 자본이 자체의 유통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다고 전제한다. 이 과정의 상세한 분석은 제 2권에 넘긴다.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즉 노동자로부터 직접 부지불 로동을 빨아 내어 그것을 상품에 고정시키는 자본가는 잉여 가치의 최초의 점유자이기는 하나 결코 그것의 종국적 소유자는 아니다. 그는 이어서 그것을 사회적 생산 전체에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자본가들과, 토지 소유자 등등과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잉여 가치는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된다. 이 각이한 부분들은 각이한 범주의 인물들의 수중으로 들어 가며 리윤, 리자, 상업 리윤, 지대 등등의 초상 독립한 형태들을 취한다. 잉여 가치의 이 전화된 형태들은 제 3권에서만 고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편 여기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그것을 가치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그가 상품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 따라서 유통 분야에서 자본이 취하게 되는 새 형태들과, 이 형태들에 숨어 있는 구체적 재생산 조건들은 여기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다른 편으로는 자본가적 생산자는 잉여 가치 전부의 소유자라고 또는 잉여 가치의 분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간주한다. 그리하여 우선은 우리는 축적을 추상적으로 즉 단순히 직접적 생산 과정의 한 계기로서 고찰한다.

그러나 축적이 진행되는 한, 자본가는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고 이 판매에서 얻은 화폐를 다시 자본으로 전화함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잉여 가치의 각이한 부분으로의 분할은 잉여 가치의 본성이나 또 잉여 가치를 축적의 요소로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결코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잉여 가치가 자본주의적 생산자 자신이 갖게 되는 부분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부분으로 분할되는 그 비율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잉여 가치는 제 1번으로는 그 자본주의적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다. 따라서 축적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편으로는 잉여 가치의 분할과 유통의 매개적(媒介的) 운동은 축적 과정의 단순한 기본 형태를 애매하게 한다. 그러므로 축적 과정을 순수한 형태로 분석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機構)의 내부적 작용을 은폐하는 모든 현상들을 잠시 사상할 필요가 있다.

제 21장 단순 재생산

생산 과정은 그 사회적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연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주기적으로 동일한 제 단계를 계속 부절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가 소비를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도 또한 멈출 수 없다.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생산 과정도 그것을 부단한 변환과 갱신의 끊임 없는 흐름에서 고찰할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재생산 과정이다.

생산 제 조건은 동시에 재생산의 제 조건이다. 어느 한 사회도 그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을 부단히 생산 수단으로 즉 새로운 생산의 요소들로 재전화하지 않고서는 부단히 생산, 즉 재생산할 수 없다. 사회는 기타의 조건들이 같다면 매년 1년이라는 기간에 소비된 생산 수단 즉 노동 수단, 현물로서의 원료 및 보조 자재가 동종 동량의 새로운 물건들——년 생산물량으로부터 떼여 내어 다시 생산 과정에 합체되는——로써 보상되는 경우에만 자기의 부를 동일한 규모로 재생산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량의 년 생산물은 생산에 속한다.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생산적 소비를 위하여 예정된 것으로 대개는 그 자체로서 이미 개인적 소비를 배제하는 현물 형태로서 존재한다.

생산이 자본주의적 형태를 취하면 재생산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하에서는 노동 과정이 가치 증식 과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산도 또한 전대된 가치를 자본으로서 즉 증식하는 가치로서 재생산하는 수

단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본가로서의 특징적인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임에 불과하다. 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된 화폐액이 금년에 자본으로 전화되어 2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였다면 그것은 내년에도 동일한 작용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 가치의 주기적 증식을 즉 기능 자본의 주기적 과실로서는, 잉여 가치는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형태를 취한다¹.

이 과실이 자본가에게 소비 폰드로서만 복무한다면 즉 그것이 손에 들어 오는 대로 주기적으로 소비된다면, 기타의 제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 재생산이다. 그런데 단순 재생산은 동일한 규모에서의 생산 과정의 단순한 반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반복성과 부단성은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특징들을 부여한다. 또는 오히려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과정에 특징적이라고 보이는 약간의 특징들을 제거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생산 과정의 출발점은 일정한 시간에 결친 노동력의 구매이다. 이 출발점은 노동의 판매 기간이 만료하고 따라서 일정한 생산 기간 레컨대 주, 월 등등이 경과할 때 부단히 갱신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지불을 받는 것은 비로소 그의 노동력이 작용하여 자체의 가치와 함께 잉여 가치를 상품에 실현한 후

1 《타인의 노동 생산물을 소비하는 부자들은 이것을 교환 행위(상품의 구매)에 의하여서만 얻는다. 따라서 그들의 저장금은 얼마 안가서 고갈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그러나 현 사회 제도에에서는 부는 타인의 노동에 의하여 재생산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부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또 노동에 의하여 그 부의 소유자가 보다 가난하게 되지 않고도 다 써버릴 수 있는 과실을 매년 가져다 준다. 이 과실이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다》(시스몬디 《정치 경제학 신원리》, 파리, 제 1권, 81, 82페이지).

에 있어서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잉여 가치——당분간 이것은 자본가의 소비 펀드만을 표시한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불 펀드 즉 가변 자본까지도 이 가변 자본이 로임의 형태로 그에게 돌아 오기 전에 생산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는 그가 가변 자본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동안만 고용된다. 로임을 생산물 자체의 한 몫으로 보는, 제 16장(Ⅱ)에 든 경제학자들의 공식은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². 이것은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생산물 중 로임의 형태로 그에게 부단히 돌아 오는 부분이다. 물론 자본가는 이 상품 가치를 화폐로써 그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이 화폐는 노동 생산물의 전화된 형태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생산 수단의 일부를 생산물로 전화시키고 있을 때에 그의 이전의 생산물의 일부가 화폐로 재전화한다. 지난 주간 또는 지난 반년 간의 그의 노동이야말로 그의 오늘날의 노동 또는 금후 반년 간의 노동이 지불될 원천인 것이다. 화폐 형태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상은 개별적 자본가와 개별적 노동자 대신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고찰하기만 하면 곧 소멸하고 만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자본가들이 취득한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을 받을 때 대한 행표(行票)를 화폐 형태로서 부단히 노동자 계급에게 교부한다. 이 행표(行票)를 노동자들도 역시 규칙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자기에게 지불되어야 할 부분을 받는다. 생산물의 상품 형태와 상품의 화폐 형태가 이 과정의 진정한 성격을 은폐한다.

· 2 《로임이나……리윤은 다 같이 완성된 생산물의 현실적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A·랩지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142페이지). 《생산물 중 로임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몫》 (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파티소 출판서어 판, 파리, 1823년, 34페이지).

따라서 가변 자본이란 노동자가 그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 생산하는 데 필요하며 또 어떠한 사회적 생산 체계하에서도 그가 언제나 생산하고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 수단 폰드 즉 노동 폰드가 취하는 특수한 역사적 현상 형태에 불과하다. 노동 폰드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지불 수단의 형태로 부단히 그의 수중으로 들어 가는 것은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이 자본의 형태로서 부단히 그로부터 유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 폰드의 이 현상 형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노동자 자산의 대상화된 노동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³. 부역 농노를 들어 보자. 그는 자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경지에서 폐컨대 주 3일 간 일한다. 주의 나머지 3일 간은 그는 명주의 지소(地所)에서 부역 노동을 한다. 그는 부단히 자기 자신의 노동 폰드를 재생산하지만 이 노동 폰드는 결코 그에 대하여 제 3자가 그의 노동의 대'가로 천대한 지불 수단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 대신 또 그의 부지불의 강제 노동은 결코 자발적인 지불 노동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이요 명주가 부역 농노의 경지, 역축, 종자,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 수단을 자기 것으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부역 농노는 자기의 노동력을 명주에게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타의 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는 지금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에 6일 즉 자신을 위하여 3일, 지금은 고용주로 전화된 과거의 명주를 위하여 3일 일하게 될 것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는 생산 수단을 생산 수단으로서 소비하며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

3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노임을 전대하기 위하여 총용될 때 그것은 노동의 유지를 위한 폰드에 첨가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카제노브 편 말사스 저,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제 정의》에 대한 편자의 주, 런던, 1863년, 22페이지).

전할 것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은 재생산 과정으로 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역 노동이 고용 노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농민 자신에 의하여 생산되며 재생산되는 노동 폰드도 또한 과거의 명주가 농민에게 전대하는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현상 형태와 그 형태로써 현상하는 것파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제한된 두뇌를 가진 부르조아 경제학자는 현재에 와서도 노동 폰드는 전 지구상에서 오직 폐외적으로만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⁴.

여하간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그것의 부단한 갱신의 흐름에서 고찰한다면 가변 자본은 물론 자본가 자신의 폰드^{4a} 중으로부터 전대되는 가치라는 의의를 상실한다. 그러나 이 갱신은 어찌서이건 또 어느 때이건 개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취한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가 타인의 부지불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약간의 시초 축적에 의하여 일정한 순간에 화폐의 소유자로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시장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직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단순한 부단성 즉 단순 재생산이 벌써 자본의 가변 부분 뿐만 아니라 총자본에도 관계되는 다른 독특한 변화들을 초래한다.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주기적으로 폐컨대 매년 창조

4 노동자들의 생존 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대되는 것은 지구 표면의 4분의 1 이하의 지역에서이다》(리처드 존스 《제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강의안》, 허트포드, 1852년, 36페이지).

4a 《고용주는 마누팍투라적 노동자에게 그의 로임을 전대하지만 노동자는 사실상 고용주에게 조금도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로임의 가치는 보통 노동자의 노동이 첨가된 대상의 증대된 가치중에 포함되어 리윤과 함께 그의 수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A. 스미쓰 《국부론》, 제 2권, 제 3장, 311페이지).

하는 잉여 가치가 200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고 또 이 잉여 가치가 일년 동안에 남김 없이 소비된다고 하면 이 과정이 5년 동안 반복된 후에는 소비된 잉여 가치액은 200×5 즉 1,000파운드 스털링으로 되어 최초로 전대된 자본 가치와 동등하게 될 것이다. 5년 잉여 가치가 부분적으로만 폐icken대 반씩만 소비된다고 하면 상술한 결과는 생산 과정이 10년 동안 반복된 후에만 얻어질 것이다, 즉 $100 \times 10 = 1,000$ 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대된 자본 가치를 매년 소비되는 잉여 가치로 제하면 최초로 전대된 자본이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되는, 따라서 소멸하는 년수 또는 재생산 기간 수가 나온다. 자본가가 자기는 타인의 부지불 로동의 생산물 즉 잉여 가치만을 소비하고 최초의 자본 가치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일정한 년수가 경과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 가치는 그 동일한 년간에 증가 없이 그가 취득한 잉여 가치액과 같게 되며 그가 소비한 가치액은 최초의 자본 가치와 같게 된다. 그의 수중에 보유되어 있는 자본은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 자본의 일부 즉 건물, 기계 등등은 그가 기업에 착수할 당시에 이미 현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자본의 가치이고 자본의 물질적 구성 부분들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의 가치와 동액의 채무를 짐으로써 그 재산을 탕진하였다면 그의 전 재산은 바로 그의 채무 총액을 대표할 따름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자기의 전대 자본의 증가를 소비하였다면 이 자본의 가치는 다만 그가 무상으로 취득한 잉여 가치 총액을 대표할 따름으로 거기에는 원 자본 가치의 한 원자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떠한 축적과도 전혀 관계 없이 생산 과정의 단순한 반복 즉 단순 재생산이 벌써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가피적으로 모든 자본을 축적된 자본으로 즉 자본화된

잉여 가치로 전화시킨다. 자본은 그것이 생산 과정에 들어 있을 때에는 그것의 적용자 자신이 친히 번 소유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만간에 어떠한 등가도 없이 취득한 가치로, 타인의 부지불 로동의 물질화——화폐 형태로든 또는 다른 형태로든 간에——로 된다.

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는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의 존재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한 편으로는 가치 또는 화폐의 소유자가, 다른 편으로는 가치를 창조하는 실체(實體)의 소유자가 다시 말하면 생산 수단 및 생활 수단의 소유자와 노동력만의 소유자가 일방은 구매자로서, 타방은 판매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 생산물의 노동 자체로부터의 분리, 객관적 노동 제 조건의 주체적 요인 즉 노동력으로부터의 분리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사실상으로 주어진 기초이며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최초로 출발점에 불과하였던 것이 후에 와서는 과정의 단순한 부단성에 의하여, 단순 재생산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유한 결과로서 계속 부절히 생산되며 영구화된다. 한 편으로 생산 과정은 소재적 부를 자본으로 즉 자본가를 위한 가치 증식 수단과 향락 수단으로 부단히 전화시킨다. 다른 편으로 노동자는 그가 생산 과정으로 들어 갈 때와 동일한 형태로 즉 부의 인적인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수단을 략탈 당한채로 그 과정으로부터 부단히 나온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은 그가 과정에 들어 가기 전에 이미 그로부터 양도되어 자본가에게 취득되며 그리하여 자본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의 행정에서는 이 노동은 타인의 생산물에 부단히 대상화된다. 생산 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산물은 상품으로 뿐만 아니라 자본으로——즉 가치를 창조하는 힘을 팔아 들이는 가치로, 사람들을 구매하는 생활

수단으로, 생산자들을 충용하는 생산 수단으로——도 부단히 전회한다⁵. 그리하여 노동자 자신은 객관적 부를 자본으로서 즉 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그를 지배하며 그를 착취하는 힘으로서 부단히 생산하며 자본가도 역시 부단히 노동력을 그 자체의 대상화 및 실현의 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부의 주체적 원천으로서, 노동자의 유기체 자체에만 존재하는 추상적 원천으로서 생산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를 고용 노동자로서 생산한다⁶. 노동자의 이 부단한 재생산 또는 영구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 조건이다.

노동자의 소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산 자체에서는 그는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 수단을 소비하여 그것을 전대 자본의 가치보다 많은 가치의 생산물로 전회시킨다. 이것은 그의 생산적 소비이다. 이것은 동시에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력의 소비이다. 다른 편으로 노동자는 그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를 생활 수단의 획득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 소비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는 전혀 상이한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

5 《여기에 생산적 소비의 특히 주목할 만한 속성이 있다.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자본이고, 그것은 소비에 의하여 자본으로 된다》(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파리스 불문서어판, 1823년, 342페이지). 그러나 제임스 밀은 이 《특히 주목할 만한 속성》이 무엇인가는 해명하지 않았다.

6 《새로 도입된 마누팩투라가 다수의 빈민들에게 직업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빈민들은 여전히 빈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마누팩투라 기업소의 가일종의 도입은 기타의 많은 사람들을까지도 빈자로 만들고 있다》(《양모 수출 제한의 이유》, 런던, 1677년, 19페이지). 《차지 농업가들이 빈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엉터리 없는 것이다. 실은 빈민들은 빈궁 속에 살고 있다》(《최근의 구빈제도의 증가의 이유 또는 노동과 식량 가격의 대비 고찰》, 런던, 1777년, 31페이지).

는 그는 자본의 동력으로서 기능하며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며 생산 과정에서 생활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의 결과는 자본가의 생존이고 후자의 결과는 노동자 자신의 생존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생산 과정의 순전히 우연적인 삽화(挿話)로 전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은 이미 노동일 기라를 고찰할 때에 검사 검사 해명하였다. 이 경우에 그는 다만 자기의 노동력을 활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생활 수단을 소모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기 기관이 석탄과 물을 소모하고, 차륜이 기계유를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때에는 그의 소비 수단은 생산 수단중의 하나의 소비 수단에 불과하며 그의 개인적 소비는 직접 생산적 소비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본질과는 관계 없는 램용으로 생각되고 있다⁷.

개별적 자본가나 개별적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상품의 단독적인 생산 과정이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적 과정을 그것의 흐름에서와 그것의 사회적 규모에서 고찰한다면 사태는 다르게 보인다. 자본가는 자기 자본의 일부를 노동력으로 전환시킬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총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는 일거 양득한다. 그는 노동자로부터 그가 받는 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그가 주는 것으로부터도 리윤을 빼 낸다. 노동력과 교환하여 양도된 자본은 생활 수단으로 전화되며 그것의 소비는 현존 노동자들의 근육과 신경과 골격과 뇌수의 재생산과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들의 생산에 복무한다. 따라서 절대적 필요의 한계내에서의 노동 계급의 개인적 소비는, 노동력과 교환하여 자본이 양도

7 뭇시는 그가 만약 《생산적 소비》의 비밀을 진실로 구명하였더라면 이에 반대하여 그렇게 호언 장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생활 수단이 자본에 의하여 새로 착취될 수 있는 로동력으로 재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본가에게 가장 불가결한 생산 수단 자체, 즉 로동자 자체의 생산이며 재생산이다. 그리하여 로동자의 개인적 소비는 그것이 작업장, 공장 등등의 내부에서 진행되는가 외부에서 진행되는가, 로동 과정 내부에서인가 외부에서인가 하는 것에는 관계 없이 자본의 생산 및 재생산의 한 계기이다. 이것은 마치 기계의 청소가 로동 과정의 진행중에 실시되는가 또는 그것의 일정한 휴지중에 실시되는가 하는 것에는 관계 없이 생산과 재생산의 한 계기인 것과 전혀 같다. 로동자가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자본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다고 하여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측의 소비도 그 자신이 그가 먹는 것을 향락한다고 하여 생산 과정의 필요한 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로동 계급의 부단한 유지와 재생산은 언제나 자본의 재생산의 부단히 필요한 조건이다. 이 조건의 충족을 자본가는 안심하고 로동자들 자신에게, 그들의 자체 유지와 생식의 본능에 맡길 수 있다. 그는 다만 로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될 수 있는 한 극히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시키도록 배려하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영양분이 적은 음식물 대신에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남아메리카적 탄포성과는 천양지 차가 있는 것이다⁸.

8 《남 아메리카의 광산 로동자들이 매일 하는 로동(이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힘든 로동일 것이다)은 450피트나 되는 지하로부터 180—200파운드나 되는 광석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인데 그들은 빵과 콩만을 먹고 있다. 그들은 차라리 빵만을 먹고 싶어할 것이지만 그들의 주인들은 빵만으로써는 그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로동자들을 우마와 같이 취급하여 그들에게 강제로 콩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콩은 빵보다 립분(脂肪)이

그러므로 자본가와 그의 이해올로그인 정치—경제학자들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중에서 노동 계급의 영구화에 필요하며 또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를 위하여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소비하여야 할 부분만을 생산적 소비로 보고 노동자가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은 모두 비생산적 소비라고 본다⁹. 만약 자본의 축적이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의 증대를 가져옴이 없이 로임의 제고를, 따라서 노동자의 소비 수단의 장성을 초래한다면 추가 자본은 비생산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될 것이다¹⁰. 사실상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는 소비 수단이 결핍되어 있는 개인을 재생산할 따름이므로 그것은 노동자 자신에 대하여는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부를 창조하는 힘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자본가와 국가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것이다¹¹.

이와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 계급은 심지어 직접적인 노동 과정 밖에서까지 죽은 노동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부속물이다.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까지도 자본의 재생산 과정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훨씬 더 많다》(리비히 《화학의 농업 및 식물 생리학에 대한 응용》, 제 7판, 1862년, 제 1부, 194페이지 주).

9 제임스 밀 《정치 경제학 요론》, 파리스 불탄서어판, 파리, 1823년, 238페이지 이하.

10 《만약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면 자본의 그와 같은 증대는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판, 런던, 1821년, 163페이지).

11 《자본가가 재생산의 목적으로 부분 소비 또는 파피하는 것(그는 생산 수단의 소비를 넘두에 두고 있다)만이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유일한 생산적 소비이다……노동자는……그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대하여는 생산적 소비자이지만 그 자신에 대하여는 엄밀히 말하면 생산적 소비자가 아니다》(말사스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제정의》, 런던, 1853년, 30페이지).

이 과정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물을 그들의 극(極)으로부터 매탈되는 자본의 극으로 부단히 멀리 함으로써 의식을 가진 이 생산 도구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다.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는 한 편으로는 그들의 유지와 재생산을 보장하고 다른 편으로는 생활 수단을 소멸시킴으로써 그들이 노동 시장에 부단히 재출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로마의 노예는 식사슬로 얹매여 있었지만 고용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실로 그 소유자에게 얹매여 있다. 그가 독립하여 있다는 환상은 개인적 고용주들이 부단히 바뀐다는 것과 그리고 계약이라는 법적 의제(擬制)가 있다는 것에 의하여 유지된다.

지난 시기에 자본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유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강제법에 의하여 실현하였다. 례컨대 1815년까지에는 영국의 기계 제작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는 중형의 위협으로써 금지되어 있었다.

노동 계급의 재생산은 또한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의 지능(技能)의 전달과 축적도 포함한다¹². 자본가가 어느 정도로 그와 같은 기능 노동 계급의 존재를 그가 가지고 있는 생산제 조건중에 포함시키며 또 사실상 그것을 자기의 가변 자본의 현실적 존재로 보는가 하는 것은 공황에 의하여 이 생산 조건이 상실될 위험이 생기기 시작할 때 특히 명료하게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의 공민 전쟁과 그에 따른 면화 기근 때문에 랭카샤와 기타 지방들에서는 다수의 면방적 노동자들이 가두로 내던져졌다. 노동 계급 자체내에서는 물론 기타 사회층들로부터도 국가의 방조 또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하여 《과잉》 노동자들을 영국 식민지 또는 미국으로 이주시

12 《미리 저장되고 미리 준비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동자의 기능이다……기능 노동의 축적과 저장이라는 이 극히 중요한 조작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를 두고 볼 때 어떠한 자본 지출도 없이 실현된다》 (호지스킨 《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 응호》, 12, 13페이지).

키도룩 하라는 워침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때 (1863년 3월 24일) 《타임스》지는 만체스터 상업 회의소 전소장이었던 에드먼드 포터의 편지를 게재하였다. 이 편지는 하원(下院)에서 정당하게도 《공장주들의 선언》¹³이라고 불리워졌다. 이제 우리는 이 편지중에서 노동력을 자본의 소유물로 보는 견해가 아주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약간의 구절들을 다음에 인용한다.

《면방적 노동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 공급이 너무도 많다는 것……아마도 그 3분의 1은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건전한 수요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여론은 국외 이주를 주장하고 있다……고용주(즉 면방적 공장주)는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되는 데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는 이것이 불공평하며 부정당하다는 견해를 고집하고 있다……만약 국외 이주가 공채(公債)에 의하여 지지된다면 그는 그의 의견을 들도록 요구할 그리고 아마도 항의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같은 포터는 또 면방적 공업이 유익하다는 것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애탄과 잉글랜드의 농업 지방들로부터 주민들을 끌어 들이었다는 것》, 그것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 그것은 1860년에 영국의 총수출액의 $\frac{5}{13}$ 를 차지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시장, 특히 인도 시장이 확대되고 또 충분한 량의 《면화가 몬드당 6펜스로서》 강제적으로 《수입》됨으로써 수년 후에는 다시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1년, 2년, 아마 3년만 가면 필요한 량을 생산할 것이다……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이 공업은 유지할 만한 것이 아닌가? 기계(산 작업기를 넘두에 두고 있다)를 정돈해

13 《이 편지는 공장주들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1863년 4월 27일 하원 회의에서 면화 기근에 관한 페턴드의 제안).

들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을 내버린다는 것은 최대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라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I allow that the workers are not a property》), 랭카샤와 고용주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양자의 힘이다. 즉 그들은 한 세대로서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지성적이고 훈련 받은 힘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붙어서 작업하는 기계들 (《the mere machinery which they work》)은 대부분이 12개월 내에 성과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개선하기까지 할 수 있다¹⁴. 만약 노동력의 국외 이주가 장려되거나 또는 허가(!)된다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Encourage or allow the working power to emigrate, and what of the capitalist?》) (이 충심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은 궁내관(宮內官) 칼프[실테르의 애인의 아버지로서 18세기의 표만하고 우매한 궁신의 전형——편집자 주]를 회상시킨다)…… 노동자라는 유지(乳脂)를 빼여 낸다면 고정 자본은 극도로 감가(減價)될 것이며 투동 자본은 열등한 노동의 불충분한 공급과의 투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노동자들 자신이 국외 이주를 원한다고 말들 한다. 그들 편으로 보면 이것은 극히 당연하다 ……로

14 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임을 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보통의 사정하에서는 동일한 자본도 전혀 다른 노예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주들》은 이구 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 4편 주 188, 73페이지 참조):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이 사실상 극히 저급한 종류의 기능 노동이라는 것, 그들의 노동처럼 얻기 쉬운 노동은 없으며 또 그 절로 보아 이처럼 나은 지불을 받는 노동은 없다는 것, 다른 어떠한 노동도 이처럼 단기간의 훈련으로써 이처럼 신속히 또 풍부하게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용주의 기계(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12개월이면 개량된 것과 넉넉히 대체될 수 있다는)는 6개월이면 능히 배울 수 있으며 또 어떠한 농촌 머슴'군도 배울 수 있는 노동자(지금 듣기에는 30년 가지고도 대체될 수 없다는)의 노동 및 기능보다 사실상 훨씬 중요한 역할을 생산 사업에서 논다》고.

동력을 빼앗음으로써 (《by taking away its working power》) 또 지불되는 로임액을 가령 3분의 1 또는 500만 감소함으로써 방적 공업을 축소 억압한다면 노동자들의 바로 우에 있는 계급인 소매 상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대는 어떻게 되며 오막살이의 방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규모 차지 농업가들과 보다 나은 층인 가옥 소유주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우수한 공장 노동자들을 수출하여 국민의 가장 생산적인 자본과 부의 일부를 감가시킴으로써 국민을 약화시키는 이 안(案)보다도 더 나라의 모든 계급들에 대하여 자살적인 계획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2—3년에 걸쳐 500만 내지 600만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할 것, 자금 지출을 방적 지방들의 구빈원(救貧院) 당국에 소속된 특별 위원회 감독하에 둘 것, 구휼(救恤)을 받는 노동자들의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 로동을 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 사업을 단속할 것을 나는 권고한다. 광범한 황폐적인 국외 이주와 주(州) 전체의 가치 및 자본의 황폐화에 의하여 자기들의 우수한 노동자들을 잃고 나머지 노동자들 사이에는 타락과 불만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 토지 소유자들이나 고용주들에게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can anything be worse for landowners or masters》)?》

방적 공장주들의 무비(無比)의 대표자인 쏫터는 다 같이 자본가에게 속하는 두 종류의 《기계》를 구별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그의 공장 내부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밤과 일요일에는 공장 밖에 있는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죽은 것이고 후자는 산 것이다. 죽은 것은 매일과 같이 나 빠지고 감가될 뿐만 아니라 부단한 기술 진보에 의하여 그것들의 현존 수량의 상당한 부분이 낡아져서 수개월이 경과하면 보다 새로운 기계와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정도이다. 그와는 거꾸로 산 기계는 그것이 오래 복무하면 할수록,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능을 보다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더욱 개량

된다. 《타임스》지가 이 방적왕에게 준 답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에드먼드 콧터씨는 방적 기업소 주인들의 비상한 그리고 절대적인 중요성에 감동한 결과 이 제급을 유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50만외 노동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대한 도덕적 노동 수용소에 유폐(幽閉)하려 하고 있다. 이 공업은 유지할 만한 것이 아닌가? 라고 콧터씨는 질문한다. 물론 그렇다, 모든 공정한 수단들에 의하여라고 우리는 대답한다. 기계를 정돈해 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콧터씨는 다시 질문한다. 여기서는 우리는 대답에 주저한다. 콧터씨가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기계를 고용주의 무조건적 소유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다. 인간 기계를 정돈해 두는 것 즉 필요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유폐하여 두고 기름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인간 기계는 아무리 기름을 치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녹스는 속성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험이 알려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 기계들은 제멋대로 증기를 뿜으며 우리의 대도시들의 거리에서 폭발하든가 광무(狂舞)를 연출할 능력이 있다. 콧터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재생산에는 상당한 장기간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 있는 기계 기사들과 자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나 아주 열성적이며 강인하며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들에 의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공장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콧터씨는 1, 2, 3년 내에 공업의 새로운 활기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노동력의 국외 이주를 장려하지 말 것, 지어는 그것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국외 이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민은 50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70만 명을 그들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방적 지방들에 유배하여야 하며 그 불가피한 결과로 그들의 불만이 일어나면 폭력으로써 진압하고 구휼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바——이 모든 것은 방적 공장주들이 다시 그들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에서부터이다……이 <노동력>을 철이나 석탄이나 면화를 취급하듯이 취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구출하기 위하여 (‘to save this <working power> from those who would deal with it as they deal with iron, coal and cotton’) 이 나라의 위대한 여론이 그 무엇을 하여야 할 때가 왔다¹⁵.

《타임스》지의 문설은 지성(知性)의 장난에 불과하였다. 《위대한 여론》은 사실상 공장 노동자란 공장의 가동적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뭇머씨의 의견과 같았다.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는 저지되었다¹⁶. 그들은 방적 지방들의 《도덕적 노동 수용소》에 유배되었으며 또 여전히 《멩카샤의 방적 공장주들의 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그 자체의 행정에 의하여 노동 제 조건으로부터의 노동력의 분리를 재생산한다. 그

15 《타임스》 1863년 3월 24일 부.

16 의회는 국외 이주를 위하여는 한 톨의 돈도 가결하지 않고 다만 자치체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생사의 자경에 둘 수 있는 만한 즉 정상적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령들을 발포했을 따름이다. 그후 3년이 지나 가축병이 유행하였을 때에는 의회는 의회의 판매를 판촉하게 위반하면서까지 백만장자들인 지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즉시에 수백만의 돈을 지출할 것을 가결하였는바 그들의 차지 농업가들은 그와 같은 보상이 없어도 고기 값의 등가에 의하여 조금도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1866년 의회가 열렸을 때의 토지 소유자들의 질송과 같은 부르짖음은 인도교도(印度敎徒)가 아니라 하메타로 사바타의 암소 신(神)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쥬퍼티신이 아니라 하메타로 황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형제 함으로써 그것은 노동자의 착취 제 조건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한다. 그것은 부단히 노동자가 살기 위하여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또 부단히 자본가에게 치부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살 가능성을 준다¹⁷. 자본가와 노동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상품 시장에서 대립하는 것은 이제는 벌써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과정 자체의 철칙과 같은 행정이 부단히 노동자를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다시 상품 시장에 내던지며 또 부단히 그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구매 수단으로 전화시킨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를 팔기 전에 이미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의 경제적 예속¹⁸은 그의 자기 판매의 주기적 갱신과 그의 개별적 고용주

17 《노동자는 살기 위하여 생존 수단을 요구하였으며 고용주는 이익을 보기 위하여 노동을 요구하였다》 (시스몬디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파리판, 제 1권, 91페이지).

18 이 예속의 조야한 형태는 듀럼 백작령(伯爵領)에 존재한다. 이때작령은 지방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차지 농업가들이 농업 노동자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유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백작령 중의 하나이다. 광업의 존재가 농업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차지 농업가들은 판매와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오막살이가 있는 토지만을 차용한다. 오막살이의 집제는 로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오막살이는 《종(從)의집》 《hind's houses》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 오막살이는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봉건적 의무를 수행하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에게 대여되는바 이 계약은 《농노적 예속》 《bondage》이라고 불리우며 특히 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때에는 딸이나 기타 사람들을 자기 대신으로 보내야 할 의무를 그에게 지우고 있다. 노동자 자신은 예복(bondsman)이라고 말한다. 이 판제는 전혀 새로운 측면으로부터 자본을 위한 소비로서의 즉 생산적 소비로서의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를 우리에게 보이며 준다. 《이 예복의 분뇨(糞尿)까지도 그의 타산적인 주인에 의하여 그의 수입으로 가산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차지 농업가는 부근 일대에 자제 자신이 세운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변소도 세우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이 면에서의 자기의 영주권을 추호도 침해 당하려 하지 않는다》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188페이지).

의 표제와 그의 노동의 시장 가격의 동요에 의하여 동시에 조건지어지기도 하며 위장(偽裝)되기도 한다¹⁹.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일반적 관련에서 고찰하면 또는 재생산 과정으로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잉여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본주의적 관계 자체를——일방으로는 자본가를 타방으로는 고용 노동자를 생산하며 재생산한다²⁰.

19 아동 노동 등등에 있어서는 자기 판매라는 형식조차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 《자본은 고용 노동을 전제로 하고 고용 노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그것들은 호상 제약하고 호상 조성한다. 방적 공장에서 노동자는 다만 방적품만을 생산하는가? 아니다, 그는 자본을 생산한다. 그는 그의 노동을 지배하고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다시 복무하는 가치를 생산한다》(칼 맑스 《고용 노동과 자본》 《신 라인 신문》, 제 266호, 1849년 4월 7일 부에 게재) [K. 맑스, F. 엥겔스 전집, 토씨야어 판, 제 5권, 432페이지]. 이 표제화에 《신라인 신문》에 발표된 논문은 내가 1847년에 이 제목으로 독일 노동자 브뤼셀 연맹에서 한 강연의 단편으로서 그 간행은 2월 혁명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것이다.

제 22장 잉여 가치의 자본 으로의 전화

제 1 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상품 생산적 소유의 제 법칙의 자본주의적 취득의 제 법칙으로의 전화

앞에서는 잉여 가치가 어떻게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이제는 자본이 어떻게 잉여 가치로부터 발생하는가를 보자. 자본으로서의 잉여 가치의 적용 즉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재전화를 자본의 축적이라고 부른다²¹.

이 과정을 우선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고찰하자. 폐원대 어떤 방적업자가 1만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을, 그중 5분의 4는 면화, 기계 등등으로, 그리고 나머지 5분의 1은 로임으로 전대하여 매년 1만 2,0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있는 24만파운드의 방사(紡糸)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잉여 가치율이 100%라고 하면 잉여 가치는 4,000파운드의 방사 즉 총생산물

21 《자본의 축적 즉 자본으로서의 소독의 일부분의 총용》(말사스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제 정의》, 카제노브판, 11페이지). 《소독의 자본으로의 전화》(말사스 《정치 경제학 원리》, 제 2판, 런던, 1836년, 320페이지).

의 6분의 1을 이루는 잉여 생산물 또는 순(純)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판매에 의하여 실현될 2,0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액은 2,0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액이고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 화폐를 눈으로 보든가 냄새를 맡아도 그것이 잉여 가치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조여의 가치가 잉여 가치라는 사실은 그 가치가 어떻게 하여 그 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 왔는가를 표시할 따름으로, 가치 또는 화폐의 본성 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새로 추가된 2,0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이 금액을 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하여는 방적업자는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그것의 5분의 4를 면화 등등의 구입에 그리고 5분의 1은 새로운 방적공들의 구입에 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적공들은 방적업자에 의하여 전대된 가치만한 생활 수단을 시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00파운드 스털링의 이 새로운 자본이 방적업에서 기능하여 그것이 또한 400파운드 스털링의 잉여 가치를 가져 올 것이다.

자본 가치는 최초로 화폐 형태로 전대되었는데 잉여 가치는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이미 총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이 총생산물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화된다면 자본 가치는 다시 그 최초의 형태를 취하는데 잉여 가치는 그 최초의 존재 방식을 변경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양자 즉 자본 가치와 잉여 가치는 화폐액이 되어 그것들의 자본으로의 재전화는 전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나 후자나 자본가는 상품들의 구매에 지출하며 그 구매에 의하여 자기 생산물의 제조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을 얻는바 이번에는 이미 확대된 규모에서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그는 그것들을 시장에서 발견하여야 한다.

그 자신의 방사가 류통하는 것은 다른 모든 자본가들이 각

각 자기들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듯이 그도 자기의 년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시장에 들어 오기 이전에 그것들은 이미 년 생산 펀드에,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개별적 자본들의 총액 즉 사회적 총자본——매개 개별적 자본가는 그 중의 한 부분만을 소유하는데 불과한——이 전화되는 온갖 종류의 대상들의 총량에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수행되는 제 과정은 년 생산의 이러한 개별적 구성 부분들의 유통을 실현하고 그것들을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길 따름이고, 년 생산 총액을 증대시키거나 생산된 대상들의 본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년 총생산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년 총생산물 자체의 구성에 의존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의 유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년 생산은 1년 동안에 소비된, 자본의 물적 구성 부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일체의 대상(사용 가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잉여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순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다.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은 무엇으로써 이루어지는가? 혹은 자본가 계급의 욕망과 번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들, 따라서 그들의 소비 펀드에 속하는 물건들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잉여 가치는 남김 없이 탕진될 것이며 따라서 단순 재생산만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축적하기 위하여는 잉여 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기적이라도 일어 나지 않는 한 자본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 즉 생산 수단들과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건들 즉 생활 수단들 뿐이다. 따라서 년 잉여 노동의 일부는 전대된 자본의 보상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추가적 생산 수단들과 생활 수단들의 제조에 충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잉여 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잉여

가치의 체화물인 잉여 생산물이 이미 새로운 자본의 물적 구성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에 불과하다^{21a}.

그런데 이 구성 부분들을 실지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의 추가량이 요구된다. 만약 이미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착취가 외연적(外延的)으로나 집약적(集約的)으로 증대될 수 없다면 추가 노동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구(機構) 자체가 배역을 돌리었다. 왜냐 하면 이 기구는 노동자 계급을 로임에 의존하는 계급으로서 재생산하는데 그 로임의 보통 수준이 노동자 계급의 자체 유지 뿐만 아니라 그의 증식도 보장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연령의 이 추가 노동력은 매년 노동 계급 자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만큼 자본은 다만 이것을 이미 년 생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적 생산 수단들과 결합시키면 되는바 이로써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완성된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자본의 축적은 확대된 규모에서의 자본의 재생산으로 귀착된다. 단순 재생산의 순환은 변경되어 시스몬디의 이른바 나선(螺旋) 운동으로 전화된다^{21b}.

이제는 다시 상례로 돌아 가자.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사크를 낳고 이사크는 야코브를 낳고 하는 등등의 옛날 이야기와 같다. 1만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최초의 자본은 2,0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잉여 가치를 가져 오고 이것이 자본화된다.

21a 한 국민으로 하여금 사치품을 생산 수단이나 생활 수단으로 전화할 수 있게 하며 또 그 거꾸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대외 무역은 이 경우에 도외시한다. 문제를 애매하게 하는 부차적 사정들을 떠나서 연구 대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하기 위하여는 전체 상업 체계를 한국민으로서 보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도처에 확립되어 일체의 생산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21b 시스몬디는 《소독의 자본으로의 전화》라는 용어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이 조작의 물질적 조건들을 탐구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극적 분석에 있어서의 그의 큰 결함이 있다.

2,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새로운 자본은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잉여 가치를 가져 오고 이 잉여 가치가 또 자본화되어 제 2의 추가 자본으로 전화되며 이것이 또 다시 8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새로운 잉여 가치를 가져 온다, 등등.

여기에서는 잉여 가치중 자본가 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 또한 추가 자본이 최초의 자본과 결합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가, 추가 자본을 축적한 동일한 자본가가 그것을 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타인의 수중으로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망각해서는 안될 것은 새로 형성된 자본들과 함께 최초의 자본도 자체의 재생산과 잉여 가치의 생산을 계속한다는 것과 축적된 어떠한 자본에 대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창조된 추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자본은 1만 파운드 스텔링을 전대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그 소유자는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것은 그 자신의 노동과 그의 선조들의 노동에 의하여! 라고 정치 경제학의 대표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답변하고 있으며^{21c} 또 그들의 이러한 가정은 사실 상품 생산의 제 법칙에 부합되는 유일한 가정같이 보인다.

2,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추가 자본에 관하여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그것의 발생 과정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이다. 이것은 자본화된 잉여 가치이다. 이것은 출생 당초부터 타인의 부지불 노동에 유래하지 않는 가치란 추호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추가 노동력과 결합되는 생산 수단들과, 이 노동력을 유지하는 생활 수단들과는 잉여 생산물 즉 자본가 계

21c 《그의 자본을 발생케 한 최초의 노동》 (시스몬디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파리판, 제 1부, 109페이지).

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매년 탈취하는 공물(貢物)의 구성 부분들에 불과하다. 자본가 계급이 이 공물의 일부를 가지고 추가 노동력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완전한 가격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등가물과 등가물과의 교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피정복자에게서 탈취한 화폐로써 피정복자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정복자의 낡은 방식인 것이다.

추가 자본이 자체를 생산한 동일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 노동자는 우선 최초의 자본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야 하는 외에 또 자기의 이전의 부지불 노동의 생산물을 그 생산에 그들인 것보다 더 많은 추가 노동으로써 도로 구입해야 한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거래로서 고찰한다면 이제까지 고용된 노동자의 부지불 노동으로써 추가 노동자들이 고용된다고 하여도 문제의 본질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다. 자본가는 아마 추가 자본을 기계로 전화하여 이 추가 자본의 생산자를 가두에 내던지고 그 대신 2—3명의 아동들을 사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노동자 계급은 본 년도의 자기의 잉여 노동으로써 래년도에 추가 노동량을 고용할 자본을 창조한 것이다²². 이것이 소위, 자본에 의하여 자본을 낳는다는 것이다.

2,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제 1의 추가 자본 축적의 전제로 된 것은 자본가가 전대하였으며 그의 《시초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유하게 된 1만 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가치액이었다. 그런데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제 2의 추가 자본의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은 제 1의 추가 자본 즉 2,000파운드 스텔링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이것의 자본화된

22 《자본이 노동을 채용하기 전에 노동이 자본을 창조한다》
(E. G.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 2부, 110
페이지).

잉여 가치가 곧 이 400파운드 스털링인 것이다. 과거의 부지불로동의 소유가 이제는 더욱 더 증대되는 규모로서의 산 부지불로동의 현재의 취득을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자본가가 이미 축적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보다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제 1의 추가 자본을 이루는 잉여 가치가 최초의 자본의 일부에 의한 노동력의 구매——이 구매는 상품 교환의 제 법칙에 완전히 적응하며 또 그러고 법률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화폐 또는 상품의 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자유롭게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따름이다——의 결과인 한, 또 제 2 등등의 추가 자본이 제 1의 추가 자본의 단순한 결과 즉 이상의 제 1의 판매의 결과인 한, 그리고 또 매개 개별적 거래가 부단히 상품 교환의 법칙에 완전히 적응하여 수행되는 한, 즉 자본가는 항상 노동력을 구매하고 노동자는 항상 그것을 판매하는——그 판매가 노동력의 현실적 가치대로 라고까지 가정하자——한,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에 의거하는 취득의 법칙 또는 사'적 소유의 법칙은 그 자체의 내부적인 불가피한 변증법에 의하여 그것의 직접적인 대립물로 전화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초의 조작으로서 나타난 등가물과 등가물과의 교환은 일변하여 다만 외관상의 교환으로 된다, 왜냐 하면 노동력과 교환된 자본 부분 자체는 첫째로 등가물 없이 취득된 타인 노동의 생산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둘째로는 그것의 생산자인 노동자에 의하여 보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잉여물을 첨가하여 보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교환 관계는 유통 과정에 속하는 외관 즉 그 내용 자체와는 인연이 없고 오히려 내용을 위장할 뿐인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노동력의 부단한 매매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자본가가 등가물 없이 부단히 취득하는, 이미 대상화된 타인의 노동의 일부가 자본가에 의하여 보다 많은 양의, 산 타인의 노동

과 부단히 교환된다는 데 있다. 최초에는 소유권이 자체의 로동에 기초한 것처럼 나타났다. 적어도 이 가정은 필요한 것이었어야 하였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는 다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품 소유자들만이 서로 대립하며 그리고 타인의 상품을 취득할 수단은 오직 자기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는 것 뿐인데 이 자기 자신의 상품은 로동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타인의 부지불 로동 또는 그것의 생산물을 취득하는 권리로써,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취득할 수 없는 불가능성으로서 나타난다. 소유와 로동의 분리는 일견 이 양자의 동일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듯한 법칙의 필연적 결과로 된다²³.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취득의 방식은 그것이 아무리 상품 생산의 원래의 법칙들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상품 생산은 결코 이 법칙들의 위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의 적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으로 귀착되는 운동의 순차적 국면들을 간단히 물이켜 보기만 하여도 이것은 다시금 명백하여진다.

처음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가치액의 자본으로의 최초의 전화는 전혀 교환의 법칙에 따라 수행되었다. 한 교환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고 다른 교환자는 그것을 구매한다. 전자는 자기 상품의 가치를 받고 그리하여 그 상품의 사용 가치 즉 로동을 후자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후자는 이미 그의 소유하에 있는 생산 수단들을, 역시 그의 소유하에 있는 이 로동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물로 전화하는바 이 새로운 생산물도 역시 법률

23 타인의 로동 생산물에 대한 자본가와 소유는 《취득의 법칙의 필연적 결과이지만 그 법칙의 기본 원칙은 도리어 자기 자신의 로동 생산물에 대한 매개 노동자의 배타적 소유권이였다》 (제트볼리에 《부유인가, 빈곤인가》, 파리, 1841년, 58페이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변증법적 전화가 정당하게 전개되어 있지는 않다).

상 그의 소유이다.

이 생산물의 가치는 첫째로 소비된 생산 수단들의 가치를 포함한다. 유용 노동은 생산 수단들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이 생산 수단들을 소비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력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될 공업 부문에 유용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의 증가와 잉여 가치를 포함한다. 이것은 즉 일정한 기간——일, 주 등등——에 대하여 판매된 노동력이 그 기간에 그것의 소비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그의 노동력의 교환 가치가 지불되었고 그리하여 그것의 사용 가치가 양도되었는바 이 점은 다른 모든 매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노동을 제공하는 따라서 또 가치를 창조하는 독특한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상품 생산의 일반적 법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로임으로 전대된 가치액이 생산물 중에 단순히 재현될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가 첨가되어 나타날 때 이것은 결코 판매자를 속인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판매자는 그의 상품의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다만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환의 법칙은 서로 양도되는 상품들의 교환 가치의 동등성만을 조건 짓는다. 그것은 애당초부터 그것들의 사용 가치의 상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상(商)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고 완성된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그것들의 소비 과정 자체와는 절대로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최초의 전화는 상품 생산의 제 경제 법칙과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소유권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

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1)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속한다.

2) 이 생산물의 가치는 전대 자본외에 또 잉여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 잉여 가치는 노동자에게는 로동을 들이게 하였으나 자본가에게는 아무 것도 들이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본가의 합법적 소유로 되고 있다.

3) 노동자는 자기의 로동력을 유지하였으며 구매자를 발견하면 그것을 다시 판매할 수 있다.

단순 재생산은 이 제 1 조작의 주기적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그 때마다 화폐는 새로 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법칙은 위반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의 부단한 발전의 가능성만이 조성된다. 《약간의 순차적 교환들은 최후의 교환을 최초의 교환의 대표자로 하였을 뿐이다》 (시스몬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 1부, 70페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재생산은 이 제 1 조작을 고립된 과정으로서 고찰한 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킴에 충분하다. 《국민 소득이 분배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방(노동자들)은 매년 새로운 로동의 지출에 의하여 국민 소득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얻으며 타방(자본가들)은 최초의 로동 지출에 의하여 이미 이전에 그것에 대한 영구한 권리를 얻었다 (시스몬디, 동상서, 111페이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의 영역은 적자권(嫡子權)이 기적을 낳는 유일한 곳이 아니다.

단순 재생산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즉 축적에 의하여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전자에 있어서는 자본가는 잉여 가치 전부를 탕진하는데, 후자에 있어서는 그는 잉여 가치의 일부만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화폐로 전화함으로써 자기의 미덕을 증명한다.

잉여 가치는 그의 소유물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생산에 전대한다면 그가 처음에 시장에 진출한 날에 한 바와 전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폰드에서 전대한다. 그의 폰드가 이번에는 그의 노동자들의 부지불 로동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에 절대로 어떠한 영향도 없다. 노동자 을이 노동자 갑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 가치에 의하여 고용된다면 첫째로 갑은 자기 상품의 적당한 가격을 한 폰드에 누리 없이 전부 받고 이 잉여 가치를 창조하였으며 둘째로 이 사실은 노동자 을에게는 결코 아무 관계가 없다. 을이 요구하며 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다만 자본가가 그에게 그의 로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 뿐이다. <그래도 양자는 리익을 보았다, 왜냐 하면 노동자는 그의 로동이 수행되기 전에 (그의 로동이 과실을 맺기 전에 라고 말해야 할 것이었다) 그의 로동의 (다른 노동자의 부지불 로동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었다) 과실이 그에게 전대되었기 때문이며 고용주는 이 노동자의 로동이 그의 로임보다도 값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로임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었다)> (시스몬디, 동상서, 제 1부, 135페이지).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것의 갱신의 부단한 흐름에서 고찰하고 또 개별적 자본가와 개별적 노동자 대신에 그들의 총체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든다면 사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품 생산과는 전혀 무관계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상품 생산에서는 호상 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매립한다. 그들 간의 일체 관계는 그들이 체결한 계약 기일이 경과하면 단절된다. 만약 거래가 갱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행의 계약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새로운 계약에 립각한 것이며 또 그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구매자가 동일한 판매자와 재차 상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상품 생산 또는 그것에 속하는 어떤 현상을 상품 생산 자체의 경제 법칙들에 따라 판단하려면 매개 교환 행위를 그 전후의 교환 행위들과의 일체의 관련 밖에서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매는 다만 개별적 개인들 간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체 사회 계급들 간의 제 관계를 찾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오늘날 기능하고 있는 자본이 아무리 긴 일련의 재생산과 그것에 선행하는 축적들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최초의 처녀성(處女性)을 보존한다. 개별적으로 본 매개 교환 행위에 있어서 교환의 제 법칙이 준수되는 한, 취득의 방식은 상품 생산에 상응하는 소유권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완전한 변혁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부가 점점 더 타인의 부지불 로동을 부단히 새로 취득할 수 있는 자들의 소유로 되는 자본주의 시기에 이 소유권이 의연 효력을 갖는 것은 초기 즉 생산물이 생산자에게 속하며 또 생산자는 등가물과 등가물을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로동에 의하여서만 치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자유로 판매되자마자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순간으로부터 비로소 상품 생산은 보편화되며 전형적 생산 형태로 된다, 즉 이 때로부터 비로소 매개 생산물은 애당초부터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며 생산되는 부 전체가 유통을 경유한다. 고용 노동이 상품 생산의 토대가 되는 때에 비로소 상품 생산은 전체 사회에 강요되며 그 때에 비로소 그것은 그것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 수 있다. 고용 노동의 개재에 의하여 상품 생산이 외곽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품 생산이 외곽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품 생산이 그 자체의 내재적 법칙들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화되는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 상품 생산에 고유한 소유의 제 법칙

도 역시 자본주의적 취득의 제 법칙으로 전변한다²⁴.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재생산에 있어서까지도 전체 전대 자본은 그것의 최초의 기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축적된 자본으로 즉 자본화된 잉여 가치로 전화된다. 그러나 생산의 흐름에 있어서는 최초의 전체 전대 자본은 직접 축적된 자본 즉 자본으로 재전화된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이것이 그 축적자의 수중에서 기능하든 타인의 수중에서 기능하든 간에——과 비교하면 무한 소수(無限小數——수학상 의미에서 령에 가까운 수)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가리켜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적용될》²⁵ 《축적된 부》(전화된 잉여 가치 또는 소득)라고 말하며 자본가를 《잉여 생산물의 소유자》²⁶라고 말한다. 현존하는 전체 자본이 축적된 또는 자본화된 리자라고 보는 견해는 동일한 견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왜냐 하면 리자는 잉여 가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⁷.

24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소유에다……상품 생산의 소유의 영원한 제 법칙을 대립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소유를 폐질하려고 하는 프루동의 교활성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25 《자본 즉 리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축적된 부》(말사스 《정치 경제학 원리》, 362페이지), 《자본은…… 소득에서 저축된 그리고 리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로써 이루어진다》(리차드 존스 《정치 경제학에 관한 강의안》, 런던, 1852년, 16페이지).

26 《잉여 생산물 즉 자본의 소유자들》(《국민적 곤난의 원인과 구제책, 존 러셀 경에게 보내는 서한》, 런던, 1821년).

27 《자본은 저축된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복리(複利)로써 막대하게 증대되어, 소득의 원천으로 되고 있는 세계의 일체의 부가 이미 오래 전에 단순한 자본 리자로 되고 있다》(런던 《에코노미스트》, 1859년, 7월 19일).

제 2절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에 관한 정치 경제학상의 그릇된 이해

축적 즉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재전화의 보다 세밀한 규정으로 들어 가기 전에 고전 정치 경제학에 의하여 산생된 모호한 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가 잉여 가치의 일부로써 자기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구매하는 상품들이 그에게 생산 수단이나 가치 증식 수단으로서 복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의 자연적 및 사회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구매하는 노동도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자본가는 그러한 상품들과 노동을 구매함으로써 잉여 가치를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소득으로서 소비 또는 지출한다. 헤겔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舊) 귀족의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해 버리는 데 있으며》²⁸ 특히 가복(家僕)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와는 대서적으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은 자본의 축적을 공민의 첫째가는 의무로 선포하고, 그 비용보다 많은 것을 가져 오는 생산적 추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지출할 대신에 자기 소득을 전부 먹어 버리는 자는 축적할 수 없다고 근거 있게 설교하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았다. 다른 편으로 부르조아 정치 경제학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화폐 퇴장과 혼동하는²⁹, 따라서 또 축적된 부라는 것은

28 《오늘날의 어떠한 정치 경제학자도 저축을 가지고 단순한 화폐의 퇴장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단축된 불충분한 용어의 사용은 도의시하고라도 국민의 부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 저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그 용법을 생각할 수 없다. 즉 저축된 것이 그것에 의하여 유지되는 각종 노동간의 현실적 차이에 기초

그 현물 형태의 파괴 즉 소비를 면한, 지어 류통으로부터도 철수된 부라고 간주하는 속견(俗見)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류통으로부터의 화폐의 철수는 그것의 자본으로서의 총용과는 정반대되는 것일 것이며 재물의 퇴장의 의미에 있어서의 상품의 축적은 전혀 무의미한 것일 것이다^{28a}. 상당한 량의 상품의 축적은 류통의 정제 또는 파잉 생산의 결과이다²⁹. 여하튼 상술한 속견의 표상에서는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소비 폰드로 퇴장되어 서서히 소비되는 부의 형상(形狀)이 스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모든 생산 방식에 고유한 현상인 재고의 형성(形成)이 스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류통 과정의 분석에서 언급하려 한다.

따라서 고전 정치 경제학은 그것이 잉여 생산물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을 축적 과정의 특징적 계기로서 강조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전혀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오류도 시작되고 있다. A·스미스는 축적을 단순히 생산적 노동자에 의한 잉여 생산물의 소비로서 서술하는 즉 잉여 가치의 자본화를 노동력으로의 그것의 단순한 전화로써 서술하는 류행을 가져 오게 하였다. 레컨대 리카도의 말을 들어 보자——《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은 소비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어떤 가치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의하

하여 각이하게 증용됨으로써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용법의 경우이다》(말사스 《정치 경제학 원리》, 38—39페이지).

28a 레컨대 온갖 색채의 락색을 근본적으로 연구한 발자크의 생각에 그러했는바 그는 늙은 고리 대금업자 고브제크가 상품을 퇴장함으로써 축적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벌써 토당기에 들어 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29 《재고의 축적……요환의 정제……파잉 생산》(Th·코베르 《개일의 부의 원인 및 제 양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104페이지).

여 소비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재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느냐 하는 사이에는 천양지 차가 있다. 소득이 저축되어 자본과 결합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소득중 자본과 결합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비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들에 의하여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이 비(非)소비에 의하여 증대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³⁰. A·스미쓰가 내놓았으며 리카도와 그후의 모든 아류(亞流)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 즉 《소득중 자본과 결합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는 것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 이러한 생각에 의한다면 자본으로 전화되는 전체 잉여 가치는 가변 자본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도 최초로 전대된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생산 수단과 노동력으로 분할된다. 노동력은 가변 자본이 생산 과정에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자체는 자본가에 의하여 소비된다. 노동력은 자체의 기능(機能) 즉 노동에 의하여 생산 수단을 소비한다. 동시에 노동력의 구매에 지불된 화폐는 생활 수단으로 전화되는바 이 생활 수단은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A·스미쓰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자기의 분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엉터리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매개 개별적 자본은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으로 분할되나 사회적 자본은 전적으로 가변 자본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즉 전부 로임 지불에만 지출된다는 것이다. 레컨대 라사(羅紗) 공장주가 2,000파운드 스텔링을 자본으로 전화시킨다고 하자. 그는 이 화폐의 일부를 직포공의 고용에 지출하고 기타 부분을

30 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판, 런던, 1821년, 163페이지, 주. [로썬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86—87페이지, 주].

모사(毛系), 기계 등등의 구입에 지출한다. 그런데 그에게 실과 기계를 판매한 사람들도 입수한 화폐의 일부를 다시 로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등등으로 결국 2,000파운드 스털링 전부가 로임의 지불에 지출된다. 또는 2,000파운드 스털링이 대표하는 생산물 전부가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론중의 진수는 《등등》이라는 말 한마디에 있는바 이 말은 우리를 폰티우스로부터 필라투스에게로 끌고 간다.

[한정이 없다는 뜻] 사실 A·스미스는 바로 연구가 곤란하기 시작한 곳에서 그것을 끊고 있다³¹.

년 총생산 폰드만을 고찰하는 한, 년 재생산 과정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년 생산의 모든 구성 부분들은 상품 시장으로 가져 가야 하는바 곤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개별적 자본과 개인적 소득의 제 운동은 교차되고, 뒤섞이여, 전반적 위치 변경(位置變更) 즉 사회적 부의 유통에서 소실되고 마는데 이 위치 변경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극히 착잡한 연구 과제들을 제기한다. 나는 제 2권 제 3편에 가서 그러한 것들의 현실적 효상 관련을 분석할 것이다. 중농학파가 그들의 경제표(經濟表)에서 처음으로 년 생산의 형상을 그것이 유통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으로 표시하려 시도한 것은 그들의 커다란 공적이다³².

31 존 스튜어트 밀 씨는 《논리학》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행자들의 분석상의 오류를 어메시나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르주아적 시야의 범위내에서조차 그리고 ~~충전~~한 전문가적 관점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착오들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어메시나 서생다운 포조주의로써 자기 스승들의 사상상 혼란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 자체는 결국 전부 로임으로 된다, 그리고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될 때에도 그것은 다시 로임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32 A·스미스는 재생산 과정의, 따라서 또 축적의 서술에 있어서 많은 점에서 자기의 선행자들 특히 중농 학파들에 비하여 전진을 하고

또한 정치 경제학이 순 생산물 중 자본으로 전화되는 부분은 전부 노동자 계급에 의하여 소비된다는 A·스미쓰의 명제를,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리용함을 동한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 3절 잉여 가치의 자본과 소득으로의 분할. 절제론(節制論)

전 장에서는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을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폰드로서만 고찰하였고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축적 폰드로서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잉여 가치는 전자만도 아니고 후자만도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양자를 겸한 것이다. 잉여 가치의 일부는 자본가에 의하여 소득으로서 소비되고³³기타 부분은 자본으로서 충용된다, 즉 축적된다.

잉여 가치의 양이 소여의 것인 경우에는 이 두 부분중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후퇴를 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그의 환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치 경제학에 그가 남긴 실로 황당한 꼬리가 또 하나 있는바 그것은 상품의 가격이 로임과 리윤(리자)과 지대로써 즉 로임과 잉여 가치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로부터 출발하여 적어도 슈트로프호만은 다음과 같이 조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필요 가격을 그것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할 가능성은 없다》
(슈트로프호 《정치 경제학 강의》, 페펙트부르그판, 1815년, 제 2부, 141페이지, 주). 상품 가격을 그것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언하니 이 얼마나 훌륭한 경제학인가! 이에 관하여는 제 2권 제 3편과 제 3권 제 7편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33 소득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깨달을 것이다, 즉 그것은 첫째로 자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나오는 파실로서의 잉여 가치를 의미하며 둘째로는 이 파실중에서 자본가가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또는 그의 소비 폰드에 넣는 부분을 의미한다. 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할 것인바 그것은 그것이 영국과 불란서의 경제학자들의 용어 사용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것은 더욱 커진다.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 분할이 수행되는 비례가 축적의 크기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 분할을 수행하는 것은 잉여 가치의 소유자 즉 자본가이다. 따라서 이 분할은 그의 의사 행위이다. 그가 모은 공물(貢物)중에서 그가 축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그는 그것을 절약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그것을 먹어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는 자본가로서의 자기의 기능, 자기 치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인 한에 있어서만 그는 역사적 의의와 그리고 저 재치 있는 리히노프스끼가 말한 바와 같은 《날자 없는 것이 아닌》* 역사적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그 한에 있어서만 그 자신의 과도적 필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과도적 필연성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한에 있어서 또한 그의 활동의 기본 동기가 되는 것은 사용 가치와 향락이 아니라 교환 가치와 그것의 증대이다. 그는 가치 증식의 광신자로서 걸잡을 수 없이 인류를 강요하여 생산을 위한 생산을 하게 하며 그리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또 매개인의 완전한 자유로운 발전을 그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보다 높은 사회 형태의 유일한 현실적 토대일 수 있는 물질적 생산 조건들을 창조케 한다. 자본의 인격화로서만 자본가는 존경할 만하다. 그러한 것으로서는 그는 화폐 퇴장자와 공통한 절대적인 치부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폐 퇴장자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열광이었던 것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것의 적은 한개 차이에 불과한 사회적 기구(機構)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공업 기업에 투하된 자본의

* 반동적 활동가이며 대지주인 리히노프스끼는 《날자 없는》 즉 초역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으나 말을 잘못하여 부정을 두번 함으로써 반대의 것을 말하여 버렸다. 맑스는 이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편집자.

부단한 장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며 그리고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내재적 법칙들을 외적 강제적 법칙들로서 매개 자본가에게 강요한다. 경쟁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부단히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 그가 자기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진적 축적에 의하여서만이다.

자본가의 일체 행동은 그를 통하여 의사와 의식을 부여 받은 자본의 기능에 불과한 것인만큼 그 자신의 사'적 소비는 그의 자본 축적에 대한 략탈적 침해로 된다. 그리하여 이태리 부기(簿記)에서는 자본가의 사'적 지출이 자본에 대한 그의 부방(負方)에 기입된다. 축적은 사회적 부의 세계 정복이다. 그것은 착취 당하는 인간 재료의 분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본가의 직접적 및 간접적 지배의 영역을 확대한다³⁴.

34 루테르는 비록 부단히 갱신되기는 하지만 구식 자본가 형태인 고리 대금업자를 폐로 들어, 치부의 중동의 한 요소로서의 지배욕을 대단히 훌륭하게 중시하고 있다. 《이교도(異教徒)》는 이성으로부터 고리 대금업자들이 4중의 도적이며 살인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는 그들을 숭배하다 못하여 그들의 돈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지경이다……타인이 먹을 것을 훔쳐하고 략탈하며 절취하는 자는 사람을 아사시켜 그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는 것과 동일한 큰 살인죄를 (그가 할 수 있는 한) 범하는 것이다. 고리 대금업자가 바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는 본때 같으면 교수대에 목을 달아 놓고 그가 훔친 은전(銀錢)수만큼 많은 까마귀들이 달라 붙어 그를 쪼아 먹도록——다만 그만한 수의 까마귀들이 몸을 찢어 한 뭉석을 볼만큼 그에게 살이 있기만 하다면——만들어야 할 것인데 편안히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런데 소도적들은 목을 달아 죽이고 있다……소도적들은 발에 칼을 켜우고 있는데 대도적들은 황금과 비단을 쓰고 활보하며 사치를 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수전노(守錢奴)인 고리 대금업자보다 더 큰 (악마 다음에 가는) 인류의 적은 없나니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느님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토끼기인과 무사(武士)와 폭군(暴君)들도 악인임에 틀림 없으나 그들은 그때도 사람들을 살려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들이 악인이며 적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때로는 몇몇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다, 아니 동정하지 않을

그러나 원죄(原罪)는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축적과 부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는 자본의 단순한 화신(化身)이 아니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아담 [혹망]에 대하여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금욕(禁慾)을 요구한 화폐 퇴장자의 편견으로서 비웃어 버리게 되었다. 고전적인 자본가는 개인적 소비를 자기의 신성한 기능인 《절제》에 대한 죄악으로서 락인을 찍고 있는데 곤대화된 자본가는 축적이란 자기의 향락 충동의 《거부》이다라고 하는 관점에까지 이르렀다. <오오! 그의 가슴에는 서로 떨어지고자 하는 두개의 령혼이

수 없다. 그러면 고리 대금업자인 수전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을 모두 그를 위하여 기갈과 비애와 재난 속에 멸망케 하기를 바라며, 자기에게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받듯이 자기에게서 받으며, 영원히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그는 외투와 황금 고리와 가락지를 몸에 걸고 입을 닦아 성실하며 경건한 인간으로 보이며 찬양을 받으며 한다……고리 대금업자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이리와 같은 추악한 대피물로서 카쿠스나 게리온이나 안루스 [모두 회담 신화상의 인물]보다도 지목하다. 또한 그는 몸을 치장하며 경건한 체함으로써 그가 자기의 소굴에 뒤'걸음으로 끌어 들인 황소들이 어메 갔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해트쿨레스는 황소들과 포로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절벽과 바위 사이에서도 카쿠스를 찾아 내며 황소들을 악당으로부터 다시 해방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카쿠스라는 것은 경건한 고리 대금업자로서, 도적질하며 강탈하며 모든 것을 집어 먹는 악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것이란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며 누구도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는 황소들을 뒤'걸음으로 자기의 소굴에 끌어 들였으며 그 발 자취로 보아 그것들이 해방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리 대금업자는 그가 세상에 이익을 주며 황소들을 주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며 하지만 실은 그것들을 제 손아귀에만 들어 쥐고 먹어 버리는 것이다…… 화적(火賊)과 살인자와 강도물 오차(五車)의 형에 걸어 찢어 죽이며 노복을 베는 형벌에 처한다면 고리 대금업자는 모두 그보다도 훨씬 더 오차의 형에 걸리며 사지(四肢)를 찢어 죽이며……추방하며 지주하며 목을 베야 할 것이다》(마르틴 루테르 《고리 대금을 반대하여 설교하는 루승명물에게 줌》, 뢰텐베르그, 1540년).

살고 있다!》 [피레의 《파우스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역사적 요람기——갑자기 졸부(俵富)가 된 매개 자본가는 이 역사적 단계를 개별적으로 통과하고 있다——에는 치부 충동과 인색이 절대적 욕망으로서 지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진은 다만 향락이라는 세제만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기와 신용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돌연한 치부의 원천을 무수히 열어 놓는다. 일정한 발전 정도에 이르면 일정한 어느 정도의 랑비는 부의 과시(誇示), 따라서 또 신용 획득의 수단으로서 《불행한》 자본가의 사업상 필요로까지 된다. 사치는 자본을 대표하는 제 비용에 포함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가는 화폐 퇴장자에게 있어서와 같이 자기의 개인적 노동이나 자기의 개인적 소비의 착감에 비례하여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인의 노동력을 얼마나 빨아 들이며 또 노동자에게 일체의 생활상 욕망의 억제력을 얼마나 강요하는가에 따라 치부한다. 따라서 자본가의 랑비는 호탕한 봉건령주의 랑비가 가지는 출직한 성격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도리어 그 배후에는 언제나 가장 더러운 탐욕과 세심한 타살이 숨어 있지만 그러나 자본가의 랑비는 그의 축적을 결코 방해하지 않고 그 장성에 따라 장성한다. 그와 동시에 개별적 자본가의 고상한 마음 속에서는 축적 충동과 향락 충동 사이에 파우스트적 충돌이 전개된다.

1795년에 에이킨 박사가 간행한 어떤 저서에는 다음과 같이 논술되어 있다——《만체스터의 공업은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에는 공장주들은 자기의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격렬하게 노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은, 자녀들을 장제(匠弟)로서 말기고 전습을 위하여 다액의 지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그런데도 장제들은 기아에 쓰러졌다——부모들을 만착함으로써 치부하였다. 타방으로는 평균 리윤이 낮았기 때문에 축적은 대단한 절약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화폐 퇴장자

와 마찬가지로 생활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본 리자까지도 결코 소비하지 않았다. 《제 2기에는 그들은 약간의 재산을 이루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종전과 같이 격렬하게 노동하였으며》—— 왜냐 하면 노예 감시자들이 다 알고 있듯이 노동의 직접적인 착취는 노동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또 종전과 같이 검박하게 생활하였다…… 제 3기에는 사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업은 왕국내의 모든 상업 도시들로 기마 주문받이(—— 말 타고 돌아 다니며 주문을 받아 오는 자)들을 과전함으로 썩 확대되게 되었다. 1690년 이전에는 공업에서 획득한 자본으로서 3,000 내지 4,000파운드 스텔링에 달한 것은 거의 없었거나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략 이 시기에 또는 그보다 좀 늦어서 공업가들은 이미 화폐를 축적하였고 목조 가옥이나 양회 가옥 대신에 석조 가옥을 세우게 되었다……만체스터에서는 18세기의 첫 수십년 간에도 한 잔의 외국제 포도주를 자기 손님들에게 대접한 공장주는 모든 이웃 사람들 사이에 소문과 평판을 일으키었다》. 기제가 출현하기 전에는 공장주들이 저녁에 료정(料亭)에 모여서 소비한 것이 6펜스의 폰스 물 한 잔과 1펜스의 담배 한 대를 넘지 않았다. 1758년——이 해는 획기적인 해이다——에 비로소 처음으로 《영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차를 가진 사람을 단 한명!》 볼 수 있었다. 18세기의 마지막 30년 대인 《제 4기는 영업의 확대에 의거하는 대단한 사치와 낭비의 시기이다》³⁵. 선량한 에이킨 박사가 소생하여 오늘날의 만체스터를 본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제의 말이며 예언자들의 말이다! 《근면(勤勉)은 절약에 의하여 축적되는 재료를 공급한

35 에이킨 박사 《만체스터 주위 30 내지 40마일 지방의 서술》, 런던, 1795년, 182페이지 이하.

다》³⁶. 그러므로 절약하라, 절약하라 즉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 중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화하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이 공식으로 고전 정치 경제학은 부르조아 시기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하였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부의 산고(産苦)가 얼마나 큰가에 관해서는 한 순간도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았으나³⁷ 그러나 역사적 필연성 앞에서 한탄이 무슨 쓸 데가 있었는가? 고전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프로테타리아는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한 기계로서의 의의 밖에 없다면 자본가도 역시 이 잉여 가치의 잉여 자본으로의 전화를 위한 기계로서의 의의 밖에 없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자본가의 역사적 기능을 가장 신중히 취급하고 있다. 향락 충동과 치부 충동 사이의 불행한 충돌로부터 자본가의 심증을 편안히 하여 주기 위하여 금세기 20년 대 초에 말사스는 다음과 같은 특종의 분업을 옹호하였다, 즉 축적이라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가 담당하고 랑비라는 사업은 잉여 가치의 기타 참여자들 즉 토지 귀족과 그리고 국가와 사원의 부조를 받는 자 등등이 담당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출욕과 축적욕》(《the passion for expenditure and the passion for accumulation》)을 분리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³⁸. 이미 오래 전에 방탕아가 되고 사교가가 된 자본가 제씨는 부르짓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변자인 리카도 학파의 한 사람은 절규한다——말사스씨가 고를 지대, 고를 세금

36 A·스미쓰 《국부론》, 제 3권, 제 3장.

37 J·B·세이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부자들의 절약은 빈자들을 회생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의 프로테타리아는 거의 전적 사회를 회생으로 하여 살고 있었다……근대 사회는 프로테타리아를 회생으로 하여 즉 노동 지불시에 그들에게서 탈취하는 부분에 의하여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서스몬디 《경제학 연구》, 제 1권, 제 24페이지).

38 말사스 《정치 경제학 원리》, 319, 320페이지.

등등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공업가들에 대한 비생산적 소비자들의 압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을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생산, 부단히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이것이 그의 구호(口號)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은 그러한 방도에 의하여서는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된다. 또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들의 성격상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who are likely, from their characters》)——을 다른 사람들을 편달하기 위하여 무위 도식케 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nor is it quite fair》)》고³⁹. 그러나 그는 공업 자본가의 수프로부터 지방(脂肪)을 빼냄으로써 그에게 축적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면서도 《로동자를 근면하게 하기 위하여》 로임을 될 수 있는대로 최저한에 국한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리윤 획득의 비밀은 부지불 로동의 취득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다. 《로동자 측으로부터의 수요의 증가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자기들은 보다 적은 몫을 차지하고 고용주에게는 보다 큰 몫을 제공하려 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소비의 감소 (로동자 측으로부터의)에 의하여 포화(飽和 《Glut》——즉 시장의 과잉 증만, 과잉 생산)가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포화란 높은 리윤과 동의어(同意語)라고 나는 대답할 따름이다》⁴⁰.

로동자들로부터 탈취한 획득물을 공업 자본가와 무위 도식하는 토지 소유자 등등 간에 어떻게 분배하면 축적에 유익하겠는가 하는 학문상의 싸움은 7월 혁명 앞에서 잠잠해졌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리윤의 도시 프로레타리아트는 경종을 울리었으며 잉글랜드와 농촌 프로레타리아트는 불을 질렀다. 해협의

39 《……수요의 본성에 관한 제 원리의 연구》, (67페이지).

40 동상서, 59페이지.

이 편에서는 오웬주의가, 저 편에서는 상 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가 성했다. 속류 정치 경제학의 조종(吊鐘)이 울려 왔다. 만체스터에서 낚소 W. 시노어가 자본에 대한 리윤(리자를 포함)은 지불되지 않은 《12시간 노동의 최후 한 시간》의 생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바르 1년 전에 그는 다른 또 하나의 발견을 세상에 전하였다. 그는 어마어마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나는 생산 도구로서 고찰되는 자본이라는 말을 절제(節制)라는 말로써 대치한다》⁴¹. 이것이야말로 속류 경제학의 《발견》의 무비의 모범이다! 한 개의 경제학적 범주가 아침적 언사로써 대치되고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시노어는 다음과 같이 자르친다——《야만인이 활을 만든다면 그는 한 개의 업(業)에 종사하는 것이지 절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종전의 사회 상태들에서 노동 수단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자본가의 《절제 없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사회가 전진하면 할수록 그것은 보다 많은 절

41 시노어 《정치 경제학 기본 원리》, 아리바베네 역, 파리, 1836년, 308페이지. 구 고전학파의 지지자들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 《시노어씨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표현을 노동과 절제라는 표현으로써 바꾸어 놓고 있다……절제는 단순한 거부이다. 리윤의 원천은 절제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총용되는 자본의 소비이다》(말사스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제 정의》, 존 카제노브 편, 런던, 1853년, 130페이지, 주). 존 스튜어트 밀씨는 이와는 반대로 어느 페이지에서는 리카도의 리윤 이론을 복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페이지에서는 시노어의 《절제에 대한 보수》론을 취하고 있다. 그는 모든 변증법의 원천인 헤겔의 《모순》은 모르고 있었으나 천박한 모순물에는 친근하다.

제 2판에 대한 추가. 어떠한 인간의 행동도 그와 반대되는 행동의 《절제》로서 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상이 속류 경제학자의 머리 속에는 없다. 먹는다는 것은 단식의 절제, 간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의 절제, 노동한다는 것은 무위 도식의 절제, 무위 도식은 노동의 절제 뽕뽕이다. 이 탐반론은 《정(定)은 부정이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를 요구한다》⁴², 즉 타인의 노동과 그 생산물의 취득을 업으로 하는 자들 측으로부터. 노동 과정의 모든 조건들은 자본가의 그만큼한 수의 절제 행위들로 전화한다. 곡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씨 뿌린다는 것도 자본가의 절제에 의한 것! 일정한 시간을 주어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것도 자본가의 절제에 의한 것! ⁴³ 자본가가 증기 기관, 면화, 철도, 비료, 태마(駄馬) 등등을 먹여 버리지 않고, 즉 속류 경제학자의 유치한 표현대로 하면 그것들을 사치 기라의 소비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탕진하지 않고, 《노동 도구들을 노동자에게 대여(!)》 즉 그것들을 노동력과 결합함으로써 자본으로서 소비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아담(욕망)을 탈취하는 것이다⁴⁴. 자본가 계급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가는 이제까지 속류 경제학이 엄격히 지켜 온 비밀이다.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비슈누 신(神)의 근대적 숭배자인 자본가의 자체 고행(苦行)에 의하여서만 생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축적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본의 유지에 있어서도 그것을 소비하려는 유혹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부단한 힘의 긴장이 요구된다》⁴⁵. 그리하

42 시노어, 동삼서, 342페이지.

43 《누구나……추가 가치 동물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밀이나 포도주 또는 그것들의 동가물을 즉시로 소비하지 않고, 레컨대 밀을 파종하고 열두 달이나 땅 속에 파묻어 부려 또는 포도주를 몇 해나 움 속에 두지 않을 것이다》(스크로프 《정치 경제학》뮌헨판, 뉴욕, 1841년, 133, 134페이지).

44 《자본가가 자기의 생산 도구의 가치를 소비품이나 사치품으로 전화함으로써 자기의 개인적 소비에 물릴 대신에 그것들을 노동자에게 대여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불편》(G·드 몰리나리 《경제학 연구》, 파리, 1846년, 36페이지) 《대여》라는 원폭한 표현은 속류 경제학자들의 약효 있는 수법에 따라, 공업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고용 노동자와, 대부 자본가의 회계물 이용하는 공업 자본가 자신파를 동일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45 쿠르셀—스누이유 《공업 기업의 이론 및 실천》, 제 2판, 파리, 1857년, 20페이지.

여 단순한 인간성이 이미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유혹으로부터 자본가를 해방하기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노예제의 폐지에 의하여 최근 조지아의 노예 소유자가 흑인 노예들로부터 채적으로 떨어진 잉여 생산물의 전부를 삼광술로 마시여 버릴 것인가 또는 그 일부를 추가량의 흑인들과 토지로 재전환할 것인가 하는 고통스러운 딜레마로부터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각이한 사회 경제 구성하에도 단순 재생산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더 많이 생산되며 또 더욱 더 많이 소비되며 따라서 더욱 더 많은 생산물이 생산 수단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노동자의 생산 수단, 따라서 그의 생산물 및 그의 생활 수단이 자본의 형태로 그에게 대립하기까지는 자본의 축적이 아니며 따라서 또 자본가의 기능도 아니다⁴⁶.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리처드 존스——하일리버리의 동인도 대학 정치 경제학 강좌에 있었던 말사스의 후계자——는 이 점을 두 개의 큰 사실에 의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인도 인민의 대다수는 자립적 경영의 농민이므로 그들의 생산물, 그들의 노동 수단 및 생활 수단은 《타인의 소득에서 절약된》(《saved from Revenue》) 폰드의 형태로서는(《In the shape》)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축적이라는 선행 과정》(《a previous process of accumulation》)을 경과하지 않는다⁴⁷. 다른 편으로 영국의 지배에 의하여 낡은 제도가 가장 적게 해체되고 있

46 《어떠한 종류의 소득이 국민 자본의 진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가는 그들의 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또 제국민이 처해 있는 진보 정도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르다……리윤은……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들에 있어서는 로임이나 지대에 비교하면 축적의 미미한 원천이다……국민적 근로의 힘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전진하였을 때 리윤은 축적의 원천으로서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된다》(리처드 존스 《……강의안》, 16, 21페이지).

47 통상서, 37페이지.

는 지방들에서는 비농(非農) 노동자들이 직접 대령주들에게 고용되는바 이들의 수중에는 농업에서의 잉여 생산물의 일부가 공물(貢物) 또는 지대의 형태로 집중되는 것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현물 형태로 대령주들에 의하여 소비되고 다른 일부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그들을 위한 사치품과 기타 소비 수단들로 전화되며 나머지 부분은 자기의 노동 도구의 소유자인 노동자들의 토임을 이룬다. 생산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여기에서는 저 기묘한 성인(聖人)이며 저 근심에 잠긴 기사(동 키호테)인 《절제》하는 자본가의 아무런 개재 없이 진행된다.

제 4절 자본 및 소득으로의 잉여 가치의 비례적 분할과는 관계 없이 축적 의 규모를 규정하는 제 사정. 로 동력의 착취 정도. 노동 생산력. 총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 의 차액의 장성. 전대 자본의 크기

잉여 가치가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축적되는 자본의 크기는 잉여 가치의 절대량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80%가 자본화되고 20%가 소비된다고 가정한다면 잉여 가치의 총액이 3,000파운드 스털링이나 1,500파운드 스털링이나에 따라 축적되는 자본은 2,400파운드 스털링이 되든가 또는 1,200파운드 스털링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축적의 크기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잉여 가치량을 규정하는 사정들 전부 다 같이 작용한다. 이 사정들이 축적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총괄하여 보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드시 잉여 가치율은 무엇보다도 노동

력의 착취 정도에 의존한다. 이 사정을 정치 경제학은 대단히 중요시하여 왕왕 노동 생산력의 제고에 의한 축적의 촉진을 노동자의 착취의 제고에 의한 축적의 촉진과 혼동한다⁴⁸. 잉여 가치의 생산에 관한 편(篇)들에서 우리는 언제나, 로임은 적어도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가치 이하로의 로임의 강제적 인하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나마 이 문제에 문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그러한 로임 인하는 사실상 노동자의 필요 소비 фон드를 자본의 축적 фон드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로임은——존 스튜아트 밀은 말한다——하등의 생산력도 없다, 그것은 한 개 생산력의 가격이다, 로임은 기계 그 자체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 그 자체와 더불어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이 구매 없이 획득될 수 있다면 로임은 불필요할 것이다⁴⁹. 그러나 노동자들이 공기를 먹고 살 수 있다면 어떤 가격을 주어도 그들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료(無料)의 노동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한 개 한

48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사회 발전의 단계가 다음에 따라 자본의 축적 즉, 노동 증용을 위한(즉 착취를 위한) 수단의 축적은 보다 빠르든가 보다 덜 빠를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노동 생산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 생산력은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풍부히 존재하는 곳에서 가장 크다〉고, 이 구절의 노동 생산력이란 말이 매개 생산물 중 그것을 자기의 노동으로써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증으로 풀어 가는 부분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리카도의 이 구절은 동의반복(同義反復)이니 왜냐 하면 폰드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서는, 물론——그 소유자가 바란다면(if the owner pleases)——자본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토지가 가장 비옥한 곳에서는 일어 나지 않는다》(《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상 논쟁에 관한 고찰》, 74, 75페이지).

49 존 스튜아트 밀 《정치 경제학상의 약간의 미해결 문제들에 관한 논집》, 런던, 1844년, 90페이지.

계로서 부단히 접근할 수는 있으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이와 같은 허무적 립장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자본의 부단한 경향이다. 내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18세기의 저술가인 《상공업에 관한 문술》의 저자는 영국 노동자들의 로임을 불탄서나 화란 노동자들의 수준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영국의 역사적인 사회적 과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영국 자본의 배'속 깊이 숨어 있는 비밀을 토로하였을 따름이다⁵⁰. 그 중에서도 그는 조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러나 만약 우리 나라의 빈민들(노동자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말)이 사치스럽게 살려고 한다면 그들의 노동은 물론 값 비싸게 되지 않을 수 없다……우리 나라 마누파뚜라 노동자들이 불탄테, 진, 차, 사탕, 외국산 과일, 강한 맥주, 갱사(更紗), 취연초(嗅煙草), 흡연초(喫煙草) 등등과 같은 것들을 소비하게 될 때의 그 엄청난 과용을 생각만 해도 몹서리 친다》⁵¹. 저자는 경진하게 하늘을 우뚝히 보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는 노렘프런샤의 어떤 공장주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불탄서에서는 영국에서보다 노동이 3분의 1이나 저렴하다, 왜냐 하면 불탄서의 빈민들은 심한 로동을 하는 데도 먹고 입는 것에 절도가 있어서 그들의 주요 소비품은 빵, 과일, 야채, 초근, 전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일은 대단히 드물며

50 《상공업에 관한 문술》, 런던, 1770년, 44페이지. 1866년 12월과 1867년 1월의 《타임스》지도 그와 비슷하게 영국 광산 주들의 심정을 게재하였는바 거기에서는《고용주》를 위하여 살아 가기에 꼭 필요한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또 받지 못하는 벨기 광산 노동자들의 행복한 상태가 서술되었었다. 벨기의 노동자들은 오래 동안 참아 오는데 《타임스》지에서는 모범 노동자로서 취급되고 있다니——실로 언어도단이다! 1867년 2월 초에 벨기 광산 노동자들의(마르시엔 근방의) 과업——이 과업은 탄환과 화약으로써 진압되었지만——이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

51 동상서, 41, 46페이지.

밀 값이 비쌀 때에는 빵도 대단히 적게 먹는다》⁵². 이 문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시는 것은 물과 그에 류사한 약한 술인데 그 때문에 그들은 사실 놀랄만큼 돈을 적게 쓴다……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것은 물론 어렵으나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왜냐 하면 불탄서에도 화란에도 그러한 사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³. 20년 후에 남작 칭호를 받은 양키인 미국 사기사 벤자민 텀슨(별명 텀포드 백작)은 동일한 박애주의적 계획을 발전시켜 신과 인간의 커다란 호감을 샀다. 그의 《론집》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값 비싼 정상적 음식물을 값싼 대용품으로 대신할 것인가를 보이며 주는 각종 조리법으로 차 있는 한 개의 요리책이다. 이 경탄할 《철학자》의 특히 훌륭한 조리법의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보리 5파운드, 옥수수 5파운드, 3펜스의 청어, 1펜스의 소금, 1펜스의 초, 2펜스의 호초와 야채 도합 20펜스 $\frac{3}{4}$ 으로 64명 분의 스프를 얻는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중간이 되면 이 비용은 1명당 4분의 1펜스로 더 내릴 수 있다》⁵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

52 노샘프턴셔의 이 공장주는 그의 심중의 고민을 고백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에서 하나의 경건한 기만을 하고 있다. 그는 불탄서와 영국의 마누파투라 노동자들의 생활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에 인용한 말로써는, 그 자신도 나중에 자백하고 있듯이 불탄서의 농업 노동자들의 생활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53 《상공업에 관한 문술》, 런던, 1770년, 70, 71페이지. 제 3판 주. 그 때부터 일어난 제제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에 서 우리는 상당한 전진을 보았다. 의원(議員) 스태플리톤은 그의 선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위대한 공업 국가가 된다면 구라파의 노동 인구가 어떻게 그 경쟁자들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채 그들의 투쟁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나는 모르겠다》(1873년 8월 3일 부 《타임스》지). 이제는 벌써 대륙의 로임이 아니라 중국의 로임이 영국 자본의 갈망하는 목표로 되고 있다.

54 벤자민 텀슨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문집》, 전 3권, 런던 17

들의 위조(僞造)는 립슨의 리상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⁵⁵.

18세기 말과 19세기 최초 수십년 간에 잉글랜드의 차지 농업가들과 지주들은 농업 일용(日傭) 노동자들에게 로임의 형태로는 생계에 필요한 최저한 이하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교구(敎區) 자선 사업의 구출금의 형태로 추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수입을 극도로 낮은 한계까지 저하시킬 수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의 촌 신사들이 임금물을 《합법적으로》 제정할 때에 부린 우슴'거리의 일페는 다음과 같다——《1795년 향신(鄉紳)들이 스핀햄랜드에서의 로임을 제정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침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은 점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즉 임금은 8파운드 11온스의 빵 한 덩어리 값이 1실링일 때에는 1명당 3실링일 것이고 빵 한 덩어리 값이 1실링 5펜스에 팔릴 때까지는 규칙적으로 높일 것

96—1802년, 제 1권, 288페이지. 씨 F·M·이튼은 자기의 저서 《잉글랜드의 빈민의 상태 또는 노동 계급의 역사 등등》에서 노동자 수용소 소장들에게 립포드식의 걸인 스프를 특히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의 노동자들을 책망삼아 다음과 같이 훈시하고 있다——《스코틀랜드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수개월 동안이나 밀이나 라이맥이나 고기 대신에 다만 물과 소금을 섞은 귀밀 가루와 보리 가루를 먹으면서도 대단히 안락하게 (and that very comfortably too) 살고 있다》(동상서, 제 1권, 제 2부, 제 2장, 50페이지). 비슷한 《훈시들》이 19세기에 도 있었다. 메컨대 《잉글랜드의 농업 노동자들은 품위가 낮은 곡물들의 혼합물을 먹으며 하지 않는다. 교육이 보다 잘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편견은 없는 듯하다》(찰스 H·패러 《현행 곡물법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의 고찰》, 런던, 1816년, 69페이지). 그런데 이 같은 패러는 잉글랜드의 노동자가 현재 (1815년) 이튼의 시대 (1797년)에 비하여 심히 열락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55 생활 수단의 위조에 관한 최근의 의회 조사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의약품들의 위조조차 영국에서는 예외가 아니고 상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컨대 런던의 34개소의 약국들로부터 산 아편 전분 34개를 조사해 본즉 31개는 양귀비 대가리, 밀가루, 고무, 진흙, 모래 등등의 혼합물로 위조되어 있었다. 다수의 것들이 모르핀의 1원 자로 없었다.

이라고 그들은 결정했다. 빵 값이 그 이상으로 오르면 로임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야 하는바 그리하여 빵 한 덩어리 값이 2실링일 때에는 일'군의 소비는 종전보다 5분의 1 감소되어야 한다》⁵⁶. 《1814년에 상원 조사 위원회 앞에서 매차지 농업가이며 로동 수용소의 관리를 맡고 로임도 조정하는 치안 관사(治安 判事)인 A·벤넬트라는 자가 다음과 같이 심문을 받았다——《일로동의 가치와 요구의 구출금 간의, 어떤 것이든, 규정된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렇습니다. 매 가족의 매 주간의 수입은 그의 명목 임금을 초과하여 일명당 한 갤런의 한 덩어리 빵(8파운드 11온스)과 3펜스까지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한 갤런의 빵은 가족의 매개 성원이 1주일 동안 생활을 유지함에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3펜스는 의복용으로 주는 것인데 만약 요구가 직접 의복을 주는 경우에는 이 3펜스는 구출금에서 공제됩니다. 이 관례는 월트샤의 서부 일대에서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⁵⁷. 당시의 어떠한 부르주아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그와 같이 차지 농업가들은 수년 동안이나 동포중의 존경할 만한 계급을 로동 수용소로 찾아 가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타락시키고 있다……차지 농업가는 로동자들'측의 가장 필수적인 소비 폰드의 축적조차 방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소득을 증대시켰다》⁵⁸. 로동자의 필수적 소비 폰드로부터의 직접적 박탈이 오

56 G·L·뉴햄(변호사) 《곡물법에 관한 의회 양원 위원회들에서의 증언의 고찰》, 런던, 1815년, 20페이지, 주.

57 동상서, 19, 20페이지.

58 찰스 H·패리 《현행 곡물법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의 고찰》, 런던, 1816년, 77, 69페이지. 지주 제씨는 지주 제씨대로 그들이 영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반자코방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부물 하였다. 《그들의 지대는 18년 간에 2배, 3배, 4배로 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6배로 되었다》(동상서, 100, 101페이지).

늘날 잉여 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따라서 또한 자본의 축적 본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는 폐컨대 소위 가내로동의 교찰에 제하여 본 바이다(제 13장, 제 8절 d항 참조). 더 상세한 사실들은 이 편(篇)의 진행에 따라 앞으로 볼 것이다.¹

모든 산업 부문들에서 불변 자본중 로동 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자본 지출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수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용되는 로동자 수에 비례하여 증대되어야 한다는 법은 결코 없다. 어떤 공장에서 100명의 로동자가 8시간 로동하에서 800 로동 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자 만약 자본가가 이 시간을 반만큼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50명의 새 로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 그는 임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로동 수단을 위하여도 신자본을 전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종전의 100명의 로동자들을 8시간 대신에 12시간 로동시킬 수 있으니 그 때에는 그는 현존 로동 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바 그 때에는 로동 수단이 보다 급속히 마멸될 따름이다. 그리하여 로동력의 긴장을 제고함으로써 조성된 추가로동은 불변 자본의 해당한 증대 없이 축적의 실체(實體)인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채취 공업 폐컨대 광업에 있어서는 원료는 전대 자본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로동 대상이 과거 로동의 생산물이 아니고 자연에 의하여 무상으로 증정된 것이다. 금속광, 광물, 석탄, 석재 등등이 그렇다. 여기에서는 불변자본은 거의 전혀 증대된 양의 로동(로동자들의 주야 교대 등등의 설정에 의한)을 충용하기가 극히 용이한 로동 수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타의 모든 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물의 량과 가치는 충용된 로동량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여기에서는 생산의 첫 날에서와 같이 생산물을 창조하는 따라서 또한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을 창조하는 본원적 두 요인인 인간과 자연이 손에 손을 잡고 나간다. 로동력의 신축성의 덕택으로 축적의 영역은 불변 자본의 사건의 증대 없이 확대된다.

농업에서는 종자와 비료의 추가적 전대 없이 경작지를 확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대가 일단 실시되면 토지의 순 기계적인 경작으로도 생산량은 경이적으로 제고된다. 그리하여 종전대로의 로동자 수에 의하여 수행된 보다 많은 양의 로동은 로동 수단에 대한 새로운 전대를 요하지 않고도 토지의 비옥도를 높인다. 이것이 또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작용인바 이 작용은 새 자본의 여하한 참가도 없는 축적 제고의 직접적 원천으로 된다.

끝으로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업에서는 로동에 대한 매개 추가 지출은 그에 상응한, 원료에 대한 추가 지출을 전제로 하나 그러나 로동 수단에 대한 추가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취 공업과 농업은 가공 공업에 그 자체의 원료와 그의 로동 수단을 위한 원료를 공급하므로 전자들에 의하여 자본의 추가 지출 없이 산출되는 생산물의 추가량은 후자에게도 유리하다.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자본은 부의 본원적 두 요인들인 로동력과 토지를 장악함으로써 팽창력을 획득하는바 이 팽창력에 의하여 자본은 그 자체의 크기에 의하여 즉 이미 생산된 생산 수단들——그것들에서 자본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의 가치와 양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 같이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자체의 축적 요소들을 확대할 수 있다.

자본 축적의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력의 수준이다.

로동 생산력의 장성에 따라, 일정한 가치가 따라서 또한 일정한 크기의 잉여 가치가 표시되는 생산량도 장성한다. 잉여 가치율이 불변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에

도 그것이 노동 생산력의 제고보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잉여 생산물량은 장성한다. 그러므로 소득과 추가 자본으로의 잉여 생산물의 분할이 불변인 경우에 자본가의 소비는 축적 펀드의 감소 없이 장성할 수 있다. 축적 펀드의 상대적 크기는 소비 펀드를 희생으로 하여——그리고도 자본가는 상품의 저렴화에 의하여 종전과 동일한 양의 또는 종전보다 많은 양의 소비품을 갖게 된다——장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능률의 장성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 임금이 제고되는 경우에조차 노동자의 저렴화 따라서 또 잉여 가치물의 증대가 병행한다. 실질 임금은 결코 노동 생산 능률에 비례하여 증대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가변 자본 가치가 보다 많은 노동력을 따라서 보다 많은 로동을 운동하게 한다. 동일한 불변 자본 가치는 보다 많은 양의 생산 수단으로 즉 보다 많은 양의 노동 수단, 노동 자재 및 보조 자재로 표시되며 따라서 생산물과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들 즉 로동을 빨아 들이는 요소들을 보다 많이 제공한다. 그러므로 추가 자본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감소되는 경우에조차 축적은 촉진된다. 재생산의 규모가 소재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의 생산은 추가 자본의 가치보다 급속하게 장성한다.

노동 생산력의 발전은 또한 최초의 자본 또는 생산 과정에 이미 있는 자본에 대하여서도 영향을 준다. 기능하고 있는 불변 자본의 일부분은 기계 등등과 같은 노동 수단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다소간 장기간에 걸쳐서만 소비되며 따라서 재생산 또는 동종의 신문에 의하여 대체된다. 그러나 이 노동 수단들의 일부분은 매년 사멸한다, 즉 자체의 생산적 기능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년 자체의 주기적 재생산 단계에, 또는 동종의 신문에 의한 대체 단계에 있다. 만약 노동 생산력이 이 노동 수단들을 생산하는 부분들에서 발전된다면——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것은 부단히

발전된다——낮은 기계, 공구, 장치 등등 대신에 보다 효능 있는, 그리고 그것들의 작업의 규모에 비한다면 보다 저렴한, 새로운 것들이 들어 선다. 현존 로동 수단들의 개별적 부분품들의 부단한 변화는 도외시하더라도 구자본은 보다 생산적인 형태로 재생산된다. 불변 자본의 기타 부분 즉 원자재와 보조자재는 1년 중에 부단히 재생산되는데 농업에서 나오는 자재는 대개 1년에 1회 재생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량된 방법 등등의 온갖 도입이 추가 자본과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에 거의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화학 영역에 있어서의 온갖 진보는 유용 물질들의 수와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들의 효과적 적용을 다양하게 하며 그리하여 자본의 장성에 따라 그것의 투하량을 확장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의 배설물(排泄物)들을 재생산 과정의 회전에 도로 집어 넣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자본의 사전 지출 없이 새로운 자본의 소재를 조성한다. 로동력의 긴장을 제고하는 것만으로 자연 부의 리용이 증대되듯이 과학과 기술은 기능하고 있는 자본에다 그것의 소여량에 의존하지 않는 확대 능력을 준다. 그것들은 또한 최초의 자본중개 단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도 영향을 준다. 이 자본 부분은 그것의 낮은 형태의 배후에서 진행된 사회적 진보를 무상으로 그것의 신 형태에 합체한다. 물론 생산력의 이러한 발전은 기능하고 있는 자본들의 부분적 가치 감소를 수반한다. 이 가치 감소가 경쟁에 의하여 통절히 느껴지게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의 주요 부담은 로동자에게 떨어지며 자본가는 로동자의 착취를 제고함으로써 자기의 손실을 메꾸려 한다.

로동은 그것이 소비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한다. 다른 편으로 소여의 로동량에 의하여 운동하게 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와 양은 로동이 생산적이 됨에 비례하여 장성한다. 따라서 소여의 로동량이 그것의 생산물에 언제나 동일한

액의 새로운 가치를 첨가할 뿐이라 하더라도 생산물에 동시에 이전되는 구자본 가치는 로동 생산 능력의 제고에 따라 장성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영국인 방적공과 한 명의 중국인 방적공이 같은 강도로써 같은 시간수를 로동한다고 하면 그들은 1주간에 동등한 가치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등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동 장치를 가지고 로동하는 영국인의 주 생산물의 가치와 물레(紡車)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인의 주 생산물의 가치 사이에는 방대한 차이가 있다. 중국인이 1파운드의 면화를 방적하는 동일한 시간에 영국인은 수백 파운드를 방적한다. 수백배나 큰 액의 구가치가 영국인의 생산물의 가치를 팽창시키는바 그 구가치는 이 생산물에서 새로운 유용한 형태로 유지되고 그리하여 새로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F·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1782년에 과거 3년 간의 양모의 전체 재고(영국에서의)가 로동자들의 부족으로 가공되지 않은채 묵고 있었는데 만약 새로 발명된 기계가 마침 제때에 도우러 와서 그것을 방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묵어 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⁵⁹. 물론 기계의 형태로 대상화된 로동은 직접 단 한명의 새로운 로동자도 창조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소수의 로동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추가적 산로동 지출로써 양모를 생산적으로 소비하고 양모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사 등등의 형태로 양모의 구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양모의 확대 재생산에 수단과 자극을 제공하였다.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면서 구가치를 유지하는 능력은 산로동의 천품이다. 그러므로 생산 수단의 유효성, 규모 및 가치의 장성에 따라 즉 생산력 발전을 수반하는 축적의 장성에 따라 로동은 부단히 새로운 형

59 F·엥겔스 《영국에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 20페이지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3권, 308페이지].

태로서 부단히 팽창하는 자본 가치를 유지하고 영원한 것으로 한다⁶⁰. 로동의 이 자연적 능력은 로동을 합체하고 있는 자본

60 고전 경제학은 노동 과정 및 가치 증식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재생산의 이 중요한 계기를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바 테컨대 리카도에 있어서 그렇다. 테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생산력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백만의 사람들은 공장을에서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생산한다》. 이것은 그들의 로동의 외연적 및 집약적 크기가 소여의 것이라면 옳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 생산력이 상이하면 백만의 사람들이 대단히 상이한 양의 생산 수단을 생산물로 전화시키고 그리하여 대단히 상이한 양의 중전의 가치를 생산물로서 유지하고 따라서 대단히 상이한 가치의 생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리카도는 약간의 결론들에서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있다. 부연하지만 리카도는 이 테로써 J·B·세이에게 사용 가치 (그는 이것을 부라고 즉 소재적 부라고 부르고 있다)와 교환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세이는 대답한다——《백만의 사람들이 완성된 생산 방식을 하에서는 2배 3배나 많은 부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보다 많은 가치는 생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리카도씨가 지적하고 있는 그 난점에 관하여 말한다면 만약 우리가 생산이란 것을, 생산물을 대신 얻기 위하여 노동과 토지와 자본의 생산적 봉사들을 주는 교환으로 본다면——또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지만——이 난점은 해소된다. 이 생산적 봉사들에 의하여서만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물을 얻는다. 환언하면 우리가, 생산이라고 불리우는 교환에서 대신 얻는 유용물이 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보다 부유한 것이고 우리의 생산적 봉사들은 보다 많은 가치를 갖는다》(J·B·세이 《말사스씨에게 주는 서한》, 파리, 1820년, 168, 169페이지). 세이가 제거하고자 하는 《난점》——이것은 세이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리카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노동 생산력이 장성하는 영향하에 사용 가치들의 양이 장성할 때 사용 가치들의 가치는 왜 증대되지 않는가? 해답——난점은 우리가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라고 칭할 것을 응락한다면 해결된다고. 교환 가치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교환과 관련된 한 개의 사물이다. 그리하여 생산이란 것을 생산물에 대한 노동과 생산 수단의 《교환》이라고 칭한다면 생산에서 창조되는 사용 가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교환 가치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환언하면 1로동일이 공장주에게 제공하는 사용 가치를 테컨대 양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장주는 그만큼 더 양말 부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연 다음과 같은 사상이 세이씨에게

의 자기 유지 능력으로서 나타나는바 이것은 사회적 노동 생산력이 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나고 또 자본가에 의한 잉여 노동의 부단한 점유가 자본의 부단한 자기 증식으로서 나타나는 것과 꼭 같다. 상품 가치의 모든 형태들이 화폐의 형태들로 보이는 것과 같이 노동의 모든 힘은 자본의 힘으로 보인다.

자본의 장성에 따라 충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액이 장성한다. 환언하면 건물, 기계, 배수관(排水管), 역

메오론다——양말의 《수량의 증대》에 따라 그것들의 《가격》(이것은 물론 교환 가치와 하등 관계가 없다)은 떨어진다. 《그것은 경쟁이 생산 자물로 하여금 생산물을, 생산물 그것의 생산에 그들이 들인 비용만큼의 값으로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그 상품에 들인 비용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더운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나 넘겨할 것 없다. 제이는 언명하기를 생산 능률의 제고의 결과 매 개인은 이제는 중매와 같이 한 컬테의 양말이 아니고 두 컬테의 양말을 동일한 동가에 대한 교환으로 받는다 운운 이라고. 그리하여 그가 도달한 결론은 바로 그가 문박하고자 한 리카도의 명제와 동일하다. 그는 이와 같이 심히 끝을 쓴 다음에 의기 양양하게 말사스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귀하여 이것이야말로 티로 정연한 학설입니다. 이 학설이 없이는 나는 언명할나만 정치 경제학상의 극히 어려운 문제들 특히 부가 가치로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산물들의 가치가 감소할 때에 국민이 어떻게 보다 부유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동상서, 170페이지)고.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제이의 《서한》중에서의 유사한 종류의 곡예(曲藝)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이와 같은 체하는 말씨는(Those affected ways of talking) 대체로 제이씨가 자기의 학설이라고 칭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미 〈구타과의 많은 지방들에서〉 교수하고 있듯이 허트포드에서도 교수하도록 그가 말사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이 명제들이 무엇이고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생각된다면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물들을 통찰하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지극히 단순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리라》고 나는 감히 믿습니다》고. 의심할 바 없이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경도의 결과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일 것이나 다만 독창적이든가 또는 중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최근 말사스에게 의하여 주장된 수요의 본성에 관한 제 원리의 연구》 116, 110페이지).

축, 각종 장치와 같은 노동 수단의 가치량과 소재량은 장성하는바 이 노동 수단은 다소간 장기에 걸쳐 부단히 반복되는 생산 과정에서 전체로서 기능하는데 즉 일정한 유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그것들은 점차적으로만 마멸되고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를 부분적으로만 상실하며 그리하여 또한 부분적으로만 생산물로 이전한다. 이 노동 수단들은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하면서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지 않는만큼 즉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충용되면서 부분적으로만 소비되는만큼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들은 용수(用水), 증기, 공기, 전기 등등과 같은 자연력과 동일한 무로 봉사를 한다. 산 노동에 의하여 장악되었으며 활기를 띤 과거 노동의 이 무로 봉사는 축적의 규모의 증대에 따라 축적된다.

과거 노동은 언제나 자본의 의장을 입고 나오므로 즉 노동자 A, B, C 등등의 노동의 부방(負方)은 비노동자 X의 정방(正方)으로 전화하므로 부르조아와 경제학자들은 과거 노동의 공적을 극구 찬양하는바 스코틀랜드의 천재 맥컬러는 과거 노동에 일정한 보수(리자, 리윤 등등)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의하고 있다⁶¹. 그리하여 생산 수단의 형태로 산 노동 과정에 참가하는 과거 노동의 의의가 부단히 증대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과거 노동이란 그의 과거의 부지불 노동이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부터 소외(疏外)된 모습 즉 자본의 모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천적 활동가들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요설가들은 생산 수단을, 그것이 오늘날 입고 있는 독특한 적대적인 사회적 분장과 분리시켜 생각할 능력이 없다, 노예 소유자가 노동자 자체를 노예로서의 그의 성격과 분리시켜 생각할 능력이 없듯이.

61 맥컬러는 시노어가 《절제의 보수》에 대한 특허를 얻기 훨씬 전에 《과거 노동의 보수》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

로동력의 착취 정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잉여 가치량은 동시에 착취되는 로동자 수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로동자수는 비록 같은 비율로써는 아니지만 자본의 크기에 상응한다. 무진적 축적에 의하여 자본이 증대되면 필수록 소비 폰드와 축적 폰드로 분할되는 가치량도 증대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보다 사치스럽게 살면서 동시에 보다 더 《금욕》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전대 자본량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면 필수록 생산의 모든 스프링(發條)이 보다 정력적으로 발동한다. .

제 5절 소위 로동 폰드

우리의 연구 행정에서 전명된 바와 같이 자본은 고정적인 크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층에서 극히 탄력적인, 또 소득과 추가 자본으로의 잉여 가치의 이러 저러한 분할에 따라 부단히 변동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능 자본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자본에 의하여 합체된 로동력, 과학 및 토지(토지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협력 없이 자연에 의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로동 대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는 자본의 탄력적 잠재력(潛在力)——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자본 자체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의 작용 범위를 확대하는——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량의 자본의 작용 정도를 대단히 다르게 하는 유통 과정의 일체의 사정들을 도외시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즉 사회적 생산 과정의, 순전히 자연 발생적 모습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현존하는 생산 수단과 로동력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온갖 합리적 배합을 도외시하였다. 고전 경제학은 옛날부터 사회적 자본을 고정적 작용도(作用度)를 가진 고정적 크기로 고찰하기를

줄거렸다. 그런데 이 편견은 19세기의 천박한 부르조아적 오성(悟性)의 생경하고도 철학적이며 다변(多辯)한 탁선자(託宣者)인 저 속물의 원조(元祖) 제레미 벤샘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의 다룰 수 없는 꼬조로 굳어졌다⁶². 벤샘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틴 텡퍼가 시인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그것과 같다. 양자는 다 영국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⁶³. 그의 꼬조로서는 생산 과정의 극히 평범한 현상들 떼컨대 생산 과정의 돌발적 확장과 수축 아니 축적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⁶⁴. 이

62 개중에도 J·벤샘 《형벌 및 배상론》, Et·듀몽 역, 제 3판, 파리, 1826년, 제 2권, 제 4부, 제 2장 참조.

63 제레미 벤샘은 순전히 영국적인 현상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판에 박힌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도 굉장하게 떠들어댄 철학자란 우리의 크리스티안 월프를 제외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아직 없었다. 공리주의(功利主義)는 벤샘의 발명이 아니었다. 그는 엘베세우스와 기타 18세기의 불탄서인들이 재치 있게 말한 것을 재치 없이 재생산하였을 따름이다. 만약 우리가 떼컨대 개에 대하여 무엇이 유용한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 개의 본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본성 자체는 《공리주의》로서는 구성될 수 없다. 우리가 이 공리주의를 인간에 적용하여 인간의 일체 행위, 운동, 제 관제 등등을 유용성이란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하면 우리는 우선 인간의 본성 일반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 인간의 본성이 매개 시대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벤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소박하기 짝이 없게 우둔하게도 근대적 속물 그것도 특히 영국의 속물을 정상적 인간이라고 상정한다. 이 정상적 인간의 변동과 그 제제에 유용한 것은 절대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척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잴다. 떼컨대 기록은 《유용》한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형법전(刑法典)이 법률적으로 비난하는 비행들을 종교적으로 비난하기 때문이다. 문예 비행은 《유해》한 것이다, 왜냐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마틴 텡퍼의 작품들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등등. 《하루도 붓 안 드는 날이 없다》는 것을 좌우의 명으로 삼고 있는 이 용감한 친구는 산메미 같은 책을 그 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써 채웠다. 만약 내가 나의 벗 H·하이네만 한 용기를 가졌더라면 나는 제레미샘을 부르조아적 우둔의 천재라고 부를 것이지만.

64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일정한 량의 자본과 일정한 수의 노동

표조는 맨썸 자신 그리고 말사스, 제임스 밀, 맥컬러 동등에 의하여 변호론적 목적으로, 특히 자본의 일부인 가변 자본 즉 로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자본을 고정적인 크기로 서술하기 위하여 리용되었다. 가변 자본의 소재적 존재 즉 가변 자본이 로동자들을 위하여 대표하는 생활 수단의 량 또는 소위 로동 폰드는 자연 자체의 극복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적 부의 특수 부분이라는 우화(寓話)를 만들어 냈다. 사회적 부중에서 불변 자본으로서 또는 소재적으로는 생산 수단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부분을 운동케 하려면 물론 일정한 량의 산 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량은 생산 기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 로동량을 지출케 함에 필요한 로동자 수도 주어지지 않으며——이 수는 개별적 로동력의 착취 정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므로——이 로동력의 가격도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그 가격의 최저한의, 그것도 대단히 탄력적인 한계가 주어지지 있을 뿐이다. 상술한 표조의 기초에 놓여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일방으로는 비로동자들의 소비 수단과 생산 수단으로의 사회적 부의 분할에 있어서 로동자는 발언권이 없다는 것이다. 타방으로는 로동자는 배외적으로 운수가 좋은 경우에만 부자의 《소득》을 회생으로 하여 소위 《로동 폰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⁵.

자본 한결 같은 힘을 가진 생산 도구로서 그리고 어떠한 한결 같은 강도로써 작용하는 것으로서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이 생산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는 생활 수단, 원자재 및 도구들이 미리 증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은 도대체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바 이것은 사실상 생산의 증가는 생산이 미리 증가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즉 환언하면 어떠한 증가도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같다》(S·베일리 《화폐와 그 가치 변동》, 58, 70페이지). 베일리는 주로 류통 과정의 관점에서 이 표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65 J·St·밀은 그의 저서 《정치 경제학 원리》 [제 2편, 제 1

로동 폰드의 자본주의적 제한을 그것의 사회적인 자연적 제한으로 전화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동의반복을 초래하는가는 포셋트 교수의 례가 보이여 준다. 그는 말하기를 《한 나라의 로동 자본은, 그 나라의 로동 폰드이다. 따라서 매개 로동자가 받는 평균 화폐 임금을 계산하려면 간단히 이 자본을 로동자 인구수로 제하기만 하면 된다》⁶⁷.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현실적으로 지불된 모든 개별적 로임액을 합계하고 그 다음에 이 합계가 하느님과 자연에 의하여 제정된 《로동 폰드》의 가치 총액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얻은 총액을 로동자 수로 제하여 매개 로동자에게 평균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를 다시 발견한다. 이는 비상히 교환한 수법이다. 그래도 포셋트씨는 거침 없이 말을 계속한다——

《영국에서 매년 축적되는 부의 총체는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한 부분은 영국에서 우리 자신의 공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용된다. 다른 부분은 다른 나라들에 수출된다……우리 공업에서 충용되는 부분은 이 나라에서 매년 축적되는 부의 일

장, 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로동 생산물은 오늘날 로동에 역비례(逆比例)하여 분배되고 있다——그것의 최대 부분은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일하는 자들에게 분배되고, 이리하여 로동이 힘들고 불쾌함에 따라 보수는 점점 적어져서 드디어 가장 힘들고 가장 소모적인 육체 노동은 생활 필수품을 획득하는 것도 확실히는 기대할 수 없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말하지만 J. St. 밀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구성제학적 교조와 그들의 근대적 경향과의 모순 때문에 책망할 만하지만 그들을 속류 경제학적 변호론자들과 동류로 혼동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66 여기에서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이라는 범주들은 내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A. 스미쓰 이래의 정치 경제학은 이 범주들에 포함되는 규정물들, 류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자본과 류동 자본의 재 형태상의 차이와 부단히 혼동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은 제 2권, 제 2편을 보라.

67 캄브릿지의 정치 경제학 교수 H. 포셋트 《영국 로동자의 경제 상태》, 런던, 1865년, 120페이지.

마 안되는 부분을 이룬다》⁶⁸. 그리하여 등가 없이 영국 노동자로부터 횡취되는, 매년 증가하는 잉여 생산물의 대부분은 영국에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 자본화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수출된 추가 자본과 더불어 하느님과 벤딕스에 의하여 발명된 《로동 펀드》의 일부분도 수출된다⁶⁹.

68 동상서, 123, 122페이지.

69 자본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이민의 형태로 영쪽으로부터 매년 수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주자들의 재산을 문제시하지 않는바 그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칭 농업가들의 자식들이다. 리자를 벌기 위하여 매년 외국으로 보내는 영국의 추가 자본의, 년년의 축적에 대한 비(比)는 년년의 이주의, 년년의 인구 증가에 대한 비보다 훨씬 크다.

제 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제 1절 자본 구성이 불변인 경우에 있어 서의 축적의 증가에 따르는 노동 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이 장에서는 자본의 증가가 노동 계급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본의 구성과 그 구성의 축적 과정의 진행중에 받는 제 변화이다.

자본의 구성은 두 개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 구성은 자본이 불변 자본 또는 생산 수단의 가치와 가변 자본 또는 노동력의 가치 즉 로임 총액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소재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어떤 자본이든 생산 수단과 산 노동력으로 분할되는데, 이 의미에서의 자본 구성은 일방으로는 총용되는 생산 수단과 타방으로는 그것의 총용에 필요한 노동량과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 구성이라고 칭하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칭한다. 양자 간에는 긴밀한 호상 관계가 존재한다. 이 호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나는, 자본의 가치 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제 변화를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자본의 가치 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칭한다. 자본의 구성이라고 간단히 말할 경우에는 언제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리해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수 많은 개별적 자본들은 그 구성이 다소간에 서로 다르다. 그것들의 개별적 구성들의 평균은 우리에게 소여 생산 부문의 총자본의 구성을 제시한다. 플으로 전체 생산 부문들의 이 평균 구성들의 총평균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을 제시하는바 이하에서는 결국 이에 관해서만 문제가 된다.

자본의 증가는 그것의 가변적 구성 부분 즉 노동력으로 전화되는 구성 부분을 포함한다. 추가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분은 부단히 가변 자본 또는 추가적 노동 폰드로 재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고, 또 자본의 구성도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즉 일정한 량의 생산 수단 또는 불변 자본이 운동하기 위하여 언제나 동일한 량의 노동력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명백히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존 폰드는 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자본의 증가가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급속히 증가한다. 자본은 해마다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그 잉여 가치의 일부는 해마다 최초의 자본에 첨가되므로 또 이 증가분 자체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증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므로, 그리고 끝으로 테컨대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 발전된 사회적 욕망 등등의 결과인 새로운 투자 영역의 개척과 같은 치부욕에 대한 특별한 충격하에 축적의 규모는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의, 자본과 소득으로의 분할의 단순한 변동만으로 돌연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본 축적의 욕망은 노동력 또는 노동자 수의 증가를 증가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그들의 공급을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로임은 등귀할 수 있다. 상술한 전제가 변함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결국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기도 한 것이다. 해마다 전년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취업하게 되는만큼 조만간에, 축적욕이 보통의 노동 공급 이상으로 증

가하기 시작하여 따라서 임금 등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한탄의 소리가 영국에서는 15세기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18세기 전반기에 들렸었다. 그러나 고용 노동자들이 유지되고 증가되는 **■**소간에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 성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 단순 재생산이 자본 관계 자체를, 즉 일방에 자본가들을, 타방에 고용 노동자들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것과 같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즉 축적도 자본 관계를 확대된 규모로, 즉 한 국(極)에 보다 많은 자본가들 또는 보다 큰 자본가들을, 다른 국에 보다 많은 고용 노동자들을 재생산한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 가치의 증식 수단으로서 부단히 자본에 합체되어야 하며, 자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으며, 또 자본에 대한 그것의 예측은 그것을 구매하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교체에 의하여 은폐될 따름인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실상 자본 자체의 재생산의 계기이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프로테타리아트의 증가이다⁷⁰.

70 칼 맑스 《고용 노동과 자본》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바어 판, 제 5권] —— 《대중의 억압 정도가 동등하다면 어떤 나라에 프로테타리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그만큼 부유하다》 (코랑 《정치 경제학, 혁명과 소위 사회주의적 공상의 원천》, 파리, 1857년, 제 3권, 331페이지). 《프로테타리아》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자본》을 생산하고 그것을 증식하고 또 페퀴트가 부르듯이 《자본 세》의 증식욕에 대하여 파잉이 될 때에는 당장에 가두에 버덕쳐지는 고용 노동자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시림의 병약한 프로테타리아》라는 것은 로베르의 애교 있는 환상이다. 원시림 생활자는 원시림의 소유자이며 성성(猩猩)과 같이 전혀 거침 없이 원시림을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는 프로테타리아가 아니다. 그가 원시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림이 그를 착취할 때에만 그는 프로테타리아일 것이다. 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근대적 프로테타리아와의 대비에 전달 뿐만 아니라 매독과 림두창 병 있는 《귀현》(貴顯)들과의 대비에도 전달 만하다. 그러나 윈헬름 로썸보씨가 원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필시는 그가 사랑하는 뤼네부르크의 숲일 것이다.

고전 경제학은 이 명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A·스미쓰, 리카도 등등은 축적을, 잉여 생산물 중, 자본화 되는 부분 전체의 생산적 노동자에 의한 소비, 즉 그 부분의 추가적 고용 노동자로의 전화를 잘못되게 동일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1696년에 이미 존 벨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10만 에이커의 토지와 10만 파운드의 화폐와 또한 10만 두의 가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 없이는 이 부자는 자신이 한 노동자인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노동자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므로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많게 된다……빈자의 노동은 부자의 광산(鑛山)이다》⁷¹. 버나드 드 만데빌도 18세기 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소유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곳에서는 빈자 없이 생활하기보다 화폐 없이 생활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왜냐 하면 누가 노동할 것이냐?……노동자들은 아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더라도 그들이 저축할 만한 것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때로 최저 계급층의 누군가 비상히 근면하고 배를 조린 덕택으로 그가 태어난 지위보다 높아질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아니, 검약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사회의 매 개인에 있어서 매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일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빈자들의 최대 부분이 일 없이 지내는 일이 결코 없으며 또 그들이 그들의 수입을 언제나 다 소비하는 것은 모든 부유한 국민들의 관심사이다……그날 그날의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욕망 이외에 일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욕망을 완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만 치료해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 노동하는 사람을 근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적당한 로임이다. 너무 낮은

71 존 벨러스 《공업 대학 창립에 대한 제안》, 런던, 1696년, 2페이지.

로임은 기질에 따라서는 그로 하여금 기운을 잃게 하든가 절망케 하며, 너무 많은 로임은 불손하고 라태하게 한다……이상에 서 말한 것으로부터의 결론은 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자유국에서는 가장 확실한 부는 근면한 빈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 해군을 위한 무진장의 공급 원천이라는 이외에 그들 없이는 어떤 향락도 없을 것이며 어떤 나라의 생산물도 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물론 비로동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를 행복하게 하고 인민 자신을 비참한 상태에서 만족하게 하려면 대다수가 무지하고 가난한채로 둘 필요가 있다. 지적은 우리에게 념원을 확대하고 배가하는 것이며 사람이 적게 념원하면 할수록 그의 욕망은 보다 용이하게 충족될 수 있다⁷². 정적하며 두뇌도 총명한 만배빌도 리해 못하고 있는 것은 축적과정 자체의 기구(機構)가 자본의 증가에 따라 <근면한 빈민들> 즉 고용 노동자들——그들의 노동력을, 증가하는 자본의 증대하는 가치 증식력으로 전화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로 인격화된, 그들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그들의 종속 관계를 영원화하지 않을 수 없는——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종속 관계에 관하여 썸 F·M·이든은 그의 저 <잉글랜드의 빈민의 상태 또는 노동 계급의 력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우리 지대(地帶)에서는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노동이 요구되는바 그 때문에 적어도 사회의 일부분은 불면 불휴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약간의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지만 근면의 생산물을 마음 대로 처분한다. 그러나 이 소유

72 버나드 드 만배빌 (<관벌 이야기>, 제 5판, 런던, 1728년, 주, 212, 213, 328페이지). <절도 있는 생활과 부당한 노동은 빈자에 있어서는 물질적 행복(그가 의미하는 바는 될 수 있는 대로 긴 노동일과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생활 수단이다)에 이르는 길이며, 국가(즉 토지 소유자들, 자본가들 및 그들의 정치적 고관들과 대리자들)에 있어서는 부에 이르는 길이다> (<상공업에 관한 문술>, 런던, 1770년, 54페이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문명과 질서의 덕택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시민 제도의 창조물이다⁷³. 왜냐 하면 시민 제도는 노동의 과실을 노동에 의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얻은 것은 거의 전혀 다른 사람의 노동의 덕택이고 결코 다른 사람의 능력보다 난 것이 없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부자를 빈자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토지와 화폐의 소유가 아니고 노동에 대한 지휘 (《the command of labour》)이다…… 빈자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은 가련한 또는 노예적인 상태가 아니고 안이하고 자유로운 종속 관계이며 (《a state of easy and liberal dependence》),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충분한 세력과 권위이다……이러한 종속 관계는 인간성을 알고 있는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노동자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하다⁷⁴. 부연하여 두지만 씨 F·M·이든은 아담 스미쓰의 제자들 중에서 18세기에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한 유일한 사람이다⁷⁵.

73 그렇다면 《시민 제도》는 누구의 창조물인가? 또 이든은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는 법률적 환상의 관점에서 법을 물질적 생산 제 관계의 생산물로 보지 않고 거꾸로 생산 제 관계를 법의 생산물로 보고 있다. 랑게는 몬테스키외의 환상적인 《법의 정신》을 《법의 정신이란 재산이다》라는 한 마디로써 전복시켰다.

74 이든, 《잉글랜드의 빈민의 상태 또는 노동 계급의 역사》, 제 1권, 제 1부, 제 1장, 1, 2페이지 및 서문, 제 20페이지.

75 만약 독자가 1798년에 《인구론》을 발간한 말사스를 상기한다면, 이 저서는 그 최초의 형태에서는 드 포, 씨 제임스 수튜아르, 타운센드, 프랑클린, 웰레스 등등으로부터의 유치하게 천박하고 중범불의 우뚝한 포질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독자적으로 생각해 낸 명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리는 바이다. 이 소책자가 일으킨 큰 소동은 오로지 당파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탄서 혁명은 영 왕국에서 열렬한 지지자들을 발견하였다. 《인구 원리》는 19세기에 서서히 작

주해 75 계속

성되어, 이어 일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콘도르세 기라의 학설에 대한 물림 없는 해독제로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선전되었는바 그것이 인류의 앞으로의 발전을 원하는 일체의 열망에 대한 위대한 성명자라고 본 영국의 파두 정치에 의하여 환영을 받았다. 자기의 성공에 크게 놀란 말사스는 낡은 도식에다 천박하게 결합한 자모를 채우고, 그것에다 새로운 것——말사스가 발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횡령한 것에 불과한——을 첨가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부인하지만 말사스는 영국 교교회(高敎會)의 승려였으나 독신이라는 수도승(修道僧)적인 서약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교적 켄브릿지 대학의 교우(校友)로 되는 조건의 하나인 것이다. 《기혼자는 교우로 됨을 불허함, 또한 누구이든 결혼하면 즉시로 교우임을 그만 두어야 함》(《켄브릿지 대학 위원회 보고》, 172 페이지). 이 사정은 말사스를 다른 신교 승려들——승려 독신이라는 구교적 계율(戒律)을 내던지고 《날아라 번식하라》라는 계율을 자기들의, 특히 성서(聖書)상의 사명으로서 받아 들여 필경은 어메서나 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인구 원리》를 설교하고 있는——로부터 유리하게 구별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바꾼 인류 타락, 아담의 사과, 《긴절한 욕망》, 승려 타운센드가 명랑하게 말하고 있듯이 《큐릿트의 화살을 둔하게 하는 억제》(《the checks which tend to blunt the shafts of Cupid》), 이러한 데모한 점이 신교 신학(神學)의 대표자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교회의 제식물에 의하여 독점되었으며 또 현재 독점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 독창적이며 재치 있는 필자인 베너스의 수도승 오르테스를 제외하고는 《인구 원리》의 설교자의 대다수는 신교 승려들이다. 근대적 인구론이 남김 없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한 계보와 그의 제자 로(老)미라보 사이의 일시적 분쟁에서 착상을 얻은 《동물계통론》(라이벤, 1767년)의 지자 브룩크너, 그 다음에 승려 웰레스, 승려 타운센드, 승려 말사스, 그의 제자 대승정 T. 찰머스가 그러한데, 이 방향에 있어서의 군소 승려 저술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정치 경제학은, 홉스, 록크, 휴파 같은 철학자들, 토마스 모어, 뱀플, 슬리, 드 위트, 노쓰, 로, 반더린트, 켄티언, 프랑클린과 같은 실업가와 정치가들, 그리고 이론적으로 특히, 최대의 성공을 거둔 페터, 바본, 만메빌, 케네와 같은 의사들에 의하여 취급되었다. 18세기 중엽에도 당시의 저명한 경제학자 터커사(師)는 그가 금전 문제를 취급한 것을 변명하고 있다. 그후 그것도 《인구 원리》가 나옴에 따라 신교 승려들의 종말을 고하는 중이 올랐다. 인구론 부의 토대로 모고, 아담스 미쓰와 마찬가지로 승려들의 상용할 수 없는 적(敵)이었던 페터는 이마 법사들의 출현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이 말하고 있다——《변호사들이 흠뻑 죽을 때에 법이 가장 번영하듯이 승려들이 가장 많이 굶주릴 때

주해 75 계속

에 종교는 가장 번영한다》고. 그러므로 신교 승려들에게 그는 종교하
되 그들이 비록 사도(使徒) 파울루스를 따라 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목
심으로 《금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존의 승직(僧職) (ben-
efices)이 흡수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은 승려들을 낳을 것이 아니다
(《not to breed more Churchmen》),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1만 2,0
00의 승직이 있을 따름이라면 2만 4,000명의 승려들을 낳는 것은 합당
하지 않을 것이다 (《it will not be safe to breed 24,000 ministe-
rs》), 왜냐 하면 직이 없는 1만 2,000명은 부단히 생계를 얻으려고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하여는 그들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 가서 직을 가진
1만 2,000명의 승려들은 명혼을 파멸시키고 굶주리게 하며 그에게 천
당으로 인도하지 않는 위험한 길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득하는 외에 더
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페티 《조세 및 공납에 관한 논술》,
런던, 1667년, 57페이지)고. 당시의 신교 승려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법
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 《법학 박사 A·스미
쓰에 주는 서한, 그의 벗 다비드 흄의 생애, 서각 및 철학에 관하여,
기독교도로 불리우는 인민의 한 사람에 의하여》 (제 4판, 옥스포드,
1794년)에서 노팅치의 고교회(高敎會) 승정 존 박사는 A·스미쓰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질책하고 있다, 즉 스미쓰가 스트라한 씨에게 준 공
개 서한에서 그의 《벗 다비드(즉 흄)를 불멸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가 공중에게 《흄이 그의 법중의 자리에서 루키아 누스
와 휘스트를 즐기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심지어는 대답하거
도 《나는 흄을 그 생존시에나 그 사후에나 약한 인간성이 허락하는 한
에 있어서 완전히 현명하고 유덕한 인간의 리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였
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승정은 분개하여 웨치고 있다——《종교
라고 칭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구제할 수 없는 반감을 가졌었으며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종교라는 명칭조차 인간의 기억에서 없애 버리기 위하여
전 신경을 진장시킨 그러한 인간의 성격과 행실을 완전히 현명하고 유
덕하다고 우리에게 묘사한다는 것은 당신으로서 옳은 일인가?》(동상
서, 8페이지).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기운을 잃지 말라, 무신론
은 오매 가지 않는다》 (17페이지).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도덕 정서
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전국에 선전하는 무서운 악의 (《the atrocious
wickedness》)를 가지고 있다……박사여 우리는 당신의 간책을 알고
있다! 당신은 잘 생각해 났으나 이번에는 오산이었다. 다비드 흄의 폐
로서 당신은 무신론이 기운을 잃은 자에 대한 유일한 감심제 (《cordi-
al》)이며 죽음의 공포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
게 하려 하였다……페티가 된 바빌론을 보고 미소하며 파라오 [에지프
트 왕]의 횡포한 악행을 축복하라!》 (동상서, 21, 22페이지). A·스미
쓰의 청감자이며 정교도(正敎徒)인 한 사람은 스미쓰의 사후에 다음과

지금까지 상정한 바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축적 조건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자본에의 종속 관계는 전될 만한, 또는 이든의 말대로 《안락하고 자유로운》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 그 종속 관계는 자본의 장성에 따라 보다 집약적으로 되지 않고 보다 외연적으로 될 뿐이다, 즉 자본의 착취 및 지배 영역이 자본 자체의 크기와 그의 신하(臣下)들의 수에 따라서 확대될 뿐이다. 점점 증대하고 점점 더 많이 추가 자본으로 전화되는 그들 자신의 잉여 생산물 중의 보다 많은 부분이 지불 수단의 형태로 그들에게 돌아 오는바 그 덕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소비 범위를 확대하고 의복 가구 등등 자기들의 소비 폰드를 보다 잘 장만하고 지어는 약간의 화폐 예비 폰드도 형성할 수 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개선되고 대우가 개선되고 페쿨리움 [로마의 노예들의 티용에 맡겨진 재산]이 다소간 많아지더라도 노예의 종속 관계와 착취가 폐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 노동자의 그것들도 폐절되지 않는다. 자본 축적의 결과로서 노동의 가격이 등귀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 노동자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이미 베풀낸 금 사슬의 규모와 무게가 사슬의 긴장을 풀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 대상에 관한 논쟁에서 보통 가장 주요한 것,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질적 표식이 간파되어 왔다. 노동력은 여기에서는

같이 쓰고 있다——《흙에 대한 스미쓰의 우정은……스미쓰로 하여금 기독교도가 되는 것을 방해하였다……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흙의 말이었다면 무엇이냐 그대로 믿었다. 흙이 그에게 달은 녹색(綠色)의 치즈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스미쓰는 그것을 믿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또한 하느님도 기적도 없다는 흙의 말을 믿었다……정치상 원칙에 있어서는 그는 공화주의에 가까웠다》(《잘별》, 제임스 앤더슨 저, 전 18권, 에딘버러, 1791—1793년, 제 3권, 166, 165페이지). 승려 T·찰머스는 A·스미쓰가 순전히 악의에서 신포 승려들에 대하여 그들이 주(主)의 모도현에서 축복된 모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로 《비생산적 노동자》라는 범주를 고안해 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있다.

그것의 작용 또는 그것의 생산물에 의하여 구매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매되는 것이 아니다. 구매자의 목적은 그의 자본의 가치 증식이며, 그가 지불한 것보다 많은 로동을 포함하고 있는, 따라서 그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상품 판매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의 생산이다. 잉여 가치의 생산 또는 화식(資殖)이 이 생산 방식의 절대적 법칙이다. 로동력은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유지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자본으로서 재생산하고 부지불 로동으로 추가 자본의 원천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판매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⁷⁶. 따라서 로동력의 판매 제 조건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로동력의 부단한 재판매의 필연성과 자본으로서의 부의 부단히 확대되는 재생산을 포함한다. 로임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의 본성으로 보아 노동자 측에서의 일정량의 부지불 로동의 부단한 제공을 조건 짓는다. 로동의 가격의 저락 등등을 수반하는 로임의 제고를 전적으로 도외시한다면 로임의 증대는 가장 좋은 경우에도 노동자가 수행하여야 할 부지불 로동의 량적 감소를 의미할 따름이다. 이 감소는 결코 체계 그 자체를 위축하는 점까지 이를 수가 없다. 로임물에 관한 폭력적 충돌에서는 아담 스미쓰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고용주는 고용주로 남는데, 이러한 충돌은 도외시키고 자본 축적으로부터 나오는 로동 가격의 등귀는 다음과 같은 두 개 경우의 하나를 상정한다.

76 제 2과 주. 《그러나 공업 노동자들이나 농업 노동자들이나 그 고용의 한계는 동일한 것이니 즉 기업주로서 그들의 로동 생산물로부터 리윤을 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다……로임률이 높아져서 고용주의 리득이 평균 리윤 이하로 떨어진다면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그만두던가 또는 그들이 로임의 인하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을 고용한다》(존 웨이트 《중간 계급 및 로동 계급의 역사》, 제 3판, 런던, 1835년, 241페이지).

즉 첫째 경우는 노동의 가격이 등귀하더라도 축적의 진행은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등귀하는 경우이다. 이 점에는 이상한 것은 전혀 없다. 왜냐 하면 A·스미스가 말하고 있듯이 《리윤이 저하되더라도 자본은 증가한다, 자본은 이전보다 급속히 증가하기까지 한다……대자본은 리윤이 적어도 리윤이 큰 소자본보다 일반적으로 급속히 증가한다》(《국부론》, 제 2권, 189페이지). 이 경우에는 명백히 부지불 노동의 감소가 자본 지배의 확장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경우는 노동 가격의 등귀의 결과 리득에 대한 자극이 둔해지므로 축적이 약화되는 경우이다. 축적은 감소된다. 그러나 그것의 감소와 더불어 그것의 감소의 원인, 즉 자본과 착취를 받는 노동력간의 불균형이 소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기구 자체가 그것이 조성한 일시적인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한다. 로임은 다시 자본의 증식욕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이 수준이 이제는 로임 등귀가 시작되기 전에 정상적이었다고 생각되던 수준보다 낮은, 높은 또 같은 그것은 별 문제이다. 그리하여 첫째 경우에는 노동력 또는 노동 인구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의 지체가 자본을 과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의 증대가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부족하게 한다. 둘째 경우에는 노동력 또는 노동 인구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의 축진이 자본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의 감소가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과잉하게 또는 오히려 그것의 가격을 과도하게 한다. 바로 자본 축적의 이 절대적 운동이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양의 상대적 운동으로서 반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후자의 고유한 운동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학적 표현을 빌리면 축적의 치는 독립 변수(變數)이고 로임의 치는 종속 변수이며 그 거꾸로가 아니다. 그리하여 산업 순환의 공황 국면에서는 상품 가격의 일반적 저락이 상대적 화폐 가치의 등귀로서 표현되고 번영 국면에서는 상품 가격의 일반적 등귀가 상대적 화폐 가치의 저락으로서 표현

된다. '그것으로부터 소위 통화 학파(通貨學派) [수량학파]는 가격이 높을 때에는 너무 소량의 화폐가 유통하고 가격이 낮을 때에는 너무 다량의 화폐가 유통한다고 결론한다*. 그들의 무지와 사실의 완전한 오인은⁷⁷ 이제 말한 축적 현상들을, 첫째 경우에는 고용 노동자가 너무 소수이고 둘째 경우에는 너무 다수이라는 뜻이 해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연적 인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에 놓여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즉 자본, 축적 및 임금률 간의 관계는 자본으로 전화된 부지불 노동과, 추가 자본의 운동에 필요한 추가 노동간의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두 개의 서로 독립한 치, 즉 일방으로는 자본의 크기와 타방으로는 노동자 인구수의 관계가 아니고 도리어 결국은 동일한 노동자 인구의 부지불 노동과 지불 노동간의 관계에 불과하다. 만약 노동 제급에 의하여 제공되고 자본가 제급에 의하여 축적되는 부지불 노동의 양이 지불 노동의 비상한 추가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장성한다면 로임은 등귀하며 그리고 기타의 조건들이 같다면 부지불 노동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이 감소는 자본을 길러 내는 잉여 노동이 더는 정상적인 양으로 제공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자마자 반작용이 시작한다, 즉 소득중보다 적은 부분이 자본화되고, 축적이 약화되고, 등귀하는 임금 운동은 반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노동 가격의 등귀는 자본주의 체계의 기초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대된 규모에서의 그것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로부터 벗어 나지 않는

* 가격이 높을 때에는 너무 다량의 화폐가 유통하고 가격이 낮을 때에는 너무 소량의 화폐가 유통한다고 말할 것을 잘못 말한 것이 분명하다. — 편집자

⁷⁷ 칸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165페이지 이하 참조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12권, 제 1부, 165페이지 이하].

다. 따라서 자연 법칙으로 신비화된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은 사실상 축적의 본성이 자본 관계의 부단한 재생산 그리고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의 그것의 재생산을 엄청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동 착취 정도에 있어서의 어떠한 감소도 또는 노동 가격의 어떠한 등귀도 배제한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그것은 물질적 부가 노동자의 발전 욕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동자가 현존하고 있는 가치의 증식 욕망을 위하여 존재하는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게 될 수 없다. 인간은 종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두뇌의 산물에 의하여 지배되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손의 산물에 의하여 지배된다^{77a}.

제 2절 축적과 그것에 수반하는 집적 행 정에 있어서의 가변 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

경제학자들 자신의 의견에 의하면 임금 등귀를 조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현존 규모도 아니고, 이미 획득된 자본의 크기도 아니며, 오로지 축적의 부단한 장성과 그 장성 속도이다 (A·스미쓰, 《국부론》, 제 1권, 제 8장). 이 상에서 우리

77a 《그런데 이제 자본 자체는 인간 노동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우리의 최초의 연구로 돌아 가면……인간이 자기 자신의 산물인 자본의 지배하에 빠지게 되고 이것에 예속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확실히 그대로이므로 본의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자본의 창조자인 노동자가 자본의 지배자로부터 자본의 노예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폰 튀넨 《고전 국가》, 제 2부, 제 2편, 로슈토크, 1863년, 5, 6페이지)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은 튀넨의 공적이다. 그의 해답은 전혀 유치하다.

는 이 과정의 한 개 특수한 국면, 즉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불변인 경우에 자본의 증대가 일어 나는 국면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과정은 이 국면을 넘어 나간다.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기초가 일단 주어진다면 축적 행정에서 언제나 사회적 노동 생산 능력의 발전이 축적의 가장 강력한 공간으로 되는 시기가 온다. 《로임의 등귀를——하고 A·스미쓰는 말한다——가져 오는 것과 동일한 원인, 즉 자본의 증대는 노동 생산 능력을 제고케 하고, 보다 소량의 노동이 보다 다량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A·스미쓰, 《국부론》, 로씨야어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79페이지].

토지의 비옥도 등등과 같은 자연적 제 조건과, 독립적이며 독립하여 일하는 생산자들의 기능(技能)——그런데 이것은 생산물 량에 있어서 량적으로 실증되느니 보다 생산물의 품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나타난다——을 도의시하면 노동 생산 능력의 사회적 수준은 노동자가 노동력의 동일한 긴장으로써 소여의 시간에 생산물로 전화하는 생산 수단의 상대적 크기에 있어서 표현된다. 노동자가 그것으로써 기능(機能)하는 생산 수단의 량은 그의 노동 생산 능력에 따라 장성한다. 이 경우에 이 생산 수단들은 2중의 역할을 논다. 어떤 생산 수단들의 장성은 노동 생산 능력 장성의 결과이고 다른 생산 수단들의 장성은 그 조건이다. 력컨대 마누팩뚜라적 분업과 기계 사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원자재가 가공되고 따라서 보다 다량의 원자재와 보조 자재들이 노동 과정에 들어 온다. 이것은 노동 생산 능력의 제고의 결과이다. 타방으로 사용되는 기계, 역축, 팽물성 비로, 배수관 등등은 노동 생산 능력 증대의 조건이다. 건물, 용광로, 운수 수단 등등에 집적된 생산 수단의 분량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합체되는 노동력에 비한 생산 수단의 량의 증대가 조건이든 결과이든 간에 두 경우에 다 그 증대는 노동 생산 능력의 증대의 표현이다. 따라

서 노동 생산 능력의 증대는 이 노동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산 수단의 양에 비한 노동량의 감소에, 즉 노동 과정의 객체적 요인들에 비한 주체적 요인의 양적 감소에 나타난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의 이 변동, 즉 생산 수단을 활기 있게 하는 노동력에 비한 생산 수단량의 장성은 이번에는 자본의 가치 구성에, 즉 자본 가치중 가변적 구성 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적 구성 부분의 증대에 반영된다. 레컨데 어떤 자본중 시초에는 50%가 생산 수단에, 50%가 노동력에 투하되었었는데 그후에 노동 생산 능력의 발전에 따라 80%가 생산 수단에, 20%가 노동력에 투하되게 되는 등등. 자본의 가변 부분에 비한 불변 부분의 체증의 이 법칙은, 어떤 한 국민에 있어서의 각이한 경제적 시기들을 비교하던 동일한 시기에 있어서의 각이한 국민들을 비교하던 (상술한 바와 같이) 상품 가격의 비교 분석에 의하여 매 걸음마다 확증된다. 가격중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 즉 불변 자본 부분만을 대표하는 요소의 상대적 크기는 축적의 진전에 정비례하고 노동 지불을 하는 즉 가변 자본 부분을 대표하는 다른 요소의 상대적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역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불변 부분에 비한 가변 부분의 감소 또는 자본의 가치 구성의 변동은 다만 근사적으로만 자본의 소재적 구성 부분들의 구성에 있어서의 변동을 표시한다. 레컨데 방직업에 투하된 자본 가치가 18세기 초에는 2분의 1이 불변 자본, 2분의 1이 가변 자본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8분의 7이 불변 자본, 8분의 1이 가변 자본으로 구성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현재 일정한 양의 방직 노동이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원료, 노동 수단 등등의 양은 18세기 초에 비하여 수백배나 많다. 그 리유는 단순히, 노동 생산 능력의 증대에 따라 노동에 의하여 소비되는 생산 수단의 양이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양에 비한 그것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 수단의 가

치는 절대적으로는 제고되나 그러나 그것의 양에 비례하여서는 제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간의 차액은 불변 자본이 전화되는 생산 수단의 양과 가변 자본이 전화되는 노동력의 양간의 차이보다 훨씬 완만하게 잠성한다. 전자의 차액은 후자의 차이와 함께 증가하나 그 증가 정도는 보다 적다.

또한 축적의 진전이 가변 자본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변 자본 부분의 절대적 크기의 증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어떤 자본 가치가 처음에 50%의 불변 자본과 50%의 가변 자본으로 분할되었었는데 그후 80%의 불변 자본과 20%의 가변 자본으로 분할되었다고 하자. 이 기간에 가령 6,000파운드 스털링이었던 최초의 자본이 1만 8,000파운드 스털링으로 증대되었다면 가변적 구성 부분도 5분의 1만큼 증대되었다. 증전에 그것은 3,000파운드 스털링이었는데 이제는 3,600파운드 스털링이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를 20%만큼 제고하기 위하여 증전에는 20%의 자본 증대로서 충분하였다면 이제는 최초의 자본의 3배가 요구된다.

제 4편에서 증시한 바와 같이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대규모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이 전제하에서만 분업과 노동의 결합이 조직될 수 있으며, 생산 수단이 대량적 집적에 의하여 절약될 수 있으며, 이미 소재적 본성으로 보아 공동적으로만 충용할 수 있는 노동 수단 레컨대 기계 체계 등등이 나올 수 있으며, 방대한 자연력이 생산에 복무할 수 있게 되며, 생산 과정이 과학의 기술 공학적 응용으로 전화될 수 있다. 생산 수단이 사인(私人)의 소유이며 따라서 수 노동자는 고립되어 자립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자립적 생산을 위한 수단이 없으므로 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든가 하는 상품 생산의 기초 우에서는 상술한 전제는 개별적 자본들의 잠성에 의하든가 또는 사회적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이 자본가들의 사'

적 소유로 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실현된다. 상품 생산의 기반 우에서는 대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적 형태로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상품 생산자들의 수중에서의 약간의 자본 축적이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전제를 이룬다. 그 때문에 우리는 수공업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그러한 축적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것은 시초 축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특수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결과가 아니고 그것의 역사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연구할 필요는 아직 없다. 그것이 출발점을 이룬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 기초 우에서 발전되는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제고의 모든 방법들이 동시에 그 자체가 또한 축적의 형성 요소인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의 생산 중대의 방법들이다. 따라서 그 방법들은 동시에 자본에 의한 자본 생산의 방법들이고 또는 자본 축적의 촉진 방법들이다.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부단한 재 전화는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는 자본의 크기의 장성에 표현된다. 그 장성은 이번에는 생산 규모 확대와 또 그에 수반하는 노동 생산력 제고 방법 및 잉여 가치 생산 촉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축적이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조건이라면 후자는 반작용에 의하여 자본 축적의 촉진을 가져 온다. 그리하여 자본 축적에 따라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발전하고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에 따라 자본 축적이 발전한다. 이 두 개 경제적 요인들은 서로 주고 받는 자극에 복비례(復比例)하여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변동을 일으키고 그 변동에 의하여 가변 구성 부분은 불변 구성 부분에 비하여 점점 더 적어진다.

일체의 개별적 자본은 크든 작든 간에 생산 수단의 집적이며 그에 상응하는, 크든 작든 간에 노동자 군(軍)에 대한, 지휘이다. 일체의 축적은 새로운 축적의 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의 양의 증대에 따라 개별적 자본가들의 수중에서의 부의 집적을 확대하고 그리하여 대규모 생산의 기초와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법의 기초를 확대한다. 사회적 자본의 장성은 다수 개별적 자본의 장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타의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개별적 자본들은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생산 수단의 집적은 그것들이 사회적 총자본중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장성한다. 동시에 최초의 자본들로부터 가지(枝)들이 분리하여 새로운 자립적인 자본들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의 가족들에 있어서의 재산 분배가 큰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자본 축적에 따라 자본가들의 수도 다소간에 는다. 두개 사정이 축적에 직접 의거하는 또는 오히려 축적과 동일물인 이 종류의 집적을 특징 짓는다. 첫째로 개별적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어서의 사회적 생산 수단의 집적의 장성은 기타의 조건들이 같다면 사회적 부의 장성 정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둘째로 사회적 자본중 매개 생산 분야에 투하된 부분은 독립적인, 서로 경쟁하는, 상품 생산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다수의 자본가들 간에 분할된다. 따라서 축적과 그것에 수반하는 집적은 다수의 점(點)들에 분산될 뿐만 아니라 기능 자본들의 장성은 신자본들의 형성과 구자본들의 분열과 교차된다. 그리하여 축적은 일방으로 생산 수단과 노동에 대한 지위의 집적의 장성으로서, 타방으로 다수의 개별적 자본가들 호상간의 반발로서 나타난다.

사회적 총자본의 다수 개별적 자본으로의 이 분열 또는 그 부분들의 호상 반발에 대하여 그것들의 흡인(吸引)이 반대 작용을 한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축적과 동일물인, 생산 수단 및 노동에 대한 지위의 집적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형성된 자본들의 집적이며, 그것들의 개별적 자립성의 폐절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들의 소수의 대자본으로의 진화이다. 이 과정은 다만 이미 현존하며 기능

하는 자본들의 분배의 변경만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그 작용 범위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 장성에 의하여 또는 축적의 절대적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써 첫째 과정과 구별된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의 수중에 자본이 대량으로 팽창하는 것은 저곳에서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수중으로부터 자본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적 및 집적과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집중이다.

이 자본 집중 또는 자본에 의한 자본의 흡인의 제 법칙을 이곳에서 전개할 수는 없다. 간단한 사실 지적으로써 충분하다. 경쟁 투쟁은 상품의 저렴화에 의하여 수행된다. 상품의 저렴성은 기타의 조건들이 같다면 노동 생산 능력에 의존하고 이 후자는 생산 규모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소자본들은 대자본들에 의하여 타승된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전상적 제 조건하에서 사업을 경영하기에 필요한 개별적 자본의 최저량이 장성한다는 것을 상기한다. 그리하여 비교적 적은 자본들은 대공업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정복되었을 뿐이든가 전혀 정복되지 않은 생산 분야들로 쫓린다. 여기에서 경쟁은 승부를 다투는 자본들의 수에 정비례하고 양에 반비례하여 격렬하다. 경쟁은 언제나 다수의 소자본가들의 멸망으로서 끝나는바 그들의 자본은 일부분은 승리자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일부분은 멸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에 따라 전혀 새로운 힘인 신용이 발전하는바 이 신용은 처음에는 축적의 겸손한 조수로서 은밀히 기여 들며 사회의 표면에 많은 또는 적은 분량으로 분산되어 있는 화폐 수단들을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하여 개별적 혹은 연합된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끌어 들이다가 얼마 안가 그것은 경쟁 투쟁에서 새로운 그리고 무서운 무기로 되며 결국에는 자본 집중을 위한 방대한 사회적 기구(機構)로 전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발전하는 동일한 정도로 집중의

두 개의 가장 강력한 공간인 경쟁과 신용도 발전한다. 이와 더불어 축적의 진전은 집중될 수 있는 소재 즉 개별적 자본들을 중대시키는바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는 일방으로는 사회적 욕망을 조성하며 타방으로는 자본의 선행하는 집중과 결부되어 실현되는 강력한 공업 기업소들의 기술적 수단을 조성한다. 그 때문에 오늘날 개별적 자본들의 호상 흡인력과 집중 경향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비록 집중 운동의 상대적 넓이와 정력은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 부의 이미 달성한 크기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 기구의 우월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하더라도 집중의 진전은 결코 사회적 자본의 크기의 적극적 증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으로써 특히 집중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집적과 구별된다. 집중은 기존 자본들의 분배상의 단순한 변동에 의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 부분들의 양적 집단 형성의 단순한 변동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수중에서 자본이 거대한 양으로 장성할 수 있는 것은 저기에서 자본이 다수의 개별적 사람들의 수중으로부터 탈취됨으로써이다. 어떤 조여의 사업 부문에서 거기에 루하된 일체 자본들이 유일한 자본으로 융합된다면 집중은 극도의 한계에 달할 것이다^{77b}. 조여의 한 사회에서 이 한계는 사회 총자본이 유일한 자본가이든 또는 유일한 자본가들의 회사이든 그 수중에 결합되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에만 도달될 것이다.

집중은 산업 자본가들에게 그들의 조작(操作)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 사업을 완성한다. 이 규모의 확대가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 간에, 집중이 합병이라

77b 제 4판을 위하여——최근의 영국과 미국의 《트레스트》들은 적어도 어떤 사업 부문의 모든 대경영들을 실제적 독점력을 가진 일대 주식 회사로 결합하려 함으로써 이미 이 목적을 지향하고 나가고 있다
——F. 엥겔스.

는 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든——이 경우에는 어떤 자본들이 다른 자본들에 대하여 우세한 인력(引力)의 중심이 되어 다른 자본들의 개별적 결집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산산이 된 파편들을 끌어 넣는다——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 과정에 있는 다수 자본들의 융합이 주식 회사의 형성이라는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든 간에 경제적 작용은 동일하다. 산업 기업들의 규모의 확장은 언제나 다수자의 전체 로동을 보다 광범히 조직하기 위한, 또 그들의 물질적 충동력을 보다 광범히 발전시키기 위한 즉 산산이 되었으며 타성적으로 운영되는 생산 과정들을 사회적으로 결합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생산 과정들로 점차 전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나 원형(圓形)의 운동 형태로부터 나선형의 운동 형태로 이행하는 재생산에 의한 자본의 점차적 증가인 축적은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개별적 구성 부분들의 량적 집단 형성의 변동을 필요로 할 따름인 집중에 비하면 극히 완만한 과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축적에 의하여 약간의 개별적 자본들이 장성하여 철도 부설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면 세계에는 아직 철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집중은 주식 회사에 의하여 순식간에 철도 부설을 달성했다. 그리고 집중은 그와 같이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축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가변 부분을 회생으로 하여 불변 부분을 증대시키는, 따라서 로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의 변혁들을 확대하고 축진한다.

집중에 의하여 하루' 밤 사이에 융접되는 자본량들은 다른 자본들과 같이, 다만 그보다 급속히 재생산되고 증대되며, 그럼으로써 사회적 축적의 새로운 강력한 공간들로 된다. 따라서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관하여 운운할 때는 현재는 암암리에 집중의 작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 축적 행정에서 형성된 추가 자본(제 22장 제 1절

참조)은 주로 새로운 발견과 발명, 일반적으로 산업적 개량의 이용을 위한 매개(媒介) 수단으로서 복무한다. 그러나 **구자본**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머리 우로부터 발 끝까지 갱신되어, 그 탈을 벗고, 보다 다량의 기계와 원료를 움직이는 데 보다 소량의 로동으로 충분하게 되는 완성된 기술적 모습으로 재생된다. 자명한 일이지만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로동에 대한 수요의 절대적 감소는 이 갱신 과정을 통과하는 자본들이 이미 집중 운동에 의하여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방으로는 축적 행정에서 형성된 추가 자본은 그 크기에 비하면 더욱 더 소수의 로동자들을 흡인한다. 타방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구성으로 재생산되는 구자본은 종전에 그가 고용한 로동자들을 더욱 더 많이 반발한다.

제 3절 상대적 과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의 루진적 생산

최초에는 양적 확대로써만 나타난 자본 축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 구성의 부단한 질적 변화로,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적 구성부분의 부단한 증가로 수행된다^{77c}.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그에 상응하는 로동

^{77c} 제 3판 주 밑스의 수고(手稿)에는 이곳에 다음과 같은 탄외(欄外) 주가 있다——《자주에 있어서의 이용을 위하여 말해 둔다——확대가 다만 양적이라면 대소 자본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부문에서는 리윤이 전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양적 확대가 질적으로 작용하면 그와 동시에 리윤률은 보다 큰 자본에 있어서 제고된다》——F. 엥겔스

생산력의 발전, 그것으로부터 유래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있어서의 변동은 축적의 진전 또는 사회적 부의 증가와 보조를 맞출 뿐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비할 수 없이 급속히 나간다, 왜냐 하면 단순한 축적 또는 총자본의 절대적 증대는 총자본의 개별적 요소들의 집중을 수반하고 또 추가 자본의 기술적 변혁은 최초의 자본의 기술적 변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축적의 진전에 따라 불변 자본 부분과 가변 자본 부분의 비례의 변동은 최초에 그것이 1대 1이던 것이 다음에는 2대 1, 3대 1, 4대 1, 5대 1, 7대 1 등등으로 되고, 그리하여 자본의 증가에 따라 로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본 총가치의 2분의 1이던 것이 루진적으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8분의 1 등등에 불과하게 되고, 생산 수단으로는 3분의 2, 4분의 3, 6분의 5, 8분의 7 등등이 전환된다. 그리하여 로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앞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그 수요는 총자본의 장성에 비례하여 증대하지 않고 그에 따라 루진적으로 감소한다. 그것은 총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또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가속도로 감소한다. 물론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그것의 가변적 구성 부분——즉 그것에 합체되는 로동력도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단히 감소하는 비율로써 증가한다. 축적이 소여의 기술적 기초 우에서의 단순한 생산의 확대로서 작용하는 중간 기간은 단축된다. 소여의 크기의 추가 로동자 수를 흡수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또 구자본의 부단한 형태 변화의 결과로 이미 기능하고 있는 로동자 수를 고용하기 위하여서도 총자본의 가속도적인 증가가 필요한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증가하는 축적과 집중 자체가 이번에는 자본 구성의 새로운 변동, 또는 그것의 불변 부분에 비한 가변 부분의 가속도적인 새로운 감소의 원천으로 전변한다.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촉진되며,

총자본 자체의 증가보다 급속히 축적되는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의 이 상대적 감소는 타방으로는 거꾸로 가변 자본 또는 노동자 인구의 고용 수단의 증가보다 언제나 급속한, 노동자 인구의 절대적 증가인듯이 보인다. 도리어 자본주의적 축적이, 그것도 그 정력과 그 규모에 비례하여, 부단히 상대적으로 즉 자본의 중위(中位) 정도의 자기 증식욕에 대하여 과잉한, 따라서 무용한 또는 추가적인 노동 인구를 생산한다.

사회적 총자본을 고찰하면 그것의 축적 운동이 때로는 주기적 변동을 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운동의 계기들이 동시에 각이한 생산 분야들에 배분되기도 하는 것을 본다. 약간의 분야들에서는 자본 구성의 변동이 단순한 집적의 결과로 자본의 절대적 증가 없이 일어나며, 다른 분야들에서는 자본의 절대적 증가가 그것의 가변적 구성 부분 또는 그것에 의하여 흡수되는 노동력의 절대적 감소와 결부되며, 또 다른 분야들에서는 자본이 때로는 소여의 기술적 기초 위에서 계속 증가하여 그것의 증가에 비례하여 추가 노동력을 흡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기적 변동이 일어나 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이 수축하기도 한다. 모든 분야들에 있어서 가변 자본 부분, 따라서 또 고용 노동자 수의 증가는 언제나, 적심한 동요와 일시적인 과잉 인구의 생산——이것이 이미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반발이라는 보다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하든,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으나 효과에 있어서는 그와 못하지 않는, 추가 노동 인구의 통로의 배수로(排水路)에로의 흡수 고난이라는, 형태를 취하든 간에——과 결부되어 있다⁷⁸. 이미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78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일제 조사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소유자, 차지 농업가, 원예가, 목동 등을 포함)은 1851년 201만 1,447명, 1861년 192만 4,110명 즉 8만 7,337명 감소. 모직업에서는 1951년 10만 2,714명, 1861년 7만 9,242명.

그것의 증가 정도에 따라, 생산 규모와 움직여지는 노동자들의 수량의 확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부의 모든 원천들의 출구가 넓어지고 증대됨에 따라, 자본에 의한 노동자들의 보다 큰 흡인이 노동자들의 보다 큰 반발과 결부되어 있는 규모도 확장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있어서와 자본의 기술적 형태에 있어서의 변동도 촉진되며 또 때로는 동시적으로 때로는 교호적으로 이 변동을 받게 되는 생산 분야들의 범위도 확대된다. 따라서 노동자 인구는 그들 자신이 생산한 자본 축적에 의하여 그들 자신을 상대적으로 과잉케 하는 수단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한다⁷⁹.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전직 공장에서는 1851년 11만 1,940명, 1861년 10만 1,678명. 갠사 널염 공은 1851년에 1만 2,098명, 1861년 1만 2,556명인바 사업이 크게 확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소한 증가는 고용 노동자 수의 거대한 상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모자 제조공은 1851년 1만 5,957명, 1861년 1만 3,814명. 맥고 모자 및 본넷트 제조공은 1851년 2만 393명, 1861년 1만 8,176명. 옛 기름 제조공은 1851년 1만 566명, 1861년 1만 677명. 양초 제조공은 1851년 4,949명, 1861년 4,686명인바 이 감소는 개중에도 가스 조명 때문이다. 빗 제조공은 1851년 2,038명, 1861년 1,478명, 제재공은 1851년 3만 552명, 1861년 3만 1,647명인바 이 근소한 증가는 제재기의 보급의 결과이다. 제정공(製釘工)은 1851년 2만 6,940명, 1861년 2만 6,130명인바 이 감소는 기계의 경쟁의 결과이다. 석(錫) 및 동 광산 노동자는 1851년 3만 1,360명, 1861년 3만 2,041명. 이와는 반대로 면방직 및 면직 조업에서는 1851년 37만 1,777명, 1861년 45만 6,646명. 탄광에서는 1851년 18만 3,389명, 1861년 24만 6,613명. 《노동자의 증가는 대체로 1851년 이때, 기계가 이 때까지 아직 성파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부문들에서 가장 크다》(《1861년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일제 조사》, 제 3권, 런던, 1863년, 36페이지).

79 약간의 탁월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가변 자본의 상대적 크기의 루진적 감소의 법칙과 고용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 대한 그 영향을 이해까지는 못하였지만 감득하고 있었다. 이에 있어서 최대의 공적은 존 바론에 속한다. 비록 그는 기타의 모든 고전파 경제학자들처럼 불변 자본과 고정 자본과를 또 가변 자본과 류동 자본과를 혼동하고 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로동에 대한 수요는 고정 자본이 아니라 류동 자본의 증가에 의존한다. 이 두 종류의 자본간의 비례가 어

에 고유한 인구 법칙인바 사실상 특수한 매개 역사적 생산 방식은 특수한, 역사적으로 타당한 그의 인구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추상적 인구 법칙이란 인간이 역사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식물과 동물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과잉 노동 인구가 축적의 또는 자본주의적 토대 우에서의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번에는 이 과잉 인구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존재 조건으로까지 된다. 그것은 자본에 의하여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며, 마치도 자본 자체의 비용에 의하여 육성된 듯이 아주 절대적으로 자본에 예속되고 있는 산업 예비군을 형

느 때 어느 환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실로 고용 노동자 수는 국가의 부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보급됨에 따라 고정 자본은 류동 자본에 비하여 점점 더 큰 몫을 차지한다. 한 필의 영국산 양사(洋紗) 생산에 증용된 고정 자본은 같은 한 필의 인도산 양사(洋紗)에 증용된 것보다 적어도 백배나 아마도 천배나 크다. 그런데 류동 자본의 몫은 백배나 천배나 적다……년 저축 총액이 고정 자본에 첨가되더라도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존 바론 《사회의 노동 계급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제 조건의 고찰》, 런던, 1817년, 16, 17페이지). 《나타의 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일한 원인이 동시에 인구를 팽창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리카도 《정치 경제학 원리》, 제 3권, 런던, 1821년, 469페이지) [로썬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251페이지]. 자본의 증대에 따라 《수요(노동에 대한)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동상서, 480페이지, 주) [로썬야어 판, 256페이지]. 《노동의 유지에 바쳐진 자본액은 자본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에는 관계 없이 달라질 것이다……고용량에 있어서의 심한 증감과 막대한 고통은 자본 그것이 보다 풍부하게 됨에 따라 보다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이다》(리처드 존스 《정치 경제학 서설》, 런던, 1833년, 13페이지). 《수요(노동에 대한)는…… 총자본의 축적에 비례하여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재생산에 물려진 국민의 자본의 모든 증가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상태에 점점 더 적은 영향을 주게 된다》(G. 램지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90, 91페이지).

성한다. 그것은 자본의 변동하는 증식율을 위하여, 언제나 착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인간 재료를, 현실적 인구 증식의 한계와는 독립적으로 조성한다.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돌연한 확대력이 장성하는바 왜냐 하면 비단 기능 자본의 신축성이 장성하고 절대적 부——자본은 다만 이것의 신축성 있는 한 부분이다——가 장성하는 때에만이 아니며, 또 비단 신용이 특별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즉시로 이 부의 비상한 부분을 추가 자본으로서 생산의 처리에 맡기는 때에만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의 기술적 제 조건 즉 기계, 운수 수단 등등이 잉여 생산물의 추가적 생산 수단으로의 가장 급속한 전화를 가장 큰 규모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부중에서 축적의 진전에 따라 팽창하며 그리고 추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양은, 돌연 시장이 확대되는 구생산 부문들로 또는 구생산 부문들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가 생기는 철도 등등과 같은 새로 개발된 부문들로 미친듯이 밀려 든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돌연히 그리고 다른 분야들에서의 생산 규모를 축소함이 없이 결정적 지점들에 대량의 인간을 투하할 필요가 있다. 과잉 인구가 그것을 제공한다. 근대 산업의 특징적인 생활 로정 즉 중위의 활황, 고도의 압력하에서의 생산, 공황과 정체기들로 이루어지며 자곤 변동들에 의하여 중단되는 10년을 1기로 하는 순환이라는 형태는 산업 예비군 또는 과잉 인구의 부단한 형성, 다소간의 흡수 및 재 형성에 의거하고 있다. 산업 순환의 국면들의 교체가 이번에는 과잉 인구를 증대케 하며 또 그것의 재생산의 가장 정력적인 요인들의 하나로 된다.

인류의 종전의 어떤 시기에도 보지 못하던 근대 산업의 이 독특한 생활 로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년기에도 있을 수 없었다. 자본의 구성이 극히 점차적으로만 변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노동에 대한 수요의 비례적 증대가 자본의 축적에 상응하

였다. 자본 축적의 진전이 근대에 비하면 완만하였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은 착취할 수 있는 노동 인구의 자연적 한계—— 후에 언급하게 될 강제 수단들에 의하여서만 제거할 수 있었던——에 부닥쳤다. 생산 규모의 돌연적이며 경련적(痙攣的)인 확대는 그것의 축소의 전제 조건이며, 후자는 이번에는 전자를 야기시키지만 그러나 전자는 착취할 수 있는 인간 재로 없이는, 인구의 절대적 장성과는 독립적인 노동자 수의 증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증대는 노동자들의 일부분을 부단히 《해방》하는 단순한 과정에 의하여, 장성하는 생산에 비하여 취업 노동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들에 의하여 조성된다. 따라서 근대 공업에 특징적인 전체 운동 형태는 노동 인구의 일부분의, 실업자 또는 반취업자로서의, 부단한 전화로부터 발생한다. 정치 경제학의 천박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산업 순환의 교체기들의 징조에 불과한 신용의 확대와 축소를 그 원인으로 삼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마치도 천체(天體)가 일단 일정한 운동에 던져지면 부단히 그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도 일단 확대와 축소가 교체되는 이 운동에 들어 가면 부단히 그 운동을 반복한다. 결과들이 이번에는 원인들로 되며 그 리하여 자기 자체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전체 과정의 교체되는 국면들이 주기성(周期性)의 형태를 취한다. 이 주기성이 일단 확고해지면 정치 경제학까지도 상대적 과잉 인구 즉 자본의 중위의 중식육에 비하여 과잉한 인구의 생산을 근대 산업의 생존 조건으로서 파악하기 시작한다.

전에는 옥스포드 대학의 정치 경제학 교수였고 후에는 영국 식민성의 관리였던 H. 메리베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황시에 국민이 몇 십만의 과잉한 빈민들의 국외 이주에 의하여 그들을 처치하고자 분발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자 마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재 생산이 암만 급속하게 진행된다

고 하더라도 성인 노동자의 보충을 위하여는 어쨌든 한 세대라는 기간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공장주들의 리운은 주로 수요가 왕성한 호황기를 리용하며 그리하여 수요가 약화하는 시기를 보상하는 힘에 달려 있다. 이 힘은 기계와 수 노동에 대한 지휘권에 의하여서만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공들을 발견하여야 하며, 시장의 정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들의 조작들의 적극성을 제고시키며 또는 다시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나라의 부가 의거하고 있는 우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⁸⁰. 말사스까지도 파잉 인구를 그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노동 인구의 상대적 과다로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과다한 장성으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근대 산업의 한 개 필연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결혼에 관한 분별 있는 관습도 만약 그것이 공업과 상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노동 계급간에서 상당한 정도로 실시된다면 그 나라에 유해로울 수 있다……인구의 본성으로부터 16 또는 18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수한 수요의 결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제공될 수 없는데 소득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절약에 의하여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나라는 언제나 노동의 유지를 위한 돈드가 인구보다 급속히 장성하는 경향에 처하고 있다》⁸¹. 정치 경제학은 그와

80 H·메티베일 《식민과 식민지에 관한 강의》, 런던, 1841년 및 1842년, 제 1권, 146페이지.

81 말사스 《정치 경제학 원리》, 254, 319, 320페이지. 이 저서에서 말사스는 드디어 시스몬디의 도움을 받아 파잉 생산—파잉 인구—파잉 소비——이것은 실로 대단히 미묘한 세 개의 괴물이다——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훌륭한 3위 1체를 발견하고 있다. F·엥겔스 《국민 경제학 비판 대강》(아놀드 루게 및 칼 맑스에 의하여 간행된 《독일—불란서 년보》, 파리, 1844년, 107페이지 이하) [K·맑스, F·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2권, 312—316페이지] 참조.

같이 노동자들의 상대적 과잉 인구의 부단한 생산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하나의 필연성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적절하게도 로처너의 자태를 빌리어 그의 《아름다운 리상》인 자본가의 입술로부터 노동자들 자신의 창조물인 루가 자본에 의하여 거리에 내던져진 《과잉》 노동자들에게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나오게 하고 있다——《우리 공장주들은 그대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증대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하고 있다——그러하니 그대들은 자기들의 수를 생존 수단과 일치시킴으로써 나머지 것을 해야 한다》⁸².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적 인구 증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수량으로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자유로운 활약을 위하여 이 자연적 제한에 구애되지 않은 산업 예비군을 요구한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가변 자본의 증감이 취업 노동자 수의 증감에 정확히 상응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가변 자본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노동자 수가 불변인 경우에 지어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만약 개별적 노동자가 보다 많은 로동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그의 로임이 증가하기만 하면——비록 로동의 가격은 불변이든가 지어는 저락, 즉 로동량이 증대하는 것보다 완만하게만 저락하더라도——증가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변 자본의 증대는 보다 많은 로동량의 지표로는 되나 보다 많은 취업 노동자의 지표로는 되지 않는다. 매개 자본가의 절대적 관심은 일정한 로동량을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비록 이들이 동등하게 저렴하든가 지어는 보다 더 저렴하더라도——로부터가 아니라 보다 적은 수의 노동자들로부터 짜내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는 불변 자본의 지출은 류출 상태에 놓여진 로동량에 비례하여 증대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필

82 해리에르 마르티노 《만체스터의 파업》, 1842년, 101페이지.

센 완만하게 증대한다.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기(動機)가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그것의 무게는 자본의 축적에 따라 증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축적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인 노동 생산력의 발전으로 자본가는 개별적 노동력의 외연적 또는 집약적 착취를 증대함으로써 가변 자본의 종전과 동일한 지출로써 보다 많은 노동량을 류출케 할 수 있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가는 무진적으로 기능 노동자들을 무기능 노동자들로써, 성숙한 노동자들을 미성숙한 노동자들로써, 남성 노동자들로써, 여성 노동자들로써, 성년 노동자들로써, 미성년과 아동으로써 구축함으로써 동일한 자본 가치로 보다 많은 양의 노동력을 구매한다.

그러하여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일방으로는 보다 많은 가변 자본이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보다 많은 노동량을 류출케 하며, 타방으로는 동일한 크기의 가변 자본이 동일한 양의 노동력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량을 류출케 하며 그리고 끝으로 보다 높은 질의 노동력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낮은 질의 노동력을 보다 다량으로 류출케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생산 또는 노동자들의 해방은 축적의 진행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촉진되는데, 생산 과정의 기술적 변혁과 그에 상응하는 불변 가치 부분에 비한 가변 가치 부분의 비례적 감소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된다. 생산 수단은 그 규모와 작용력이 증대함으로써 그것이 노동자들의 취업 수단으로 되는 정도가 보다 감소되는바, 이 관계 자체는 노동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자본이 노동에 대한 그의 수요를 제고하기 보다 급속하게 그의 노동 공급을 제고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다시 수정된다. 노동 계급중의 취업 부분의 과도한 노동은 그의 예비 대렬을 증대케 하는바 거꾸로 예비 대렬의 경쟁에 의하여 취업 노동자들에 가하여지는 강화된 압박은 그들을 과

도한 노동과 자본의 명령에 대한 예측으로 강요한다. 노동 계급의 일부가 다른 부분의 과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무위(無爲)로의 운명을 지니게 되는 것과 또 그 거꾸로 되는 것은 개별적 자본가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되며⁸³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업 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 제기가 상대적 과잉 인구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레컨대 영국이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 《절약》

83 지어는 1863년의 면화 기근시에도 공장법의 덕택으로 물론 생년 남성 노동자들만에 관한 것이지만 과도 노동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블랙번의 방적공들의 소책자에서 본다. 《이 공장의 성인 노동자들은 일방에 무위(無爲)를 강요 당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가족을 유지하고 또 자기들의 동료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즐겨 부분적 시간 노동이라도 하려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2 내지 13시간 노동하라고 요구되고 있다》. 거기에는 머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우리는 물어보고 싶다, 과도한 시간의 노동이라는 이 실천이 주인들과 <복무자들> 간의 여하튼 참을 수 있을 만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과도한 노동의 희생자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무위의 운명을 지닌(《Condemned to forced idleness》) 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이 지방에는 노동이 공정하게 배정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취업시킬 만한 충분한 일'감이 있다. 우리는 다만 고용주들에게 일부 노동자들은 일이 없어 자선(慈善)에 의거하여 연명하고 있는데 다른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과도 노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 사태가 유지되는 한 전반적으로 단시간 노동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제기하는 바이다》(《1863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8페이지). 《상공업에 관한 논술》의 저자는 자기의 판례로 되어 있는 확실한 부르조아적 본능으로써 상대적 과잉 인구의 취업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이 왕국에서의 타래의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노동자 수의 부족이다. 종종 제품에 대한 어떤 비상한 수요로 말미암아 노동량이 부족하게 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며 또 그들의 고용주들에게도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자들의 근성은 아주 타락해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자 집단은 단합하여 온종일 일하지 않고 빈들거림으로써 주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상공업에 관한 논술》, 27, 28페이지). 요컨대 이 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의 기술적 수단들은 방대하다. 그러나 매일이라도 일반적으로 노동이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되고 또 각종의 노동 계급을 위하여 연령과 성별에 상응하게 등급 구분이 실시된다면 국민적 생산을 현재의 규모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현존 노동자 인구로써는 절대로 부족할 것이다. 현재의 《비생산적인》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생산적》 노동자들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체로 말하면 로임의 일반적 운동은 전적으로 산업 순환의 시기들의 교체에 상응하는 산업 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에 의하여 조절된다. 따라서 그 운동은 노동자 인구의 절대수의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 계급이 현역군과 예비군으로 분할되는 비율의 변동에 의하여, 과잉 인구의 상대적 규모의 증감에 의하여, 그리고 또 과잉 인구가 때로는 흡수되며 때로는 다시 해방되는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대 산업에 있어서는 10년을 일기로 하는 순환과 순환의 주기적 국면들이 특징적이며 또 이 국면들은 축적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 급속하게 호상계기(繼起)하는 불규칙적 진동(振動)들에 의하여 교차되는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자본의 확장과 수축에 의해서 따라서 그때 그때의 자본의 증식률에 의해서 조절되는——그리하여 노동 시장이 때로는 자본의 확장의 결과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충만되든가 때로는 자본의 수축의 결과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충만된 것으로 나타난다——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의 운동이 인구량의 절대적 운동에 의존시켜 진다는 것은 근대 산업에 대해서 실로 훌륭한 법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정치 경제학의 도그마(敎條)이다. 그것에 의하면 자본 축적의 결과 로임이 제고된다. 제고된 로임은 노동 인구의 보다 급속한 증식의 자극으로 되는데 이 사태는 노동 시장이 과도하게 충만될 때까지 즉 자본이 노동자들의 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로임이 저락되면, 그 때에는 메달의 리면이 전개된다. 로임의 저락의 결과 노동자 인구는

점차 감소되며 그리하여 노동자 인구에 비하여 자본은 다시 과잉하게 되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듯이 로임의 저락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착취의 제고는 다시 축적을 촉진하고 타방으로는 동시에 로임의 낮은 수준이 노동 계급의 증가를 억제한다. 그리하여 또 다시 노동 공급이 수요 이하로 되고, 로임이 제고되는 등등의 상태가 조성된다.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하여 훌륭한 운동 방법이다! 로임 제고의 결과 실제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어떤 적극적인 증가가 생길 수 있기 전에, 산업전(戰)이 진행되고 전투가 버터지고 결전이 있지 않으면 안될 기간이 여러 번 경과할 것이다.

1849년과 1859년 간에 영국의 농업 지방들에서 곡물 가격의 저락과 동시에 실제로 순전히 명목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는바 페컨대 월트샤에서는 주(週)임금이 7실링으로부터 8실링으로, 도셋트샤에서는 7실링 또는 8실링으로부터 9실링으로 제고되었다. 등등. 이것은 전쟁 수요, 철도 부설, 공장, 광산 등등의 대량적 확장에 의하여 초래된 과잉 농업 인구의 비상한 감퇴의 결과였다. 로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극히 얼마 되지 않는 로임 제고 일지라도 그것은 백분율 수로는 보다 높이 표현된다. 페컨대 주 임금이 20실링이던 것이 22실링으로 제고된다면 10%만큼 제고되는데, 그에 반하여 그것이 7실링에 불과하던 것이 9실링으로 제고되면 284/7% 제고되는 것으로 되어 이것은 대단히 크게 들린다. 여하튼 차지 농업가들은 고향을 쳤고 런던 《에코노미스트》지 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이 기아 임금에 관하여 《전반적이며 대단한 인상》(«a general and substantial advance»⁸⁴)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면 차지 농업가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교조적인 경제학자들의 두뇌가 생각하였듯이 그러한 훌륭한 지불의 결과로 농촌 노동자들이 증식되어 그들의 임

⁸⁴ 《에코노미스트》, 1860년 1월 21일부.

금이 다시 저락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었는가? 그들은 보다 많은 기계를 도입하였으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차지 농업가들도 만족할 정도로 또 다시 《과다》하게 되었다. 이제는 종전보다 《보다 많은 자본》이 농업에 그것도 보다 생산적인 형태로 투하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퇴되었다.

이 경제학적 허구는 로임의 일반적 운동 또는 노동 제곱 즉 총 노동력과 사회적 총자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제 법칙과, 노동자 인구를 특수한 생산 제 분야간에 배분하는 제 법칙과를 혼동하고 있다. 때컨대 만약 호경기의 결과 축적이 일정한 생산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고, 이곳에서의 리윤이 평균 리윤보다 높아서 추가 자본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 오면 물론 노동에 대한 수요와 로임은 제고된다. 보다 높은 로임은 노동자 인구의 보다 큰 부분을 호경기의 분야로 인입하는바, 쓰디여 이 분야는 노동력으로 포화(飽和)되고 그리하여 임금은 결국 다시 종전의 평균 수준으로 또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밀려든 경우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 때에는 이 사업 부문에서의 노동자들의 류입(流入)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류출(流出)까지도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경제학자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임금의 증태에 따라 노동자 수의 절대적 증가가 일어나며, 노동자 수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 임금의 저락이 일어나는가를 본다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특수한 어떤 생산 분야의 노동 시장의 국부적 진동에 불과한 것이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자본의 욕망의 변동에 따라 각이한 자본 투하 분야들로의 노동자 인구의 배분의 현상에 불과하다.

산업 예비군 즉 상대적 과잉 인구는 정제기와 중위의 변영 기에는 현역 노동자 군에 압박을 가하고 과잉 생산과 경련(癎攣)기에는 그들의 요구를 억제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 인구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움직이는 배경이다. 그것은

이 법칙의 작용 범위를 자본의 착취율과 지배율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한계로 몰아 넣는다. 이곳에서 경제학적 변호론의 위업(偉業)의 하나로 돌아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가 상기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계의 도입 또는 낡은 기계의 확장에 의하여 가변 자본의 일부가 불변 자본으로 전화되면, 자본을 《결박(結縛)》하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해방》하는 이 조작을 경제학적 변호론자는 거꾸로 노동자들을 위하여 자본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변호론자의 과립치함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다. 해방되는 것은 비단 기계에 의하여 직접 구축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보충 인원이며 또 사업이 종전의 토대 위에서 보통 확장될 때에는 규칙적으로 흡수되는 추가 대렬이기도 하다. 그들의 모두가 이제는 《해방》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기능하려고 하는 새로운 매개 자본이 그들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자본에 의하여 흡수되는 것이 그들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든 간에 전반적 노동 수요에 대한 작용은, 이 자본이 바로 기계에 의하여 시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을 시장으로부터 해방할 정도의 것인 한, 평(零)일 것이다. 이 자본이 보다 소수의 노동자를 취업시킨다면 과잉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보다 다수의 노동자를 취업시킨다면 전반적 노동 수요는 《해방된 자들》을 넘는 취업자들의 초과분만큼 증가할 따름이다. 따라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추가 자본에 의하여 환기될 수도 있었던 노동 수요의 증대는 여하튼, 기계에 의하여 가두에 내던져진 노동자들로써 충족되는 그 정도만큼 중화(中和)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구(機構)는 자본의 절대적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전반적 노동 수요의 여하한 증대도 수반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그런데 변호론자는 이것을, 노동자들이 구축되어 산업 예비군의 대렬로 추방되는 과도기 중의 그들의 빈궁과 고난과 또 있을 수 있는 멸망에 대

한 보상이라고 부른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노동의 공급은 노동 계급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서로 독립한 두 개의 힘이 호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주사위(骰子)는 야바위다. 자본이 두 개 측면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이 일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면 타방으로는 《해방》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공급을 증대시키는바 동시에 실업자들의 압박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노동을 류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로 노동 공급을 노동자들의 공급으로부터 독립케 한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운동이 이 토대 위에서 자본의 전제(專制)를 완성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다 많이 타인의 부를 생산하는 것이며, 그들의 노동 생산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들이 자본의 증식 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 조차 믿음성이 적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 비밀을 알게 되자, 또 그들이 자신들 사이에서의 경쟁의 강도는 전적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의 압박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따라서 또 그들이 직업 동맹 등등에 의하여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어떤 계획적 협동을 조직하여 그들의 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그 자연 법칙의 파멸적 결과들을 제거하든가 또는 약화시키려고 하자 마자, 자본과 그의 아첨쟁이 경제학자는 《영원한》 그리고 소위 《신성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교란에 대하여 떠들어 댈다.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어떠한 관계도 이 법칙의 《순수한》 작용을 교란한다. 그런데 타방으로 떼쳐내 석민지들에서 불리한 사정들이 산업에 비군의 조성과 그에 따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 계급의 절대적 예측에 지장을 주자 마자, 자본은 그의 범속한 산채 관사 [돈 키호테의 시종, 여기에서는 경제학자의 뜻]와 함께 수요와 공급의 《신성한》 법칙에 반기를 들고 강제 수단으로써 대처하려 한다.

제 4절 상대적 과잉 인구의 각이한 제 존재 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인 법칙

상대적 과잉 인구는 극히 다양한 색채로서 존재한다. 노동자가 절반 일하든가 전혀 일하지 않는 기간중에는 상대적 과잉 인구에 속한다. 산업 순환의 제 국면의 교체가 상대적 과잉 인구에 부여하는, —그리하여 그것이 공황기에는 첩에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불경기의 시기에는 만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존재 형태들은 도외시하더라도 상대적 과잉 인구는 언제나 세 개 형태 즉 류동적, 잠재적 및 정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대 산업의 중심인 공장, 마누팩투라, 야금 공장, 광산 등등에서는 노동자들이 때로는 반발(反撥)되고 때로는 대량적으로 다시 흡인되어, 대체로 말하면 취업자 수는 비록 생산 규모에 비하면 부단히 저하되는 비율로써이지만 증대한다. 과잉 인구는 이 경우에 류동적 형태로 존재한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장이나 기계가 사용되거나 또는 적어도 근대적 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대작업장들에서는 성년에 탈하지 않은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이 요구된다. 일단 성년에 탈하면 동일한 사업 부문에 계속 남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정해 놓고 해고된다. 이들은 류동적 과잉 인구중 산업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한 요소를 이룬다. 그들의 일부는 국외로 이주하는 데 사실은 국외로 나가는 자본의 뒤를 따라 감에 불과하다. 그 결과의 하나는 여성 인구가 남성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인데 그 예를 영국에서 볼 수 있다. 로

동자 대중의 자연 증가가 자본의 축적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서도 동시에 그것을 증가한다는 사실은 자본 운동 자체의 한
개 모순이다. 자본은 빈소한 노동자를 보다 많이 요구하며 성
인 노동자는 보다 적게 요구한다. 분업의 결과로 일정한 사업
부문 이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천명이나 가두에서 헤
매고 있는 바로 그 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그 모순
보다 더 심한 모순은 없다⁸⁵. 그 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소모는 대단히 급속하여 중년의 노동자는 대개 벌써
다소간에 퇴역하게 된다. 그는 파잉자의 대렬로 떨어지든가
높은 급에서 낮은 급으로 구축된다. 대공업의 노동자들이야
말로 수명이 가장 짧다. 《만체스터의 보건 관리인 리 박사의
확언에 의하면 이 도시에서 부유 계급의 평균 수명은 38세인데
노동 계급의 그것은 17세에 불과하다. 리버풀에서는 전자는
35세, 후자는 15세이다. 따라서 특권 계급은 보다 불리한 조
건에 있는 그들의 동료보다 2배나 많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have a lease of life》)것으로 된다^{85a}. 이러한 정형하에서
는 프로테타리아트 중의 이 부분의 절대적 증가는 그 구성 요
소들이 급속히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증대한다는 형태
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 세대의 급속한 교체에 요구
된다 (이 법칙은 인구중의 기타 계급들에게는 타당하지 않는
다) 이 사회적 요구는 대공업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의 필연
적 결과인 조혼과, 노동자 아동들의 착취가 이 아동들의 생산

85 1866년 하반기에 런던에는 실업자가 8만 내지 9만이 있었는데
이 하반기에 관한 공장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수요
는 공황을, 바로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산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 같지는 않다. 노동에 관하여는 사례는 그렇지 않았으
나 왜냐 하면 지난 해에 일'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계가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81페이지).

85a 1875년 1월 15일 버밍엄 위생 회의에서의, 당시는 동시의 시
장이었으며 현재 (1883년)는 상업상인 J. 챔버린의 개회사.

에 주는 상급에 의하여 충족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을 장악하자 마자, 또는 그것을 장악한 정도에 따라, 농촌 노동자 인구에 대한 수요는 농업에서의 기능 자본의 축적과 함께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반발이 비농업적 산업에 있어서와 같이 보다 큰 흡인을 수반하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농촌 인구의 일부는 부단히 도시 프로레타리아트나 마누팩투라적 프로레타리아트로 전화하는 과도 상태에 있으며 이 전화에 유리한 조건들을 대기하고 있다(이곳에서 마누팩투라는 일체의 비농업적 산업을 의미한다)⁸⁶. 그리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의 이 원천은 부단히 류동한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에로의 부단한 류동은 농촌 자체에서 부단한 잠재적 과잉 인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잠재적 과잉 인구의 규모는 배수로(排水路)가 폐외적으로 널리 열릴 때에만 눈에 띈다. 그리하여 농촌 노동자는 최저한의 임금 수준으로 압박을 받아 떨어지고 한 다리는 언제나 구출을 받아야 할 궁핍의 늪 속에 쳐박고 있다.

상대적 과잉 인구의 제 3 범주인 정체적 과잉 인구를 이루는 것은 현역 노동자군의 일부이나 그 취업은 극도의 불규칙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그리하여 이 정체적 과잉 인구는 자본에게, 자유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제공하는

86 1861년의 일제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1,096만 998명의 주민을 가진 781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촌락과 농촌 교구(敎區)들에는 주민이 910만 5,226명에 불과하였다……1851년에는 일제 조사에 580개의 도시가 있었으며 그 인구는 그 주위의 농촌 지방들의 인구와 거의 동수였다. 그후 10년 간에 농촌 지방들에서는 인구가 겨우 50만 늘었는데 580개의 도시들에서는 155만 4,067명이나 늘었다. 농촌 교구들에서의 인구 증가는 6.5%인데 도시들에서는 17.3%이다. 증가들의 차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의 이주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구의 총증가의 4분의 3은 도시들에서 일어 나고 있다(《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일제 조사》, 제 3권, 11, 12페이지).

다. 그들의 생활 처지는 노동 계급의 정상적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본의 독자적 착취 부문들의 광활한 기반으로 된다. 그들은 최저한의 노동 시간과 최소한의 임금으로써 특징 지어진다. 그들의 주요 형태를 우리는 이미 가내 노동의 항목에서 알았다. 그들은 대공업과 농업의 과잉 노동자들로부러, 특히 몰락하는 공업 부문들——여기에서는 수공업적 생산이 마누콰뚜라적 생산에, 마누콰뚜라적 생산이 기계적 생산에 굴복한다——의 노동자들로부터 부단히 보충된다. 그들의 규모는 축적의 규모와 정력과 함께 《과잉》 노동자의 조성이 진전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노동 계급중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영원화하는, 그리고 노동 계급의 총증가중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몫을 차지하는 요소를 이룬다. 사실은 출생수와 사망수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절대수도 로임의 높이에, 즉 각이한 범주들의 노동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생활 수단의 양에 역비례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 법칙은 만약 그것을 야만인이나 지어는 문명화된 식민지인에 적용한다면 불합리하게 들릴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약하며 또 심한 박해를 받는 동물 종족의 대량적 재생산을 상기시킨다⁸⁷.

87 《빈궁은 생식에 유리한 것 같다》(A·스미쓰 《국부론》, 제1부, 제 8장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72페이지]). 몇 장이이며 재치 있는 승(僧) 갈리아니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신(神)의 특히 현명한 섭리(攝理)이기도 하다——《신은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시었다》(갈리아니 《화폐론》 쿠스트디 편찬 《이래리 정치 경제학 고전집》 현대부, 밀타노, 1801년, 제 3권, 78페이지). 《극도의 기아와 병역에 이르게 하는 빈궁은 인구의 증가를 억제할 대신에 오히려 인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S·레이 《국민적 재난》, 1844년, 69페이지). 레이는 이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다음에 계속하여 말한다——《사람들이 모두 편안한 환성에 있게 되면 세계의 인구는 순식간에 절종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의 최하층은 구휼(救恤)을 받는 빈민의 세계에 살고 있다. 부랑자, 죄인, 매춘부, 즉 간단히 말해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룸펜 프로레타리아트를 도외시하면, 이 사회층은 세 개 범주로 구성된다. 제 1은 로동 능력자이다. 영국의 구휼 통제를 훑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로동 능력자의 수는 매개 공황시에는 증대하고 매개 활황기에는 감소한다. 제 2는 고아와 구휼민의 아동이다. 이들은 산업 예비군의 후보이며 레컨대 1860년과 같은 산업의 대양향기에는 그들은 급속히 그리고 대량적으로 현역 로동자 군으로 편입된다. 제 3은 병약자, 룸펜, 로동 무능력자이다. 이들은 특히 분업으로 인한 전환 능력의 결핍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 또는 로동자들의 정상적 수명을 지낸 사람들, 끝으로 위험한 기계, 광산업, 화학 공장 등등의 증가에 따라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산업 희생자들, 불구자들, 병자들, 파부들 등등이다. 구휼 제도는 현역 로동자 군의 폐병원(肺病院)이며 산업 예비군의 사중(死重)이다. 구휼 제도의 산생은 상대적 과잉 인구의 산생에 예정되어 있으며, 전자의 필연성은 후자의 필연성에 예정되어 있으며, 구휼 제도는 상대적 과잉 인구와 더불어 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발전의 존재 조건이다. 구휼 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의 대부분을 자본은 자기 자신의 어깨로부터 로동 계급과 소부르조아지의 어깨로 전가할 줄을 알고 있다.

사회적 부, 기능 자본, 그것의 증대의 규모와 정력, 따라서 또 프로레타리아트의 절대량과 그의 로동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 예비군은 커진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로동력은 자본의 확장력과 동일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전된다. 따라서 산업 예비군의 상대량은 부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증대한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현역 로동자 군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고정적 과잉 인구 또는 그들의 빈궁이 그들의 로동의 고통에 역

비례하는 노동자 층은 [자본론 초판 원문에 의하여 첨가함—편집자] 대량적이다. 끝으로 노동 계급의 적빈(赤貧)층과 산업 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인된 구휼민은 많아진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적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에 있어서는 다종 다양한 사정들에 의하여 수정되는바 그 사정들의 분석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수를 자본의 증식욕에 적합하게 하라고 설교하는 경제학적 현명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만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기구(機構)는 이 수를 이 증식욕에 부단히 적합시킨다. 이 적합의 첫 말은 상대적 과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의 조성이고, 마지막 말은 현역 노동자 군 가운데서의 부단히 증가하는 층의 빈궁과 구휼민의 사중(死重)이다.

사회적 노동 생산 능력의 진전의 덕택으로 점점 증가하는 양의 생산 수단이 무진적으로 감소되는 인간력의 지출로써 운동에 놓여진다는 법칙——이 법칙은, 노동자가 노동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주의적 기반 우에서는, 노동 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들의, 그들의 취업 수단에 대한 압박이 크며 따라서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즉 타인의 부의 중대를 위한 또는 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한 자체의 힘의 판매는 보다 가망이 없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생산적 인구의 증가보다 급속한 생산 수단과 노동 생산 능력의 증가는 자본주의적으로는 거꾸로 노동 인구가 자본의 증식욕보다 언제나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제 4편에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분석할 때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체계내에서는 사회적 노동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은 개별적 노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수단들은 생산자를 지배하며 착취하는 수단들로 전화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불구화하는 것이며, 그를 기계의 부속물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의 노동의 고통으로써 노동의 내용을 없애는 것이며 과학이 자립적인 힘으로써 노동 과정에 도입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 과정의 정신적 힘들을 노동자로부터 소원(疎遠)케 하는 것이다. 또 그 방법들과 수단들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들을 외곡하는 것이며, 노동 과정중에서 그를 가장 편협하고 타기할 전체 제도에 굴복케 하는 것이며, 그의 전체 생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전화하는 것이며, 그의 처자를 자본의 자계로 노트 [인도의 신 비시누의 신어——神輿]의 수레바퀴 밑에 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한 모든 방법들은 동시에 축적의 방법들이며 거꾸로 축적의 모든 확대는 이 방법들의 발전을 위한 수단들로 된다. 이로부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는 그가 받는 지불이 어떻든, 높은 낮은 간에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끝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 즉 산업 예비군을 언제나 축적의 규모와 정력에 균형케 하는 법칙은 헤패스토스 [희랍 신화에 나오는 화신이며 단야의 신]의 쇠기가 프로메테우스 [희랍 전설상의 영웅으로서, 조이스신의 불을 훔친 탓으로 바위에 못박히었다]를 바위에 결박한 것보다도 더 단단히 노동자를 자본에 결박한다. 그것은 자본의 축적에 상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조건 짓는다. 따라서 한 극(極)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대극(對極)에서의 즉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계급층에서의 빈궁,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야성화(野性化) 및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이 적대적 성격은⁸⁸ 각종 형태들로 경제

88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는 것은 부르주아지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생산 제 관계는 전일적(全一的)인 단순한 성격이 아니고 이중적 성격을 띤다는 것, 부가 생산되는 정도에 따라 빈궁도 생산된다는 것,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억압의 힘도 발전한다는 것, 이 제 관계는 부르주아 계급의 개별적 성원들의 부를 부단히 파괴하고 점

학자들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물론 유사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상이한 전(前)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제 현상과 혼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18세기의 위대한 경제학 저술가의 한 사람인 베니스의 수도승(修道僧) 오로레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 관계를 사회적 부의 일반적 자연 법칙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선(善)과 경제적 악(惡)은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균형을 이룬다. (il bene ed il male economico in una nazione sempre all' istessa misura).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의 부의 증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것의 결핍과 동등하다 (la copia dei beni in alcuni sempre eguale alla mancanza di esse in altri). 몇 사람들의 거대한 부는 항상 보다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의 절대적 강탈을 수반한다. 한 국민의 부는 그의 인구에 상응하는바 그의 빈궁은 그의 부에 상응한다. 어떤 사람들의 근면은 다른 사람들의 무위 도식(無爲 徒食)을 강요한다. 빈곤과 무위 도식은 부유와 활동의 필연적 결과이다》 등등.⁸⁹ 오로레스 후 약 10년이 지나 고교회(高敎會)의 신교 승 타운센드는 아주 탄포하게도 빈곤을 부의 필연적 조건으로 찬미하였다. 《법에 의한 노동의 강제는 너무나 큰 노력과 폭압과 소요를 수반하는데, 기아는 평화적이며 조용하며 열새 없는 압박일 뿐만 아니라 근면과 노동에 대한 가장 자연적인 동기로서 가장

점 늘어 가는 프로메타리아트를 조성하는 방식으로써만 부르조아적 부를, 즉 부르조아 계급의 부를 생산한다는 것이다》(칼 맑스 《철학의 빈곤》, 116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5권 375페이지]).

89 칼·오로레스 《국민 경제학에 관하여. 6책본, 1777년》, 쿠스 로더 편찬, 현대부, 제 21권, 6, 9, 22, 25페이지 등등. 오로레스는 동서 3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무용한 제제를 안출할 대신에 나는 그들의 불행의 원인들의 연구에 국한하며 한다》.

힘껏 긴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은 기아를 로동
 계급에 있어서 영구한 것으로 하는 데 귀착되며, 타운센드의 의
 견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은 특히 빈민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구 원리(人口原理)이라는 것이다. 《빈민들이 어
 느 정도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없고 (improvident) (즉 입
 에다 금 술가락을 물고 세상에 태어날 만한 선견지명이 없고)
 그리하여 사회에는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멸등한 직능
 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that there alway
 s may be some)은 한 개의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행복의 총량 (the fund of human happiness)은
 심히 증대되고, 보다 섬세한 사람들 (the more delicate)은 포
 역으로부터 해방되어 지장 없이 보다 고상한 천직 등등에 종사
 할 수 있다……구빈법(救貧法)은 하느님과 자연이 세상에 세우
 신 이 체계의 조화(調和), 미(美), 균제(均齊) 및 질서를 파괴
 하는 경향이 있다》⁹⁰. 베니스의 수도승이 빈궁을 영원화하는
 운명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자선과 승려의 독신과 수도원과 자
 혜원(慈惠院)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였다면, 반대로 신교도인

⁹⁰ 《구빈법론, 인류의 행복을 원하는 한 사람 (목사 J. 타운센드
 씨)의 저술. 1786년》, 런던, 1817년, 15, 39, 41페이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이 《섬세한》 승려의 저술과 또 그의 서반아 여행기로부터 말사
 스는 자주 수 페이지씩이나 베끼고 있는데 이 승려는 그의 교리의 대부분
 을 새 J. 스튜아르트로부터 빌리고 있으면서 그나마 외곡하고 있다. 페
 컨대 스튜아트가 《이 노예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근면케 (일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하는 폭력적 방법이 있었다……그 때에는 사람들은 타인
 의 노예였으므로 로동을 (즉 타인을 위한 무상 로동을) 장요 당하였
 다. 지금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의 노예이므로 로동을 (즉 일하
 지 않는 자들을 위한 무상 로동을) 장요 당한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해
 서 그는 비대한 이 수목승과 같이 고승 로동자들이 언제나 굶주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도리어 그는 그들의 욕망을 증대
 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욕망의 증대로 하여금 《섬세한 사람들》을 위한
 로동에 대한 자극으로 삼고자 한다.

수록승(受祿僧)은 그것에서 영국의 구빈법들——그것들에 의하여 비참한 사회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을 비난할 구실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부의 진전은——하고 슈토르흐는 말한다——가장 재미 없으며 가장 열등하며 가장 실증이 나는 일들을 하는, 한 마디로 말하여 생활상 불쾌하며 예측적인 것은 모두 자신의 어깨에 짊어 지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계급들에게 여가와 정신의 명량과 관습적인 (C'est bon! 훌륭한 말이다!) 품성을 보장해 주는……유용한 사회 계급을 낳는다 운운》⁹¹ 그렇다면 빈궁과 대중의 타락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문명이 야만보다 우월한 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슈토르흐는 자문한다. 그가 발견하는 대답은 오직 한 마디——안전!이다. 《공업과 과학의 진보에 의하여——하고 시스몬디는 말한다——매개 노동자는 매일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노동이 부를 생산하지만 만약 그 자신이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면 그 부가 그로 하여금 노동에 적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들 (즉 비노동자들)은 만약 노동자의 노동과 같은 완강한 노동으로써 예술의 모든 완성품들과, 공업이 제공하는 모든 향락품들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것들을 단념할 것이다……오늘날에는 노력이 그 보수와 분리되어 있다. 동일한 사람이 우선 일하고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하는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쉬지 않으면 안된다……따라서 노동 생산력의 부단한 증가는 무위 도식하는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의 증가 이외의 다른 어떤 결과도 가져 올 수 없다》⁹². 끝으로 냉담한 부르조아

91 슈토르흐 《정치 경제학 강의》 페페르부르그판, 1815년, 제 3권, 223페이지.

92 시스몬디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 1권, 79, 80, 85

론개인 데스튜트 드 트라시는 란포하게도 다음과 같이 언명한
다: 《빈한한 나라란 인민이 잘 사는 나라요, 부유한 나라란
보통, 인민이 빈한한 나라다》⁹³.

제 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의 레증

A) 1846—1866년의 영국

근대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최근 20년의 기간과 같이 자본
주의적 축적의 연구에 편리한 기간은 없다. 이 기간은 마치도 포
르투나투스 [16세기 초엽의 독일 대중 문학 서적 중의 1인물로서 그는
결코 돈이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졌었다]의 돈 주머니를 발견한
듯하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 중에서 영국이 또 다시 고전적
배를 제공하는바, 그것은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첫 자리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충
분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끝으로 1846년 이래 자유 무
역이라는 천년 왕국의 도래가 축류 경제학의 최후의 도피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생산의 거인적인 진전, 이에 있어서 이
20년 간의 후반 10년 간은 전반 10년 간을 다시 훨씬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제 4편에서 충분히 지적되었다.

최근 반세기에 영국 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대단히 크지만
상대적 증가 즉 증가율은 공식적 일제 조사로부터 빌린 다음

페이지. [로썸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제 1권, 179, 183, 184페이지].

⁹³ 데스튜트 드 트라시 《의지와 그 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 231페이지.

표가 보이여 주듯이 계속 떨어졌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의 년 증가 백분율은 매 10년 별로 다음과 같다——

1811—1821년 1. 533%

1821—1831년 1. 416%

1831—1841년 1. 326%

1841—1851년 1. 216%

1851—1861년 1. 141%

그러면 타방으로 부의 증가를 관찰하자. 여기에서 가장 신빙할 만한 거점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리운, 지대 등등의 변동이다. 납세 의무 있는 리운 (차지 농업가 기타 약간의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의 증가는 1853—1864년 간에 대브리튼에서 50.47% (즉 년 평균 4.58%)였고⁹⁴ 인구의 증가는 같은 기간에 약 12%였다. 과세할 수 있는 지대 (가옥, 철도, 광산, 어장 등등을 포함)의 증가는 1853—1864년 간에 38% 즉 년 $3\frac{5}{12}\%$ 였는바 그 중에서도 다음 항목들이 가장 증가가 심했다——

1853년으로부터 1864년까지의		
	년 소득 증가	년 증가
가옥	38.60%	3.50%
채석장	84.76%	7.70%
광산	68.85%	6.26%
제철소	39.92%	3.63%
어장	57.37%	5.21%
가스 공장	126.02%	11.45%
철도	83.29%	7.57% ⁹⁵

1853—1864년 기간의 매 4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의 증가

94 《국내 소득 조사 위원회 제 10차 보고》, 런던, 1866년, 38페이지.

95 동상서.

정도가 부단히 장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천대 리운으로 부터 나오는 소득에 있어서는 이 증가가 1853—1857년에 년 1.73%, 1857—1861년에 년 2.74%, 1861—1864년에 년 9.30%이다.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 총액은 련합 왕국에서 1856년에 3억 706만 8,898파운드 스텔링, 1859년에 3억 2,812만 7,416파운드 스텔링, 1862년에 3억 5,174만 5,241파운드 스텔링, 1863년에 3억 5,914만 2,897파운드 스텔링, 1864년에 3억 6,246만 2,279파운드 스텔링, 1865년에 3억 8,553만 20파운드 스텔링이었다⁹⁶.

자본의 축적은 동시에 그것의 집적과 집중을 수반하였다. 잉글랜드에는 공식적인 농업 통계가 없으나 (애타에는 있다) 10주(州)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1851년부터 1861년까지에 100에 일커 이하의 차지 농장수는 3만 1,583으로부터 2만 6,567로 감소하였다. 즉 5,016의 차지 농장들이 보다 큰 차지 농장들과 합병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⁹⁷. 1815—1825년에는 상속세가 부과된 동산(動産)으로서 100만 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것은 1건도 없었는데, 1825년부터 1855년까지에는 8건이 있었으며 1856년부터 1859년 6월까

96 이 수'자들은 비교를 위하여는 충분하나 절대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다. 왜냐 하면 아마도 1억 파운드 스텔링의 소득은 매년 《은닉》될 것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기만——특히 상공업가 측으로부터의——에 대한 국내 소득 조사 위원들의 한탄이 그들의 보고마다에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한 주식 회사는 파세할 수 있는 리운을 6,000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신고하였는데 파세관은 그것을 8만 8,0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관정하여 결국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지불되었다. 다른 또 하나의 회사는 19만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신고하였는데 실제 금액은 25만 파운드 스텔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동상서, 42페이지).

97 《1861년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일제 조사》 제 3권 29페이지. 150명의 지주가 잉글랜드의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12명의 지주가 스코틀랜드의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존 보타이트의 추장은 지금까지 반박되어 있지 않다.

지 즉 4년 반에 4건이 있었다⁹⁸. 그러나 집중은 1864년과 1865년에 있어서의 D항 (차지 농업가 등등을 제외한 리운)의 소득세를 간단히 분석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이 원천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60파운드 스텔링 이상이라야 소득세 (Income tax)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 있는 이러한 소득들은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서 1864년에는 9,584만 4,222파운드 스텔링, 1865년에는 1억 543만 5,787파운드 스텔링이었다⁹⁹. 납세자 수는 1864년에는 총인구 2,389만 1,009명 중 30만 8,416명, 1865년에는 총인구 2,412만 7,003명 중 33만 2,431명이였다. 광년 간에 있어서의 이 소득들의 분배에 관하여는 다음 표를 참조——

	1864년 4월 5일에 끝나는 년도			1865년 4월 5일에 끝나는 년도		
	리운 소득		인수	리운 소득		인수
총소득	95,844,222	파운드 스텔링	308,416	105,435,787	파운드 스텔링	332,431
그 중	57,028,289	"	22,334	64,554,297	"	24,265
그 중	36,415,225	"	3,619	42,535,576	"	4,021
그 중	22,809,781	"	822	27,555,313	"	973
그 중	8,744,762	"	91	11,077,238	"	107

연합 왕국에서 석탄은 1855년에 6,145만 3,079톤 생산되었는데 그 가치는 1,611만 3,267파운드 스텔링이었고, 1864년에 9,278만 7,873톤, 그 가치는 2,319만 7,968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선철은 1855년에 321만 8,154톤, 그 가치는 804만 5,385파운드 스텔링이었고, 1864년에는 476만 7,951톤, 그 가치는

98 《국내 소득 조사 위원회, 제 4차 보고》, 런던, 1860년, 17페이지.

99 이것은 순 소득이다. 따라서 법규상 용허되는 일정한 공제금액은 제외한 것이다.

1,191만 9,877파운드 스털링이었다. 연합 왕국에서 경영되고 있는 철도는 1854년에 연장 8,054마일, 그에 투하된 자본은 2억 8,606만 8,794파운드 스털링이었고, 1864년에는 연장 1만 2,789마일, 투하 자본은 4억 2,571만 9,613파운드 스털링이었다. 연합 왕국의 수출입 총액은 1854년에 2억 6,821만 145파운드 스털링이었고, 1865년에는 4억 8,992만 3,285파운드 스털링이었다. 다음 표는 수출 동태를 표시한다——

1847년	58,842,377	파운드 스털링
1849 "	63,596,052	" "
1856 "	115,826,948	" "
1860 "	135,842,817	" "
1865 "	165,862,402	" "
1866 "	188,917,563	" "

100

이상의 약간의 자료에 의하여 영국민의 등기소 장관의 다음과 같은 개가(凱歌)를 리해할 수 있다——《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공업 및 재부의 진전에는 따라 가지 못하였다》¹⁰¹. 이제는 이 공업의 직접적인 담당자들 또는 이 부의 생산자들 즉 로동 계급으로 눈을 돌리자. 글라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현재 인민의 소비력이 감퇴하고 로동 계급의 궁핍과 고난이 증진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상층 계급들의 부는 부단히 축적되고 자본은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사회

100 현 순간 즉 1867년 3월에 이미 인도—중국 시장은 또 다시 영국의 면 방적 공장주들의 위탁 판매품물으로써 완전히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 1866년에 면 방적 노동자들 간에 5%의 임금 인하가 시작되었고, 1867년에는 그와 비슷한 조치의 결과로 프레스톤에서 2만 명의 파업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뒤이어 일어난 공황의 서곡이었다——F. 엥겔스}.

101 《1861년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일제 조사》, 제 3권, 11페이지.

상태의 가장 우울한 특징의 하나이다》¹⁰². 이 열정적인 대신(大臣)은 1843년 2월 13일에 하원에서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20년 후인 1863년 4월 16일에 그는 예산안 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842년부터 1852년까지에 이 나라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6% 증가하였다…… 1853년부터 1861년까지의 8년 간에는 185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 증가하였다. 사실은 놀랄만하여 거의 믿기 어렵다……이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는……전적으로 유산 계급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그러나 그것은 일반 소비품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 인구에게도 간접적 이익을 가져 오지 않을 수 없다——부자들은 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고 빈자들은 어쨌든 보다 덜 가난하게 되었다. 빈궁의 극도(極度)가 감소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나는 감히 말하려 하지 않는다》¹⁰³. 얼마나 뽕두 사미(龍頭蛇尾)이냐! 만약 노동자 계급이 의연히 《가난》하여, 다만 그들이 소유 계급들을 위하여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을 생산한 데 비하여 《보다 덜 가난》해졌음에 불과하다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종전과 같이 의연히 가난한 것이다. 빈궁의 극도가 감소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셈이다, 왜냐 하면 재부의 극도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생활 수단의 저렴화에 관하여 말한다면 공식 통계 레컨대 런던 교아원의 자료는 1860—1862년의 3년 간의 평균을 1851—1853년의 3년 간에 비하면 20% 등귀한 것을 보이며 주고 있다. 그 다음 3년간 즉 1863—1865년에 육류, 버터, 우유, 설탕, 소금, 석탄 기타 다수의 생활 필수품들이 루진적으로 등귀하고 있다¹⁰⁴. 1864년 4월 7일의 글라드스

102 1843년 2월 13일 하원에서의 글라드스톤(1843년 2월 14일 부 《타임스》지——2월 13일 부 《한사드》).

103 1863년 4월 16일 하원에서의 글라드스톤, 4월 17일 부 《모닝 스타》지.

104 청서(靑書)인 《연합 왕국의 잡종 통계》, 제 6부, 런던, 1866

본의 다음과 같은 예산안 연설은 처부의 진전과 《빈궁》에 의하여 감퇴된 인민의 행복에 대한 편다로소 [회랍의 서정 시인] 적송가(頌歌)이다. 그는 《구출적 빈궁과 접경하고 있는》 대중에 관하여 그리고 《임금이 오르지 않은》 사업 부문들에 관하여 말하고 끝으로 노동자 계급의 행복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개관하고 있다——《인생이란 10 중 8, 9는 단순한 생존 투쟁이다》¹⁰⁵. 포셋 교수는 공적 고려에 구속된 클라드스톤과 달라서 로골적으로 언명한다——《나는 물론 자본의 이 증대 (최근 10년 간의)에 따라 화폐 임금이 제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이 의견상의 리득은 대부분 다시 상실되고 마는 것이니 그것은 다수 생활 필수품들이 부단히騰貴되기 때문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귀금속의 가치 저락 때문이다)……부자들은 급속하게 더 부유해 지는데 (the rich grow rapidly richer) 근로 계급의 생활은 하등의 개선도 볼 수 없다……노동자들은 거의 그들에게 빛을 주고 있는 소매상들의 노예로 되고 있다》¹⁰⁶.

년, 260—273페이지, 이곳 저곳의 공식 자료를 보라. 교아원 동몽의 통계 대신에 왕실 자녀들에 대한 결혼 지참금 급여를 옹호하여 나서고 있는 내각 간행물의 소문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생활 수단의騰貴에 관하여 결코 망각하고 있지 않다.

105 1864년 4월 7일 하원에서 클라드스톤, 《한사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로 되어 있다——《다시 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생이란 대부분의 경우 생존 투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1863년과 1864년의 클라드스톤의 예산안 연설에 있어서의 계속되는 놀랄만한 모순을 영국의 한 저술가는 부알로 [《창작집》, 제 1권, 런던, 1780년, 53페이지]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으로써 특징 짓고 있다——

《여기에 진실로 이런 인간이 있다.

그는 백(白)으로부터 흑(黑)으로 옴아 간다.

저녁에 느낀 것을 아침에는 비난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자기도 불편케 하지만,

류행과 같이 순간마다 기분을 달리한다》.

(《환자의 이론》, 런던, 1864년, 135페이지).

106 H. 포셋로 《영국 노동자의 경제 상태》, 런던, 1865년, 67,

영국의 노동 계급이 소유 계급들을 위하여 《실신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의 증대》를 어떠한 조건하에서 창조하였는가 하는 것은 노동일과 기계에 관한 장들에서 천명되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의 노동자였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들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는 작업장 외에서의 그의 상태 즉 그의 급양과 주택 조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누구보다도 노동 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업 프로레타리아트와 농업 노동자를 중 최악의 지분을 받는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공인된 구출민들 즉 노동 계급중 노동력의 판매라는 생존 조건을 상실하고 사회적 부조에 의하여 연명하는 부분에 관하여 몇 마디 더 말하려 한다. 잉글랜드¹⁰⁷에서 공인된 구출민 수는 1855년에 85만 1,369명, 1856년에 87만 7,767명, 1865년에 97만 1,433명이었다. 면화 기근의 결과 이 수는 1863년과 1864년에는 107만 9,382명과 101만 4,978명으로 늘었다. 런던에 가장 혹심한 타격을 준 1866년 공황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 왕국보다도 주민이 많은 세계 시장의 이 중심지에서 구출민은 1866년에, 1865년에 비하여 19.5%, 1864년에 비하여 24.4% 증가하였고, 1867년의 최초 수개월에는 1866년에 비하여 더욱 더 증가하였다. 구출민 통계의 분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즉 일방으로는 구출민 수의 증감은 산업 순환의 주기적 국면 교체의 반영이다. 타방으로는 자본의 축적과 함께 계급 투쟁이 발전하

82페이지. 노동자들이 소매상들에게 더욱 매이게 되는 데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취업이 점점 더 필요하고 중단되는 결과이다.

107 잉글랜드라고 하면 언제나 웨일스가 포함되고, 대브리튼이라면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가 포함되고, 연합 왕국이라면 상기 세 지방과 에런이 포함한다.

고 그림으로써 노동자들의 자각도 발전함에 따라 공식 통제는 점점 더 구휼민의 실제 규모를 축인다. 레컨대 최근 2년 간 영국의 신문(《타임스》《펠 멜 가젯트》등등)이 그렇게도 크게 떠돌던 구휼민 취급상의 야만성은 옛날부터의 현상이다. 1844년에 F. 앵겔스는 똑 같은 관학과, 《선정 문학(煽情文學)》 따위에 속하는 똑 같은 일시적이며·위선적인 분겨를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런던에서의 아사자(《deaths by starvation》)수의 문서리치는 증가는 이 빈궁의 감옥인 로동 수용소¹⁰⁸의 노예 상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혐오의 장성을 무조건적으로 증명한다.

b) 영국 공업 노동 계급중 지불이 멸악한 층

이제는 공업 노동 계급중 지불이 멸악한 층들로 넘어 가자. 1862년 면화 기근시에 추밀원(樞密院)은 스미쓰 박사에게 탱카사와 체사의, 빈궁에 쪼들린 면 방적 노동자들의 급양 상태에 관한 조사를 위촉하였다. 그 이전의 다년간의 관찰의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기아로 인한 병(starvation diseases)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여성 노동자 1명의 1일 분 식사는 적어도 평균 3,900그레인¹의 탄소와 180그레인의 질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1명의 1일 분 식사는 적어도 평균 4,300그레인의 탄소와 200그레인의 질소를 포함하여야 함

108 A. 스미쓰가 노동 수용소(workhouse)라는 용어를 때로 마누팩투라와 같은 의미로 썼다는 사정은 그의 시대 이때 이루어진 진보에 독특한 빛을 던진다. 레컨대 문예에 관한 장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각이한 모든 노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같은 workhouse에 집중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국부문》, 로씨야어 판, 사회 경제 서적 출판사, 1935년, 9페이지 참조].

다, 즉 여성들에게는 2파운드의 '양질 밀' 가루 빵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거의 동량의 영양분이 필요하며, 남성들에게는 9분의 1만큼 더 필요하며, 성년 여성 및 남성에게는 주(週) 평균 적어도 2만 8,600그레인¹⁾의 탄소와 1,330그레인의 질소가 필요하다. 그의 계산은 실제에서 놀랄만치 확증되었는바 그것은 면방적 노동자들의 소비가 중첩으로 말미암아 그다지도 저하된 그 가련한 식사량과 부합된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1862년 12월에 주 2만 9,211그레인의 탄소와 1,295그레인의 질소를 받았다.

1863년에 추밀원은 영국 노동 계급중 급양이 최악한 부분의 중첩한 처지에 관한 조사를 명령하였다. 추밀원의 의무관 사이몬 박사는 이 사업에 상술한 스미쓰 박사를 선임하였다. 그의 조사는 일방으로는 농업 노동자, 타방으로는 견직공, 니제봉공, 가죽 장갑 제조공, 양말 제조공, 장갑 편직공, 제화공에 미치고 있다. 후자의 부류들은 양말 제조공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도시 노동자들이다. 조사의 기준으로 된 것은 각 부류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며 또 비교적 처지가 좋은 가족들이었다.

총결론은 다음과 같다——《조사된 도시 노동자 부류중 질소의 소비량이 그 이하로 되면 기아로 인한 병이 생기는 절대적 최저한을 다소나마 초과하는 것은 한 부류에 불과하다는 것, 두 부류에서는 질소성 식사이든 탄소성 식사이든 그 소비가 부족하고 그 중 한 부류에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 조사된 농업 가족의 5분의 1 이상이 필요량 이하의 탄소성 식사를 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필요량 이하의 질소성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3주(버크샤, 옥스포드셔 및 서머셋트셔)에서는 질소성 식사의 최저량에도 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¹⁰⁾. 농업 노동자들 중 연합 왕국의 가장 부유한 부분인 잉글랜드의

109 《공중 보건, 제 6차 보고, 1863년》, 런던, 1864년, 13페이지.

농업 노동자들의 급양 상태가 최악이었다¹¹⁰. 농업 노동자들 중 일반적으로 영양 부족은 주로 부인과 아동들이었는데 그것은 《성년 남자는 일을 하기 위하여 먹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이다. 조사된 도시 노동자 부류들 중에서는 부족이 더욱 심하였다. 《그들의 급양은 열악하여, 많은 경우에 참혹하며 건강을 파괴하는 궁핍 (이것은 모두 자본가의 《금욕》! 즉 그의 노동자들이 겨우 연명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생활 수단의 지불에 대한 금욕이다!)이 불가피하다》¹¹¹.

다음 표는 상술한 순전한 도시 노동자 부류들의 급양 상태와 스미쓰 박사가 '최저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량과 또 면방적 노동자들의 가장 곤란하던 시기의 급양 상태와를 대비한다——

남 녀 양성	주 평균 탄소량	주 평균 질소량
5개 도시 공업 부문	28,876 그램인	1,192 그램인
랭카셔의 공장 실업 노동자	28,211 "	1,295 "
남 녀 평균으로 랭카셔 노동자물을 위하여 제한된 최저량	28,600 "	1,330 "

112

조사된 공업 노동자 부류의 반수 즉 $\frac{60}{125}$ 은 전혀 맥주를, 28%는 전혀 우유를 소비하지 않았다. 가족들에 있어서 류동성 영양물의 주 평균량은 녀 재봉공의 7온스로부터 양말 제조공의 $24\frac{3}{4}$ 온스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다. 전혀 우유를 소비하지 않은 자들의 다수는 런던의 녀 재봉공들이었다. 맥주 소비되는 빵의 양은 녀 재봉공의 $7\frac{3}{4}$ 파운드로부터 제화공의 $11\frac{1}{4}$ 파운드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고 성인의 총평균은 주 9,9파운

110 동상서, 17페이지.

111 동상서, 13페이지.

112 동상서, 부록, 232페이지.

드였다. 당분 (시럽 등등)은 가죽 장갑 제조공의 주 4온쓰로부터 양말 제조공의 11온쓰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으며 모든 부류의 총평균량은 매주 성인 1명 당 8온쓰였다. 유류 (지방 등등)의 매주 총평균량은 성인 1명 당 5온쓰였다. 육류 (배돈 등등)의 매주 평균량은 성인 1명 당 전직공의 $7\frac{1}{4}$ 온쓰로부터 가죽 장갑 제조공의 $18\frac{1}{4}$ 온쓰에 이르기까지 구구하였으며 각종 부류들의 총평균량은 13.6온쓰였다. 성인 1명 당 매주 식사비는 다음과 같은 평균 수'자에서도 표현된다——전직공은 2실링 $2\frac{1}{2}$ 펜스, 녀 재봉공은 2실링 7펜스, 가죽 장갑 제조공은 2실링 $9\frac{1}{2}$ 펜스, 제화공은 2실링 $7\frac{3}{4}$ 펜스, 양말 제조공은 2실링 $6\frac{1}{4}$ 펜스, 맥클스필드의 전직공의 평균 비용은 주에 불과 1실링 $8\frac{1}{2}$ 펜스였다. 급양이 최악한 부류들은 녀 재봉공 전직공 및 가죽 장갑 제조공이었다¹¹³.

사이몬 박사는 자기의 일반적 보건 보고서에서 이러한 급양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수다한 경우에 영양 부족이 병을 발생시키거나 위독하게 한다는 것은 빈민들 사이에서의 의료 사업에 통하거나 입원 환자이든 외래 환자이든 병원 환자들의 사정에 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것이다……그러나 위생적 관점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 극히 중요한 사정이 첨가된다……영양물의 결핍을 참아 낸다는 것은 완강한 저항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통째로 음식물의 흡수한 고 같은 다른 선행하는 결핍들의 뒤를 이어서만 온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양 부족이 건강에 작용하기 훨씬 전에 생리학자가 질소와 탄소의 그테인——그 사이에서 생과 아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을 말아 보려고 생각하기 훨씬 전에, 살림 살이는 쓸모 있는 물건들을 몽땅 뒹뒹 버리고 만다. 의류와 연료는 음식물 보다도 더 결핍되어 있었을 것이다. 방한

113 동상서, 232, 233페이지.

대책도 불충분하였을 것이며 거주 면적은 병을 발생시키며 또는 위독하게 할 정도로 협착하였을 것이며 가재 도구는 거의 남지 않았을 것이며, 청결히 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일이든가 어려운 일로 되었을 것이다. 비록 아직도 자존심에서 청결히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시도는 기아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은 가장 값죽고 우로나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즉 위생 취해도 거의 효과가 없으며 하수도도 턱번치 못하며, 교통도 불편하며, 오물은 산더미 같으며, 급수는 거의 없든가 극악한 그리고 도시라면 일광과 공기가 크게 부족한 그러한 구역들에 있을 것이다. 영양 부족까지도 의미할 만한 빈궁은 불피코 그러한 보전상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악의 총화가 생명에 무시운 정도의 의의를 갖는다면 단순한 영양 부족이란 그자체로서 이미 무서운 것이다……이것은 무위 도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따라서 자업 자득인 그러한 빈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때 특히 침통할 일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빈궁이다. 실로 도시 노동자들이 근소한 음식물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되는 노동은 대개는 한 없이 연장된다. 그렇지만도 이 극히 제약된 의미에서만 노동이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가능성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대다수의 경우에 이 명목상의 생존 유지란 다만 길든 짧은 간에 구출민에 이르는 우회로일 수 있을 따름이다》¹¹⁴.

극히 근면한 노동자 층들의 기아의 고통과 자본주의적 축적에 기초한 부자들의 조잡하거나 또는 세련된 낭비간의 내부적 편차는 오직 경제 법칙들의 리해로써만 해명된다. 주력 상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이에 있어서는 공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생산 수단의 집중이 광범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공간에서의 노동자들의 혼잡은 보다 심

¹¹⁴ 동삼서, 14, 15페이지.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급속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주택 상태는 보다 비참하다. 부의 진전에 수반하는 도시의 《개선》(improvements)——불량 건물 구역들의 철거, 궁전과 같은 은행들과 백화점 등등의 건립, 영업상 운수와 사치스러운 마차들을 위한 가로의 확장, 철도 마차의 도입 등등에 의한——은 명백히 빈민들을 날로 악화되며 날로 밀집히¹¹⁵ 심해가는 빈민굴로 구축한다. 타방으로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세는 그 질에 역비례하여 비싸며 또한 빈궁이라는 광산은 포토시 [남미 볼리비아]의 은 광산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많은 리운과 적은 비용으로써 건축 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착취된다. 자본주의적 축적 따라서 자본주의적 소유 제 관계 일반의 적대적 성격은¹¹⁶ 여기에서는 명약관화한 것이어서, 주택 상태에 관한 영국의 공식 보고까지도 《소유와 소유권》에 대한 이단자(異端者)적 공격에 충만되어 있을 정도이다. 공업 발전, 자본 축적, 도시의 장성과 《미화》와 보조를 맞추어 이 죄악은 증진되어 《상류 사회》에도 용서 없이 전파되는 전염병에 대한 단순한 공포로 말미암아 1847년부터 1864년까지에 10개 이상의 위생 경찰 조례가 의회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또 리버풀, 글래스고 등등 일부 도시들의 부르조아지는 이에 놀래여 그들의 사회를 뒤흔들며 간섭하였다. 그러나 사이몬 박사는 1865년의 자기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 죄악은 영국에서 취체를 받고 있지 않다》고 부르짖고 있다. 추밀원의 명령에 의하여 1864년에는 농촌 노동자의, 1865년에는 도시의 극빈 계급들의 주택 사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공중 보건》에 관한 제 7차 및 제 8차 보고 (1865년)중에 줄리언 헨더 박사의 탁월한 로작들을

115 《노동 계급의 주택 조건처럼 인권이 공공연히 또 전면과하게 소유권의 희생으로 된 것은 없다. 대도시는 모두가 다 인간의 희생소이며 수천명이 해마다 몰로크[요대 페니키아인의 우신신—牛身神]를 위해 도살되는 제단이다》(사뮤엘 웨임 《국민적 재난》, 1844년, 150페이지).

볼 수 있다. 농촌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나중에 말하자. 도시의 주택 상태에 대하여 나는 사이몬 박사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을 먼저 인용하기로 한다——《나의 공적 법장은——하고 그는 말한다——순전히 의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평범한 인도주의적 감정으로도 이 최악의 다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게 한다. 이 최악은 심하게 되면 거의 불피코 인간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야수적인 성격인 온갖, 폐절의 부정, 육체와 육체 기능의 추악한 혼잡, 성적인 적라(赤裸)를 조건 짓는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타락인바, 이 타락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그것은 심각해진다. 이러한 저주를 받으면서 출생한 아동들에 있어서는 그 타락은 패덕으로의 세례(baptism into infamy)나 다름 없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른 관계에서, 육체적 및 도덕적 순결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문명의 분위기를 바라다 보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일이다》¹¹⁶.

주택이 사람들로 과만되어 있는 점에서나 지어는 사람으로서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런던이다. 《두 가지 사정은——하고 헨리 박사는 말한다——의심할바 없다. 첫째로 런던에는 각기 약 1만 여명의 주민을 가진 약 20개의 큰 부락이 있는바 그 참담한 상태는 잉글랜드의 어느 곳에도 류폐가 없으며 또 그와 같은 상태는 거의 전적으로 주택 시설이 나쁜 결과이다. 둘째로 이 부락들에 있는 가족들의 과만 상태와 로후 상태는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하다》¹¹⁷. 《런던과 뉴캐슬의 많은 부분들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

116 《공중 보건, 제 8차 보고》, 런던, 1866년, 14페이지, 주.

117 동상시, 89페이지. 이 부락들의 아동들에 관하여 헨리 박사는 말한다——《빈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현 시기 이전에 아동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나 그러나 대담한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 나라에 류폐가 없는 상태에서, 한 발중까지 각종 연령의 주장’

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¹⁸.

그러나 런던에서는 노동 계급중 비교적 처지가 나은 부분도 소매상들과 소부르조아지의 기타 요소들과 함께, 《개선》과 그에 따른 구거리들과 가옥들의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 또 공장들과 수도에로의 사람들의 류입이 증가함에 따라, 끝으로 또 도시의 지대(地代)와 더불어 집세가 인상됨에 따라,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혐오할 만한 주택 사정의 저주를 점점 더 받게 된다. 《집세는 한 간 방 이상을 빌릴 수 있는 노동자는 불과 얼마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되었다》¹¹⁹. 런던에서는 가옥 재산으로서 무수한 《중개업자들》(《middlemen》)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란 거의 한 건도 없다. 런던의 토지 가격은 언제나 그 년 수입에 비하여 비정상히 높다. 특히 그 연유는 어떤 구매자이든 조만간 사정 가격(Jury Price)(수용시에 사정판이 설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변상되든가 또는 어떤 큰 기업소의 접근의 결과인 토지 가격의 비당한 등귀에서 횡재를 보려고 루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만기에 가까운 임대차 계약을 사들이는 것이 폐사로 되고 있다.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사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 즉 가옥의 거주자들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짜내며 그들의 후계자들에게는 가옥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참한 상태로 넘겨 줄 것이라는 것이다》¹²⁰. 집세는 매주 지불되므로 이 신사들에게는 하등의 모험도 없다. 시내에 철도가 부설된 결과 《최근 어느 토요일 저녁에 런던의 동부에서는 옛집에

군, 왜소한 인간들, 싸움패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위험한 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장래의 실천을 위한 표양을 받고 있는 아동들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동상서, 56페이지).

118 동상서, 62페이지.

119 *《선트 마틴스인 더 필드구 보건관의 보고》, 1865년.

120 《공중 보건, 제 8차 보고》, 런던, 1866년, 91페이지.

서 쫓겨난 다수의 가족들이 가련한 가재 도구를 짊어진 채 노동 수용소 외에는 어디에서도 몸 붙일 곳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¹²¹. 노동자 수용소들은 벌써 만원이었으며, 의회가 이미 허가한 《개선들》도 아직 실시의 시초에 불과하였다. 노동자들은 종전의 가옥이 파괴되어 쫓겨나면 자기들의 교구(敎區)를 버리지 않든가 가장 멀리간다 해도 그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교구에 이주한다. 《그들이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 이주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가족은 두 간 대신에 한 간 방에 들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이 쫓겨난 집보다 집세는 높은데 집은 더 나쁘게 된다. 스트랜드(강변)에 사는 노동자들의 반수는 이미 작업장까지 2마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주요 거리는 외국 사람에게 런던의 부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는 이 스트랜드는 런던에서의 인간 밀집의 실태로 될 수 있다. 스트랜드의 한 교구에서는 보전 관리의 계산에 의하면 그 면적에 햄즈 강쪽의 반이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커 당 581명이였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그랬던 바와 같이 온갖 위생—경찰 조치는 부적당한 가옥을 파괴하여 노동자들을 한 구역에서 쫓아냄으로써 실제로는 다른 구역을 그만큼 더 밀집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모든 시책은——하고 헨리 박사는 말한다——불합리한 것으로서 반드시 중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과장 없이 국민적 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자금이 부족해서 제것으로 구득할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임차료는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동정(!)이 반드시 환기되거나 하여야 한다》. ¹²² 자본주의적 정의라는 것은 경탄할 만하다! 토지 소유자, 가옥주, 실업가는 철도 부설, 가로의

¹²¹ 동상서, 88페이지.

¹²² 동상서, 89페이지.

신설 등등과 같은 《개선》에 의하여 수용(收用)을 당할 때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그들은 자기의 강요된 《절육》에 대하여 하느님과 인간의 법에 의하여 훌륭한 리윤으로써 위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처자와 소지물과 함께 거리에 내던져지며, 시(市)당국이 체면에 류의하고 있는 시 구역들로 너무나 큰 떼를 지어 몰려 들어가면 위생 경찰은 그들을 추격한다!

19세기 초 영국에는 주민 10만을 헤아리는 도시는 런던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5만 이상도 불과 다섯개였다. 현재는 5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도시가 28개 있다. 《이 전변의 결과는 도시 인구의 거대한 증가일 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밀한 소도시들이 이제는 사방으로 건물들이 둘러 세워져서 어디에서도 신선한 공기란 통할 수 없는 중심지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도시들은 이제는 부자들에게 유쾌한 생활을 더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버리고 더 재미나는 교외로 이주한다. 그들이 살던 자리에 들어 오는 사람들은 큰 가옥에서 한 가족이 한 방씩 차지하는데 가족외에 종종 동거인들을 넣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정되지도 않았으며 또 그들에게 전혀 적합하지도 않은 가옥들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 성인들에게는 실로 타락적이며 아동들에게는 파멸적인 환경을 이룬다》¹²³. 어떤 공업 도시나 상업 도시에서 자본이 급속히 축적되면 될수록 착취할 수 있는 인간 재료는 더욱 급속히 밀려 들어오며, 당장에 되는 대로 세운 노동자들의 주택은 더욱 비참하게 된다. 그 때문에 부단히 발전하는 탄광 및 광산 지방의 중심지로서 뉴캐슬—어폰—타인은 주택 지옥이라는 점에서 런던에 다음 가는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3만 4,000명 이상이 단칸방들에서 살고 있다. 최근 뉴캐슬과 게이스헤드에서는 공중

보건에 절대로 유해롭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옥이 경찰의 조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가옥의 신축은 극히 완만하게 진행되는데 공업은 극히 빠르게 발전한다. 그 때문에 그 도시는 1865년에 종전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로 과만하게 되었다. 방한간을 빌릴 수가 없었다. 뉴캐슬의 열병원의 의사 엠블튼 박사는 말한다——《티프스가 계속 만연하고 있는 원인이 사람들의 밀집과 그들의 주택의 불결에 있음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노동자들이 보통 살고 있는 가옥들은 뒤'골목이나 구내(構內)에 있다. 그 가옥들은 일광, 공기, 공간, 정결의 관점에서 부족과 비위생의 표본이며 어떤 문명국에 대하여도 치욕적인 것이다. 거기에서 밤에는 남녀 아동할 것 없이 뒤섞여 잔다. 남성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주야의 교대가 편속 부절이어서 침대가 식을 사이가 없다. 그 가옥들은 급수가 나쁘고 변소는 더욱 나쁘며, 불결하고 환기는 되지 않으며 전염병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¹²⁴. 그러한 빈민굴의 세는 주 8펜스로부터 3실링에 이른다. 《뉴캐슬—어폰—타인은——하고 헨리 박사는 말한다——우리 동포중의 가장 훌륭한 종족의 하나가 주택과 가로전설과 같은 외부적 사정들에 의하여 종종 거의 야만적인 상태에 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례로 된다》¹²⁵.

어떤 공업 도시의 주택 상태는 자본과 노동의 류입과 류출의 결과로 오늘은 참을 만하다가도 래일은 혐오를 일으킬 만한 것으로 된다. 때로는 드디어 시 당국이 혹심한 상태의 제거에 분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래일이면 황충(蝗虫) 떼와 같이 누더기를 걸친 애란인이나 명악한 잉글랜드인의 농업 노동자들이 물려 들어 온다. 그들은 지하실이나 교'간에 집어 넣어지든가 또는 그때 까지 존경할 만하였던 노동자 가옥을 려인숙으로 점화하는데 여기에서는 30년 전쟁 당시의 병사들의 숙소와 같이

124 동상서, 149페이지.

125 동상서, 50페이지.

금방 금방 사람들이 달라진다. 실례는 브래드포드이다. 거기에서는 시 당국의 속물들이 바로 도시 개혁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곳에는 1861년에는 아직도 빈집이 1,751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은 호전되었으니 이에 관하여 온건파—자유주의자이며 흑인의 벗인 포스터씨는 최근 그렇게도 대단한 개가를 올렸다. 사업의 호전과 더불어 물론 끊임 없이 파도쳐 흘러 들어 오는 《에비군》 즉 《상대적 과잉 인구》의 물결로 홍수가 났다. 헨리 박사가 어떤 보험 회사의 대리인으로 부러 입수한 표¹²⁶에 등록된 혐오를 일으킬 만한 지하실과 방들은 대개 높은 지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다 좋은 집이 있기만 하다면 즐겨 빌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점점 가난해지고 병들고 있는데 하원 의원인 온건—자유주의자 포스터는 자유 무역의 덕택과 브래드포드의 명사(名士)들이 양모업에서 벌고 있는 리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브래드포드의 구출민 담당 의사인 벨박사는 1865년 9월 5일부 보고서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서 주력 사정에 기인한 열병 환자의 무서운 사망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1,500립방 피트의 한 지하실에서 10명이 살고 있다……빈센트 거리, 그린 에어 플레이스 및 리즈에는 1,450명의 주민, 435개의 침대 및 36개의 변소를 가진 223채의 집이 있다…… 침대라고 해도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더러운 누더기를 뭉친 것이든가 한 아람의 대패밥인바 한 개 침대에 평균 3.3명 때로는 5 내지 6명이 해당된다. 다수는 침대 없이 땅바닥에서 옷 입은채로 자며, 젊은 남녀들이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할 것 없이 한테 겹쳐 잔다. 이 집들이라는 것이 대개는 퍽퍽하고 습기 차고 더럽고 냄새 나며, 사람 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루옥이라는 것

126 브래드포드의 어떤 노동자—보험 회사 대리인이 작성한 표.

을 부언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집들이 중심이 되여, 병과 죽음
이 전파되며 또 그러한 피해가 우리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화
농하도록 허용한, 잘 사는 (of good circumstances) 사람들 사
이에서도 희생자를 내고 있다》¹²⁷.

벌칸 거리	122번	1 실	16 명
렘리 거리	13 "	1 "	11 "
버워 거리	41 "	1 "	11 "
포도랜드 거리	112 "	1 "	10 "
하디 거리	17 "	1 "	10 "
노쓰 거리	18 "	1 "	16 "
동상	17 "	1 "	13 "
화이어 거리	19 "	1 "	8 " (성인)
쇼윙트 거리	56 "	1 "	12 "
조지 거리	150 "	1 "	3 가족
라이플-코트, 배리게이트	11 "	1 "	11 명
마샬 거리	28 "	1 "	10 "
동상	49 "	3 "	3 가족
조지 거리	128 "	1 "	18 명
동상	130 "	1 "	16 "
에드워드 거리	4 "	1 "	17 "
조지 거리	49 "	1 "	2 가족
요크 거리	34 "	1 "	2 "
솔트 파이 거리 (아래)		2 "	26 명
지 하		실	
리젠트 스퀘어		1 지하실	8명
에이커 거리		1 "	7 "
로버트 코로	33번	1 "	7 "
백 프랫트 거리 동(銅) 대 장' 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		1 "	7 "
에베저 거리	27번	1 "	6 "(18세 이 상의 남자는 1명도 없음)

동상서, 111페이지.

127 《공중 보건, 제 8차 보고》, 런던, 1866년, 114페이지.

주택이 비참한 점에 있어서 런던으로부터 세여 세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곳은 브리스틀이다. 《구라파의 가장 부요한 도시의 하나인 이 도시에서 적빈(赤貧) (blankest poverty)과 주택의 비참이 가장 심하다¹²⁸.

c) 류탕민

이제는 출신은 농촌이요 직업은 대부분 공업인 한 인민층으로 눈을 돌리자. 그는 자본의 경보병(輕步兵)으로서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이동한다. 그는 행군을 안할 때는 《진영》(陣營)을 친다. 류탕 노동자는 각종 건설 공사와 배수 공사, 벽돌 생산, 석회 굽기, 철도 공사 등등에 사용된다. 류탕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걸을 가리켜 주는 지팡이와도 같이 그들이 진영을 치는 부근 일대에 천연두, 티프스, 호렐자, 성홍열 등등을 끌어 들인다¹²⁹. 철도 부설 등등과 같이 자본을 상당히 투하하는 기업들에서는 대개 기업주 자신이 자기의 군대에 목조 바락크 등등을 제공하는데 즉석에서 생긴 부락들은 위생 시설이란 하나도 없으며, 지방 당국의 취제도 받지 않으므로 청부업자 제씨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왜냐 하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산업의 병사로서와 차가인으로서 이중으로 착취하기 때문이다. 목조 바락크에 ‘쿨’간 같은 방이 하나인가 둘인가 또는 셋인가에 따라 토공(土工) 등등의 거주자는 방값으로 주에 2, 3, 4실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례 하나로 충분할 것이다¹³⁰. 사이몬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1864년 9월에 내무장관 조지 그레이는 세베룩스 교구의 위생 위원회 (Nuisance Re

128 동상서, 50페이지.

129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런던, 1865년, 18페이지.

130 동상서, 185페이지.

moval Committee) 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신소를 받았다——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교구에서 천연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때보다 조금 전에 류이샘으로부터 런브릿지에 이르는 철도 건설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주요 공사가 이 도시의 바로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전체 공사의 본부도 이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들 전부를 오막살이 집에 넣을 수 없으므로 청부업자 제이씨는 선로 연변에 이곳 저곳 바락크를 세우고 노동자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 바락크들은 환기 장치도 없고 하수도도 없으며 거기에다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과만하였으니, 왜냐 하면 임차인은 누구나 자기 가족이 많으며 또 바락크는 각각 방이 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숙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로 이 불행한 사람들은 밤이면 더러운 물 구덩이와 바로 창 밑에 있는 변소로부터 풍기는 병독을 품은 악취를 마시지 않으려고 질식의 고통을 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이 바락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한 의사로부터 신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위 '주래들의 상태에 대하여 아주 비통한 표현으로 말하였으며 만약 약간의 보건 대책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극히 엄중한 후과가 있으리라고 위구하였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상기 제이는 그의 고용 노동자들이 전염병에 걸리었을 때 즉시 격리할 한 채의 가옥을 세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난 7월 말에 되풀이하였으나 그후 천연두가 수전 있었으며 그 결과 사망이 두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 리행을 위하여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의사 켈슨은 나에게 동일한 바락크들에서 천연두가 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거기에서의 상태는 처참하다고 써 보았습니다. 각하 (내무상)에게 첨가하여 상신할 것은 우리 교구에

는 소위 페스트-하우스라는 격리소가 있어서 전염병에 걸린 교구민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격리소가 지금 수개월 래 환자들로 계속 만원입니다. 한 가족에서는 5명의 아동이 천연두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에 천연두로 인한 사망이 10건을 내리지 않는 데 그 중 4건은 전염병의 원천인 상기 바락크들에서입니다. 리병자 수를 확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병이 발생한 가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비밀에 붙이려 하기 때문입니다》¹³¹.

탄광 기타 광산 노동자들은 영국 프로테타리아트 중 가장 높은 지분을 받는 부류에 속한다. 그들이 얼마나 되는 데'가의 로임을 받고 있는가는 상술하였다¹³². 나는 여기에서는 그들의 주택 상태에 대하여 간단히 일별하고자 한다. 보통 채광업자는 광산의 소유자이든 임차자이든 간에 일정한 수의 오막살이 집을 노동자들을 위하여 짓는다. 노동자들은 오막살이 집과 난방용 석탄을 《무료로》 받는다, 즉 이것들은 천물로 (in natura) 급여되는 로임의 일부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으로 숙소를 얻지 못하는 일부 노동자들은 그 대신에 년 4파운드 스텔링을 받는다. 광산 지방은 광산 노동자들 자신과 그들의 주위

131 동상서, 18페이지, 주. 차첼—앙—트—프리로 교구 연합의 빈민 구호관은 등기소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더브홀스에서는 석회 버럭의 큰 언덕 속에 다수의 작은 굴들을 파고 있다. 이 굴들은 철도 부설에 종사하는 토공 기타 노동자들의 주택으로 되고 있다. 굴들은 협착하고 습기차며 하수도도 없고 변소도 없다. 여기에는 동시에 굴쪽 노릇도 하는 천정에 난 구멍 외에는 어떤 환기 시설도 없다. 천연두가 창궐하여 이미 수건의 사망(혈거자——穴居者——물사이에서)을 내고 있다》(동상서, 주 2).

132 페이지 이하에서 인용한 상세한 것들은 주로 탄광 노동자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보다 더 나쁜 금속 광산들에서의 상태에 관하여는 1864년의 칙명 위원회 (the Royal Commission)의 탐심적 보고를 참조하라.

에 모여 드는 수공업자들, 소매상들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데
인구를 급속하게 인입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어디
에서나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지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광
산 기업가는 갠구(坑口)에 근접한, 될 수 있는 대로 험악한 대
지 위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쳐박기에 꼭 필요한만큼의 오
막살이 집들을 세우려고 한다. 새 갠들이 가까운 곳에 개굴되
거나 구갠들이 다시 채굴되기 시작하면 혼잡은 증가한다. 오
막살이 집을 세울 때 결정적 의의가 있는 것은 오직 한 개 관
점이니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 외의 일체의 현금 지출
에 대한 자본가의 《금욕》이다. 줄리안 헌터 박사는 말한다——
《노섬버랜드와 더햄의 탄광들과 연결되어 있는 탄부 기타 로
동자의 주택들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보아 몬마우쓰 사의이와
류사한 지방을 제외한다면 영국에서 이 방면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이며 또 최고'가의 것일 것이다. 국
단으로 나뉜 것은 한 방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어 넣고 있는
것, 매지는 험악한데 그 위에 많은 가옥들이 세워져 있는 것,
용수 부족과 변소의 결핍, 가옥을 첩첩히 세우든가 그것들을
각층(flats)으로 나누는(그리하여 여러 오막살이 집들이 우
아래로 겹겹이 된 계단들을 이룬다), 빈번히 적용되는 방법이
다…… 기업주는 전체 부락을 마치도 영주시킬 것이 아니라 순
전히 진영을 치는 셈으로 취급하고 있다》¹³³. 《내가 받은 지
시의 수행중에 ——하고 스티븐스 박사는 말한다——나는 더햄
교구 연합의 큰 광산 부락들을 대개는 방문하였다……극히 소
수를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거주자들의 보전을 위한 하등의 매
책들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전체 탄부들은 임
차인(lessee) 또는 광산 소유자에게 12개월 간 결박(bound)이
라는 말은 예속——bondage——란 말과 같이 농노 시대에 기원

133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런던, 1865년, 180, 182페이지.

하고 있는 표현이다)되어 있다. 만약 그들이 불만의 빛을 비추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감독(«viewer»)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감독은 자기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에다 표적을 해 두거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신년도 계약시에 그들을 해고한다……어떠한 종류의 트럭—시스템 <상품으로써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제도> 일지라도 인구가 조밀한 이 지방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자는 그의 로임의 일부로써 전염병의 환경 속에 있는 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는 어떤 점으로 보든 농노이다(he i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 serf). 그의 고용주를 꺾쳐 놓고는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그런데 이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그의 수지 발란스와 상담한다. 그리하여 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노동자는 또 고용주로부터 물도 공급 받는다. 물이 좋은 나쁜든 간에 또 제공되든 청지되든 간에 노동자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로임으로부터 해당하는 공제를 당하는 것이다»¹³⁴.

자본은 《사회 여론》 또는 심지어 위생 경찰과도 충돌하면서 자기가 노동자의 노동과 가정 생활에 강요한, 부분적으로는 위험하고 부분적으로는 타락적인 제 조건을 노동자를 보다 유리하게 착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정당화》한다. 자본이 공장들에서 위험한 기계들에 대한 보호 시설을 금욕하는 경우, 광산 등등에서 환기 및 안전 시설을 금욕하는 경우에 사태는 그러하다. 이 경우의 광산 노동자의 주택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추밀원 의무관 사이몬 박사는 자기의 공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부당한 주택 조건의 불변명으로서의 광산들은 보통 임대차 방식으로 채굴된다는 것,

임대차 계약 기간 (탄광에서는 대개 21년)이 너무 짧아서 임차인에게서는 기업이 끌어 들인 노동자, 수공업자 등등을 위하여 좋은 시설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신은 이 점에서 린색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때문에 수포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의 지하 소유물을 채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들이 있는 아담하며 또 기분이 좋은 부락을 지상에 설치하는 특전의 대'가로 즉시에 비상히 높은 지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금지 가격은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조건만 없다면 부락들을 세우려고도 할 사람들을 어쨌든 겁내게 할 것이다……나는 이 변명의 정당성에 관하여서와 또한 아담한 주택들의 건설을 위한 추가 지출들이 결국은 누구의 부담으로 즉 지주, 광산 임차인, 노동자 또는 공중, 이 중의 누구의 부담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더 상세히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첨부한 보고서들(헨리 박사, 스티븐스 박사, 기타의)에서 발로되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들에 비추어 그것들을 제거할 데 대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토지 소유권이 여기에서는 일대 사회적 부정(不正)을 범하도록 이용되고 있다. 지주는 광산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자기 소유지에서의 로동을 위하여 공업 부락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지면의 소유자로서 그에 의하여 소집된 노동자들이 생활상 필요한 적합한 주택들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광산 임차인 (자본주의적 채굴자)은 이와 같은 이중적 거래에 반대할 어떠한 화폐적 관심도 없으니, 왜냐 하면 그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들은 자기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부담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너무나 교육이 없어서 자기들의 보건상의 권리도 모른다는 것, 극히 혐오할 주택들이나 극히 더러운 음료수도 결코 파업의 동기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¹³⁵.

d) 노동 계급중 최고의 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공황의 영향

고유한 의미에서의 농업 노동자들로 넘어가기 전에 공황이 노동 계급중 최고의 지분을 받는 부분 즉 노동 계급의 귀족에게까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일례를 들고자 한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857년은 산업 순환이 매번 그것으로써 종결되는 대공황의 하나를 가져 왔다. 다음 공황은 1866년에 있었다. 많은 자본을 통폐적인 루하 분야로부터 화폐 시장의 대충심지로 몰아 낸 면화 기근에 의하여 고유한 공장 지방들에서 이미 예상된 공황은 이번에는 주로 재정적 성격을 띠었다. 1866년 5월 그 발단의 신호로 된 것은 런던의 어떤 대은행의 파산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다수 금융 루기 회사들의 파멸이 있었다. 파국에 봉착한 런던의 대생산 부문중의 하나는 철선 건조 부문이었다. 이 부문의 대조선소들은 루기 기간에 무제한으로 과잉 생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상 가상으로 신용 원천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풍부하리라 고 루기함으로써 방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무서운 반동이 닥쳐와서 런던의 기타 공업¹³⁶에서도 천 시각까지 즉 1867년 3월말

135 동상서, 16페이지.

136 《런던의 빈민의 대량적 기아!》(《wholesale starvation of the London Poor!》)……최근 수일간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문구를 쓴 큰 비라들이 런던의 벽들에 붙여졌다——〈살진 소들, 굶주린 사람들! 살진 소들은 그들의 수정궁(水晶宮)을 나와 사치스러운 고루 거각물에서 사는 부자들을 살지게 하는데, 굶주린 사람들은 비참한 굴 속에서 썩어 가며 죽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서롭지 않은 문구를 쓴 비라는 부단히 새로 붙는다. 한 조(組)를 찢어 버리고 덧붙여 버리자 마자

까지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상태를 특징 짓기 위하여 1867년 초에 불행의 주요 중심지들을 방문한 《모닝 스타》지의 한 통신원의 상세한 보도로부터 다음 개소를 인용하자. 《런던의 동부와 포플라, 밀월, 그린위치, 테프트포드, 라임하우스 및 캔닝 타운 지방들에는 적어도 1만 5,000명의 노동자가 가족들과 함께 극도의 궁핍 상태에 처하고 있는바 그 중 3,000명 이상이 기능 기체공이다. 그들의 예비 돈드는 6 내지 8개월의 실업의 결과 탕진되었다……나는 노동 수용소 (포플라의)의 문까지 헤치고 들어 가기에 큰 수고를 하였으니 거기에는 굶주린 군중으로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군중은 빵권(卷)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포 시간이 아직 안된 것이었다. 마당은 큰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처마가 4면을 둘러 싸고 있다. 큰 눈 더미들이 마당 가운데 있는 포장돌(鋪裝石)을 덮고 있었다. 여기에 버드나무 울타리로 양 우리'간과 같이 적은 장소들이 구획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날세에는 사람들이 일한다. 내가 찾아 간 날은 그 우리'간들은 눈에 덮여 있어서 아무도 그 안에 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포장돌을 깨고 있었다. 제각기 큰 포장돌 위에 앉아서 무거운 마치로 서리 덮인 화장압을 5분셀의 자갈로 될 때까지 깨고 있었다. 그 때에야 그의 하루 작업은 끝나고 그는 3펜스 (은화 2그로센과 6펜니히)와 빵권을 받는다. 마당의 또 한 쪽에는 쓰러질 듯한 적은 목조 가옥이 서 있었다. 문을 열은즉 거기에는 사람들로 차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기대고 몸을 녹이려

새로운 조가 같은 장소나 또는 역시 눈에 머무는 장소에 또 나라난다……이것은 불탄서 인민을 1789년 사변에로 준비시킨 상서롭지 않은 전조를 상기시킨다……영국 노동자들이 그 처자들과 함께 기한에 쓰러지고 있는 이 순간에 영국의 노동의 산물인 수백만 영국 화폐는 로씨야 서반아, 이태리 기타 외국의 차간으로 무해되고 있다》(《데이틀즈 신문》, 1867년 1월 20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헌 배'줄을 풀어 삼 부스터기로 뭉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 중 누가 제일 적게 먹고 제일 오래 일할 수 있는가 논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참을성이 여기에서는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한 개소의 로동 수용소에서만 7,000명이 부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수백명은 6-8개월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기능 로동의 최고 임금을 받고 있었다. 만약 저금을 다 써버리고도 아직 무엇이요 전당(典當)할 물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구의 부조에 의지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그 수효는 2배나 더 컸을 것이다……로동 수용소를 나와 나는 대부분 단층 가옥인 거리를 지나갔는데 포플라에는 이러한 집이 많았다. 나의 안내자는 실업 위원회의 회원이었다. 우리가 들어 간 첫집은 이미 27주나 실업하고 있는 제철공의 집이었다. 그 때 그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뒤'방에 앉아 있었다. 방에는 아직 이터 저터한 가구가 남아 있었고 또 화기도 있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으므로 어린 애들의 벗은 발이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화기가 필요하였다. 불 마른 편에 놓여 있는 쟁반 우에는 삼 부스터기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부인과 아동들이 로동 수용소로부터 받는 빵의 대'가를 물기 위하여 뭉긴 것이었다. 주인은 바로 우에서 말한 로동 수용소의 마당 한 곳에서 일하고 빵권과 하루에 3펜스를 받았다. 그는 쓴 웃음을 웃으면서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막 극도로 시장하여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온 것이다. 그의 점심은 기름을 칠한 몇 개의 빵 조각과 우유를 넣지 않은 한 잔의 차다……우리가 두드린 그 다음 집 문은 중년 부인이 열어 주었는데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를 적은 뒤'방으로 안내하였다. 거기에는 온 가족이 잠자코 앉아서 급히 죽어가는 화기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그러한 광경을 볼가봐 두려워하리만큼 심한 황폐와 절망을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와 그들의 적은 방에서 보았다. 부인은 어린애들을 가리

키면서 말했다——〈저 애들은 26주나 조금도 벌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애비가 나쁜 시절에 연명이나 할까 생각하여 좀 좋은 시절에 떼어 놓은 돈 20파운드 스텔링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라고 거의 웨치다실이 말하면서 입금과 출금이 규칙적으로 모두 기입되어 있는 저금 통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적은 재산이 5실링의 최초의 여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20파운드 스텔링까지 불었으며 그 다음은 파운드로부터 실링으로 줄어지기 시작하여 드디어 최후의 기장은 통장을 한 фун트의 값도 없는 찢 종이 쪽지로 만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가족은 로동 수용소로부터 하루에 한 번 빈약한 식사를 받는다…… 우리가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애란인의 부인이었다. 그는 영양 부족으로 앓고 있었는데 옷 입은채로 한 조각의 포대기를 걸치고 마드라스 위에 누어 있었다. 왜냐 하면 침구는 모두 전당 잡혀 없었기 때문이다. 불행한 아이들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으나 보아하니 도리어 그들 자신을 어머니가 돌봐야 할 형편이었다. 19주의 부득이한 무위도식이 그를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그는 가슴 저리는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하여 모든 희망을 잃은 듯이 신음하였다……그 집을 나왔을 때 웬 젊은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 와서 자기 집을 좀 들러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고 해 줄 수 없겠는가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젊은 처, 귀여운 두 어린애들, 한 줌의 전당포들, 무일물의 빈 방, 이것이 그가 보이며 줄 수 있었던 전부였다》.

1866년 공황의 여해(餘害)에 관한 토리당(黨)의 한 신문으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발췌를 들어 보자.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런던의 동부(東部)는 이 장(章)의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철선(鐵船)건조 로동자들이 살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최저한 이하의 지불을 받는 소위 《가내 로동》의 중

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제 수도의 한 부분에서 무서운 광경이 버려졌다. 이스트엔드의 수천 실업자들이 흑기를 들고 대중 시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군중은 십분 위풍이 당당하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상기하자. 그들은 기아에 쓰러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며 무서운 사실이다. 그 수는 4만 명이다……우리의 눈 앞에서, 이 경탄할 수도의 한 구역에서 고급 미증유의 방대한 부의 축적이 있는 바로 그 옆에서 4만 명의 인간이 하는 수 없이 기아에 쓰러지고 있다! 그러한 수천명이 지금 다른 구역으로도 침입하고 있다. 항상 반 굶주리고 있는 그들은 우리 귀에다 자기들의 참상을 고향치며, 하늘을 향하여 절규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주력에 관하여, 일을 발전할 수 없으며 구걸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지방 구빈세 납부의무자들은 요구족으로부터의 련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번에는 자신들이 구휼민이 될 위험에 림하고 있다》(《스탠다드》지, 1867년 4월 5일).

영국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벨기를 노동자의 락원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유행으로 되고 있으니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노동의 자유》, 즉 확언하면 《자본의 자유》가 트레드 유니온의 전제(專制)에 의하여서도 또 공장법에 의하여서도 유린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벨기 노동자의 《행복》에 대하여 몇 마디 말하겠다. 아마도 벨기의 감옥과 자선 시설들의 총감독관이며 벨기 중앙 통계 위원회 성원인 고(故)듀크페시오씨보다 이 행복의 비밀에 더 정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저작 《벨기 노동 계급의 가계(家計) 예산》(브루텔, 1855년)을 들어 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벨기의 표준적 노동자 가족의 년 수입·지출이 극히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어 있으며,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의 영양 상태가 병사, 해병, 수인(囚人)의 급양 상태와 비교되어 있는 것을 발

진한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및 4명의 아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6명 중 <4명은 년간을 통하여 벌이가 있다>, <그 중에는 병자도 로동 불능자도 없으며> 또 <아주 근소한 교회비를 제외하면 종교적, 도덕적 및 지'적(知的) 수요에 대한 지출도 없으며> 또 <저축 금고나 양로(養老) 금고에의 납부금도 없으며> 또 <사치스러운 지출이나 기타 쓸 데 없는 지출도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장남은 담배를 피우며 일요일에는 술집에 간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들은 매주 용근 86쌍림만큼 지출해야 한다. <각종 생산 부문들의 로동자들이 받는 로임을 종합 비교하여 보면 최고 로임의 일 평균은 남성 1프랑 56쌍림, 여성 89쌍림, 소년 56쌍림, 소녀 55쌍림이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가족의 년 수입은 가장 많아서 1,068프랑이 될 것이다……우리는 전형적인 것으로 본 그 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의 총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도 로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살림살이를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집을 보살피고 누가 아이들을 보아 줄 것인가? 누가 취사를 하고 세탁, 을 하고 옷을 꿰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로동자들 앞에 매일 같이 제기된다>.

이상에 의하면 그 가족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아버지	1.56프랑으로	300로동일	468프랑
어머니	0.89 "	"	267 "
아들	0.56 "	"	168 "
딸	0.55 "	"	165 "

합 계

1,068 "

로동자가 해병, 병사, 수인의 식사를 취한다고 하면 이 가족의 년 지출액과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해병의 식사를 취하는 경우	년	지출액	1,828프랑	부족액	760프랑
병사의 식사를 취하는 경우	"	1,473	"	"	405 "
수인의 식사를 취하는 경우	"	1,112	"	"	44 "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해병이나 병사는 고사하고 수인의 영양조차 취하고 있는 노동자 가족은 거의 없다. 평균하여 벨기에에서 1847--1849년에 매개 수인은 하루에 63쌍립의 비용이 들었는데 노동자의 하루 생계비와 비교하면 13쌍립의 차가 있다. 관리비와 감시비는 수인은 집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상쇄된다……그러나 다수——아니 대다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의 노동자들이 보다 더 가난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그 비결이 노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방편을 취한다는 것으로써만 설명된다. 즉 그들은 매일 먹을 분량을 삭감한다. 소맥 빵 대신에 호밀 빵을 먹는다, 고기를 적게 먹든가 또는 전혀 안먹는다. 뼈더와 소채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족들을 한 방이나 두 방에 몰아 넣는다. 거기에서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잔다, 왕왕 짚으로 만든 동일한 깔개 위에서. 그들은 의복 세탁 및 침결에 필요한 돈을 절약한다. 그들은 휴일의 소풍도 단념한다. 간단히 말하면 극히 고통스러운 결핍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단 노동자가 이 최후의 한계에 도달하면 생활 수단 가격의 극소한 인상이라든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병이 난다든가 하면 노동자의 빈곤은 증대되고 그는 아주 멸망케 된다. 빛은 썩이고 신용은 막히고 의복과 극히 필요한 가구는 전당포로 간다. 그리하여 드디어 가족은 구출민 명단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만사는 끝난다》¹³⁷. 사실 이 《자본가들의 낙원》에서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조금만 변동되더라도 사망수와 범죄수에

137 류크페시오 《벨기 노동 계급의 가격 예산》, 브뤼셀, 1855년, 151, 154, 155페이지.

변동이 일어 난다! (《앞으로 폴란드르인!》 협회의 선언, 브룅셀, 1860년, 15, 16페이지 참조). 전체 벨기의 세대수는 93만 인데 그 중 공식 통계에 의하면 부요한 세대 (선거권자)는 9만 5천으로 인수는 45만 명이며,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조아지는 19만 세대로, 인수는 95만 명인데 그 대부분이 부단히 프로레타리아트의 매렬로 전락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자는 45만 세대로 그 인수는 225만 명인데 그 중 표본적 세대가 듀크페시오에 의하여 서술된 행복을 누린다. 45만의 노동자 세대중 20만 이상이 구출된 명단에 올라 있다!

e) 영국 농업 프로레타리아트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적대적 성격은 영국 농업 (축산을 포함)의 진보와 영국 농업 노동자의 퇴보에서 보다 더 란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곳은 없다. 나는 그들의 현재 상태로 넘어 가기 전에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기로 한다. 근대적 농업은 영국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다. 비록 생산 방식의 변화가 그것을 기초로 하고 일어나는 토지 소유 관계의 변혁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상적 사상가였기는 하지만 정확한 관찰자였던 아서 영으로부터 1771년의 농촌 노동자들에 관한 자료를 취하면 그들은 《영국의 도시 및 농촌 노동자들의 황금 시대인》 15세기는 고사하고, 《농촌 노동자가 유족하게 살고 또 재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¹³⁸

138 제임스 E. Th. 로저스 (옥스포드 종합 대학 정치 경제학 교수) 《영국에서의 농업과 가격의 력사》, 옥스포드, 1866년, 제 1권, 690페이지. 근실하게 작성된 이 저작은 현재까지 발간된 최초의 두 권에서 아직 1259—1400년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제 2권은 다만 통계 자료를 뿐이다. 그것은 당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믿을 만한 《가격사》이다.

14세기 말의 그들의 선행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극히 비참한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과거로 돌아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극히 내용이 풍부한 1777년의 한 저술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는다——《대차지 농업가는 거의 켄틀맨의 수준까지 올라 갔는데 가난한 농촌 노동자는 거의 땅바닥까지 눌러 짜부러지고 있다……그의 불행한 상태는 오늘날과 40년 전의 그의 생활 조건들을 비교하면 분명하여진다……토지 소유자와 차지 농업가는 제후하여 노동자를 압박한다》¹³⁹. 이어서 저자는 농촌에서 실질 로임이 1737년부터 1777년까지 거의 4분의 1 즉 25%나 저락한 것을 상세히 입증하고 있다. 같은 시대의 리차드 프라이스 박사는 말한다——《근대의 정치는 국민의 상층 계급을 비호한다. 그 결과로 조만간 전체 왕국의 주민은 다만 켄틀맨과 결인들로, 귀족과 노예들로 이루어질 것이다》¹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70—1780년의 영국 농촌 노동자의 상태는 그의 식사 및 주택 조건으로 보나 자기 감정, 오락 등등의 발전으로 보나 그 이후에 다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이상(理想)이다. 소맥의 분량으로 표현하여 1770—1771년의 그의 평균 로임은 90파인트인데 이튼의 시대(1797년)에는 벌써 65파인트에 불과하고, 1808년에는 겨우 60파인트였다¹⁴¹.

139 《최근의 구빈제 증가의 제 이유 또는 노동 가격과 식량 가격의 비교 고찰》, 런던, 1777년, 5, 11페이지.

140 리차드 프라이스 박사 《보류 지불에 관한 제 고찰》, 제 6판, W. 모간 편집, 런던, 1805년, 제 2권, 158페이지. 프라이스는 15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노동일의 명목 임금은 현재 1514년에 있어서보다 약 4배 또는 가장 많아서 5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 가격은 7배, 육류와 의류는 약 15배나 높다. 그러므로 노동 가격은 생활비의 증가에 상응하지 않아서 현재는 종전 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듯하다》.

141 바론 《사회의 노동 계급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제 조건의 고찰》, 런던, 1817년, 26페이지. 18세기 말에 대하여는 이튼의 《빈민의 상태》를 보라.

반(反)자코방 전쟁——이 기간에 로지 귀족, 차지 농업가, 공장주, 상인, 은행가, 주식 루기사, 군수품 조달자 등등은 비상한 치부를 하였다——의 말기의 농촌 노동자들의 상태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명목 임금은 부분적으로는 은행권의 가치 하락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이와는 관계없는 제 1차적 생활 수단의 가격 등귀의 결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로임의 현실적 운동은 아주 간단히 확정할 수 있는바 그 상세한 것은 여기에서는 무용일 것이다. 구빈 법과 그에 상응한 관리는 1795년이나 1814년이나 동일하였다. 이 법이 어떻게 농촌에 적용되었는가를 상기하자, 요구는 구출금의 형태로 저우 노동자들의 호구(糊口)에 필요한 명목 액이 될 때까지 명목 임금을 보충하여 주었다. 차지 농업가가 지불한 로임과 요구가 보충한 그 부족액과의 관계는 첫째로 로임의 하락이 그것의 최저한 이하라는 것을 폭로하며 둘째로는 농촌 노동자가 고용 노동자 및 구출민으로 구성된 정도 또는 그가 그의 요구의 농노로 전화된 정도를 표시한다. 다른 모든 주(州)들의 대표로 될 만한 전형적인 한 주를 택하여 보자. 1795년에 노샘프턴셔에서 주 평균 임금은 7실링 6펜스였고 6명 가족의 년 총지출액은 36파운드 스텔링 12실링 5펜스, 그의 총수입은 29파운드 스텔링 18실링, 요구에서 보충된 부족액은 6파운드 스텔링 14실링 5펜스였다. 동 주에서 1814년 주 임금은 12실링 2펜스, 5명 가족의 년 총지출액은 54파운드 스텔링 18실링 4펜스, 그의 총수입은 36파운드 스텔링 2실링, 요구에서 보충된 부족액은 18파운드 스텔링 6실링 4펜스였다¹⁴². 그러므로 1795년에는 부족액은 로임의 4분의 1 이하였는데 1814년에는 절반 이상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튼이 아직도 농촌 노동자

142 웨리 <현행 곡물법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의 고찰>, 런던, 1816년, 86페이지.

의 오막살이에서 발견한 얼마 안되는 위안조차 1814년에는 소멸한 것이 자명하다¹⁴³. 차지 농업가가 보유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말하는 도구 (instrumentum vocale)인 노동자는 그 때로부터 가장 혹사되며, 가장 열악하게 사양되며, 또 가장 탄포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830년의 스윙 (Swing)란(亂)이 폭발 날 가리에 타오르는 화광으로써 우리에게 (즉 지배 계급에게), 빈궁과 험악한 모반적(謀叛的)인 불만이 공업 영국과 함께 농업 영국의 지하에서도 뭉게 뭉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¹⁴⁴ 그 때까지 평온하게 지속되었다. 당시 새들러는 하원에서 농촌 노동자를 <백색 노예 (<white slaves>)>라고 명명하고 한 승정(僧正)은 상원에서 이 명칭을 되풀이하였다. 당시의 가장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 E·G·웨이크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남북 잉글랜드의 농촌 노동자는 노예도 아니요 자유민도 아니다. 그는 다만 구휼민이다>¹⁴⁵.

폭물법 폐지의 직접 시기는 농촌 노동자들의 상태에 새로운 광명을 던졌다. 일방으로는 보호 관세가 현실적 폭물 생산자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부로쥔아 선동가들의 리익으로 되었다. 타방으로 공업 부로쥔아지는 토지 귀족들의 공장 상태에 관한 폭로를 반대하여, 이 골수까지 색어 빠친, 박정하며 또 명망 있는 무의도식자들의 공장 노동자의 고생에 대한, 있는체 하는 동정을 반대하여, 또 공장 법법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 열성>을 반대하여 분노를 비등시켰다. 두 도적놈이 머리 채를 휘여잡고 다투면 언제나 무엇이요 유익한 일이 생긴다는 영국의 고(古) 속담이 있다. 사실 말이

143 동상서, 213페이지.

144 S·베인 <국민적 재난>, 1844년, 62페이지.

145 <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 1권, 47페이지.

제 1촌

가, 동수	나, 가족 인원수	다, 성년 남자의 주로임	르, 아동의 주로	미, 가족 주 수입 전체의	비, 주간 집세	스, 주 총임금 집세 공제후	오, 일명당 주
2	4	실링 펜스 8 0		실링 펜스 8 0	실링 펜스 2 0	실링 펜스 6 0	실링 펜스 1 6
3	5	8 0		8 0	1 6	6 6	$1\frac{3}{2}$
2	4	8 0		8 0	1 0	7 0	1 9
2	4	8 0		8 0	1 0	7 0	1 9
6	8	7 0	1) 1실링 6 2 펜스; 2) 실링	10 6	2 0	8 6	$1\frac{3}{4}$
3	5	7 0		7 0	1 4	5 8	$1\frac{1}{2}$

제 2촌

6	8	7 0	1) 1 6; 2) 1 6	10 0	1 6	8 6	$1\frac{3}{4}$
6	8	7 0		7 0	$1\frac{3}{2}$	$5\frac{1}{2}$	$0\frac{1}{2}$
8	10	7 0		7 0	$1\frac{3}{2}$	$5\frac{1}{2}$	0 7
4	6	7 0		7 0	$1\frac{1}{2}$	$5\frac{1}{2}$	0 11
3	5	7 0		7 0	$1\frac{1}{2}$	$5\frac{1}{2}$	1 1

제 3촌

4	6	7 0		7 0	1 0	6 0	1 0
3	5	7 0	1) 2 0; 2) 2 6	11 6	0 10	10 8	$2\frac{1}{2}$
0	2	5 0		5 0	1 0	4 0	2 0

지 지배 계급의 두 분파들 사이에서 버터진 분쟁 즉 그들 중 누가 가장 파렴치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소란스럽고 격렬한 분쟁은 서로 진리의 해명에 도움을 주었다. 샤프스버리 백작 별칭 애슐리 경(卿)은 귀족적, 박애주의적 반공장 출정의 선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844년과 1845년에 그는 농업 노동자들의 상태에 관한 모닝 크로니클지의 폭로 기사에 잘 나오는 인물로 되었다. 이 신문은 당시 가장 저명한 자유주의적 기관지로서 농촌 지방에 자체의 특파원들을 파견하였는바 이들은 일반적 기사나 통계로써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조사된 노동자 가족들과 그들의 지주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다음 표(전폐지¹⁴⁷)는 블랜포드, 윈본 및 풀 근방의 세 촌락에서 지불된 임금표이다. 그 촌락들은 G·뱅크스씨와 샤프스버리 백작의 소유이다. 《저 교회(低敎會)》(《low church》)의 이 법왕(法王)이며 영국 경건파(敬虔派)의 이 두목은 그의 동료 뱅크스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형편 없는 임금에서 설상 가상으로 상당한 부분을 집세라는 구실로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곡물법의 폐지는 영국 농업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극히 큰 규모의 배수 공사¹⁴⁷, 축사(畜舍) 사양과 인공 목초 재배의 새로운 제도, 기계 시비 장치의 도입, 점토질 토양의 새로운 처리 방법, 광물성 비료의 사용 증가, 증기 기관 기타 각종 신 작업기의 사용 등등, 일반적으로 보다 집약적인 재배가 이 시기를 특징 짓는다. 왕립 농업 협회 회장 퓨지씨는(상대적인) 경영비가 새로 도입된 기계의 덕택으로 거의 반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방 절대적 수확성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에

147 토지 귀족들 자신은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물론 의회를 통하여서이지만 국고로부터 극히 낮은 리자로 빌렸는데 차지 농업가는 그것을 2배로 하여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커당 자본 투하의 증대 따라서 차지(借地)집적의 축진이 새로운 방법의 기본 조건이었다¹⁴⁸. 동시에 마지도 마술과 같이 양도장(養兎場)과 빈약한 목장으로부터 풍성한 곡물밭으로 전환된 동부 제 주에서의 광대한 지면은 불문에 불이더라도 경지면적이 1846년부터 1856년 간에 46만 4,119에이커나 확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업 취업자 총수는 감소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남녀 및 각 층 연령의 고유한 농사'군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수는 1851년의 124만 1,269명으로부터 1861년의 116만 3,217명으로 줄었다¹⁴⁹. 그러므로 영국의 등기소 장관이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801년 이래의 차지 농업가와 농촌 노동자 수의 증대는 농업 생산물의 증가와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¹⁵⁰고 한다면, 이 불상응은, 농촌 노동자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경지 면적의 확대, 재배의 집약화, 토지에 투하되었으며 토지의 경작에 바쳐진 자본의 미증유의 축적, 영국 농업사에 류례가 없는 토지 생산물의 증대, 토지 소유자의 지대의 증대,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재부의 증가와 함께 병행된 최근 시기에는 비할 수 없으리만큼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다가 또한 도시의 판매 시장의 부단하고 급속한 확

148 중급의 차지 농업가의 감소는 특히 일제 조사의 항목 <차지 농업가의 아들, 손자, 형제, 조카, 딸, 손녀, 자매, 조카딸>——간단히 말하면 차지 농업가가 사용하는 그 자신의 가족 성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항목에 의하면 1851년에는 21만 6,851명이었는데 1861년에는 17만 6,151명에 불과했다. 1851년부터 1871년까지 영국에서는 20에이커 이하의 차지 농장은 900개 이상 감소되었고 50 내지 75에이커의 차지 농장은 8,253개로부터 6,370개로 감소되었으며 100에이커 이하의 기타 모든 차지 농장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반대로 이 20년간에 대차지 농장수는 증가하였다, 즉 300—500에이커의 것은 7,771로부터 8,410개로, 500에이커 이상의 것은 2,755로부터 3,914로, 1,000에이커 이상의 것은 492로부터 582로 증가하였다.

149 목양부(牧羊夫)수는 1만 2,517로부터 2만 5,559로 증가하였다.

150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일제 조사>, 제 3부, 36페이지.

장과 자유 무역의 지배를 첨가한다면 농촌 노동자는 허다한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결국은 리론 그대로 엄청난 행복에 잠기게 되었어야 할 그러한 상태에 놓여졌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로저스 교수의 결론에 의하면 오늘날의 잉글랜드의 농촌 노동자의 처지는 14세기의 후반기와 15세기의 그의 선행자의 처지와는 비교할 것도 없고 1770—1780년 시기의 그의 선행자의 처지와 비교만 하더라도 비참히 악화되었으며, 《그는 다시 농노로 되었으며》, 그것도 먹을 것과 주택이 열악한 그런 농노로 되었다¹⁵¹. 줄리언 헨리 박사는 농촌 노동자의 주택에 관한 그의 획기적 보고에서 말한다——《하인드——hind——(농노제 시대의 농업 노동자의 명칭)의 생활비는 그가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최저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그의 토임과 주택은 그로부터 끌어 내야 할 리윤에 근거하여 제삼되지 않는다. 그는 차지 농업가의 제삼으로는 완전히 령(零)이다¹⁵²……그의 생존 수단은 언제나 고정량으로서 취급되고 있다¹⁵³. 《그의 수입의 가일층의 삭감이 문제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아무 것도 없으니 아무 걱정도 없다》. 그에게는 그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없으므로 그는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차지 농업가의 제삼의 기삼점인 령(零)에 달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행 불행이 그에게는 상관없다¹⁵⁴.

151. 로저스 《영국에서의 농업과 가격의 역사》, 옥스포드, 1866년, 제 1권, 693페이지. 로저스씨는 자유주의파에 속하며 코브덴과 브라이크의 친우이며 따라서 파거의 좋은 시절의 찬미자는 아니다.

152.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런던, 1865년, 242페이지. 그러므로 가옥 소유자가 노동자의 별이름이 좀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집세물을 올리든, 차지 농업가가 《그 처가 일' 자리들 발견하였다》(동상)는 더욱로 노동자의 토임을 내리든,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다.

153. 동상서, 135페이지.

154. 동상서, 134페이지.

1863년에 유형과 징역의 처분을 받은 죄수의 급식과 작업 조건에 관한 공'적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가 두 권의 두터운 청서(靑書)에 서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영국의 죄수의 식사와, 같은 이 나라의 노동 수용소의 구휼민 및 자유로운 농촌 노동자의 식사를 면밀히 비교하여 보면 전자가 후자의 두 부류중 어떤 부류보다도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⁵. 그런데 《징역 처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노동량은 보통 농촌 노동자가 수행하는 것의 약 절반이다》¹⁵⁶. 약간의 특징적인 증언(證言)을 인용하자. 에딘버러 형무소 소장 존 스미스의 심문. 제 5,056번——《영국 죄수의 식사는 보통 농촌 노동자의 그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5,075번——《스코틀랜드의 보통 농촌 노동자는 고기 같은 것을 입수하는 일은 극히 희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3,047번——《그대는 죄수에게 보통 농촌 노동자들 보다 훨씬 (much better) 잘 먹일 필요가 있다는데 대한 그 어떠한 이유를 아는가?——물론 모릅니다. 제 3,048번——《그대는 징역수의 식사를 자유로운 농촌 노동자의 식사에 접근케 하기 위한 실험을 앞으로 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¹⁵⁷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농촌 노동자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고되게 일하고도 충분히 먹지 못한다. 내가 형무소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고되게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었다. 때문에 나는 자유로 있는 것보다 형무소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¹⁵⁸ 보고의 제 1권 부록의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대조표를 작성하여

155 《유형과 징역에 관한……위원회 의 보고》, 런던, 1863년, 42, 50페이지.

156 동상서, 77페이지. 재판장의 각서.

157 동상서, 제 2권, 증언.

158 동상서, 부록, 280페이지.

보자.

주 영양량 158a

	질성 소분	무성 질분 소	광성 물분 성	총 량
포르랜드 형 무소의 죄수	28,95 ^{온스}	150,06 ^{온스}	4,68 ^{온스}	183,69 ^{온스}
왕국 해군의 수병	29,63	152,91	4,52	187,06
병사	25,55	114,49	3,94	143,98
마차 제작 노동자	24,53	162,06	4,23	190,82
식자공	21,24	100,83	3,12	125,19
농촌 노동자	17,73	118,06	3,29	139,08

가장 잘 먹지 못하는 계급의 영양 상태에 관한 1863년의 로(醫療) 위원회 조사의 일반적 결과를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독자들이 상기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촌 노동자 가족들의 식사는 《기아병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최저 한도 이하이다. 콘월, 테른, 서머세트, 윌츠, 스탠포드, 옥스포드, 버크셔 및 허쓰의 모든 순 농업 지방에서는 특히 그렇다. 《농촌 노동자가 취하는 영양은——하고 스미쓰 박사는 말한다——평균량이 표시하는 것보다는 많다, 왜냐 하면 노동자 자신은 기라의 가족 성원들 보다 생활 수단의 훨씬 많은 부분을 노동하기 위하여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빈곤한 지방들에서는 고기 또는 배론은 거의 모두 그가 차지한다. 처와 또한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차지하는 영양량은 많은 경우에, 그것도 거의 모든 주들에서 부족함때 특히 질소분이 부족하다》¹⁵⁸. 차지 농업가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남녀 종들은 잘 먹고 있다. 그들의 수는 1851년에 28만 8,277명으로부터

158a 동상서, 274, 275페이지.

159 《공중 보건, 제 6차 보고, 1863년》, 238, 249, 261, 262페이지.

1861년에 20만 4,962명으로 감소하였다. 《부인의 전야(田野)로동은——하코 스미쓰 박사는 말한다——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불리익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정하에서는 가족에게 큰 불리익을 준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 신발, 의복, 집세 지불을 위한 수입을 주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좀 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¹⁶⁰. 이 조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의 하나는 잉글랜드의 농촌 로동자는 연합 왕국의 기타 부분들의 농촌 로동자보다도 훨씬 못 먹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은 다음 표가 표시한다——

농촌 로동자 1명당 탄소 및 질소분의 주 평균 소비량

	탄 소	질 소
잉글랜드	40,673 그램인	1,594 그램인
월즈	48,354	2,031
스코틀랜드	48,980	2,348
아일랜드	43,366	2,434

161

160 동상서, 262페이지.

161 동상서, 17페이지. 잉글랜드의 농촌 로동자는 아일랜드의 농촌 로동자가 받는 우유량의 불과 4분의 1, 빵 양의 불과 2분의 1을 받는다. 아일랜드 로동자의 영양 상태가 더 좋다는 데 대하여는 이미 A. 영이 19세기 초에 그의 《아일랜드 여행기》에서 지적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즉 아일랜드의 빈한한 자지 농업가로 잉글랜드의 부유한 자지 농업가보다 비할 바 없이 안락적이라는 것이다. 월즈에 현하여 말한다면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그 서남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방의 모든 의사들은 결핵과 허두창 등등으로 인한 사망률의 심한 증가는 주민의 신체 상태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 이 악화는 빈곤 때문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농촌 로동자의 하루 생활비는 5펜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지방들에서 자지 농업가(그 자신이 빈곤한)는 그보다 적게 지불한다. 말라 빠져서 마호가니 같이 굳어졌으며 또 곤란한 소화(消化) 과정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은 한 점의 엄청난 고기거나 또는 한 점의 배운은 보리'가루와 파종류

(주해 161 계속)

로 만든 람만 많은 스프 또는 귀밀(燕麥)'가루 죽의 양념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런 것이 농촌 노동자의 그날 그날의 점심의 전부이다……공업의 진전의 결과로 그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와 같은 욕심하고 습기 찬 기후에서 집에서 짠 질긴 라사 천이 털'가한 면제품에 의하여 밀려 났으며 또 강한 술이 <이름만인> 차에 의하여 밀려 났다……농민은 여러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일을 한 후에 오막살이로 돌아 와서 토란불이나 또는 진흙과 석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면 탄산 가스와 류산 가스의 연기가 나는 면탄불을 쪼인다. 오막살이의 벽은 진흙과 돌로 되었으며, 바닥은 오막살이를 짓기 전 그대로의 땅 바닥이며, 지붕은 조금도 엮지 않은 흩어진 집 모형이다. 온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틈새기만 틈새기는 다 막았으며 그리하여 무서운 악취 속에서, 진흙 땅 바닥 위에서, 때로는 한 벌 밖에 없는 옷을 입은채로 말리면서 그는 처자들과 저녁을 든다. 이러한 오막살이에서 밤 한때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산파의들의 쓴 것을 보면, 그들의 발은 땅 바닥의 진흙에 파묻히고 있었으며 또 그들은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벽에 구멍을——어렵지 않은 일이다——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각종 사회적 지원물 가진 다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먹는 것이 부족한 (underfed) 농민들은 밤마다 이러 저러한, 강에 유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결과 허약하고 선병질(腺病疾)인 인민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캐마손샤와 카디간샤의 프구 판리들의 통보는 이러한 상태를 확증하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천치(天癰)의 만연이라는 더 큰 재액이 첨가된다. 그러면 기후 조건에 대하여 몇 마디하자. 년중 8—9월 간에는 강한 서남풍이 전국을 관통하고 그에 동반하여 폭우가 내리는데 이것은 특히 구릉(丘陵)의 서쪽 경사면에 쏟아진다. 수목은 임호물이 있는 장소들 외에는 희귀하다. 보호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수목이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 가고 만다. 오막살이 집들은 어디든 산고지 밑에 있으며 종종 웅덩이나 물을 깎아 낸 곳에 있다. 다만 아주 적은 양들과 재태종의 유각(有角) 가축만이 이 목장들에서 살 수 있다……젊은이들은 동부 글라모간과 몬마우쓰의 광산 지방으로 간다……캐마손샤는 광부의 양성소이며 또 그들의 폐병원(癆兵院)이다……주민의 수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카디간샤에서는 다음과 같다——

	1851년	1861년
남성	45,155	41,446
여성	52,459	52,955
	97,614	97,401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런던, 1865년, 498—502페이지, 이곳 저곳에 있는 헨리 박사의 보고).

자이몬 박사는 자기의 공식적 보고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헌터 박사의 보고의 매 페이지는 우리 농촌 노동자의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열악에 관하여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다년 래 주택 상태는 이 점에서 무증적으로 악화되었다. 농촌 노동자가 집간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 수세기 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또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요구에는 비할 바 없이 훨씬 알맞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재역은 최근 30년 또는 20년 간에 급격히 늘고 있으며 농촌 주민들의 주택 사정은 현재 최고도로 처참하다. 만약 그의 노동에 의하여 부유하게 되는 자들이 일종의 동정적인 관대성으로써 그를 대하기를 가당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점에서 그는 전혀 고립 무월하다. 노동자가 그가 경작하는 토지에서 주택을 찾아 내느냐, 또 그 주택이 인간의 주택일 것이냐 또는 돼지우리일 것이냐, 또 그 주택에 빈곤의 압박을 경감할 만한 조그만 채마전이 붙어 있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그가 해당 집세를 무를 용의와 또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 차지 농장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거기에 노동자를 위한 일정한 수의 주택이——사람 살 만한 주택은 고사하고——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다. 법률은 또한 노동자에게, 그가 노동함에 있어서 비'물이나 해'별과 다름 없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주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사정이 그에게 불리하게 무거운 짐으로 된다……즉 이것은 거주와 구빈세 부과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구빈법의 영향이다¹⁶². 그것의 영향으로 매개 교구는 교구내 거주 농촌 노동자 수를 최저한으로

162 1865년에 이 법률은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한 류의 미봉책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얼마 안가 경험이 보이여 줄 것이다.

제한하는데 금전상 이해 관계를 갖는다. 왜냐 하면 농촌 노동은 피 땀을 흘려 근로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확고하며 항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줄 대신 불행히도 대다수 경우에는 조만간에 그를 구휼 제도로, 즉 노동자가 병이 날 때나 또는 일시 실업할 때에나 전체 행정을 통하여 교구의 부조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을만치 친근한 구휼 제도로 인도하는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구에서의 농업 노동자들의 거주는 모두 그 교구의 구빈세의 증가를 가져 온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토지 소유자들은¹⁶³ 자기들의 소유지에는 어떠한 노동자 주택도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당장에 빈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의 절반은 면제된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주에게, 토지 경작자들을 외국인과 같이 취급하며 그들을 자기의 령지로부터 추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무제한한 토지 소유권의 제정을 영국의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의도하였는가 하는 이 문제의 심의는 나의 보고 과제에 들지 않는다……이 추방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극히 대규모로 행사되고 있다. 이것이 농촌 노동자의 주택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의 하나이다…… 재액의 규모는 최근의 일제 조사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바 그것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가옥에 대한 지방적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옥의 파괴가 잉글랜드의 821개의 각 지방들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무거주자(즉 자기가 일하는 교구에서의)로 된 사람들을 도외시하더라도 1861년에는 1851년에 비하여 5 $\frac{1}{2}$ %만큼 많은 인구가 4 $\frac{1}{2}$ %

163 다음에 말하는 것의 이해를 위하여——폐쇄촌(閉鎖村)(close village)이란 그 토지 소유자가 한두 명의 지주인 것을 말하고, 개방촌(open village)이란 그 토지가 다수의 보다 적은 소유자들에게 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건축 루기사들이 오막살이 집들과 하숙집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자에서이다.

만큼 감소된 주력들로 밀려 들게 되었다……주민을 없애는 과정이 완수되는 때 그 결과 생기는 것은 관람촌(show-village)이며, 여기에서는 오막살이들이 소수로 감소되며 또 거기에 살기를 허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목양부(牧羊夫), 정원사(庭園師), 산양지의 당직이와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허용 있는, 인정 있는 주인의, 후대를 받는 정규적인 하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헨터 박사는 말하고 있다¹⁶⁴. 그러나 로지는 경작하여야 하므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로지 소유자의 차가인이 아니라 아마도 3마일이나 먼 곳에 있는 개방(開放)촌으로부터 즉 폐쇄(閉鎖)촌에서 노동자들의 오막살이가 파괴된 후에 다수의 소가옥 소유자들이 그들을 받아 들인 촌락으로부터 래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있는 곳에서는 오막살이들은 대개는 자체의 처참한 외양으로써 이미 예정된 자체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 그것들의 자연적 붕괴 정도는 구구하다. 지붕이 붙어 있는 동안 노동자는 입차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그는 그렇게 허용되기만 하면 비록 좋은 주택에 대한 것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대단히 기뻐하는 일이 빈번히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돈 한 톨 없는 거주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리외에는 어떠한 수리도 수선도 없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집이 전혀 거주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이것은 한 채의 오막살이가 더 파괴되었을

164 그러한 관람촌(觀覽村)이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듯하나 예카 제리나 2세가 크림 여행시에 본 촌락과 같이 가짜이다. 최근에는 목양부들도 이 관람촌들로부터 빈번히 추방 당한다. 테컨대 마켓트 하버터 부근에는 거의 500에이커나 되는 향목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만한 사람의 노동이다. 테스터와 노샘프론의 아름다운 목장인 이 광막한 평야를 횡단하는 긴 보행은 감소하기 위하여 목양부에게 농장내에서 오막살이를 제공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속박대로 13분의 1실링을 받고 어디든 떨어진 개방촌에서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이며 그만큼 앞으로의 구빈세는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이 대소유자들이 그 통제하에 있는 토지로부터 주민을 구축함으로써 구빈세를 면할 때 타방에서는 린접한 소도시들이나 개방촌들은 추방된 노동자들을 받아 들인다. 린접이라고 내가 말하더라도 이 《린접》이란 노동자가 매일 일하여야 하는 농장에서는 3—4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그의 하루의 노동에는, 그날 그날의 빵을 벌기 위하여 매일 6 내지 8마일의 보행을 할 필요가, 마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첨가된다. 그들의 처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농촌 노동이 이제는 그와 동일한 곤란한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작업장이 멀게 되는 데로부터 나오는 재액의 전부는 아니다. 개방촌들에서는 건축 루기자들이 땅 조각들을 사들이어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다시 볼 수도 없는 가장 늑거리 무옥들을 될 수 있는대로 빈틈 없이 세운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참한 주택들은 비록 광활한 전야에 편이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도시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험상스러운 특징들을 역시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주택들에 잉글랜드의 농업 노동자들은 살고 있다 ¹⁶⁵……타방 그가 경작하고

165 《노동자들의 집들 (물론 언제나 파 차 있는 개방촌들에서의)》은 보통 건축 루기사가 자기의 것이라고 칭하는 한 조각 땅의 맨 끝에 물을 향하고 나란히 세운다. 그러므로 광선과 공기는 전면으로부터 밖에 들어 올 길이 없다》(《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런던, 1865년, 135페이지 중의 헨리 박사의 보고). 촌락의 맥주집이나 소매상이 동시에 제'집 주인인 수가 매우 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농촌 노동자에 있어서 차지 농업가에 다음가는 제 2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동시에 그들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 《그는 주 10실링을 받으며 년 집세로 4파운드 스털링을 공제하고 일정한 양의 차, 설탕, 밀'가루, 비누, 양초 및 맥주를 소매상의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사야 할 의무가 있다 (동상서, 132페이지). 이 개방촌들은 사실상 잉글랜드의 농업 프로페타리아트의 《처형지(處刑地)》이다. 다수의 오막살이 집들은 순전한 하숙집이며 거기에는 부근의 모든 부랑자들이 출입한다. 극히 추악한 조건

있는 토지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도 그곳에서 생산적인 노동으로 찬 그의 생활에 합당한 주택을 얻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여서 안된다. 공작령(公爵領)들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오막살이집들은 종종 극히 저참하다. 자기들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외양'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집을 준 데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털어 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지주들이 있다¹⁶⁶. 그것이 침실 하나 밖에 없으며 로(爐)도 없고, 변소도 없으며, 여는 창문도 없고 웅덩이 외에는 용수도 없으며 또 뜰악도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일지라도 이러한 부정에 대하여 노동자는 별 도리가 없다.

하에서도 왕왕 참으로 경탄할 만큼 풍성의 결핵성과 순결성을 유지해 온 농민'과 그 가족도 여기에서는 전혀 못쓰게 되고 만다. 물론 상류층의 사일렉크볼 사이에서는 건축 투기사, 소소유자 및 개방촌에 대하여 위선자처럼 눈'살을 찌프리는 것이 유행이다. 그들은 그들의 《폐사촌락과 판람촌》이 《개방촌》의 발생지이며 또 후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개방촌들의 소소유자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농촌 노동자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의 나무 아패서라도 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동상서, 135페이지). 《개방촌》과 《폐사촌》재고는 잉글랜드의 중부 전체와 동부 전체에서 성행하고 있다.

166 《제'집 주인(차지 농업가 또는 지주)은 그가 주에 10실링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세로 년 4 내지 5파운드 스털링을 탈취하는 가난한 사람의 노동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치부한다. 그런데 그 집이란 공개 시장에서는 20파운드 스털링의 값도 안 나가는 것이지만 소유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으로써만 그 인위적 가격을 유지한다——즉, <내 집에 붙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싸가지고 나가서 나의 노동 증명서 없이 어데 다른 일'자리들 찾아 보아라>.....만약 어떤 사람이 처지들 개선해 보려고 철도 선로 공부가 되거나 채석장으로 가려고 하면 동일한 권력이 그보다 한 발자욱 앞서서 말한다——<이 낮은 토임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주일 전에 예고를 하고 집을 싸가지고 나가라, 네게 돼지가 있다면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 채마에서 나는 감자에서 수입이 얼마가 되는가 보아라>. 소유자에게 그물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면 그런 경우에는 소유주(또는 차지 농업가)는 자기에게서 떠나려고 한 징벌로서 집세를 올리는 길을 택하는 일이 여러 번 있다》(헌터 박사, 동상서, 132페이지).

그러니 우리 위생—경찰법들 (The Nuisances Removal Acts)은 공문에 불과하다. 그것들의 실시는 바로 그러한 움'집들을 세 놓고 있는 소유자 자신들에게 위임되고 있다……오직 폐외적으로만 볼 수 있는 보다 찬란한 광경에 눈이 어두어, 압도적인 폐사로 되어 있으며 또한 영국 문명의 치욕적인 오점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는 안된다. 현재의 주택들이 명백히 협약함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관찰자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택 상태조차도 그것들의 순전한 수'적 부족에 비하면 아직도 긴박성이 아주 적은 재액이라는 종국적 결론에 일치하게 도달하고 있다면, 참으로 사태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다년간에 걸쳐 농촌 노동자들의 주택의 과도한 증만은 보건에 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폐절 있고 도덕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왜냐 하면 농촌 지방들에서의 전염병의 만연에 관한 보고의 작성자들은 아주 일률적이며 관에 박은 듯한 표현으로 가옥의 과도한 증만이 일단 발생한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을 전혀 수포로 돌아 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무차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생활이 많은 점에서 건강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만연을 그렇게 심히 촉진하는 인구의 밀집 상태가 비전염병들의 발생도 조장한다는 사정 역시 무차 지적되고 있다. 또 이러한 상태를 비난한 사람들은 기타의 재액에 대하여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들의 시초의 주제(主題)는 오직 위생에 관한 것이었던 경우에도 그들은 거의 대상의 다른 측면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보고는 기혼과 미혼의 남녀 성인들이 협착한 침실에서 뒤 쉼이여 자는 (huddled)수가 얼마나 빈번한가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에서는 수치와 폐절이라는 감정은 가장 황포하게 유린 당하며 또 모든 덕성(德性)은 거의 불가피하게 파괴 당한다는 확신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¹⁶⁷……페컨대 나의 최근 보고의 부록중에 있는, 벅킹감사의 우잉에서의 열병의 발생에 관한 자기의 보고에서 오드 박사는 어떻게 한 청년이 우잉그레브로부터 열병을 끌고 그곳으로 왔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발병의 최초 수일간 그는 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잤다. 두 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 중 몇 사람이 병에 걸렸으며 수 주일내에 9명 중 5명이 열병을 앓고 한 명은 죽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왕진하기 위하여 우잉을 방문한 세인트 조지 병원 의사 하베이 박사도 동시에 다음과 같은 동일한 의미의 통지를 나에게 보냈다——〈열병에 걸린 한 젊은 부인이 밤이 되면 한 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사생아와 자기의 형제들인 두 청년들과 사생아를 하나씩 가진 자기의 두 자매와 도합 10명이 잤다. 수 주일 전에는 같은 방에서 13명의 아동들이 잤다〉¹⁶⁸.

헌터 박사는 순 농업 지방들에서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전체 주들에서 농촌 노동자의 오막살이 5,375채를 조사하였다. 이 오막살이 5,375채 중 2,195채는 침실이 불과 하나이며 종종 이것은 동시에 거실을 겸하기도 한다. 2,930채는 불과 둘이고 250채는 둘 이상이였다. 나는 여기에서 12주에 대한

167 《신혼 부부는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표양될 만한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베들을 기록할 수는 없으나, 근친 상간(近親 相姦)의 죄를 범한 부인이 큰 고생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다》(헌터 박사, 동상서, 137페이지). 런던의 불량 구역들에서 다년간 정탐질을 한 한 사람과 농촌 경찰관이 자기 촌락의 처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아직 젊은 그들의 혹심한 패덕, 방탕, 그리고 파렴치에 비할 만한 것을 나는 나의 전 경찰 생활 기간에 런던의 최악 부분들에서도 볼 수 없었다……그들은 돼지 같이 살고 있어서 장성한 젊은이들과 처녀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잔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6차 보고》, 런던, 1867년, 부록, 77페이지, 제 155호).

168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9—14페이지, 이곳 저곳.

간단한 발취를 하려고 한다.

1) 베드포드사

레슬링워쓰 : 길이 약 12피트 폭 10피트의 침실, 다수는 그보다 적다. 단층 소옥(小屋)이 종종 관자로써 두 개 침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높이 5피트 6인치의 부엌에 종종 한 개의 침대가 놓여 있다. 집세는 3파운드 스털링. 차가인은 자신이 변소를 지어야 하며 집 주인은 웅덩이를 제공할 뿐. 한 사람이 변소를 짓자마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리차드슨이란 이름의 한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비할 바 없이 장관이었다. 《그 집의 양회 벽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의 부인복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지붕 한 쪽은 돌상(凸狀)이고 다른 쪽은 양상(凹狀)이며 양상인 쪽에 불행히도 굴뚝이 즉 진흙과 나무로 만들었으며, 코끼리 코를 현상시키는 구불어진 연통이 서 있었다. 긴 막대기가 연통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되고 있었다. 문과 창은 동형(菱形)으로 찌그러지고 있었다. 방문한 가옥 17채 중 침실이 하나 이상인 것은 불과 4채이며 이 4채는 사람이 너무나 차 있었다. 침실이 하나인 가옥들 중 한 가옥에서는 성인 3명, 아동 3명이, 다른 가옥에서는 부부와 아동 6명이 살고 있었다 등등.

던튼 : 4내지 5파운드 스털링의 높은 집세, 남성들의 주임금은 10실링. 그들은 가족들이 종사하는 밀대 세공(細工)에서의 수입으로써 집세를 짜내려고 기대하고 있다. 집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세를 물기 위하여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의 수는 보다 더 많다. 한 침실에서 4명의 아동과 함께 자는 6명의 성인들이 방세로 3파운드 스털링 10실링을 지불하고 있다. 던튼에서 제일 낮은 집은 외면이 길이 15피트 폭 10피트인 것으로서 세는 3파운드 스털링이다. 조사한 가옥 14채 중 한 채에만 침실이 두 개 있었다. 부락 앞에 약간 떨어져

에서 볼 수 있는 만신창의가 된 단층 오막살이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가 밀'대 세공업에 종사한다. 죽은 듯한 피로 상태, 불결에 대한 절망적 단념이 갠블링게이를 지배하고 있다. 북관에서도 눈에 띄우는 방치 상태는 가옥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변두리 남북부로 가면 한심한 감을 준다. 부재(不在)지주들은 이 빈민굴에서 흙백 빨아 들인다. 집세도 대단히 높다. 침실 하나에 8—9명이 처넣어진다. 적은 한 침실에 각각 아동 1—2명씩을 데리고 있는 성인 6명이 살고 있는 경우가 두 건 있었다.

5) 에섹스

이 주의 다수 교구들에서는 오막살이 집들의 감소는 주민의 감소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22개 이상의 교구들에서는 가옥의 파괴는 주민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았으며 또는 《도시 이주》라는 명목하에 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구의 추방을 초래하지 않았다. 3,443에이커를 차지하는 핑그링호 교구에는 1851년에 가옥이 145채 있었는데 1861년에는 벌써 불과 110채였다. 그러나 주민은 퇴거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주택 조건하에서조차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 램즈든 크랙스에는 1851년에 가옥 61채에 252명이 살고 있었으나 1861년에는 49채의 가옥에 262명이나 처박히어 있었다. 바실튼에서는 1851년에 1,827에이커 우에 35채의 가옥에서, 157명이 살고 있었으며, 50년 대 말에는 27채의 가옥에서 180명이 살았다. 핑그링호, 사우쓰 판브릿지, 위드포드, 바실튼 및 램즈든 크랙스 교구들에서는 1851년에 8,449에이커 우에 316채의 가옥에서 1,392명이 살고 있었는데 1861년에는 같은 면적 우에 249채의 가옥에서 1,473명이 살았다.

6) 히어포드셔

이 적은 주는 잉글랜드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추방 정

진> 때문에 고통을 더 받았다. 나드비에서는 대개는 2개의 침실에 있는, 사람이 가득 찬 오막살이들이 대부분 차지 농업가들에게 속하고 있다. 그들은 년 3 내지 4 파운드 스털링의 집세를 쉽게 받고 있으면서 주 임금은 9실링을 지불하고 있다!

7) 헌팅든사

하트포드에는 1851년에 가옥이 87채 있었는데 그후 얼마 안가 19채의 오막살이가 1,720에이커의 이 적은 교구에서 파괴되었다. 주민은 1831년에 452명, 1851년에 382명 그리고 1861년에 341명이였다. 각기 침실 하나씩 있는 14채의 단층 오막살이가 조사되었다. 그 한 집에는 한 쌍의 부부, 3명의 장성한 아들, 1명의 장성한 딸, 4명의 아동, 도합 10명이 살고 있으며, 다른 집에는 3명의 성인과 6명의 아동이 살고 있다. 이러한 방의 하나에서 8명이 자는데, 길이는 12피트 10인치, 폭 12피트 2인치, 높이 6피트 9인치이며, 실내에서 안으로 들어 온 장소를 공제하지 않고도 평균 매 명당 약 130평방 피트였다. 14개의 침실에 34명의 성인과 33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 오막살이들에는 뜰이 붙어 있는 곳은 드물었으나 다수의 거주자들에게는 루드(4분의 1에이커)당 10 내지 12실링으로 적은 지면을 빌리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 분할지들은 가옥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옥에는 변소가 없다. 식구들은 변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분할지로 래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하기 싫었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장농 때달이에 가득 채우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달이가 차면 그것을 때서 필요한 곳에 그 안의 것을 비인다. 일본에서는 생활 제 조건의 순환이 보다 정결히 진행되고 있다.

8) 링컨사

랭그러프트: 여기 라이트의 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처와 장모와 5명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다. 집에는 앞쪽으로 부엌

과 자수물터가 있고 부엌 우에 침실이 있다, 부엌과 침실은 길이 12피트 2인치, 폭 9피트 5인치이며 전체 지면은 길이 21피트 2인치, 폭 9피트 5인치이다. 침실은 다락 방이다, 벽들은 봉사탕(礮砂糖) 모양으로 지붕과 마주쳐 있으며 하나의 들창이 전면에 열려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풀악 때문인가? 아니다, 풀악은 너무나 적다. 집세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다. 집세는 높아서 주에 1실링 3펜스이다. 작업장에 가깝기 때문인가? 아니다, 6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그는 매일 래왕에 12마일을 걸어야 한다. 그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단층 오막살이가 세'집이었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어디 있든, 세가 얼마 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자기 혼자 쓰는 집을 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랭그러프트의 12개 침실, 38명의 성인 및 36명의 아동을 가진 12채의 가옥에 관한 통계 자료이다. —

랭그러프트의 12 가옥

가 옥 수	침 실 수	성 인 수	아 동 수	총 인 원 수	가 옥 수	침 실 수	성 인 수	아 동 수	총 인 원 수
1	1	3	5	8	1	1	3	3	6
1	1	4	3	7	1	1	3	2	5
1	1	4	4	8	1	1	2	0	2
1	1	5	4	9	1	1	2	3	5
1	1	2	2	4	1	1	3	3	6
1	1	5	3	8	1	1	2	4	6

9) 켄트

켄닝튼은, 디프테리아가 발생하였으며 또 교구의 사가 빈민 계급들의 상태에 관한 공'적 조사를 실시한 1859년에는 극도로 파탄 상태였다. 그는 노동이 다량으로 요구되는 이 지방

에서 여러 채의 단층 오막살이가 파괴되었고 그 대신 새 것은 한채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구역에 새장 (birdcages)이라 불리우는 4채의 집이 있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길이와 폭을 가진 4개 방이 있었다——

부엌 $9.5 \times 8.11 \times 6.6$

자수 물터 $8.6 \times 4.6 \times 6.6$

침실 $8.5 \times 5.10 \times 6.3$

침실 $8.3 \times 8.4 \times 6.3$

10) 노쌘프튼사

브린워쓰, 픽포드 및 플로어 : 이 촌락들에서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는 20—3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차지 농업가들은 언제나 충분히 곡물과 근과류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지주는 그의 모든 대지(貸地)들을 2—3개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늙은 편에서는 전야가 경작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편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간망의 눈초리를 전야에 던지고 있다. 여름에는 열병적으로 과도한 로동을 하고 겨울에는 반 굶주린다. 그러므로 그들이 독특한 사투리로 《승려와 양반님네들이 짜가지고 우리를 죽도록 괴롭히는 것 같다》^{168a}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플로어에서는 극히 적은 침실 한 방에서 한 쌍의 부부가 4, 5, 6명의 아동들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또는 3명의 성인이 5명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또는 한 쌍의 부부가 조부와 성홍열에 걸린 6명의 아동들과 같이 살고 있는 등등의 떼들이 있

168a <the parson and gentlefolks seem frit to death at them>.

다. 침실 2개가 있는 2채의 가옥에 각각 성인들이 8명과 9명인 두 가족이 살고 있다.

11) 윌트샤

스트랫튼 : 조사된 가옥은 31채, 그 중 8채는 침실이 하나뿐이다. 같은 교구의 펜스털에서는 단층 오막살이 한 채의 집세가 주 1실링 3펜스, 거기에 4명의 성인과 4명의 아동이 살고 있다. 그 집은 벽이 좋을 따름이고 거칠게 다듬은 돌로 된 바닥을 위시하여 썩은 밀'대 지붕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12) 우스터샤

가옥 파괴는 여기에서는 아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51년부터 1861년까지 가옥 1채당 거주 인원수는 4, 2로부터 4, 6으로 증가하였다.

배드시 : 여기에는 많은 단층 오막살이들과 썰악들이 있다. 일부 차지 농업가들은 단층 오막살이들은 <큰 말성'거리이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빈민들을 끌어 오기 때문에> (<a Great nuisance here, because they briny the poor>)라고 말하고 있다. 한 신사는 말한다——<빈민들은 이 때문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500채를 지어도 어느 사이에 들고 말 것이며, 사실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그의 의견에 의하면 집이 거주자들을 낳으며 그들이 자연 법칙적으로 <거주 수단>을 압박한다는 것이다——이에 대답하여 헨더 박사는 말한다——<그런데 이 빈민들은 어디로부터이든 오는 것이 틀림 없다. 그리고 배드시에 회사물(喜捨物)과 같은 특별한 전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이곳으로 모는 것은 그 어떤 더 불편한 다른 곳으로부터의 반발임에 틀림 없다. 만약 각자가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단층 오막살이와 땅 조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손바닥만한 땅 조각의 값으로 차지 농업가

가 그의 차지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2배나 더 지불하는 배드시를 선택하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차지의 집적, 농경지의 목장으로의 전화, 기계 적용 등등에 의한 도시로의 부단한 이주, 농촌에서의 부단한 《과잉》인구의 조성과 오막살이의 파괴에 의한 농촌 인구의 부단한 추방은 병행한다. 해당 지방의 인구가 최소하면 최소할수록, 그곳의 《상대적 과잉 인구》는 보다 많아지며, 취업 수단에 대한 그들의 압박은 보다 심하여지며, 거주 수단을 초과하는 농촌 인구의 절대적 과잉이 보다 커지며, 따라서 촌락들에서의 지방적 과잉 인구와 전염병의 온상인 인간 밀집은 보다 심하여진다. 산재하는 적은 촌락들과 지방 소도시들에서의 인간 대중의 밀집은 농토로부터의 폭력적 인간 추방에 상응한다. 농촌 노동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생산물량의 증가를 수반하면서 발생하는 그들의 부단한 《과잉화》가 그들의 구출적 빈곤의 요람(搖籃)이다. 그들을 위협하는 구출적 빈곤은 그들의 추방의 동기로 되며 그들의 주력난의 주요 원천으로 되는바 이 주력난은 그들의 반항력을 최종적으로 좌절시키며 그들을 지주¹⁶⁹와 차지 농업가의 순전한 노예로 만들며 그리하여

169 《하인도(hind—농촌 노동자)의 천부의 직업은 그의 지위에조차 위신을 준다. 그는 노예가 아니고 평화의 전사이니, 지주는 마땅히 그에게 기혼자에 합당한 살 집을 제공할 판하다, 왜냐 하면 지주는 그로부터, 국가가 병사로부터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강제 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로동에 대하여 병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을 받지 않는다. 그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년소하며 겨우 자기 자신의 직업과 자기 자신의 지방 밖에 모르는 무식한 때에 붙잡힌다. 그에 있어서 조혼과 각종 거주(居住)법률의 작용은 병사에 있어서 징병과 군법과 같다》(런더 박사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런던, 1865년, 132페이지). 때로는 그 어떤 해외적으로 마음 약한 지주가 제 자신이 만들어 낸 황폐에 대하여 애수의 정에 잠기는 일도 때로 있다. 레스터 백(伯)은 홀캅성의 략성을 축하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자기의 명지에 홀로 있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물러 보아

로임의 최저한이 그들에게 자연 법칙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지방 농촌은 부단한 《상대적 과잉 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구가 부족하기도 하다. 이것은 인구가 도시들, 광산들, 철도 부설 등등으로 너무나 급속히 류출하는 그런 지점들에서 지방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확 시절과 봄철이나 여름철에, 매우 주밀하며 집약적인 잉글랜드의 농업이 임시 노동자를 요하는 허다한 순간에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농촌 노동자는 농업의 중간 정도의 수요에 대하여는 언제나 과다하며, 폐외적이거나 또는 임시적인 수요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과소하다¹⁷⁰. 그러므로 공식 물건들에서 동일한 지방에서 동시에 노동 부족과 노동 과잉에 대한 모순되는 불평 소리가 기록되는 것이다. 임시적 또는 지방적 노동 부족은 로임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부인들과 아동들을 발갈이로 강제하며 노동자들의 연령을 부단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

도 내집 외에는 집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성(巨城)의 거인이며 나의 이웃 사람들을 모두 잡아 먹었다》.

170 유사한 현상은 최근 수십년 때 불란서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을 정복하고 《과잉》 농촌 인구를 도시로 구축함에 따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과잉 인구》 형성의 원천지에서 주력 기타 조건들의 악화를 보게 된다. 분할지(分割地) 제도가 낳은 독특한 《농촌 프로페타리아트》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전에 인용한 골랑의 저작 《정치 경제학》과 칼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제 2판, 함부르그, 1869년, 56페이지 이하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8권, 405페이지 이하)를 보라. 1846년에 불란서에서 도시 인구는 24.42%, 농촌 인구는 75.58%였는데 1861년에는 도시 인구 28.86%, 농촌 인구 71.14%였다. 최근 5년 간 농촌 인구의 백분율의 감소는 더욱 현저하다. 이미 1846년에 피에르 뉘퐁은 그의 《노동자》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참루한 옷을 걸치고 우리는 산다,
움 속에서, 다락 방에서, 폐허 속에서,
부엌이와 도적굴과 함께,
어둠을 벗삼아》.

다. 부인과 아동의 착취가 큰 규모에 달하면 그것은 이번에는 성인 남성의 농촌 노동자들을 과잉 노동자로 전화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또 그들의 로임 저하의 새로운 수단으로 된다. 잉글랜드의 동부에는 이러한 악순환(惡循環)의 훌륭한 열매인 소위 로력대 제도 (Gang-system)가 번성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나는 여기에서 몇 마디 말하려 한다¹⁷¹.

로력대 제도는 링컨샤, 헐링든샤, 캠브릿지 샤, 노포크, 서포크 및 노팅햄 샤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링집 주들인 노샘프턴, 베드포드 및 허트랜드에서는 드문 드문 볼 수 있다. 실패로서 여기에서는 링컨샤를 들자. 이 주의 상당한 부분은 중전의 소택(沼澤)이나 또는 우에서 렬지한 기타 동부 제 주와 마찬가지로 바다로 부러 전취한 새 토지이다. 중기 기관은 배수 작업에서 기적을 낳았다. 중전에 소택지와 사지였던 곳에서 지금은 풍요한 곡물 바다를 보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받는다. 동일한 말은 메컨대 엑스홈 도(島)와 트랜트 강변의 기타 교구들에서와 같이 인공적으로 획득한 충적층(沖積層)의 토지에 관하여도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차지 농장들이 생김에 따라 새 오막살이들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낡은 것들은 철거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며 언덕 허리를 따라 꾸불 꾸불한 '촌길'가에 있는 개방촌으로부터 공급된다. 전에는 거기에서 사람들은 지속되는 동기 홍수를 피하였을 따름이다. 400 내지 1,000에이커의 규모의 차지 농장들에서는 상주(常住) 노동자들(그들을 여기에서는 <confined labourers>라고 부른다)은 말의 도움으로써 수행되는 일상적인 중 농업 노동에 전적으로 복무한다. 매 100에이커에 평균 한 채의 오막살이가 해당될가 말가 하다. 메컨대 중전의 소택지를 빌리고 있는 어떤 차지 농업가는 조사

171 1867년 3월 말에 발표된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제 3차이며 마지막인 보고에서는 농업 로력대 제도를 취급하고 있다.

위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나의 농장은 320에이커 이상인데 전부 경작지입니다. 나의 차지에는 한채의 오막살이도 없습니다. 나의 차지에는 현재 한 명의 노동자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말 부리는 4명의 노동자는 근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드는 쉬운 일은 로력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¹⁷². 땅은 폐천대 제초, 성토, 흑종의 시비 작업, 돌 제거 등등과 같은 쉬운 전야 작업을 많이 요구한다. 그것은 개방촌들에서 살고 있는 로력대 즉 조직된 집단에 의하여 실시된다.

로력대는 10명 내지 40명 또는 50명의 부인들과 남녀 미성년들(13—18세)——소년들은 13세에 달하면 대개는 제외되지만——과 남녀 아동들(6—13세)로 구성된다. 우두 머리에는 로력대 대장(gangmaster)이 있는바, 이는 언제나 보통 농촌 노동자로서 대개는 소위 부랑배 즉 방랑하며, 건달거리는 주정'꾼이기는 하지만 모종의 기업심과 수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가 로력대를 모집하는데 이 로력대는 차지 농업가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매여서 일한다. 그는 차지 농업가와 대개는 도급으로 계약하며, 그의 수입은 평균하여 보통 농촌 노동자들의 수입보다 그다지 높지 않고 ¹⁷³ 거의 전적으로 그가 그의 로력대로부터 최단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로동을 땀 흘려 할 수 있는 수완에 달렸다. 차지 농업가들은, 녀성들은 남성의 독재하에서만 일을 잘 한다는 것 그러나 타방으로 녀성과 아들은 한 번 일을 하면 참으로 맹렬히 자기의 생명력을 지출하는데——푸리에에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성년 남성 노동자는 교환하여 될 수 있는대로 힘을 아끼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

172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 6차 보고》, 증언, 37페이지, 제 173번.

173 그렇지만 일부 로력대 대장들은 500에이커까지의 토지를 빌리는 차지 농업가나 다수의 가옥 소유자로 전환된다.

였다. 로력대장은 그의 로력대를 한 지소로부터 다른 지소로 끌고 다니면서 1년에 6-8개월 일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쪽으로서서는 아동들에게 수시로 일을 줄 따름인 개별적 차지 농업가에게보다 그에게 붙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확실하다. 이 사정이 개방촌들에서 그의 영향력을 공고한 것으로 하는 데 그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대체로 아동들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동들을 로력대로부터 떼어서 개별적으로 빌려 주는 것이 그의 부업으로 되고 있다.

이 제도의 《암흑면》은 아동과 미성년들의 과도한 노동, 매일 5-6마일이나 때로는 7마일까지 떨어진 지소로 래왕하는 엄청난 보행, 끝으로 《로력대》의 풍기 문란이다. 로력대 대장——일부 지방에서는 《몰이'군》(《the briver》)이라고 부르고 있다——은 긴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희귀하며 그리하여 가혹한 취급을 하였다는 불평 소리는 예외이다. 그는 민주주의적 황제이며 또는 하베른의 쥐잡이 [독일의 한 전설에 나오는 피리 불이로써, 어린이들을 피어 내어 식민지풀 건설하였다]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부하들 간에서 인기가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비호하에서 꽃이 피는 집씨 기풍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끌어 당긴다. 란쪽한 방종, 재미스러운 장난, 칠면피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가 로력대를 지배한다. 대개의 경우에 로력대 대장은 선술집에서 술값을 치른 다음에 자기 대원들의 앞장을 서서 물론 비틀거리며 좌우로 완강한 두 녀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한다. 아동들과 미성년들은 뒤에서 떠들석거리며 조롱과 음탕한 노래를 불려댄다. 귀로에서는 푸리에가 《phanerogamie》 [군중적 성교]라고 부르는 것이 폐사로 되어 있다. 13-14세의 소녀들이 동년배의 사나이들에 의하여 아이를 배는 일이 빈번하다. 로력대의 보충지인 개방촌들은 소돔과 고모라¹⁷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음란

174 《러드포드의 소녀들이 절반은 로력대에 의하여 파멸되었다》

의 지명들]로 되며 왕국의 나머지 지방보다 2배의 사생아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녀들이 결혼한 부인으로 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의 아동들은 아편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한 로력대의 후보로서 출생한다.

바로 상술한 고전적 형태의 로력대는 공공적, 공동적 또는 방랑적 로력대 (public, common or tramping gang)라고 칭한다. 그 외에 사'적 로력대들 (private gangs)도 있다. 이것들의 구성은 공동적 로력대와 같으나 인원수가 보다 적고 또 로력대 대장 휘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 농업가가 더 나은 용도를 찾지 못하는, 늙은 농부 밑에서 일한다. 여기에서는 집씨 기풍은 없으나 모든 종언에 의하면 로임과 아동 위급이 더 나쁘다.

로력대 제도는 최근 년간에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바¹⁷ 그것은 물론 로력대 대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차지 농업가들¹⁸ 또는 지주들¹⁹의 치부를 위하여 존재한다. 차지 농업가들로서는 그의 노동자 인원수를 훨씬 정상적 수준 이하로 유지하며, 그러면서도 일체 임시적 작업을 위

(동상서, 부록, 6페이지, 제 32호).

175 《이 제도는 최근 년간 대단히 보급되었다. 약간의 지방들에서는 방금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오래 전부터 도입되고 있는 다른 지방들에서는 로력대에 보다 많은 아동들이 끌려 들어 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연령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동상서, 79페이지, 제 174호).

176 《소차지 농업가들은 로력대 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쁜 토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에이커당 2파운드 스틸링 내지 2파운드 스틸링 10실링의 지대를 낳는 토지에서 사용된다》(동상서, 17페이지 및 14페이지).

177 이 탐반들의 한 사람에게서는 그의 지대가 마음에 흡족한 나머지 조사 위원회 앞에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모든 조합 소리는 제도의 명칭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로력대》(gang)라고 부르지 않고 《소년 군로-농업-협동 자존 조합》이라고 부르면 반사는 더 잘될 것이다.

하여는 언제나 임시적 일'손들을 준비하여 두며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로동을 짜 내며¹⁷⁸, 그리고 성년 남성 로동자들을 《과잉한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그보다 더 약바른 방법은 없다. 이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일방으로는 농촌 사람들의 다소간의 실업이 인정되고 있는데, 타방으로는 동시에 남성 로동의 부족과 그들의 도시에로의 이주 때문에 로력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¹⁷⁹. 링컨샤 등등의 잡초 없는 전야¹⁸⁰ 인간 잡초——여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립적 양국이 있다¹⁸⁰.

178 《로력대 로동은 다른 어떠한 로동보다도 저렴하다. 그것이 그 사용의 원인이다》라고 전에 로력대 대장이었던 한 사람은 말하고 있다 (동상서, 17페이지, 제 14호). 《로력대 제도는 차지 농업가에게는 결정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이고 아동들에게는 역시 결정적으로 가장 유해로운 것》이라고 한 차지 농업가는 말하고 있다 (동상서, 16페이지, 제 3호).

179 《의심할 바 없이 로력대의 아동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많은 것들이 이전에는 성년 남녀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것이다. 부인파 아동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들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성년 남성들이 실업하고 있다》 (동상서, 43페이지, 제 202호). 그러나 타방으로 그 중에도——《다수 농업 지방들 특히 곡물 생산 지방들에서 로동 문제는 국외 이주의 결과 또 대도시로의 이촌이 철도에 의하여 용이하게 된 결과 엄중한 성격을 띠게 되었으므로 나는 (<나>라는 어떤 대지주의 농촌 대리인이다) 아동 로동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상서, 80페이지, 제 180호). 잉글랜드의 농업 지방에서의 로동 문제 (the labour question)란 기타 문명 세계와 달라서 지주들과 차지 농업가들의 문제 (the landlords' and farmers' question), 무단히 종대하는 농촌 인구의 류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농촌에 충분한 《상대적 과잉 인구》와 따라서 농촌 로동자들에 대한 《로임의 최저한》을 영구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80 아동들의 사망률에 관하여 돈하는 김에 로력대 제도에 언급하고 있는, 전에 내가 인용한 일이 있는 《공중 보건 보고》는 신문에, 따라서 영국의 사회층에는 알려지지 않고 말았다. 그와는 반대로 《아동 로동 조사 위원회의 최근 보고는 신문에 대 환영의 《선정적》(sensational)자료를 제공하였다. 자유주의적 신문은 링컨샤에 우갈 우갈하는

f) 애란

이 절을 마감함에 있어서 애란을 일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실들을 인용하자.

애란의 인구는 1841년에 822만 2,664명에 달하였다가, 1851년에는 662만 3,985명으로 감소되었으며, 1861년에는 585만 309명으로, 1866년에는 505만으로 즉 거의 18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감소는 1846년 흉년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애란은 20년도 안되는 기간에 인구의 16분의 5 이상을 잃었

점잖은 신사 숙녀들과 국교회의 수목송골 즉 자기들의 독자적인 《남양의 미개인의 도덕 개선을 위한 선교사단》을 지구 저 편으로 파견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의 지소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허용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타방으로 귀족적 신문은 오로지 제 자식들을 팔아 그러한 노예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농민들의 혹심한 타락에 관하여 묻하였다! 그런데 《점잖은 망반들》이 농민을 떨어뜨린 그 저주할 상태에서는 그가 제 자식을 잡아 먹었다 하여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농민이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성격의 우점이다. 공'적 보고들의 작성자들은 로력대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지방들에서도 그 제도에 부모들은 증으로써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수집한 증언중에 풍부한 증거를 볼 수 있듯이 부모들은 그들이 왕왕 반게 되는 유혹과 압박에 대항할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강제법에 대하여 많은 경우에 감사할 드릴 것이다. 때로는 교구의 관리가 때로는 고용주가 그들을 해고로써 위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학교 대신에 일터로 보내도록 한다…… 시간과 힘의 모든 탕비, 농민과 그 가족들이 피도하여 그리고 무익한 피로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통, 부모들이 그 아동들의 도덕적 파멸을 오막살이의 파만의 결과라고 또는 로력대 제도의 퇴폐적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모든 것은 근로 빈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하며 또 더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은 많은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그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으며 또 만약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반대 투쟁하기에는 그들이 무력한, 그러한 사정물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동상서, 20페이지, 제 82호, 및 23페이지, 제 96호).

다¹⁸¹. 이민 총수는 1851년 5월부터 1865년 7월까지 159만 1,487명이었으며, 최근 5년 간 즉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민은 50만 이상이였다. 주택 수는 1851—1861년 간에 5만 2,990만큼 감소하였다. 1851년부터 1861년까지 15—30에이커의 차지 농장수는 6만 1,000만큼 증가하였으며, 30에이커 이상의 차지 농장 수는 10만 9,000만큼 증가하였는데 각종 규모의 차지 농장 총수는 12만만큼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전적으로 15에이커 이하의 차지 농장들의 소멸 즉 그것들의 집중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구 수의 감소는 물론 대체로 생산물량의 감소를 동반하였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는, 그 기간에 50만 이상이 이민하였으며 절대적 인구 수가 33만 이상 저하된 1861—1865년의 5개년을 고찰하면 충분하다 (A표를 보라).

A 표
가축 두수

년 도	말		유각 가축		
	총 수	감 소	총 수	감 소	증 가
1860	619,811		3,606,374		
1861	614,232	5,579	3,471,688	134,686	
1862	602,894	11,338	3,254,890	216,798	
1863	579,978	22,916	3,144,231	110,659	
1864	562,158	17,820	3,262,294		118,063
1865	547,867	14,291	3,493,414		231,120

181 애란의 인구——1801년 531만 9,867명, 1811년 608만 4,996명, 1821년 686만 9,544명, 1831년 782만 8,317명. 1,841년, 822만 2664명.

년도	양			되 지		
	총 수	감 소	증 가	총 수	감 소	증 가
1860	3,542,080			1,271,072		
1861	3,556,050		13,970	1,102,042	169,030	
1862	3,456,132	99,918		1,154,324		52,282
1863	3,308,204	147,928		1,067,458	86,866	
1864	3,366,941		58,737	1,058,480	8,978	
1865	3,688,742		321,801	1,299,892		241,413

상기 표들로부터의 결과

말	유각 가축	양	되 지
절대적 감소 71,944	절대적 감소 112,960	절대적 감소 146,662	절대적 감소 28,821

182

그러면 이제는 가축과 인간에게 생활 수단을 제공하는 농업을 보자. 다음 표에서는 그 전년도에 비한 매개 년도의 증감이 계산되어 있다. 화목류에 속하는 것은 밀, 귀밀, 보리, 호밀, 대두, 원두이며 채소류에 속하는 것은 감자, 둥근 무, 사탕무, 양배추, 홍담무, 방풍초(防風草), 들원두 등등이다.

B 표

경작지 및 토지(또는 목장)면적의 증감 (단위 에이커)

년도	화 목 류	채 소 류		초지및클로버		아 마		농업 및 축산물 토지 총면적	
	감 소	감 소	증 가	감 소	증 가	감 소	증 가	감 소	증 가
1861	15,701	36,074		47,969			19,271	81,873	

182 결과는 더 이전으로 올라 가면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즉 양은 1865년에 368만 8,742, 1866년에 369만 4,294, 돼지는 1865년에 129만 0,893, 1866년에 140만 9,883이었다.

1862	72,734	74,785			6,623	2,055	138,841	
1863	144,719	19,358			7,724	63,922	92,431	
1864	122,437	2,317			47,486	87,761		10,493
1865	72,450		25,241		68,970	50,159	28,218	
1861								
1865	428,041	108,193			82,834	122,850	330,870	

1865년에는 <초지>라는 항목에 12만 7,470에이커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용되지 않는 황무지 및 토란 소택>이라는 항목의 면적이 10만 1,543에이커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865년과 1864년을 비교하면 화곡류의 감소는 24만 6,667쿼터인데 그 중 밀이 4만 8,999쿼터, 귀밀이 16만 6,605쿼터, 보리가 2만 9,892쿼터 등등이며, 감자의 경작지 면적은 1865년에 증대하였으나 그 수량은 44만 6,898톤 감소하였다고 등등. (C표를 보라).

183 본문의 자료는 <애탄의 농업 통계 개요. 더블린>, 1860년 이후 및 <애탄의 농업 통계. 예정 평균 생산고 등등을 표시하는 제표. 더블린, 1866년>을 기초 자료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통계이다.

제 2관 추가. 공식 통계는 경작지 면적이 1872년에는 1871년에 비하여 13만 4,915에이커만큼 감소한 것을 보이며 주고 있다. 둥근 무, 사탕무 등등 채소류의 경작에 있어서는 <증가>가 있었다. 경작지 면적의 <감소>는 밀에 있어서 1만 6,000에이커, 귀밀 1만 4,000에이커, 보리와 호밀 4,000에이커, 감자 6만 6,632에이커, 아마 3만 4,667에이커, 초지, 크로버, 들원무, 채종에 있어서 3만에이커만큼 있었다. 최근 5년 간의 밀 경작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순차로 감소하였다——1868년 28만 5,000에이커, 1869년 28만 에이커, 1870년 25만 9,000에이커, 1871년 24만 4,000에이커, 1872년 22만 8,000에이커. 1872년에 증가한 것은 개수(概數)로 말 2,600두, 유각 가축 8만 두, 양 6만 8,609두이며 감소한 것은 돼지 23만 6,000두이다.

C
표
경작지 면적. 에이커 당 생산량 및 1864년에 비한 1865년의 총생산물의 증감

생산물명	경작지 면적 (단위 에이커)		1865년 증감		에이커당 생산량			1865년		총 생산물			
	1864	1865	+	-		1864		1865	증	감	1864	1865	증 감
						1864	1865						
밀	276,483	266,989	—	9,494	밀	13.3	13.0	—	0.3	875,782퀴터	826,783퀴터	—퀴터	48,999
귀밀	1,814,886	1,745,228	—	69,658	귀밀	12.1	12.3	0.2	—	7,826,332	7,659,727	—	160,606
보리	172,700	177,102	4,402	—	보리	15.9	14.0	—	1.0	761,909	732,017	—	29,892
백주용 보리 포	8,894	10,091	1,197	—	백주용보리 포	16.4	14.8	—	1.6	15,160	13,989	—	1,171
						8.5	10.4	1.9	—	12,680	18,364	5,684	—
감자	1,039,724	1,066,260	26,536	—	감자	4.1	3.6	—	0.5	4,312,388	3,865,990	—	446,398
콩군부	337,355	334,212	—	3,143	콩군부	10.3	9.9	—	0.4	3,467,659	3,301,683	—	165,976
사탕무	14,073	14,389	316	—	사탕무	10.5	13.3	2.8	—	147,284	191,937	44,653	—
양배추	31,821	33,622	1,801	—	양배추	9.3	10.4	1.1	—	297,375	350,252	52,877	—
아마	301,683	251,433	—	50,250	아마	34.2	25.2	—	9.0	64,506	39,561	—	24,945
전초	1,609,559	1,678,493	68,934	—	전초	1.6	1.8	0.2	—	2,607,153	3,068,707	461,554	—

애란의 인구와 농업 생산의 운동으로부터 그의 지주, 대차지 농업가 및 공업 자본가들의 돈 주머니에 있어서의 운동으로 넘어 가자. 그 운동은 소득세의 증감에 반영된다. 다음 D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D항 (차지 농업가의 리윤을 제외한 리윤)에는 소위 《자유 직업자들》의 리윤 즉 변호사, 의사 등등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표에서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C 및 E 항들은 판리, 군판, 국가의 도록자(盜祿者), 국채 소유자 등등의 소득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D 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단위 파운드 스텔링)

	A 지 대	B 차지농의리윤	D 항 공업리윤등등	A-E의 전 항목 총액
1860	12,893,829	2,765,387	4,891,652	22,962,885
1861	13,003,554	2,773,644	4,836,203	22,998,394
1862	13,398,938	2,937,899	4,858,800	23,597,574
1863	13,494,091	2,938,923	4,846,497	23,658,631
1864	13,470,700	2,930,874	4,546,147	23,236,298
1865	13,801,616	2,946,072	4,850,199	23,930, ¹⁸⁴ 340

D항에 있어서 1853—1864년 간 년 평균 소득의 증가는 불과 0.93%인데 대브리튼에서는 동 기간에 그것은 4.58%에 달하였다. 다음 표는 1864년과 1865년의 리윤 (차지 농업가의 리윤은 제외)의 분배를 표시한다.

E 표

D항. 애란의 리윤 소득 (60파운드 스텔링 이상)

	1864		1865	
	파운드 스텔링	분배 인 원 수	파운드 스텔링	분배 인 원 수
년 총 소득	4,368,610	17,467	4,689,979	18,081
60파운드 스텔링 이상 100파운드 스텔링 이하 년 소득	238,726	5,015	222,575	4,703
년 총 소득 중	1,979,066	11,321	2,028,471	12,184
년 총 소득 잔고	2,150,818	1,131	2,418,933	1,194
내역 {	1,073,906	1,010	1,098,027	1,044
	1,076,912	121	1,320,906	150
그중 {	923,397	75	1,034,881	72
	646,377	26	736,448	28
	262,819	3	274,528	3

185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나라, 그리고 주로 공업의 나라인 잉글랜드에서는 애란이 당한 바와 같은 인구의 류출은 치명적 타격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애란은 넓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잉글랜드에 곡물과 양모와 가축과 공업상 및 군사상의 보충병을 제공하는 잉글랜드의 농업 지방에 불과하다.

185 D항 년 총소득이 전 표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모종의 공제환이 법률상 용허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의 결과 많은 토지가 목계 되었으며, 농산물은 심히 감소되었으며¹⁸⁶, 또 축산에 애정된 면적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은 그 중 일부 부문들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기타 부문들에서는 퇴보에 의하여 부단히 중단되는 그리하여 거의 말할 만한 것이 못되는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지대와 차지 농업가의 리윤은 계속 증가하였다. 비록 후자는 전자만큼 고정적은 아니었지만, 그 리유는 용이하게 리해할 수 있다. 일방으로 차지 농장들의 집중과 경지의 목장으로의 전화에 따라 총생산물 중의 더욱 많은 부분이 잉여 생산물로 전화되었다. 잉여 생산물은 그것을 일부분으로 하는 총생산물이 더욱 감소되었으나 증가하였다. 타방으로 이 잉여 생산물의 화폐 가치는 그것의 양보다는 더 급속히 증가하였으니 그것은 잉글랜드에서의 육류, 양모 등등의 시장 가격이 최근 20년 래 특히 최근 10년 래 등귀하였기 때문이다.

라인 로동의 합체에 의하여 자체를 증식함이 없이 생산자 자신에게 로동 수단과 생존 수단으로서 복무하는 분산된 생산 수단이 자본이 아닌 것은 그 자체의 생산자에 의하여 소비되는 생산물이 상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에서 총용되는 생산 수단의 량도 감소하였지만 농업에서 총용되는 자본의 량은 증가하였으니, 그것은 종전에 분산되었던 생산 수단의 일부가 자본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외에 즉 공업과 상업에 총용된 애탄의 총자본은 최근 20년 간에 서서히 그리고 부단한 큰 동요를 보이면서 축적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의 개별적 구성 부분의 집적은 더욱 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끝으로 그것의 절대적 증가는 여하히 적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즉 감소되는 인구수에 비하여서는

186 생산물이 에이커당 비례로도 역시 감소되고 있다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잉글랜드는 1세기 반 이래 애탄의 토지물, 그 토지 성분의 보상 수단을 농민들에게 남기지 않고, 간접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증대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안전에서 대규모로 한 개 과정이 전개되고 있으니 정통과 경제학이 자기의 도그마 즉 빈궁은 절대적 과잉 인구로부터 발생하며 또 균형은 인구의 감소에 의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도그마를 확증하기 위하여 그 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말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렇게도 찬미된 14세기 중엽의 페스트보다도 훨씬 더 감명 깊은 실험이다. 부연하지만 19세기의 생산 제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인구 제 관계에다 14세기의 척도를 적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확고 훈장다웁게 조박한 것이었는바 이 조박성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 즉 해협의 이 쪽 즉 영국에서는 페스트와 그에 수반한 인구 감소의 뒤를 이어 농민의 해방과 치부가 있었다면, 해협의 저 쪽 즉 불란서에서는 보다 큰 예측화와 빈궁의 증가가 뒤따랐다는 것을 간파하였다^{186a}.

애란에서의 1846년 기근은 100만 이상의 인간을 죽였는바 이것은 전적으로 빈민들이었다. 그 기근은 나라의 부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후 계속된 20년 간의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 인구 류출(流出)은 30년 전쟁과는 달라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생산 수단을 섬멸하지는 않았다. 애란의 천재는 요술과 같이 빈민들을 그들의 빈궁의 무대로부터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냈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들은 매년 잔류자들의 이주 러비를 집에 송금하고 있다. 이 해에 이주한 매개 부대는

186a 애란은 《인구 원리》의 성지(聖地)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T. 새틀러는 인구에 관한 그의 저작을 발표하기 전에 그의 유명한 책 《애란, 그의 재액 및 그 구제책》 제 2판 (런던, 1829년)을 썼는바 그 속에서 그는 개별적 지방별 그리고 매개 지방에서는 개별적 주별 통계 자료를 대비하면서 그곳에서 빈궁은 말사스가 바라듯이 인구 수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역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음 해에는 새로운 부대를 끌어 당긴다. 그러므로 이주는 애란에 아무 비용도 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출업의, 가장 수입 많은 한 부문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이주는 소여의 인구 중에 말하자면 잠시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출생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구에서 퍼감으로써 매년 인구 수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 오는 체계적 과정이다^{186b}.

과잉 인구로부터 해방된 애란의 잔류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결과들은 무엇이였는가? 상대적 과잉 인구는 오늘날에도 1846년 이전만큼 크다는 것, 로임은 역시 매우 낮다는 것, 고역은 증대되었다는 것, 농촌에서의 빈궁은 다시 새로운 공황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결과들은 이러하다. 원인들은 매우 간단하다. 농업에서의 혁명이 이주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다.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생산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C 표를 일별하면 알 수 있듯이 경작지의 목장으로의 전화가 애란에서는 잉글랜드에서 보다 일층 컸을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축산과 더불어 채소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란에서는 그것이 감소하고 있다. 종전의 경작지의 큰 부분이 휴경되든가 또는 영구한 토지로 전화되고 있는 일방, 종전에 리용되지 않고 있던 황무지와 토란 소택의 큰 부분이 축산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 차지 농업가들——나는 그들에다 100에이커를 넘지 않는 토지를 경작하는 모든 차지 농업가들을 넣는다——은 아직도 총수의 거의 10분의 8을 이루고 있다^{186c}. 그들은 자본주의적 농업 생

186b 1851—1874년 기간에 이주자 총수는 232만 5,922명에 달하였다.

186c 제 2판 주 머피의 《애란의 공업, 정치 및 사회》(1870년) 중의 한 표에 의하면 토지의 94.6%는 100에이커 미만의 차지 농장물이며 5.4%는 100에이커 이상의 차지 농장물이다.

산의 경쟁에 의하여 종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받으며 따라서 고용 노동자 제급에게 부단히 새로운 보충병을 제공한다. 애란의 유일한 대공업인 아마 가공업은 성년 남성 노동자를 비교적 적게 요구하며 그것이 1861—1866년의 면화 등귀 이래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구의 비교적 얼마 안되는 부분을 취업시켰을 뿐이다. 다른 모든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자체의 분야에서의 부단한 수요에 의하여, 그것이 흡수하는 노동자 대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단히 상대적 과잉 인구를 생산한다. 농민의 빈궁은, 노동자 군의 대부분이 농촌에 산재하여 있는 거대한 내의 공장 등등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시 상술한 바 있는, 파소 지불과 과도한 노동율, 《과잉》 노동자의 체계적인 조성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내 노동 체계에 봉착한다. 끝으로 인구 감소가 여기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나라에서와 같이 그렇게 파괴적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도 국내 시장에의 부단한 반작용 없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주에 의하여 여기에서 조성되는 빈틈은 지방적 노동 수요 뿐만 아니라 소매상, 수공업자, 일반적으로 소영업자들의 소득도 감소시킨다. E표에서 60 내지 100파운드 스텔링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여기에 있다.

애란의 농촌 고용 노동자들의 상태의 투철한 서술은 애란의 구빈법 감독관들의 제 보고 (1870년)에서 볼 수 있다^{186d}. 종점과 공공연한 또는 은연한 계급 상태의 도움으로써만 유지되는 정부의 관리들인 그들은 잉글랜드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이 멸시하는 용어상의 모든 고려를 돌리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부로 하여금 환상에 잠기는

186d 《애란 농업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구빈법 감독관의 보고》, 머블턴, 1870년. 또 《농업 노동자 (애란) 보고 등등》, 1862년 3월 8일을 보라.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로임 수준은 지금도 농촌에서는 아직 극히 낮지만 그러나 최근 20년 간에 50—60%만큼 제고되었으며 그리하여 현재는 평균하여 즉 6—9 실링이나 된다. 그러나 이 외견상의 로임 제고의 뒤에는 로임의 현실적 저하가 숨어 있으니 왜냐 하면 그 제고는 그 사이에 일어난 생활 필수품 가격의 등귀에 결코 따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어떤 애란의 로동 수용소의 관청 통제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발췌이다.

1명당 주 평균 생활비

년 도	음식 물	의 류	합 계
1848년 9월 29일부터 1849년 9월 29일까지	1실링 3 $\frac{1}{4}$ 펜스	0실링 3펜스	1실링 6 $\frac{1}{4}$ 펜스
1868년 9" 29 "	2 " 7 $\frac{1}{4}$ "	0 " 6 "	3 " 1 $\frac{1}{4}$ "
1869년 9" 29 "			

그와 같이 20년 전에 비하면 생활 필수품 가격은 거의 2배, 의류 가격은 꼭 2배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도외시하더라도 화폐로 표현된 로임 수준의 비교 하나 만으로서는 아직도 정확한 결론은 얻지 못할 것이다. 기근 전에는 농촌에서의 로임의 큰 몫이 현물로 지급되었으며 화폐로 지불된 것은 극 소부분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화폐 지불이 상책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이미 실질 임금의 운동은 여하튼 간에 임금의 화폐적 표현은 제고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근 전에는 농업 노동자들은 한 쪼각의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감자도 심고 돼지와 닭들도 쳤다. 현재는 그는 자기의 모든 생활 수단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 닭, 닭알을 팔아서 얻고 있었던 수입도 잃어 버렸다》¹⁸⁷. 사실 종전에는 농촌 노동자들은 소차지

187 동상서, 29페이지, 1페이지.

농업가들과 융합되고 있었으며, 대개는 그들을 고용한 대종 차지 농장들의 일종의 후위(後衛)에 불과하였다. 1846년의 대재변 이래 비로소 그들은 순전한 고용 노동자 계급의 한 부분을, 즉 오로지 화폐 관계에 의하여서만 고용주와 결부된 특수한 신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846년 당시의 그들의 주력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이후 그것은 더 한층 악화되었다. 농촌 노동자의 일부분은 매일과 같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농업가의 땅에서 비좁은 오막살이에 살고 있는데 오막살이의 험상스러운 상태란 이 점에서 잉글랜드의 농촌 지방에서 우리가 본 최악의 것을 훨씬 통가한다. 그리고 이것은 얼스터의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즉 남부에서는 코크, 리머릭, 킬켄니 등등의 주들에서, 동부에서는 워클로, 웨스트포드 등등에서, 중부에서는 킹스 카운티 및 퀸스 카운티, 더블린 등등에서, 북부에서는 다운, 안트림, 티론 등등에서, 서부에서는 슬라이고, 로스컴몬, 메요, 글웨 등등에서 그렇다. 《이는——하고 한 감독관은 부르짖는다——종교와 이 나라의 문명에 대한 치욕이다》. 일용(日傭)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움'집에서의 생활을 보다 매력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태고 때부터 주택에 붙어 있는 땅조각마저 이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몰수된다. 《그들이 지주들과 그 관리인들에 의하여 당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추방에 대한 의식은 농촌 일용 노동자들에게서 그들을 무권리한 인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라는 해당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었다》^{187a}.

농업에서의 혁명의 제 1막은 작업장에 있는 오막살이들을, 최대한의 규모로 그리고 우로부터 준 구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철거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은

187a 동상서, 12책지

촌락들과 도시들로 피난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쓰레기처럼 다락방, 움'집, 지하실 그리고 가장 나쁜 구역의 구석들에 쫓아 박혀졌다.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잉글랜드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가정적 단락에 대한 회귀한 애착과 아무 근심 없는 명랑성과 가정 생활의 순결성이 특징으로 되고 있는 애란인의 수천 가족이 돌연 최악의 온실 속으로 옮기여졌다. 남성들은 이제는 부근의 차지 농장들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일용(日傭)으로서만 즉 가장 믿음성이 없는 임금 형태로서 고용되었는데, 그 경우에 《그들은 이제는 차지 농장에 이르는 먼 길을 래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종종 비에 젖기도 하며 또 다른 곤난들도 겪는데 그 결과는 몸이 쇠약하여 지고 병들고 따라서 가난에 쫓돌리는 수가 드물지 않다》^{187b}.

《도시들은 농촌 지방들에서 과잉으로 된 노동자들을 매년 수용하여야 하였다》^{187c}. 그런데도 《도시들과 소읍들에서는 노동자의 과잉이 있으며 농촌에서는 노동자의 부족이 있다!》^{187d}는 것을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족을 느끼는 것은 다만 《농번기 즉 봄철과 가을철이고 년중 나머지 시기는 많은 일'손들이 놀고 있다》^{187e}는 것, 《수확이 끝나고 10월부터 봄철까지는 그들은 거의 일이 없다》^{187f}는 것, 그들에게 일이 있을 때에도 《종종 온종일 일이 없든가 각종 작업 중단을 당하게 된다》^{187g}는 것이 진실이다.

농업 혁명 즉 경작지의 목장화, 기계 사용, 엄격한 노동

187b 동상서, 25페이지.

187c 동상서, 27페이지.

187d 동상서, 26페이지.

187e 동상서, 1페이지.

187f 동상서, 32페이지.

187g 동상서, 25페이지.

절약 등등의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자기들의 지대를 외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고평가에도 애란에 있는 자기들의 명지에서 살아 주시는 전형적 지주들에 의하여 더욱 첨예화된다. 이 지주들은 수요 공급의 법칙의 불가침의 작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로동을 자기들의 소차지인들로부터》 끌어 내고 있는바 《이 소차지인들은 이렇게 되어 요구될 때에는 자기들의 지주를 위하여, 종종 보통 일용 노동자들의 로임보다 낮은 로임을 받으며, 그나마 중대한 파종기나 수확기에도 자기들 자신의 전야를 등한히 할 수 밖에 없는 데로 부러 나오는 불편과 손실은 조금도 돌볼 여지 없이 일하지 않을 수 없다^{187h}.

그리하여 취업의 불확고성과 불규칙성, 빈번한 그리고 장기적인 실업, 상대적 과잉 인구의 이 모든 징조들은 애란의 농업 프로레타리아트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들로서 구빈법 감독관들의 보고들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잉글랜드의 농촌 프로레타리아트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았다는 것을 상기한다. 그러나 차이점은 공업국인 잉글랜드에서는 산업 예비군이 농촌에서 보충되는데, 농업국인 애란에서는 농업 예비군이 추방된 농촌 노동자들의 도피처인 도시에서 보충된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업에 있어서의 과잉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들로 전화되는데 애란에서는 도시로 추방된 사람들은 동시에 도시의 임금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의연 농촌 노동자인 것이며 일' 자리를 구하여 부단히 농촌으로 돌아 온다.

공식 보고의 작성자들은 농업 일용 노동자들의 물질적 상태에 관한 자기들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그들은 극도의 절약을 하면서 생활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그들과 그 가족들의 식비와 주택비를 겨우 댈만하다. 의복을 위하여

는 더 수입이 필요하다. ……그들의 주택 분위기는 다른 결핍들과 아울러 이 계급을 특히 리브스와 폐병에 걸리게 하고 있다》¹⁸⁷¹. 이렇다면 보고 작성자들의 일치한 증언대로 험악한 불만이 이 계급의 대렬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 이 계급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증오하며, 미래를 절망시하며 《선동가들의 해독적 영향에 좌우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단 하나의 확고 부동한 생각 밖에 없다는 것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야말로 말사스의 위대한 만병 통치약인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룩색의 옛 애란이 전화된 무릉도원이로구나!

애란의 공업 노동자가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다음 일례로서 충분하다——

《최근 내가 애란의 북부를 시찰하였을 때——하고 잉글랜드의 공장 감독관 로버트 베이커는 말한다——애란인의 어떤 기능 노동자가 극소한 자금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충동을 받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그가 말한 그대로 전하려 한다. 그가 사실 기능공이라는 것은 그가 만체스터 시장으로 보낼 상품을 만드는데 고용되고 있다고 말하면 알 만할 것이다. 존슨의 말: 나는 소정공(梳淨工) (beetler)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3시간을 얻습니다. 자식들은 전부 5명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주 10실링 6펜스를 받습니다. 나의 처도 역시 여기에서 일하며, 주에 5실링을 받습니다. 12세 난 딸이 집안 일을 돕니다. 그가 요리사이며 또 유일한 협조자입니다. 그가 어린 것들을 학교에 보낼 차림을 합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소녀가 아침 5시 반에 나를 깨워줍니다. 나의 처는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같이 갑니다. 일러로

1871 동상서, 21, 13페이지.¹

가기 전에 우리는 아무 것도 먹지 않습니다. 12세 난 아이가 온 종일 어린애들을 보살피 줍니다. 우리는 8시에 조반을 먹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 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이며, 다른 때는 죽 (stirabout)을 먹는데 살 수 있는 대로 때로는 귀밀 죽, 때로는 옥수수 죽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옥수수 죽에 사탕을 조금 넣고 물을 칩니다. 여름에는 적은 채전에서 우리가 심은 얼마 안되는 감자를 먹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죽으로 돌아 갑니다. 우리는 그날 그날 일요일이건 다른 날이건 언제나 1년 열두 달 그렇게 지냅니다. 일을 마치었을 때 밤에는 언제나 나는 대단히 피로합니다. 우리는 한 점의 고기를 볼 때도 있으나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이들 중 셋이 학교에 다니는데 한 아이에 주 1펜스씩 줍니다. 집세는 주 9펜스입니다. 연료용 토탄 값은 2주일에 적어도 1실링 6펜스 듭니다¹⁸⁸. 이것이 애란의 토임이며 이것이 애란의 생활이다!

사실 애란의 빈궁은 또 다시 영국에서 당면 문제로 되었다. 애란의 로지 거두의 한 사람인 더퍼린 경이 1866년 말과 1867년 초에 타임스지 상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와 같은 큰 양반이 얼마나 인간다운 일인가!> [피레의 <파우스트> 중의 메피스토의 말].

E표에서 본 바와 같이 1864년에 총리윤 436만 8,610파운드 스털링 중에서 도합 3명의 돈 벌이'군이 착복한 것은 26만 2,819파운드 스털링이었는데 1865년에는 같은 3명의 <절육>의 명인(名人)들이 총리윤 466만 9,979파운드 스털링 중에서 이미 27만 4,528파운드 스털링을 착복하였으며, 1864년에는 26명의 자본가들이 64만 0,377파운드 스털링을, 1865년에는 28명의 자본가들이 73만 6,448파운드 스털링을 착복하였으며, 1864년에는

188 <1866년 10월 31일의 공장 감독관 보고>, 96페이지.

121명의 자본가들이 107만 6,912파운드 스텔링을, 1865년에는 150명의 자본가들이 132만 906파운드 스텔링을 착복하였으며, 1864년에는 1,131명의 자본가들이 215만 818파운드 스텔링을 즉 년 총리윤의 거의 절반을, 1865년에는 1,194명의 자본가들이 241만 8,933파운드 스텔링을 즉 년 총리윤의 절반 이상을 착복하였다. 그런데 년 국민 소득중,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애란에 있는 한 줌도 안되는 토지 거두들이 삼켜 버리는 사자의 몫은 엄청나므로 영국의 국가적 현명성은 지대의 분배에 대하여는 리윤의 분배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과 같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더퍼린경은 이러한 토지 거두의 한 사람이다. 지대와 리윤이 어느 때이든 《과대》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것들의 과다(過多)가 인민의 빈궁의 과다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불건전》(《unsound》)하며 또 《경멸할》(《irrespektable》) 생각이다. 그는 사실에 의거한다. 사실이란 애란의 인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애란의 지대는 증대한다는 것, 인구의 감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에도 유리하며, 따라서 또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한 인민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언하기를 애란은 아직도 인구 과잉이며, 이주의 흐름은 아직도 너무나 완만하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애란은 아직도 적어도 100만의 3분의 1의 노동자와 작별하여야 한다고. 거기에서 시인적이기도 한 이 경(卿)이 쌍그라도 즉 자기의 환자가 차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때마다련속 피를 빼라고 명령하여 드디어 그 천사가 그의 피와 함께 그의 병도 잃게 한, 그 쌍그라도파의 의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더퍼린경은 약 200만이 아니라 불과 100만의 3분의 1의 새로운 출혈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만쯤 내쫓지 않고서는 애란에 천년 태평 왕국(千年 太平 王國)을 세울 수는 없다. 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용이하다.

1864년 애란에서의 차지 농장의 수와 규모

1에이커 이하의 차지 1. 농장	1에이커 이상 5에이커 이하 2. 의 차지농장	6에이커 이상 5에이커 이하의 3. 차지 농장	16에이커 이상 3 0에이커 이하의 4. 차지 농장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48,653 25,394	82,037 288,916	76,368 1,836,310	136,578 3,051,343

31에이커 이상 50에이커 이하 5. 의 차지농장	51에이커 이상 100에이커 이하 6. 의 차지 농장	101에이커 이상 7. 의 차지 농장	8. 총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71,961 2,906,274	54,247 3,983,880	31,927 8,227,807	20,319,924 에이커

1898

집중은 1851--1861년 간에 주로 최초의 3부류 즉 1에이커 이하 내지 15에이커 이하의 차지 농장들을 소멸시켰었다. 그것들이 우선 소멸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30만 7,058명의 차지 농업가들이 《과잉》하게 되며 한 가족 평균 4명으로 낮추어 계산하더라도 개략 122만 8,232명의 가족이 《과잉》하게 된다. 농업 혁명이 완수되면 그들 중 4분의 1이 다시 흡수될 것이라는 엉터리 없는 가정하에서도 여전히 92만 1,174명은 이주하여야 할 것이다. 4, 5, 6의 부류들 즉 16에이커 이상 내지 100에이커 이하는 잉글랜드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있듯이, 자본주의적 폭물 경영에는 너무나 적고, 목양(牧羊)에는 더군다나 그 크기가 전혀 문제도 안된다. 따라서 상기 가정하에서는 78만 8,761명이 더 이주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합계 170만 9,532명으로 된다. 그리하여 식욕이란 먹는 중에 나오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눈은, 애란이 350만의 인구로써도 아직도

188a 총면적은 《토란 소택과 황무지》도 포함한다.

가난한 나라이며, 이 가난은 인구가 과잉한 탓이므로 애란이 잉글랜드를 위한 양목장이며 가축 목장이라는 자기의 참다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인구 감소는 훨씬 더 진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어 발전할 것이다^{188b}.

이러한 유리한 방법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같이 다른 측면이 있다. 애란에서의 지대의 축적과 함께 아메리카에서의 애란인의 축적도 병행한다. 양과 황소로 말미암아 구축

188b 나는 이 저작의 제 3부의 토지 소유에 관한 편에서 개별적 토지 소유자들과 영국의 법법이 농업에서의 혁명을 폭력적으로 수행하고 애란의 인구를 지주들에게 유리한 규모로 주릴 목적으로 기근과 그에 수반한 사정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다 상세히 증명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또 소차지 농업가들과 농촌 노동자들의 상태에 돌아 갈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인용만 할 것이다. 낫소 W. 시노어는 그의 유저(遺著) 《애란에 관한 일지, 대화 및 수필》, 전 2권, 런던, 1868년, 제 2권, 282페이지에서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Q작사는 정당히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주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빈민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도구는 이민이다 라고. 애란의 벗이라면 누구나 전쟁(지주들과 케트브인의 소차지 농업가들 간의)이 오래 고는 것을 바랄 리가 없을 것이며, 더구나 전쟁이 차지 농업가들의 승리로써 끝나는 것을 바랄 리가 없을 것이다……그것(이 전쟁)이 급속히 끝나면 끝날수록, 애란이 급속히 목장의 나라(grazing country)가 되어 그 인구가 목장의 나라에 필요한 정도로 감소되면 될수록 모든 계급들을 위하여 그만큼 더 좋을 것이다》. 1815년 영국의 곡물법들은 대브리튼에로 곡물을 자유로 수출하는 독점권을 애란에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곡물 경작을 비호하였다. 1846년 곡물법들의 철폐와 함께 이 독점권은 물연 소멸되었다. 애란의 경작지의 목장으로의 전화, 차지 농장들의 집중, 소농민들의 구축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는 다른 모든 사정들은 도외시하더라도 이 한 사변만으로 충분하였다. 1815—1846년 기간에 애란의 토지의 비옥성이 찬양되고, 그 토지는 천연적으로 밀 재배에만 적합하다고 소리 높이 언명한 다음에, 이제 와서는 갑자기 영국의 농학자, 경제학자, 정치가들은 그 토지가 사토초 생산외에는 아무 데도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페옹스 드 라베르뉴씨는 해협 저 편에서 부산날게 이것을 되풀이하였다. 그 따위 어린애 같은 수작에 넘어가기 위하여는 라베르뉴 같은 《진지한》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된 애란인들은 대양 저 편에서 피너연 [아메리카에 일어 난 비밀
결사 애란 독립 기성 동맹원]으로서 일어 서고 있다. 그리하여 바
다의 로녀왕에 대립하여 젊은 거대한 공화국이 점점 더 위력
적으로 일어 서고 있다.

준엄한 운명이 로마인을 괴롭힌다
그리고 동북 살해의 죄가.

제 24장 소위 시초 축적

제 1 절 시초 축적의 비밀

우리는 화폐가 어떻게 자본으로 전화하는가, 자본은 어떻게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가 그리고 잉여 가치로부터 어떻게 자본이 증대되는가를 보았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은 잉여 가치를 전제로 하며, 잉여 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또한 상품 생산자들의 수중에 상당한 양의 자본 및 노동력의 현존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전체 운동은 악순환(惡循環)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 여기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축적(아담 스미쓰의《선행적 축적》《previous accumulation》),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출발점인 축적을 상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초 축적이 정치 경제학에서 노는 역할은 원죄(原罪)가 신학에서 노는 역할과 흡사하다. 아담이 사과를 따 먹자 그와 동시에 죄가 인류에게 떨어졌다. 이 죄의 기원은 그것을 옛날의 일화(逸話)로서 이야기함으로써 설명되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 일방에는 근면하고, 영리하며 특히는 절약적인 특출한 사람이 있었으며, 타방에는 게으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것까지도 탕진하여 버리는 몸편이 있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신학상의 원죄에 관한 전설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빵을 먹지 않으면 안될 숙명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경제학적 원리의 력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여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폭로하여 준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전자는 부를 축적하였으며 후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원리 이래 모든 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는 대중의 빈궁과 또 훨씬 오래 전에 로동하기를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증대하는 소수자의 부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유치한 이야기를 소유의 옹호를 위하여 빼면 티에르씨는 아직도 정치가다운 엄숙성을 가지고, 한때는 그렇게도 재치 있던 불란서인들에게 지리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소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아동 독본의 관점을, 모든 연령층과 모든 발전 단계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정당한 것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 력사에 있어서는 정복이라든가, 압제라든가, 강도 살인이라든가, 한 마디로 말하면 폭력이 큰 역할을 논다. 그러나 온화한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목가(牧歌)가 지배하였다. 정의와 《로동》은 옛날부터 유일한 치부 수단이었다, 물론 《금년》은 항상 배외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시초 축적의 제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이었을 지언정 목가적인 것 만은 아니다.

화폐와 상품은 생산 수단 및 생활 수단이 그런 것과 같이 결코 처음부터 자본인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자본으로의 전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전화 자체는 다음과 같은 점에 귀착되는 일정한 제 사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극히 상이한 두 종류의 상품 소유자들——일방으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증식하기 위하여 타인의 로동력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 생산 수단 및 생활 수단의 소유자와 타방으로는 자기 자신의 로동력의 판매자 따라서 로동의 판매자인

자유로운 노동자——이 매립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자라 함은 이중의 의미에서 즉 그들 자신이 노예와 농노 등등과 같이 직접 생산 수단에 속하여 있지도 않으며, 또한 자립적 경리의 농민 등등과 같이 생산 수단이 그들에게 속하여 있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들은 생산 수단으로 부터 자유로우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상품 시장의 이와 같은 분극 작용(分極作用)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기본적 제 조건은 조성된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노동의 실현 제 조건에 대한 소유가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자체의 다리로 서게 되자 마자, 그것은 이 분리를 다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증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관계를 조성하는 과정은 노동자를 그의 노동 제 조건에 대한 소유로부터 분리하는 과정, 즉 일방으로는 사회적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전화하며 타방으로는 직접적 생산자를 고용 노동자로 전화하는 과정 이외의 어떤 것일 수도 없다. 따라서 소위 시초 축적은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생산자의 역사적인 분리 과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이 《시초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생산 방식의 전사(前史)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봉건 사회의 경제적 구조로부터 나왔다. 후자의 해체는 전자의 제 요소를 해방시켰다.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는 그가 토지에 계박되지 않고 또 농노적으로 또는 봉건적으로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노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어느 곳으로나 그것을 가지고 가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동업 조합의 지배로부터, 장제(匠弟)와 장공(匠工)에 관한 동업

조합의 규약들로부터 그리고 또 구속적인 노동 규정들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생산자들을 고용 노동자로 전화하는 역사적 과정은 일방으로는 봉건적 예속과 동업 조합적 강제로부터의 그들의 해방으로서 나타나는 데 우리의 부르주아 역사 서술가들에 있어서는 이 측면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타방으로 이 새로 해방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 수단과 넓은 봉건적 제도에 의하여 제공된, 그들의 생존에 대한 일체의 보장을 박탈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 자신의 판매자로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이 수탈의 역사는 피와 불의 문' 자로써 인류의 년대기 속에 기입되어 있다.

산업 자본가라는 이 새로운 패권자들은 이번에는 동업 조합의 수공업적 장주(匠主)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의 원천의 소유자인 봉건 영주들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제패는 봉건 세력과 증오스러운 그의 특권에 대한, 그리고 또한 동업 조합과 이 동업 조합에 의하여 생산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자유로운 착취에 놓여진 질곡에 대한 승리적 투쟁의 성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의 기사들은 그들 자신 때문에 일어 난 것이 아닌 사건들을 리용함으로써만 검(劍)의 기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들은 로마의 해방민이 한때 자기의 보호주(patronus)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취한 것과 동일한 비렬한 수단에 의하여 올라 선 것이다.

고용 노동자와 자본가를 산생한 발전의 출발점은 노동자의 예속이었다. 이 발전 행정은 그의 예속 형태의 변동 즉 봉건적 착취의 자본주의적 착취에로의 전화에 있었다. 이 전화의 행정을 리해하기 위하여 그다지 멀리까지 소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초의 단서는 이미 14세기 및 15세기에 지중해 연안의 일부 도시들에서 산재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는 16세기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선 곳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농노 제도의 철

폐가 수행되고 있으며 또 중세기의 절정인 자유 도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고색이 창연하였다.

자본가 계급의 발생을 위한 공간으로 되는 모든 변혁들은 시초 축적의 력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인바 그 중에도 다수의 인간 대중이 돌연히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레타리아로서 노동 시장에 내던져지는 순간이 그러하다. 농촌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은 전체 과정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수탈의 력사는 나라가 다름에 따라 색채가 다르며, 또 순서가 다르고 역사적 시기가 다름에 따라 통과하는 계단이 다르다. 그것이 고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베로서 들려고 하는 것이다¹⁸⁹.

제 2 절 농촌 주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

영국에서는 농노 제도는 14세기 말에 사실상 소멸하였다. 당시에는 주민의 압도적 대다수¹⁹⁰ 그리고 15세기에는 그 보다

189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장 일찍이 발전한 이탈리아에서는 농노 관계의 해체도 가장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에서는 농노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시효권(時效權)도 보장되기 전에 해방되었다. 따라서 그의 해방은 즉시로 그를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레타리아로 전화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이 프로레타리아는 이미 로마 시대로부터 내려 오는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였다. 15세기 말 이래의 세계 시장의 혁명이 북부 이탈리아의 상업상 패권을 전복하였을 때 반대 방향에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도시의 노동자들은 대량적으로 농촌으로 구축되어 거기에서 원예적 방식으로 경영되는 소규모 경작에 미증유의 몰입을 가져 왔다.

190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의 전야를 창작하여 조출하지만 안락한 생활을 즐긴 소토지 소유자들은……당시에는 지금 보다 국민 중의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그들의 가족을 합하면 종인구의

더 많은 수가, 그들의 소유권이 어떠한 봉건적 간관 밑에 은폐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자립적 경리의 자유 농민들로써 구성되어 있었다. 비교적 대규모의 명주 직영지들에서는 종전에 그 자신이 농노였던¹⁾ 관리자들(bailiff)이 자유로운 차지 농업가에 의하여 구축되었다. 농업 고용 노동자는 일부분은, 자기의 여가를 대토지 소유자에게서 로동함으로써 리용한 농민들로써 구성되었으며, 일부분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소수의,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고용 노동자들의 독자적 계급으로써 구성되어 있었다. 후자도 또한 사실상은 자립 경리의 농민이었으니, 왜냐 하면 그들은 로임 외에 4에이커 또는 그 이상의 경작지와 오막살이를 분여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농민과 함께 공유지를 리용하였으니 거기에서 자기들의 가축을 사양하였으며 연료로서 신탄과 토란 등등을 채취하였다¹⁰¹⁾.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봉건적 생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다수의 신탄들 사이에 토지를 분

7분의 1 이상을 점하였을 것은 틀림 없는, 16만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의 작은 자유 보유지(freehold—자유 보유지는 완전히 자유로운 소유이다)의 경작에 의하여 생활하였다. 이불 소토지 소유자들의 평균 수입은……매년 60 내지 70파운드 스텔링으로 평가된다. 자기 자신의 소유지를 경작한 자의 수는 타인의 토지의 차지 농업가들의 수보다 컸다고 계산되었다》(맥클레이 《영국의 역사》, 제 10권, 런던, 1854년, 제 1권, 333—334페이지). 17세기의 최종 3분의 1 기간에 있어서도 아직 영국의 인구의 4/5는 농민이었다(동상서, 413페이지). 내가 맥클레이를 인용하는 것은 그가 역사의 체계적인 위조가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91 농노까지로 자기의 집에 붙은 명세한 토지의 소유자——비록 공납의 의무가 있는 소유자였지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곳(실렉지야)의 농민들은 농노이다》. 그러나 이 《농노》들도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렉지야인으로 하여금 공유지를 분할케 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이마르크에서는 이 분할이 대성공으로써 수행되지 않은 흔적은 없었다》(미라보 《프로섹야 왕국에 관하여》, 런던, 1788년, 제 2권, 125, 126 페이지).

합하는 것으로써 특징이 있다. 봉건 영주의 권력은, 모든 주권자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대 명단의 길이에가 아니라, 그들의 신민의 수에 립각하였는데 이 수는 자립적 경리의 농민의 수에 의존하였다¹⁹². 그러므로 영국의 토지는 비록 노르만인의 정복후에 거대한 배런령(barony)들로 분할되어 그 중 어떤 것은 하나만으로 900개의 구 앵글로색슨 귀족령(Iordship)을 포괄하는 것도 흔히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소 농민 경리로 뒤 덮여 있었으며 다만 여기 저기에 비교적 큰 영주 직영지가 끼여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5세기의 특징으로 되는 도시의 동시적 번영과 아울러 대법관 포르테스큐가 그의 저《영국 법의 찬미》에서 그렇게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민적 부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 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초를 창조한 변혁의 서쪽은 15세기의 최종 3분의 1 기간과 16세기의 최초 수십년 간에 연주되었다. 씨 제임스 스튜아드가 적절하게 말한 바와 같이 《도처에 소용도 없이 저택(邸宅)에 가득차 있었던》 봉건적 가신들의 집단이 해체됨으로써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테타리아 대중이 노동 시장에 내던져졌다. 왕권(王權)은 그 자체가 부르주아적 발전의 산물으로써 절대적 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가신들의 집단의 해체를 폭력적으로 촉진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해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봉건 영주 자신이 왕권과 의회에 가장 침세하게 대립하면서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토지로부터 그들을 축출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공유지를 탈취함

192 일본은 토지 소유의 순 봉건적 조직과 발전한 소농민 경리로써, 대개는 부르주아적 편견으로 서술된 우리의 모든 역사 서적들보다도, 구라파의 중세기의 훨씬 더 충실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중세기를 회생으로 하여《자유주의적》인 것은 아주 너무나 편리한 일이다.

으로써 비할 수 없을만큼 더 많은 프로페타리아트를 조성하였다. 이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 것은 영국에서는 특히 프란도르의 양모 다누과뚜라의 번영과 그에 따른 양모 가격의 등귀였었다. 봉건적 대전쟁들로 말미암아 낡은 봉건 귀족은 소멸되었으며 새로운 귀족은 시대의 아들이었으니 그에 있어서는 화폐가 모든 권력중의 권력이었다. 따라서 경작지의 양목장으로의 전환, 이것이 그들의 구호로 되었다. 해리슨은 그의 저서《영국의 서술, 홀린즈헤드의 년대기에 대한 서문》중에서 조농민의 수탈이 국토를 얼마나 파괴하였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대칭탈자들은 무엇을 꺼리질 것이 있으랴!》(《What care our Great Incroachers!》). 농민의 주택과 노동자의 오막살이들은 폭력적으로 헐리었거나 또는 허물어질 대로 방치되었다. 《만약——하고 해리슨은 말한다——매개 기사령(騎士領)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재산 목록과 비교하여 본다면 무수한 가옥과 조농민 경리가 소멸하였다는 것, 지금에 와서는 국토가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도시가 몇 개 번영하고 있지만 많은 도시가 몰락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양 목장을 위하여 파괴되었으며 영주의 저택 밖에 서 있지 않은 도시와 촌락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려면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옛 년대기의 한탄은 항상 과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산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이 동 시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대법관 포르레스큐와 토마스 모어의 저술들을 비교하면 15세기와 16세기 사이의 차이를 명료히 볼 수 있다. 쓴튼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노동 계급은 일체의 과도적 중간 단계도 없이 그의 황금 시대로부터 철의 시대로 전락한 것이다.

법법은 이 변혁에 당면하여 실색(失色)하였다. 법법은 아직 《국민의 부》 즉 자본의 형성과 인민 대중의 무자비한 착취 및 빈궁화가 모든 국가 정책의 극치(ultima Thule)로서 간주

되는 그러한 문명 수준에는 서 있지 않았다. 베이컨은 자기의 저서 헨리 7세 사(史)에서 말하고 있다——《당시(1489년) 경작지가 소수의 목부에 의하여 용이하게 관리되는 목장(양목장 등등)으로 전화되는 데 대한 원성이 증가하였다. 계약 기간을 유기(有期) 및 1년으로 하는 차지 농장들(요면의 일대 부분은 이 1년 계약에 의하여 살고 있었다)은 령주 직영지로 전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민은 피폐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시, 교회, 10분의 1세도 피폐하였다……이 폐해를 시정함에 있어서 당시의 왕과 의회의 지혜는 경탄할만하였다……그들은 인구를 소탕하는 공유지 횡탈(depouulating inclosures)과 이에 뒤따른 역시 인구를 소탕하는 목장 경영(depouulating pasture)에 대처하는 대책들을 취하였다》. 1489년의 헨리 7세의 한 조례 제 19조는 적어도 20에이커의 토지가 붙어 있는 일체의 농민 가옥의 파괴를 금지하였다. 헨리 8세 치세의 제 25년의 한 조례는 이 법령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 조례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다수의 차지 농장과 가축의 대군 특히 양의 대군이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대는 심히 중대되었으며 경작(tillage)은 크게 피폐하고, 교회와 가옥들은 파괴되었으며 놀랄만큼 다수의 언민 대중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령은 피폐한 농가의 전지의 재건을 명령하고 있으며 목물 경작지와 목장지간의 비율을 설정하는 등등을 하고 있다. 1533년의 한 조례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2만 4,000두에 달하는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그 소유 두수를 2,000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⁹³. 인민들의 원성, 헨리 7세 이래 150년에 걸치는, 소차지 농업가

193 토마스 모어는 자기의 저서 《유폴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과같은 나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유폴피아》, 로빈슨 역, 아버판, 런던, 1869년, 41페이지)

와 농민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한 립법도 다 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무성과의 비밀을 베이컨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무설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저서 《시민 및 도덕론》제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헨리 7세의 조례는, 그것이 일정한 기준의 농장과 농가를 조성한 점에 있어서, 즉 신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유족하며 노예적이지 아닌 상태에서 살게 하며 또 쟁기를 고용자의 수중에가 아니라 그의 소유자의 수중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to keep the plough in the hand of the owners and not hirelings》) 그러한 비율의 토지를 그 농장과 농가에게 보존한 점에 있어서, 심원하며 경탄할 만한 것이다》^{193a}.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요구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인민 대중의 노예적 상태이며, 그들 자신의 피고용자로서의 전화이며, 그들의 노동 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였다. 이 과도기에

193a 베이컨은 자유롭고 유복한 농민과 우수한 보병과의 관련을 설명하고 있다. 《유능한 사람들이 근심 없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차지 농장을 가지며, 왕국의 토지의 큰 부분을 요먼층 (yeomanry) 즉 젠틀맨 (gentlemen)과 오막살이'군(cottagers) 및 농부(peasants)과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로 확보한다는 것은 왕국의 권력과 위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놀랄만큼 중요한 것이었다……왜냐 하면 군대의 주력이 보병에 있다는 것은……모든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수한 보병을 만들기 위하여는 노예적으로 또는 가난하게가 아니라 자유스럽고 어느 정도 유족하게 자라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귀족과 젠틀맨들이 지나치게 중요시되는 일방, 농민들과 경작자들은 그들의 노동자나 농부에 불과하든가 또는 오막살이'군 즉 집 있는 결인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아마 우수한 기병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코 우수하고 확강한 보병은 가질 수 없을 것이다……이것은 불탄서와 이태리 및 기타 약간의 외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민이 귀족이 아니면 가난한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국의 보병대로 서서인이나 기타의 고용 군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 국민들은 인민은 많으나 병사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된다》(《헨리 7세의 치세, 켄벳트 저(잉글랜드)》1719년 판으로부터의 축자적 재판, 런던, 1870년, 308페이지).

법법은 또한 농촌의 고용 노동자의 오막살이에 최소한 4에이커의 토지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오막살이에 하숙인을 받아 들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1627년에는 제임스 1세의 치하에 프론트 밋의 로저 크록커라는 자는 프론트 밋에 있는 그의 직영지에 4에이커의 영구 부속지가 없는 오막살이를 세운 까닭에 처벌되었으며, 또 1638년에는 찰스 1세의 치하에 구법령들 특히 4에이커의 토지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칙명 위원회(勅命委員會)가 임명되었으며, 또 크롬웰은 런던 주변 4마일 이내에 4에이커의 부속지가 없는 가옥의 건축을 금지하였다. 18세기의 전반에 있어서도 농촌 노동자의 오막살이에 1 내지 2에이커의 부속지가 없을 때에는 제소를 하였다. 현재는 그의 오막살이에 작은 들이 붙어 있거나 또는 그의 오막살이에서 먼 곳에라도 근소한 토지를 빌릴 수 있다면 그는 다행이다. 《지주와 차지 농업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손을 잡는다. 오막살이에 붙은 수 에이커의 토지가 노동자들을 너무나 독립적이게 만들 것이다》¹⁹⁴.

인민 대중의 폭력적 수탈 과정은 16세기에 종교 개혁과 그에 따른 교회령의 방대한 절취에 의하여 무서운 새 자극을 받았다. 종교 개혁 당시에는 구교의 교회는 영국 토지의 많은 부분에 대한 봉건적 소유자였다. 수도원 등등의 억압은 그의 주민들을 프로레타리아트로 전화시켰다. 교회령 그 자체는 대부분 왕의 탐욕적 총신(寵臣)들에게 증여되었거나 또는 투기적인 차지 농업가와 도시 부르주아에게 헐 값으로 매도되었는데 이들은 구래의 세습적 소작인들(Untersassen)을 대량으로 축출

194 윌리엄 박사, 《공중 보건, 제 7차 보고, 1864년》, 런던, 1865년, 134페이지. 《(구법령에 의하여)분여되는 토지의 양은 지금에 와서는 노동자들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그들을 소차지 농업가로 전화시킬 만하다고 판단될 것이다》(조지 로버트스 《과거 수 세기에 있어서의 영국 남부 제주 인민의 사회사》, 런던, 1856년, 184, 185페이지).

하고 그들의 경영지를 통합하여 버렸다. 교회의 10분의 1세의 일부분에 대한 가난한 농민들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암암리에 몰수되었다¹⁹⁵. 엘리자베쓰 여왕은 잉글랜드를 순유(巡遊)한 후에 《도처에 빈민》(《Pauper ubique Jacet》)이라고 웅변했다. 여왕 치하 제 43년에 정부는 드디어, 빈민세를 실시함으로써 구휼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령의 작성자들은 그 이유를 표명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위반하고 어떠한 리유문(《preamble》)도 서두에 붙이지 않고 그것을 공포하였다》¹⁹⁶. 이 구빈법은 찰스 1세 치하 제 16년의 제 4 조폐에 의하여 영구한 것으로 선언되었으나 사실상은 1834년에 이르러 비로소 보다 강한 새로운 형태를 부여 받았다¹⁹⁷.

195 《교회의 10분의 1세의 일부분에 대한 빈민의 권리는 교대 법규에 의하여 직접 제정되어 있다》(J. D. 러켓트 《로동 인구의 과거 및 현재의 상태의 역사》, 런던, 1846년, 제 2권, 804, 805페이지).

196 윌리암 코벳트 《신교적 종교 개혁의 역사》, 제 471절.

197 이에 있어서 신교적 《정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는 개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잉글랜드 남부의 약간명의 지주들과 부유한 차지 농업가들은 구수(鳩首) 토의를 하여 엘리자베쓰의 구빈법의 정당한 해석에 관한 10개조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의 저명한 법률가인 고급 변호사 스넛지(후에 제임스 1세 치하에서는 판사)의 의견을 물었다. 제 9조의 질문: 《우리 교구(教區)내의 약간명의 부유한 차지 농업가들은 본 조폐 실시상의 모든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명안을 안출하였다. 그들은 교구내에 감옥을 건설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감옥에 감금되기를 바라지 않는 빈민들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구제를 거부할 것이다. 다음에 만약 본 교구의 빈민을 입자할 의향이 있는 자는 그 빈민을 우리에게서, 인수하려는 최저 가격을 지정한 봉인된 신청서를 일정한 기일에 제출할 것이라는 광고를 근방에 하여야 한다. 이 안의 작성자들은 근방의 주들에게는 노동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노동하지 않고도 생활할 만한 《so as to live without labour》차지 농장이나 배를 입수할 재산이나 신용이 없는 자가 있을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돌림 없이 교구에 대하여 대단히 유리한 신청을 할 생각이 날지도 모른다. 만약 이 계약자의 관리하에

종교 개혁의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들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아니었다. 교회령은 전통적 토지 소유 관계의 종교적 방재(防塞)로 되어 있었다. 이 방재가 무너짐에 따라 그 토지 소유 관계도 더는 유지될 수 없었다.¹⁹⁸

17세기의 마지막 수십년까지도 아직 독립적 농민층인 요

서 빈민들 중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죄는 고용주 측에 있게 될 것이니 왜냐 하면 교구는 이 빈민들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구하는 것은 현재의 조폐가 이와 같은 종류의 분별 있는 대책(prudential measure)을 허용하지 않지나 않을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주와 빈점 주들의 이외의 모든 자유 보유자들(free holders 자유 소토지 소유자들)도 우리에게 가담해서, 한 개의 법률안 즉 빈민들을 감옥에 감금하며 강제 노동에 시키는 것을 허용하며 그리하여 감금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부조도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자기들의 하원 의원들을 주동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빈곤한 자들이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will prevent persons in distress from wanting relief》)고 우리는 기대한다》(R. 블레이크이《교대로부터의 정치 문헌의 역사》, 런던, 1855년, 제 2권 84, 85페이지).——스코틀랜드에서는 농노제의 폐지는 잉글랜드에서 보다 수세기 늦어서 실시되었다. 1698년에 있어서도 켈른의 프렛처는 스코틀랜드의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스코틀랜드에서 절인수는 20만 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주의상으로 공화론자인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이전의 농노제의 구상태를 부활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계를 독자적으로 보장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든도 《빈민의 상태》 제 1권 제 1장, 60, 61페이지에서 말한다——《농노제적 제 관제의 축소는 불가피적으로 빈민을 낳게 하는 듯하다. 마누팩처라와 상업은 우리 나라의 빈민들의 진정한 양친이다》. 이든과 우에서 인용한 스코틀랜드인인 《주의상 공화론자는》는 다만 농민을 프로테라리아 또는 빈민으로 만든 것은 농노제의 폐지가 아니라, 그들의 토지 소유의 폐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수탈이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 볼란서에서는, 영국의 구빈법에 해당하는 것은 1571년의 무령의 법령과 1656년의 칙령이다.

198 로저스 씨는 당시 신교 정통파의 중심이었던 옥스포드 종합 대학의 정치 경제학 교수이었지만 《농업사》의 서문에서 종교 개혁에 의한 인민 대중의 구혼민화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는 차지 농업가 계급보다 다수이었다. 그들은 크롬웰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으며, 맥콜레이의 고백에 의하더라도 주정꾸머기이며 구린내 나는 향신(鄉紳)들이나, 그들의 시종' 군인 농촌 승려들——버림을 받은 주인의 《애첩》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에 비하면 유리한 상태에 있었다. 또 농촌 고용 노동자들까지도 공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이었다. 1750년 경에는 요먼층은 소멸되고¹⁹⁹ 18세기의 마지막 수십년 간에는 농민들의 공유지적 소유의 일체 흔적이 소멸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농업 혁명의 순(純) 경제적인 동기는 도외시한다. 우리는 이 혁명의 폭력적 공간만을 문제로 한다.

스튜아트 왕조의 부흥시에는 토지 소유자들은 횡탈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행하였는데, 대륙에서는 어디서나 법적 우회 없이 수행되었다. 그들은 토지 관계의 봉건적 제도를 철폐하였다. 즉 국가에 대한 급부(給付)의무를 벗어 버렸으며, 농민층과 기타 인민 대중에 대한 과세에 의하여 국가에 《배상》하였으며, 그들이 봉건적 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근대적 사유권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거주법(《laws of settlement》)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정의 변화를 참작하면 따따르인 보리스 고두노브의 칙령이 로씨야 농민층에게 준 것과 동일한 영향을 영국의 농촌 노동자들에게 주었다.

199 《준남작 씨 T·C·법버리에게 보내는 편지. 식량의 고'가에 관하여. 서포크의 한 신사의 저》, 입스위치, 1795년, 4페이지. 대차지 농장 제도의 광신적 옹호자인 《식량의 현재 가격과 농장의 규모간의 연관에 대한 연구》(런던, 1773년)의 저자까지도 그 저서의 139페이지에서 말한다——《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진실로 유지한 일군(一群)의 사람들인 요먼층을 상실한 것을 개탄하여 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가 지금에는 독점적 지주의 수중에 있으며 그것이 소차지 농업가 즉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마다 곧 불타워 가는 가신(家臣)이나 다름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차지권을 소유하는 소차지 농업가에게 임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유감으로 하는 바이다》라고.

《명예 혁명》(Glorious Revolution)은 오랜지공(公) 위리암 3세²⁰⁰와 더불어 지주적 및 자본가적 화식가(貨殖家)들을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다만 조심스럽게 해오던 국유지의 철취를 방대한 규모로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다. 국유지는 증여되거나 헐값으로 매도되거나 또는 직접적 횡탈에 의하여 사유지에 합병되었다²⁰¹. 이 모든 것은 법적 형식을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사기적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지는 교회로부터 약탈한 토지——그것이 공화 혁명 당시에 다시 상실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와 함께 영국 과두 지배층의 오늘의 귀족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²⁰² 부르주아적 자본가는 이 처사를 비호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토지를 자유 거래의 대상으로 전화하며, 대규모 농업 생산의 영역을 확대하며, 그들에 대한 농촌으로부터의 무일몰의 자유로운 프로테타리아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등등을 위하

200 이 부르주아적 영웅의 도덕적 풍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1695년에 매란의 광대한 토지가 오르니 부인에게 증여된 것은 국왕의 중애가 얼마나 지극하였으며 부인의 제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데 대한 공공연한 증거이다……오르니 부인의 고'가한 봉사는 아마도 주악한 사랑의 봉사였을 것이다》(대영 박물관에 있는 스톤 수고집 중의 제 4224호. 이 수고의 표제는 《서머스, 헬리팩스, 옥스포드, 제크페타리 버는 등등으로부터 슈르스버리 공(公)에게 보낸 서한 원본 중에 나타난 위리암 왕, 선더랜드 등의 성격과 행동》으로 되어 있다. 실로 진기한 일이다).

201 《일부분은 매도에 의하여 일부분은 증여에 의하여 왕령을 비법적으로 양도한 것은 영국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장을 형성하는 것이며……국민에 대한 일대 사기(gigantic fraud on the nation)로 되는 것이다》(F·W·뉴만 《정치 경제학 요론》, 런던, 1851년, 129·130페이지). {오늘의 영국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소유를 획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의 구귀족. 귀족에게 은혜를 입은 자의 저》(런던, 1879년)를 참조할 것이다——F·앵겔스}

202 메컨대 《자유주의의 산세》(《the tomitt of liberalism》)인 존 텃셀정을 후손으로 가지는 베드포드 공가(公家)에 관한 E·버크의 소책자를 참조할 것이다.

여서였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토지 귀족은 은행벌(銀行閥)과, 방금 부화(孵化)한 대금융업자와, 그리고 당시 보호 관세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던 대마누팍뚜라 소유자들의 자연적 동맹자이었다. 영국 부르주아지는 서전(瑞典)의 도시 부르주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다. 다만 후자는 오히려 자기의 경제적 보루인 농민층과 손을 잡고 국왕들이 과두 지배층으로부터 왕명을 폭력적으로 탈환하는 것을(1604년부터 이래의, 후에는 칼 10세 및 칼 11세의 치하에서) 지지하였지만.

공유지 소유는 방금 고찰한 국유지 소유와는 판이한 것으로서 봉건주의의 덮개 밑에 존속한 고대 게르만적 제도이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의 폭력적 횡탈은 대개는 경작지의 목장으로의 전화를 수반하면서, 15세기 말엽에 시작되었으며 16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과정은 개별적 개인들의 폭행의 형태로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정은 150년 간이나 두고 항쟁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세기에는 법률 자체가 인민의 토지의 랍탈 도구로 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차지 농업가들이 '그 외에 또 자기의 독립적인 소소한 사'적 방법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²⁰³, 이 랍탈의 의회적 형태는 《공유지 울치기법》(《Bills for Inclosures of Commons》) 환언하면 지주가 인민의 토지를 사유지로서 자기 자신에 증여하는 법령, 인민 수탈의 법령이다. 썸 F·M·이든은 공유지를 봉건 명주 대신에 등장한 대

203 《차지 농업가들은 오막살이' 군졸이 그들 자신외에는 어떠한 짐승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구실은 만약 그들이 개축이나 가금을 가지게 된다면 자기들의 목간으로부터 사료를 훔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막살이' 군졸을 근면하게 하면 그들을 빈곤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차지 농업가들이 이와 같이 하여 공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횡취한다는 것이다》(《황무지 울치기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연구》, 런던, 1785년, 875페이지).

토지 소유자의 사유지라고 설명하는 자기의 교활한 변호사적 변호론을, 그 자신이《공유지 울치기에 관한 일반적 의회 조례》를 요구하며, 따라서 그것을 사유지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의회적인 구태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타방으로는 수탈된 빈민에 대한《손해 배상법》을 법법부에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전복하고 있다.²⁰⁴

독립적 요면 대신에 1년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임차하는 소차지 농업가이며, 계속적이며 지주의 마음 대로 좌우되는 인간의 집단인 임의(任意)차지 농업가(tenants-at-will)가 등장하는 동시에 특히 공유지의 체계적 절취는 국유지의 약탈과 아울러, 18세기에 자본 농장²⁰⁵ 또는 상인 농장²⁰⁶이라고 칭한 대규모 차지 농장의 형성을 조장하였으며 농촌 인구의 프로테타리아트로의 전화, 공업을 위한 그들의《해방》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아직 19세기에서와 동일한 정도로는 국민적 부와 인민적 빈궁과의 동일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 문헌에서의《공유지 울치기》에 관한 가장 격렬한 논쟁은 그 때문이다. 나의 수중에 있는 방대한 자료중에서 약간씩 개조들만 인용하자,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상태를 특히 생생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격분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허트포드셔의 많은 교구들에서는 평균 50 내지 150 에이커나 되는 24개의 농장이 3개의 농장으로 병합되었다》.²⁰⁷ 《노셀프론샤 및 레스

204 이튼 《빈민의 상태》, 서문.

205 《Capital farms》《곡분(穀粉) 거래 및 곡물의 높은 가격에 관한 두 서한. 한 실업가의 저》, 런던, 1767년, 19, 20페이지).

206 《Merchant-farms》(《천재의 식량 가격이 높은 제 원인의 연구》, 런던, 1767년, 11페이지 주). 너명(譯名)으로 출판된 이 우수한 저서의 필자는 나세니엘 포스터 대사이다.

207 로머스 라이크 《대규모 농장의 독점에 관하여 대중에 호소함》, 1779년, 2, 3페이지.

터샤에서는 공유지 울치기가 대단히 성행하였으며 울치기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령지들은 대부분 목장으로 전화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1,500에이커나 경작되었던 많은 령지들이 지금은 50에이커도 경작되지 않고 있다……이전의 주택, 곡간, 외양간 등등의 폐허는 이전의 주민들의 유일한 흔적이다. 《많은 곳들에서는 백호의 집과 가족들이……8 내지 10으로 감소되었다……15년 또는 20년 전부터 비로소 울치기가 진행된 대부분의 요구들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울치기 전에 토지를 경작한 토지 소유자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이다. 이전에는 20—30명의 차지농업가와 같은 수의 비교적 작은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주민들의 수중에 있었던 대령지들이 최근 울치기되어 4.5인의 부유한 목축업자에 의하여 횡취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전자들은 모두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들이 고용하고 먹여 살린다수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기들의 점유지로부터 축출되었다》.²⁰⁸ 울치기의 구실하에서 린접한 지주들에 의하여 병탄된 것은 휴경지만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을 자신에 의하여 경작되었던가 또는 공동체에 일정한 지분을 하고 임차하는 자들에 의하여 경작되었던 토지도 흔히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울치기되지 않은 전야와 이미 개간된 토지의 울치기를 념두에 두고 말한다. 울치기를 옹호하는 저술가들까지도 울치기가 대규모 농장의 독점을 강화하며, 생활 수단의 가격을 높이며, 인구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은 황무지의 울치기도 빈민으로부터 그의 생활 수단의 일부를 약탈하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나치게 큰 농장을 더욱 크게 만든다》.²⁰⁹ 프라이스 박사는 말한다.——《토지가

208 애딩튼 대사 《개방지 울치기의 찬부 이유에 대한 연구》, 런던, 1772년, 37—43페이지의 이곳 저곳.

209 R·프라이스 박사 《보류 지분에 관한 제 고찰》, 제 6판, W·모간 편집, 런던, 1805년, 제 2권, 155페이지. 포스터, 애딩튼, 켈트,

소수의 대규모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들어 가게 되면, 소차지 농업가들(전에 동 박사가 특징지은 바에 의하면 이들은 <그들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의 생산물에 의하여, 그리고 또 공유지에서 키우는 양이나 가금, 돼지 등등에 의하여 그들 자신 및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따라서 생존 수단을 살 필요가 거의 없는 다수의 소소유자 및 소차지 농업가>이다)은 타인을 위한 로동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로 전화한다……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강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로동이 수행될 것이다……도시와 마누팩투라는 강성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일터를 구하는 보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로 몰려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농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며 또한 실제로 다년래 우리 왕국에서 그것이 조성하고 있는 결과이다》²¹⁰라고, 그는 울치기의 총결과를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전체로 보아, 하층 인민 계급의 상태는 거의 모든 점에서 악화되었으며, 소토지 소유자 및 소차지 농업가는 일용 노동자와 상용 노동자의 처지로 떨어졌으며, 동시에 생활 유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²¹¹. 실제로 공유지의 횡취와 이에 수반한

프라이스 및 제임스 앤더슨의 것을 읽고 이것을 맥컬럭의 목록서 《정치경제학 문헌》(런던, 1845년)중의 그의 가련한 아침적 잡담과 비교하여 보라.

210 R. 프라이스 박사 동상서, 147페이지.

211 동상서, 159페이지. 이것은 고대 로마를 상기시킨다. 《부자들은 불분할지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이 토지들을 다시 떼앗기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며 그리하여 부근에 있는 빈민들의 땅 조각들을 합치기에 구입하든가 폭력으로 탈취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개개의 전야가 아니라 광대한 땅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노예를 경작과 목축에 사용하였으나 왜냐 하면 자유민은 병역 복무를 위하여 떼앗기며 그들에게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에는 병역으로도부터 면제되며 있었기 때문

농업 혁명은 농업 노동자의 상태에 급격한 영향을 주어서 이른 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그들의 로임은 1765년과 1780년 간에 최저한 이하로 저하하여 공적 빈민 구제에 의하여 보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의 로임은 《겨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킬 따름이었다》고.

이제는 잠시 울치기(inclosures)의 옹호자이며 프라이스 박사의 반대자인 한 사람의 말을 들어 보자. 《개방지에서 자기의 로동을 랑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만약 소농민들을, 타인을 위하여 로동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으로 전화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량의 로동이 류출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전화된 농민은 물론 이에 속하지 않는다)이 틀림 없이 희망할 리익일 것이다……그들의 결합된 로동이 한 개의 차지 농장에서 적용된다면 보다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누콕뚜라를 위한 잉여 생산물이 조성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굶구덩이의 하나인 마누콕뚜라의 수가 생산된 곡물 량에 비하여 증가하게 될 것이다》²¹².

에 안심하고 번식할 수 있으며 많은 자식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큰 리익을 주었다. 이리하여 강력한 자가 일체의 부를 자기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전 국토는 노예로써 충만되어 있었다. 이태리인은 이와는 반대로 빈궁, 조세, 병역 복무로 시달리며 그 수가 점점 더 감소되고 있었다. 평화의 시절이 태도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니 왜냐하면 부자들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유민 대신에 노예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피안 《로마의 내란》, 제 1부, 제 7장). 이 구절은 디키니우스 법전 이전의 시대에 관한 것이다. 로마의 평민의 몰락을 그렇게도 심하게 촉진한 병역 복무는 칼 대제가 독일의 자유 농민의 봉건적 예능 및 농노제로의 전화를 촉진시킨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212 《식량의 현재 가격과 농장의 규모간의 편편에 대한 연구》, 124, 129페이지. 경향에 있어서는 반대이지만 이와 유사한 물의로서는 다른 저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노동자들은 그들의 오막살이로부터 축

《신성한 소유권》에 대한 가장 과립치한 모독도, 인격에 대한 가장 란포한 폭행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경제학자들은 스토아 학파적인 냉정한 심정으로써 고찰하는데, 이 표본을 우리에게 보이며 주고 있는 것은 개중에도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토리당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박애가》인 씨 F·M·이든이다. 15세기의 최후 3분의 1시기로부터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폭력적 인민 수탈에 수반한 전 일련의 략탈 행위, 잔인한 행동 및 인민에 대한 압제도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안이한》결론적 사고로 내몰 따름이다——《경작지와 목장 사이에는 적당한 비율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4세기의 전 기간 및 15세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농경지 2,3에이커 지어는 4에이커에 대하여 목장 1에이커이었다. 16세기 중엽에는 이 비율이 변동하여 경작지 2에이커에 목장 2에이커, 후에는 경작지 1에이커에 목장 2에이커, 드디어는 경작지 1에이커에 목장 3에이커라는 적당한 비율에 도달하였다》.

19세기에는 물론, 농민과 공유지 사이의 판련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졌다. 근년의 일은 조사하고 1801—1831년 사이에 농촌 주민으로부터 략탈하여, 지주들로써 구성된 의회에 의하여 지주들에게 증여된 351만 1,770에이커의 공유지에 대하여 농촌 주민은 언제 한 톨의 배상이라도 받은 일이 있는가?

끝으로, 농민으로부터의 토지의 최후의 대수탈 과정은 소위 《소유지 청소(淸掃)》(《Clearing of Estates》——사실에 있어서는 소유지로부터의 인간의 청소이다)이다. 우에서 고찰된 일체의 영국식 수탈 방법은 《청소》에 있어서 그의 절정에 달한

출되어 일터불 구하여 도시에서 내몰린다.——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잉여 생산물이 얻어지며 그리하여 자본이 증가한다》(《국민의 화(禍)》, 제 2권, 런던, 1843년, 14페이지).

다. 근대적 상태를 고찰한 전편(前篇)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될 독립적 농민들이 더는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토지로부터의 오막살이의 청소까지 실시되어 농업 노동자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 자체 우에서는 자기의 거주를 위한 공간을 이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에서의 《소유지 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근대적 랑만 문학의 성지(聖地)인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만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이 과정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의 체계적 성격, 그것이 단번에 수행되는 규모의 거대성(애란에서는 지주들이 수 개의 촌락을 일시에 청소해 버리는데 이르렀는데, 스코틀랜드 고지에서는 독일의 공국(公國)만한 크기의 지면이 일시에 청소된다), 그리고 끝으로 수탈되는 토지 소유의 특수한 형태이다.

스코틀랜드 고지의 켈트인은 씨족들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매개 씨족은 그들이 정착하는 토지의 소유자이었다. 씨족의 대표자인 그의 수장(首長) 또는 《그레이트 맨》(Great man)은 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데 이것은 영국 여왕이 전 국토의 명의상 소유자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이다. 영국 정부가 이 《그레이트 맨》들 간의 내전과, 스코틀랜드 저지의 평야에 대한 그들의 부단한 침입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을 때 씨족의 수장들은 그의 구래의 략탈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형태를 바꾸었을 따름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로써 그들의 명의상의 소유권을 사적 소유권으로 전화시켰으며, 씨족 성원——이들의 출혈이 이제는 더 그들에게 필요치 않은——이 그들의 치부 기도에 반항함에 봉착하자 공공연한 폭력으로써 씨족 성원들을 토지로부터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일한 리유로써 영국 왕은 능히 그의 신민을 국토로부터 해중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뉴만 교수는 말하고 있다²¹³. 스코틀랜드에서 왕위 참망자의 최후의 반란 직후

213 F·W·뉴만 《정치 경제학 요론》, 런던, 1851년 132페이지.

에 개시된 이 혁명의 초기 단계에 대하여는 씨 제임스 스튜아트²¹⁴ 및 제임스 앤더슨²¹⁵의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토지로부터 축출된 게일인(스코틀랜드의 켈트인)은 동시에 국외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클래스코 기타의 공장 도시들로 몰아 넣기 위한 것이었다²¹⁶.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방법의, 실패로서²¹⁷, 여기에서는 서저랜드

214 스튜아트는 말한다——《이 토지의 지대(이 지대라는 경제적 범주를 그는 씨족 수장에게 납부하는 그 신하들[taskmen]의 공납에 그릇 적용하고 있다)는 토지 규모에 비하면 극히 근소하지만, 한 차지 농장이 부양하는 인원수에 관하여 말한다면 아마도, 스코틀랜드 고지의 일편의 토지는 가장 풍요한 지방의 동일 가치의 토지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제임스 스튜아트 저작집》, 그의 아들 씨 제임스 스튜아트 장군의 편찬, 런던, 1801년, 제1권, 제 16장, 104페이지).

215 제임스 앤더슨 《국민적 산업 정신의 고무 대책들에 관한 고찰 등등》, 에딘버러, 1777년.

216 폭력적으로 수탈된 사람들은 1860년에 하위의 약속 밑에 카나다로 수출되었다. 그들 중의 일부는 산과 부근 섬에 도주하였다. 그들은 경찰의 추격을 받아 격투 끝에 빠져 나갔다.

217 A·스미쓰의 주석자인 버캐넌은 1814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 고지에서는 낡은 소유 제도는 날마다 폭력적으로 변혁되고 있다……지주는 영대(永代) 차지 농업가(이 범주도 또한 여기에서 그릇 적용되고 있다)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토지를 최고 입찰자에게 제공하며, 이 최고 입찰자가 토지의 개량자(improver)라면 지주는 곧 새로운 경작 체제를 도입한다. 종전에 소농민들로서 덮여 있었던 토지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생산물 당에 상응하는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개량된 경작과 증가된 지대의 신 체제하에서는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가급적 많은 생산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무용하게 된 일체의 일'군들이 해고된다……향로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공장 도시에서 생활 방법을 찾는다. 운운》(메이비드 버캐넌 《A·스미쓰의 국부론……에 관한 고찰》, 에딘버러, 1814년, 제 4권, 144페이지). 《스코틀랜드의 거족들은 마치도 잡초를 뽑아 버리듯이 농민 가족을 수탈하였으며, 또한 인도인이 복수를 위하여 야수의 소굴을 취급하듯이 촌락과 그의 주민을 취급하였다……인간이 양 가족이나 또는 양 다리 고기나 지어는 그 보다 값 없는 것들과 교환된다……몽고인이 중국 북부 지방에 침입하였을 때 그들의 회의에서 주민을 소탕하고 그들

녀공(女公)의 《청소》를 들면 충분하다. 경제학에 조예가 있는 이 인물은 공위(公位)에 올라 서자 곧 경제적 근본 치료책을 취하여, 증전의 유사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 수가 이미 1만 5,000명으로 감소되어 있었던 전체 주를 목장으로 전화시킬 것을 결심하였다. 1814년부터 1820년까지에 이들 1만 5,000의 주민, 약 3,000세대의 가족은 체계적으로 축출되고 근절되었다. 그들의 모든 촌락은 파괴되고 소각되었으며 모든 전야는 목장으로 전화되었다. 영국 병사들이 집행을 위하여 파견되었으며 토착민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 로파는 자기의 오막살이로부터 떠나가기를 거부하여 불길 속에서 타 죽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 귀부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씨족의 소유에 속하였던 79만 4,000에이커의 토지를 자기 것으로 하였다. 그는 추방된 토착민에 대하여 매 가족당 2에이커씩, 약 6,000에이커의 토지를 해변에 배당하였다. 이 6,000에이커의 토지는 종래에 황무지였으며 소유자에게 어떠한 수입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이다. 녀공은 그의 고귀한 심정에서 수세기 동안 그의 일문을 위하여 피를 흘려 준 씨족 성원들에게 에이커당 평균 2실링 6펜스의 지대로 소작을 주었다. 씨족민들로부터 략탈한 전체 토지를 그는 29개의 대규모 차지 양 목장으로 분할하였는데 그것의 각개에는 대개는 잉글랜드인 농부 단 한 가족이 거주하였을 뿐이다. 1825년에는 벌써 1만 5,000명의 게일인이 13만 1,000두의 양으로서 표제되어 있었다. 토착민 중 해변에로 내던져진 부분은 어로에 의하여 생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양서 동물(兩棲動物)로 되어, 어떤 영국 저술가가 말한 것처럼, 반은 육상에서, 반은 수상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러나 수목을

의 토지를 목장으로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스코틀랜드 고지의 많은 지주들은 자국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조지 앤서 《제 국민의 인구에 관한 연구》, 런던, 1818년, 215, 216페이지).

합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의 절반이 보장되었을 뿐이다²¹⁸.

그러나 선량한 게일인들은 씨족의《그레이트 맨》에 대하여 산악(山嶽) 낭만적 숭배를 하여 온 대'가로서 한층 더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고기 냄새가 그레이트 맨들의 코를 찔렀다. 그들은 거기에 돈벌이가 있는 것을 알아 채리고 그 해변을 런던의 대어상들에게 임대하였다. 게일인들은 다시금 추방되었다²¹⁹.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양 목장의 일부가 이번에는 수렵장으로 재전환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에는 참다운 산림은 없다. 거족들의 령장에 있는 사슴은 체질로 보아 가족이나 다름 없으며 런던시 참사회원들과 같이 살찌고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고귀한 정열》의 최후의 도피장이다. 1848년에 서머스는 말하고 있다——《스코틀랜드 고지에서는 산림면적이 대단히 확장되었다. 가익크의 이쪽에는 그렌페시의 새 산림이 있으며 저쪽에는 아드버리키의 새 산림이 있다. 거기에는 또한 최근에 일으켜진 광대한 황무지인 블랙마운트가

218 서저랜드의 현 여공이 아메리카 공화국의 흑인 노예에 대한 자기의 동정을 표시하기 위하여——영국의 모든《고귀한》심장이 노예 소유자를 위하여 고동치고 있었던 미국의 공민 전쟁시에는 다른 귀부인들과 더불어 그는 신중하게도 이 동정에 대하여서는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앵글 뚝스 캐빈》의 저자, 비처 스트 부인을 런던에서 호화롭게 환대하였을 때, 나는 《뉴욕 트리뷴》지에서 서저랜드의 노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F. 왓스, F. 앵겔스 전집, 로씨야어 판, 제 9권, 80페이지](나의 이 논문의 일부를 케이리는 자기의 저《노예 무역》, 필라델피아, 1753년, 202, 303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다). 나의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한 신문에 전재되어 이 신문과 서저랜드에 대한 아첨자들과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219 이 어물 거래에 관하여 재미 있는 이야기가 데이비드 어커트 씨의《지첩(紙帖)신종서》중에 있다.——낫소 W. 시노어는 우에서 인용한 유저에서《서저 랜드사에서의 처사를 유사 이때 가장 온정 있는 청소 clearings》의 하나로서 특징 짓고 있다(《애환에 관한 일지. 제과 및 수필》, 런던, 1868년).

놓여 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아버딘 부근으로부터 어번의 암초(岩礁)에 이르기까지 지금에는 길게 뻗친 산림 지대가 있으며, 고지의 다른 지방에는 록크 아르케이그, 글렌게리, 글렌모리스튼 등등의 새로운 산림이 있다……토지의 양목장으로의 전화는……계일인들을 보다 척박한 토지에도 몰아냈다. 지금에 와서는 사슴이 양을 몰아 내기 시작하고 계일인들을 일층 비참한 궁핍에 몰아 넣고 있다……사슴 수렵림^{219a}과 인민은 공존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앞으로의 4세기 동안에, 수렵장이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과거 4세기 동안에 장성한 정도로 장성된다면 한 사람의 계일인도 그의 향토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고지의 지주들 간의 이러한 운동은 부분적으로는 유행, 즉 귀족적인 패감, 수렵 도락 등등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들은 오직 리득에 착안하고 사슴 거래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렵장으로 된 일필의 산지(山地)는 많은 경우에 양목장으로 된 동일한 지면보다 비할 바 없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산양터를 구하는 애호가들은 다만 돈 주머니가 허용하는 대로 값을 낸다……스코틀랜드의 고지가 당한 고통은 잉글랜드가 노르만 왕들의 정책에 의하여 당한 그것에 못하지 않게 혹심한 것이었다. 사슴은 더욱 자유로운 놀이터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협착한 지역으로 몰리어 갔다……인민의 자유는 하나 하나씩 빼앗기었다……그리고 또 억압은 나날이 증대하여 간다. 주민의 《청소》와 구축은, 아메리카나 오스트랄리아의 황야에서 수목과 수풀을 치어 없애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확고한 원칙으로서, 농업상의 하나의 필연성으

219a 스코틀랜드의 《사슴 수렵림(Deer forests)》에는 단 한 포기 나무도 없다. 벌거 벗은 산에서 양을 몰아 내고 그 대신에 사슴을 몰아 넣고 이것을 《사슴 수렵림》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조림(造林)이란 말은 안된다!

로서 지주들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 처사는 조용하게 사무적으로 수행된다》²²⁰.

220 로버트 서머스 《고지로부터의 서한, 또는 1847년의 기근》, 런던, 1848년, 12—28페이지의 이곳 저곳. 이 서한은 최초 《타임스》지에 게재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1847년의 기근인들의 기근을 그들의 파잉 인구로부터 설명하였다. 여하튼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소유지 청소》(《Clearing of Estates》) 즉 독일에서 말하는 《바우에른레겐》(《Bauernlegen》)은 30년 전쟁 후에 특히 성행하였으며 1790년에도 자크센 선거후국(選舉侯國)에서 농민 폭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주로 동부 독일에서 성행하였다. 프로쾰야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가 비로소 농민에게 소유권을 보증하였다. 슐레겐의 정복후 그는 지주들을 강제하여 오락살이, 곡간 등등을 재건케 하였으며, 농민의 소유지에 가축과 도구들을 구비케 하였다. 그는 그의 군대를 위하여 병사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의 국고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필요로 하였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프리드리히의 재정 문란과 전제주의, 관료주의 및 봉건주의의 혼합 정부 밑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유쾌한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열렬한 찬미자인 미라보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아마는 북부 독일 농민의 주요한 재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불행하게도 그것은 극단한 빈궁을 방지하는 수단일 따름이지 행복의 원천은 아니다. 농민은 직접세, 궁정(宮廷)봉사, 각종 부역으로 말미암아 파멸 당하며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간접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그의 불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그는 자기의 생산물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 및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보다 ‘협’가로 제공하여 주는 상인으로부터 구매하여도 안된다. 이 모든 사정물은 조금씩 조금씩 그를 파멸시키며 그가 방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직접세조차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방적업은 그의 처자와 남녀 하인들 및 그 자신의 힘을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 보조 재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조 재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한가! 여름에는 죄수처럼 일하며, 경작과 수확시에는 힘든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홉시에 자고 2시에 일어 난다. 겨울에는 좀더 휴식하여 체력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확물 중에서 세금을 물기 위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인도하고 나면, 그에게는 농장과 종자용의 곡물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방적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나마 최대의 힘을 다하여, 그러므로 겨울에는 농민은 12시나 1시에 자고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 나든가 또는 9시에

(주해 220 계속)

자고 2시에 일어 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매일 그러하다. 이와 같은 과도한 불면과 노동은 인체를 소모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도시에서 보단 훨씬 더 일찍기 눕는다》(《미라보 <프로썬야 왕국에 관하여>, 제 3권, 212페이지 이하).

제 2판 추가 1866년 4월, 우에서 인용한 로버트 서머스의 저서가 발간된지 18년 후에 레온 레비 교수가 기술 협회에서 양 목장의 수렵장화에 관하여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는 스코틀랜드 고지에서의 황폐화의 진전을 설명하고 있다. 개중에도 그는 말한다——《인구 감소와 순전한 양 목장으로의 전화는 지출이 없이 수입을 얻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였다…… 양 목장 대신에 사슴 수렵림이라는 것이 그지에서 보통 있는 변화로 되었다. 일찍 양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인간이 구축된 것 처럼, 야수들에 의하여 양이 구축되는 것이다……포아파샤의 달하우시 백작령으로부터 존 오그로쓰에 이르기까지 한때도 산림지를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다……이 산림의 대부분에서는 여우, 살기, 너구리, 족제비, 산토끼 등등이 살고 있다. 최근에는 집토끼, 다람쥐, 쥐도 들어 왔다. 폐외적인 비옥도와 넓이를 가진 목장으로서 스코틀랜드 통계에 나타난 방대한 지대가 이제 와서는 일체의 경작과 개량으로부터 배제되어, 전적으로 소수인의 수렵 오락——그나마 이것은 1년 중 짧은 기간 밖에 계속되지 않는다——을 위하여 바쳐지고 있다》.

1866년 6월 2일 부 런던 《에코노미스트》는 서술하기를 《스코틀랜드의 한 신문은 지난 주에 다른 보도들과 같이 전하로 있다——《서저랜드샤의 가장 탐욕한 양 차지 목장의 하나는 현재의 임대 계약이 만기될 때에는 1,200 파운드 스텔링의 년 지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이 최근에 있는데 이것이 사슴 수렵림으로 전환된다》라고. 이것은 한때 노르만 정복자가 소위 새 산림(《the New Forest》)을 조성하기 위하여 36개의 촌락을 파괴한 당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본능적 본능의 표현이다……스코틀랜드의 가장 비옥한 토지의 여러 개를 포괄하는 200만 에이커의 토지가 황폐될대로 황폐되어 있다. 글렌 킬트의 야생초는 퍼스주의 가장 양분 있는 꼴로 간주되어 있었다. 벤 울머의 사슴 수렵림은 바메너크의 넓은 지방에서도 가장 좋은 물밭이었다. 블랙마운트 수렵림의 일부는 즉 면양에 대하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우수한 목장이었다. 수렵 도락을 위하여 황폐된 토지의 넓이에 관하여는 그것이 퍼스주 전체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적 황폐화에 의하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 원천을 잃었는가 하는 것은, 벤 오더의 수렵림이 1만 5,000두의 양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 및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전체 수렵구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부터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 수렵지는 모두 전혀 비생산적이며……복태의 조수 속에 잠겨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의 강력한 손은 즉각에서 나온 이러한 황무지 또는 무인지경

교회령의 랍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절취, 무자비한 테로리즘으로써 수행된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근대적 소유로의 횡탈적인 전화——이것들은 각각 시초 축적의 목가적 방법이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정복하였으며, 토지를 자본에 합체시켰으며 도시 산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페타리아트의 공급을 창조하였다.

제 3 절 15세기 이래의 피수탈자에 대한 류혈적 립법. 로임 인하를 위한 제 법령

봉건적 가신단(家臣團)의 해체에 의하여 또 불의에 실시된 폭력적 토지 수탈에 의하여 추방된 사람들인, 이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페타리아르는 그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속도로 신흥 마누파투라에 의하여 흡수될 수는 도저히 없었다. 타방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된 생활 궤도로부터 돌연히 내던져진 사람들이 그만큼 돌연히 새로운 환경의 규물에 순응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대량적으로 걸인, 도적, 방랑자로 전화하였는데, 일부는 자체의 성벽으로부터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사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5세기 말 및 16세기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서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서 류량적에 대한 류혈적 립법이 실시된 것은 그 때문이다. 오늘날의 로동 계급의 선조들은 우선 그들이 류량자와 빈궁민으로 부득이 하게 전락된 데 대하여 징벌을 받았다. 립법은 그들을 《자유 의사에 의한》 범죄자로서 취급하였

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라고.

으며,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낡은 제 관제하에서 계속 노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선량한 의사에 달렸다고 상정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법법은 헨리 7세의 치하에 시작되었다.

1530년의 헨리 8세의 조례에 의하면 굶고 또 노동 능력 없는 걸인은 걸식 면허를 받는다. 그와는 반대로 건장한 류랑자는 태형(笞刑)과 감금을 당한다. 그들은 달구지 뒤에 결박되어 몸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의 출생지 또는 그들이 최근 3년 간 거주한 곳으로 돌아 가서 《로동에 종사하겠다(to put himself to labour)》는 맹세를 한다. 얼마나 잔인한 풍자인가! 헨리 8세 제 27년의 조례는 이 법령을 반복하였는데 새로운 추가에 의하여 일층 더 가혹하게 만들었다. 류랑죄로 재차 체포되면 태형이 반복되고 귀가 절반 잘리우며, 3범인 경우에는 당자는 중범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적으로서 사형을 당한다.

에드워드 6세의 통치 제 1년인 1547년에 제정한 법령에 의하면 노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하는 자의 노예로 선언된다. 주인은 빵과 물, 희박한 음료 및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부스러기로써 자기의 노예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는 채찍과 쇠사슬로써 노예에게, 아무리 싫어 하는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노예가 도주하여 2주일 간이 되면 그는 종신 노예의 선고를 받으며 그의 이마나 등에 <S>자의 락인을 찍히며 만약 그가 세 번째 도주하면 반역자로서 사형을 당한다. 주인은 노예를, 모든 동산이나 가축과 전혀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증여하며, 노예로서 임대할 수 있다. 만약 노예들이 무엇이던 주인을 반대하여 기도하면 그들은 역시 사형을 당한다. 치안 관사는 주인의 선고가 있으면 도주한 범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도주한 방랑자가 3일 간 무위 도식한 것이 판명되면 그는 출생지로 끌

려 와서 불에 달군 쇠로써 가슴에 《V》자의 락인을 찍히며 또 거기에서 쇠사슬로 매인채 도로 작업 및 기타 작업에 사용된다. 자기의 출생지를 기만한 류랑민은 처벌로서 해당지의 주민 또는 단체의 종신 노예로 되며 《S》자의 락인을 찍힌다. 누구나 류랑민의 아이들을 그로부터 빼앗아 장제(匠弟)로서, 남자는 24세, 여자는 20세까지 보유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도주하면 전기 년령에 달할 때까지 그들은 장주(匠主)의 노예로 되어야 하며 장주는 그들을 마음대로 쇠사슬에 붙들어 매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동등할 수 있다. 모든 주인은 자기 노예의 목, 팔 또는 다리에 쇠 고리를 채워 용이하게 식별하며 자기의 것임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다²²¹. 이 법령의 마지막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빈민들은 그들에게 음식물을 주고 일을 제공하려는 읍촌이나 개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교구(敎區)노예는 19세기에 훨씬 들어 와서도 라운스맨(roundsmen)이라는 이름 밑에 잉글랜드에 보존되고 있었다.

1572년의 엘리자베쓰의 법령: 14세 이상의 면허 없는 결인들은 만약 2년 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혹독한 매를 맞고 또 원편 귀'바닥에 락인을 찍는다. 재범인 경우, 그들이 18세 이상인 때 만약 2년 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지만 3범인 경우에는 용서 없이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한다. 엘리자베쓰 치하 제 18년의 법령 제 13호 및 1597년의 법령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221a}.

221 《상공업에 관한 문술》의 저자는 지적한다——《에드워드 6세의 치하에서 영국인은 참으로 그 이상 없는 열성을 가지고 마누파투라를 장려하며 또 빈민들을 일시키는 데 힘쓴 것 같다. 이것은, 모든 류랑민은 락인을 찍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목할만한 법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운운》(몽상서, 런던, 1770년, 5페이지).

221a 토마스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중에서 말한다——《이리하여, 자기 고향의 진짜 고질이라고도 할 욕심꾸러기이며 만족할 줄을

제임스 1세: 방랑하면서 구걸하는 자는 부랑자 및 류랑민으로서 선언된다. 소재 관소(Petty Sessions)에서 치안 판사는

모르는 대식가(大食家)는 수천 베이커의 토지를 자기 수중에 합치여, 나무 울타리나 담을 둘러치며, 또는 폭력과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소유자들이 모든 것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시달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가난하고 우직하며 불쌍한 인간들! 이들은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마누라도, 애비 없는 자식도, 혼비미도, 젖먹이가 딸린 불쌍한 애미도, 그리고 자산은 적고 식구 수는 많은——왜냐 하면 농사 일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전체 세대로 이 수단이 아니면 저 수단에 걸려, 삶전 말전 간에 떠나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허벅 허벅 그들은 떠나 간다. 즉 낮익고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그리고 휴식할 정처도 없이. 그들의 가구류는 큰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때도 통털어 팔면 다른 사정하에서라면 얼마간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에 집 밖으로 쫓겨 나서야 그들은 헐 값으로 그것들을 방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푼을 써 버릴 때까지 방황한 뒤 끝에는 도적질을 하여 당연히도 반드시 교수목 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걸을 하려 나서든가 하는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구걸을 하려 나선다 해도 그들은 건들 거리고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류랑민으로서 투옥된다. 그들은 아무런 일을 하려고 간청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아무도 일시켜 주지 않는데 그들은 태만하다는 죄로 고발된다》([토마스 모어 《최선의 국가 제도 및 유토피어의 새 섬에 관한 유용하고 재미 있는 귀중한 책》 로씨야어 역, 1935년, 아카데미야 판, 60페이지 참조]), 토마스 모어의 말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도적으로 된 이 가난한 낙향자(落鄉者)들 중에서 《7만 2,000명의 대소 도적이 헨리 8세의 치하에서 사형을 받았다》(홀린즈헤드 《영국의 서술》, 제 1권, 186페이지). 엘리자베스 시대에 《류랑민들은 줄을 지어 처형되었다. 그 당시에는 어메서이트 300명 내지 400명이 교수대에 오르지 않은 해는 보통 없었다》(스트라이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성대(聖代)에 있어서의 종교 개혁 및 국정(國定)과 잉글랜드의 교회내의 기타 각종 사건에 관한 년대기》, 제 2판, 1725년, 제 2권). 이 스트라이프의 말에 의하면 서머셋셔에서는 단 한 해에 40명이 사형을 받았으며, 35명이 락인을 찍혔으며, 37명이 태형을 받았으며, 그리고 138명의 《절망적인 악한》들은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한다——《이와 같이 많은 수의 피소자들도 치안 판사의 태만과 인민의 어리석은 동정으로 인하여 처벌 받아야 할 실제 범죄자 수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첨가하여 말한다——《잉글랜드의 다른 주들의 형편은 서머셋셔보다 나은 것이 없었으며 다수의 주들은 그보다 더 나쁘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들을 공개적 태형에 처하며 초범인 경우에는 6개월, 재범자는 2년 간 투옥할 권한을 가진다. 옥중에 있는 동안 그들은 치안 관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마다 또 그 회수만큼 매를 맞는다……교정할 가망이 없는 위험한 부랑자는 원편 어깨에 《R》자의 락인을 찍히고 강제 로동에 처하며, 재차 구결 중에 체포되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는다.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효하였던 이 법규들은 앤여왕 제 12년의 법령 제 23호에 의하여 비로소 폐지되었다.

류사한 법령은 불란서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17세기 중엽에 파리에 소위 《류랑민 왕국》(royaume des truands)이 건립되었다. 루이 16세의 초기에만 하더라도(1777년 7월 13일 부의 칙령)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는 건전한 자로서 생활 수단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갈레션 [노예나 죄수에 의하여 지어 지는 배]에 송치되었다. 이와 류사한 페로서는 네베르란드에 대한 칼 5세의 법령(1537년 10월), 화란의 제 주 및 제 도시에 대한 1614년 3월 19일 부 제 1 칙령, 1649년 6월 25일 부 연합 제 주의 고시 등등이 있다.

그와 같이, 폭력적으로 토지를 수탈 당하고 추방되어 대량적으로 류랑민으로 된 농촌 주민은 이 그로테스크하고 테로적인 법령들에 의하여 채찍과 락인과 고문을 받으면서 고용 로동 제도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일국(一極)에는 로동 제 조건이 자본으로서 나타나며 타국에는 자기 자신의 로동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그들이 자유 의사로 자신을 팔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행에 따라 교육, 전령, 관습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제 요구를 자명한 자연 법칙으로 인정하는 로동 계급이 발전한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 고유한 조직은 일체의 저항을 타파하며, 상대적 과잉 인

구의 부단한 조성은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보존하며, 그리함으로써 로임을 자본의 증식욕에 상응하는 한계내에 보존하며, 경제적 제 관계의 무언(無言)의 강제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 경제외적, 직접적 폭력도 물론 의연히 적용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만 레외적이다. 사태가 보통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생산의 자연 법칙》에, 즉 생산의 제 조건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것들에 의하여 보장되며 영원화되는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종속에 내맡겨져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력사적 창생기(創生記) 중에는 사정은 다르다. 신흥 부르조아지는 로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즉 화식(貨殖)에 적합한 한계내에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노동자 자신을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종속 상태에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폭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소위 시초 축적의 한 개의 본질적 계기이다.

14세기 후반기에 발생한 고용 노동자 계급은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 백년 간에는 인민의 극히 근소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의 지위는 농촌의 자립적 농민 경리와 도시의 동업 조합적 조직에 의하여 강력한 비호를 받고 있었다.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고용주와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호상 접근하고 있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은 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즉 생산 방식 자체가 아직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다. 자본의 가변적 요소는 불변적 요소에 비하여 큰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축적이 장성한 때마다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고용 노동의 공급은 완만하게 뒤 따라 감에 불과하였다. 국민 생산물의 현저한 부분은 후에는 자본의 축적 펀드로 전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노동자의 소비 펀드로 들어갔다.

최초부터 노동자의 착취를 지향하였으며 자체의 발전 행정에서도 언제나 다름 없이 노동 계급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고용 노동에 관한 법법은²²²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3세 치하의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 법령(Statute of Labourers)을 호시로 한다. 불란서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은 장 왕의 명의로 발포된 1350년의 칙령이다. 영국의 법법과 불란서의 법법은 병행하여 나가고 있으며 내용으로 보아도 동일한 것이다. 노동자 법령이 노동일의 연장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 점에 관한한 나는 이에 다시 돌아 가지 않으려 한다, 왜냐 하면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앞에서(제 8장, 제 5절) 이미 상세히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자 법령은 하원의 절실한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어떤 토리 당원은 소박하게도 말한다——《전에는 빈민들이 높은 로임을 요구하여 산업과 재부에 위협을 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로임이 너무나 낮아서 역시 산업과 재부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과는 사정이 다르며 또 아마도 전보다 더 위험하다》²²³. 법령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에 대한, 도급제 노동과 일(日)노동에 대한 임금률이 확립되었다. 농촌 노동자는 1년 기간으로, 도시 노동자는 《공개 시장》에서 임의의 기간 고용되어야 한다. 법정 로임보다 높이 지불하는 것은 금고형으로써 금지되어 있는데 보다 높은 로임을 받는 것은 그것을 지불하는 것 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레컨대 엘리자베쓰의 장제(匠弟)법령 제 18조 및 제 19조에 있어서도 법정 이상의 로임을 지불하는 자는 10일 간의 금고에 처하는데

222 《법법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쟁의를 조정하려고 할 때에 그의 상의자는 항상 고용주이다》라고 A·스미쓰는 말한다. 《법률의 정신은 소유이다》라고 랑게는 말한다.

223 《자유 무역의 궤변, 한 변호사의 저》 편편, 1850년, 235페이지. 그는 밑살스럽게도 부언한다——《우리는 항상 고용주를 위하여 간섭할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피고용자를 위하여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라고 (236페이지).

그것을 받는 자는 21일 간의 금고에 처한다. 1360년의 법령은 이 형벌을 일층 더 엄하게 하였으며 또한 육체적 강제에 의하여 법정 로임물로 로동을 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주에게 부여하였다. 벽돌 공과 목공을 호상 편결시키는 일체의 결합, 계약, 서약 등등은 무효로 선언되었다. 로동자의 단결은, 14세기부터 단결 금지법이 폐지된 1825년에 이르기까지 중죄로서 취급되었다. 1349년의 로동자 법령 및 그 후에 제정된 모든 법령의 정신은 국가에 의하여 물론 로임의 최고 한도가 제정되나 결코 그것의 최저 한도가 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6세기에는 로동자의 상태는 대단히 악화되었다. 화폐 임금은 제고되었으나 그러나 화폐 가치의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상품 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제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임금이 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임 인하를 위한 법령들은, 《누구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사람들의 귀 찌르기와 그들에 대한 락인과 함께 존속하였다. 엘리자베스 치하 제 5년의 제 8호 장제(匠弟)법령에 의하여 치안 관사는 어떤 종류의 로임을 제정하며 또한 계절과 상품 가격에 따라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이 로동 단속을 직조공, 방적공 및 기타 모든 로동자 범주에 확대하였으며²²⁴, 조지 2세는 로동자의 단결을 금지하는 제 법령을 전체 마누팩처라에 확대하였다.

224 제임스 1세 치하 제 2년의 법령 제 6호의 한 조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직포업자들은 외람하게도 치안 관사의 자격으로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작업장 로임물을 지시하였다.——독일에서는 특히 30년 전쟁 이후에 로임을 억제하기 위한 법령들이 빈번히 발포되었다. 《인구가 희박한 토지에서 중북파 로동자의 부족은 지주들의 큰 부흥거리로 되어 있었다. 모든 촌락민은 목신 남녀에게 방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숙박인물은 모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들이 중북이 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농민을 위하여 하루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콕투라 시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로임에 대한 법적 단속을 실시하기 불가능한 것으로도 불필요한 것으로 할 만큼 충분히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계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구무기교의 이 무기 없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다. 조지 2세 치하 제 8년의 법령은 아직도 런던 및 그 부근의 재봉 직공에 대하여 공상(公喪)의 경우를 제외하고 2실링 7¹/₂ 펜스 이상의 일임금을 금지하였다. 또 조지 3세 치하 제 13년의 법령 제 68호도 견직공에 대한 로임 단속을 치안 판사에게 위임하였다. 1796년에도 아직 로임에 관한 치안 판사의 명령이 비농업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급 재판소의 2중의 판결이 필요하였다. 또 1799년에도 스코틀랜드 광부의 로임은 엘리자베쓰의 한 법령과 1661년 및 1671년의 스코틀랜드의 두 조례에 의하여 단속된다는 것을 한 의회 조례는 확인하였다. 이 동안에 사정이 얼마나 격심하게 변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영국 하원에서 일어난 전대 미문의 한 사건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되는 로임의 최고 한도에 관한 법령이 400년 이상이나 전부터 조작되어 온 이 하원에서, 휘트브레

품 값을 받고 파종을 하거나 또는 곡물 매매를 하는 등, 어떤 다른 일에 종사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투옥되어야 하는 것이었다(슬레젠에 대한 황제의 특권과 포고령, 제 1호, 제 125조). 가혹한 조건들에 복종하려 하지 않으며 또 법정 로임에 만족하려 하지 않는 고약하고 불손한 무뢰한들에 대한 격심한 불평이 온 1세기를 통하여 군주(君主)들의 포고 속에 부단히 반복되었다. 개별적 지주들은 나라에서 제정한 로임보다 더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렇지만도 [30년] 전쟁 후의 노동 조건들은 백년 후의 그것들 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 1652년에 슬레젠에서는 하인들에게 매주 2차례 고기를 주었는데, 현재기에는 같은 슬레젠에서 1년에 3차례 밖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 지방이 있었다. 로임도 전쟁후가 그 후의 수 세기간보다 높았다(G. 프라이타크 《독일 인민 생활의 새로운 광경》 라이프찌히, 1862년, 34, 35페이지).

드는 1796년에 농업 일용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 임금을 제안하였다. 뢰트는 이에 반대하였지만 《빈민의 상태는 참혹하다(cruel)》는 것을 인정하였다. 드디어, 1813년에 로임 단속에 관한 법령들이 폐지되었다. 자본가가 자기의 사'적 법법에 의하여 자기 공장을 단속하였으며, 또 농촌 노동자의 임금을 구빈세(救貧稅)에 의하여 불가결한 최저 한도까지 보충케 한 이래 그러한 법령들은 가소로운 변칙(變則)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만을 허용하고 계약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을 허용하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 예고 기간 기타에 관한 노동 법령의 조항들은 오늘에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단결 금지의 가혹한 제 법령은 1825년에 포르테타리아트의 태도가 위력적인 것으로 되자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을 뿐이다. 구법령들의 아름다운 일부 나머지 것들은 1859년에야 비로소 소멸하였다. 끝으로 1871년 6월 29일의 의회 조례는 직업 동맹(Trades' Unions)을 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와 같은 계급적 법법의 최후의 흔적을 제거하는 적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자의 다른 의회 조례(폭력, 협박 및 방해에 관한 형법 개정 조례—An act to amend the criminal law relating to violence, threats and molestation)는 사실상, 이전 상태를 새로운 형태로 재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의회적 요술에 의하여, 파업이나 록아웃(Lockout—공장주들이 결합하여 자기의 공장들을 동시에 폐쇄하는 파업)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에 대하여서는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 형법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이 특별 형법의 해석 여하는 치안 판사의 자격으로서의 공장주들에게 맡겨졌다. 그 보다 2년 전에는 동일한 하원과 동일한 글래드스톤씨는 주지의 진지한 방식으로 노동 계급을 반대하는 일체의 특별 형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불안은 제 2 독회 이상은 넘어 가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문제는 점점 오래 끌다가 드디어 《대자유당》이 로리당과 연합함으로써 용기를 얻어 자기를 지배적 지위에 올라 서게 한 바로 그 프로테타리아트를 결정적으로 배반하였다. 《대자유당》은 이와 같은 배반만으로써는 부족하여 지배 계급에 봉사하여 언제나 꼬리를 흔드는 영국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미 시효에 걸린 《음모》 단속법을 부활시켜 그것을 노동자의 단결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영국 의회는 다만 본의가 아니면서도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파업과 직업 동맹을 금지하는 법령들을 단념하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회 자체가 500년 간이나 파렴치한 리기주의로써 노동자를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상설 직업 동맹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여 온 후의 일이다.

불란서의 부르조아지도 그와 꼭 마찬가지로, 혁명의 폭풍우가 시작된 바로 초기에, 노동자들이 겨우 금방 전취한 단결권을 그들로부터 다시 탈취하려고 결의하였다. 1791년 6월 14일의 포고에 의하여 그들은 노동자의 일체의 단결을 《자유와 인권 선언에 대한 위반》이며 이는 500리브르의 벌금과 1년 간의 공민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²²⁵. 자본과 노동간의 경쟁적 투쟁을 국가 경찰적으로 자본에게 편리한 한계 내에 몰아 넣는 이 법령은 제 혁명과, 왕조 교체들을 겪고

225 이 법령의 제 1조는 다음과 같다——《동일한 신분 및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들의 온갖 종류의 결합을 절멸하는 것은 불란서 헌법의 기초의 하나이므로 어떠한 구실 또는 어떠한 형태하에서도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 4조는 선언한다——《만약 동일한 직업, 기공(技工),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자기의 직업적 활동 및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한 대가 이하로는 제공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호상 합의하거나 또는 협약을 한다면 이러한 합의 및 협약은……헌법 위반으로서, 또 자유 및 인권 선언에 대한 위반으로서, 즉 구로동자 법령에 있어서와 같이, 국사범(國事犯)으로서 《선언되어야 한다》, 《파리의 혁명》 파리, 1791년, 제 3권, 523쪽 지).

도 존속하였다. 《공포 정치》조차도 이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법전(Code Penal)에서 삭제되었다. 이 부르주아적 쿠데타의 구실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고자 샤프리에는 말한다——《로임이 현재 보다도 제고되어, 이 로임을 받는 자가 생활 필수품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거의 노예적 종속인, 절대적 종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공동 행동을 취함으로써 《거의 노예적 종속인 절대적 종속》을 완화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전 장주(匠主)인 현재의 기업가의 자유》(로동자를 노예 상태에 유지하는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며, 또 이전의 동업 조합 장주의 전제를 반대하는 단결은——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알아 맞추어 보라!——불란서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동업 조합의 재건이기 때문이다! 고²²⁶.

제 4 절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사

우리는 무일물의 자유로운 프로페타리아를 발생시킨 폭력, 그들을 고용 로동자로 전화시킨 류혈적 규율, 경찰적 방법에 의하여 로동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제고시킨 군주들과 국가의 추악한 행동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자본가는 시초에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 하면 농촌 주민의 수탈은 직접적으로는 다만 대토지 소유자를 창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차지 농업가의 발생사

226 부세 및 무 《의회사(議會史)》 제 10권, 193—195페이지, 이곳 저곳.

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자면 손으로 더듬어 나갈 수 있을 따름이니, 왜냐 하면 그것은 여러 세기 동안을 굴러 온 완만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자도 그랬지만 농노들 자신이 극히 각이한 소유 관계에 있었으며 그에 따라 또한 극히 각이한 경제적 제조건하에서 해방되었다.

영국에서는 차지 농업가의 최초의 형태는, 그 자신이 농노이었던 베일리프(bailiff) [령주 토지의 관리인]이었다. 그의 지위는 고대 로마의 빌리쿠스(villicus)의 그것과 유사하나 다만 활동 범위가 보다 좁았을 따름이다. 14세기 후반에 베일리프는, 랜드로드 (landlord—자본주의적 지주)로부터 종자, 가축 및 농기구의 제공을 받는 차지 농업가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차지 농업가의 처지는 농민의 처지와 그렇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는 다만 보다 많은 고용 로동을 착취하였을 따름이다. 그는 얼마 안가서 반(半)차지 농업가인 메테이에(《metayer》)로 되었다. 그는 농업에 필요한 자본의 일부를 제공하였으며 랜드로드는 다른 부분을 제공하였다. 양자는 계약에 의하여 규정된 비율로 총생산물을 분배하였다. 이 형태는 영국에서는 급속히 소멸하고, 고용할 의미에서의 차지 농업가 즉 고용 로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본을 증식하며, 잉여 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서 화폐 또는 현물로 랜드로드에게 지불하는 차지 농업가의 형태에 자리를 양보하였다.

15세기중에 독립적 농민과, 고용 로동에 종사하는 한편 동시에 자립적 경영에도 종사하는 농복이 자기들의 로동에 의하여 자신들의 리익을 얻고 있었던 한에서는 차지 농업가의 생활 형편과 그의 생산 분야는 아직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의 최후 3분의 1기에 시작하여 16세기의 거의 전 기간(최후의 수 십년을 제외하고)에 걸쳐 계속된 농업 혁명은 농촌 주민을 빈궁하게 만든 것과 동일한 속도로 차지 농업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다²²⁷. 공동 목장 등등의 횡취에 의하여 차지 농업가는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의 가축 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그의 가축은 그의 토지를 위하여 풍부한 비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16세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개의 제기가 첨가되었다. 당시에는 차지 계약은 장기에 걸쳐 체결되어 왕왕 99년만에 걸쳐는 것도 있었다. 귀금속 가치, 따라서 화폐 가치의 부단한 저락은 차지 농업가에게 극히 유리한 것이었다. 상술한 기라의 모든 사정들은 도외시하더라도 이 가치 저락은 로임을 저하시켰다. 저하된 로임액의 일부분은 차지 농업가의 리윤에 첨가되었다. 곡물, 양모, 육류, 한 마디로 말해서 전체 농산물의 가격의 부단한 제고에 의하여 차지 농업가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화폐 자본을 증가시켰으며 한 편으로 그는 지대물, 이전의 화폐 가치로써 체결된 과거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게 되었다²²⁸.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자기의 고용 노동자와 지주들

227 테리슨은 그의 저 《영국의 서술》에서 말한다——《차지 농업가는 이전에는 4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물 지불하는 것도 곤란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40, 50,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리고도 차지 기간의 만료후 그들의 수중에 6—7년 분의 지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228 16세기에 있어서의 화폐 가치 저락이 사회의 '자이한' 재급에게 준 영향에 관하여서는——《현재에 있어서의 자이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어떤 종류의 일반적 불평에 관한 간단한 조사, W·S라는 신사의 저》편편, 1581년. 이 저서는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헉스피어가 쓴 것으로 오래 동안 오인되어 왔으며 1751년에 와서도 이 책은 그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저서의 저자는 윌리엄 스태포드이다. 어떤 개소에서 기사(Knight—騎士)는 다음과 같이 리치물 따지고 있다——

기사: 《나의 이웃인 농부여, 상인이여, 그리고 선량한 동공(銅工)이여, 또 기라 수공업자라 하여 그대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구나. 왜냐 하면 모든 물건이 전보다 비싸지면 질수록 그대들은 그대들이 다시 파는 상품이나 로력의 가격을 그만큼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격을 올려 팔므로써 우리가 살 때에 받은 손실을 봉창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개소에서 기사는 박

동시에 회생으로 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16세기 말에 그 당시의 제 사정으로 보아서는 부유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 제급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등 기이한 일이 아니다.²²⁰

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넘두에 두고 계신가를 아리켜 주시오. 우선 첫째로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누구인가를?》——박사: 《나의 생각으로는 매매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비싸게 사더라도 그만큼 비싸게 팔니까》,——기사: 《그 때에 당신의 말과 같이 리득을 보는 그 다음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박사: 《그것은 물론, 자기가 청탁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전대로의 지대를 지불하는 일체의 임차인 또는 차지 농업가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중전의 물로 지불하고 새로운 물로 팔기 때문에, 즉 자기의 차지에 대하여는 극히 헐하게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는 일체의 물건은 비싸게 팔기 때문에》……기사: 《그러면 그 때에 당신의 말대로 하면 리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사: 《그것은 모든 귀족들, 신사들, 기라 제한된 지대 또는 봉급으로써 생활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 토지불 경작하지 않거나 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220 불란서에서는 중세기 초기에 봉건 령주에게 바치는 봉납의 관직자이였으며 징수자이었던 레지쉬르(régisseur)가 얼마 안가서 장탈파기만 등등에 의하여 일약 자본가로 된 음 다페르(homme d'affaires)로 되었다. 이 레지쉬르는 그 자신이 때로는 귀족이였다. 페컨대——《히 재산서는, 보상중의 기사이며 성주(城主)인 작크 드 로레스가 1359년 12월 25일부터 1360년 12월 28일까지 전기 성령(城鎮)에서 납부하는 치대에 대하여, 부르그뉴 후백(侯伯)을 위하여 디퐁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 세누르(상전—上典)에게 제출한 것이다》(알렉시스 몽테이유 《수료(學稿)자보에 관하여》 234페이지). 여기에서는 벌써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자(獅子)의 문이 얼마나 중개자(仲介者)의 수종으로 돌아가는가를 볼 수 있다. 페컨대 경제 령역에서는 금융업자, 주식 위인초원, 호대상, 소매상이 기업의 단 물을 빨아 먹는다. 빈핍의 령역에서는 변호사가 땅 땅사자를 홀친다. 정치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이 선거차출보다 위주가 되며 대신들이 주권자보다 위주가 된다.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그의 《중개자》[크리스트]에 의하여 배우로 밀려 나며; 후자는 또 종족권에 의하여 밀려 나는데 승려들은 또한 《선량한 목부》와 그의 땅 사이의 불가결의 중개자인 것이다. 불란서에서도 영국에서처럼, 대귀족의 봉건 령지들은 우수한 소규모 정리로 분할되었지만 그때나 농

제 5 절 공업에 대한 농업 혁명의 반작용.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

돌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부단히 반복된, 농촌 주민의 수탈과 토지로부터의 그의 추방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도시 공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체의 동업 조합적 제 관계 밖에 섰던 프로테라리아 대중을 련속적으로 공급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은 로(老) A·앤더슨으로 하여금 (제임스 앤더슨과 혼동하지 말 것) 그의 상업사(商業史)중에서 섭리(攝理)의 직접적 간섭을 신봉하게 하였다. 시초 축적의 이 요소에 대하여 우리는 잠시 동안 더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프로아 섀틸레르가 한 곳에서의 우주 물질의 주밀화를, 다른 곳에서의 그것의 희박화에 의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²³⁰, 독립적인 자립 경리의 농촌 주민의 희박화에 상응한 것은 공업 프로테라리아트의 주밀화만이 아니다. 토지는 그의 경작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 없는 량의 생산물 또는 생산물이 전보다도 많은 량의 생

존 주민에게는 비할 수 없으리만큼 더 불리한 조건하에서이었다. 14세기 중에 차지 농장——fermes 또는 terriers——이 출현하였다. 그 수는 부단히 증가하여 10만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들은, 생산물의 1/2분의 1 내지 5분의 1의 지대를 화폐 또는 현물로 지불하였다. 이 차지 농장들은 그 면적의 가치와 크기에 따라 채읍(采邑), 소 채읍(fiefs, arrière-fiefs)등등으로 불리워졌는데 그중 대부분은 수 아르팡에 불과하였다. 이 차지 농장주들은 모두 그의 주민들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등급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는 4 등급이 있었다. 이러한 이 모든 소폭군들 밑에서 농촌 주민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몽테이유는 말하기를 현재는 4,000개의 재판소(치안 재판소를 포함하여)가 있을 뿐인데 당시에는 16만 개의 재판소가 있었다고.

230 그의 저 《자연 철학 강요》 파리, 1838년, 참조.

산물을 낳았으니 그 이유는 토지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은 경작 방법의 개량, 협업의 확대, 생산 수단의 집적 등등을 수반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농촌 고용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²³¹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는 생산 분야가 점점 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촌 주민의 일부가 해방됨과 동시에 그들의 이전의 생존 수단의 일부도 해방된다. 이 생존 수단은 이제 와서는 가변 자본의 소재적 요소로 전화한다. 갈 베 울 베 없이 쫓겨난 농민은 이 생존 수단의 가치를 로임의 형태로 자기의 새로운 주인인 산업 자본가로부터 구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을 위한 국내산 농업 원료도 생활 수단과 동일한 사정이었다. 그것은 불변 자본의 한 요소로 전화하였다.

레컨데 프리드리히 2세의 시대에 전방적은 아널 망정 아마 방적에 모두가 종사하고 있었던 [고생하며 《아마 방적에 종사하고 있었던》이라는 뜻] 웨스트팔렌의 농민의 일부는 폭력적으로 수탈되고 토지로부터 추방되었으나 그들의 나머지 부분은 대차지 농업가의 일용(日傭)노동자로 전화하였다고 상정하자. 동시에 대아마 방적소와 직조 기업소가 생기어 《해방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용 노동을 한다고 하자. 아마는 보기에는 전혀 이전 그대로이다. 아마의 한 울의 점유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의 체내에 새로운 사회적 명분이 들어 박혀 있다. 이제 와서는 아마는 마누팩투라 소유주의 불변 자본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이전에는 그것은, 그것을 스스로 재배하여 가족과 함께 조금씩 방적하던 무수의 소생산자들 사이에 분배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써 하여금 방적케 하며 직조케 하는 한 사람의 자본가의 수중에 집적되어 있다. 아마 방적소에서 지출된 추가적 노동은 이전

231 이 점에 대하여 써 제임스 스튜어트는 강조하고 있다.

에는 무수한 농민 가족들의 추가적 소독으로서 또는 프리드리히 2세 시대에는 프로쾰야 왕을 위하여 (pour le roi des Prusse——〔살 데 없이라는 뜻〕 조세로서 실현되었다. 이제 와서는 그것은 소수의 자본가의 리윤으로서 실현된다. 이전에는 농촌 일대에 초터져 있었던 방추와 직기는 지금에 와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또 원료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큰 노동 병사(兵舍) 속에 집합되고 있다. 또 방추와 직기와 원료는 이전에는 방적공과 직조공의 독립적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들을 지휘하며²³² 그들로부터 부지불 로동을 흡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되어 있다. 대규모 마누팩투라나 대규모 농장의 외양을 보아서는 그것들이 다수의 소생산장(生産場)들의 결합된 것이며 또 다수의 독립적 소생산자들의 수탈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편견이 없는 관찰자는 이 외양에 속지 않는다. 혁명의 사자(獅子)인 미라보의 시대에는 대규모 마누팩투라들은 결합된 마누팩투라(manufactures réunies)——결합된 작업장——이라코 불리워졌는데 그것은 마치도 오늘 우리가 결합된 경지(耕地) 운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람들은 다만 수백 명의 사람이——하고 미라보는 말한다——일명의 지배인의 밑에서 노동하며 보통 결합된 마누팩투라(manufactures réunies)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마누팩투라에 대해서만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산되어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노동하고 있는 작업장들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들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 하면 이것들만

232 《나는——하고 자본가는 말한다——내가 너희들을 지휘하는 로력의 대가로서,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얼마 안되는 것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조건하에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영예를 제공할 것이다》(J·J·루소 《정치 경제학에 관한 연구》 (제네바, 1756년, 70페이지).

이 인민적 부의, 참으로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결합된 공장(fabrique réunie)은 한 두 명의 기업가를 놀랄만큼 치부케 하지만,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수가 좋은 나쁜 간에 일용 노동자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가의 행복의 나눔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분산된 공장(fabrique séparée)에서는 아무도 치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수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산다……근면하고 절약적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니, 왜냐 하면 그들은 현명한 생활 방식 즉 활동이 자기들의 처지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인정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 인상——이것은 결코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일 수 없으며 기껏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살이 살림을 좀 낮게 하게 하는 것이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소규모 농촌 경리와 결합된 분산적인 개인적 마누팍뚜라는 자유로운 마누팍뚜라이다》²³³. 농촌 주민의 일부의 수탈과 농촌으로부터의 그들의 추방은 산업 자본을 위하여 노동자와 더불어 그들의 생활 수단 및 그들의 노동 재료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 시장을 조성한다.

사실상 소농민을 고용 노동자로 전화시키며 그들의 생활 수단과 노동 수단을 산업 자본의 물체적 요소로 전화시키는 제 사건은 동시에 이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을 조성한다. 이전에는 농민 가족은 나중에 대부분을 그들 자신이 소비한 생활 수단과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하였다. 이 원료와 생활 수단은 이제 외서는 상품으로 되었다. 대차지 농업가는 이것들을 팔

233 미라보 《프로젝트 왕국에 관하여》 제 3권, 20—109페이지, 이곳 저곳. 미라보가 분산된 작업장을 결합된 작업장보다 경제적이며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며 또한 후자를 정부의 보호하에 있는, 단순히 인공적인 온실 식물로서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대륙적 마누팍뚜라의 당시의 상태에 의하여 설명된다.

며 마누팍뚜라에서 자기의 시장을 발견한다. 실, 아마포, 조제 모직물 등등 즉 매개 농민 가족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원료로써 자가용으로 방적하고 직조한 물건들은 이제 와서는 마누팍뚜라의 제품으로 전화하며 그 제품의 판로는 다름 아닌 농촌 지방이다. 종래에는 자신의 계산으로 노동하는 다수의 소생산자에 제약된, 다수의 분산된 고객들은 이제 와서는 산업 자본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대 시장으로 모여 든다²³⁴. 이리하여 이전의 자립 경리의 농민들의 수탈,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그들의 격리와 병행하여 농촌 부업의 파괴, 마누팍뚜라와 농업의 분리 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농촌 가내 생산의 파괴만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필요로 하는 규모와 공공성을 한 나라의 국내 시장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마누팍뚜라 시기는 어떠한 근본적 변혁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기하는 바와 같이, 마누팍뚜라는 도시의 수공업과 농촌의 가내 부업을 광범한 배경으로 삼으면서, 극히 점차적으로 국민 생산을 장악할 따름이다. 마누팍뚜라가 이러한 부업과 수공업을 한 형태에서, 일정한 공업 부문에서 또 일정한 지점(地點)에서 파괴하면, 그것은 동일한 것들을 다른 형태, 다른 공업 부문, 다른 지점에서 소생시킨다. 왜냐 하면 마누팍뚜라는 원료의 가공을 위하여 일정한 정도까지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34 《만약 한 노동자의 가족이 다른 일을 하는 틈틈에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남 모르게 20파운드의 양모로써 자기의 년년의 의복을 만든다면 이는 아무런 주목도 끌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양모를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공장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공장주의 제품을 중개인에게로 또 그 다음에는 상인에게로 보내고 하면, 많은 상업적 조작을 거치게 되며 또 그에 필요한 명목 자본은 이 양모 가치의 20배나 될 것이다……이렇게 되어 노동 계급은 비참한 공장 인구, 기생적 상인 계급 및 의제적인 상업적, 화폐적 및 금융적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착취를 당한다》(메이빈드 어커드 《상용 용어》 런던, 1855년, 120페이지).

그러므로 마누팩투라는, 토지의 경작을 부업으로 하고 생산물을 직접 또는 상인의 손을 거쳐서 마누팩투라에게 판매하기 위한 공업 로동을 본업으로 하는 새로운 소농민 제국을 산생한다. 이 사실은 영국 력사의 연구가들을 우선 혼란에 빠지게 하는 리유의 하나——비록 가장 주요한 리유는 아니더라도——이다. 그는 15세기의 최후 3분의 1기로부터 영국에서는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경제의 장성과 농민층의 무진적 과멸에 대한, 다만 가끔 중단되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불평을 발견한다. 그러나 타방으로 그는 이 농민층을, 비록 그 수는 감소되며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는 있지만²³⁵ 부단히 반복하여 발견한다. 그 주요 원인은 영국에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때로는 곡물 재배가 때로는 목축업이 우세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시대 변천에 따라 농민 생산의 규모가 변동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공업만이 기계로써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공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농촌 주민의 압도적 대다수를 근본적으로 수탈하며, 농촌 가내 공업의 근저인 방적업과 직조업을 근절함으로써 농업과 그 농촌 가내 공업과의 분리를 완성한다²³⁶. 따라서 또

235 크롬웰의 시대는 예외이다. 공화국이 존속한 동안에는 영국 인민 대중의 모든 층은, 튜도르 왕조하에서 빠져 있었던 몰락 상태로부터 회복되었다.

236 러켓트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팩투라와 그리고 농촌적 또는 가내적 마누팩투라의 파괴로부터, 기계의 도입과 함께 대양모 공업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러켓트 《로동 인구의 과거 및 현재의 상태의 력사》 런던, 1846년, 제 1권, 144페이지). 《장기와 명에는 신(神)들의 발명물이며 영웅들이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직기나, 방추나 방차의 유래는 그만큼 고귀하지 못하겠는가? 당신들은 방차와 장기를, 방추와 명을 분리하며, 그리하여 공장과 주민원, 신용과 공황, 두 개의 적대적 국민인 농업 국민과 공업 국민을 가지게 된다》(메이비트 어커트 《상용 용어》 런던, 1855년, 122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케이가 나타나, 영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순전한 농업국으로 전환시키고 자신은 그 농업국의 공장으로 되려고 한다고 영국을 비난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는 주장한다——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공업만이 산업 자본을 위하여 전 국내 시장을 정복한다²³⁷.

제 6 절 산업 자본가의 발생사

산업 자본가의²³⁸ 발생사는 차지 농업가의 그것과 같이 절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소공업 조합 장주(匠主)들과 그 보다 더 많은 자립적 소수공업자들과 또는 고용 노동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소자본가로 전화하고 다음에는 고용 노동의 착취를 점차 확대하며 이에 따라 자본의 축적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자본가로 전화하였다. 중세기 도시 제도의 유년기에는, 도주한 농노 중에서 누가 주인으로 되며 누가 종복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는 대개는 구들

로이기는 파멸당하였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농민은 장기와 직기, 마치와 식스랑의 자연적 동맹에 의하여 자기의 처지를 강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되지 않았기 (영국에 의하여) 때문이다》라고 (《노예 무역》 125페이지). 그의 의견에 의하면 어커트 자신도 토이기를 파멸시킨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영국의 리익을 위하여 자유 무역의 리념을 선전하였다는 것이다. 결국은 케이리——기왕이니 말하지만 그는 대단한 로씨야 추종자이다——가 이 분리 과정을, 그것을 촉진시키는 바로 그 보호 무역 제도에 의하여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37 밀, 로저스, 플드윈 스미쓰, 포셋트 등등과 같은 밖애주의적 영국 경제학자들과 존 브라이트 일파와 같은 자유주의적 공장주들은, 마치 하느님이 카인에게 그의 동생 [그가 살해한] 아벨의 행적을 물은 것 처럼, 영국 토지 귀족에게 묻는다——수천의 우리 농민들(freeholders)은 어째로 왔는가? 또 그대들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그 농민들의 파멸에서 왔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더 나아가서 독립적 직조업자, 방직업자, 수공업자들은 어째로 왔는가 라고는 묻지 않는가?

238 여기에서는 《산업》 자본가는 《농업》 자본가와 대립된 말로 사용되었다. 경제적 《법주》의 의미로서는 차지 농업가는 공장주와 마찬가지로 산업 자본가인 것이다.

중에서 누가 먼저 도주하였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년기에도 흔히 그러했다. 그러나 달팽이 걸음 같이 완만한 이와 같은 방법은 15세기 말의 대 발견들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상업적 요구에 결코 상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세기는 아주 관대한 사회—경제적 구성하에서 성숙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시대 이전에 여하튼 자본으로 인정되는 두개의 각이한 자본 형태, 즉 고리대 자본과 상인 자본을 전하고 있었다. 《현재에는 모든 사회적 부는 우선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 간다……그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물, 노동자에게 로임을, 조세와 10분의 1세의 징수자에게 그의 요구액을, 지불하고, 년 노동 생산물의 대부분을, 아니 그 최대 부분이며 부단히 장성하는 부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유한다. 자본가는 이제는 사회적 부의 최초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소유권을 그에게 준 어떠한 법률도 없지만……소유상의 이 변화는 자본에 대한 리자의 징수로써 이루어졌다……그리고 친구라파의 법법자들이 고리대금업을 반대하는 법률로써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적지 않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라의 전체 부에 대한 자본가의 권력은 소유권 상의 완전한 혁명인데, 이와 같은 혁명은 어떠한 법령 또는 어떠한 일련의 법령에 의하여 수행되었는가?》²³⁹. 이 저자는 혁명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답하였어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봉건 제도와 도시에서의 동업 조합 제도는 고리대금업과 상업에 의하여 조성된 화폐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를 방해하였다²⁴⁰. 이러한 제한들은 봉건적 가신

239 《자연적 소유권과 인위적 소유권과의 비교》편면, 1832년, 98, 99페이지. 이 네명 저서의 저자는 T. 호지스킨이다.

240 1794년에 이르러서도 리즈의 조직포업자들은 어떠한 상인이든 타도 공장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의 제정을 청원하기 위하여 대

단(家臣團)의 해체와 농촌 주민의 수탈 및 부분적인 추방과 함께 소멸되었다. 새로운 마누팍투라가 해안의 수출 항구, 또는 구도시 제도와 그의 동업 조합 제도의 통제 밖에 있는 농촌 지점들에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공업 배양지들을 반대하는 동업 조합적 도시들(corporate towns)의 치열한 투쟁이 일어났다.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금, 은 산지의 발견, 토착민의 섬멸, 노예화 및 광산에서의 생매장, 동 인도의 정복과 랍탈의 개시, 아프리카의 상업적 흑인 수렵장으로의 전화——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자본주의적 시대를 고하는 아침 노을이었다. 이러한 목가적인 제 과정은 시초 축적의 주요한 계기들이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은 지구를 무대로 하는 구라파 제 국민의 상업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서반아로부터의 니베르란드의 리탈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며, 영국의 반자코방 전쟁에서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으며, 현재 아직도 중국에 대한 아편 전쟁 등등과 같은 랍탈적 출정(出征)들에서 계속 연출되고 있다.

시초 축적의 각이한 계기들은 일정한 역사적 순서로써 각이한 나라들 즉 서반아, 포도아, 화란, 불란서 및 영국 사이에 배분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계기들은 17세기 말에 식민 제도, 국채 제도, 군대적 조세 제도 및 보호 무역 제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통합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포악 무도한 폭력에 답각하는 것이었으니 레컨대 식민 제도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봉건적 생산 방식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의 전화 과정을 온실적으로 촉진하며 그 과도적 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국가 권력 즉 사회의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권력을 리용한다.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포단을 회회에 파견하였다 (에이킨 박사 《만체스터 주위 30 내지 40 만
일 지방의 서술》 런던, 1795년).

배태하고 있는 모든 낡은 사회의 조상부이다. 폭력 자체가 한 개의 경제적 잡세력이다.

기독교적 식민 제도에 관하여, 기독교를 자기의 전공으로 삼고 있는 윌리엄 하우이트라는 인물은 말한다——《소위 기독교 인종이 세계의 도처에서 또 그들에 의하여 정복될 수 있었던 모든 인민들에 대하여 수행한 야만 행위와 포악 무도한 잔인 행위는 어떠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도 그 류폐가 없으며, 또 가장 미개하고 몽매하며 가장 무정하고 파렴치한 인종도 포함한 그 어떠한 인종에 있어서도 류폐가 없는 것이다》²⁴¹. 17세기의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었던 화란의 식민지 경영사는 배신, 매수, 학살 및 비열의 류폐 없는 정경을 전개한다²⁴². 화란인이 자바에서 사용할 노예를 얻기 위하여 세레베스에서 실시한 인간 홀치기 제도처럼 특징적인 것은 더는 없다.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인간 도적이 훈련되었다. 도적, 통역 및 판매인은 이 거래의 주되는 매행자들이었으며 토착 왕후는 주되는 판매인이었다. 홀치기에 걸려 온 젊은이들은 노예선으로 보낼만큼 성장할 때까지 세레베스의 비밀 감옥에 은닉되었다. 어떤 공식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페컨대 마카사르라는 이 도시는 비밀 감옥들로써 충만되어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우며, 거기에는 가족으로 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쇠사슬에 얹매인, 탐욕과 포악의 희생자

241 윌리엄 하우이트 《식민과 기독교, 구타파인들의 모른 식민 지에서의 토인 취급에 관한 통속적 역사》 런던, 1838년, 9페이지. 노예 취급에 관하여서는 샤르트르 콩트의 《법법론》 (제 3판, 부트셀, 1837년에 좋은 자로집이 있다. 부르주아가 자기의 생긴 모양대로 거리낌 없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어떠한 것으로 만드느냐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런 자료를 상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42 전 자바 부총독 토마스 스타포드 랑폴즈 《자바의 역사》 런던, 1817년.

인 가업은 인간들이 가득차 있다». 말라카를 손에 넣기 위해서 화란인들은 포도아 총독을 매수하였다. 1641년에 총독은 화란인들이 시내에 들어 오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들은 곧 총독의 집으로 달려 가서 그를 학살하였는데 그것은 약속한 매수 금액 2만 1,875파운드 스텔링의 지불을 《절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 마다 어데서나 황폐와 인구 감소가 수반하였다. 자바의 한 지방인 반쥬완기는 1750년에는 주민의 수가 8만을 산하였는데 1811년에는 8,000에 불과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팬치 않은 장사(doux commerce)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동인도 회사는 동인도에서의 정치적 지배 이외에 차 무역과 중국 무역 전반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졌으며 그 밖에도 구라파를 왕래하는 화물 수송의 독점권을 자기 수중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 연안 항해 및 도서들 간의 항해와 인도 내륙 무역은 회사의 고급사원들의 독점으로 되었다. 소금, 아편, 구장(茄醬) 및 기타 상품에 대한 독점은 부의 무진장한 원천이었다. 회사 사원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설정하고 불행한 힌두인들을 마음대로 해치였다. 총독도 이러한 사'적 거래에 참가하였다. 그의 총애를 받은 자들은 편금술사(鍊金術師)들 보다는 더 교묘하게 무로부터 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획득하였다. 거액의 재산이 우후 죽순처럼 하루'밤 사이에 자라 났으며 시초 축적은 한 실링의 투자도 없이 진행되었다. 워렌 헤이스팅즈의 재관은 이와 같은 실패들로써 가득차 있다. 그 중 일례를 들어 보자. 설리벤이라는 자에게 그가 아편 생산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인도의 어떤 지방에 공무를 띠고 떠나려고 하던 순간에 아편 납입 계약 일건이 부여되었다. 설리벤은 그의 계약을 4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빈이라는 자에게 팔았으며, 빈은 그것을 또 같은 날에 6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전매하였다. 이 계약을 최후로 구매하여 리행한 자는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리득을 얻었다고 면명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어떤 서류에 의하면 이 회사와 그 직원들은 1757년부터 1766년까지에 인도 인들로 하여금 600만 파운드 스털링을 자기들에게 기증시켰다! 1769년부터 1770년까지에 영국인들은 쌀을 전부 매점하고 그것을 엄청난 가격으로써가 아니고는 다시 파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인공적으로 기근을 조작하였다²⁴³.

로차민의 취급은 물론, 서인도와 같이 천적으로 수출 무역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는 식민 재배지에서와, 멕시코 및 동인도와 같이 강도 살인의 대상으로 내 맡겨진 부유하고 인구 주된 나라들에서 가장 횡포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식민지들에서도 시초 축적의 기독교적 성격은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신교(新敎)의 근엄한 대가들인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1703년에 그들의 팀법회의(Assembly)결의에 의하여 인디안의 두피(頭皮)한 장이거나 호로 일명에 대하여 40 파운드 스털링의 상금을 걸었으며, 1720년에는 두피 한 장에 상금은 100 파운드 스털링으로 되었으며, 1744년에 매서췌셋트 만(灣)에서 어떤 종족이 역도(逆徒)라고 천천원 후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을 붙였다——즉 12세 이상의 남자의 두피는 신 롱화 100 파운드 스털링, 남자 포로는 105 파운드 스털링, 부녀나 아동 포로는 55 파운드 스털링, 부녀나 아동의 두피는 50 파운드 스털링! 수십년 후에 식민 제도는, 그 동안에 영 본국에 대하여 폭도로 된, 경전한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1620년에 북 아메리카로 건너 가서 식민지를 건설한 103인의 영국 교회의 분리자들]의 자손들에게 복수하였다. 영국인의 매수와 사육하에 그들은 토인들의 도끼에 찍혀 죽었다. 영국 의회는 살륙화 두피 배끼

243 1866년에는 오트사 주 하나에서만도 백만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아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어 죽어 가는 사할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생활 수단을 판매함으로써 인도의 국고를 부유케 하려고 백방의 노력이 기울였다.

기를 《신과 자연에 의하여 우리의 수중에 부여된 수단》이라고 선언하였다.

식민 제도는 무역과 항해를 온실적으로 성숙시켰다. 《독점 회사》(《Gesellschaften Monopolia》)(루테르)는 자본 집적의 강력한 공간이었다. 식민지는 급속히 성장하는 마누콕뚜라를 위하여 판매 시장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시장의 독점에 의하여 강화된 축적을 보장하여 주었다. 구라파 밖에서 직접 략탈, 로착민의 노예화, 강도 살인에 의하여 획득된 재물은 본국으로 흘러 들어 와서 거기에서 자본으로 전화되었다. 식민 제도를 제일 먼저 완전히 발전시킨 화란은 1648년에 이미 상업적 위력의 절정에 달하였다. 이 나라는 《동인도 무역과 구라파의 서남부와 동북부 간의 교역을 거의 독차지 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어업, 항해 및 마누콕뚜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통가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공화국의 자본은 나머지 구라파 전체의 자본보다 많았을 것이다》[G. 킬릿히 《역사적 서술》에나 1830년, 제 1권, 371페이지]. 이 글을 쓴 킬릿히는 다음과 같이 부언할 것을 잊어 버리고 있다——즉 화란의 인민 대중은 1648년에 이미 구라파의 다른 모든 인민 대중보다 더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더 빈곤하였으며 더 참혹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에 있어서는 산업적 파편은 상업적 파편을 수반한다. 이와는 반대로,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콕뚜라 시기에는 상업적 파편이 산업상의 우세를 보장하여 준다. 그 때문에 식민 제도가 그 당시에는 특출한 역할을 논 것이다. 식민 제도는 구라파의 옛 신들과 나란히 제단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이 신들을 모두 한꺼번에 때려 엎어 버린 《낯설은 신》이었다. 식민 제도는 치부가 인류의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중세기에 이미 게누아와 베네치아에서 그 기원을 보게 되는 공공 신용 즉 국채 제도는 마누콕뚜라 시기에 전 구라파에 전

파되었다. 식민 제도는 그에 따르는 해상 무역과 상업 전쟁과 더불어 이 제도를 위한 온실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우선 화란에서 확립되었다. 전제 국가이든 립헌 국가이든 공화제 국가이든 간에 국채, 즉 국가의 양도는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짓는 것이다. 소위 국민적 부 중에서 현실적으로 근대적 인민의 총적 점유(總的占有)로 들어 가는 유일한 부분은 그들의 국채이다^{243a}.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많은 채무를 지면 질수록 그 국민은 부유하게 된다는 근대적 교리(敎理)는 완전히 리로정연(理路整然)하다. 공공 신용은 자본의 신조(信條)로 된다. 그리하여 국채의 발생에 따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죄로 되는 것은 성령(聖靈)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채에 대한 불신이다.

공채는 시초 축적의 가장 강력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 마치 마술 지팡이를 흔들어서 하는 것 처럼 공채는 비생산적인 화폐에 생산력을 부여하며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바, 그나마 화폐를 산업에 투자할 때나 심지어는 고리 대금업에 투자할 때에도 반드시 부수되는 위험과 번잡을 겪을 필요마저 전혀 없다. 국가에 대한 채권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이 대부한 금액은 용이하게 튜통될 수 있는 공채증서로 전화하며 이것은 그 금액만큼의 현금과 조금도 다름 없이 그들의 수중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조성된 유한(有閑)금리 생활자 계급이나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노는 금융업자들의 '일확천금의 부는 고사하고라도, 또한 온갖 국채의 상당한 부분을 하늘에서 떨어진 자본으로서 리용하는 징세 청부인, 상인, 사'적 공장주

243a 윌리엄 코벳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 모든 공공 기관은 《왕의》(royal) 무엇 무엇이냐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그 대신에 채무는 《국민의》 부채 (national debt)이다.

들의 일확천금의 부는 고사하고라도, 국채는 주식 회사, 온갖 종류의 유가증권 거래, 투기업, 한 마디로 말하여 취인조 투기와 근대적 은행 지배를 일으켰다.

국민의(national)라는 칭호를 덧붙인 대은행들은 그 탄생의 첫 날부터 정부에 협력하였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의 덕택으로 정부에 화폐를 대부할 수 있었던, 사'적 투기업자들의 회사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행들의 주식의 계속적 등귀는 국채 축적의 가장 확실한 척도로 되는데 이와 같은 은행들의 완전한 발전은 잉글랜드 은행의 창립(1694년) 이래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자기의 화폐를 8%로 정부에 대부하는 것으로써 자기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이 은행은 동일한 자본으로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 받음으로써 그 자본을 은행권의 형태로 다시 한 번 공중에게 대부하였다. 잉글랜드 은행은 이 은행권을 가지고 수형물 할인(割引)하며, 상품 담보 대부를 하며 귀금속을 사들일 수 있었다. 얼마 안가서 이 은행 자체가 만들어낸 신용 화폐는 주화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으로 국가에 대부를 하였고 국가의 계산으로 공채 리자를 지불하였다. 이 은행은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도로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으니, 도로 받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준 최후의 한 푼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영원한 채권자로서 남아 있었다. 이 은행은 점차로 국내의 금속 저장의 확실한 보관자로 되었으며 전체 상업 신용의 중심(重心)으로 되었다. 영국에서는 마녀(魔女)에 대한 화형(火刑)을 그만둔 같은 시기에 은행권 위조자의 교형(絞刑)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 귀족, 금융업자, 금리 생활자, 중개인, 주식 투기업자 및 주식 취인업자들의 일당의 돌연한 출현이 동 시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저술들, 벤티매 블링브로크의 저술이 증명하여

준다^{243b}.

국채와 더불어 국제 신용 제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흔히 이러 저러한 국민에 있어서 시초 축적의 원천의 하나를 은폐한다. 페컨대 베네치아의 추악한 강탈 제도는 몰락하여 가는 베네치아로부터 거액의 화폐를 대부 받은 화란의 자본주의적 부의 은폐된 기초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화란과 영국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미 18세기 초에는 화란의 마누팍투라들은 영국의 그것들에 의하여 훨씬 평가되어 화란은 지배적 상업—및—산업국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1701—1776년 기간에 화란의 주요한 기업의 하나로 된 것은 방대한 자본의 대출, 특히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인 영국에 대한 대출이었다. 유사한 관계가 현재 영국과 합중국 사이에도 있다. 오늘 합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출처 불명의 많은 자본은 영국에서 어제 금방 자본화된 아동의 선혈(鮮血)이다.

국채는 국가 수입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것으로써 년년의 리자 기타 지불에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대적 조세 제도는 국채 제도의 필수적인 보충물로 되었다. 국채는 정부로 하여금 립시비를, 납세자가 당장에 그것의 중하를 느끼게 하지 않고 지번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결과로서는 증세를 필요하게 한다. 타방으로 연속적으로 계약된 부채의 루적으로 인한 증세는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립시 지출을 할 때 마다 부단히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가장 필수적인 생활 수단에 대한 파세(따라서 그것의 가격 등귀)를 추축(樞軸)으로 하는 근대적 국고 제도는 그 자체내에 조세의 자

243b 《판약 소들난 따따로인들이 구라파에 가득차 있다면, 우리들 속에서 금융업자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그들에게 리해시키기는 해우 곤난할 것이다》(몬테스큐 《법의 정신》 런던판, 1769년, 제 4권, 33페이지). [로씨야어판, 표할레우쓰키 감수, 고톤벨드 번역, 쉐트 페제르부그, 1900년]

동적인 유진적 증대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과중 과세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와 제일 먼저 발족한 화란에서 위대한 애국자 드 윌트는 그의 잡언(箴言)중에서 이 제도는 고용 노동자들을 순종, 절제, 근면케 하며 또한……과도한 노동에 종사케 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군대적 국고 제도가 고용 노동자의 상태에 주는 파괴적 영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에 의하여 제약된, 농민, 수공업자, 한 마디로 말하여 소 부르조아지의 모든 구성 부분의 폭력적 수탈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부르조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없다. 국고 제도의 수탈적 작용은 이 제도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의 하나인 보호 무역 제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공채 및 그것에 상응하는 군대적 국고 제도가 부의 자본화, 대중의 수탈 및 고용 노동자의 억압에 있어서 노는 거대한 역할로 말미암아 코벳트, 더블데이 및 기타와 같은 일련의 저술가들은 부당하게도 군대적 인민의 빈궁의 주요 원인을 거기에서 찾게 되었다.

보호 무역 제도는 공장주들을 만들어 내며 독립적 노동자를 수탈하며, 국민적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을 자본화하며, 낡은 생산 방식으로부터 군대적 생산 방식으로의 과도를 폭력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인위적 수단이었다. 구라파의 국가들은 이 발명의 특허를 얻고자 앞뒤를 다투었으며, 일단 화식가(貨殖家)에게 복무하게 되자 이 목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는 보호 관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는 수출 장려금 등등에 의하여 자국민만을 약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예속되어 있는 2등국들에서 모든 산업을 폭력적으로 전멸시켰는바 페컨대 애란의 양포 마누콕두라는 잉글랜드에 의하여 절멸되었다. 구라파 대륙에서는 이 과정은 콜베르의 선택에 따라 보다 더 훨씬

단순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산업가들의 시조 자본의 현저한 부분이 직접 국고로부터 흘러 갔다. 미라보는 웨친다——《작센의 마누팩투라의 번영의 원인을 무엇 때문에 멀리 7년 전쟁 이전에 찾으려 하는가? 1억 8,000만의 국채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만일 것이다!》²⁴⁴.

식민 제도, 국채, 조세의 중압, 보호 무역 제도, 상업 전쟁 등등——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누팩투라 시기의 이 모든 맹아는 대규모 공업의 유년기에 거대하게 번성한다. 대규모 공업의 탄생은 헤로비 왕이 한 바와 같은 대대적인 아동 랍탈로써 축복된다. 영국 함대가 자기의 해병을 징집하듯이 공장들은 자기의 노동자들을 강압에 의하여 모집한다. 썸 F·M·이든은 15세기의 최후 3분의 1시기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시대인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농촌 주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의 참혹함에 그렇게도 맹담하였으며, 또한 자본주의적 농업과 《경작지와 목장 간의 올바른 비율의 설정》에 《필연적인》 이 과정을 그렇게도 자기 만족을 가지고 경축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마누팩투라적 생산을 공장적 생산으로 전화하며, 자본과 노동력 간에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동을 랍탈하고 노예화하여야 할 필연성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제학적 동찰을 보이며 주고 있지 않다. 그는 말한다——《다음과 같은 문제, 즉 성과적으로 일을 해가기 위하여 빈민 아동을 오막살이와 노동 수용소로부터 훔쳐 내어 이들을 집단적으로 교대시키면서 야간의 대부분을 혹사하며 휴식도 빼서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공업, 그 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별을 달리하는 다수의 남녀를 한 곳에 몰아 넣음으로써 불피고 실패에 물들어 방탕과 음란에 이르게 하는 공업, 이와 같은 공업이 국민적 및 개인적 행복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공중의 관심사가 될

244 미라보 《프로세야 왕국에 관하여》 제 6권, 101페이지.

만하다》²⁴⁵. 《더비사, 낫팅햄사 및 특히는 랭카셔에서는——하고 필든은 말한다——최근에 발명된 기계가 수차를 돌릴 수 있는 하천'가에 밀접한 큰 공장들에서 사용되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들에서는 수 천명의 일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랭카셔는 특히 그 당시까지 인구가 희박하였으며 또 증식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보다도 인구의 증가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아동들의, 작고 민첩한 손'가락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 즉시로 런던, 버밍햄, 기타의 교구 로동 수용소로부터 견습공을 징모하는 관습이 생겼다. 7세로부터 13 내지 14세까지의 의지할 곳 없는 몇 천 명 켜이나 되는 이러한 아동들이 복부로 수용되었다. 고용주(즉 아동 도적)가 자기의 견습공을 입히고 먹이고 공장 가까이 있는 견습공 수용소에 류속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그들의 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시인이 배치되었다. 이 감시인의 급료는 아동으로부터 짜 낸 생산물 양에 비례하였기 때문에 아동들을 될수록 더 많이 로동시키는 것이 이 노예 사역자들의 리익으로 되었다. 그 결과, 자연 학대가 심하였다……많은 공장 지구들에서 특히는 랭카셔에서, 공장주의 손아귀에 맡겨진 이러한 무고하고 고독한 아동들은 천인 공노할 학대를 당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로동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시달리었으며……채찍으로 맞았으며, 쇠사슬에 얹매웠으며 극히 고통스러운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기아·피골이 상접하면서 채찍으로써 로동을 강요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들은 때로는 자살에까지 이르렀다!……더비사, 낫팅햄 및 랭카셔의, 사람들의 이목이 달하지 않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계곡은 고문과 그리고 흔히 살인의 음산한 산골자기로 화하였다!……공장주들의 리익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245 이른 《빈민의 상태》 제 2권, 제 1장, 421페이지.

승냥이와 같은 탐욕에 불을 질렀을 뿐이다. 그들은 야간 로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한 조의 직공들을 주간 로동으로 피로에 쓰러지게 한 다음에는 야간 로동을 위하여 다른 조의 직공들을 준비하였다. 주간조는 야간조가 방금 버리고 간 침대로 기여 들어 갔으며 또 야간조는 주간조가 버리고 간 침대로 기여 들어 갔다. 한 때도 침대가 식을 사이가 없다고 랭카셔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²⁴⁶.

마누팩투라 시기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구라파의 사회 여론에서는 수치와 양심의 최후의 흔적마저 볼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파렴치하게도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치욕스러운 짓이라도 자랑하였다. 페

246 존 필든 《공장 제도의 저주》 런던, 1836년, 5, 6페이지. 공장에서 시초적으로 수행된 치욕스러운 짓들에 관하여서는 에이킨 박사 《만체스터 주위 30 내지 40 마일 지방의 서술》 런던, 1795년, 219페이지 및 기스본 《인간의 의무의 연구》 1795년, 제 2권을 참조. 증기 기관이 공장을 락류가 있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중심으로 이전시켰으므로 《금욕》을 좋아하는 화식가들은 이제는 아동 재료를 자기의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로동 수용소로부터 노예를 강제로 공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새 로버트 필(《구변 좋은 대신》의 아버지)이 1815년에 아동 보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 F·호너(지금은——地金銀——조사 위원회——[Bullion-Committee]의 명성이며 리카도의 친구)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어떤 파산자의 소지물과 함께 공장 아동의 1대——만일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면——가 재산의 1부로서 광고되고 정매에 부쳐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 전(1813년)에 증오스러운 한 사건이 고등 법원 판정(King's Bench)에 상정되었다. 한 패의 아동들에 관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런던의 어떤 교구에서 어떤 공장주에게로 인도되었으며 이 공장주는 그들을 다시 다른 공장주에게 양도하였다. 드디어 수명의 자선가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절대적 기아(absolute famine) 상태에 있었다. 그보다 더 증오스러운 다른 한 사건을 의회 조사 위원회의 한 위원인 그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오래지 않은 수년 전에 런던의 어떤 교구와 랭카셔의 어떤 공장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그 공장주는 건전한 아동 20명에 천치 한 명씩을 끼워 받게 되어 있었다》.

권대 속물인 A·앤더슨의 소박한 상업사를 읽어 보라. 이 저서에서는, 종래에는 영국이 흑인 무역을 아프리카와 영령 서인도 사이에서만 하였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와 서반아령 아메리카에서도 해도 좋다는 특권을 우트레히트 평화 조약 체결시에 아시엔트 협정[노예 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서반아인으로 부쳐 강탈한 사실을 영국 국책의 최대 승리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영국은 174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4,800명의 흑인을 서반아령 아메리카에 공급할 권리를 얻었다. 이 때문에 동시에 영국의 밀무역에는 공공연한 엄폐물이 생겼다. 리버풀은 노예 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장성하였다. 노예 무역은 이 도시의 시초 축적의 방법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버풀의 상층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 즉 —우에서 인용한 1795년의 에이킨 박사의 저서 참조—《상업적 기업 정신을 정열로까지 양양시키며 훌륭한 해원을 양성해 내며 막대한 화폐를 가져다 준》 노예 무역의 핀다로스[희랍의 서정시인]로 남아 있다. 리버풀에서 노예 무역에 사용된 선박의 수는 1730년에는 15척, 1751년에는 53척, 1760년에는 74척, 1770년에는 96척, 1792년에는 132척이었다.

면방 작업은 영국에서는 아동의 노예 제도를 초래케 함과 동시에 종래는 많거나 적거나 가부장제적이었던 합중국의 노예 경제를 상업적 착취 제도로 전화시키는 데 자극을 주었다. 일반적으로는 구라파에서의 고용 노동자의 은폐된 노예 제도는 신 세계에서의 은폐되지 않은 노예 제도를 자기의 발판으로 필요하였다²⁴⁷.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영원한 자연 법칙》이 자유롭게

247 1790년에 자유민에 대한 노예의 비율은 영령 서인도에서는 1명 대 10명, 볼탄서령에서는 1명 대 14명, 화란령에서는 1명 대 23명이었다. (헨리 브룸 《구라파 열강의 식민 정책의 연구》, 에딘버러, 1803년, 제 2권, 74페이지).

발전되기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며, 노동자들을 그들의 노동 수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완성하며, 한국에서는 사회적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대국에서는 인민 대중을 고용 노동자로, 즉 자유로운 《노동 빈민》——이것은 근대사의 걸작이다——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였다²⁴⁸. 오지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만약 화폐가 《한 쪽 불에 날때부터 피자육을 떠고 이 세상에 나온다》²⁴⁹고 하면 자본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모든 털 구멍에서 피와 오

248 《노동 빈민》(《labouring poor》)이라는 표현은 고용 노동자 계급이 주목을 끌만큼 된 순간부터 영국 법률에 나타나고 있다. 이 《노동 빈민》은 일방으로는 《라태한 빈민》(《idle poor》)인 절인 등등과 대립되며 타방으로는 아직 털을 다 뽑히어 버린 닭이 아니고 자기의 노동 수단의 소유자인 노동자들과 대립된다. 이 《노동 빈민》이란 표현은 법률로부터 정치 경제학으로 옮겨 가서, 여기에서 켈페피, J·차일드 등등으로부터 A·스미쓰와 이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노동 빈민》이라는 표현을 《저주할 정치적 뽕어(通語)》(《execrable political cant》)라고 언명한 《저주할 정치적 뽕어 군》(《execrable political cantmonger》)인 에드먼드 버크의 성실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아메리카 동단의 초기에는 북 아메리카 식민지에 고용되어 영국 파루 정부를 반대하여 자유주의자의 역할을 논 것 꼭 막까지로 이번에는 영국 파루 정부에 고용되어 불탄서 혁명을 반대하여 랑만주의자의 역할을 논 이 아부쟁이는 철두철미 범속한 부르조아이였다. 그는 말한다——《상업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신의 법칙이다》(E·버크 《궁궐에 관한 의견 및 자세한 사정》, 런던, 1800년, 31, 32페이지) 신과 자연의 법칙에 충실한 그가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팔았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토키 사(師)의 저술 가운데서 자유주의자이었던 당시의 이 에드먼드 버크에 관한 극히 적절한 성격 묘사를 찾아 볼 수 있다. 토키는 숭배했으며 토리당원이었으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온당한 인간이었으며 유능한 경제학자이었다. 현재 정치 경제학에서 수치스러운 무원칙성이 행행하고 있으며 《상업의 법칙》에 대한 가장 경건한 신앙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버크 도배——그 후계자들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재치 뿐인——에 대하여 몇 번이고 락인을 찍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249 마리 오지에 《공공 신용에 관하여》 파리, 1842년, 265페이지.

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²⁵⁰.

제 7 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그러면 자본의 시초 축적 즉 자본의 역사적 발생사는 결국 무엇에 귀착되는가? 그것은 노예 및 농노의 고용 노동자로서의 직접적 전화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한 형태 변화가 아닌만큼, 그것은 직접적 생산자의 수탈, 즉 자체의 노동에 립각한 사'적 소유의 해체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집단적 소유의 대립물로서의 사'적 소유는 노동 수단 및 노동의 외부적 제 조건이 사'적 인물에 속하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적 인물이 노동자인가 또는 비노동자인가에 따라 사'적 소유도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일견해서 볼 수 있는 사'적 소유의 무한한 다양성은 이 양극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상태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로력자의 사'적 소유는 소생산의 기초이며 소생산은 사회적 생산 및 로력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노예 제

250 《자본은——하고 쿼터리 리뷰어지는 말한다——소란과 분쟁을 피하는 것이며 겁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그러나 결코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자연이 진공(眞空)을 두려워하는 듯이 자본은 리윤이 없거나 또는 리윤이 극히 적은 것을 두려워한다. 상당한 리윤만 있다면 자본은 파압해 진다. 10퍼센트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퍼센트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퍼센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퍼센트이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 퍼센트이라면 자본에게는 단 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만약 소란과 분쟁이 리윤을 가져다 준다면 자본은 그 어느 것이라도 다 고무할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밀 무역과 노예 무역이다》(T·J·먼닝 《노동 조합과 파업》 런던, 1860년, 35, 36페이지).

도하에서도 농노 제도하에서도 그리고 기타의 예속 관계하에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번영하며, 자체의 모든 정력을 발휘하며, 적당한 고전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다만 '로력자가 그 자신에 의하여 적용되는 노동 제 조건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자인 경우 즉, 농민은 그에 의하여 경작되는 경지의 소유자이며 수공업자는 그에 의하여 농축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의 소유자인 경우에 있어서 뿐이다.

이 생산 방식은 토지 및 기타 생산 수단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이러한 생산 수단의 집적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협업과 동일한 생산 과정 내부에서의 분업, 자연에 대한 사회적 지배 및 조정, 사회적 생산력의 자유로운 발전도 배제한다. 그것은 생산과 사회의 협소한 자연 발생적 한계와만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영원화하려고 하는 것은 페쉴르가 옳게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평범사를 지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고도에 달하면 자기 자체를 폐절하는 물질적 수단을 스스로 조성한다. 이 순간부터 사회의 태내에서는 이 생산 방식의 질곡을 느끼는 역량들과 정렬들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 생산 방식은 폐절되어야 하며 또 폐절되는 것이다. 그것의 폐절, 개인적이며 분산적인 생산 수단의 사회적으로 집적된 생산 수단으로의 전화, 따라서 다수인의 령세 소유의 소수인의 거대 소유로의 전화, 따라서 또 광범한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토지와 생활 수단과 노동 도구의 수탈, 인민 대중의 이와 같은 무서움과 가혹한 수탈은 자본의 전사(前史)를 이루는 것이다. 이 수탈은 자체내에 일련의 폭력적 방법들을 포섭하는바, 그 중에서 우리는 획기적인 것만을 시초 축적의 방법으로서 고찰하였다. 직접적 생산자의 수탈은 가장 무자비한 만행으로써 그리고 가장 파렴치하며, 가장 추악하며 또 가장 비루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열정의 충동하에서 수행된다. 말하자면 개개인의 독립적 로력자와 그의

로동 조건들과의 유착에 팀각하였으며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적 소유는 타인의,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로동의 착취에 팀각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하여 구축 당한다²⁵¹.

이 전화 과정이 구사회를 깊이 에 있어서나 넓이 에 있어서나 충분히 분해시키자 마자, 또 로동자는 프로레타리아로 전화되고 그들의 로동 제 조건은 자본으로 전화되자 마자, 그리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제 발로 서게 되자 마자 로동의 가일충의 사회화, 토지 및 기타 생산 수단의 사회적으로 리용되는 생산 수단 즉 공동적인 생산 수단으로의 가일충의 전화, 이와 관련된 사'적 소유의 가일충의 수탈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제 수탈당하여야 할 것은 자립적 경리의 노력자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로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자본가이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의 내재적 제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즉 제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한 자본가 마다가 다수의 자본가를 타도한다. 이와 같은 집중 즉 소수 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보조를 맞추어 로동 과정의 협업적 형태가 더욱 더 증대하는 규모에서 발전하며, 과학의 의식적인 기술적 적용, 토지의 계획적 리용, 공동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의 로동 수단의 전화, 결합된 사회적 로동의 생산 수단으로서 사용됨으로 인한 모든 생산 수단의 절약, 모든 인민들의 세계 시장 망으로의 편입, 따라서 또 자본주의 제도의 국제적 성격이 발전한다. 이 전화 과정의 모든 리익을 획취하며 독점하는 자본 거두들의 수가 부단히 감소함에 따라 궁핍, 억압, 예속, 퇴폐, 착취의 정도도 증대하지만 그러나 부단히 증가하는 로동 제급,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자체의

251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회 제도하에 들어 섰다……우리는 온갖 종류의 로동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소유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시스몬디《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 2권, 434페이지).

기구(機構)에 의하여 훈련되며, 결합되며, 조직되는 노동 계급의 반향도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그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밑에서 성장한 생산 방식의 절점으로 된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점에까지 도달한다. 이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吊鐘)이 울린다. 수탈자들은 수탈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자본주의적 취득 방식,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는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개인적인 사'적 소유에 대한 첫째 번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하나의 자연적 과정의 필연성으로써 그 자체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은 사'적 소유를 재건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획득물 즉 협업과 토지 및 노동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 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를 낳는다.

개 개인의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분산된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로의 전화는 사실상 이미 사회적 생산 과정에 밑각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화보다 비할 수 없이 지리하며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과정임은 물론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수의 횡탈자에 의한 인민 대중의 수탈이 문제이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인민 대중에 의한 소수의 횡탈자들의 수탈이 문제이다²⁵².

252 《산업의 전보——부르조아지가 이것의 무의사 무저항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는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립화 대신에 연합에 의한 그들의 혁명적 단결을 가져 온다. 이리하여 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부르조아지가 생산물을 생산하며 그것을 취득하는 기반 자체가 부르조아지의 발 밑으로부터 무너져 나간다. 그리하여 부르조아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모혈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부르조아지의 멸망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다 같이 불가피적이다……오늘날 부르조아지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계급중에서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기타의 모든 계급은 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며 멸망하는데 프로레타리아트는 대산업 자체의 산물인 것이다……제 중간층 즉 소산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및 농민은 모두 중간층으로서의 자기들의 존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못되고 보수적이다. 아니 그들은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즉 그들은 역사의 바퀴를 역전시키려고 한다》(칼 맑스 및 F·엔겔스 《공산당 선언》 런던, 1848년, 11, 9페이지)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 5권, 494—495, 493페이지].

제 25장 근대적 식민 이론²⁵³

정치 경제학은 두 개의 관이한 종류의 사'적 소유를 원칙상 혼동하고 있는바 그중 하나는 생산자 자신의 노동에 립각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타인 노동의 착취에 립각하고 있다. 후자는 비단 전자의 직접적 대립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무덤 위에서만 장성한다는 것을 정치 경제학은 망각하고 있다.

정치 경제학의 고향인 서구라파에 있어서는 시초 축적의 과정은 많거나 적거나 완성되었다. 자본주의 제도는 여기에서 모든 국민적 생산을 직접 정복하였거나 또는 제 관계가 아직 덜 발전된 곳에서는 그와 더불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면서 형락하고 있는, 낡은 생산 방식에 속하는, 사회층들을 적어도 간접으로 통제하고 있다. 제 사실이 경제학자의 이데올로기에 항거하여 크게 웨치면 웨칠수록 그는 이 기성의 자본 세계에 대하여 더욱 더 조심스러운 열심과 더욱 더 큰 감동으로써 전(前) 자본주의 세계의 법률 관념과 소유 관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식민지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자본주의 제도는 거기에서는 도처에서, 자기 자신의 노동 조건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자본가를 치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253 여기에서는 현실적 식민지, 즉 자유 인민에 의하여 식민되는 처녀지를 취급한다. 합중국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의연히 구라파의 식민지이다. 또한 노예 제도의 철폐에 의하여 사정이 일변한 구식민 지배지들도 여기에서 취급된다.

치부케 하는 생산자의 방해에 부딪친다. 이 두 개의 정반대의 경제 체제의 모순은 여기에서는 실천적으로 그들 간의 투쟁으로서 나타난다. 자본가가 본국의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는 그는 자신의 노동에 적합한 생산 방식과 취득 방식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자본의 아부자인 경제학자로 하여금 본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그 자체의 반대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그 같은 이해관계가 여기에서는 그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실토케》(to make a clean breast of it)하고 있으며 이 두 생산 방식들의 대립을 소리 높여 선언하게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즉 협업, 분업, 기계의 대규모적 적용 등등은 노동자의 착취와 그에 상응하는 생산 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소위 국민적 부의 리익을 위하여 그는 인민적 빈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인위적 수단을 탐색한다. 그의 변호론적 갑주(甲冑)는 여기에서는 썩은 인화목(引火木)처럼 조금씩 조금씩 부스러져 간다.

식민지에 관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²⁵⁴ 식민지에서 본국의 자본주의적 제 관계에 관한 진리를 발견한 것은 E·G·웨이크필드의 위대한 공적이다. 보호 무역 제도가 그것의 발생 당시에²⁵⁵ 본국에서 자본가를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한 것처럼 웨이크필드의 식민 이론——영국은 한 동안 이 식민 이론을 법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려고 하였다——은 식민지에서 고용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한다. 이것을 그는

254 식민지 자체의 본질에 관한 웨이크필드의 약간의 해명은 중농학파인 미라보(아버지)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다.

255 보호 무역 제도는 후에 이르러 국제적인 경쟁적 투쟁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의 동기는 여하론 간에 그것의 후과는 의연 동일한 것이다.

《조직적 식민》(《systematic coloniz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웨이크펠드가 우선 식민지에서 발견한 것은, 어떤 사람이 화폐, 생활 수단, 기계 및 기타 생산 수단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의 보충물인 고용 노동자 즉 자기 자신을 자유 의사에 의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는 아직 자본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이란 물건이 아니며 물건들에 의하여 매개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⁵⁶. 그는 필씨가 총액 5만 파운드 스털링의 생활 수단과 생산 수단을 영국으로부터 서부 오스트랄리아의 스원 리버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필씨는 예견성 있게도 이 밖에 노동 계급의 남녀와 아동들 3,0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필씨에게는 그의 잠자리를 보아 준다던가 강물을 길어다 줄 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²⁵⁷. 불행한 필씨는 모든 것을 예견하였지만 그러나 영국의 생산 제 관계를 스원 리버로 수출하는 것 만은 예견하지 않았던 것이다!

웨이크펠드의 다음과 같은 발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개의 예비적 주석을 가하여 두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것들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들은 동

256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제 관계하에서만 그는 노예로 된다. 면방적 기계는 면방적을 위한 기계이다. 일정한 제 관계하에서만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이러한 제 관계에서 벗어나 나온다면 그것은 자본이 아닐 것이니, 마치도 금이 그 자체로서는 화폐가 아니며 또는 사람이 사랑 가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자본은 하나의 사회적 생산 관계이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생산 관계이다》(칼 맑스 《고용 노동과 자본》, 1849년 4월 7일부, 《신 라인 신문》, 제 226호), [K·맑스, F·엔겔스 전집, 로썸야어 판, 제 5권, 429—430페이지].

257 E·G·웨이크펠드 《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 2권, 33페이지.

시에 노동자의 착취 수단이며 지배 수단으로서 복무하는 그러한 제 조건하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명분은 경제학자의 머리 속에서는 그것들의 소재적 실체와 일신 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심지어는 자본과는 정반대물인 경우에도 자본이라고 부른다. 웨이크필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또 다수의 호상 독립적이며 자립 경리의 노동자의 개인적 소유를 이루는 생산 수단의 분산을 그는 자본의 평등한 분할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학자나 봉건적 법학자나 다름이 없다. 봉건적 법학자는 순전한 화폐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봉건적인 법적 딱지를 붙였던 것이다.

《만약——하고 웨이크필드는 말한다——자본이 모든 사회성원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손으로써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토지 소유에 대한 열망이 고용 노동자 계급의 존재를 방해하고 있는 아메리카의 새로운 식민지들에서 어느 정도 그러하다》²⁵⁸. 따라서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적할 수 있는 동안은——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서 남아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다——자본주의적 축적과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에 불가결한 고용 노동자 계급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구라파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로부터의 노동 조건의 수탈과 따라서 자본과 고용 노동이 조성되었는가? 아주 독특한 종류의 사회 계약(contrat social)에 의하여서이다. 《인류는……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간단한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물론 아담의 시대 이래 인류에게 자기 존재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목적으로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258 E. G.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제 1권, 17페이지.

《인류는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의 소유자로 분할되었다……이 분할은 자유 의사에 기초한 합의와 결합의 결과이었다》²⁵⁹. 간단히 말하면 인류의 대중은 《자본 축적》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수탈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사회 계약(contrat social)을 몽상의 왕국으로부터 현실의 왕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인간과 사정들이 식민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는 이러한 광신적인 자기 희생의 본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자연 발생적 식민에 대립하는 《조직적 식민》이란 무엇 때문인가? 그러나 그러나 《아메리카 편방의 북부 제 주에서는 고용 노동자의 부류에 주민의 10분의 1이 나마 속하고 있는지》의 심스럽다……영국에서는……인민의 대부분이 고용 노동자이다》²⁶⁰. 아니, 자본의 영광을 위한 노동 인류의 자기 수탈의 본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예 제도는 웨이크펠드에 의하더라도 식민지의 부의 유일한 자연 발생적 기초인 것이다. 그의 조직적 식민은 순전한 응급 대책(pis aller)이니 왜냐 하면 그가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기 때문이다. 《산토 도밍고의 최초의 서반아 이주민들은 서반아로부터 노동자를 한 사람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노동자가 없이는(즉 노예 제도가 없이는) 자본은 파멸하던가 또는 적어도 매개인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규모로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국인들이 건설한 최후의 식민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서는 종자, 가축, 도구 등등으로 되어 있는 거액의 자본이 고용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멸하였으며 또한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주자도 자기 자신의 손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

259 동상서, 18페이지.

260 동상서, 42, 43, 44페이지.

았다》²⁶¹.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토지의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초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 식민지의 본질은 대량의 토지가 아직 인민의 소유이며 따라서 이주자 마다 그것의 일부를 자기의 사'적 소유로 또한 자기의 개인적 생산 수단으로 전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도 뒤에 오는 이주자들의 동일한 처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²⁶². 여기에 식민지 번영의 비밀이 있는 동시에 또한 식민지의 암증, 즉 자본의 이식에 대한 식민지의 반항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토지가 대단히 럼'가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이며 또한 각자가 자기의 희망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뼛기의 토지를 입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노동은 대단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노동자의 생산물 중에서 그가 받는 몫으로 보아——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가로써도 결합 노동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²⁶³.

식민지에서는 노동 제 조건 및 그것들의 기초인 토지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다만 산재적으로 또는 너무나 제한된 범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공업과 농업의 분리도 없으며 농촌 가내 공업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아메리카에서는 노예와, 자본 및 노동을 대규모 기업에 결합하는 노예주를 제외하고는 주민 중에서 농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자유 아메리카인들은 동시에 다른 많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261 동상서, 제 2권, 5페이지.

262 《토지가 식민의 요소로 되기 위하여서는 비단 미정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적 소유로 전화될 수 있는 공공 소유지이어야 한다》(E. G.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제 2권, 125페이지).

263 동상서, 제 1권, 247페이지.

그들에게 필요한 가구와 도구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만든다. 그들은 흔히 자기의 집을 자기 손으로 지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공업 생산물을 대단히 먼 시장에 가지고 간다. 그들은 방적공인 동시에 직조공이기도 하며 자기 손으로 자가용 비누, 양초, 신발 및 의복을 만든다. 아메리카에서는 토지 경작이 흔히 대장장이, 제분업자 또는 소매 상인의 부업으로 되어 있다》²⁶⁴. 이와 같은 기인(奇人)들 사이에서 자본가를 위한 《금욕의 여지》가 어디에 남아 있겠는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큰 장점은 그것이 고용 노동자를 고용 노동자로서 부단히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 축적에 비례하여 항상 고용 노동자의 상대적 과잉 인구를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의 수요 공급의 법칙은 정당한 궤도에서 유지되며, 토임의 변동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적합한 한계내에 제한되며, 끝으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예속, 즉 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구매자와 판매자, 동등하게 독립적인 상품 소유자들인, 상품인 자본의 소유자와 상품인 노동의 소유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만하는 절대적 예속 관계가 보장된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이 아름다운 환상은 깨여진다. 여기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성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본국에서 보다 훨씬 빠르지만 그러나 노동 시장은 항상 공급 부족이다. 노동의 수요 공급의 법칙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일방으로 구(舊)세계는 착취에 굶주리고 금욕을 열망하는 자본을 부단히 투입하는데 타방으로는 고용 노동자로서의 고용 노동자의 규칙적인 재생산은 가장 까다로우며 부분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친다. 하물며 자본의 축적에 비례

264 E. G.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 1권, 21, 22페이지.

해서 파잉한 고용 노동자의 생산에 이르러서라! 오늘의 고용 노동자도 래일에는 독립적인 자립 경리의 농민 또는 수공업자로 된다. 그는 노동 시장으로부터 사라지지만 결코 노동 수용소로 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며 자본가 제씨를 치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부케 하는 독립적 생산자로서의 고용 노동자의 이와 같은 부단한 전화는 이번에는 노동 시장의 상태에 전혀 유해스러운 반작용을 한다. 문제는 고용 노동자의 착취 정도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낮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고용 노동자는 금욕적인 자본가에 대한 예측 관계와 함께 그에 대한 예측 감정까지도 잃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E·G·웨이크펠드가 그렇게도 용감하게, 그렇게도 웅변으로 그렇게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든 폐단은 이에 유래하는 것이다.

그는 고용 노동의 공급이 부단하지도 않으며, 규칙적이기도 않으며, 충분하지도 않다고 개탄한다. 그것은 《언제나 지나치게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확실하지도 않다》²⁶⁵. 《로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분할하여야 할 생산물은 비록 크다 할지라도 로동자는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는 급속히 자본가로 된다……그렇지만 보기 드문 장수(長壽)를 하는 경우에조차 대량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²⁶⁶. 로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의 최대 부분의 지불을 자본가가 금욕하는 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는다. 비록 자본가가 아주 빈틈이 없어서 자기의 자본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고용 노동자를 구라파로부터 수입하여 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곧 고용 노동자임을 그만 두며, 곧 독립적 농민으로 되거나 또는 바로

265 E·G·웨이크펠드, 《영국과 아메리카》 제 2권, 116페이지.

266 동상서, 제 1권, 131페이지.

고용 노동 시장에서 자기들의 이전 고용주의 경쟁자로까지 된다》²⁶⁷. 얼마나 몹서리칠 일인가! 용감한 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귀중한 화폐로써 바로 자기 자신의 산 경쟁자를 구라파로 불러 수입하여 온 셈이다! 그러니 만사는, 다 틀렸다! 식민지에서 고용 노동자의 예속 관계와 예속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고 웨이크필드가 개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들에서는——하코 그의 제자 메리베일은 말한다——로임이 높기 때문에 보다 럼'가하고 보다 공손한 노동에 대한 갈망, 즉 노동자 자신이 자본가에게 조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조건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구 문명국들에서는 노동자는 비록 자유롭기는 하지만 자연 법칙에 의하여 자본가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식민지들에서는 이 종속 관계가 인위적 수단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²⁶⁸.

267 동상서, 제 2권, 5페이지.

268 메리베일 《식민과 식민지에 관한 강의》 런던, 1841년 및 1842년, 제 2권, 235—314페이지의 이곳 저곳. 온건한 자유 무역론적 속류 경제 학자 물리나리조차 다음과 같이 말한다——《강제 노동이 해당한 탕의 자유 노동으로써 대체됨이 없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식민지들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반대의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노동자들 편에서 산업 기업가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생산물 중에서 그들에게 속할 정당한 몫(part légitime)을 훨씬 초과하는 로임을 요구하고 있다. 척식자들은 자기들의 사탕을 팔아도 로임의 증대를 보상할 만한 가격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액을 처음에는 자기들의 리윤으로써, 다음에는 자기들의 자본으로써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많은 척식자들은 이와 같이 하여 멸락하였으며 기타 척식자들은 불가피한 멸락을 면하려고 기업을 폐쇄하였……의심할 바 없이, 수 세대의 인간의 파멸보다는 축적된 자본의 파멸이 보다 나을 것이다 (얼마나 판대한 물리나리씨인가!). 그러나 쌍방이 다 파멸하지 않는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물리나리 《경제학 연구》 파리, 1846년, 51, 52페이지). 물리나리씨여, 물리나리씨여! 만약 구라파에서는 《기업가》(entrepreneur)가 노동자의 정당한 몫(part légitime)을 잘라 먹고, 서인도에서는 노동자가 기업가의 정당한 몫을 잘라 먹을 수 있다면 도

그러면 웨이크필드에 의하면, 식민지의 이와 같은 폐단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생산자와 국민적 재산을 《분산시키는 야만적 제도》²⁶⁹이다. 무수한 자립 경리의 소유자들 사이에 생산 수단을 분산시키는 것은 자본의 집중과 아울러 결합 노동의 모든 기초를 파괴한다. 여러 해에 걸치며 거액의 고정 자본의 지출을 요하는 장기적 기업은 모두 그 수행상 장애에 부딪친다. 구라파에서는 자본은 잠시도 망서리지 않으니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노동 제급은 자본의 산 부속물을 이루고 있으며, 항상 과잉 상태로 존재하며, 자본에 봉사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 나라들에서는 어떠한가! 웨이크필드는 지극히 비룡한 한 개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캐나다와 뉴욕 주로부터 온 수명의 자본가들과 담화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인민의 파도가 자주 정체되며 《과잉》 노동자의 잔재가 침전된다. 이 가요극에 나오는 인물중의 한 사람은 탄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의 자본은 그 완수에 장기간을 요하는 많은 작업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을 착수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이주민들의 노동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즐겨 즉석에서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그들을 고용하였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나 가리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언제나 이주민의 새로운 공급이 확실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용

대체 쉽게(十職)는, 모제와 예언자들은, 수요 공급의 법칙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라파의 자본가가 매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몫》이란 무엇인가? 자본가들 《착취》하리 만큼 노동자들이 《아무 것도 아님》(Simple) 저 식민지들에서 물리나리키는, 다른 경우들이라면 자물적으로 작용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경찰적 방법으로써 제대로 작용시키려고 매우 속을 태우고 있다.

269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면면, 1833년, 제 2권, 52페이지.

하였을 것이다》²⁷⁰라고.

웨이크펠드는 《결합》 로동을 사용하는 영국의 자본주의적 농업과 아메리카의 분산적 농민 경리와의 대조를 화려하게 묘사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메달의 리면 마저 들여 보이었다. 그는 아메리카의 인민 대중을 유복하며, 독립적이며, 기업적이며, 비교적 교양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편 《영국 농업 노동자는 가련한 놈(a miserable wretch)이며 구출민이다……북아메리카와 일부 신 식민지들 이외의 어떤 나라에서 농업에 고용되는 자유 노동의 임금이 노동자의 필요 불가결한 생존 수단을 이렇다 할만큼 초과하고 있겠는가?…… 의심할 바 없이, 영국에서의 경작용 말은 귀중한 재산이므로 영국의 토지 경작자보다 훨씬 더 좋은 급양을 받고 있다》²⁷¹.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never mind), 국민적 부는 사실 본래 인민의 빈궁과 동일한 것이니까.

그러면 식민지의 반(反) 자본주의적 압력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만약 모든 토지를 일거에 인민의 소유로부터 사'적 소유로 전화시킨다면 이것으로 화근은 근절되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식민지도 또한 근절될 것이다. 일석 이초가 재간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힘으로 처너지에 수요 공급의 법칙과는 상반 없는 인위적 가격을 부치여 이주민이 토지를 구입하고²⁷²

270 동상서, 제 2권, 191—192페이지.

271 웨이크펠드 《영국과 아메리카》 제 1권, 47, 246페이지.

272 《자기의 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일 자리를 발견하여 수입을 얻는 것은 토지와 자본의 점유의 덕택이라고 당신들은 말한 다……그렇지만 자기의 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토지의 개인적 점유의 덕택이다……사람은 진공 속에 집어 넣는다면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그에게서 빼앗게 된다. 당신들이 토지를 점령하는 경우에도 꼭 마찬가지이다……이것은 당신들의 자의(恣意)에 그의 생활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들 부의 명역외에 놓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코랑 《정치 경제학》 파리, 1857년, 제 3권, 267—271페이지의 이곳 저곳).

독립적 농민으로 될 수 있을만큼 돈을 벌 때까지는 비교적 장기간 고용 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하자. 타방으로 정부가, 고용 노동자에게는 비교적 금지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형성되는 기금 즉 신성한 수요·공급의 법칙의 유린에 의하여 로임으로부터 짜내는 이 화폐 기금을, 그것이 증가하는 대로 구라파로부터 식민지로 적빈자들을 수입해 오며 그리함으로써 자본가 제씨를 위하여 고용 노동 시장을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돌린다고 하자.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만사는 있을 수 있는 세계중의 최선의 세계에서 최선의 상태로 될 것이다》(tout sera pour le mieux dans le meilleur des mondes Possibles). 이것이야 말로 《조직적 식민》의 대비밀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하고 웨이크필드는 의기 양양하여 웨친다——로동의 공급은 상시적이며 규칙적일 것이니 왜냐 하면 첫째로 어떠한 노동자도 일정한 기간 로동하여 돈을 벌 때까지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얻으려고 결합하여 로동함으로써 그들의 고용주에게 보다 많은 로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을 생산해 줄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고용 로동을 그만두고 토지 소유자로 되는 자는 누구나, 바로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식민지에 신성한 로동을 수입하기 위한 기금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⁷³. 국가에 의하여 허가되는 토지 가격은 물론 《충분한 가격》(sufficient price)이어야 한다. 즉 이것은 《로동자가 고용 노동 시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독립적 농민으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²⁷⁴ 높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충분한 토지 가격》이란 로동자가 고용 노동 시장으로부터 농촌으로 은퇴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본가에게 지불하는

273 웨이크필드 《영국과 아메리카》 런던, 1833년, 제 2권, 192페이지.

274 동상서, 45페이지.

몸 값을 원곡하게 바꾸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로동자는 우선 자본가 씨가 더 많은 로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본》을 그에게 창조해 주어야 하며 다음에는 자기의 《대리지》를 로동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 대리자를 정부는 로동자의 부담으로 그의 이전 주인인 자본가 씨를 위하여 바다 건너에서 수송하여 오는 것이다.

웨이코펠드씨가 특히 식민지용으로서 처방한 《시초 축적》의 이 방법을 영국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실시하여 왔다는 것은 대단히 특징적이다. 그 실패가 필의 은행 조폐의 실패만치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그 결과는 이민의 흐름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합중국으로 쏠려졌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정부의 압박의 중대를 수반한, 구라파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보는 웨이코펠드의 처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일방으로는 해마다 해마다 아메리카로 몰려 가는 대량적이며 끊임 없는 인간의 흐름은 합중국의 동부에 정체적인 침전물을 남긴다. 왜냐 하면 구라파로부터의 이민의 파도는 서부로의 이민의 파도가 쫓아 버리기 보다는 더 급속하게 합중국의 동부의 로동 시장에 사람들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타방으로는 아메리카의 공민 전쟁은 그 결과로 방대한 국채를 초래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조세의 압박, 비렬하기 짝이 없는 금융 귀족의 발생, 철도 광산 등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루기회사들에 대한 방대한 공유지(公有地)의 증여——간단히 말하면 자본의 가장 급속한 집중을 가져 왔다. 이리하여 대공화국은 이제는 이주 로동자를 위한 동경의 땅이 아니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로임의 저하와 고용 로동자의 예측은 아직도 구라파의 표준 수준으로 되기까지는 멀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은 거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웨이코펠드까지도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귀족과 자본가들에게 대한 영국 정부측으로부터의 식민지 미경지의 과렴치한 방매는, 금 채굴에 의하여

인입되는 사람의 흐름과 또한 영국 상품의 수입이 가장 소규모의 수공업자까지도 끌어 넣는 경쟁과 함께 특히 호주에서²⁷⁵ 충분한 《상대적 과잉 노동 인구》를 낳고 있으며 그리하여 거의 모든 우편선 마다 호주 노동 시장의 과잉(《Glut of the Australian labour-market》)에 관한 홍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또 거기에서는 도처에서 매음이 런던의 헤이마켓에서와 같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 것은 식민지의 상태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구세계의 정치경제학이 신세계에서 발전하고 소리 높이 선언한 다음과 같은 비밀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축적 방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자기 노동에 립각하는 사'적 소유의 철폐, 즉 노동자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275 호주가 자기 자신의 법법자로 피자 마자 그는 물론 이주민에게 유리한 법령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영국인들에 의하여 수행된 토지의 방매는 그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 《1862년의 신 토지법의 첫째 가는 그리고 주요한 목적은 인민의 이주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공유지 대신 다·덤피 각하 저 《빅토리아 토지법》 런던, 1862년 [3페이지]).

자본론 제 1권에 나오는 주요 인명 색인

7.

가닐, 샤를 (Ganilh, Charles)
(1758—1836)—①85, 113,
129, 247, 254, ②105.

갈리아니, 페르난도 (Galiani,
Fernando)(1728—1787)—
①103, 104, 125, 127, 13
9, 217, 224, 453, ②369.

고두노브, 보리스 표도로비치
(1551—1605), 1598년 이
래의 짜리—②478.

고트셰드, 요한 크리스토프
(Gottsched, Johann Chris-
toph) (1700—1766)—
①306.

그로브, 윌리엄 로버트(Grove,
William Robert)(1811—
1896)—②208.

그레고아르, H (Gregoir, H)
—②249.

그리그, 로버트 하이드(Greg,
Robert Hyde)(1795—187

5)—①419.

그레이, 조지 (Grey, George)
(1799—1882)—① 415,
②397.

그레이, 존 (Gray, John)(1799
—1850)—①96.

글라드스톤, 윌리엄 (Gladsto-
ne, William) (1809—189
8)—①38, 39, 40, 41, 4
3, ②111, 380, 381, 382, 502.

기스본, 토마스 (Gisborne,
Thomas) (1758—1846)—
②527.

개스켈, P. (Gaskell, p.)—
②89, 101.

괴테, 요한 월프강 (Goethe,
Johann Wolfgang) (1749
—1832)—①96, 121, ②
303, 460.

귈릿치, 구스타브 폰(Güllich,
Gustav von)(1791—1847)
—①10, ②520.

L.

노쓰, 더들리 (North, Dudley)
(1641--1691)——① 141,
170, 175, 189, ②28, 33
5.

뉴마치, 윌리엄 (Newmarch,
William) (1820--1882)——
①425.

뉴만, 사무엘 필립프스 (New-
man, Samuel Philipps)
(1797--1842)——① 226,
294.

뉴만, 프랜시스 윌리엄 (New-
man, Francis William)
(1805--1897)——② 479,
486.

뉴햄, G. L. (Newnham, G.
L.)——②315.

니브르, 바르톨트 게오르크
(Niebuhr, Barthold Geo-
rg) (1776--1831)——①33
3.

네스미쓰, 제임스 (Nasmyth,
James) (1808--1890)——
②21, 61, 89.

C.

다블데이, 토마스 (Doubleday,
Thomas) (1790--1870)——
②524.

다퍼린, 블랙우드 프레드릭

템플 경 (Dufferin, Blac-
kwood Frederick Tem-
ple, Lord) (1826--1902)
——②460.

다우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Daumer, Georg Friedri-
ch) (1800--1875)——①41
3.

다윈, 찰스 (Darwin, Charles)
(1809--1882)——①491,
②3.

던닝그, T. J. (Dunning, T. J.)
(1799--1873)——②243,
247, 248, 530.

단테, 알리기에리 (Dante, Ali-
ghieri) (1265--1321)——
①8, ②144.

덱피, 찰스 가반 (Duffy, Char-
les Gavan) (1816--1903)
——②548.

듀퐁, 피에르 (Dupont, Pier-
re) (1821--1870)——②43
8.

듀크페시오, 에두아르드 (Duc-
pétiaux, Edouard) (1804
--1868)——②407, 409.

드라이덴, 존 (Dryden, John)
(1631--1700)——①343.

드포, 다니엘 (Defoe, Daniel)
(1660--1731)——②334.

디드로, 드니 (Diderot, Denis)
(1713--1784)——①188.

디츠겐, 요세프 (Dietzgen,
Joseph) (1828--1888)——
①15.

디오도로스 시쿨루스—시셀리
출신의 디오도르 (Diodo-
rus Siculus—Diodor von
Sicilien) (기원전 1세기)
——①201, 333, 489, 52
8, ②190.

데스튀트 드 트라시, 안토안
루이 클로드, 백작 (Des-
tutt de Tracy, Antoine
Louis Claude, Comte)
(1754—1836)——① 112,
113, 222, 231, 468, 471,
②376.

데카르트, 르네 (Descartes,
René) (1596—1650)——
②27. *

근.

라맛지니, 베르나르디노 (Ra-
madzini, Bernardino) (16
33—1714)——①522.

라보르드, 알렉상드르, 마르키
스 드 (Laborde, Alexan-
dre, marquis de) (1774
—1842)——②217.

라베르뉴, 루이 가브리엘 레
옹스 드 (Lavergne, Louis
Gabriel Léonce de) (1809
—1880)——② 180, 216,
463.

라스케르, 에두아르드 (Lasker,
Edouard) (1829—1884)——
①39.

라샤트르, 모리스 (Lachâtre,

Maurice) (1814—1900)——
①23, 26, 31.

라플스, 토마스 스탬포드 (Raf-
files, Thomas Stamford)
(1781—1826)——①515,
②517.

라이트, 토머스 (Wright, Tho-
mas)——②481.

라이히, 에두아르드 (Reich,
Eduard) (1836—1919)——
①522.

란셀롯티 (Lancelotti) (1575—
1643)——②79.

랏살, 페르디난드 (Lassale,
Feridnand) (1825—1864)
——①1, 2, 147.

랑게, 시몽 니콜라 앙리 (Lin-
guet, Simon Nicolas Hen-
ri) (1736—1794)——①3
29, 413, 480, ②334, 49
9.

럼포르드——통슨, 벤자민을
보라.

러셀, 존, 경 (Russel, John,
Lord) (1792—1878)——②
294, 479.

로, 존 (Law, John) (1671—1
729)——①127. ②335.

로더데일, 제임스, 백작 (Lau-
derdale, James, Earl
of) (1759—1839)——①50
1.

로드베르투스, 요한 칼 (Rod-
bertus, Johann Karl) (18
05—1875)——②215, 216.

- 로랑, 오귀스트(Laurent, Auguste) (1807—1853) — ①44.
- 로버츠, 조지 (Roberts, George) (1860년에 사망) — ②475.
- 로저스, 제임스 에드윈 토롤드 (Rogers, James Edwin Thorold) (1823—1890) — ②410, 417, 477, 514.
- 로지에, 샤를(Rogier, Charles) (1800—1885) — ①398.
- 로크, 존 (Locke, John) (1632—1704) — ①48, 127, 141, 175, 181, ②28, 335.
- 로씨, 펠레그리노 (Rossi, Pellegrino) (1787—1848) — ①245, 246.
- 로셰르, 윌헬름 (Roscher, Wilhelm) (1817—1894) — ①129, 226, 292, 306, 307, 324, 377, 466, 523, ②331.
- 로아, J. (Roy, J.) — ①25, 31.
- 로이드 — 오베르스톤을 보라.
- 루게, 아놀드 (Ruge, Arnold) (1803—1880) — ①105, 214, ②357.
- 루—라베르뉴, 피에르 셀레스탱 (Roux—Lavergne, Pierre Célestin) (1802—1874) — ②504.
- 루벤스, 페테르 파울(Rubens, Peter Paul) (1577—1640) — ①427.
- 루크레티우스 (티투스 루크레티우스 카루스)(Titus Lucretius Carus) (기원전 98—55) — ①304.
- 루키아노스 — (기원 125—180) ②336.
- 루테르, 마르틴 (Luther, Martin) (1483—1546) — ①190, 273, 445, ②301, 302, 520.
- 루아르 드 카르, 피 마리 (Rouard de Card, Pie Marie) — ①354.
- 루이 14세 (1638—1715), 1643년 이래의 왕 ①198.
- 루이 16세 (1754—1793), 1774년 이래의 왕 — ②497.
- 루이, 필립프 (1773—1850), 1830년 이래의 왕 — ①400.
- 루소, 장 작크 (Rousseau, Jean Jacques) (1712—1778) — ②510.
- 류크르코스 (Lykurg) (기원전 4세기 경) — ②74.
- 르몽테이, 피에르 에두아르 (Lemontey, Pierre Edouard) (1762—1826) — ①521.
- 르 르로느, 기욤 프랑소와 (Le Trosne, Guillaume François) (1728—1780) — ①49, 54, 127, 142, 156,

163, 167, 204, 223, 224,
225, 228, 232, 297.

리드, 조지 (Read, George) —
①256.

리빙히, 유스투스 폰 (Liebig,
Justus von) (1803--1873)
—①339, 472, ②22, 18
2, 273.

리차드슨, 벤자민 워드 (Ric-
hardson, Benjamin Ward)
(1828--1898) —①363, 3
65.

리카도, 다비도 (Ricardo,
David) (1772--1823) —
①12, 16, 77, 88, 107, 1
11, 112, 113, 117, 174,
202, 237, 266, 290, 292,
325, 441, ②24, 31, 33,
52, 82, 84, 92, 182, 19
3, 200, 202, 204, 210, 2
15, 220, 260, 273, 297,
311, 321, 322, 332, 354,
527.

리키니우스, 가이우스 리키니
우스 스톨로 (Licinius,
Gaius Licinius Stolo) (기
원전 4세기) —②484.

리히노브스키, 펠리코스, 공
작 (1814--1848) —②30
0.

래벤스톤, 피어시 (Ravenstone,
Piercy) (1830년에 사망)
—②81, 188.

램지, 조지 (Ramsay, Geor-
ge) (1800--1871) —①

229, 234, 455, ②188,
365, 354.

레노, 엘리아스 (Regnault,
Elias) (1801--1868) —
①338.

레드그레이브, 알렉산더
(Redgrave, Alexander)
—①383, 384, ②10,
36, 44, 64, 86, 106, 116,
117, 118, 237, 257, 258.

레비, 레온 (Levi, Leone) (1
821--1888) —②492.

레이닝, 사무엘 (Laing, Sa-
muel) (1780--1868) —
①281, ②269, 389, 413.

렛싱, 곱트홀드 에프라임 (Le-
ssing, Gotthold Eph-
raim) (1729--1781) —①
20.

□.

마르티노, 해리에트 (Martineau,
Harriet) (1802--18
76) —②358.

맥 볼레이, 토마스 바빙그톤
(Macaulay, Thomas Ba-
bington) (1800--1859) —
①391, 397, ②470, 47
8.

마클라렌, 제임스 (Maclaren,
James) —①136.

마우레르, 게오르크 루트비히
폰 (Maurer, Georg Lud-
wig von) (1790--1872)

— ①100, 336.

마이젠 아우구스트 (Meitzen, August)(1822—1910)—
①336.

마이에르, 지그문드 (Mayer, Sigmund)—①10.

만데빌, 베르나르 드 (Mandeville, Bernard de)(1670—1753)—①510, ②332, 333, 335.

말사스, 토마스 로버트 (Malthus, Thomas Robert)(1766—1834)—①230, 300, 451, 507, ②182, 211, 251, 266, 273, 282, 294, 296, 305, 307, 309, 321, 322, 326, 335, 357, 374, 452.

맑스, 칼 (Marx, Karl)(1818—1883)—①8, 16, 17, 18, 19, 20, 21, 25, 26, 27, 30, 31, 32, 33, 34, 36, 37, 38, 40, 41, 42, 43, 47, 54, 56, 105, 107, 109, 114, 115, 122, 125, 132, 134, 135, 141, 150, 151, 160, 174, 193, 200, 202, 214, 232, 273, 340, 347, 361, 364, 384, 419, 434, 513, 517, 521, ②68, 157, 215, 223, 281, 331, 340, 350, 357, 373, 438, 534, 537.

맑스—에벨링, 엘레아노르 (루시)(Marx-Avellin, Eleanor)(1855—1898)

— ①30, 36, 42, 43.

머레이, 휴 (Murray, Hugh)(1779—1846)—①489.

머피, 존 니콜라스 (Murphy, John Nicholas)—②453.

먼, 토마스 (Mun, Thomas)(1571—1641)—②190.

모즐리, 헨리 (Maudsley, Henry)(1771—1831)—②20.

모튼, 존 찰머스 (Morton, John Chalmers)(1821—1888)—②8, 247.

모어, 토마스 (More, Thomas)(1478—1535)—②335, 473, 495.

몰리나리, 구스타브 드 (Molinari, Gustave de)(1819—1912)—②72, 306, 543.

몸젠, 테오도르 (Mommson, Theodor)(1817—1903)—①238, 243.

몽탈랑베르, 샤를, 콩트 드 (Montalembert, Charles, comte de)(1810—1870)—②134.

몬테스큐 샤를 드 (Montesquieu, Charles de)(1689—1755)—①127, 174, ②334, 523.

몬테이유, 아만 알렉시스 (Monteil, Amans Alexis)(1769—1850)—②507.

무어, 사뮤엘 (Moore, Samuel, (1830—1912)——①30, 31.

뮐러, 아담 하인리히 (Müller, Adam Heinrich) (1779—1829)——①175.

미라보, 빅토르, 마르키스 드 (Mirabeau, Victor, marquis de) (1715—1789)——②335, 536.

미라보, 오노레, 콩트 드 (Mirabeau, Honoré, Comte de) (1749—1791)——②144, 470, 491, 492, 511, 525.

밀, 존 스튜아트 (Mill, John Stuart) (1806—1873)——①14, 175, 189, ②1, 91, 182, 194, 196, 298, 307, 311, 326, 514.

밀, 제임스 (Mill, James) (1773—1836)——①160, 174, 218, 263, 281, 507.

맥그레고어, 존 (Mac Gregor, John) (1797—1857)——①392.

맥컬럭, 존 램제이 (Mac Culloch, John Ramsey) (1789—1864)——①202, 212, 216, 272, 392, 461, ②53, 91, 98, 201, 202, 323, 326, 483.

맥클레오드, 헨리 던닝 (Macleod, Henry Dunning) (1821—1902)——①85, 217.

맥씨밀리안(오지리의 대공—소위 메키시코의 황제) (1832—1867)——①239.

맷시, 조세프 (Massie, Joseph) (1784년에 사망)——②192.

메네니우스, 아그립파 라나루스 (Menenius, Agrippa Lanatus) (기원전 493 사망)——①518.

메르세 드 라 리비에르, 폴 피에르 (Mercier de la Rivière, Paul Pierre) (1720—1793)——①152, 153, 183, 208, 212, 223, 228, 271.

메리웨일, 헤르만 (Merivale, Herman) (1806—1874)——②356, 357, 543.

멘델스존, 모세스 (Mendelssohn, Moses) (1729—1786)——①20.

남.

바본, 니콜라스 (Barbon, Nicholas) (1640—1698)——①48, 49, 51, 173, 181, 202, 204, ②335.

바스티아, 프레데리크 (Bastiat, Frédéric) (1801—1850)——①14, 85, 114, 273, ②53, 260.

바제도우, 요한 베를하루트

- (Basedow, Johann Bernhard)(1723—1790)——②
159.
- 바튼, 존 (Barton, John) (18
세기 말—19세기 초)——
②354, 411.
- 반더린트, 자코브 (Vanderlint,
Jacob)(1740년에 사망)——
①173, 184, 204, 393, 3
96, 451, 476, 500, ②33
5.
- 발루아, 필립프 6세 (1293—13
50), 1328년 이래 왕——
②128.
- 발렌틴, 가브리엘 구스타브
(Valentin, Gabriel Gus-
tav) (1810—1883)——②
151.
- 발자크, 오노레 드 (Balzac,
Honoré de) (1799—1850)
——②296.
- 버크, 에드먼드 (Burke, Ed-
mund) (1729—1797)——
①293, 332, 464, 465, ②
479, 529.
- 버클레이, 조지 (Berkeley,
George)(1685—1753)——
①482, 508.
- 버캐넌, 데이빗 (Buchanan,
David) (1779—1848)——
①177, ②254, 487.
- 버틀러, 사무엘 (Butler, Sa-
muel) (1612—1680)——
①49.
- 보나파르트, 루이 (Bonaparte,
Louis) (1808—1873)——
①397, ②438.
- 보방, 세바스치앙 르 프레스
트르 드 (Vauban, Séba-
stien le Prestre de)(1633
—1707)——①198.
- 보아규이베르, 피에르 (Bois-
Guillebert, Pierre) (1646
—1714)——①183, 198.
- 보알로, 니콜라 (Boileau,
Nicolas) (1636—1711)——
②382.
- 보알로, 에티엔느 (Boileau,
Etienne) (1200—1270)——
②156.
- 복스호른, 마르쿠스 수에리우
스 (Boxhorn, Marcus Sue-
rius) (1602—1653)——②
79.
- 볼링브로크, 헨리 세인트—존
(Bolingbroke, Henry
Saint-John) (1678—1751)
——②522.
- 볼튼, 매슈 (Boulton, Matthew)
(1728—1809)——②25.
- 부셰, 필립프 조세프 뱅자밍
(Buchez, Philippe Jose-
ph Benjamin) (1796—186
6)——②504.
- 브라이트, 존 (Bright, John)
(1811—1889)——①13, 36
3, 407, ②253, 378, 417,
514.
- 브로드허스트, 제이 (Broad-

- hurst, J)——①77.
- 브로디, 벤자민 콜린스 (Brodie, Benjamin Collins)(1783—1862)——①401.
- 브루너 (Brunner)——②151.
- 브룩너, 존 (Bruckner, John)(1726—1804)——②335.
- 브룸, 헨리 (Brougham, Henry)(1778—1868)——②528.
- 브린들리, 제임스 (Brindley, James)(1716—1772)——①501.
- 브레이, 존 프랜시스 (Bray, John Francis)(1809—1895)——①96.
- 브렌타노, 루요 (Brentano, Lujo)(1844—1931)——①41, 42, 43, 44.
- 블랑키, 제롬 아돌프 (Blanqui, Jérôme Adolphe)(1798—1854)——①397, 484.
- 블록크, 모리스 (Block, Maurice)(1816—1901)——①16.
- 블레이크, 로버트 (Blakey, Robert)(1795—1878)——②477.
- 비도, J. N. (Bidaut, J. N.)(19세기 제1 반기)——①461.
- 비르트, 막스 (Wirth, Max)(1822—1900)——①103, 324.
- 비제, 프란츠 (Biese, Franz)(1803—1895)——②52.
- 비처—스토우, 하리에트 엘리자베스 (Beecher-Stowe, Harriet Elisabeth)(1811—1896)——②489.
- 비코, 지오반니 바티스타 (Vico, Giovanni Battista)(1668—1744)——②3.
- 뱍베이 지, 찰스 (Babbage, Charles)(1792—1871)——①498, 502, 503, ②7, 29, 48.
- 베벨, 아우구스트 (Bebel, August)(1840—1913)——①39.
- 베이콘, 프랜시스 (Bacon, Francis)(1561—1626)——②27, 28, 473, 474.
- 베인즈, 존 (Baynes, John)——②25, 28.
- 베일리, 사무엘 (Bailey, Samuel)(1791—1870)——①68, 69, 78, 88, 116, 117, ②326.
- 베키리아, 체사레 (Beccaria, Cesare)(1738—1794)——①525.
- 벤담, 제레미 (Bentham, Jeremy)(1748—1832)——①250, ②325, 328.
- 벨, 찰스 (Bell, Charles)(1774—1842)——①401.
- 벨러스, 존 (Bellers, John)(1654—1725)——①184, 195, 204, 469, 500, ②

78, 148, 159, 332.

빗세링, S. (Vissering, S.)
(1818—1888)——②178.

뵈캉송, 작크 드 (Vaucanson,
Jacques de) (1709—1782)——②16.

베리, 피에트로 (Verri, Pietro)
(1728—1797)——①59.

人.

사더랜드, 하리에트 엘리자베스,
공작 부인인 (Sutherland, Harriet Elisabeth,
Duchess of) (1806—1868)
——②489.

사더랜드, 엘리자베스, 공작
부인인 (Sutherland, Elisabeth, Duchess of) (18세기 말엽—19세기 중엽)
——②489.

사이몬, 존 (Simon, John) (1816—1904)——②128, 129, 387, 390, 397, 401, 422.

서머즈, 로버트 (Somers, Robert) (1822—1891)——②491, 492.

소포클레스 (Sophokles) (기
원전 496—406년 경)——①186.

손더스, 로버트 J. (Saunders, Robert J.)——①418, 433, ②46.

쇼르렘머, 칼 (Schorlemmer, Karl) (1834—1892)——①445.

쉴우, 요아킴 프레데리크
(Schouw, Joakim Frederik) (1789—1852)——②193.

슈발리에, 장 바티스트 알폰스
(Chevalier, Jean Baptiste Alfonse) (1793—1879)——①354.

슈토르쵸,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Storch, Heinrich Friedrich) (1766—1835)
——①247, 258, 505, 517, 519, ②299, 375.

슐리, 맥시밀리안 드 베티온 (Sully, Maximilian de Bethune) (1560—1641)——②335.

슐제—델리치, 헤르만 (Schulze-Delitsch, Hermann) (1808—1883)——①3.

스미쓰, 골드윈 (Smith, Goldwin) (1823—1910)——②514.

스미쓰, 아담 (Smith, Adam) (1723—1790)——①15, 64, 113, 172, 173, 236, 392, 501, 506, 509, 510, 521, 522, 524, ②24, 55, 182, 218, 222, 224, 229, 249, 254, 256, 267, 298, 305, 327, 332, 334, 335, 336, 337, 339, 341, 342, 369, 384, 465, 487, 499,

529.

스카르베크, 프리데리크 (Skar-bek, Fryderyk) (1792—1886)——①470, 505.

스크로프, 조지 윌리 폴렛트 (Scrope, George Julius Poulett) (1797—1876)——②308.

스트라이프, 존 (Strype, John) (1643—1737)——②496.

스태포드, 윌리엄 (Stafford, William) (1554—1612)——②506.

스튜아트 가——②478.

스튜아트, 듀갈드 (Stewart, DuGald) (1753—1828)——①461, 496, 518, ②156.

스튜아트, J. (Stuart, J.)——①415.

스튜아트, 제임스 (Steuart, James) (1712—1780)——①37, 172, 203, 209, 253, 478, 506, ②81, 249, 334, 374, 471, 487, 509.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드 (Spinoza, Benedictus de) (1632—1677)——①20, 442, ②307.

식노어, 나트 윌리엄 (Sennor, Nassau William) (1790—1864)——①316, 317, 318, 322, 323, 377, 461, ②49, 91, 152, 153, 164, 165, 233, 239, 307,

308, 323, 463, 489.

시프마우스, 헨리 애딩그톤 (Sidmouth, Henry Ad-dington) (1757—1844)——②80.

시스몬디, 장 샤를 레오나르 드 시몽드 드 (Sismondi, Jean Charles Léonard Simonde de) (1773—1842)——①12, 219, 246, 333, 453, ②222, 264, 280, 285, 286, 291, 292, 305, 357, 375, 582.

세이, 장 바티스트 (Say, Jean Baptiste) (1767—1832)——①113, 160, 217, 232, 273, 292, 521, ②24, 96, 202, 224, 305, 321.

섹스루스, 엠펙리쿠스 (Sextus, Empirikus) (기원 2세기 말)——①525.

셰르불리에, 안토안 엘리제 (Cherbuliez, Antoine Eli-sée) (1797—1869)——①258, 263, ②289.

셰크스피어, 윌리엄 (Shakespeare, William) (1564—1616)——①117, 150, 151, 186, 413, ②158, 506.

셴트스베리——애설리를 보라.

入.

장 2세 (1319—1364), 1350년

이래의 왕——②499.

조르게, 프리드리히 알베르트

(Sorge, Friedrich Albert)

(1828—1906)——①31.

조지 2세 (1683—1760), 1727

년 이래의 왕——①54, 13

5, ②500, 501.

조지 3세 (1738—1820), 1760

년 이래의 왕——②501.

쥘프로아 상트—일레르, 에티

엔 (Geoffroy Saint-Hilaire, Etienne) (1772—1844)

——②508.

존스, 리차드 (Jones, Richard)

(1790—1855)——①34, 4

44, 461, 473, 480, ②26

7, 294, 309, 354.

지베르, 니콜라이 이와노비치

(1844—1888)——①15, 1

6.

제코브, 윌리엄 (Jacob, Wil-

liam) (1762—1851)——

①54, 310.

제노베키시, 안토니오 (Genovesi,

Antonio) (1712—1769)——

①216.

제라르, 샤를 후레베리크

(Gerhardt, Charles Frédéric)

(1816—1856)——

①444, 445.

제임스 1세 (1566—1625), 16

03년 이래의 왕——②47

5, 476, 496, 500.

쾨트베르, 게오르크 아돌프

(Soetheer, Georg Adolph)

(1814—1892)——①28.

天.

차일드, 조시아 (Child, Josiah)

(1630—1699)——②5

29.

찰머스, 토마스 (Chalmers,

Thomas) (1780—1847)——

①216, 230, ②335, 337.

찰스 1세 (1600—1649), 1625

년 이래의 왕——②475,

476.

찰스 2세 (1630—1685), 1660

년 이래의 왕——①175.

쥬도르가——②513.

첼발렌, 조세프 (Chamberlain,

Joseph) (1836—1914)——

②367.

체르니셴스키, 니콜라이 가브

릴로비치 (1828—1889)

——①13.

ク.

카라일, 토마스 Carlyle, Tho-

mas) (1795—1881)——

①364.

카르스 출신의 카르스——윌

리암스, 윌리엄 펜윅

(Kars von Kars—Wil-

liams, William Fenwick,

Baronet «of Kars»)

(1800—1883)——①175.

카를리, 지안 리날도 (Carli, Gian Rinaldo) (1720—1795)——①474.

칼 대제 (742—814), 768년 이래의 왕, 800년 이래 황제——②484.

칼 5세 합스부르크 (1500—1558), 1660년 이래의 황제, ——②497.

칼 6세 (1685—1740), 1711년 이래의 황제——②79.

칼 10세 구스타브 (1622—1660), 1654년 이래의 왕——②480.

칼 11세 (1655—1697), 1660년 이래의 왕, ——②480.

컬페퍼, 토마스 (Culpeper, Thomas) (1578—1662)——②529.

코, 살로몽 드 (Caus, Salomon de) (1576—1626). 1688년에 그의 로작이 출판됨——②9.

코르봉, 코로드 앙림 (Corbon, Claude Anthime) (1808—1891)——②158.

코브덴, 리차드 (Cobden Richard) (1804—1865)——①13, 363, 407, ②417.

코베트, 토마스 (Corbet, Thomas)——①212.

코벳트, 윌리엄 (Cobbett, William) (1762—1835)——①415, ②476, 521, 524.

코프, 헤르만 (Kopp, Herman)

(1817—1892)——①445.

콘도르세, 마리 장, 마르키스 드 (Condorcet, Marie Jean, marquis de) (1743—1794)——②335.

콘디아크, 에티엔 본노 드 (Condillac, Etienne Bonnot de) (1750—1780)——①225, 226.

콜랑, 장 기욤 세자르 알렉상드르 입폴리트 (Colins, Jean Guillaume César Alexandre Hippolyte) (1783—1859)——②331, 438, 545.

콜럼부스, 크리스토포루스 (Columbus, Christophorus) (1446—1506년 경)——①185.

콜베르, 장 밥티스트 (Colbert, Jean Baptiste) (1619—1683)——①445, ②524.

콩트, 프랑소아 샤를 루이 (Comte, François Charles Louis) (1782—1837)——②755.

콩트, 오귀스트 (Comte, Auguste) (1798—1857)——①478.

쿠겔만, 루트비히 (Kugelmann, Ludwig) (1830—1902)——①9.

쿠르셀—스이이유, 장 구스타브 (Courcelle-Seneuil, Jean Gustave) (1813—189

- 2)——①329, ②308.
 쿠차, 알렉산드르 요한 1세
 (Kusa Alexander Johann I)(1820—1873)——①239.
 큐비에, 조르쥬 (Cuvier, Georges)(1769—1832)——②191.
 크롬웰, 올리버 (Cromwell, Oliver)(1599—1658)——②475, 478, 513.
 크세노폰 (기원전 430—354년 경)——①527.
 클라우덴, 하인리히, 일명 칼 호인 (Clauren, Heinrich, alias Karl Heun)(1771—1854)——①316.
 키케로, 마르쿠스 툴리우스 (Cicero, Marcus Tullius)(기원전 106—43)——②52.
 캔티언, 필립프 리샤르 (Cantillon, Philipp Richard)(1680—1734)——②249, 335.
 캠벨, 조지 (Campbell, George)(1824—1892)——①514.
 캐슬레agh, 로버트 스튜어트 (Castlereagh, Robert Stewart)(1769—1822)——②80.
 케비, 프랑소아 (Quesnay, François)(1694—1774)——①12, 152, 461, ②249, 335.

- 케틀레, 랑베르 아돌프 자크 (Quêtelet, Lambert Adolphe Jacques)(1796—1874)——①465.
 케안즈, 존 엘리엇 (Cairnes, John Elliot)(1823—1875)——①279, 381, 478.
 케이리, 헨리 찰스 (Carey, Henry Charles)(1793—1879)——②217, 259, 489, 513.
 켄네트, 화이트 (Kennet, White)(1660—1728)——②474.
 켄트, 나다니엘 (Kent, Nathaniel)(1737—1810)——②482.
 퀸시, 토마스 드 (Quincey, Thomas de)(1785—1859)——②35.

ㄴ.

- 타운센드, 조세프 (Townsend, Joseph)(1739—1816)——①507, ②335, 374.
 토렌즈, 로버트 (Torrens, Robert)(1780—1864)——①229, 214, 261, ②48, 91.
 톰슨, 벤자민, 럼포드 백작 (Thompson, Benjamin, Count of Rumford)(1753—1814)——②313, 314.

롬슨, 윌리엄 (Thompson, William) (1785—1833) — ①519.

루크, 토마스 (Tooke, Thomas) (1774—1858) — ①425.

투퀴디데스 (Thukydides) (기원전 460—400) — ①525, 526.

투르고, 안 로베르 (TurGot, Anne Robert) (1727—1781) ①255, 451, ②218.

티루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Titus, Flavius Vespasianus) (기원 39—81년) — ②36.

티에로, 루이 아돌프 (Thiers, Louis Adolphe) (1797—1877) — ②98, 466.

터커, 조시아 (Tucker, Josiah) (1712—1799) — ①393, ②335, 529.

덕셋트, 존 데벨 (Tuckett, John Debell) (1864년에 사망) — ①521, ②476, 513.

텡페, 마틴 (Tupper, Martin) (1810—1889) — ②325.

테일러, 세들리 (Taylor, Sedley) — ①41, 42, 43, 44.

템플, 윌리엄 (Temple, William) (1628—1699) — ②335.

튀넨, 요한 하인리히 폰 (Thünen, Johann Hein-

rich von) (1783—1850) — ②341.

II.

파거슨, 아담 (Ferguson, Adam) (1723—1816) — ①173, 509, 520, 521.

파니니, 지오반니 프란체스코 (Pagnini, Giovanni Francesco) (1715—1789) — ①128.

파레스, 베니토 (Juarez, Benito) (1806—1872) — ①239.

파머스턴, 헨리 콘 템플 경 (Palmerston, Henry John Temple, Lord) (1784—1865) — ②116.

파울허버, 요한 (Faulhaber, Johann) (1580—1635) — ②9.

포르본네, 프랑소아 (Forbonnais, François) (1722—1800) — ①127.

포르테스큐, 존 (Fortescue, John) (1394—1476년 경) — ②471, 472.

포스터, 나세니엘 (Forster, Nathaniel) (1726—1790년 경) — ①393, ②78, 481, 482.

포셋트, 헨리 (Fawcett, Henry) (1833—1884) — ②253, 327, 382, 514.

- 포플소웨이트, 멜라키 (Postlethwayt, Malachy)(1707—1767)——①393, 394.
- 퐁페레, 앙로안 루이 (Fontenret, Antoine Louis)——①522.
- 푸리에, 샤를 (Fourier, Charles)(1772—1837)——①417, ②18, 77, 440.
- 플라톤, 존 (Fullarton, John)(1780—1849)——①180, 199, 203.
- 플튼, 로버트 (Fulton, Robert)(1765—1815)——②159.
- 프라이스, 리차드 (Price, Richard)(1723—1791)——①393, ②411, 482, 483, 484.
- 프라이타크, 구스타브 (Freitag, Gustav)(1816—1895)——②501.
- 프랑클린, 벤자민 (Franklin, Benjamin)(1706—1790)——①71, 233, 255, 470, ②334, 335.
- 프로타고라스 (Protagoras)(기원전 485—415년 경)——①353.
- 프루동, 피에르 조세프 (Proudhon, Pierre Joseph)(1809—1865)——①114, 118, ②192, 223.
- 프리드리히 2세(1712—1786) 1740년 이래의 왕——②491, 509, 510.
- 플라톤(기원전 427—347)——①525, 526, 527.
- 플리트우드, 윌리엄 (Fleetwood, William)(1656—1723)——①390.
- 피히레, 요한 고틀리브(Fichte, Johann Gottlieb)(1762—1814)——①73.
- 핀다로스 (Pindar)(기원전 522—443년 경)——②67, 528.
- 핀토, 이사크 (Pinto, Isaac)(1715—1787)——①212.
- 필, 로버트 (Peel, Robert)(1750—1830)——②527.
- 필, 로버트 (Peel, Robert)(1788—1850)——①13, 200, 328, ②527, 547.
- 필든, 존 (Fielden, John)(1784—1849)——②46, 58, 526, 527.
- 핏트 (소), 윌리엄 (Pitt, William, Junlor)(1759—1806)——①293, ②744.
- 패리, 윌리엄 에드워드 (Parry, William Edward)(1790—1855)——①133.
- 페리클레스 (Perikles)(기원전 490—429년 경)——①525.
- 페리에, 프랑소아 루이 오귀스트 (Ferrier, François Louis Auguste)(1777—1861)——①85.
- 페퀴르, 콩스탕탱 (Pecqueur

ur, Constantin)(1801—1887)——②331, 531.

페티, 윌리엄 (Petty, William)(1623—1687)——①70, 113, 129, 141, 172, 199, 205, 213, 391, 451, 500, 524, ②81, 249, 335.

등.

해리스, 제임스 (Harris, James)(1709—1780)——①525.

해리스, 제임스, 말름스베리의 제 1대 백작 (Harris, James, first Earl of Malmesbury)(1746—1820)——①525.

하살, 아서 힐 (Hassall, Arthur Hill)(1817—1894)——①248, 353.

하우이트, 윌리엄 (Howitt, William)(1792—1879)——②517.

하이네, 하인리히 (Heine, Heinrich)(1797—1856)——①307, ②325.

한센, 게오르크 (Hassen, Georg)(1809—1894)——①336.

할레르, 칼 루드위히 폰 (Halder, Karl Ludwig von)(1768—1854)——②27.

헉슬리, 토마스 헨리 (Huxley, Thomas Henry)(1825—1895)——②152.

헌터, 헨리 줄리언 (Hunter, Henry Jullan)——②39, 390, 392, 394, 395, 425, 428, 430, 436, 437, 475.

헛튼, 찰즈 (Hutton, Charles)(1737—1823)——②2.

호너, 레오나드 (Horner, Leonard)(1785—1864)——①317, 341, 399, 404, 409, 414, 416, 424, ②41, 42, 59, 60, 61, 77, 243.

호너, 프랜시스 (Horner, Francis)(1778—1817)——②527.

호머 (Homer)(기원전 9 내지 7세기 경)——①87.

호지스킨, 토마스 (Hodgskin, Thomas)(1787—1869)——①488, 507, 510, ②223, 275, 515.

호프킨스, 토마스 (Hopkins, Thomas)——①325.

호우튼, 존 (Houghton, John)(1705년에 사망)——②78.

홀린즈헤드, 라파엘 (Holinshead, Raphael)(1580년에 사망)——②472, 496.

홉브스, 토마스 (Hobbes, Thomas)(1588—1679)——①242, ②28, 335.

훔, 데이비드 (Hume, David)(1

711—1776)——①172, 173.

히에르니무스, 유제비우스 소프로니우스 1세(Hieronymus, Eusebius Sophronius I) (기원 340—420년 경)——①144.

해리슨, 윌리엄 (Harrison, William) (1534—1593)——②472, 506.

햄, 윌헬름 폰 (Hamm, Wilhelm von) (1820—1880)——②180.

헤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할헬름 (Hegel, Georg Friedrich Wilhelm) (1770—1831)——①19, 20, 60, 127, 239, 254, 375, 444, 522, 523, ②295.

헤라클레이토스 (Herakleitos) (기원전 5세기 경)——①147.

헤렌슈완드, 잔 (Herrenschwand, Jean) (1728—1811)——①170.

헨리 7세 (1457—1509), 1485년 이래의 왕——①389, ②473, 474, 494.

헨리 8세 (1491—1547), 1509년 이래의 왕——②473, 494, 496.

휘트니, 엘리 (Whitney, Eli) (1765—1825)——②18, 29.

화이트, J. E. (White, J. E.)

——①350, 367, 373, 377, ②44, 137.

화이엣트, 존 (Wyatt, John) (1700—1766)——②3.

ㄱ.

끼셀로브, 파울 드미트리예비치, 백작 (1788—1872)——①336.

ㄴ.

논론, 윌리엄 토마스 (Thorn-ton, William Thomas) (1813—1880)——①213, 386, ②472.

썬시나루스 루씨우스 퀸씨우스 (Cincinatus, Lucius Quincius) (기원전 450)——①201.

ㄷ.

아나카르시스 (Anacharsis) (기원전 6세기)——①140.

아르키메데스 (Archimedes) 시라쿠사의 (기원전 287—212)——①438.

아르킬로쿠스 (Archilochus) (기원전 7세기 전반에 란생)——①525.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기원전 384—322)——①82, 84, 114, 120, 215, 216, 234, 470, ②52.

아리오스토, 로도빅코 (Ariosto, Lodovico) (1474—1533)——①42.

아크라이트, 리차드 (Arkwright, Richard) (1732—1792)——①529, ② 9, 16, 74, 79, 159.

아테나우스 (Athenaeus) 나우크라티스의 (기원 3세기 초경)——①140, 187.

안티파트로스 (Antipatros) 펫살로니아의 (기원전 2세기경)——②52.

압피안 (Applian) (기원 2세기)——②484.

앙리 3세 (1551—1589), 1574년 이래의 왕——①185.

앨 (1665—1714), 1702년 이래의 네왕——①231, ②497.

어쿼트, 데이빗드 (Urquhart, David) (1805—1877)——①140, 522, ②181, 489, 512, 513, 514.

앤더슨, 제임스 (Anderson, James) (1739—1808)——② 182, 256, 337, 483, 487, 508.

앤더슨, 아담 (Anderson, Adam) (1692—1765)——②508, 528.

Andrew) (1616—1684)——①355.

ㅋ.

영, 아써 (Young, Arthur) (1741—1820)——①172, 325, 393, ②410, 420.

그.

오르테스, 지 암마리아 (Ortes, Giammaria) (1713—1790)——②335, 373.

오웬스톤 경, 사무엘 존스 로이드 (Overstone Lord, Samuel Jones Loyd) (1796—1883)——①174, 202.

오지에, 마리 (Augier, Marie)——②529.

오웬, 로버트 (Owen, Robert) (1771—1858)——①107, 132, 430, ②43, 153, 178.

올름스태드, 프레데릭 로 (Olmsted, Frederick Law) (1882—1903)——①279.

오피다이크, 조지 (Opdyke, George) (1805—1880)——①232.

ㅈ.

ㅊ.

야렌톤, 앤드류 (Yarrenton,

유어, 앤드류 (Ure, Andrew)
(1778—1857)——①37, 3
22, 377, 391, 431, 461,
501, 503, 504, 529, ②1
4, 22, 47, 68, 70, 74, 84,
85, 89, 90, 91, 246, 252,
257.

I.

이든, 프레데릭 모튼 (Eden,
Fredric Morton)(1766—1
809)——① 345, ② 314,
334, 411, 412, 477, 480,
481, 484, 485, 526, 529.
이 소크라테스 (Isokrates) (기
원전 436—338)——①528.

II.

애딩톤, 스티븐 (Addington,
Stephen)(1729—1796)——
②482.
애펠링, 에드워드 (Aveling,
Edward)(1851—1898)——
①30.
애슬리, 안토니 쿠퍼, 샤프츠
버리 백작 (Ashley, Anto-
ny Cooper Earl of Shaf-
tesbury)(1801—1885)——
②58, 59, 415.

III.

에드워드 3세(1312—1377)132
7년 이래의 왕——①135,

389, ②742.

에드워드 6세(1537—1553)154
7년 이래의 왕——②494,
495.

에벤프레트(Everet)——② 79.

에슈웨게, 윌헬름 루트비히
(Eschwege, Wilhelm
Ludwig)(1777—1855)——
①54.

에피쿠르 (Epikur)(기원전 34
1—271)——①85.

에카제리나 2세(1729—1796)
1762년 이래의 여제(女
帝)——②424.

에이킨, 존 (Aikin, John)(17
47—1822)——②303, 304,
516, 527, 528.

엔서, 조지 (Ensor, George)
(1769—1843)——②734.

엘리자베스 (1533—1603), 15
58년 이래 여왕——① 39
0, ②476, 495, 499, 501.

엘베헤우스, 클로드 아드리앵
(Helvetius, Claude Adri-
en)(1715—1771)——②32
5.

엥겔스, 프리드리히 (Engels,
Friedrich)(1820—1895)
——①29, 35, 44, 47, 5
4, 56, 105, 107, 109, 1
14, 115, 122, 125, 132,
134, 135, 141, 151, 160,
193, 200, 202, 214, 232,
273, 305, 340, 347, 361,
364, 384, 419, 434, 445,
513, ②25, 37, 40, 72, 75,

82, 102, 111, 157, 179,
180, 197, 198, 216, 320,
340, 348, 350, 357, 380,
384, 479, 534.

가.

윌리엄 3세 오란예의 (1650—
1702), 1689년 이래 왕—
②479.

윌리엄 4세 (1765—1837), 18
30년 이래의 왕—①416.

윌슨, 제임스 (Wilson, James)
(1805—1860)—①324, 4
89.

윌크스, 마크 (Wilks, Mark)
(1760—1831)—①514.

윌트, 양 드 (Witt, Jan de)
(1625—1672)—②335, 5
24.

나.

왓트, 제임스 (Watt, James)
(1736—1819)—②7, 9,
10, 16, 20, 25, 159.

다.

워드, 존 (Ward, John)—
①382.

월레스, 로버트 (Wallace,
Robert)(1697—1771)—
①507, ②335.

월프, 크리스티안 (Wolff,

Christian) (1679—1754)
—②325.

월프, 월헬름 (Wolff, Wil-
helm) (1809—1864)—
①추표지.

윌슨, 존 퀼브스 (Watson,
John Forbes) (1827—189
2)—②30.

윌쓰, 존 (Watts, John) (181
8—1887)—②242, 246.

데.

웨스트, 에드워드 (West, Ed-
ward) (1782—1828)—
② 182, 210, 232, 233.

웨일랜드, 프랜시스 (Wayland,
Francis) (1796—1865)—
①232, 294.

웨이드, 존 (Wade, John)(1788
—1875)—①345, 390,
②238.

웨이크필드, 에드워드 깁본
(Wakefield, Edward Gib-
bon)(1796—1862)—①3
85, 469, ②222, 287, 413,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67.

웰링튼, 아서 웰레스레이 (Wel-
lington, Arthur Welles-
ley)(1769—1852)—①175.

웬지우드, 조시아 (Wedgwood,
Josiah)(1730—1795)—
①382, 387.

칼 맑스
자 본 론 편집 최 영 철

발행소 조선 로동당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평양 시

문선회부 1956년 8월 2일
인쇄회부 1956년 11월 21일

7-30240

발행 부수 20,000부

(값 137 원)